半萬年韓國歌史



[해제]

<반만년한국가사>는 '반만년한국가사'에 수록된 작품으로 국한문 혼용표기로 실려 있다. 이 가사의 내용은 고조선에서부터 5 · 16까지의 우리나라 역사를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읊은 것이다. 이 가사는 방대한 분량으로, 단군 · 삼한 · 기자조선 · 위만조선 · 고구려 건국과 멸망 · 발해 · 백제 건국과 멸망 · 신라 건국과 멸망 · 후백제 · 태봉 · 가야 · 탐라 · 삼국문화 · 고려 건국과 멸망 · 조선의 건국 · 세종대왕 · 단종사화 · 연산군과 중종반정 · 임진왜란 · 광해군과 인조반정 · 병자호란 · 대원군 · 고종황제 · 명성황후 시해사건 등 우리나라의 옛 역사와 아관파천 · 갑신정변 등 개화관련 내용 그리고 동학혁명 · 일제시대 · 원자폭탄과 광복 · 건국과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 · 사일구 혁명 · 오일육 군사 혁명의 순서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가사를 보면 대한민국의 오일육가지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알 수 있다.

[원문]

附 新式慶吊文例

半萬年韓國歌史

附 新式慶吊文例

半萬年韓國歌史

自 序

오늘날 우리民族을 形成하게된 우리의 祖上은 果然 어느 때
어듸로부터 始作되였으며 또 어떠한 生活狀熊로써 어떻게 發
展되였으며 또 어떠한 發展課程으로서 今日에 이르렀는가
過去의 우리의 史觀을 一督하건대 檀君以後 三國時代 初期까
지의 二千餘年間은 人智의 未發達로 其文献이 不分明하고 三
國時代를거쳐 高麗末까지의 一 千五百年間은 그史筆이 微弱하야
考憑이 至難하며 李朝朝에 이르러서는 밖으로는 事大主義的思
想이 沒頭되고 안으로는 國難과 朋孚으로 말미아마 史筆의
正草에 制壓을 當하고 韓末로부터 日帝受難期의 半世期동안은
異民族에게 被壓되여 우리의 歷史는 檀君始祖의 創業以來 悠
久半萬年間 禮儀와文化의 燦爛한歷史는 큰受難을 겪고 있었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民族의 正確한 歷史를찾기에 古今을通해서
우리나라 史學家로써 研究의 若心과 甚至於는 擱筆家도 많었든 것이다
옛날부터 巷間에 떠도는 歷史 歌記 實記 野談 逸話等 刑行物을
가장 옳게녁여 斷片的으로 이를 信憑하는 분이 있다면
이는 큰잘못이라고 生覺하는 바이다
著者는 이에 對峙한다느니 보담 民族에게 가장 올바른

歷史를 自身이 아는대로 千先 우리나라 古典的興味를 돋우기爲하야
閭巷의 匹庶라도 알기쉽도록 살(肉)을버리고 뼈(體)를 추려서
歌詞体로 엮어歷史의 趣味를갖인 同胞諸賢앞에 發行頒布 해서
國史材料研究上 多少나마 도음이될것을 企待하는바이나
但只識茂所致로 史規이 愚劣하고內容이 貧弱하고 文向이
妄掘하옴을 讀者僉賢의 匡正을 另加하시기 바라옵고 未備限點과
過誤된部分은 後日 版을다시할때 增正코자 하는바이다
끝으로 附錄에 慶賀 吊慰等 文例를荒辭 蕪述을 무릅쓰고
卷末에 添付하야 僉賢의 小考에 供코자하오며 特히 本歌史編述中
權秉碩同志의 寄稿에 感銘을 드리옵고 發行에 絶對的 努力이많은
朴基烈君에 깊이 感謝하면서 이序文을진다
檀紀四二九六年六月二十九日
著 者 識
發行에 즈음하여
이冊은 半萬年間 우리나라 歷史를 綜合하여 正確하고 알기
쉽게 興味的인 歌詞体로 엮어놓은 것입니다 바쁘신 틈을
타서라도 한번식 읽어보시면 國史常識에 큰도음이 될것이라 믿는바입니다
이미 漢陽五百年歌를 보신분은 李朝五百年間 內容事蹟이 다르다고
論評하실지 몰으는바이나 그것은 興味本位로 엮은冊子이므로
正史와는 相當한 差異点이 있으므로 그릇된 史蹟을 잃고
거기에만 마음이 휩쓸린 까닭이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恒常 옳바른 史記를 探究하여야하며 册張과같이
넘어가는 歷史를 正許할 頭腦도 갖어야 할것입다 江湖諸彦은
이册子의 內容이 歷史의 실머리가 委申이없이 直筆正設한
史册으로서의 正確한 論評을 加한것이며 卷尾에 添付된 附錄은
僉彦의 日常要用에 參考材科인바 愛讀批評을 하여주시기
바라마지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踰月經歲하야 竹牕松燈에서 册子著述에 勞苦하신
金甲錄氏를 비롯하야 權秉碩氏의 取稿協助에 對하여 衷心으로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檀紀四二九六年六月三十日
發行者 謹識

半萬年韓國歌史 目錄
檀君朝鮮의 創國 一
天下의分裂과列國의創建 二
箕子朝鮮과衛滿朝鮮 三
漢四郡의說置와三韓의併立 三

高句百濟의의勃興 四
樂浪의 收復과佛教의傳來 六
薩水大捷과安市城大捷 七
高句麗滅亡과渤海의興起 八
百濟의勃興 九
百濟의滅亡 一二
新羅의勃興 一二
甄萱弓裔耽羅 一六
新羅의滅亡 一八
駕洛 一八
高麗의興起 一九
李資謙乱과妙淸의乱二二
文武軋轢과崔忠 献남의武斷政治 二三
三別抄의乱 二五
紅巾賊의掠 二七
高麗의滅亡과高麗杜門洞 三一
李氏朝鮮의創業 三一
世宗大王과訓民正音 三七
端宗遜位와世祖의簒立 三八
燕山朝의三大士禍 四七
中示의反正 四八
四色黨争 五二
壬辰倭乱 五三
李舜臣將軍과閑山大捷 五四
仁祖反正甲子适乱六〇
仁祖丙子胡乱 六二
洪景來乱 六八
民乱의擴大 七〇
大院君의報政 七一
丙子修好條約壬午軍乱 七二
甲申政變과甲午東學乱 七四
淸日战争과甲午更張 七五
乙未事變 七五
大韓帝國獨立宣言 七六
目錄
乙巳保護條約 七六
海牙密使事件과高宗의傳位 七七
安重根義士의義擧 七七

韓日合併 七八
三.一 運動과六.十萬歲事件 七九
祖國의光復 八一
大韓民國政府樹立 八二
麗順叛乱事件 八三
六.二 五事変 八三
反共捕虜釋放 八四
四. 一 九 學生革命 八四
五. 一 六 軍事革命 八五
李朝官制表(特輯) 八六
附錄
一. 慶賀門
가. 結婚祝辞 一
나. 書翰(新査間往復文) 二
다. 婚書例(附笏記請牒狀) 六
二. 吊慰門
가. 吊辞 八
나. 祭文 八
다. 輓章 二六
三. 祝文門
祝文(附立石全祀時笏記) 二七
四. 喪具圖 三二
五. 單子言例 三二
六. 執事分定記 三三
七. 紙榜쓰 는法 三三
八. 陳設圖 三三
九. 服制 三四
一○. 祭禮順序 三六

반만년한국가사(半萬年韓國歌史)
어화대한 사람들아 이가사를 살펴보소
이가사를 보게되면 반만년의 대한사적
흥망성쇠 여긔있고 허다하온 문화예술
정치변혁 도덕문장 내외전란 충효의열
소연하게 알수있네 아득한 그옛날에
태백산 단목아래 신인이 강생하사
신웅씨와 결혼하여 단군님을 낳으시니
국민들이 바뜨러서 임금으로 뫼시었네

국호는 조선이오 도읍지는 평양일세
이때가 어느때뇨 당요二十 五년이요
무진十월 三일일세 해마다 이날맞어
개천절로 정했도다 신화로 전한역사
믿을수야 있으랴만 천제되는 환인씨의
서자되는 환웅씨가 만인간을 건지고자
천부인 세게로써 三千제자 거느리고
지금의 묘향산에 신단수하 나리시어
천왕이라 일커르고 풍백과 우사로써
비바람을 다스리고 곡식과 수명장단
선악을 정한후에 백성을 다스릴제
이때마츰 토굴속에 호랑이와 곰이살어
신시천왕 환웅씨께 인간되기 원함으로
각기약을 주었드니 三十七일 지낸뒤에
곰은그만 사람되고 정성이 부족해서
호랑이는 못되였네 그곰이 신웅씨라
여자몸이 되었으매 환웅씨와 결혼해서
아드님을 낳으시니 이가곳 단군이라
단군님이 건국하사 三백六十 여가지의
정령을 배풀어서 나라를 다스리되
왕자셋을 명령하사 삼랑성을 쌓게하고
강화명 마니산에 제천단을 설치하야
제천식을 거행하사 인간윤리 밝히시고
국상팽오 시키시어 산천도로 다스리고
태자부루 보내시와 도산에서 하우씨와
옥백을 교환하고 외교를 처음했네
모든신하 명령하사 의식주택 마련하고
농사와 가무이며 방적과 수렵등에
모든일을 결정지어 나라기초 굳게했네
단군님은 덕화로써 二백수十 년간이나
임금으로 계시다가 아달산 신이되니
그자손이 뒤를이어 一千여년 치국트니
나라가 쇠약함에 열국이 이러나다
만주땅 동북부엔 숙신이 이래나서
영고탑에 도읍하야 지방이 수千리요
지대물박 하였으나 풍속이 순후하고
중국과도 몇번이나 사신을 교환했네
만주땅 서북부엔 부여국이 이러나서

개원에 도읍하야 흑룡강을 경계하여
二千여리 지방으로 토지가 평활하다
사람들이 용맹하여 싸음을 즐겨하며
그후의 부여국은 해모루가 임금되여
사람됨이 용감하야 숙신을 정복하고
만주를 통일한후 해삼위에 천도트니
종실에 해모수가 반란을 이르켜서
북부여를 창건하고 천제자라 자칭한후
그부하의 한사람이 졸본부여 또세우니
판도가 삼분되매 왕명이 부진트니
백두산 동북부엔 옥저국이 이러나서
千리땅을 차지하고 강원도 동북부엔
예맥이 이러나서 강릉춘천 중심해서
승시로 봉 긔하고 한강수 남쪽에는
삼한이 분립되고 평안도 지방에는
기씨조선 이러나서 열국의 혼란중에
기씨만은 강성해서 단군자손 몰아내고
一千二백 十二년에 기자조선 창건하니
국호매양 조선이오 도읍역시 평양이라
기자임금 어떻든고 은나라의 왕족으로
은왕주가 무도하야 그나라를 하직하고
五千여명 거느리고 조선으로 망명하야
단군조선 뒤를이어 임금이 되은후로
시절이 태평하고 인문이 발달되여
팔조교를 배풀어서 세가지만 전해오니
사람을 죽인자는 목슴으로 대신하고
도적질을 행한자는 곡식으로 배상하고
부여자를 음간하면 신역으로 벌주었네
기씨조선 창국후로 四十대를 내려가서
기부왕이 등극하여 十一년간 재위타가
아들에게 전위하니 그아들이 준왕이라
재위二十 八년만에 위만에게 쫓겨나가
기씨조선 창업후로 九백二十 九년만에
기씨조선 망했구나 위만이란 누구든고
연나라 사람으로 千여명을 거느리고
조선에 망명커늘 기준왕이 사랑하야
박사관을 재수하고 백리명을 나누어서
주어신을 삼었드니 一조에 모반하여

왕검성을 쳐들어와 기준왕을 쫓아내고
자칭임금 되온후에 그의손자 우거왕때
한나라의 섭하사신 위만사신 비왕장을
국경까지 유인하야 암살을 하오므로
우거왕이 분을내어 사신을 또보낸후
무도한 한나라의 섭하사신 버혔드니
한나라또 분계하야 몽손수를 대장삼아
五만병력 거느리고 위만을 치려오니
우거왕의 친솔사병 한나라와 상승상부
二년이나 싸우더니 위만부하 니계상삼
한나라에 항복한후 우거왕을 죽이거늘
충신성기 혼자싸워 한나라에 대항터니
승세를 당치못해 성기마자 죽어지니
三대八十 여년만에 위만조선 망한뒤에
한무제의 소위보소 위만땅을 분활하여
낙랑임둔 진번현도 사군을 설치하니
낙랑은 어데든고 황해평안 지방이오
임둔은 어터든고 경기강원 양도이며
현도는 어데든고 간도함경 등지이며
진번은또 어데든고 요동지방 이아닌가
한사군을 설치한후 한나라의 관리들이
임의로 짓밟고서 권리행사 난폭키에
국민들이 불복하고 반항운동 이르키니
한소제때 내려와선 임둔을 파하여서
낙랑에 병합하고 진번을 파하여서
현도에 병합한후 평주동부 도독부의
이부로 고쳤으니 그후에 우리민족
더욱굳게 단결하야 삼군을 탈환하고
낙랑만이 남었드니 고구려 미천왕때
낙랑마자 쫓겨나서 뿌리빠저 떠난지가
四백二十 一년이라 위만에게 쫓겨나간
기준왕은 어이됬나 수천명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기씨마한 세운후에
진한변한 지배하며 五十四후 거느리고
수千리 지방으로 민호가 十만여로
물산이 풍부하다 진한은 어데던고
경상북도 지방으로 경주에 도읍하야
十二후로 다스리니 민지가 발달하고

통상이 성행하다 변한은또 어대든고
경상남도 등지로써 김해에 도읍하야
十二후로 난우우고 민심이 순박하며
예절을 숭상하나 국력이 부족해서
마한의 지배받네 옥저국은 어이됐나
동북으로 분열하야 숙신의 침약으로
위만에게 귀부되고 예맥또한 미약하야
한무제에 항복하고 삼한이또 어지러워
천하가 혼란하니 북방의 부여국은
고구려 건국까지 三十여년 어지럾고
중부지방 마한에는 위만조선 멸망후로
백재건국 될때까지 九十년간 분주하고
남부지방 진한에는 신라건국 그시까지
二十여년 어지럾고 경남지방 변한국은
가라국이 설때까지 백년동안 난세로다
천하가 분주하니 백성은 도탄이라
창천이 냉휼하사 사대성인 낳으시니
화란을 삭평하고 천하를 구제하네
신라국을 창건하신 박혁거세 으뜸이오
고구려를 창업하신 동명성왕 제일이오
백재국을 창립하신 온조왕도 장할시고
가라국을 세우섰든 수로왕도 놀낲도다
신라백제 가라두고 고구려사 들어보소
놀낲도다 동명성왕 고구려의 창업주로
성은고요 휘는주몽 북부여의 임금이신
해모수의 아들로써 동부여 금와왕의
의자가 되었드라 기골이 장대하고
七세에 성인되다 동부여의 신하들이
싀긔하여 해치거늘 고주몽의 거동보소
심복부하 거느리고 남쪽으로 망명갈제
엄호수를 얼는건너 모둔곡에 도착하여
재사와 무골같은 어진신하 얻은후에
단기二二 九七년에 임금위에 나아가서
국호는 고구려로 졸본성에 도읍하니
그때춘추 二十二라 재위한지 十八년에
치정도 장할시고 四방에서 문풍하고
래부한자 기만이라 동명왕이 빈천하고
그의아들 유리왕이 뒤를이어 즉위한후

졸본성에 있든서울 국내성에 옮긴이후
三十六년 재위중에 나라를 선치하니
대강국이 되었더라 삼대임금 대무신왕
재위二十 六년이오 四대임금 민중왕은
재위불과 四년이오 五대임금 모본왕은
재위함이 五년이오 六대임금 태조왕은
모본왕의 종숙으로 재위九十 三년간에
영걸주로 이름났네 부불로와 을지두며
달가같은 현신맜나 정사를 밝힌후에
무력이 떨쳤으며 부여를 정복하고
옥저를 병합한후 예맥도 병탐하야
국토를 넓혔으니 흑룡강이 국경됨이
이때의 일이로다
七대임금 차대왕은 태조왕의 아우로써
재위한지 十九년간 천성이 잔악하여
어진신하 고복장을 역율로 치죄하고
소인에게 정권매겨 국정이 혼란트니
대혁명이 이러나서 차대왕을 물리치고
신대왕을 영립하니 착하기로 요순같다
죄인을 크게노코 어진신하 가려써서
국정을 회복하니 한나라가 침로해도
이것을 막었구나 신대왕의 뒤를이어
고국천왕 즉위하니 희세의 현군으로
문치에 뜻을두어 좌가려를 버힌뒤에
란신을 징계하며 압록강변 좌물촌에
숨어서 밭을가는 을파소를 불으시와
국상을 삼은뒤에 진대법을 반포하고
백성을 구휼하며 재위한지 十八년간
고구려 역사상에 최성긔를 이루었네
고국천왕 빈천한후 셋제아 우 산상왕이
뒤를이어 즉위하니 위인이 불칙하야
형수우씨 잠동타가 형의발기 대로하야
분란을 일으키다 발기도로 태망하나
산상왕이 무사함은 을파소의 덕이로다
산상왕이 빈천후에 동천왕이 즉위하니
한나라가 망한뒤에 삼국이 이러나다
위나라가 강성하야 고구려에 침로하네
동천왕이 분로하야 군사를 이르키여

서안평을 쳐부시고 패하를 점영하니
위나라도 분을내여 모구검을 대장삼아
十만대병 거느리고 국경에 침로함에
왕이직접 출전하여 양백곡서 대첩하나
적을너무 경시하여 압록강서 도로패해
그당시 서울이든 환도성이 함락됨에
국민이 당황터니 밀우의 결사대와
육유의 책략으로 적장을 잡은후에
적군을 대하하니 이로부터 두나라가
대대원수 지었도다 동천왕이 빈천하니
중천왕이 뒤를이여 즉위하든 그해원년
평양으로 도읍옮겨 위나라와 또싸워서
위나라의 병졸들을 八千여명 잡았구나
봉상왕이 즉위하여 재위한지 十四년에
진나라와 싸우다가 대승하여 돌아오나
위인이 무도하야 어진달가 죽인후에
왕제졸고 또죽이고 간악함이 그지없다
궁실을 증축타가 국고가 탕갈됨에
정승되는 창조리가 간하여도 않들으니
제신들의 의론끝에 봉상왕을 내친후에
졸고아들 을불이를 임금으로 내세우니
이가곳 어진임금 미천왕이 이아닌가
미천왕이 즉위한후 정사를 게혁하고
낙랑을 수복한후 진나라와 싸울때에
그의장수 장통으로 영지에서 쫓아내고
반거하고 지나세력 근본적 모라내서
미천왕이 빈천하니 고국원왕 즉위하여
싸움만은 좋아하나 자로태해 원통하다
요동지방 부근에는 연나라가 세로생겨
四만명의 대군으로 우리나라 침로하니
싸우다가 도로패해 환도성이 함락되여
二만여호 타버리고 인물재화 뺐어가니
그아니 원통하랴 그뒤에 백제와도
싸움타가 패했으니 재위한지 四十년간
숫한싸음 하엿으나 이겨본일 한번없고
백전백패 절통하다 十七대의 소수림왕
뒤를이어 즉위하니 어질기도 유명했네
학문을 장려하고 법율을 제정하며

즉위원년 六월에는 지나땅 부진에서
불교를 전해와서 사찰을 처음짓고
부도순도 맞어들어 교리를 선전햐니
이때가 단기로선 二千七百 五년이라
소수림왕 죽은뒤에 그의아우 고국양왕
八년만에 빈천하고 그의아들 광게토왕
十八세에 즉위하니 연광은 어리오나
희세의 명군이라 즉위한지 二년만에
수륙군을 동원하여 백제를 공벌하야
五十八성 았었으니 백제임금 아신왕이
또처올가 겁을먹고 인질로 왕자보내
조공을 바쳤으며 신라도 위축되여
후원있기 애원하고 일본병도 무찌르고
거란도 정벌하고 연나라 평주정벌
위풍이 대진했네 그의아들 장수왕도
부왕의 위풍받아 국경을 게척하고
위송과는 강화맺고 백제를 공벌하여
게로왕을 죽인뒤에 신라땅도 있었구나
大대를 지내와서 영양왕이 즉위하니
지략도 놀납시고 중흥에 명군일세
이때마츰 수양제가 대지나를 통일한후
반도흡수 뜻을품고 二十二년 정월달에
우문술로 대장삼아 三十만병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로커늘 을지문덕 인솔병력
평양성에 적을몰아 살수에서 대전하여
적군을 무찌르니 살아서 돌아간자
겨우二千 七百이라 이것이 이름놓은
살수대첩 이아닌가 그뒤에도 수양제는
분통함을 목익이여 해마다 침로하되
올때마다 패주했네 영양왕이 빈천한후
영유왕이 즉위하니 수나라가 망한뒤에
당나라가 일어나다 영유왕의 수단으로
당나라와 화친맺고 장성을 축조하고
불교를 흥왕시켜 문화를 숭상하고
일대영웅 연게소문 진취주의 주창함을
영유왕이 말유하니 연게소문 거동보소
영유왕을 죽인이후 반대파를 전멸하고
보장왕을 세위두고 병권을 잡은후에

당나라를 정벌코자 만반게획 가춘중에
마츰이때 당나라의 사신이 들어와서
임금에게 불경함을 연게소문 분을내어
그사신을 버혔드니 당태종이 대로하야
보장三년 四月달에 四十만명 거느리고
친히처서 들어오니 연게소문 솔병하야
요동반도 들어가서 六게월간 대혈전에
막승막부 불분터니 안시성에 이르러서
육탄혈우 두달동안 장기전을 계속트니
용맹있는 양만춘이 적군을 대파하고
당태종의 눈을쏘아 부상을 잎였으니
이것이 이름높은 안시성 대첩일세
보장왕 十六년에 당나라가 분계해서
고구려에 침로하나 또한패해 돌아가고
이듬해 동지달에 당나라또 이러나서
석성적리 침로하매 우리장수 마주싸워
대승하야 돌아오니 그후에 당나라는
신라군과 연합하야 고구려에 침노하나
백전노장 소문군에 대패하고 돌아갔네
그럼에도 고구려는 국운의 불행인가
일대명장 연게소문 병들어 죽은이후
그의아들 남생남건 형제서로 다투드니
남생은 남소성서 당나라에 귀부하고
소문아우 연쟁토는 十二성을 이끌고서
신라에 자복하니 라당의 연합군은
몇번패한 원한으로 천재일우 복수코자
고구려를 쳐들온다 신라명장 김인문라
당나라 이세륵의 연합군의 들어와서
평양성이 함락됨에 고구려가 대패하야
원통하게 망했으니 二十八대 七白五년
一조에 허사로다 용감한 유민들은
망국한을 속에품고 보장왕의 외손되는
안승을 추대해서 님금으로 세운뒤에
고국회복 노력하나 그것마자 내란으로
뜻과같이 못되였네 고구려가 멸망한뒤
당나라의 설인귀가 二만병력 거느리고
평양에 유진하니 四군이 떠난뒤에
다시외권 침노한다 그후에 대조영이

고구려의 유장으로 고국을 회복코자
당나라와 싸울때에 천문령서 대승하고
만주일대 점령한후 동모산에 정도하고
나라를 세웠으니 국호는 대진이오
五千리 지방으로 편호十여 승이로다
병력이 수만으로 위세있는 대국이라
이때가 어느때뇨 단기三千 三十二년
고구려가 망한이후 三十二년 봄이로다
대조영의 거동보소 태조라 자징하고
十五년엔 국호또한 발해라 고친이후
六년가서 병사하니 그의아들 무왕또한
희세의 명군으로 사이가 굴복터니
무왕이 죽은뒤에 문왕이 세습하여
상경동경 두번이나 도읍지를 옮겨가며
영토를 확창하여 최성기를 이루니라
문왕이 죽은뒤에 아우원의 즉위하여
국인에게 피시되고 그다음에 여러임금
성왕강왕 정왕희왕 간왕이 즉위하여
무사태평 지내든중 선왕인수 즉위하여
북방으로 출병하야 경우를 대게하고
관제정비 병제게혁 문물제도 가춘후에
五경과 十五부와 六十二주 제정하니
해동성국 엄연하다 제위불과 十여년에
대중흥을 이루었네 선왕은 누구든고
야발의 현손이라 야발은 누구든고
대조영의 아우로다 그후에 건황왕때
국제가 쇠약트니 十三대의 경왕때와
위게왕의 치세거처 十五대의 애왕시대
몽고야율 아보기가 발해국에 침입하여
국로상경 함락한즉 발해애왕 출항하니
태조이래 十五대에 二百二十 六년으로
발해국이 멸망했네 발해의 유민들은
고국회복 운동으로 시시처처 봉기하나
천운이라 할수없네 로서아의 연해주와
남북만주 넓은벌판 우리나라 고토거늘
이로부터 다른민족 반거지가 되여있어
지금까지 퇴숙하니 원통하기 한이없네
발해사기 그만두고 백제역사 들어보소

흥망성쇠 비슷하다 백제시조 온조왕은
고구려의 시조되는 동명왕의 아들로써
이모적형 우리태자 마음서로 맞지않어
동복형인 비류함께 그의모친 뫼시고서
심복신하 거느리고 남순하여 내려올제
북악산에 이르러서 각거지를 망점트니
비류는 인천으로 미추홀국 세위있고
온조는 혼자남아 위례성에 들어와서
국가를 창건하니 천험지리 구비하다
처음국호 십제러니 백제로 고친이후
단기二三 一六년에 백제시조 온조왕이
이때처음 창국했네 재위四十 四년동안
이덕치민 하오므로 마한이 복종하여
백리땅을 할양하고 형님되는 비휴왕이
마츰또한 병몰함에 그나라 백성들이
백제때 귀순하고 낙랑을 물니친후
말갈을 멸합하고 남한산에 도읍하니
남방에 대국일세 온조왕이 병몰하니
다루왕이 즉위하다 신라국과 인접하리
신라백제 싸움잦어 다루왕十 五년엔
청주를 점령하고 신라국 탈해왕라
회맹을 청했드니 신라왕이 불청함에
이로부터 틈이생겨 치열한 큰싸움이
四十년간 계속되다 다루왕의 뒤를이어
기루왕이 즉위하니 어질고도 착하여서
신라와 강화하고 재위五十 二년간에
국경지대 태평했네 四대의 개루왕도
정사를 밝힌이후 재위한지 五년되어
북한산성 처음쌓어 외적을 방비하고
태평을 구가했네 개루왕 三十七년
신라 반적 길선이가 망명차로
반적길선 잡어달라 신라청원 불응하니
신라의 아달라왕 대군을 거느리고
변성을 처들오다 군량이 부족하여
백제와 대전타가 퇴군하여 돌아가니
라제의 백년전쟁 이로부터 시작되네
하고만날 싸음으로 두나라가 무익하고
피패해질 뿐이로다 개루왕의 죽은뒤에

초고왕이 뒤를이여 四十八년 병몰하고
구수왕이 즉위하야 二十一년 재위하고
사반왕이 즉위하자 一년에 패립되고
고이왕이 즉위한후 공복제를 제정하야
민심을 선도하고 왕인을 비롯하여
여러학자 뽑아내여 일본으로 파견해서
문학을 전해주니 일본임금 누구든고
오신댄노 그시대라 九대의 책게왕과
十대의 분서왕과 十一대의 비류왕과
十二대의 계왕등이 모다현히 내려와서
근초고왕 즉위하니 철질이 명군으로
국세가 중흥되고 그의아들 근구수왕
九년만에 돌아가고 침유왕이 뒤를이어
지나땅 동진에서 불교를 전해와서
한산사를 창립하여 불교를 전파했네
침유왕의 뒤를이어 진사왕이 즉위하여
十五세 이상자로 국방군을 창설하고
그의아들 아신왕은 일본과 화친맺고
고구려와 싸우다가 몇번이고 패했으며
十八대 전지왕과 十九대 구이신왕
양대를 지내와서 비유왕이 즉위하여
송나라와 교빙하고 신라와 화평터니
二十九년 왕이죽고 개로왕이 즉위하여
북위에 치서하되 고구려왕 연이
죄영적악 하야 민서가 붕리라
풍족지사 마는 유조축지 연하고
낙랑지 제군은 회수구지 심하니
청벌 고구려라함에 위주가 부종하니
부도승 도림이가 고구려의 밀지받고
백재에 들어와서 거짓으로 항복하고
개로왕을 꾀이여서 화려한 설비로써
궁실을 증축하고 성을다시 쌓게하되
옹기로써 하게하니 국가제정 탕진됨에
국세가 위급함을 도림이가 도로가서
고구려에 고했드니 고구려의 장수왕은
한성을 포위하고 왕을묶어 죽인후에
남북성을 공취하니 문주왕이 즉위하여
웅진으로 천도하다 탐라국이 래공터니

좌평해구 왕을죽여 삼근왕을 영립한후
목두성서 반거커늘 해구를 죽인이후
재위불과 二년만에 삼근왕이 빈천하니
동성왕이 즉위하여 三년에 말갈군이
한산성을 습파하고 신라병과 합세하야
고구려의 침노함을 모산성서 격파하고
十六년에 고구려가 치양성을 포위함에
신라군과 연합으로 적군을 대파했네
무영왕때 내려와서 오경박사 단양이를
일본에 파견하야 유학을 전파하고
二十六대 성왕임금 무영왕의 아들로써
재위三十 一년동안 일본과 인연깊어
오고가고 남긴사적 지금까지 소연하다
사자로 천도하고 남부여라 국호고쳐
모시를 전래하고 이웃나라 일본으로
불교를 전해주고 일본병을 청원하야
신라국을 침노타가 신라명장 김무력에
붓뜰리여 죽은이후 그의아들 위덕왕은
四十四년 재위하고 혜왕법왕 뒤를이어
모다재위 一년이요 살생을 엄금하고
수렵기구 불살으다 三十三대 무왕임금
四十一년 재위간에 천문역학 연구한후
일본으로 전해주고 왕자를 당에보내
국학을 연구하고 무왕이 죽은뒤에
의자왕이 즉위하여 고구려와 합세하야
신라땅에 침입하야 四五十성 공취하니
신라태종 무열왕은 내정을 정돈한후
당나라의 후원으로 백제를 치려오네
당나라 소정방은 十三만의 대군으로
백재국의 인후되는 덕물도에 상륙하고
신라명장 김유신은 五만병력 거느리고
탄현을 얼른넘어 사자성에 육박하니
호탕한 의자왕은 국정은 불고하고
주색에만 음란하며 간신들에 매혹되여
충신열사 다죽이니 종묘사직 위태롭다
좌평성충 간하기를 라당군은 강적이라
경시함이 불가하니 용사를 뽑으시와
요로에 지키옵고 당나라의 병정으로

지벌포를 못넘도록 신라의 병졸로써
탄현을 못넘도록 일부가 창을들면
만명을 대적하리 이렇다시 충간해도
돗지않고 가뭤으니 애닯도다 의자왕아
국운이 한이로다 충용장군 개벽이는
五千명의 결사대로 十九년 七월九일
황산벌판 넓은들에 라당대군 막어내니
충의강계 개백장군 천만고에 명장이라
황산결전 출병할때 처자목을 손수버혀
七百년의 종묘사직 함께죽자 맹서하고
혈전한지 十여일에 연합군을 대살터니
중과부적 어이하리 장군마자 전사하고
웅진성이 함락됨에 백제가 망했구나
의자왕과 왕자들이 라당군에 항복하니
슬프다 의자왕아 온조왕의 이룬터전
三十대로 내려와서 六百七十 八년만에
의자왕때 망했구나 이때기원 언제련고
二千九百 九十三년 의자왕과 왕자넷은
김인문에 생포되여 당나라로 잡혀가고
三千궁녀 나인들은 망국한을 슬퍼하여
백마강 절벽에서 낙화펄펄 떨어지니
千년지낸 오늘까지 낙화암이 이름났네
당나라의 군사들은 사자성에 유진하야
三十七군 난누어서 五도독부 설치하매
백제유신 분계하여 一년지낸 정월달에
왕자풍을 추대하여 독립군을 이르켜서
三년이나 싸우면서 二百여성 수복트니
내홍으로 패망하니 백제사기 그만이라
신라사기 자세보소 신라시조 혁게세왕
이상하게 탄생하다 임자三월 초일에
경주라정 우물가에 서긔가 영롱하며
백마가 소리치고 조수가 춤을추니
천지가 진동하고 일월이 광명커늘
고허촌장 소벌공이 그곳까지 다다르니
한게의 알속에서 옥동자가 탄생하매
소벌공이 수양터니 차차장성 하여가매
성덕이 구비커늘 이때마츰 육부촌에
군장이 없음으로 갑자四월 十五일에

임금으로 추대하니 이때겨우 十三세라
서라벌이 국호되고 금성이 왕도되며
거서간이 왕호로다 그의왕후 알영씨도
덕망이 겸비함에 이성이라 존경하다
농잠을 장려하고 교육에 힘을쓰니
천하가 화평하고 문화가 발달되여
열국이 추앙하고 외적침노 별로없어
태평성대 이때로다 六十년간 재위중에
치적도 놀랍시고 창업하신 六十一년
三월에 승하하니 사릉에 장사하고
왕후능도 한능이라 二대의 남해왕도
재위하여 二十년간 부왕의 뜻을이어
선정으로 다스리되 十년되는 갑술해에
연해변경 침노하는 왜적을 막었다네
二十一년 승하하고 三대임금 유리왕은
三十四년 승하하니 석탈해왕 즉위하다
왕의탄생 이상쿠나 다파나국 왕자로써
란중에 태여나매 바다에 띄웠드니
동해빈에 착륙하매 표모가 수양해서
남해왕의 사위되서 유리왕의 뒤를이어
왕위에 올라가니 이로부터 왕위문제
박석양성 상전되다 四대임금 내려오며
어진성군 계승하고 표공.명선. 윤량이며
길원같은 현신맛나 국정을 보좌하니
국력이 증강하고 인문이 발달되네
왕의九년 추八월에 김씨시조 김알지가
경주시림 수플속에 금궤중에 강생하고
탈해왕의 뒤를이어 파사.지마. 일성같은
어진임금 이어나고 명신들이 집정하여
죄수를 대사하고 창생을 구제하여
인재를 들어쓴다 아달라왕 즉위하니
일성왕의 아들로써 재위하여 三十년에
백제와 싸우다가 패전하여 돌아왔고
벌휴왕을 지내와서 내해왕때 이르러선
백제와또 싸웠구나 조비왕이 즉위하여
왜적침노 물니치고 점해왕을 지내와서
미추왕이 즉위하니 김씨로선 첫왕이라
나라를 선치하고 이로부터 박석금의

삼성이 상전되다 二十三년 재위후에
석유례왕 즉위하고 十五대 기림왕도
석씨로써 十二년간 十六대 흘해왕도
석씨로써 四十六년 十七대 내물왕은
미추왕의 아우로써 四十六년 재위하고
十八대 실성왕도 김씨로써 십五년간
十九대 눌지왕도 김씨로써 四十一년
박재상을 명하여서 일본으로 인지되간
왕제二인 다려오기 일본임금 꾀이여서
왕제둘은 나왔으나 박재상은 일본에서
임금쏙인 죄로하여 엄형국살 당했구나
二十七년 일본군이 독산에 래침타가
불리하야 물러가고 二十대 자비왕도
김씨로써 즉위하야 두번이나 침로하는
일본군사 물니치고 二十一대 초지왕도
김씨로써 즉위하야 네번이나 침로하는
고구려를 격파하고 九년五월 十五일에
천천사에 행행할세 가마귀가 나러와서
편지한장 전하거늘 그글에 하였으되
개견이면 이인사오 불개견 일인사라
이와같이 적혓으매 내전에 분수승이
왕후와 잠통하매 둘을함께 죽인이후
해마다 이날이면 신통한 가마귀의
찰밥으로 제사하여 지금까지 내려오다
二十二대 지증왕은 초지왕의 재종제라
우경을 시 작하고 한자로 나라이름
덕업일신 망라사방 뜻을쫓아 고치이되
신라라 이름짓고 역대임금 추대하여
왕자로 높이이고 왕의시호 처음이라
주즙을 제작하고 관제를 제정하다
상복법을 제정하고 十二성을 구축하여
외적을 방비하니 시조이래 명군이라
十四년에 승하하고 법흥왕이 즉위하여
병부령을 처음두고 율령을 반포하고
공복을 시제하고 이차둔의 순교로써
불법이 공인되며 가라국의 구형왕이
十八년에 래항하다 진흥왕이 즉위하여
거칠부를 명령하야 국사를 편찬하고

十四년 二월에는 황룡사를 구축하며
三十七년 이르러서 화랑제도 창시하여
五계를 마련하니 이효사친 이충보군
이신교우 임전무퇴 살생유택 이것일세
二十五대 진지왕은 三년에 승하하고
二十六대 진평왕은 五十三년 재위중에
일본과 수나라와 당나라와 교빙하고
백제와 두번싸워 대파시켜 물니치고
당나라 궁실에서 모란화가 처음오다
진평왕이 아들없어 여걸선덕 즉위하여
분황사를 이룩하고 九국조공 의미하여
九층탑을 만드시고 첨성대를 건축하니
그범위가 웅대하여 동양최고 천문대라
태평송 二十구를 비단으로 친히짜서
당나라에 보냈으니 신라의 가요시가
이때가 처음이라 재위불과 十五년에
치정도 장할시고 진덕여왕 즉위하여
김춘추가 입당하여 당나라와 화친맺고
백제군의 야습으로 재양산을 함몰함에
시인이 비상하야 양산가를 지으니라
진덕여왕 뒤를이여 김춘추가 선위받어
삼국통일 대공이룬 태종무열 왕이로다
六년되는 하六월에 태자법민 김유신등
당나라 소정방과 백제도성 처들어가
황산원에 대승하고 사자성을 공파한후
백재임금 의자왕과 왕자효태 항복받다
七년에 승하하고 문무왕이 즉위하여
八년되는 그해봄에 통일명장 김유신과
당나라 소정방과 연합군을 이르켜서
고구려를 멸합하여 三국을 통일하니
반도강산 신라차지 동방에 대국이라
문무왕 十四년에 역법을 시행하고
신문왕이 즉위하니 화백재도 없인후에
세습사위 법을제정 무열왕 자손들만
임금되기 마련됐네 十一년간 재위중에
국학을 장려해서 설총을 불러드려
문학을 연구하니 설총은 누구든고
불교에 도통하온 원효대사 아들이라

신문왕의 뒤를이어 효소왕이 즉위하여
자월로 세수하니 양역과세 비슷하다
성덕왕이 즉위하여 장성을 축조하고
효소왕 五년에는 인력을 부용하다
효성왕 二년에는 왕가장사 시작되고
경덕왕 十년에는 김대성을 명하여서
불국사를 건립하고 혜공왕이 즉위하사
十五년에 피시되고 김양상이 자립하니
선덕왕이 이아닌가 이로부터 왕권쟁탈
유혈극이 이러나서 신라사적 더렴인다
원성소성 지내와서 애장왕이 즉위하니
왕위분쟁 이러나서 숙부에게 피시되고
애장三년 八월에는 해인사를 창건하고
숙부언승 자립하여 헌덕왕이 되였구나
웅주도독 김헌창이 문란한 틈을타서
반란을 이르키여 五주를 점영하고
장안이라 국호하고 경운이라 연호터니
관군에 사로잡혀 능지처참 되였구나
헌덕왕의 아우수종 형의위를 앗은후에
흥덕왕이 되였구나 이손제융 소행보소
님금자리 탐을내여 숙부균정 살해하고
흥덕왕을 쫓아낸뒤 자립희강 왕이되여
재위불과 二년되여 권신의 김명이가
희강왕을 죽인뒤에 민애왕이 되였으니
균정아들 우징이는 장보고의 힘을빌려
찬탈함을 허물삼어 민애왕을 죽인뒤에
자립하여 임금되니 신무왕이 이아닌가
왕족간에 골육상쟁 이와같이 빈발하니
국위가 부진하고 민심이 흉흉하다
문성헌안 경문헌강 정강왕이 계속하고
진성여왕 즉위하여 천성이 음탕하매
폐신위홍 사랑해서 임금은 시둥이라
충의직간 역모몰고 만조정엔 간신이라
민정은 도탄이오 왕명은 부진하니
군웅이 봉기한다 진성여왕 五년에는
견훤이가 이러나서 무진주에 근거하여
승시로 난을지어 호남.영남 석권하고
헌안왕의 서자되는 궁예가또 이러나서

영변에서 기병하야 북원에서 봉기하온
양길과 야합하여 한강이북 점거하고
원종과 애로등은 사벌주서 반란하니
원천하가 난리판에 민심은 실신이라
진성여왕 선위받어 헌강왕의 서자되는
효공왕이 즉위하여 十五년간 재위한중
천첩을 사랑하고 정사를 불휼하며
왕이또한 무사하야 국인들이 밧뜨러서
혁거세왕 후손되는 신덕왕을 영립하니
즉위五년 승하하고 경명왕이 즉위하여
七년에 승하하고 경애왕이 대립하야
호방하기 한이없어 포석정에 출유할세
왕의三년 견훤이가 후백재라 일커르고
전주에 근거하고 경주도성 처들어와
경애왕을 죽인후에 비빈종척 음란하고
왕제효염 재신영경 포로로 하여갔네
궁예는 어이됫나 양길을 잡은이후
철원에 정도하고 마진이라 국호하고
무태라 년호터니 태봉이라 다시고쳐
기병한지 二十八년 왕건에게 쫓겨나가
마복으로 망명타가 평강민에 피살되다
경애왕이 피살된후 경순왕이 즉위하니
김문성왕 후손으로 신라국의 말왕일세
견훤에 침로받고 왕건에 겁을내어
영토는 다뺐기고 득인도 못한고로
피흘려 쓸때없다 제신들과 의론끝에
수년이나 지낸사직 고려국에 넘겨주니
충신의사 없었든가 경순왕이 한심하다
고구려가 망할때엔 소문같은 영웅나서
목숨걸고 싸우다가 그나라에 순절하고
백재국을 두고봐도 개백같은 충신있어
결사대를 조직하야 황산들에 싸우다가
나라위해 순절커늘 어찌하야 신라국은
싸음한번 못해보고 千년사직 그나라를
一조一석 넘겨주니 문화예술 쓸곳없고
화랑적신 어듸갔나 애닯도다 경순왕아
신라시조 혁거세왕 성덕으로 나라얻고
중흥시조 무열왕이 무력으로 통일한것

진성여왕 음탕하야 위흥에게 정권매껴
충의지사 다죽이고 경애왕이 호방하야
전세업적 더럽이고 제죽는줄 몰랐구나
충간하든 마의태자 왕의무능 한탄하야
삼배옷을 갈아입고 금강산에 깊이숨어
초근목피 연명하여 한평생을 맞었다네
아마도 조야간에 마의태자 뿐이로다
신라역년 새여보면 박씨는 十왕으로
二백十三 여년이오 석씨는 八왕으로
一백八十 유년이오 김씨는 三十八왕
五백九十 九년이라 모다합쳐 五十六王
역년을 도합하니 九백八十 二년이라
신라사기 마쳤으니 가라국은 어떠한고
三국사이 끼여있어 제일약한 나라로써
변한이 쇠약하야 금관국이 되였다가
一대위인 수로왕이 구간부락 통일하고
경상남도 김해군에 가라국을 세웠으니
전국을 나누어서 五가야로 구분하니
대가야는 고령이오 소가야는 고성이오
아라가야 함안이오 고령가야 함창이오
벽진가야 성주에서 각각으로 도읍했네
수로왕이 거룩하사 백五十년 재위중에
국력이 발전트니 수로왕이 죽은뒤에
거등왕이 즉위하야 五十四년 재위하고
三대의 마품왕은 재위三十 八년이오
四대의 거질미왕 五十五년 재위하고
五대의 이품왕은 六十一년 재위하고
六대의 좌지왕과 七대의 취희왕과
八대의 질지왕과 九대의 감지왕이
四대一백 二十四년 亡亡보존 유전타가
十대에 구형왕은 재위한지 十二년에
세궁역진 할수없어 신라국에 항복하니
十대로 내려와서 역년四백 九十이라
탐라국은 어의든고 지금의 재주도라
한라산 三성혈에 三신인이 출현하니
고을나 부을나와 양을나가 있었스되
때마츰 바다위에 옥함이 떠내려와
三신인이 건저본즉 三여인이 들어있고

구독과 五곡종자 또한옆에 갖었기로
三신인이 물어본즉 벽랑국의 여자로써
이곳까지 왔다함에 三신인이 분취하여
고을나는 임금되서 재주에 거주하고
양을나는 내려가서 대정에 거주하고
부을나는 멀지않은 정의에 거주하여
모라라 국호짓고 자자손손 내려가며
세수번창 하였드니 탐라라고 국호고쳐
고을나 十五세에 고후.고청 두사람이
신라법흥왕 때와서 그길로 항복하고
문무왕때 항복한후 신라가 망케됨에
여태조께 래조트니 고려숙종 때에와서
군으로 고쳤으니 공민왕때 반하거늘
최형장군 토벌하고 이조의 태종때에
정의대정 二현두어 재주목에 관활하다
三국시절 찬란하든 문화사를 들어보소
군주세습 귀족제도 관제를 들고보면
고구려는 국상이오 백재는 좌평이오
신라는 품수있어 내부.병부. 이부이며
조부.이방 사헌부의 六부로 정해있고
종교를 이를진댄 불교가 으뜸되며
유학으로 이를진댄 신라의 최치원과
김인문과 설총이라 고운선생 두고보면
十二세에 입당하여 황소격문 지어바쳐
중원천지 넓은땅에 문장명필 이름높고
예술로 이를진댄 유리왕의 황조가와
진평왕의 북순비와 선덕여왕 태평송이
대표적 명작이오 백재나라 고흥이는
백재사로 유명하고 신라의 거칠부는
신라사로 이름있고 수학으로 이를진댄
대도가 제일이오 명화로 이를진댄
황룡사의 벽화그린 신라솔거 제일이오
명필가로 이를지댄 김생이 으뜸이오
명곡을 말씀하면 고구려의 우수곡과
백재의 산유화곡 신라의 회소곡과
백결선생 방아타령 양산도와 수심가며
그모두가 명작이오 우륵의 가야금과
왕산악의 현학금과 진평왕의 옥대옥저

이것또한 이름나다 왕건태조 창업하신
고려사기 들어보소 태조대왕 처음에는
궁예에게 벼슬타가 궁예가 무도함에
제신들이 물리치고 왕건태조 권진하야
임금위에 추대하다 홍유와 김훤술은
태조에게 권하기를 三한이 분열되고
군도가 이러나니 원하건대 왕건태조
창생을 생각하사 태혼입명 하옵시와
은주지사 행하오서 배현경도 왕을도아
전공으로 재일이오 신숭겸도 유명하다
태조와 견훤이가 공산동수 싸울적에
견훤이 강성하야 왕건태조 포위하고
사세심히 위급한대 신숭겸은 대장으로
태조모양 흡사함에 태조처럼 잡혀가서
견훤에게 죽었으니 고려태조 모피하야
그후에 임금되여 동수싸음 위급할때
신숭겸을 비롯하여 八장군 아니드면
임금지위 어듸있나 이때에 김락장군
김훤술과 전유등의 여덟장수 싸우다가
한시에 순절하니 왕건태조 창업하자
八장군을 생각하여 금은으로 시체지어
후이장사 지낸후에 자손찾어 벼슬주고
신숭겸엔 장절공과 김락에겐 충절공에
김훤술엔 장열공에 전유는 충의공에
각각시호 나려섰네 복지겸과 유금필과
최응등 백여인이 왕건태조 뫼서다가
왕위에 앉혔으니 고려태조 엄연하다
게성에 정도하고 천수라 연호했네
이때기원 언제련고 三千二百 五十二년
신라경명 三년이라 창업하여 첫사업이
민심을 수습하고 인재를 등용하며
규모를 정한후에 공신을 책봉한다
재위한지 二十六년 속국을 병합하고
북방을 개척하야 三한대업 완수하다
혜종정종 치세거쳐 광종이 즉위하야
재위二十 六년동안 선왕의 뜻을받아
박주,영변, 웅주이며 삭주,태천, 가산등의
六진을 설치하여 국경을 다스리니

원근이 복종터라 주송과 친선하여
중국문물 수입하며 공복제를 제정하고
노비의 안험법과 과거법을 창설하야
인제를 등용하며 탐관을 숙청하고
사찰을 대창하야 佛敎를 숭상하다
광종이 빈천하고 경종이 즉위하야
백관의 봉급제인 전시료를 제정하고
六년에 승하하니 성종이 즉위하여
성종또한 현군으로 송나라를 모방하야
三성六부 七사등의 관제를 제정하고
죵묘를 창립하고 五復을 제정하여
예의를 밝힌후에 궁민을 구재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十二목을 설치하고
이학경학 박사두어 청년자질 교육하며
효자절부 표창하야 五륜을 밝힌후에
추밀원을 설치하여 군국대사 고문하니
즉위한지 六년만에 고려사상 처음보는
최성기를 이루었네 이때마츰 거란이가
완악하고 무도하야 고려태조 당시부터
국교내왕 거절트니 十二년에 출병하되
소손녕을 대장삼아 八十만병 내침하니
고려에선 서희장군 적을마저 싸우다가
소손녕과 화의하고 거란병을 안무하니
외교술에 능란하온 서희장군 공이로다
서희장군 그이듬해 조약을 실행코자
여진을 모라내고 八成을 귀화시켜
압록강 동북지대 고려의 판도되니
지방이 넓어지매 구역을 변경한다
관내도와 중원도며 하남도와 영남도며
영동,산남, 강남이며 해남,삭방, 패서등의
十개도로 구분하고 절도사를 둔연후에
四목사와 十五부와 四도호와 五十六군
二十八진 二十현때 一국을 행정하다
그뒤에또 변경하야 양광,교주, 경상,전라
서해도로 주린연후 병마사를 설치하다
十六年에 승하하니 목종이 즉위하여
十二년간 재위러니 김치양의 소행보소
헌애왕후 사통하야 소생한 재아들을

왕위에 올리려다가 강조가 딴뜻있어
치양부자 죽인이후 목종을 또죽이고
형종을 옹립하니 거란의 소행보소
성공못한 원한품고 재침함을 결정하되
적신강조 친다하고 현종원년 十一월에
四十만병 거느리고 경도열읍 짓밟는다
현종은 위급하야 나주,전주 피난가고
거란병은 원로에서 피곤하여 쉬일적에
귀주별장 김숙흥과 순검사 양규등이
적군을 습격하여 二十여만 무찌르니
거란병의 소행보소 제잘못을 몰으고서
패해간것 분히녁어 현종님금 七년동안
일곱번을 침노해도 올때마다 패해갔네
원한이 철천터니 현종九년 九월달에
거란장수 소손녕이 二十만의 대군으로
다시쳐서 들어오니 상원수에 강감찬과
부원수에 강민첨이 거란병을 대적하야
五개월간 싸우더니 귀주에서 대전할제
강감찬의 복병술과 강민첨의 습격으로
거란병을 전멸하니 살아서 돌아간자
불과수千 뿐이로다 이것이 역사상에
이름있는 귀주대첩 이로부터 고려국은
국위가 대진하야 불래,흑수, 여진국과
탐라국과 대식국이 차레로 조공하다
二十二년 승하하니 덕종또한 현군으로
거란병이 건설했든 압록강교 회철하고
장성을 쌓은후에 변방을 굳게하다
재위三년 승하하니 정종또한 뜻을이어
장성을 증축하고 거란과 수호하야
여진을 안무하니 국경이 무사함에
국가가 태평이라 정종이 빈천하고
문종또한 명군으로 재위三十 七년동안
문치에 힘을쓰되 최충을 명령하여
법율을 제정하고 태사를 명령하여
천문학을 연구하고 三인이상 합의부의
재판제를 만드시고 서책을 간행하여
학문을 숭상하니 문장이 배출하여
四린에서 송덕함에 송나라의 신종황제

문종현덕 흠모하야 한번보기 원했다네
문종아들 대각국사 대장경을 각판하야
해인사에 장치하고 불경의 표본되는
八만대장 경이로다 문종이 빈천하고
순종이 즉위하여 재위불과 四월이오
선종이 즉위하여 十一년간 재위하고
헌종이 즉위하여 一년에 패립되고
숙종이 즉위하야 제위한지 十년되여
여진의 오아속이 국경에서 작란함에
윤관을 보내시어 몇번이나 정벌트니
별반대공 못이룬쳬 회맹하고 돌아왔네
숙종또한 결심하고 천지신명 기도한후
군비를 가추더니 숙종의 빈천으로
중도지패 되였드니 예종이 즉위하여
부왕의 뜻을이어 즉위하여 二년만에
여진을 치려간다 도원수에 윤관이오
부원수에 오연총이 十七만의 대병으로
만주땅을 건너서서 적군을 대파하고
함흥이북 수千리에 九성을 축조하고
남민六만 八千인을 九성으로 이민하다
그후에 여진에선 애원하야 조공터니
세력이또 강해저서 아골타가 임금되여
대금이라 국호하고 황제라 존호하여
회령땅에 정도하니 예종임금 九년때라
예종이 승하한후 인종이 암약하야
자겸란이 이러나다 이자겸은 누구든고
인종의 외조로새 국정에 간섭하여
충신의사 다죽이고 딸둘을 강진하여
왕후로 삼은후에 찬역을 꾀함으로
인종이 그뜻알고 척준경을 보내여서
이자겸을 잡었으나 그뒤에 척준경도
공훈을 우세함에 절도로 구양가니
인종四년 평정되나 인종이또 무능하여
간승에게 또빠지니 그중놈이 묘청이라
묘청놈의 흉계보소 인종께 아뢰기를
서경으로 천도하면 三十六국 조공받네
횡설수설 꾸며내여 미혹하게 만든후에
한당류인 鄭知常과 백수한등 밀모하여

인종대왕 十四년에 서경에서 난을지어
대위라 국호하고 천게라 연호하여
변방열읍 처들오니 그세력이 당당하다
평장사 김부식이 관군을 이끄르고
두달동안 혈전끝에 묘청중을 잡었구나
김부식은 명장으로 삼국사기 저술하니
문무겸전 하오니라 인종이 승하하고
의종이 즉위하여 二十四년 八월달에
문무알력 생겼구나 문신이 권리잡고
호화를 일삼으며 무신을 천대커늘
정중부등 작당하여 문신을 멸살한후
의종을 패시하고 명종을 옹립함에
문신의 이보당이 병마사로 있을때라
의병을 일으키어 무신과 싸우더니
문신들이 도로패해 이보당만 죽었구나
명종四년 九월에는 서경유수 조위총이
문란한 틈을타서 반란을 이르키여
四十여성 았어오니 조정에선 대진하야
윤영첨을 보내여서 三년이나 싸음끝에
겨우평정 하였으나 적신이 사기띄고
난세는 계속되여 인심은 불안하고
사직이 위태한중 무신들은 발효하야
서로뜻고 타툴때에 이의방은 이고죽여
정중부는 의방죽여 정중부 혼자들어
권리를 독점터니 명종九년 九월에는
충의장군 경대승이 용사를 대동하고
중부집을 야습하여 정중부를 박살하니
十년동안 권리다툼 이에서 평정되나
그뒤얼마 아니가서 경대승이 죽은뒤에
이의문이 이러나고 명종二十 六년에는
최충헌의 형제들이 이의민을 또죽이니
현인은 간곳없고 난신만 이어나서
죽이고서 이러나고 이러난놈 또죽이니
불안한 인심이오 무서운 세태로다
최충헌또 무도하야 제신들을 대살하고
형제서로 다투어서 아우충수 죽인후에
명종을 쫓아내고 신종을 내세우니
조정의 모든권리 최충헌에 돌아갔네

때마츰 고려사회 노예제도 패풍되여
최씨정권 틈을타서 신종원년 四월달에
노예해방 운동으로 노예총각 만적이가
난을꾸며 이러나다 북산에 모여앉아
공사음모 수千명의 위세가 당당하다
무기군량 하나없이 관군에 잡였으나
파문만은 대단했네 신종이 전위하니
희종이 즉위하야 최충헌을 미위해서
죽이기로 꾀하다가 도로패해 죽은뒤에
강종이 즉위하여 최를또한 실허하니
강종또한 쫓겨나고 고종이 즉위하니
최충헌의 세도함이 전보담 갑절더해
거처와 행차함이 임금과 같이하고
반대자가 있게되면 불문곡직 목을배고
가병을 양성하야 자호를 엄히하고
제가한일 짐작하야 말성날것 두려해서
심복명사 들어쓰다 고종재위 六년되여
최충헌이 병사하니 그의아들 최우또한
아비권리 계승했네 이때마츰 거란에서
두왕자가 모반타가 우리나라 쫓겨오니
거란병이 빙자삼어 그를쫓아 입국함에
인축을 살해하여 무도함이 한이없어
조정에선 분계하여 조충과 김취려의
두장수를 출전시켜 거란병을 모라내고
五만여명 생검하다 그후十년 지낸뒤에
몽고임금 태종이가 세력을 뻣이고자
남방으로 내려온다 대군을 거느리고
귀주에 침입함을 김경손과 박서장군
적군을 대파한즉 적군은 몰려들어
송경에 육박하니 부득이라 고종임금
민의를 보내여서 화평조약 맺은후에
몽고병이 철퇴하다 그후에 몽고관리
七十二명 입국하야 고려정치 감독하니
고종왕이 분로하야 제신들과 수의끝에
몽고관리 다죽이고 강화도로 천도하여
적의재침 예상터니 몽고의 철례탑이
저의관리 죽였다고 과연대군 거느리고
고려땅에 재침한다 고려승장 김윤후가

처인성서 접전끝에 철예탑을 쏴죽이고
적군을 대파한후 승전하고 돌아오니
참패한 몽고병은 원한을 품은체로
해마다 침약하니 조정이 불안하고
백성은 도탄이라 종실인 영녕공을
몽고로 보내여서 강화조약 맺은뒤로
몽고침약 그쳤으나 해마다 전쟁으로
토적은 이러나고 시절은 흉년인대
최우만이 독권으로 사병을 길러내고
저의집 사랑에다 정방을 꾸며노코
국정을 좌우하니 임금은 시둥이라
공수유유 할뿐이오 고종왕 三十六년
최우또한 병사함에 그의아들 최항이가
아비뒤를 또이어서 국정을 좌우하고
서모를 음란하고 계모를 학살한후
충의직신 다죽이니 천벌어찌 없을손가
최항이 직사한후 그의아들 최의있어
저들잘못 꼐닭고서 민심을 수습코자
빈민을 구재하고 탐관오리 없에가며
국정을 삶이더니 위인이 무능하고
득인심도 못한고로 김인준과 임연등의
간신배에 피살되니 四세六十 八년만에
최씨세도 끝났도다 이때가 어느때뇨
고종四十 五년이라 고종의 승하한후
원종이 즉위하야 강화도에 있든서울
송경으로 다시옮겨 몽고또한 침약하되
강화도에 유진하고 내외성을 뿌신이후
자비령을 았는구나 그후에또 몽고병은
돈녕부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간섭하네
김인준은 대신으로 최씨죽은 뒤를이어
국정을 좌우터니 김인준도 무도하여
임연에 패망되다 임연이또 거만하여
원종임금 패위타가 몽고인의 간섭으로
제뜻대로 되지않어 그의아들 임유무와
왕을항상 경멸하고 국가정치 임의하니
홍규와 이송예가 임연부자 주살하고
대정을 봉환하니 인종이후 八세걸쳐
一백四十 八년간에 권간습단 하든정권

이로부터 복구되다 원종이또 혼미하야
삼별초란 이러난다 고종때에 세도하든
최우의 一문들이 도적방비 빙자하고
창설한 경비대로 역대의 권신▨이
이군대를 이용하야 권신들은 아성되고
국가엔 화가됫네 원종이 그것알고
삼별초군 해산터니 수뢰되는 裵仲孫이
진도에서 반란하여 전주로 쳐들올제
고려명장 김방경이 몽고병과 합세하여
탐라까지 추격하니 七十여명 자살하고
삼별초군 전멸되다 이때에 몽고나라
만주를 통일하고 천하를 호령한다
원종이 승하한후 충열왕이 즉위하여
관제를 게혁하되 시중을 찬성사로
추밀사를 밀직사로 그외에 모든관제
원나라의 본을받아 모도다 게혁하되
초대의 밀직사로 김훤술의 원손되는
김균을 들어쓰니 최충헌의 사대집권
공신자손 멸시받다 이제야 들어썼네
충열왕 十九년엔 찬성사 안유시켜
國學을 즙치하고 이산,이진, 이성,추적
최원충등 교수삼어 국학을 대성했네
원나라의 강제요청 약소국가 할수없다
원공주로 왕비삼고 국제혼인 시작되네
원나라의 일본정벌 고려가 도아주고
원나라 임금에게 충성을 의미하야
충열이니 충선이니 충자를 붓쳤으니
그아니 절통하랴 충열왕 二十四년
충선왕께 전위하고 상왕위에 있었드니
그이듬해 복위하니 임금지위 좋지만은
十년동안 父子不睦 웃음꺼리 자아내고
충선왕또 음탕하야 정사에는 뜻이없고
원나라에 머므다가 번양왕을 자칭하고
충숙왕께 전위하니 전위받은 충숙왕도
무능무책 二十六년 허위만 보전할뿐
충혜왕께 전위하니 음탕하고 무도하여
원인에게 잡여가서 관동으로 구양가다
악양에서 병사하고 그의아들 충목왕과

서자되는 충정왕도 유충한 탓으로써
간신들이 이러난다 원나라의 간섭으로
즉위하여 三년만에 공민왕께 전위하니
충혜왕의 아우로써 천자는 유약하나
나라일을 생각하며 원의탄압 막으려고
백방으로 연구할제 이색과 이재현과
유탁과 최영장군 문무제신 들어쓰고
조일신과 정천기등 난신을 주살하고
원의설치 생각더니 이때마츰 원나라는
대란이 이러나서 주원장께 망할때라
이때라 짐작하고 왕의五년 오월말에
정원군을 대발하니 인당을 대장삼아
최영과 강준경은 서북면을 처서가고
유인우와 황천보는 동북면을 처서간다
쌍성육주 천여리와 요동평야 점영하니
원나라의 거동보소 사신을 밀송하야
공민왕께 위협하니 유약하다 공민왕은
원나라에 공축되여 정원군을 소환하고
인당을 죄살하니 정원계획 허사로다
원나라가 쇠해지매 중원천지 혼란하야
대적의 홍두적이 북지에서 노략타가
공민왕 八년되여 四만여명 거느리고
우리나라 노략커늘 상장군에 김용선과
정세운은 서경에서 안우는 함종에서
이방실은 풍천에서 홍두적을 대파하고
이만여명 잡었드니 홍두적이 도망가다
그후一년 지내와서 二十만명 또이끌고
경도에 침약하니 공민왕은 난을피해
복주로 피난가고 총병관에 정세운이
공민왕의 분부받고 안우와 이방실과
김득배등 三원수며 게성부윤 김수선생
송약에서 유진하여 육탄혈우 수개월에
송경을 회복하고 十여만을 참살하니
남은도적 도망가다 최영과 최린장군
홍두적을 추격하여 만주까지 딸아가며
모다섬멸 주창터니 정세운의 말유로써
중도지패 되었구나 간신의 김용이가
중간이간 붓쳐노코 공민왕께 무고하니

그말을 옳게녁여 홍두적에 유공하든
정세운 김득배와 이방실 안우등의
四원수를 다죽이니 원통하기 한이없어
포은선생 제문하되 오호라 황천이여
아죄가 이하이며 오호라 황천이여
차하인제 리요 복선화음 하는자는
천이라 들어왔고 상선벌악 하는자는
인이라 들었노라 천과인이 상이하나
그리치는 일여하다 고인들의 말씀에도
창천이 승인하고 인중이면 우승천을
과연이른 이치로다 왕자에 홍두적이
조국에 침노할제 여가를 옮기시고
도성이 함락됨에 국가의 운과명이
풍전에 등화러니 오즉이 四원수는
대의를 주창하고 원근이 향응하다
사경에 나아가서 三한지업 완수하니
무릇이제 사람들이 침식을 편게함은
이누구의 공이련고 비록죄가 있드라도
공으로써 덮어주고 죄가공에 더하거든
그죄상이 명단되여 귀추됨을 본연후에
주살함이 가하거늘 오호라 천명이여
한마가 미간하고 계가가 미파한대
봉인지혼 되게하고 나이제 슬피울어
천에게 물어본다 나는그대 충혼장백
알고도 남음있다 천추만대 내려가도
구천지하 울것이니 슬프다 차인사여
이같이 지였드라 그뒤에 김용이는
국정에 간여하여 충신을 죽인뒤에
내궁을 야습타가 최영과 김수에게
북잪이여 타살되다 공민왕 十一년에
탁도경과 조소생이 원의반적 유인하야
흥원에서 작관거늘 북병사 이성계가
함창에서 구축하고 十三년 정월에는
반적신 최유등이 원나라의 후원으로
국경에 침노함을 최영과 이성계가
정주에서 잡은후에 여진추장 삼선,삼계
이성계의 내종제로 함화이북 침입함을
이성계또 막었구나 한심하다 공민왕이

김용란이 평정되니 요승에게 또빠지네
그중놈은 신돈이라 삼중대광 높이앉아
최영과 이인복등 충신들을 물리치고
금란과 이춘부등 사당을 등용함에
정추와 이존오는 그의죄상 말하다가
천리원정 귀양갔네 신돈이가 흉물이되
七년이나 음모하야 거사한번 못해본체
신돈이만 잘엿구나 우매한 공민왕은
광망함이 더욱심해 홍륜,한안, 권진,등의
미소년을 사랑타가 즉위하여 二十四년
그놈들에 피시되니 왕의말로 한심하다
경복흥과 이인님이 놈들을 잡은후에
세로임금 뫼섰으니 이가곳 우왕일세
우왕二년 七월달에 일본명이 침노함에
최영장군 홍산에서 이성계는 지리산서
왜적을 무찌르고 정포은은 일본가서
일정부와 단판하다 병사가 최무선의
화약을 발병함도 이때의 일이로다
전후十년 동안이나 일본놈이 침노하니
이성계는 인월역서 정지는 남해에서
왜적十만 무찌르니 그뒤부터 종용했네
인당이 죽은뒤에 북벌계획 막연트니
명나라 주원장이 대지나를 통일하고
고려국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강에다가
철영위를 설치하니 군신이 분계하여
철영위를 께트리고 명나라를 치려간다
十四년 四월에는 평양에 진주하여
대본영을 설치하고 四만명을 동원하야
도총사에 최영장군 좌군도통 조민수요
우군도통 이성계라 선봉장에 홍인계는
압록강을 먼저건너 명나라군 대적하고
위화도에 유진터니 이때마츰 장림으로
군심이 염퇴하니 이성계의 날랜수단
혁명의 뜻을품고 조민수를 유인하여
위화도를 회군하자 압록강의 물이불어
위화도를 뒤덮거늘 조곰만터 있었드면
전군이 몰살할것 이성계의 영단으로
사졸들이 살아남에 사졸들이 단결하야

이성계를 위하여서 죽기로써 맹서하니
이성계의 날랜눈치 그사졸을 거느리고
최영장군 토벌코자 다시한번 이러나다
우왕과 최영장군 송경으로 돌아와서
이성계를 방위하나 승세를 당치못해
최영장군 원사하고 우왕도 쫓겨나서
창왕이 즉위하다 최영장군 충장으로
안마간에 있어서도 왕왕이 시를읊되
하로는 경복흥이 천시고인 인불고라하니
최영장군 화답하되 월위명월 상무명고
창왕이 즉위후로 북정계획 그만두고
이성계의 하는대로 一년이 지낸뒤에
왕씨자손 아니라고 신우,신창 말성되여
부자함께 쫓겨날제 슬픈글을 지었으니
오왕부자 각분리에 만리동서 천일애라
가사일신 위서우나 촌심천고 미천이라
또한구가 전해오니 일국기능 유경조냐
구원난가 설유원을 그뒤얼마 아니되여
부자함께 주살되다 찬란한 고려문화
말하거든 들어보소 행정재도 먼첨들면
문하성이 제一이여 그다음엔 상서성이
이병.호와 형례.공의 六부상서 나눠있고
三사성을 둔연후에 재정을 말아보고
밀직원과 어사대는 모든행정 감독하고
양광도와 경상도와 전라도와 교주도와
서해도등 五도두어 도호사를 둔연후에
二병마사 三경유수 八牧과 十五부여
一백二十 九군이오 三백十三 五현이며
二十九진 둔연후에 一국을 행정하고
종교로 이를진댄 불교가 으뜸으로
보조.대각. 태점이며 나옹같은 명승나고
유교로 이를진댄 최충과 안문성공
이색과 이제현과 정몽주 이숭인과
길재가 제一이오 김부식 정지상등
문장가도 나섰으며 김수의 명리학과
김천택의 천문학과 일연의 삼국유사
이제현의 금경록과 우탁의 역학이며
이령의 그림이며 유공권의 글씨이며

대장경의 각판이며 도자기의 기술이며
백락보의 수차발명 농업에 유편했고
문익점의 목화종자 종국으로 사신가서
교지땅에 명씨얻어 장인되는 정천익에
三년동안 제배하야 一국으로 펴젔으니
이율곡이 찬사하되 신농은 교민경하고
후직은 교민가라 충선은 교민의하니
풍공이 배전석이라 고려조정 실정하야
창왕을 패한후에 공양왕을 뫼서오니
이때부터 이성계는 대지를 품에품고
명산대찰 다니면서 기도도 많니하고
사람도 얻었구나 백두산에 올라가서
웅도를 그려내니 반갈인등 상벽봉하니
소암기재 백운중이라 약장안계 위오토면
초월강남 기불용가 조준을 비롯하여
여러제신 모사들과 표리상응 밀모하야
조민수와 이목은은 원지로 귀양가고
우왕을 모복하든 김저와 정득후도
변안열과 한가지로 변지에서 주살하고
명나라에 호소하든 윤이와 이초이며
정지와 우현보와 이숭인과 이종학은
모다이때 정배가고 김종연과 조유등은
이성계를 제외타가 도로잪여 해를보고
문하시중 정몽주는 고려사직 근심하야
이성계를 논척트니 아들되는 이방원이
선죽교 다리위에 포은선생 불러내여
들으면 벼슬주고 않들으면 죽이기로
글한구를 읊으면서 백방으로 달랬으나
일월같이 빛난충성 태산같이 굳게앉아
『이몸이 죽고죽어 일백번 고처죽어
백골이 진토되여 넋이라도 있고없고
님향한 일편단심 이야가실 줄이있으랴』
조영규의 철퇴맞어 포은선생 운명하니
선죽교 다리위에 피흔적이 남어있어
풍마우셰 六백년에 지금까지 완연하다
아마도 선생충절 일월로 쟁광했네
그뒤누가 만사지어 선생충혼 위로하니
선죽교변 혈은 인비아 불비라

고신망국 후에 불사갱 하위오
숙종대왕 지은글도 일신은 경사우요
대절은 중여산이라 영조대왕 지은글도
도덕정충 긍만고는 태산고절 포은공을
고종황제 지은글도 위충대절이 광우주하니
오도동방에 뢰유공을 이렇다시 찬사했네
포은선생 죽은소문 이성계가 들은후에
아들방원 대질하되 너의들이 임의대로
대신을 천살하니 오가대대 충효로써
너의들이 더럽인다 부득이라 이성계는
황희석을 명송하야 후이장사 하였구나
이성계당 불충함을 김진양이 논척하되
정도전을 두고보면 천지에서 기신하여
벼슬이 일품이되 천한뿌리 감춰가며
본임금을 재거하고 처비지죄 자아내고
조준을 이른진대 변란을 상선하야
매롱권세 하여있고 남언남재 두고보면
좌우나래 된연후에 정도전과 동심이오
윤소종과 조박등은 조언창화 하여가며
죄망을 광장하여 되고말고 처형하매
백성들은 유혹하야 원성이 포만하니
원컨대 삶이시와 엄형처벌 하옵소서
이와같이 직간타가 김진양은 태일백에
천리원정 구양갔네 만조의 제신들이
이성계당 뿐으로써 공양왕 三년되는
임신七월 十二일에 공양왕을 패하여서
원주로 방축하고 十六일에 등극하니
고려四백 七十五년 이날로써 망했구나
이때기원 언제련고 三千二百 七十五년
七十二현 충신들은 두문동에 들어가고
천도를 어찌하리 이씨조선 되였도다
구홍의 거동보소 좌의정 재수터니
표풍이 이러나서 세번이나 꺾어지여
고려시중 고쳐쓰니 명정이 안여했네
밀양인의 박강생은 호조전서 나리여도
받지않고 죽었으며 형조판서 김자수도
나라위해 순절하고 사신갔든 김수선생
압록강에 도착하자 혁신소문 얼픈듯고

명나라로 다시가서 예부상서 주었으되
받지않고 죽었으며 이소양은 어떻든고
태종이 찾어가서 추우반청 인반취라하니
이소양이 화답하되 모운초권 월초생이라
이렇다시 지은뒤에 은거하야 불출하고
최양도 전주에서 태조대왕 맛나보고
석일친구 그양대로 불칭신 하였으며
태조서형 이원계는 태조창업 불쾌하여
음약자살 하였으며 길야은은 어듸갔나
금오산성 깊이숨어 수절하여 돌아가니
이보흠의 제문에도 주무왕 의거함에
이재채마 수양하고 한광무제 중흥할제
자릉수조 부춘이라 태조친구 원천석도
고금요우 신시변하니 천지강산 시고인이라
글한구를 지은뒤에 두문동에 들어가고
조견도 청게산서 태조대왕 벼슬주어
게국공신 평성군에 평간공을 재수하나
받지않고 수절하고 사후에 이조벼슬
비표에 그냥쓰니 그날밤 뢰격으로
그비석을 깨트리고 고려유신 넉자만이
또렷하게 남었으니 놀라운 그충절을
하늘도 유심하다 도응도 찬성으로
오징불기 하온고로 태조대왕 찬양하야
청송당을 사액하고 글지어 부쳤으되
애간청송 절하니 탁간수이 마라
한강천인 상에 상설부증 마라
이렇다시 찬사하고 그외에도 많은충신
천도되고 만도되니 다어이 기록하리
권근은 어찌하야 절게를 굶인후에
태종과 사돈지내 계룡산송 지어바쳐
대제학이 되였더라 이태조는 창업후로
충신열사 애기면서 만단으로 달레봐서
않들으면 그만이지 한사람도 죽이잖어
이것두고 볼작시면 이태조가 영걸이라
을해十월 十一일에 영흥군에 탄생하사
구습을 일소하고 혁신을 주창하여
무관을 억제하고 문관을 들어쓴다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다

창업한지 二년되여 조선이라 국호고쳐
정도전과 하륜이와 무학대사 분부하사
한양으로 왕도정해 도성을 쌓은후에
동서남북 四대문을 인의예지 넷글자로
문이름을 지으니라 중국궁궐 모양떠서
경복궁을 지었으니 十三여만 건평에다
주위一千 八백보라 광화문이 남문이오
건춘문이 동문이오 영추문이 서문이오
신무문이 북문이라 五十여의 누각건물
그옆에 지었으니 근정전은 어떠한고
경복궁의 정전으로 백관이 라열하여
조하받는 곳이로다 사정전은 어떠한고
군왕의 편전으로 정치사무 보는대요
천추전과 만추전은 군신상하 모여앉아
문학강론 하는대라 새종대왕 이궁전서
훈민정음 반포하다 수정전은 무었했나
왕가도서 감춘대요 경회루는 멀한대냐
외국사신 접대소라 경회루의 설계보면
우주형용 그렸으니 연지의 둥근것은
천원을 의미하고 누대의 모진것은
지방을 표현하고 지중의 두개섬은
태극을 상징하고 三十六의 그간수는
三十六궁 해당되다 창덕궁은 동궐이오
영칙궁 만수궁은 치려하고 웅장하다
덕수궁 세대궐로 황홀하고 쟁쇄하다
흥인각 청련각은 능란하고 명랑하다
춘당대 경무대는 과거보는 곳이로다
선정전도 유명하다 공신들의 사연처며
수강궁은 어듸있나 창경원이 여기로다
이렇다시 많은건물 태조대왕 거처하고
태조三년 十一월에 종묘를 지은뒤에
성균관도 건립하여 청년재자 공부하며
승무유현 뫼신대라 과거법을 시행하여
문무인재 뽑아내고 배극염등 三十九인
개국공신 정록하고 김사형을 명하여서
대마도를 정복하고 퉁두란을 보내여서
동여진을 구축하고 後患을 두려하여
왕씨일족 전멸하니 이것이 사실인가

정도전을 시키여서 국가제도 만드시니
동서양반 만들어서 동반은 문반이오
서반은 무반이라 문반으로 최고에는
의정부가 있었으니 영의정이 으뜸되며
좌우의정 둔연후에 이조.호조. 예조.병조
형조.공조 六조두어 각조마다 판서두고
종친부와 충훈부와 의빈부를 둔연후에
돈녕부와 의검부에 영사.판사. 각각두고
司憲府 사간원과 입법행정 하였으며
충익부에 도사두고 장예원의 판결사며
왕명을 중계하는 승정원도 있었으며
홍문관 예문관엔 대제학을 각기두어
문교사업 도아주며 경연원에 영사두고
춘추관에 영사.감사 수찬.편수 관을두어
역사편찬 하였으며 세자시강 원을두어
사부빈객 보덕으로 세자교육 힘을쓰고
문관외직 이를태면 각도에 관찰사요
광주.경주 전주.평양 의주등 五부에다
부윤을 각기두고 十二목에 목사두고
도호부에 부사두고 군수.현령. 현감두고
게성.강화. 수원에는 유수를 둔연후에
지방행정 하였으며 八도에다 도사두어
향시과거 관장하고 무반의 최고에는
중추부가 있었으되 영사.판사 지사두고
五위도총 부가있어 도총관을 둔연후에
의흥.용양. 호비위와 충좌.충무 五위에다
각위에 장을두고 상호군 대호군과
부호군을 각각두고 그외에도 내검위와
세자익위 司가있고 훈련원을 설치하여
병사훈련 주관하고 무반외직 이를태면
병영과 수영두어 사병을 임면하여
국군을 통솔하고 각도에 통솔자로
병마.수군 절도사와 절제사를 둔연후에
연해의 요새지엔 첨사와 우후이며
수군만호 각각두어 一국을 방위하다
태조대왕 七년에는 끝에아들 강씨소생
방석을 총애하매 남은과 정도전은
방석을 도아가며 왕위계승 수작하니

건국원훈 태종대왕 크게불평 품으시고
하륜들과 단합하여 궐문밖게 난을지여
방석.방번 죽인후에 정도전을 주살하고
그의당을 전멸하니 왕자둘을 죽인것과
게국원훈 죽인것을 태조대왕 분을내어
함흥으로 내려가서 한양소식 전패하니
태종대왕 걱정하사 아버지를 뫼서오기
사신을 보냈으되 태조대왕 분푸리로
오는대로 목을버혀 박사암도 죽었으며
이원태도 죽였구나 원통하다 박사암은
함흥가서 돌아올제 제신들이 태조에게
죽이기로 간청함에 이태조의 내념으로
강은이미 건넜으리 강건느면 그만두고
대동강 이쪽이면 죽이기로 허락하니
박사암은 소관으로 중로에서 머므다가
대동강의 배를타자 선전관이 도착한다
지체하지 않었든들 목슴이나 살아났지
반재강산 반재선은 이때의 글이로다
그뒤에 태조대왕 놀라시고 아까워서
사암공의 화상그려 두고두고 생각하네
그뒤에 성석인이 자원하고 이러서며
함흥으로 신이가서 태조대왕 뫼시리다
태종대왕 허지하야 사신으로 명송할제
좋은말 다버리고 새끼따른 피마한필
안장지어 타고가니 행재소가 여긔로다
성석인의 거동보소 과객처럼 지나가니
태조대왕 망견하고 손을잡고 영접한다
부자불목 나를찾아 千리원정 어이왔소
성석인은 종용하게 창업부터 의론하되
군신지의 그교분과 인륜지도 게진하니
태조대왕 들으시고 너의임금 완협이라
나의마음 돌림이지 크게분을 내실적에
성석인 위급하야 신이과연 그럴진댄
맞자식은 봉사되고 다음자식 무자하리
여차등절 말할때에 문밖에 매인말이
슬프게도 우는구나 태조대왕 물으시되
말이어찌 저리울가 성석인 대답하되
함흥으로 내려올때 새끼띄고 왔나이다

말은비록 미물이되 그새끼를 생각하여
저렇다시 우나이다 다시한번 통곡하고
대왕님의 하신일이 그모두가 장하거늘
三년동안 부자불목 그한가지 원통하오
부자불목 고사하고 八도창생 불상찬소
태종왕은 한양있고 대왕님은 여긔계서
옥세없이 등극하니 그무슨 자미있소
옛날에 요님금은 순님금께 전위하고
순님금도 착하시와 우님금께 전위커든
하물며 대왕님은 아들에게 전하시고
창업원훈 몰라보고 이다지도 로하시오
피마는 미물이되 정분으로 저리우니
부자유친 중한인륜 다시한번 돌아보소
태조대왕 거동보소 이윽코 앉었드니
성석인을 돌아보며 감오회천 하는구나
한양가는 길차리니 一국내의 경사로다
태종이하 문무제신 무학관에 차일치고
백관으로 영접할제 부자지의 새롭도다
그뒤에 성석인은 태조대왕 쏙인죄로
맞아들은 봉사되고 둘제아들 무자했네
무자五월 二十四일 태조대왕 승하하니
춘추가 七十四요 건원릉에 장사하니
태조왕후 누시든고 안변한씨 부인이오
둘제왕후 곡산강씨 아들이 여덟이오
공주가 다섯이라 정종대왕 즉위하니
그왕후는 경주김씨 정종은 순서있게
임금위에 올랐으나 태종의 불평으로
골육상쟁 염려되여 태종에게 전위하니
태종대왕 형님되는 방간이가 불평하여
태종二년 정월달에 박포와 난을지어
태종을 재거코자 궐문밖에 싸우드니
박포를 주살하고 방간을 정배하니
왕자란이 평정되다 정종은 상왕위에
十九년간 계시다가 六十三에 승하하니
후릉에 장사하다 아들이 十五형제
공주가 여덟이라 태종이 선위받어
천자가 영매하고 문치를 주창하며
금주령을 내리여서 탐관오리 숙청하고

신문고를 설치하여 민성을 듯게하고
지화를 발행하여 부첨을 엄금하며
四학을 설치하여 유학을 숭상하며
활자를 주조하여 서적을 간행하며
여복을 게량하여 지금같이 만드시니
태종대왕 선치로써 모든업적 남기고서
十八년간 재위타가 세종에게 전위하고
五十六에 승하하니 광주의 헌릉이오
그왕후는 여주민씨 헌릉과 한릉이라
세종대왕 영걸하사 천품이 인자하고
덕망이 높으시사 학문을 장려하니
치화가 대진하다 황희같은 어진정승
대정을 보필하고 박팽년 성삼문과
변개량 같은문사 문학을 연구하고
황희정승 어떠한고 시시비비 가리잔코
원만하기 유명하고 맹사성도 현상으로
청백하기 유명하다 태평성군 어진신하
스스로가 선치되다 세종대왕 三년에는
세종대왕 三년에는 집현전을 설치하여
학문을 강론하며 오례의를 휘찬하고
효행록을 게찬하며 정초의 농사집설
정인지의 치평요람 고려사가 유명하고
세종二十 五년에는 언문국을 설치하여
정인지 신숙주며 성삼문 최항등과
四개년간 고심끝에 훈민정음 반포하니
억천만세 공업일세 권제의 용비어천가
고금충효 열을뽑아 삼강행실 집성되고
자치통감 훈의등도 이때에 간행하고
동정운의 서적등도 이때에 만들었네
박연의 음율이며 장영실의 천문학과
칙우기도 주조하니 서양에 비교하야
二백년을 앞섰도다 세종대왕 빛난업적
문치에만 있으리오 문무겸전 성군이라
무공에도 놀랍도다 세종원년 기해세에
왜적이 침노함에 이종무를 대장삼아
대마도를 정벌하고 十五년 四월에는
최윤덕의 체찰사로 야인을 정벌하고
김종서를 명령하사 육진을 게척하다

복력좋은 세종대왕 다들이 十八형제
공주가 넷이로다 무술년에 즉위하사
경오년에 승하하니 춘추가 五十四라
여주땅백 八十리 영릉이 그릉이라
세종왕후 청송심씨 영능과 동원이라
문종대왕 즉위하니 세종대왕 맞자제로
천품이 인자하사 문무를 숭상하고
문장서학 각방면에 친히연구 하섰으나
환후가 자로계서 상수못할 짐작하고
하로는 침전에서 어린동궁 앞에두고
문무제신 부른뒤에 고명이 내리신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며
우의정 정분이와 병조판서 만신이며
이조판서 조극관과 집헌전 학사중에
박팽년 成三問과 신숙주와 하위지며
이게와 유성원과 김시습 허후등과
절제사 유응부께 문종대왕 하신말씀
내가죽은 이뒤라도 어린동궁 위태하니
범과같은 숙부들이 주공같이 하겠는가
아마도 나죽은후 경들에게 부탁하오
옥침에서 뜻는눈물 방울방울 피가되니
제신들의 거동보소 일제히 이러서서
어린단종 위하여서 몸과목슴 바치기로
어전에서 맹서하고 어사주를 내리시와
동궁으로 붓게하며 군신지의 맹서한다
임신년 五월달에 문종대왕 승하하니
八도의 창생들은 여상고비 애통하고
재위불과 二년이오 춘추겨우 三十九라
양주땅 三十리에 헌릉이 그능이오
왕후는 안동권씨 형릉과 한능이라
단종대왕 즉위하니 十二세의 어린임금
부왕을 생각하야 옥루가 말으잖어
고명받은 제신들은 혈심으로 임금섬겨
三년을 지내오니 춘추가 十五세라
총명하고 어질어서 백가시서 육경글을
무불통지 읽으시다 一국의 군왕이되
형도없고 아우없고 현덕왕후 그모친도
단종을 낳으신지 잍을만에 돌아가고

경혜공주 있으나마 궐내출입 엄금되니
혈혈단신 단종대왕 누구를 믿을건가
열일곱의 숙부믿되 그중에도 안평대군
임영대군 금성대군 그형님을 생각하고
어린조카 보좌하나 수양대군 어찌하야
숙부중에 맞이로써 마음항상 불칙하야
문종대왕 승하한후 조카자리 탐을내여
한명회 권람이며 정인지 한확등과
밤낮으로 밀모하야 생살부를 만들어서
선대왕의 고명제신 진살키로 계획한다
단종二년 계유十월 수양대군 소행보소
한명회의 계교로써 양정.유수 역사들과
김종서집 찾아가서 철여의로 타살하고
맞아들인 김승규는 평안감사 내려가니
몇일후에 다죽이고 영의정의 황보인도
역율로 덮어씨위 그의아들 황보석과
원통하게 죽였으며 우의정의 정분이는
낙안으로 구양가서 사약으로 죽였으니
백홍이 관일하고 광풍이 이러나다
교리의 이현로도 중로에서 피살되고
단종내구 권자신도 처자동순 하였으며
단종외구 송현수며 영양위 정종이며
민신과 조극관과 김문기 봉석주와
이양과 이증옥도 험악한 세조손에
무참하게 윈사했고 기외에 죽은인사
千도되고 만도되니 다어이 기록하리
수양대군 야심보소 단종께 아뢰기를
황보인 김종서가 동지를 규합하야
역모를 하옵기로 미쳐장게 못하옵고
정난하고 왔나이다 단종대왕 놀라시고
역모를 하였다니 三상과 六조들이
역모에 들단말가 모역했단 신하보면
고명신이 태반인대 단종대왕 분계하나
구중궁궐 가친몸이 마음속엔 의심되나
세조에 억눌리어 할수없이 윤허했네
수양은 득세하며 반대당을 다죽인후
군국대권 손에쥐고 一국을 호령하니
어느누가 반대하리 외로워라 단종대왕

정인지의 흉물보소 단종대왕 어전에서
양위하라 강권하니 임금밑에 신하되고
이른법이 어듸있나 단종대왕 분하시와
땅을치며 통곡하나 수양대군 옆에있어
강약이 부동이다 그뒤에도 여러차례
양위함을 강권함에 할수없는 사정으로
재위한지 三년되여 윤六月 十一일에
눈물짓고 허락하야 수양에게 전위하고
수강궁에 나와앉아 문종대왕 사모한다
양위받은 새조대왕 三상六조 게편하니
영의정엔 정인지오 좌의정엔 한확이오
우의정엔 이사철이 한명회는 이조판서
신숙주는 대제학에 자당의 내각으로
국민은 불평이오 충신열사 분계하니
만조정엔 간신이라 억울하다 단종대왕
간신들의 요청으로 영월땅에 손위하니
청령포 절벽에다 위리안치 시켰구나
단종대왕 지은글에 영수는 참천로한대
게류는 득석현이라 산심 다 호표하니
불석 음 시관이라 이와같이 지었으니
첩첩산중 분명하다 대왕이름 간곳없고
노산군을 강봉하니 태종장남 양영대군
양광으로 자처하야 팔도강산 방황터니
단종소문 분히듯고 백관종친 거느리고
상소하야 이르기를 간흉지변 이러나서
노산이 예언이라 단이대의 배프시와
명정전형 하옵소서 이와같이 하였으며
허후도 직신으로 정인지를 논척하되
간신의 정인지는 시세에 아부하야
삼제상을 모살하니 기죄를 가살이오
종친을 모함하야 무죄한 대군들을
모역으로 죄만드니 기죄또한 가살이오
단종의 어전에서 한확이와 이어가며
양위를 강권하니 기죄또한 가살이라
영의정의 정인지를 삭탈관직 하온후에
금부에다 가두어서 만인간에 징계하소
이와같이 상소타가 구양가서 사사했네
죽고남은 고명제신 팔송정에 모여앉아

단종복위 꾀할적에 명사신을 접대하는
운검회를 이용하여 성승과 유응부가
세조를 버힌후에 간신들을 진살코자
여차여차 계획터니 간사한 김질이가
한가지로 꾀하드니 세조에게 밀고하야
사실이 탄로되여 험악한 세조앞에
육신들이 잡혀가서 엄형득벌 당는구나
박팽년의 거동보소 맨처음에 잡혀갈제
단종대왕 선위시에 경회루 연못가에
수사코자 도모함을 무익한 죽음이라
성삼문의 말유로써 지금까지 살었는대
죽기로써 겁을내리 세조대왕 하는말이
선비를 애꺼면서 그대재조 아까워라
부대한번 항복하면 좋은벼슬 줄것이니
부모님도 생각하고 처자도 돌봐야지
박팽년 하는말이 수양대군 하는일은
매사가 불충하오 더러운 나으리엔
칭신함이 부당하며 우리임금 내치시니
우리임금 쫓아가서 지하에서 섬기리다
세조대왕 분을내여 소부쇠 불에달궈
전신을 당금하니 박팽년의 하는말이
오히려 이쇠차니 다시달궈 갖어오라
세조대왕 하는말이 종묘제사 그날밤에
너독한줄 내알었다 박팽년. 하는말이
향노쇠 달군것이 너짓인줄 내알었다
손틉밑에 기름냄은 너보라고 그리했다
박팽년 가족잡아 一시에 다죽이니
六부자 손자셋이 여덟사람 죽었구나
박팽년 둘재자부 대구관비 내려갈제
임신중에 있었으니 아들만 낳게되면
죽이기로 명령트니 종의어미 얼는듯고
제자식을 대신하여 상전뒤를 이여내니
장할시고 이른종은 만고충비 이아닌가
성삼문 잡아들어 화형으로 다스릴제
성삼문 대로하야 세조에게 항언하되
무도하다 수양대군 너욕심만 생각하고
우리임금 쫓아내고 형의뒤를 어이끊노
후복이 장원하랴 신숙주를 돌아보며

네이놈 신숙주야 너와나와 집현전의
학사로 있을때에 영릉께서 하신말씀
무었이라 하시었지 원손을 안으시고
이아해 수호함은 경등에게 부탁하오
이런말씀 계신일이 아즉귀에 들리는듯
너혼자만 잊었구나 너는성주 보좌하야
태평성대 잘살어라 나는지하 돌아가서
선대왕을 뫼시리라 세조를또 돌아보며
더러운 너의록을 먹지않고 두었으니
다시도로 갖어가서 신숙주를 많이주라
세조대왕 분을내어 형관을 제촉하야
화저로써 배꼽찔러 찔은궁게 피가나니
유혈이 낭자하다 성삼문 태연하게
절명시를 지어내니 격고 최 인명하니
서풍에 일욕사라 황혼에무 객점하니
금야에 숙수가오 이렇다시 지은후에
참혹하게 죽었구나 그의부친 성승이와
아우셋 아들일곱 성삼문 한집안에
열두사람 죽였구나 하위지 잡아들어
말밤쇠를 깔아두고 버선벗고 들어오라
하위지 거동보소 두버선을 활활벗고
발을번쩍 높이들어 모래같이 밟아오니
말밤쇠에 발이찔려 발등을 뚫고올라
찔린궁게 피가흘러 자욱자욱 뜻는구나
하위지 들어서며 형장에 피를보고
앙천통곡 탄식하되 충신들의 피로구나
세조대왕 거동보소 지성으로 달래보나
앙천대소 하는말이 충신을 욕보임도
그죄가 않적으니 듯기도 나는싫고
보기도 나는싫다 사속히 죽여다오
세조대왕 분을내여 아우셋과 아들둘을
세조앞에 박살하다 이게를 불러들어
나는너의 고인이라 지난일을 생각하야
부대나를 섬겨다오 이게의 거동보소
대답한번 아니하고 우정중시 생역대오
홍모경처 사유경이란 시한수를 지은후에
종제되는 이유기와 종용하게 죽었으며
二자一손 따라죽다 유성원도 장할시고

충신죽은 소문듯고 가묘에 들어가서
인도하야 자살하니 아들둘이 잪여가서
세조앞에 죽었구나 유응부는 무인으로
운검을 패할적에 두주먹을 붉근쥐고
세조를 박살코자 결심하는 장사로다
세조앞에 잪혀가서 성삼문을 돌아보며
서생은 불가여모 분하기가 그지없다
세조의 독한솜씨 가죽을 뱃기도다
유응부 꼿꼿하게 한자리에 서있으며
상한번 찡글잖고 태연하게 죽었으니
천추에 빛난충혼 숙종때 내려와서
노량진에 거동타가 六신들의 무덤보고
황량함을 금치못해 충신무덤 일크르고
신원을 시킨후에 사론에 하였으되
숙불위사 리오만은 대제라 六신지위사여
숙불위신 이리오만은 대제라 육신지위신이여
생이애군 하야 진어신지도 하야
사이충군 하야 입어신지절 하니
충분은 관호일월하고 의긔는 백호추상이라
사백세 人民者로 일심사군 지의하노니
천금일모 이며 성인취의 니라
이렇타시 하여있어 사육신의 충혼장백
천추만대 빛나도다 죽은충신 여섯이오
산신하 여섯이라 생육신 사육신은
이때에 나섰도다 생육신은 누구든고
조여와 김시습과 남효온과 이맹전과
성담수와 원호로다 김시습은 중이되여
무량사에 거처하여 속세와 영격하고
조여는 어듸갔나 정암강상 숨어있어
채기미의 본을받어 절게를 남겨있고
남효온은 어이됫나 단종복위 상소한후
연산주때 이르러서 화급천양 하여있고
이맹전은 선산에서 두문불출 三十년에
九十에 작고하고 성담수는 어이됐나
전주에서 은거하여 불러도 피해가고
원호는 영월가서 단종대왕 승하한후
복상三년 하였다네 영조때 내려와서
六신사기 보시다가 칭찬하여 하는말이

이런충신 신원하라 그뒤에 자손찾아
후이벼슬 제수하고 시호를 내리시며
이조판서 증직했네 단종위해 죽은신하
사육신뿐 이련가 권절같은 절그남아
세조가 불음으로 귀머거리 양농으로
불문부답 태연했고 기건은 눈을뜨고
당달봉사 양맹으로 세조를 쏙였드니
세조가 시험하되 송침으로 찔렀으나
한번깜작 않었다네 숙주아우 신말주는
신숙주와 마음달러 자긔형을 비방하고
순창으로 퇴거하고 부제학의 조상치는
벼슬을 그만두고 영천으로 내려갈제
단종대왕 친히지은 자규시를 화답하니
단종지은 자규시는 월백야 촉혼추라
함수정 의루두라 이재비오 아문고라
이무성이면 무아수라 기어세상고로 인하노라
신막등춘 삼월 자규재명 월루하라
조상치 화답하되 자규재 자규재하니
야월공산 하소소오 불여귀 불여귀하니
망제파잠 비욕도라 간타중조 총안소한대
독향화지 혈만토라 형단영고 모초취에
불초숭수 이고리오 오호라 인간원한은
이독이라 열사충신 격불평에
굴자난진수 로다 화답을 마친후에
북향사배 하여가며 일장통곡 하였다네
단종삼촌 금성대군 순흥부사 이보흠과
단종복위 도모타가 사전발각 원통할사
옥중에서 죽었다네 단종삼촌 안평대군
문장명필 겸전하야 무이구곡 본을받아
담담정을 지어노코 천하명사 모아두고
문의강론 일삼음에 세조항상 미워하야
문학으론 당치못해 썩은선비 비방하니
안평대군 응수하야 형님무었 안다고서
활이나 매고다녀 사양이나 할것이지
형제심지 불합하여 단종손위 하온후에
안편대군 내념에도 화당할것 예측터니
그의아들 우직이와 강화도로 구양가서
인심이 집중되매 사약해서 죽였으며

그의동생 한남군과 영풍군 화의군도
모다잡아 죽였으며 단종매부 정종이도
광주에서 피주되고 이와같은 충신열사
낯낯이다 죽인후 단종마자 없에고자
간신들의 상소로써 무도하다 세조솜씨
약긔사신 보낸구나 약긔사신 왕방연이
약긔들고 영월갈제 내가죽어 없을진정
단종대왕 어전에다 이약긔를 어이바쳐
강에던저 자살하다 약시사신 죽은소문
세조대왕 앉아듯고 약기사신 또보내니
보낸대로 다죽는다 단종대왕 어진마음
박복한 날로하야 무죄한 사신들만
오는대로 자살하니 아서라 내가죽어
지하에 돌아가서 선대왕을 뵈오리라
장탄식에 굳은결심 정축十월 二十四일
수근으로 목을홀겨 참혹하게 자진하니
十二세에 즉위하야 재위불과 三년으로
춘추겨우 十七세라 가련할사 궁녀들은
마주앉아 슬피울다 단종대왕 뒤따라서
청령포 절벽에서 낙화처럼 자살하니
세조대왕 인정보소 영월관에 명령하야
단종시쳬 거둔자는 멸삼족의 엄명듯고
어느누가 장사하리 돌아가신 단종시쳬
청령포 三간집에 몇날몇달 그양있네
영월호장 엄흥도는 삼족형벌 겁않내고
단종장사 치려간다 청령포 올라가서
염습하며 통곡하되 문종대왕 계실때에
천하없든 귀한아들 이모양이 되실줄을
문종대왕 몰났든가 흉악하다 세조솜씨
이조카를 이리하고 후복이 길것인가
우리야 아전이되 죽질인정 이렇찬소
구중궁궐 높은집에 평안히 계시다가
한평생을 산다해도 돌아갈땐 설업거든
하물며 대왕님은 높은자리 빼았기고
이곳까지 쫓겨나와 찾아오리 하나없이
참혹해서 못보겠네 눈물썪겨 염습한후
첩첩산중 백설속에 근근히 뫼섰으니
자욱자욱 충성이오 흙한줌도 충성이라

숙종때 내려와서 장릉으로 추존하고
엄호장의 자손찾아 장릉참봉 제수하고
영월읍 어구에다 충절비를 세우면서
사제문에 하였으되 이일호장 으로
능수대절 하니 유정백세에
가위의열 이라 단종사기 다하려니
눈물흘려 못하겠네 단종왕후 정순송씨
八十향수 하였으니 단종대왕 자결한후
궁녀들도 자결커늘 지절하다 송왕후는
무슨세월 보려하고 八十이나 살었든가
부녀자의 갖인절게 궁녀만도 못하도다
찬탈한 세조대왕 골육상쟁 비난하나
정치에는 수완있어 심복한 모사들이
혈심으로 보좌하니 국력이 대진하다
재위한지 五년에는 신숙주를 보내여서
야인을 정복했네 신숙주는 문장으로
한명회와 두리함께 김종서등 죽일때도
일등공신 되어있고 사육신 죽일때도
남이장군 죽일때도 구성군을 죽일때도
일등공신 봉해있네 아마도 신숙주는
충신을 죽이는대 공으로선 제일이라
十二년 五월에는 길주사람 이시애가
자치안을 내걸고서 반란을 이르키매
도총사에 구성군과 부총사에 조석문과
어유소와 남이장군 이시애를 잡었구나
문치에도 유공하다 학문을 장려하고
경국대전 속간하야 사무규범 재정하고
국조보감 동국통감 병서등을 간행하고
불교도 장려하야 치정은 선정이라
무자년에 승하하니 춘추는 五十二요
재위불과 十三년에 광능에 장사하다
조카죽여 뺏은임금 한五백년 못해보고
형의뒤만 망쳐노코 지하에 돌아간들
문종대왕 어이뵈리 불칙한 짓을하니
왕비역시 어질잖고 그의아득 덕종임금
二十세의 동궁으로 죽은뒤에 추존하고
둘제아들 예종임금 재위一년 못되여서
二十세에 요수하고 덕종왕비 청주한씨

예종비도 청주한씨 정희왕후 특명으로
성종대왕 즉위하니 그왕후도 청주한씨
부원군 한명회는 딸둘을 길러내어
맞딸님은 예종왕비 둘재딸은 성종왕비
친정으론 형제되고 싀가로는 숙질되네
성종대왕 착하시와 세종대왕 다음가네
천성이 인자하며 학문에 정통하다
집현전을 중수하여 홍문관을 지으시고
호당을 설치하여 사가독서 일삼으며
존경각을 창설하여 서적을 비치하다
요순이하 역대성군 병풍에다 모화하여
덕정을 여행하며 치화가 대행터라
삼국사의 절요이며 여지승람 재왕명감
경국대전 완성하고 즉위한지 十년되여
윤필상을 보내시와 명나라와 협력하여
건주를 정토하고 三十三년 허종보내
야인을 정복하다 만조의 명제상이
성종대왕 보필하니 태평연을 구가하고
시화연풍 이때로다 二十五년 승하하니
춘추가 三十八에 선능에 장사하고
아들이 十五형제 공주가 열둘이라
슬프다 우리나라 장사괄시 너무하네
이준을 두고보면 임영대군 아들로써
세종대왕 손자된다 무략이 뛰여나서
이시애가 모반할제 도총사로 평정하고
一등공신 되어있고 二十八세 영의정에
지모장력 겁을내여 영해에다 안치타가
신숙주의 게청으로 사사하야 죽였으며
원통하다 남이장군 十七세에 무과하야
세조총애 깊었드니 이시애 건주위에
선등으로 유공하고 二十六세 겨우되여
병조판서 지냈드니 남아二十 미평국이면
후세수칭 대장부를 남아이십 미득국이라
평할평자 글한자를 어득득자 고쳐노코
역모로 죄만드니 남이장군 치죄하네
국문에 나갈때에 영의정 강순이
공모했다 자백하니 강순이 잡혀가서
연소자를 친했드니 억울하기 짝이없다

남이에게 반문하니 남이장군 태연하게
죄없이 억울키는 너나나나 일반이지
일국의 제상으로 나하나를 못구해서
원통하게 죽게되니 제상하여 무었하며
나와함께 죽자구나 부득이 강순이와
둘이함께 원사하니 강순은 七十세요
남이는 二十八이라 성종대왕 승하하고
연산주가 즉위하니 부왕은 인자하나
어이그리 포악하며 어이그리 무도한고
사람됨이 음란하야 역대왕중 폭군이라
채청사 채홍사를 각도열읍 파견하야
민간부녀 민간쳐녀 강제로 끌어오고
채은사를 파견하야 민간재물 양마들을
강제로 뺏어오고 민간건물 헐어제쳐
수렵장을 만든후에 갖은행패 다부린다
살인하기 예사이며 음란하기 일과이라
원산대군 박씨부인 연산주의 백모로되
그백모를 강간함에 박씨부인 자결하고
성균관 弘文館을 연락소로 만든후에
문장재사 다죽이고 민인가희 가득찼네
재위한지 四년되여 이극돈과 유자광이
둘이모다 간신으로 연산주에 아부하야
김종직의 조의제문 김일손 수사록에
세조행장 비방했다 김종직의 무덤파서
부관참시 하온후에 일대명현 수백인을
모조리 참살하되 김일손 권오복과
김굉필 정여창등 참살하고 구양가고
김종직의 문인이오 사돈되는 김맹성은
사후이미 十二년에 직접화는 면했으나
그의아들 김자강이 아비대신 연좌되여
변관개명 한연후에 유리팔방 모피하야
생명만은 보존했네 김자강도 유명하다
삼강행실 록에 우리나라 四효자는
고려조에 최루백은 아비먹은 범을잡고
이조때에 김자강은 복총三일 불기하여
조정에서 정표하니 정표문에 하였으되
소연망부 봉자위에 순색승안 망혹위라
상진예의 잉합장하야 수분삼재 누혼의라

종상부위 부거려하니 고피인친 강인거라
고시연광 호벽지하니 지성능감 득여초라
이러타시 정문하고 조정에서 불으시와
집현전적 나리섰네 유석진은 단지하야
아비병을 낳게하고 윤은보는 여막에서
바람에 잃은향합 가마귀가 물고오니
아마도 이런효자 고금에 드믈세라
무오사화 일어난후 六년이 지나가서
연산주의 외가에서 피무든 비단적삼
연산주께 바치면서 모친되는 윤씨부인
성종의 계비되여 연산주를 낳은후에
상감께 불순키로 성종이 노하시와
제신들과 의론끝에 패비를 하였으니
원통하게 쫓겨나가 눈물이 피가되여
금삼을 적신사연 원정을 올리거늘
포학한 연산주가 모친원수 갚기위해
선왕구신 참론죄로 갑자사화 이르키여
모조리 대살했네 그때에 죽은신하
모다합쳐 三十六인 그래도 한이남어
병인년에 이르러서 무오갑자 빠진신하
병인삼화 이르키여 닥친대로 다죽인다
그모친을 생각하야 모친원수 갚는일은
인자되고 당연하나 사류를 진살하니
그어찌 장구하랴 환관인 김서선이
직간하다 하는말이 노로사조 섬겨오되
고금을 두고봐도 주같은 소위자는
아마도 처음보오 연산주가 성을내서
처선의 팔을치니 처선의 하는말이
죽기로니 헛말이오 다만한이 되는것은
연산주가 장구찬소 연사주또 대로하야
또한다리 마자치니 처선은 꼼짝않고
유혈만 낭자터라 이러서라 재촉하다
처선이 처다보며 여무각而 행호아
연사주가 김처선의 혀를빼고 치죄하야
원통하게 죽었구나 이와같이 연산주는
정사는 고사하고 음탕하고 살인하여
사직이 위대함에 병인년 추九월에
성희안 유순정과 박원종 셋사람이

혁명을 밀모하여 一조에 반정한후
연산주를 패하여서 교동으로 내친다음
성종의 둘제아들 중종을 영립하여
임사흥등 간신무리 모조리 처치한후
유자광은 정배가고 무오갑자 병인년의
사화당한 명사들의 관직을 복귀하고
원통하게 죽은인사 일일히 신원한후
자손찾어 벼슬주다 중종이 즉위하니
그왕비는 거창신씨 둘제왕비 파평윤씨
중종은 즉위후로 실정을 회복코자
악정을 게혁하고 홍문관을 갱설하고
사간원도 복구하야 어진신하 들어쓰니
국정은 좋와지나 중종또한 유약하야
왕후신씨 패출하고 간신무리 말만듯고
무고한 신하들을 모역이라 주살하고
중종五년 四월달에 三초왜란 이러나매
황형과 유담영이 혈전 끝에 막었으며
十三년 十一월에 기묘사화 이러나니
남곤과 심정이가 천만고의 간신으로
권리를 독점코자 명사를 재거한다
조광조를 모함할제 나무닢에 꿀을발러
주초위왕 글을쓰니 벌래가 꿀을따라
글자를 깎어먹어 주초위왕 쌕여지니
남곤심정 무고하되 주초는 조씨이니
조광조를 재거하고 중종이 옳게녁여
일대명유 조광조를 역모로 모라다가
수백여명 명사들을 모조리 다죽였네
조정암 죽일때에 절명시가 전해오니
애군을여 애부하고 우국을여 우가라
천일이조 단충하니 조조임 하토라
그후에 남곤심정 자당을 규합하야
충직한 명인들은 거이다 없엤으나
남은명사 또미워서 신사사화 또이르켜
다잡아 없엔연후 남곤심정 제멋대로
조정을 전횡하니 만조가 소인배라
소인집권 六년동안 기강은 문란하고
인심은 이완되여 사직이 위태터니
남곤이 병사한후 남은소인 숙청되나

대윤소윤 이러나다 윤임은 누구련고
인종모후 친형인 대윤임은 인종으로
윤원형은 명종으로 임금을 세우고자
둘이서로 다투더니 중종이 무능하야
조정이 혼란하고 성희안과 박원종등
삼훈에 씨달리고 삼훈이 죽은뒤에
남곤과 심정같은 간신에게 욕을보고
간신이 또물러간후 김안로 당류들의
三간에게 화를당코 윤임과 윤원형의
윤당에게 난을겪어 재위三十 八년동안
영일없이 지내다가 갑진년에 승하하니
춘추가 五十七에 정능에 장사하다
아들이 七형제요 공주가 열둘이라
윤임의 주창대로 인종이 즉위하니
그왕후는 라주박씨 인종은 인후하나
재위一년 못되여서 三十一에 승하하니
효능에 장사하고 왕후능도 동원이라
자녀가 하나없어 명종이 즉위하니
인종의 아우로서 十二세의 어린님금
문정왕후 윤씨부인 수렴청정 하는구나
영중추홍 언필과 三상과 六조들이
유명을 바뜨러서 어린명몽 보좌하나
왕후되는 청송심씨 천성이 한독하고
윤윈형도 흉측하야 정순붕 이기들의
五간이 전횡하야 국정을 쥐흔드매
명사들이 반대하야 五간을 진압함에
五간신의 소행보소 문정왕후 뫼서노코
충순당 뜰앞에서 사류를 진살코자
형벌을 행할때에 좌의정 유관이와
이조판서 유인숙과 종실되는 게림군과
명종서형 봉성군을 역모로 죄만들어
머리를 버힌연후 중종왕비 동생되는
찬성의 윤임이를 그의아들 三형제와
한주래다 육살하고 대사간 곽순이를
장하지혼 되게하고 이황과 노수신과
신거관은 삭관되고 이언적의 거동보소
백인걸 노수신과 권발을 구하려다
강계로 구양가서 적소에서 도라가고

기외에 수백명사 죽이고 구양가고
삭관당해 피화하니 이것이 이름있는
명종을 사사화로다 명인들을 다죽인후
五간이 득세하야 국정에 참가하고
정미년 九월에는 문저왕후 비방하는
편지한장 발견하고 을사여당 소위라고
송인수를 비롯하여 수백인을 또죽이니
정미사화 이것일세 五간의 수족되는
진부창의 흉계로써 안명세등 수백인물
무신년에 피살되고 기유년에 이르러선
이홍남의 소위보소 그의아우 홍윤이를
모역자로 모러다가 원통하게 죽인후에
그의연류 수백인을 죄없이 또죽이니
기유사화 이것이라 세종대왕 기룬선비
세조손에 다죽이고 성종대왕 기룬선비
연산군이 다죽이고 암약한 중종왕과
유충한 명종으로 간신들이 득세하야
남은명사 다죽이니 조야인심 위태하고
국가원이 떨어지다 명종十년 갑인년에
일본병이 침입하야 전라도에 상육해서
담양을 점영함에 전라병사 원적이와
장흥부사 한온이는 대전타가 전망하고
일본병이 득세하야 장흥부등 여러곳을
연다라 석권함에 명종대왕 염려하고
도순찰사 이준경과 좌방어사 김경이며
우방어사 남치근에 관군을 동원하야
일본병을 무찌르니 난리는 평정되다
해서강도 임꺽정은 양주백성 천한몸이
도적놈의 괴수되여 해서지방 노략타가
그기세가 강성하여 관군에 대항커늘
조정에선 대로하야 남치근을 보내여서
임꺽정을 잡은후에 도적난이 평정되다
명종대왕 장성함에 문정후와 윤원형의
세력을 재거코자 이준경 박순이와
기자헌 윤두수며 심의겸을 등용한후
윤원형을 쫓아내고 이기와 정순붕등
두간신이 사망함에 남은당을 다죽이니
문정왕후 작고하고 명종의 국구되는

이양이도 몰아낸후 六十년간 권간세도
이에서 끝맺으니 성자현손 다시나서
광명일월 돌아오네 풍기군수 주세붕이
유유수간 부자묘에 만정추초 적무인의
안문성공 글을보고 안문성공 구기에다
백운서원 건립하야 三백여근 동철얻어
그비용에 충당하고 소수서원 사액받다
우리나라 서원짓기 이것이 시초로다
김인후도 명현으로 인종대왕 빈천할세
七월一일 기신마다 입산중 통곡하며
년년 추칠월에 통곡만 산중이란
글까지 유전하다 공당문답 맹사성은
효우가 출천했고 이언적의 선견지명
안로용사 짐작했고 일각재상 상진이는
소를몰고 밭을가는 전부에게 훈계받아
명제상이 되었으며 점잘치는 홍계관은
이때의 인물이며 十천九장 남사고도
풍수설에 으뜸이오 토정비결 이지함은
역학으로 손꼽으며 재조있는 정복창은
사이어에 능통했네 二十二년 승하하니
강릉에 장사하다 명종대왕 무자하야
조카님을 뫼서오니 선조대왕 이아닌가
그왕후는 나주박씨 둘제왕후 연안김씨
천자가 총명하고 동고같은 현신맛나
기모.을사 죽은신하 낯낯이 신설하고
남곤과 심정이와 김안로와 윤원형등
간신배도 추죄하고 이퇴계와 이율곡과
유서애 노소재등 명인들을 등용하여
실정을 회복한뒤 만기를 쇄신하고
예의를 숭상하며 청렴을 격려하야
대중흥을 이루었네 퇴계선생 어떠한고
천자가 심고하며 도덕이 순비하여
동방부자 이름나다 三백여명 문도에게
도학을 전교하고 도덕가사 지어낼제
향약을 만드러서 자치제도 창시하니
도덕문장 각방면에 의적도 장할시고
이율곡은 어떠한고 강능땅 태생으로
총명이 남과달라 五세에 능시하야

리학지종 손을꼽고 오리대감 이원익은
四十년간 입조하야 위인으로 손꼽으며
오성대감 이항복과 한음대감 이덕형은
선조대왕 도아가며 중흥시킨 명상이며
겸암선생 이인으로 임지왜란 미리알고
서애대감 도아있고 정철의 시조이며
이순신 권률이며 곽재우 김덕령의
명장수도 배출되고 서산대사 사명당의
기의승장 이름나고 사계선생 신독재의
부자예학 놀랍시고 二十八왕 제왕중에
선조때가 제일이다 목릉승대 이아닌가
선조대왕 八년되여 四색당파 이러나니
심의겸과 김효원이 사사다툼 기인되여
동인서인 갈라지고 남북으로 또갈리여
김효원은 동인되고 심의겸은 서인이라
동인이 또갈리어 남북으로 편을갈라
우성전은 남인되고 이발은 북인이라
북인이 또갈리어 이산해는 대북이오
남이공은 소북이라 대북이 또갈라져
골북.육북. 중북있고 소북이 또갈라져
유당과 남당있고 서인이 또갈라져
인조때 내려와서 노서에 김유이며
소서에 김상헌이 신서에 신흠이오
윤서에 윤방이라 숙종때 내려와서
남인이 또갈라져 청남에는 허목이오
탁남에 허적이라 서인이 또갈라져
노론에 송시열이 소론에 윤증이라
만조가 부화하야 논쟁배척 일삼으며
모략중상 심하구나 율곡선생 혼자남아
당파싸음 조절타가 동인에게 논척받아
갑신년에 퇴출하니 효과는 하나없고
당쟁만 격심터라 선조대왕 二十三년
인국사정 탐지코자 통신사의 명목으로
일본으로 파견하니 정사에 황윤길이
부사에 김성일이 一년만에 돌아와서
선조앞에 복명하되 황윤길의 하는말은
일본사정 삶여보니 풍신수길 괴걸로써
나라를 평란하야 막부장군 되온후에

대륙을 침략코자 인광을 삶여보니
섬광이 비상한즉 필유병화 할것이니
무비함을 주창하고 김성일의 하는말은
일본은 소국이라 풍신수길 섬광이나
서목이 완연하니 두려울 것 하나없다
이같은 승평세에 군비를 하게되면
백성에게 의혹받네 황윤길과 김성일은
말마다 상이되매 유성룡과 이산해는
그당시 재상이나 모두가 동인으로
김성일을 옳게녁여 무비를 파했드니
선조대왕 二十五년 임진월 十四日에
일본병이 대침하니 황윤길말 들었드면
군량군기 준비했지 일본놈의 소행보소
풍신수길 지휘아래 가등청정 소서행장
二十五만 거느리고 부산진에 도착하되
九千척의 배를모아 남해에서 처서오니
동래부사 송상현과 부산첨사 정발이와
성을지켜 싸우다가 역진하여 전사하니
임진월 보름이라 일본군은 상륙하야
북을향해 처들올제 三로로 나누어서
양산.울산. 언양이며 경주.밀양. 김해열읍
일본군에 점령되니 만조백관 당황하다
一국군을 동원하야 북상하는 일본병을
三로로 막을때에 이일이외 모든장수
연다라 패배하고 二十八일 탄금대서
도순변사 신립장군 八千여명 거느리고
일본군과 혈전타가 패망하여 전사하니
일본병이 득세하야 조수처럼 밀려온다
서울을 향해오니 사세가 위급하매
선조대왕 파쳔갈졔 임진四월 三十일에
서울을 발정하야 동년五월 초일에
게성에 주가하자 五월三일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하매 게성에서 선조대왕
평양으로 또옮기고 도원수 김명원이
一만二千 정병으로 임진강을 막어내다
五월十七 일밤되여 김명원이 해몰하니
五월二十 七일되여 승승장구 일본병이
게성을또 점령하고 선조대왕 위급하여

동년六월 十一일에 의주로또 옮기시와
탄시한수 읊었으니 통곡관 산월이오
상심압 수풍이라 조신금일후에
영부각동 서라동년 六월十五일에
평양마자 함락하니 일본놈의 소행보소
전후五十 여일간에 힘안들고 전진하여
八도에 가득찼네 창생은 갈바몰라
씨달리고 굶주린다 육군은 대패하나
해군만은 강성하야 경상도 좌수영과
다대포가 함락하매 경상수시 원균이는
전라수사 이순신에 원병을 청하거늘
우수사 이억가와 이순신과 둘이들어
거북선을 운행하야 일본해군 찾어간다
五월四일 출발하여 五월七일 옥포에서
일본해군 처음맛나 三十척을 격침하고
五월八일 진해에서 十三적을 격침하고
잠시환진 하였다가 五월十九일에는
사천안에 十三척을 六월二일 망항포서
三十二척 또부시고 六월七일 영등포서
七척을 또부시고 임진년 七월八일
일본해군 소행보소 수백척의 배를잃고
연다라 패한분을 원거를 회복코자
한산도 밝은달밤 우리해군 마주싸워
대격전이 벌어지니 이순신의 용맹보소
거북선을 모라다가 일본해군 충돌하다
七十三척 배부시고 일본군이 도망치고
이충무공 대승하니 이것이 역사상에
이름높은 한산대첩 七월十일 적을쫓아
안골포에 이르러서 九十二척 격침하고
十三일에 환군하야 二十여일 쉬인뒤에
백여척을 부신다음 九월二일 환군하니
일본군함 격침함이 四백여척 넘었구나
일본해군 위축되여 이순신을 피해가니
우리해군 사기띄다 해군은 대승하나
육군은 팜패하여 군운이 위태함에
선조대왕 거동보소 八도열읍 인민에게
애통조를 내리시고 근왕병을 모집한다
전라.충청 양도에서 十三만병 모아다가

용인에서 참패하고 동복현감 황진이는
용인에서 패한후에 근왕병을 다시모아
진도에서 대전하야 일본병을 무찌르고
진주성에 근거하여 혈전한지 十여일에
원통하게 전사하니 진주성이 함락되매
六만병력 전사하니 원통하기 짝이없다
초토사 이정엄은 연안에서 대승하고
고경명과 고종후와 김천일과 최경회는
호남에서 기병하야 임진六월 초十일에
진주에서 전사하고 영규와 조중봉은
호서에서 기병하야 七백의사 거느리고
금산에서 결사했네 득승함도 있었으나
패몰함이 적지않어 선조대왕 염려하사
이덕형을 보내여서 중국요동 순무사에
원조를 간청했고 명나라에 다시보내
청병을 의론하야 정곤수를 보냈드니
명국장수 조승훈이 五千병력 거느리고
평양에서 싸우다가 패하여 돌아가니
사세더욱 위급하매 명나라 심유경과
일본장수 소서비와 조약을 채결하고
五十일간 휴전트니 임진년 九월되여
이덕형과 정근수가 다시청병 들어갈제
이덕형의 하는말이 이번거름 청병가서
만일군사 못얻으면 노옹의 뼈를묵고
외국고혼 돌지라도 압록강을 않건느리
눈물로 맹서하고 연경에 다다르니
황극전이 여긔로다 이덕형의 거동보소
명천자전 고두하야 六차상소 읍소하니
의거남아 홍순언이 병부상서 석성에게
구원병을 간청하니 조선충신 감복하고
쾨히허락 하온후에 신용명장 六十명과
정병五만 주는구나 동원제독 누구든고
대도독에 이여송이 경략장군 송응창과
유격장군 심유경과 중협장에 양원이며
독향에 예유신과 찬화주사 원황이며
수군도 독진린이 오향도에 천만리라
늠늠한 위풍으로 압록강을 건너서서
선조대왕 뵈온후에 그제야 대장기를

놓이달고 내려올제 이때가 어느때뇨
임진九월 十二일에 기성에서 일본병과
한번싸음 실험하고 곽산에서 대전한후
동래에서 三진할제 패하는것 왜장이오
죽는놈은 왜졸이라 이여송의 지용으로
연전연승 거듭되니 우리군사 힘을내어
사기가 왕성하다 우리장수 김응서는
평양기생 계월향과 연광정서 밀모하야
범같은 왜놈장수 둘힘으로 잡었으며
진주기생 논게보소 일본장수 얼사안고
진주남강 떠러저서 섬~연약 여자몸이
왜장을 잡았으니 천추에 빛난이름
지금까지 전해오니 의기암시 상전되다
독초기암은 독립기녀라
여비사암이면 언득사소리오
약비사녀이면 오저의성고
일편고암이 만고방명이라
이와같이 찬양하오 진주목사 김시민은
조정과 김면등의 의용군과 합세하야
사천과 창원이며 고성과 금산땅을
차례차례 수복하고 부산에서 포위하는
일본병을 대파하야 둔병을 풀어주고
왜장三백 무찌르고 왜졸三만 진살했네
곽제우와 정인홍과 권응수도 의장으로
민병을 이르켜서 영남에서 기병하야
우도열읍 수복하고 이원익도 용맹있어
전사수백 거느리고 도강작전 우세하야
전마八十 탈취했네 함경도는 어이됐나
가등청정 주둔터니 회령도적 국경인이
청정에게 내응하여 모병차로 내려갔든
임해.순화 두왕자와 김귀영과 황정욱을
청정에게 잡어주어 인심이 분계트니
북병사정 문부와 이붕수등 五장사가
회령에서 기병하야 국경인을 잡아죽여
길주.성전 탈환하고 계사년 정월에는
청정군과 마주싸워 일본병사 대파하고
함경도를 수복하다 지용겸비 권율장군
계사二월 十二일에 二千병마 거느리고

행주산성 진을칠세 왜졸의 수만명이
접전하야 나오거늘 권률장군 도량으로
사졸을 격력하야 왜군졸을 전멸하니
역사상 이름높은 행주대첩 이아닌가
부여자도 출전하야 앞치마에 돌을싸서
석전으로 도았으니 앞에입은 치마이름
행주치마 되었도다 익호장군 김덕령은
의병을 일으키여 八년풍진 긴긴세월
처처에서 싸음하야 왜장졸을 무찔러서
유공함이 많었으나 八년풍진 수습흰후
이몽학의 무고로써 조정에선 옳게녁여
김덕령을 잡어다가 엄형중벌 하올때에
두개골이 파괴되니 김덕령의 하는말이
효자충신 김덕령이 무슨죄로 죽나닛가
이같은 말을하고 원통하게 국살됨에
죽은뒤에 액기밑에 철퇴두개 들었으니
사용한번 못해보고 억울하게 죽었구나
당시에 왜장청정 김덕령의 화상보고
만고명장 탄복하다 우리나라 고금으로
혼자권리 독점코자 승기자를 염지하야
장사나면 다죽이고 이인나면 다잡으니
인재는 많이나도 적재적소 못써보고
원통하게 다죽이니 그누구의 잘못인가
이몽학은 어떤자냐 홍산땅 서인으로
홍산에서 반란하야 홍산.임천 습격하고
청양과 정산등의 열읍을 전함하고
홍주를 진공하니 그위세가 당당하매
홍주목사 홍가신과 박명현 최호등이
홍주성을 토평하니 이몽학은 위급하야
덕산으로 다라나니 이몽학의 부하들이
석성에서 이몽학을 도로잡아 바치거늘
이몽학의 하는말이 김덕령과 공모했다
거줏말로 아뢰기에 이말을 옳게녁어
김덕령을 격소하야 역모로 국살하다
일본병의 소행보소 못당할것 짐작하고
이여송과 일본사이 화의가 성립되여
왜군은 건너가고 이여송 혼자남어
명산대천 찾어다녀 신혈맥을 찌른뒤에

요동으로 돌아가니 조선인재 배출될가
심술궂은 짓이로다 풍신수길 거동보소
임진년에 많은군사 조선와서 다죽이나
분한생각 참지못해 정유년 정월달에
다시침로 하는구나 명나라선 재원차로
양호로 경리삼고 형게로 총독삼고
다귀로 도독삼아 一만二千 거느리고
우리나라 또도으니 소사평야 벌판에서
우리군사 대승하나 통재사 원균이며
이억기 최호등이 모다함께 전사하고
안음과 황석산성 일병이 함락하매
안음현 감곽준이와 그의아들 이상.이후
三부자가 순절하고 유문호는 초로되매
그의부인 자결하니 조종도가 시를짓되
공동산외 생유희오 순원선중 사역영이라
일본장수 행장.의지 남원성을 포위하니
명장수와 우리장수 十여인이 전몰하매
무술년춘 二월에 명나라 훈일원과
유정등 장수들이 대군을 이끄르고
압록강을 건너오고 진린은 절강수군
五백여수 영도하야 당진에 래박하야
전라도로 내려가서 우리군과 합세하야
처처에서 승전하니 명나라의 원병은덕
천추에 잊지못해 해군의 이순신은
한산대첩 하온후에 명군과 합세하여
진도에서 또익이고 애석할사 이충무공
무술十一월 十九日 남해계 노량진서
적탄에 중환하야 진중에서 전사하니
원통할사 이순신은 동서고금 통해바도
이런명장 처음이라 서해어룡 동하고
맹산초목 지라는 절명시가 전하도다
아산의 충열사는 이장군을 뫼신대요
한산섬 부두에는 장군동상 세운후에
충무공의 임란공훈 천추만대 찬양하다
그뒤에 왜졸들이 처처에서 싸우다가
풍신수길 병사함에 수길의 유명으로
왜병이 철퇴하니 기해년 九월되여
八년풍진 끝이나다 유해무익 전쟁으로

인명재산 피해크고 몇千년 오랜사적
일조에 회신되고 국용이 탕갈되고
국토는 초토되여 민생은 도탄이라
우연하게 침로하야 패해서 돌아가니
일본놈도 결단나다 임진왜란 八년동안
누구누구 공신인고 문신으로 이를진댄
이항복과 정곤수요 무관으로 이를진댄
권율과 이순신과 원균이가 一등이라
일본병은 패해하고 임진년에 패한여분
제잘못은 몰라보고 풀지않고 설치고자
아차하면 또나올가 조야간에 근심터니
이때마츰 사명당은 왜적을 예방코자
자칭하고 이러선다 사명당은 누구든고
서산대사 제자로서 속성은 임씨인대
예안의 출신으로 가화로 집을떠나
삭박위승 중이되여 불서에 도통하야
생불이라 이름났네 임진왜란 이러날제
승병수千 거느리고 이여송을 도아가며
원종훈을 세우니라 행장을 수습하여
일본으로 건너가니 선조三十 七년이라
덕천가강 회견하고 임진란의 시시비비
낯낯이 설파한후 사명당의 제주보여
일본놈이 항복했네 사명당을 두려하야
년년이 조공하되 해마다 三백장의
인피뱄겨 바치기로 약조하고 왔다하네
그사실은 모호하나 좌우간 三백여년
침로없이 지냈음은 사명당의 외교로다
선조재위 四十一년 난리도 잦을시고
기축년엔 정여립이 모반하여 일어서니
제녕군수 박충간이 변란을 고한후에
한은인등 三장수가 이난리를 평란하고
四十一년 무진二월 선조대왕 승하하니
춘추가 五十七에 목릉에 장사하다
아들이 열너이오 공주가 열이로다
선조대왕 둘제아들 광해주가 증위하니
천성이 난폭하야 선조대왕 계실때에
동궁을 바꾸려고 군신이 논의트니
뜻대로 못한체로 졸연이 승하하니

광해그만 즉위하여 광폭을 자아낸다
이이첨 정인홍등 간신배가 만조하야
그임금 그신하에 변란어찌 없을쇼냐
학정이 시작된다 충신은 죽이는판
열의정의 유영경을 역율로 주살하고
형님되는 임해군과 적제되는 영창대군
역모로 죽인후에 종친과 명사들을
수백인을 참살하고 이항복을 위사하야
수백여명 귀양가고 만조가 간신으로
이이첨과 정인홍의 두당류 뿐이로다
선조국구 김제남도 역율로 치죄하고
원통하다 영창대군 八세의 어린나이
무슨역모 하였다고 방가운대 가뒤두고
불을때여 죽일때에 손발틉이 다타도록
방중에 해매다가 원통하게 죽었구나
영창대군 죽인후에 적모되는 인목대비
패출코자 의혼하네 허균과 한찬남과
한효순 정조등의 패모론을 발게하고
몇해두고 벼루드니 반대하든 이항복은
북청으로 구양가니 남은간신 몇사람이
패모론을 옳게녁여 인목대비 패출하여
서궁에 안치하니 조야가 황망하고
국민이 분계한다 권필은 시인으로
시정을 풍론하되 궁류청청 앵란비하니
만성도리 마춘휘라 조가공하 승평락하니
수견위언 출포의오 이와같이 발방트니
북방에 찬사하다 무오년 四월에는
심하역이 이러나니 만주태조 「누루하지」
여진족의 추장으로 흥경에 도읍하야
기세를 얻은후에 명나라를 공벌코자
무순.청하 위시하야 만주일대 점령하니
명나라선 황급하야 명사신 양호로써
우리나라 파견하야 구원병을 청하거늘 임진년의 제조은덕 명나라 괄시못해
도원수에 강홍립과 부원수에 김응서로
二만여명 거느리고 원조하려 들어간다
기미년 三월四 일명병과 연합하야
만주병과 싸우더니 강력한 만주병에
명군이 참패하매 광해주의 밀지로써

강홍립은 투항하고 김응하는 전사하고
김응서는 적군에게 거짓으로 항복하야
적장을 모살타가 도로패해 죽은이후
기미년 五월되여 화평조약 맺었구나
이와같이 변방에선 국사가 위급해도
광해주의 그광망과 이첨.인홍 그간계는
나날이 더욱심해 사직이 어즈럽다
이이첨의 불평하든 이귀와 김류이며
최명길 원두표등 수十인사 밀모하야
계해三월 十三일에 홍제원서 모여앉아
반정을 밀획하고 그날밤 새벽되여
김류를 대장삼고 원두표를 선봉하야
수백명을 거느리고 돈의문을 처들갈제
훈련대장 이홍립이 반정군에 내응하야
돈의문을 열어주니 반정군의 처들어가
광해주를 내치어서 강화도로 안치하고
인목대비 환궁하사 인조대왕 영립하니
원종대왕 아들이오 광해주의 조카로다
첫제왕후 청주한씨 둘제왕후 양주조씨
인조대왕 중흥하사 난신수괴 이이첨과
정인홍등 八十여명 모조리 다죽이고
방동양등 三백여명 원지로 정배가고
박흥규등 백여명은 관직을 삭탈하고
박승종 박자흥은 부자함께 자살하고
억울하게 죽은인사 관작을 추복하고
구양간 명사들은 낯낯이 소환하고
인재를 선용할제 영의정에 이원익과
신흠은 이조판서 이정귀는 예조판서
서성은 형조판서 대사헌에 오윤겸과
부제학엔 정경세요 김장생은 장령이오
장유.이식 이조좌랑 정온은 헌납이오
김덕성은 사간이오 대사성엔 정홍익에
천하의 정영기가 조정에 진취하다
八도의 도원수에 장으로 삼은후에
관서에 출진하고 반정공신 책봉할제
이괄이 도원훈으로 김류와의 번복되여
二등훈에 내려가서 북병사로 좌천되니
이괄이 불평으로 갑자년 정월달에

역모를 계획하고 一만二千 정병으로
서울을 처들오매 인조대왕 황망하야
공주로 파천하니 이괄의 거동보소
서울을 점거한후 흥안군을 옹립하고
가정부를 설치커늘 조정에선 분계하야
도원수에 장만이오 부원수에 아수일과
정충신 남이홍등 군졸을 거느리고
三일간을 혈전트니 동년二월 十一일에
이괄군을 대파하고 서울을 수복하니
이괄은 도망타가 부하되는 기이현에
붓잡이여 피살되고 갓자임금 홍안군도
광주에서 생포되여 이괄란이 평정됨에
서울로 환궁하다 때를였본 이인거가
정묘년 九월되여 황성에서 반하거늘
관군을 동원하야 이인거를 잡은후에
직시평란 되었드니 그이듬해 정월에는
유효립과 정심등이 또한난을 이르켜서
서울로 향해온다 허적을 대장삼아
관군을 동원하야 두난적을 잡았구나
갑신년 三월에는 원님대신 심기원과
광주부윤 권억이가 모역하야 범궐하니
휸련대장 구인구가 적당을 잡었드니
병술년 三월되여 또변란이 이러난다
유탁과 권대용이 호서에서 반란하야
그기세가 당당함에 이산하리 이석룡이
변란을 고했드니 관군을 이르켜서
반적을 전멸하다 이괄의 모반시에
한명연도 주살됨에 그의아들 한윤이가
만주로 망명하야 강홍립과 합세하여
만주임금 유인한후 인조五년 정묘세에
조선을 치려온다 三만대병 거느리고
국경을 넘어와서 의주를 점령하고
평양땅을 유린한다 의주부윤 이완이와
안주병사 남이흥과 황해감사 정호서와
평안감사 윤선이는 싸우다가 패망하고
그기세가 대단함에 조정에선 대경하야
강화도로 파천가고 강홍립의 숙부되는
강인이가 이러나서 강홍립을 달래가며

만주병을 안무하고 민주사신 유해와
두차례가 회담한후 정묘년 三월되여
화평조약 채결한후 게전한지 석달만에
만주병이 철퇴했네 인도대왕 기사년에
명장수 모문룡이 만주에 내응함에
명나라 조정에선 진게성을 보내여서
모문룡을 모살하니 지의부하 유흥치가
만주군에 내응되여 진게성을 또죽이니
조선명장 정충신과 이서등 두장수는
명나라를 도아가며 유흥치를 잡은후에
변란을 재거하나 만주국의 소행보소
명나라의 편든다고 충동을 이르킨다
만주임금 황태극이 대청이라 국호하야
황제라게 칭하고 용골대와 마부대의
두사신을 보내와서 국서를 전달하되
그태도가 거만함에 인조대왕 대로하야
두사신을 쫓었드니 청태종이 분을내여
병자납월 초九일에 十二만명 거느리고
우리나라 치려온다 함평양성 석권하고
서울로 육박함에 조정에선 황망하야
十二월 十三일에 왕자.빈궁 종묘.사직
강화도로 옮긴뒤에 김경짐을 보내여서
책임지위 지켜있고 十四일은 인조께서
남한산성 파천하자 적군은 서울안에
물미듯이 들어와서 三군을 나누어서
강화도로 내려갈제 천험지리 강화도는
김경징이 지키드니 六정六甲 신장부를
제조만 믿고놀다 호병의 거동보소
물미듯이 내려와서 강화도로 모여든다
김경징이 위급하야 신장을 불렀드니
아모리 외여봐도 신장은 오지않고
늦게야 절눔바리 등대하여 하는말이
대국의 호천자가 신장을 몰아가고
하나도 없앞거든 자꼬만 외불으오
김경징이 실수하야 호병이 상륙커늘
이듬해 정월이라 강도가 함락됨에
왕자.비반 종척들은 모조리 포로되고
기외수백 남녀노소 순절하여 죽으니라

인조대왕 파천나간 남한산성 어이됐나
수성한지 四十五일 호병에 포위되여
군량미가 끊어지고 일편고난 되였구나
싸음하는 장수들은 하나없이 패망하고
외원도 하나없이 모책이 전무하다
남한산성 피난대신 화천양론 이러나서
주화파에 최명길과 홍서봉 김게국이
척화파엔 김상헌과 정온과 오달제며
홍익한 윤집이라 강도함락 비보듯고
군신상하 통곡하다 사직을 안보하고
백성을 안무코자 치욕됨을 무릅스고
인조대왕 할수없이 화의코자 결론지어
세자를 보내시와 청태종과 회맹하고
강화조약 맺은후에 호병이 철퇴하니
정축二월 二일이라 청태종 들어갈제
인조대왕 글지으니 서교세우 군신루요
북궐의 운부자정을 왕자신하 납치하니
소헌.봉림 양왕자와 三학사를 앞세우고
八장사를 배종하야 심양으로 건너갈제
三학사는 누구든고 홍익한 오달제와
유집의 셋으로써 三학사 죽일때에
굴치않고 항언하되 개와같은 호천자야
네가이놈 무었이냐 누루하지 자손으로
대명을 소멸하고 요순우탕 문무주공
四千년 예악문물 一조에 다없에고
살부대립 네풍속을 三千리 금수강산 네속국을 만드려고 금수같은 너무리를
몇천몇만 거느리고 강포로 행악하여
무죄한 조선인물 저다지도 욕을뵈니
천지도 무심하다 망으래기 덮어쓰고
옥쇄를 전수하기 부끄럽도 아니하냐
이와같이 꾸지즈니 호천자기 대로하여
서이함께 처형하니 장하도다 三학사여
천추에 빛난이름 지금까지 소연하다
소현.봉림 돌아오고 호병이 돌아갈때
가도에 주둔하든 조선에 징병커늘
명나라군 치기위해 부득이라 인조대왕
유림과 임경업등 두장수를 보내여서
군사五千 거느리고 호병을 돕게하니

우리나라 임란도탄 명나라의 은혜입어
바라보고 있었드니 입경업은 임오년에
해로로 귀규하여 명장수와 합류해서
청국원수 갚자드니 인조대왕 갑신년에
명나라가 망했으매 뜻대로 못되였네
슬프다 인조대왕 난리도 잦었으며
피난도 잦을시고 갖은고생 하시다가
二十七년 五十五에 승하하니
五월달에 장릉에 왕후릉도 한릉이라
장사하고 아들이 여섯이오 공주가 하나이라
효종대왕 즉위하니 그왕후는 덕수장씨
벽자년의 성하지욕 목도하야 겪으시고
분심이 탱천하여 문신의 송시열과
무신의 이완대장 골육지은 맺어두고
군신이 모여앉아 북벌계획 의론한다
적신의 김자점을 역율로 주살하고
천문서자 명종등 서양문물 전해오고
기계를 수입하여 공업을 이르키고
수차제를 반포하야 농업을 장려하며
대동법을 시행하야 세제를 정리하고
청전을 수입하여 엽전을 주조하고
군비를 확창하여 각지방 요세지에
산성을 쌓게하고 의복을 게량하야
전시에 편케하며 군대를 증모하여
복수심을 선전하며 민심이 통일되여
준비가 진섭트니 춘추불과 四十一에
효종대왕 승하하니 十년두고 북변계획
一조에 와해로다 효종대왕 즉위후로
치국치민 뜻은없고 북벌계획 위주하고
복수시를 지었으니 아원장구 십만병하야
추풍웅진 구련성이라 지휘축답 호로지하야
가무귀래 향옥경이라 자자귀귀 포한이나
실상으론 망발이라 분하심을 생각하면
당당히 그럴거되 강약으로 비교하면
그것이 될말인가 천하를 호령하는
청나라를 대항하면 나라꼴이 어이될가
영능에 장사하니 왕후능도 한능이라
현종대왕 즉위하니 그왕후는 청풍김씨

유약한 현종대왕 북벌계획 간대없고
환후로 계시다가 三十四에 승하하니
숭능에 장사하다 왕후능도 한능이라
숙종대왕 즉위하니 그왕후는 광주김씨
둘제왕후 여흥민씨 셋제왕후 경주김씨
숙종대왕 성군으로 정사를 밝히시고
八도를 미행하야 민정을 탐지하고
오리를 근절하며 인제를 등용한다
국태민안 좋을씨고 시화연풍 이때로다
한편으론 망파싸음 치열하게 이러나서
선조조를 지내와서 광해주를 十四년간
동인의 대북당이 권리를 독점트니
광해주를 쫓아내고 인조반정 이룬것은
서인들의 힘으로써 인조.효종. 현종까지
三대五十 여년이나 서인들의 천하러니
숙종때 이르러서 남인중 허목이와
서인영수 송시열과 서로불평 이르키어
송시열을 모함하야 제주도로 정배하고
남인의 허적이의 서자되는 허견이가
모역하다 발각됨에 허적등이 패망하니
서인이 또득세하야 서인중에 노론소론
저희끼리 다투드니 남인의 허목이가
정권을 잡은후에 남이이또 이러서네
남인의 용계로써 숙종대왕 후궁으로
장희빈을 선출하니 글잘짓고 인물있어
숙종대왕 성군이되 장희빈에 혹하여서
장희빈을 승존하고 민비를 패출함에
박태보 오두인과 이세화등 셋사람이
불가함을 간하다가 전신을 불로찌져
참혹하게 죽였으며 송시열도 사사하고
김수항을 비롯하여 숫한사람 다죽이고
구양가고 관직뺐어 계집하나 까닭으로
이래서 될말인가 성균생원 김석겸은
당대의 명유로써 당파싸음 더럽다고
벼슬줘도 받지않고 글만읽고 들어앉아
여생을 마쳤다네 목창명의 장게로써
숙종때 이름있는 기사사화 이것이라
서인의 김춘택이 중규갔다 오는길에

패비소문 전해듯고 숙종대왕 회심코자
책한권을 지었으니 사씨남정기로다
숙종이 보신후에 마음자연 회심되여
내마음을 유혹함은 너놈들의 소위로다
나이제 결심하고 단정을 내리어서
후일을 증습하리 장희빈을 사사하고
장희제등 남인들을 모다함께 주살하고
서인이또 득세한다 숙종대왕 착하시나
당파싸음 四十여년 업적이란 무었있나
박권을 명령하여 백두산상 정계비와
안용복의 노력으로 울릉도를 추환한것
이두가지 뿐이로다 경자六월 승하하니
춘추가 六十이오 재위四十 六년이라
명릉에 장사하고 경종이 즉위하니
궁중요화 이름났든 장옥란의 아들이라
첫제왕비 청송심씨 둘제왕비 함종어씨
경종재위 四년동안 고질로써 신음되여
정신이 혼미하야 정사를 듯지못해
임금이란 시동이라 경종원년 八월에는
노론의 四대신인 김창집 이이명과
이건명 조태채가 세제를 책봉하고
영조를 내세우니 소론파선 반대하야
금상춘추 정성하고 병세위급 않사오니
대리함이 불가라고 사화를 이르킨다
경종원년 十二월에 노론들은 쫓겨나고
三상六조 훈장까지 소론당이 독점하여
노론당 수백여명 모함하야 참살하니
신임사화 이게로다 경종대왕 승하하고
영조대왕 즉위하니 첫제왕후 달성서씨
둘제왕후 경주김씨 영조대왕 둥궁시에
소론들의 야심으로 영조를 모해르니
요행으로 탈면하여 왕위에 올은이후
인자하고 총명하야 내심에는 수원되나
뿌리박힌 소론당을 급작스리 제거하면
후환을 두려하야 서서이 처리하되
소론중에 급진파인 김일경 목호룡과
박필몽등 셋사람을 맨먼첨 버힌후에
그이듬해 을사년에 소론파인 이광좌와

유봉휘 조태억을 원지로 유찬하고
노론의 내각조직을 사환국이 아닌가
노론정치 三년만에 그중에도 과격파는
소론전멸 주창함에 영조대왕 우려하야
과격파를 물리치고 완화파를 또불으니
정미환국 이것일세 영조四년 무신세에
쫓겨나간 급진파와 실세한 남인당의
十인이 결탁하야 밀풍군을 추대한후
반란을 일으키다 청주태인 점령하고
영남열읍 짓밟으니 조정에선 분로하야
도순무사 오명항과 순무중군 박찬신이
十적을 물리치고 무신란이 평정되니
소론들의 공이로다 그후소론 기세하니
영조대왕 미워하자 당파를 우려하고
소론의 조문명과 노론의 김재로를
궐내에 불러드려 당평책을 분부하니
소론의 소위보소 영조를 비방하고
三十一년 을해봄에 소론파가 밀모하야
반역을 도모타가 사전에 발각되여
영조대왕 질로하사 소론을 대살하고
노론을 들어쓰니 만조소론 겁을내여
전라를 회오하고 노론에게 굴신하야
생명지위 보존할분 다시거두 못하였네
선조八년 을해부터 동서인의 분쟁으로
난세에도 당파싸음 평사에도 당파싸음
시시비비 논쟁 끝에 목을치고 구양가고
못이르게 엎지르면 엎어진놈 이러나서
치돈놈을 도로치니 이래서야 나라일을
바로볼수 있겠는가 광해주 十四년간
대북의 천하였고 인조이후 五十여년
서인의 천하였고 숙종재위 四十여년
전반의 二十년은 서남인의 투쟁이오
후반의 二十년은 노소론이 쟁탈타가
경종영조 二十년은 그싸음이 참혹하야
노론이 대승하고 당파싸음 중자되나
三백년간 당쟁으로 국가대계 고사하고
사리사욕 급급함에 국운이 쇠퇴되다
영조는 영걸이라 재위五十 二년간에

당쟁을 진압하고 문치에 전력할제
주뢰와 난장같은 못된형벌 삭재하고
신문고를 설치하여 민성을 듯게하고
대전통편 만들어서 형법을 정리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사치를 엄금하며
금주령을 내리여서 균세법을 시행하고
빈민을 규휼하며 학문을 장려하야
인재를 배양하며 서적을 편찬하니
인문이 대진하다 사도세자 죽인것은
천추에 잘못일네 사도세자 누구든고
영조대왕 아들로써 동궁으로 있을때에
영특하고 총명하야 十세에 지은글이
조일청명 가독서오 천금불귀 독서귀라
영조대왕 이상하다 간신들의 말만듯고
뒤지안에 가두어서 참혹하게 죽였으니
홍봉한이 고약하다 사도세자 장인으로
당파싸음 기인되여 그사위를 없에려고
영조에게 규언하니 그말을 옳게녁여
참혹하게 죽였으니 춘추가 十八이라
그뒤에 추존되여 장조라 일크르다
병신년 三월달에 영조대왕 승하하니
춘추가 八十三에 二十八 왕제왕중에
장수하기 제一이오 재위가 五十二년
보위연수 제一이라 원릉에 장사하고
그의아들 진종대왕 경의군을 봉한후에
영특하고 비범트니 十세에 요사하니
추존으로 들어오고 정종대왕 즉위하니
영조의 손자되며 사도세자 아들이라
그왕비는 청풍김씨 정종대왕 즉위후로
아버지를 생각하야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부원수 갚으려다 영조의 유명으로
뜻대로 못되여서 여가만 있게되면
아버지의 능에가서 톡곡하고 돌아오니
그효성도 대단하다 정종대왕 어리실때
세손으로 책봉하니 일후에 즉위하면
아부원수 갚을가바 홍인한과 정후겸이
백방으로 모해함에 홍국영이 앞을서서
진충보호 하엿음에 모해망을 벗어나와

왕위에 올은이후 홍국영을 특제하와
금위대장 시킨이후 홍인한 정후겸과
문소의는 사사하고 윤양후는 경패하고
이상로 심상운은 목을버혀 처형하고
남은당을 쫓아내니 노론들아 모여앉아
왕손찬을 추대하고 역모를 도모함에
홍술해의 안해정씨 그의아들 홍상범등
역당을 처형하고 체제공 정종겸등
명제상이 보필하여 치정을 게혁하고
학문에 정통하여 문학이 대진하니
이조의 문왕이라 재위한지 二왕十비 四능년
四十九에 승하하니 건릉에 장사하고
왕비능도 한능이라 아들이 두분이오
공주도 두분이라 순조대왕 즉위하니
十一세의 어린님 금국구인 김조순이
정사를 보좌할세 그당시 패풍으로
문약이 신중하여 허식이 왕성하고
권리에 부복되며 유생들은 거만하여
향교서원 소굴삼어 반상구별 대단하고
잔민을 토색하고 문뻘로 사람쓰고
서북인을 배척하고 무사를 천대하며
중들을 쫓아내여 국정이 부패한중
임금역시 유약하야 김조순의 정권으로
김씨세도 시작한다 규법이 문란하여
난리가 이러나다 순조대왕 十一년에
홍경래란 이러나니 홍경래는 누구든고
서북인의 출신으로 게급구별 불평하여
난리를 이르켜서 우군칙과 밀모하야
가산을 았은후에 정기를 죽인
박천.안주 함락한후 다음임신년 정월에는
정주를 근거삼어 인근열읍 침약하니
북병사 이해우가 통우후 이해승과
함종부사 윤유열과 순천군수 오치수와
곽산군수 이호식을 영군하야 진격하니
전군이 대파함에 윤유열 이호식은
곽산.선천 수복하고 의주부윤 조흥진은
김견신 허항으로 용천.철산 수복하나
정주성은 수복못해 선천부사 김익순과

이장겸 정경행과 정성한은 종반하니
도순찰사 이요헌과 순무중군 박기풍이
패하여 돌아오매 유효원을 체대하여
혈전한지 두달만에 정주성을 탈환하고
홍경래를 잡은후에 난리는 평정되나
수많은 장졸들의 살육이 과다함에
환군한 유효원의 관직을 혁탈하다
갑오년 十一월에 순조대왕 승하하니
춘추가 四十五며 재위三十 四년이라
인릉에 장사하고 아들되는 익종대왕
二十二에 작고하니 추존으로 문조되고
헌종이 즉위하니 춘추겨우 八세로다
그왕비는 안동김씨 둘제왕비 남양홍씨
헌종이 유충함에 숭원.신정 양대비가
수렴청정 하올때에 순원외척 김문근과
신정와척 조인영은 둘이서로 쟁권하고
국구되는 조만영과 외척되는 김좌근과
정원용 권돈인이 반대파를 물리치고
국정을 좌우하니 문란한 세태로다
재위한지 十五년에 二十三세 승하하니
경릉에 장사하고 두왕비도 한릉이라
헌종이 아들없어 영조대왕 증손되고
전계대원 아들되는 강화도령 뫼서와서
임금우에 추대하니 철종대왕 이아닌가
철종또한 유충하여 국구되는 김문근이
대정을 협찬하니 김좌근은 좌상이오
김병국은 훈련대장 김병학은 대제학에
김병기는 찬성이라 김흥근은 판중추요
김응근은 판서이오 김병덕도 판서이라
한나라의 모든권리 김씨문에 포만하니
안동김씨 세도로다 모든사기 잠간두고
五백년래 이조문화 다시한번 살펴보세
종교로 이를진댄 유교가 대성하야
세종성종 두임금은 이것을 숭상하야
김종직 김굉필과 정여창 조광조며
이언적 김인후와 이황과 성혼이며
김장생 김집이며 이이와 조헌이며
송시열 송준길과 박세체등 대유현이

연다라 이러나고 변게량 박팽년과
성상문 신숙주등 대시인도 배출되고
불교는 쇠진해서 산간으로 숨어들어
근근히 전해오나 영광서산 사명당등
고승이 있었으되 독선기신 할뿐이오
야소교는 선조때에 허준이가 중국가서
처음으로 전해온후 압박을 받었드니
정종때에 재기하야 전국에 퍼졌드니
정약종을 비롯하여 수백인의 신도들이
모다함께 주살되여 그후에또 불란서서
입국선전 하였으나 시지부지 하여있고
선교는 단학이라 남사고등 몇몇사람
주창하야 나오드니 그도그만 미성하고
동학의 천도교는 최제우가 창립하야
신도가 많었으며 철학의 서경덕과
사학엔 서거정과 정인지가 제一이오
천문학엔 김석문과 정두원 안태중과
경학으론 이언적과 이황이 으뜸이오
법학으론 최치운과 정약종도 잇었구나
의학으로 이른진댄 허준의 동의보감
강명철의 제중신편 그모두가 이름나고
다산선생 정약용은 천문지리 의학이며
복서상문 백가지에 어이그리 능통한고
공예로 말할진댄 세종조의 천문음악
이순신의 거복선과 정운상의 비학선은
세계적 이름높고 한석봉 김정희등
명필가도 있었으며 박연의 음율이며
홍대룡의 양금등의 예술도 대단하다
반만년래 긴긴문화 이조때에 성숙피여
극단으로 발달하나 고루독단 불교사상
사람마다 물들리여 라여제 三국같은
그론예술 보지못해 게척력이 결핍했네
철종말기 들어서서 국운이 쇠퇴하여
사회제도 피패함에 곳곳마다 이러나는
민란어이 막어내리 十三년 二월에는
이명윤의 주창하는 진주민란 이러나고
동년四월 게녕땅에 김규진의 주창하는
민패교구 통문내고 인민을 충동함에

이를잡아 가뒀드니 수천명의 촌민들이
벌때같이 몰려들어 옥문을 파괴한후
김규진을 석방하고 경상감사 이돈영과
게녕현감 김후근을 직석에서 파출하고
이방수교 하리등을 관문에서 박살한후
후임자 보내기를 조정에 간청하고
함평에도 정한순이 도당을 모은후에
기치와 죽장들고 관아에 란입하여
함평현감 권첨규를 파직토록 하였으며
이밧게도 각처에서 민란이 이러나니
익산.회덕 공주.은진 피패한 국민들은
탐관오리 시정코자 연다라 봉기하나
탐관부덕 더유심해 양반게급 몰락코자
최제우가 창도하는 동학이 이러나서
평민횡침 못하도록 각별통찰 해가면서
종교활동 하였든바 사회모순 시정으로
혹세무민 도라하여 최제우를 비롯하여
그의무리 二十여명 경상감영 사복당해
철종말년 이르러서 사형당코 말었드니
그의교도 전봉준이 고종황제 갑오년에
동학란을 이르켰네 재위줄과 十四년에
철종대왕 승하하니 후사가 업으므로
영조대왕 후손되는 흥선군의 둘제아들
고종황제 입승했네 흥선군을 추대하여
대원군을 갱봉하고 그왕후는 명성민씨
민치록의 딸님이라 十三세 어린임금
대원군이 섭정한후 六十년간 외척세도
모도다 배척한후 자당내각 조직하니
군국의 대궐리가 대원군에 돌아가다
국정을 게혁코자 제도를 고친후에
四색당파 제거하고 남북사람 털어노코
인재따라 등용한후 서원을 회철하고
전국에 엄명하여 토색을 엄금하며
한사람도 독권으로 전횡함을 방지하고
병역제를 균등하며 탐관오리 엄벌하고
사치를 금지하니 五백년때 처음보는
대영단을 내리시다 즉위한지 二년되여
임진란때 타버렸든 경복궁을 중건할제

전국에 명령하야 역부를 소집한다
국고금이 부족하여 결두세를 징수하고
원납.금을 강징하여 三년만에 낙성하다
광무三년 정월에는 노국군함 원산와서
통상을 청하거늘 대원군의 고집보소
이것을 배척하고 전수의 계책으로
군비를 대수할제 소총과 군도등은
일본에서 구입하고 서양서 만든대포
청국에서 사드리고 강화.인천 두곳에다
포매를 축조하며 도성을 수축하여
국방에 힘을쓰다 이때마츰 천주교가
본국에 들어와서 교도인 남종삼등
불란서를 배경삼어 전국에 선교함에
대원군의 거동보소 쇠국주의 정책으로
천주교의 탄압령을 전국에 선포하야
남종삼 정의배와 김장운 최형등의
수백신도 학살하고 고종三년 정월부터
二월까지 두달동안 불란서 선교사를
아홉사람 또죽이니 불란서엔 보도듯고
광무三년 九월되여 포함척 거느리고
양화진에 투묘하고 七척은 물치도에
각각투묘 하온후에 갑천진에 상륙한후
고지를 점령하고 군기.서책 약탈함에
순무사에 이경하와 어영중군 이용희로
二千병세 거느리고 불함매를 대파하다
대원군은 두차례나 양선을 격퇴하고
일본군함 운양호도 강화에서 쫓아내고
척화론을 주창하야 쇠국주의 실현하다
대원군의 과감하여 실정게혁 좋것만은
권리남용 너무심코 쇠국정책 큰혐이라
민파一달 소청으로 대원군은 퇴거하니
섭정한지 十년만에 고종황제 친정함에
민비친가 一당들이 안동김씨 모양으로
국정간섭 대단하니 대원군이 퇴거하여
분한생각 날로심해 민씨파와 원수되여
시기질투 심하구나 병자년 二월에는
일본과 수호할제 통상조약 채결하고
인천.부산 원산등의 항구를 게항하고

일본공사 화방이질 서울에 래주하다
十八년 四월에는 조준영등 十一청년
일본으로 파견하야 문물제도 시찰하고
八월달엔 안기영이 고종황제 서형되는
이제선을 추모타가 이풍래의 고변으로
안기영 권정호와 이철구 채동술등
四인함께 복주되고 김옥균을 보내여서
서양문물 견습했네 민씨파의 개화주의
더욱더욱 심해저서 十九년 임오세에
통리기무 아문라무 위.장어 二영두어
이경하 신정희로 대장을 삼은후에
일본인 굴본예조 서울로 초빙하야
병제훈련 실시하여 별기군이라 이름하다
진신자제 백여인을 기예를 교습하니
사관생도 이것이라 임오년 六월에는
훈국군졸 대기하야 배고프다 소리치며
모래섞긴 군량미는 못먹겠다 외치고서
권위제가 경산사를 파리하고 불찌르고
선혜당상 민겸호와 경기감사 김보현과
일본인 굴본예조 붓잡어서 죽인후에
궐내에 난입하야 민비를 잡으려다
홍제희의 구조로써 민비는 도망해서
장호원에 숨어있고 반란군은 다시이어
공사관을 포위하니 일본공사 화방이질
제물포로 도망하야 영국배를 잡어타고
일본으로 다라나다 대원군이 입성하여
반란군을 진압한후 정권을 다시잡고
군국기무 정리하니 민비가 난군중에
피살된줄 짐작하고 국휼을 발표한후
민당을 모라내고 자당을 소집하야
조정에 포열하니 八월에 민황후가
충주에서 돌아와서 고종황제 움직이어
대원군을 쫓아내니 임오군란 이것이라
임오군란 소식통이 청국에 전해가니
원세게 오장경이 수千병력 이끌고서
서울에 래착하고 일본서도 화방이질
죽첨이가 래주하니 서울과 인천사이
살기가 충천하다 일본인의 소행보소

임오군란 그당시에 공사관을 습격하고
일본공사 추방함에 한국정부 상대하야
손해배상 청구하니 고종황제 할수없이
김홍집을 명송하여 일본공사 화방이와
수호조약 채결하고 친일을 꾀하더라
수신사에 박영효와 게화당에 김옥균과
홍명식 서광범등 넷사람을 보내여서
일본규정 시찰하고 중국의 원세게가
이홍장을 시키여서 민당을 이용하여
내정을 간섭함에 독립을 주창하든
김옥균과 박영효가 정국을 배척하고
유신정치 하려다가 만조정의 완고파가
一재히 반대함에 김옥균 박영효와
홍영식 서광범과 서제필등 다섯사람
갑신월 十七일밤 우정국 낙성연의
화재를 일으키고 정변을 조작하여
사관생도 이르켜서 이조연 윤태준과
한규직 민영목과 민태호 조영하와
유재현을 병살한후 고종황제 뫼서다가
창덕궁에 이어하고 일본병을 모라다가
궐문내에 돌입하여 변란을 이르키고
게화당의 인물들이 정권을 잡게되니
완고파가 청국으로 변란을 급고하니
원세게의 거동보소 청국병정 거느리고
궐문을 처들오니 일본군으 패주하고
홍영식 박영교와 생도七인 피살되고
김옥균등 남은사람 일본으로 도망가니
갑신정변 이것이라 그뒤우리 나라에서
일본.청국 두나라가 서로다퉈 쟁권함에
우리대표 김홍집과 청국대표 이홍장과
일본공사 이등박문 천진조약 맺인후에
조선간섭 않하기로 두나라가 철퇴했네
일본청국 통상맺고 구미각국 통상한후
우리나라 사신들도 동서각국 파견하다
조정을 살펴보니 정권의 쟁탈로써
동서열국 등을대고 일본파니 청국파니
노국파니 하는판에 국정은 부패되고
백성은 도탄이라 관리들의 전횡으로

매란매직 일삼으며 탐관오리 절로난다
갑오년 四월에는 동학교주 최제우가
철종말에 순교하매 그문인의 최시형이
전봉준을 대장삼어 三남열읍 동학신도
수十만을 영솔하야 대란을 이르키니
이때의 고부군수 조병갑의 실정함을
이것을 기화삼어 군수를 죽인후에
고부군을 점령하고 양반을 돌육한후
전주를 함락하니 관군의 홍게훈은
전라도서 전패하니 충청도를 석권하야
서울로 올라온다 조정에선 대경하야
청국으로 청병하고 이두항 성하영과
이규태의 관군들은 일본병을 연락하야
공주에서 마주싸워 十여일을 연전트니
동학군이 대패하야 전봉준은 포주되고
전주읍을 수복하야 김게남을 또잡으니
동학민은 평정되나 청국.일본 두나라가
천진조약 위반으로 동학란에 출병하니
청국의 엽지초는 八백명을 이끌고서
아산에 상륙하고 일본의 대도소장
一여단을 거느리고 인천에 상륙하여
두나라가 충돌되매 갑오八월 초一일에
청일전쟁 이러나서 청국이 패망하고
일본이 대승하여 하관조약 맺은후에
청국병은 철퇴하나 일본인의 소행보소
군국권리 독점하여 김홍집을 수반으로
친일내각 조직한후 관제를 게혁하여
반상구별 전패하고 인신매매 금지하여
조혼을 방지하고 과부게가 허지하며
게국기원 사용하야 사대사상 근절하고
세법을 게정하며 도량형법 발포하고
우편을 게시하며 음력을 패지하고
양력을 시행하며 종두법을 실시하고
단발령을 내린이후 제판제도 만든후에
층량법을 시행하고 구습을 타파하여
남녀평등 권리주다 갑오경장 잘했으나
일본인의 간섭으로 시행이 부진하다
그뒤에또 아라사가 통상조약 맺은후로

청국을 대신하야 우리나라 들어오니
이완용등 친아파가 친일파와 대립하여
세력다툼 심하구나 친일파의 소행보소
민씨一파 제去하고 반대세력 대원군을
앞장세워 작란하니 우범선과 이두항이
내전에 침입하여 명성황후 시살하고
흥게훈 이경식등 모다함께 살해한후
친아파를 몰아내고 친일내각 조직하니
을미사변 이것이라 친아파인 이범진은
아라사와 협친하여 친일파를 배척하고
친아를 주창하니 아라사는 득세하여
함경북도 경원이며 회령.종성 광산경영
압록연안 산림벌체 아라사서 경영하니
일본또한 못지않게 서울과 부산사이
경부철도 부설하고 충청도 직산금광
제멋대로 체굴한즉 미국서도 욕심내여
경인철도 부설하고 운산금광 경영하며
불란서도 뒤딸아서 서울의주 철도권을
제멋대로 장악하며 영국인은 은산광산
독일인은 금성광산 한스럽다 금수강산
열강국이 침입하야 임의대로 경영하고
권리다툼 자리되니 대원군의 쇠국정책
이것알고 한것이지 고종황제 거동보소
노국관에 머믈다가 건곤일척 마음돌려
외국세력 배척하고 사대사상 그만두고
독립국가 선언하니 대한제국 이아닌가
황제라 존호하고 광무라 년호지어
정유년 八월달에 즉위식을 거행하야
자주독립 선포하다 서재필 이상재와
윤치호등 셋사람은 독립협회 조직하야
독립신문 발간하니 고종황제 의심내여
독립협회 미워하야 홍종우를 명령해서
황규협회 조직하고 독립협회 대립하니
로서아의 거동보소 여순을 얻은후에
우리나라 무시하고 용암포를 요구한즉
일본인의 반대로써 용암포를 못얻으매
노국.일본 원수되여 광무四년 경자세에
일로전쟁 일어나서 일본이 대승함에

우리나라 주재하든 노국인을 몰아내니
금수강산 三千리는 외놈들의 독무대라
일본놈의 야심보소 한국을 보호한단
허울좋은 명목으로 일본대사 이등이와
이완용과 두금사이 을사년 十一월에
五조약을 채결하니 일본사람 룡감두고
일본사람 외교고문 한국내정 간섭하니
국민들은 분계하야 이왕용 권중현과
박제순 이지용과 이근택등 五역적의
매국소행 비난하고 시종무관 민영환은
통분하여 자결하되 국치민욕. 내지어차
결이일사. 귀보황은 행아동포 천만분려
결심육력 복아독립 충절유서 남기고서
세상을 떠났으니 죽은자리 헐죽나서
충절됨을 말하도다 전주서 나인영과
오기호 김인식은 五역적을 모살타가
불수하고 자현하며 송병선 홍만식과
조병세 이상철과 김봉학은 자결하니
五조약 사절신의 유서한장 남겼으니
강인유 맹으로 적신이 매국이라
五백년 종사가 위여철소하고
二千만 생령이 행장노예로다
지사가 부혈하니 음읍지추로다
상보국가하고 하사인민하노라
이와같이 지었으니 구구절절 충의로다
이로부터 우리나라 왜놈손에 넘어가네
조약대로 실천코자 이등박문 통감되여
한국으로 건너오고 내란을 의심하여
일지회를 조직하되 윤시병등 친일파가
일본에 아부하야 五조약을 실현하니
전국의 방방곡곡 의병을 이르켜서
왜병과 대항하야 혹승혹패 있었으나
군기군량 미비하야 처처에서 봉패하네
대한광무 十一년에 만국평화 회담이
해아에서 열리길에 원통한 한국사정
열국에 호소코자 이준과 이상설과
이위종등 셋사람을 밀사로 파견한바
일본인의 방해로서 참가못함 분격하여

회의석에 뛰여들어 배를갈라 피뿌리니
일본인은 감정내여 조약위반 하였다는
밀사사건 구실삼어 전위함을 강권하니
슬프다 고종황제 재위四十 四년동안
온갖고생 하시다가 왜놈에게 쫓겨나니
전통하고 분할시고 전위받은 융희황제
무력무등 하오므로 이등박문 소행보소
칠조약을 강요하니 한국정부 모든부문
일본인을 고문삼고 일본인의 관리로써
차관에 임케하고 한국군대 해산하고
무장군비 해제한다 이등박문 흉계보소
지나대륙 뜻을두어 북만주 시찰가는
소식들은 안중근은 하루빈 역두에서
권총으로 쏴죽이니 때는四二 四三년
十월二十 六일이라 원통할사 안의사는
왜놈손에 잡여가서 여순에서 사형하니
만고의사 이아닌가 안의사 죽은뒤에
만사지어 일렀으되 공재삼한 명만국이요
생무백세 사천추라 이등박문 죽은뒤에
사내정이 통감되여 이놈또한 흉물로써
경찰권을 행사하여 매국로와 결합하여
합병안을 꾸며내니 이완용이 수긍하고
내부대신 박제순과 탁지대신 고영희와
농상대신 조중응과 융희년 八二二에
합병안을 결정하고 민란을 두려하야
일본의 헌병순사 궁궐내외 비롯하야
경향각지 엄계하며 국내신문 정간하고
애국단체 해산하고 국내에도 성망있는
수천인사 구금한후 매국단체 일진회가
이뜻을 찬양하고 동년八월 二十九일
만고역적 이완용등 약국조서 교조하야
왕후숙부 시종원경 윤덕영을 시키여서
위협으로 옥쇄찍어 합병조약 성립하니
三한三국 고려까지 자주자체 상전트니
동방이 소허하야 동이국이 침로하니
말내에 한양왕기 五백년간 뿐이련가
태조대왕 건국이래 二十七世 역대임금
역년五백 十九년에 잔악한 일본놈의

식민지로 화했으니 반만년래 단군구기
五백여년 종묘사직 일조에 흐터지고
태자은을 다려다가 이왕이라 이름짓고
사내정이 총독되여 조선임금 대신으로
경복궁에 시무하니 五千년 긴긴사적
이날로써 마쳐있고 三千리 금수강산
이날로써 남을주고 二千만 창생들은
이날부터 고난이라 이때기원 언제련고
四千二빽 四十三년 고려가 망할때엔
충신이 七十二나 이조가 망할때는
역적소인 천만이라 자고급금 두고보면
망한나라 임금마다 충신의사 배척하고
환자놈과 간신들이 국정을 좌우하니
국모욕은 왜못하며 상감비판 못할건가
음탕한 민비소행 외척권신 나열시켜
국사에는 뒤로두고 동가유서 가숙이
국모로써 할짓이냐 노국놈엔 이말하고
일본놈엔 저말하니 나라망한 첫제원인
민비의 음탕이라 개인이나 국가이나
탕녀있는 그집안이 잘되는법 없었도다
창덕궁에 있는아들 숙맥되여 앉었으니
무슨의론 하여보며 덕수궁에 쫓긴고종
무슨용력 있을건가 五백년 예의동방
오랑케의 식민지로 한심하게 되단말가
三千리 좋은강토 왜놈에게 바쳐올려
자자손손 부귀영화 누리기로 작정하든
만고역적 무리들이 옥쇄갖다 왜놈주어
만년장구 바랐겠지 우리조선 이나라에
사색당파 이러나서 서로뜻고 모함하고
일어난놈 또죽이다 五백년을 지내오니
민족성이 한심하다 적서분간 시비나서
상놈딸엔 장가가서 아들나도 적자되고
양반과부 대려다가 아들나도 서자되니
적자는 적자대로 서자는 서자대로
서로가려 혼인하여 양반이라 하는사람
지체좋은 그걸믿고 상놈잡어 토색할제
죽는것은 상놈이라 천지도 유심하고
만물도 유수이라 지금세상 두고보면

대페로 민듯하니 반상구별 어디있나
이조사기 대략하고 일본놈이 이땅에서
짓밟은것 예기하자 시내정이 총독되여
무단정치 행할적에 민란날 것 두려하야
전국방방 곡곡에다 헌병을 배치하고
언론을 봉쇄하고 집회결사 불허하니
놀랍도다 우국지사 부모처자 이별하고
고국산천 회복코자 동서구미 망명하여
풍손로숙 해가면서 광복운동 전게하니
그고생이 오즉할가 이때마츰 세계대전
독일에서 종막지어 민족의 자결주의
월손이 부르지 저약소민족 여러나라
독립을 후원한다 합방한지 十년되는
기미년 三월一일 천도교인 손병희등
三十三인 서명하여 대한독립 선언하고
三千리 방방곡곡 독립만세 절규하니
민족의 역사상에 이름높은 운동이라
병인월 초十일에 六十만세 이러나고
우국지사 안창호며 이승만 서제필은
미국으로 건너가고 김구와 신익희는
상해로 건너가서 임시정부 조직하여
독립운동 전게하며 애국단원 이봉창은
일본궁성 이중교에 폭탄을 던졌으며
윤봉길은 상해에서 천장절에 모인왜졸
백천대왕 폭살하고 강우규도 의사로써
제등총독 잡으려다 대사를 노치고서
六十五에 사형받고 나석주도 폭탄던저
동척은행 께트리고 이범석과 김좌진은
청산리 작전에서 일본군을 전멸하고
백정기도 상해에서 배일타가 피살되고
김상옥도 폭탄으로 서울종로 경찰서에
폭탄으로 왜졸잡고 편강열 오동진은
독립운동 추진타가 만주에서 체포되여
옥중에서 죽었으며 구연영도 이천에서
운동타가 죽었으며 김준열도 용사로써
왜적과 싸우다가 적탄에 쓸어지고
신규식 노백인도 일본병을 무찌르다
만주에서 피살되고 김지섭도 동경가서

궁성을 야습하고 장진홍도 의거타가
일헌병에 사형당코 열일곱의 유관순도
처녀로써 순절하고 남자현은 여사로써
애국지사 도으다가 만주에서 순국하고
신채호도 잡여가서 여순에서 피살되고
이밖에도 많은지사 광복위해 싸우다가
객지고혼 되온분이 몇몇이나 되였으며
순국충魂 되온분이 그얼마나 되였든고
三十六년 긴긴세월 학살타가 투옥타가
고문타가 감금타가 그얼마나 유린했나
정축七월 七일에는 북지사변 이러나서
만주있는 일본세력 중국까지 빼치고자
놈들의 침략성은 두고바도 유명하다
북지사변 확대되여 중일전쟁 되고보니
장개석이 영웅이되 중경으로 천도하고
중국땅 넓은천지 중요지대 점령하니
그중간에 우리나라 병참기지 정해두고
전시체제 운운하며 우리민족 물심양면
모조리 짓밟는다 물품통제 운위하고
장사하나 자유없고 國방헌납 명목으로
강제수금 억울하고 백철황철 유기등속
낯낯이 다뺏기고 부녀자의 비녀반지
있는대로 거돠가고 사기그릇 목조접시
조반석죽 걱정이라 노약만 남겨두고
청년자제 몰아다가 징용이니 보국대에
강제노동 이뿐이랴 일호령만 거역해도
짐승같이 취급하며 입있어도 말못하고
손있어도 형용못해 생활이 참혹하니
생지옥이 이것이라 징병령을 내리여서
젊은사람 뺏어가서 미국과 싸우라고
앞제비로 내세우고 의용대를 조직하야
면면촌촌 편성하여 오합지중 모라다가
앞서죽일 작정이지 식량공출 대마공출
솔가지도 공출하고 산포도도 공출하고
목제도 공출하니 공출명목 하도많다
창씨개명 령을내려 성명마자 뺏어가고
내선일체 말만하고 구별은 독히하며
그중에도 조선사람 처우게선 한다하고

이왕은의 계급높여 육군중장 올린후에
박중양등 친일분자 일곱사람 골라내여
귀족의원 임명하니 조선사람 생각는듯
우리한글 전패하고 일본말을 전용하며
황국신민 서사외워 아침마다 궁성요배
묵도역시 가소롭다 이지경 당한동포
살아난들 무슨영광 일월도 무광하고
산천도 처량하다 三千만의 원한바는
천지순환 그이치로 해외지사 힘을빌려
조국광복 비렀드니 하늘인들 무심하랴
四千二百 七十四년 十二월 八일되여
일본놈의 발악보소 미영양국 선전포고
물자재도 부족한대 당해낼줄 알었든가
일본땅 큰도시는 폭탄으로 세례받아
황량한 벌판이오 곳곳이 모여앉아
몰살한것 왜놈이라 우리나라 두고보면
폭탄하나 않던지고 고적현물 보존함이
해외지사 은덕이라 二차대전 이러나자
일.독.이 삼국동맹 세계에 자랑트니
이태리가 망해지자 독일또한 항복하니
고립무원 왜놈신세 망할날도 멀지않어
四二七八 八월九일 소련또한 일본대핵
선전을 포고한후 관동군을 무찌르고
청진에 상륙하야 북한을 석권하니
왜놈신세 가련하다 「사무라이」 정신일코
「가미가재」 어디갔나 미국의 공군들은
원자폭탄 실고와서 「히로시마 나가사끼」
불과두개 던진 것이 수만명이 몰살하니
일본놈이 강족이되 겁않내고 어이하리
일본천왕 유인이는 四千二백 七十八년
八월이라 十五일에 무조건 항복하니
포수담의 회담이며 「카이로」의 선언으로
우리나라 독립도 니천일이 부명하고
신명이 재고로다 三十六년 질곡속에
신음하든 우리동포 기반을 벗어나니
우리나라 짓밟으며 횡행천지 난폭하든
왜놈서늘 다떫었네 항복하든 그날부터
남부여대 봇짐싸서 부산항에 몰려들어

연락선 배타려고 줄지어 섰는모양
고등관도 한가지요 칙임관도 한때이라
「각가」소리 간곳없고
「도노」소리 어듸갔나
광복되는 그날부터 금옥같은 청년자질
사지에서 돌아오고 세종대왕 지은글로
우리역사 닦게되네 동년九월 二일에는
미군이 진주하여 「맥아더」의 지휘아래
군정을 실시하고 쏘련군은 그날부터
북한에 진주하여 三八선을 나눈후에
이나라가 양단되니 원수아닌 적이되고
국경아닌 국경되네 도라오네 도라오네
해외지사 도라오네 태극기 손에들고
애국가를 합창하며 청춘시절 다보내고
백발노웅 도라오네 三四十년 긴긴세월
광복운동 장할시고 풍손노숙 가즌고생
눈물없이 들을손가 을유十월 十六일에
이승만 돌아와서 귀국하야 제일성이
일민주의 주창하야 뭉치면 살수있고
해치면 죽는다는 단결함을 역설했네
十二월 二十二일 상해임시 정부요인
김포공항 도착하야 김구선생 앞을서고
김규식 신익희며 유동열 이시영과
엄항섭 김상덕과 이외에도 많은지사
차례차례 환국하니 三千만이 영접한다
북한의 김일성은 쏘련을 조국삼고
공산독제 내세우고 괴뢰국을 만든후에
침약을 일삼는다 남한의 인민들은
군정二년 지낸뒤에 김규식을 의장으로
입법의회 창설하고 과도정부 수립하니
안재홍은 민정장관 의정관엔 서재필과
사법부장 김병로등 十三부장 임명하고
八十一년 五월十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 선출하고 동년七월 十七일에
유진오의 기초로서 헌법을 재정하고
동년월 十五일엔 대한민국 수립하니
초대의 대통령에 리승만 박사되고
이범석은 국무총리 국방장관 겸해있고

내무장관 윤치영이 장택상은 외무장관
김도연은 재무장관 안호상은 문교장관
조봉암은 농림장관 임영신은 상공장관
전진한은 사회장관 민희식은 교통장관
윤석귀는 채신장관 국회의장 신익희요
대법원장 김병로라 「유앤」정치 위원회서
정부수립 축하하고 미국을 위시하야
세계열국 승인하니 억만세의 대한민국
세계만방 빛나도다 三千만 우리동포
자주독립 좋건만은 수많은 당파지어
투쟁하기 일삼는다 四千二백 七十八年
한민당의 영도자인 송진우가 암살되고
四千二백 八十년에 근민당의 당수되는
여운형이 암살되고 같은해 十二월에
장덕수도 암살되고 四千二백 八十二년
남북의 협상파인 금구선생 또죽이니
동족간에 할짓인가 이런인재 뫼서다가
보국제민 하게한들 오늘날 이시까지
난민지세 않될것을 인심은 불안하고
세태는 분운하다 동년十월 十九일에
여준반란 사건나니 四十여명 장교들이
부하졸병 선동하여 좌익과 합류해서
우익진영 요인들을 천여명 학살하고
여수마산 순천사이 이백여호 불찌르고
약탈하고 납치하고 파리하는 그행동이
참혹하기 한량없다 군경이 출전하여
반란사건 진압하나 수백명의 반군들이
지리산에 도입하야 공비와 합류해서
유격대를 조직하야 태백산 운문산과
팔공산 일월산에 근거지를 정해두고
승시로 출몰하야 양민을 납치하고
재물을 탈취하니 무죄한 백성들이
곳곳이 학살되여 공포와 위축으로
겁계로 지내다가 八十三년 六二五에
북한괴뢰 김일성의 二十만의 인민군의
불법남침 하는구나 三八선을 휫딱넘어
서울을 았은뒤에 파죽세로 남하하니
우리정부 할수없이 부산으로 옮긴뒤에

국군곙찰 동원되고 자유우방 원조로써
공방전을 실시하야 육탄혈우 三개월에
수많은 인민군을 총쏘아 다죽이고
손드는 인민군을 二만여명 생포한후
동년월 二十八일 서울을 탈환하고
북진행차 용감하다 맥아더의 작전계획
북진북진 또북진에 연전연승 하였든바
미국의 소환으로 「맥아더」의 부진계획
수포로 돌아가고 三八선만 고수터니
같은해 十二월에 팽덕회를 앞장세워
중공군 백여만이 김일성을 도아가며
대거재침 하는구나 이듬해 一월四일
우리정부 할수없이 부산으로 다시옮겨
연합군의 동원으로 북한으로 몰아낸후
三년이나 싸우다가 휴전회담 성립되나
수많은 젊은목슴 그얼마나 뺐었으며
절비하든 그건물은 재덤이로 화해지고
찬란한 문화시설 파괴되여 간곳없네
三千만의 원한이오 역사의 오점이라
슬프다 남북대한 이로부터 원수되네
동족상잔 절통하다 휴전회담 성립후에
남한과 북한사이 포로를 교환할제
리박사의 영단으로 국제승인 말도없이
반공포로 二만여명 一시에 석방하니
세계열방 파문컷네 四二八七 八월에는
한국과 미국사이 방위협정 조인하고
두나라의 대통령이 오고가고 정을두어
빈한한 우리나라 원조도 많었드라
四二八五 八월五일 리승만 제선될때
부통령에 입후보로 함태영을 내세워서
부통령에 입후보한 철기장군 이범석과
국무총리 장택상과 사사감정 풀기위해
장택상의 불호령에 경찰권을 동원하야
이범석을 몰도하고 함태영을 당선시켜
이것이 선거사상 바람불기 처음이니
장택상이 시조로다 병신년 五월달에
해공선생 죽은뒤에 리박사 三선되여
정당정치 구현코자 장관은 물론이오

중요직책 모든부문 자유당원 차지되고
혼미한 리기붕을 국회의장 시킨뒤에
맞아들인 강석군을 리박사의 양자삼고
리박사의 거동보소 밑에사람 말만듯고
四선을 도모하고 대통령에 출마하여
조병옥 죽은뒤에 국회의장 리기붕을
부통령에 지명하고 심복인 최인규를
내무장관 시킨후에 전국의 경찰로써
부정선거 감행하되 三인조 九인조의
공게투표 행한일과 유령이 유권자로
무터기표 투입하야 대통령에 리박사요
부통령에 이기붕이 압도적 당선되니
리박사 일평생에 우국애족 하온일과
내치외교 천만가지 부족한점 하나없이
세계영웅 이름나나 밑에사람 잘못만나
선거의 부정으로 역사상 오점이라
자신도 망쳤으니 전공이 가석하다
국민들의 울분함이 절정에 도달하야
대구마산 위시해서 서울의 학생들이
몇만명이 동원되여 「대모」를 행할때에
민간인도 부화하야 시가지로 행진하며
의사당을 롱성하고 서울신문 파괴한후
경무대로 행진하며 학생에 자유주라
부정선거 적발하라 자유당 물러가라
리박사 하야하라 구호를 외치면서
경무대앞 연좌하고 한편은 담을넘어
경무대를 롱성하니 내무장관 홍진기가
발포를 명령하야 곷송이 젊은학생
백여명이 쓰러지고 파문이 넓고커저
전국에 퍼져지니 국무위원 총퇴하고
국회는 해산되고 이기붕 一가족은
四인한날 자살하고 리승만은 二十六일
하야를 성명한후 하와이로 망명하고
이외에도 조야간에 부정선거 관련자는
경중따라 처단되니 이것이 이르는바 四一九 혁명이라 과도정부 대통령에
허정이가 임명되여 총선거를 실시한다
四二九三. 七.二九에 민참의원 선거하니
민주당의 소행보소 청장년을 동원하야

위협으로 운동하고 학생의 흘린피를
민주당의 혁명처럼 역으로 선전하고
개표장에 난입하야 민주당표 적게되면
개표도중 함을뺐어 파괴하고 방화하니
영양을 위시하야 전국의 여러곳에
란동사건 일어나니 부정선거 없에고자
일어난 혁명인대 또이래서 될말인가
전국에 민주당원 압도적 당선되여
민주당의 세력다툼 신파인 구파이나
나날이 격심하야 두갈레로 갈라지네
구파는 신민당에 신파는 민주당에
내각책임 제로하는 헌법을 다시고처
구파영수 윤보선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신파영수 장면이는 국무총리 피선되여
내각에서 지방관의 세력안배 하온후에
민주당원 일색이라 무능한 장정권은
집권한지 九개월에 아모치적 하나없이
「대모」만 일어나니 어지러운 세태로서
용공친일 정책으로 국가장래 한심함에
四千二백 九十四년 五.日六의 미명기해
부패무능 유신코자 군사혁명 일어나다(끝)

附錄

一.慶賀門

가.結婚祝辭(一)式을終了한後友人또는來賓中에서朗讀하는것이니
內容은當事者의事情에따라다를것이므로隨意參酌하여쓰도록할것
때는바야흐로天高馬肥의가을丹楓이山野를붉게물드리고온여름동안
땀의結晶을쌓어온갓努力으로이룬結實은마츰네이나라富國의자랑이農
村으로부터始作된樂園가운대서
여긔太白山줄기타구비처흐르는悠久한五十川邊에서씩씩하게자란○
○君과또한華林산精氣반은푸른靑松은靑春의굳은節介를가르키고大谷
의藥물을마시며純潔아담한성품을간직한○○孃은그앞날을풀각씨노리손

꼽작란하든情다운이마당에서어비와親知그밖여러紳士淑女를뫼시고
또한벗들도함께하여이와같은거룩한華燭盛典을이루게된것은이두분의
家門에있어이以上더큰慶事가있으리오?
오늘이자리에枉臨하신여러어룬앞에서人生大訃의百年佳約을맺은大
盤위에서情年의그윽한香氣를남기고타오르는華燭의불길은两人의永遠
한사랑의불길을像徵하는듯이자리에서더높은理想과幸福을가다듬어人
生의세로운歷史를創造하고세로운希望과歡善에가득찬한雙의鴛鴦이며
웃음과이너그러운海棠花처럼이두분의盛典을배풀게됨은저하늘푸른蒼

半萬年韓國歌史

[현대역]

附 新式慶吊文例

半萬年韓國歌史

附 新式慶吊文例

半萬年韓國歌史

自 序

오늘날 우리民族을 形成하게된 우리의 祖上은 果然 어느 때
어듸로부터 始作되였으며 또 어떠한 生活狀態로써 어떻게 發
展되였으며 또 어떠한 發展課程으로서 今日에 이르렀는가
過去의 우리의 史觀을 一督하건대 檀君以後 三國時代 初期까
지의 二千餘年間은 人智의 未發達로 其文獻이 不分明하고 三
國時代를거쳐 高麗末까지의 一 千五百年間은 그史筆이 微弱하야
考憑이 至難하며 李朝朝에 이르러서는 밖으로는 事大主義的思
想이 沒頭되고 안으로는 國難과 朋孚으로 말미아마 史筆의
正草에 制壓을 當하고 韓末로부터 日帝受難期의 半世期동안은
異民族에게 被壓되여 우리의 歷史는 檀君始祖의 創業以來 悠
久半萬年間 禮儀와文化의 燦爛한歷史는 큰受難을 겪고 있었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民族의 正確한 歷史를찾기에 古今을通해서
우리나라 史學家로써 研究의 若心과 甚至於는 擱筆家도 많었든 것이다
옛날부터 巷間에 떠도는 歷史 歌記 實記 野談 逸話等 刑行物을
가장 옳게녁여 斷片的으로 이를 信憑하는 분이 있다면
이는 큰잘못이라고 生覺하는 바이다
著者는 이에 對峙한다느니 보담 民族에게 가장 올바른
歷史를 自身이 아는대로 千先 우리나라 古典的興味를 돋우기爲하야
閭巷의 匹庶라도 알기쉽도록 살(肉)을버리고 뼈(體)를 추려서
歌詞体로 엮어歷史의 趣味를갖인 同胞諸賢앞에 發行頒布 해서
國史材料研究上 多少나마 도음이될것을 企待하는바이나
但只識茂所致로 史規이 愚劣하고內容이 貧弱하고 文向이
妄掘하옴을 讀者僉賢의 匠正을 另加하시기 바라옵고 未備限點과
過誤된部分은 後日 版을다시할때 增正코자 하는바이다
끝으로 附錄에 慶賀 吊慰等 文例를荒辭 蕪述을 무릅쓰고
卷末에 添付하야 僉賢의 小考에 供코자하오며 特히 本歌史編述中

權秉碩同志의 寄稿에 感銘을 드리옵고 發行에 絶對的 努力이많은
朴基烈君에 깊이 感謝하면서 이序文을진다
檀紀四二九六年六月二十九日
著 者 識
發行에 즈음하여
이冊은 半萬年間 우리나라 歷史를 綜合하여 正確하고 알기
쉽게 興味的인 歌詞体로 엮어놓은 것입니다 바쁘신 틈을
타서라도 한번식 읽어보시면 國史常識에 큰도음이 될것이라 믿는바입니다
이미 漢陽五百年歌를 보신분은 李朝五百年間 內容事蹟이 다르다고
論評하실지 몰으는바이나 그것은 興味本位로 엮은冊子이므로
正史와는 相當한 差異点이 있으므로 그릇된 史蹟을 잃고
거기에만 마음이 휩쓸린 까닭이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恒常 옳바른 史記를 探究하여야하며 册張과같이
넘어가는 歷史를 正許할 頭腦도 갖어야 할것입다 江湖諸彦은
이册子의 內容이 歷史의 실머리가 委申이없이 直筆正設한
史册으로서의 正確한 論評을 加한것이며 卷尾에 添付된 附錄은
僉彦의 日常要用에 參考材科인바 愛讀批評을 하여주시기
바라마지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踰月經歲하야 竹牕松燈에서 册子著述에 勞苦하신
金甲錄氏를 비롯하야 權秉碩氏의 取稿協助에 對하여 衷心으로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檀紀四二九六年六月三十日
發行者 謹識

半萬年韓國歌史 目錄
檀君朝鮮의 創國 一
天下의分裂과列國의創建 二
箕子朝鮮과衛滿朝鮮 三
漢四郡의說置와三韓의併立 三
高句百濟의의勃興 四
樂浪의 收復과佛教의傳來 六
薩水大捷과安市城大捷 七
高句麗滅亡과渤海의興起 八
百濟의勃興 九
百濟의滅亡 一二
新羅의勃興 一二
甄萱弓商耽羅 一六
新羅의滅亡 一八

駕洛 一八
高麗의興起 一九
李資謙乱과妙淸의乱二二
文武軋轢과崔忠 献남의武斷政治 二三
三別抄의乱 二五
紅巾賊의掠 二七
高麗의滅亡과高麗杜門洞 三一
李氏朝鮮의創業 三一
世宗大王과訓民正音 三七
端宗遜位와世祖의簒立 三八
燕山朝의三大士禍 四七
中示의反正 四八
四色黨争 五二
壬辰倭乱 五三
李舜臣將軍과閑山大捷 五四
仁祖反正甲子适乱六〇
仁祖丙子胡乱 六二
洪景來乱 六八
民乱의擴大 七〇
大院君의報政 七一
丙子修好條約壬午軍乱 七二
甲申政變과甲午東學乱 七四
淸日战争과甲午更張 七五
乙未事變 七五
大韓帝國獨立宣言 七六
目錄
乙巳保護條約 七六
海牙密使事件과高宗의傳位 七七
安重根義士의義擧 七七
韓日合併 七八
三.一 運動과六.十萬歲事件 七九
祖國의光復 八一
大韓民國政府樹立 八二
麗順叛乱事件 八三
六.二 五事変 八三
反共捕虜釋放 八四
四. 一 九 學生革命 八四
五. 一 六 軍事革命 八五

李朝官制表(特輯) 八六
附錄
一. 慶賀門
가. 結婚祝辭 一
나. 書翰(新査間往復文) 二
다. 婚書例(附笏記請牒狀) 六
二. 吊慰門
가. 吊辭 八
나. 祭文 八
다. 輓章 二六
三. 祝文門
祝文(附立石全祀時笏記) 二七
四. 喪具圖 三二
五. 單子言例 三二
六. 執事分定記 三三
七. 紙榜쓰 는法 三三
八. 陳設圖 三三
九. 服制 三四
一○. 祭禮順序 三六

반만년한국가사(半萬年韓國歌史)
어화 대한(大韓)1 사람들아 이 가사(歌史)2를 살펴보소
이 가사(歌史)를 보게 되면 반만년(半萬年)의 대한(大韓) 사적(事蹟)3
흥망성쇠(興亡盛衰)4 여기있고 허다(許多)5한 문화예술(文化藝術)
정치(政治)변혁(變革) 내외(內外)전란(戰亂) 도덕(道德)문장(文章) 충효(忠孝)의열(義烈)6
소연(昭然)7하게 알수 있네 아득한 그 옛날에
태백산(太白山) 단목(檀木)8 아래 신인(神人)이 강생(降生)9하사
신웅씨(神熊氏)와 결혼(結婚)하여 단군(檀君)10님을 낳으시니
국민(國民)들이 받들어서 임금으로 뫼시었네
국호(國號)는 조선(朝鮮)이오 도읍지(都邑地)는 평양(平壤)일세
이때가 어느 때뇨 당요(唐堯)11 이십오년(二十五年)이요
무진(戊辰) 십월(十月) 삼일(三日)일세 해마다 이 날맞어
개천절(開天節)12로 정(定)했도다 신화(神話)로 전(傳)한 역사(歷史)
믿을 수야 있으랴만 천제(天帝)13 되는 환인씨(桓因氏)14의
서자(庶子)되는 환웅씨(桓雄氏)15가 만인간(万人間)을 건지고자
천부인(天符印)16 세 개로써 삼천(三千) 제자(弟子) 거느리고
지금(只今)의 묘향산(妙香山)17에 신단수(神檀樹)18 하(下) 내려오시니
천왕(天王)이라 일커르고 풍백(風伯)19과 우사(雨師)20로써

비바람을 다스리고 곡식(穀食)과 수명(壽命) 장단(長短)
선악(善惡)을 정(定)한 후에 백성(百姓)을 다스릴제
이때 마침 토굴(土窟) 속에 호(虎)랑이와 곰[熊]이 살어
신시천왕(神市天王)21 환웅(桓雄)씨께 인간(人間)되기 원(願)함으로
각기약(各己藥)을 주었드니 삼십칠(三十七) 일(日) 지낸 뒤에
곰은 그만 사람되고 정성(精誠)이 부족(不足)해서
호랑이는 못되였네 그 곰이 신웅씨라
여자(女子) 몸이 되었으매 환웅씨(桓雄氏)와 결혼(結婚)해서
아드님을 낳으시니 이가 곧 단군(檀君)이라
단군(檀君)님이 건국(建國)하사 삼백(三百) 육십(六十)여 가지의
정령(政令)22을 베풀어서 나라를 다스리되
왕자(王子) 셋을 명령(命令)하사 삼랑성(三浪城)23을 쌓게 하고
강화(江華)명 마니산(摩尼山)24에 제천단(祭天檀)을 설치(設置)하야
제천식(祭天式)25을 거행(擧行)하사 인간(人間) 윤리(倫理) 밝히시고
국상(國相)26 팽오(彭吳) 시키시어 산천(山川) 도로(道路) 다스리고
태자(太子) 부루(夫婁) 보내시와 도산(塗山)27에서 하우씨(夏禹氏)28와
옥백(玉帛)을 교환(交換)하고 외교(外交)를 처음했네
모든 신하(臣下) 명령하사 의식주택(衣食住宅) 마련하고
농사(農事)와 가무(歌舞)이며 방적(紡績)29과 수렵(狩獵) 등에
모든 일을 결정(決定) 지어 나라 기초(基礎) 굳게했네
단군(檀君)님은 덕화(德化)로써 二백수十 년간이나
임금으로 계시다가 아달산(阿達山) 신(神)이 되니
그 자손(子孫)이 뒤를 이어 一千여년 치국(治國) 하더니
나라가 쇠약(衰弱)함에 열국(列國)30이 일어나다
만주(滿洲)31땅 동북부(東北部)엔 숙신(肅愼)32이 일어나서
영고탑에 도읍하여 지방(地方)이 수 천리(千里)요
지대물박(地大物薄)33 하였으나 풍속(風俗)이 순후(淳厚)34하고
중국(中國)과도 몇 번이나 사신(使臣)을 교환(交換) 했네
만주땅 서북부(西北部)엔 부여국(夫餘國)35이 이러나서
개원(開原)36에 도읍하야 흑룡강(黑龍江)37을 경계(境界)하여
이천(二千)여 리 지방(地方)으로 토지(土地)가 평활(平闊)38하다
사람들이 용맹(勇猛)하여 싸움을 즐겨하며
그 후의 부여(夫餘)국은 해모루(解慕婁)가 임금 되여
사람됨이 용감하야 숙신(肅愼)을 정복(征服) 하고
만주(滿洲)를 통일(統一)한 후 해삼 위에 천도(遷都)39 하더니
종실(宗室)에 해모수(解慕漱)40가 반란(叛亂)을 일으켜서
북부여(北夫餘)41를 창건(創建)하고 천제자(天帝子)라 자칭(自稱)한 후
그 부하(部下)의 한 사람이 졸본(卒本) 부여(夫餘)42 또 세우니

판도(版圖)43가 삼분(三分)되매 왕명(王命)이 부진(不振)44하더니
백두산(白頭山) 동북부(東北部)엔 옥저(沃沮)45국이 일어나서
천리(千里)땅을 차지하고 강원도(江原道) 동북부(東北部)엔
예맥(濊貊)46이 일어나서 강릉(江陵) 춘천(春川) 중심(中心)해서
승시(乘時)47로 봉기(蜂起)48하고 한강수(漢江水) 남쪽에는
삼한(三韓)49이 분립(分立)되고 평안도(平安道) 지방(地方)에는
기씨조선(箕氏朝鮮)50 일어나서 열국(列國)의 혼란(混亂)51 중에
기씨(箕氏)만은 강성(强盛)해서 단군(檀君) 자손(子孫) 몰아내고
一千二백 十二년에 기자(箕子) 조선(朝鮮) 창건(創建) 하니
국호(國號) 매양 조선(朝鮮)이오 도읍(都邑)52 역시 평양(平壤)이라
기자(箕子) 임금 어떻든고 은(殷)나라53의 왕족(王族)으로
은(殷) 왕주(王紂)가 무도(無道)54하야 그 나라를 하직하고
오천(五千)여 명 거느리고 조선으로 망명(亡命)하야
단군(檀君) 조선(朝鮮) 뒤를 이어 임금이 되은 후로
시절(時節)이 태평(泰平)하고 인문(人文)이 발달(發達)되여
팔조교(八條敎)55를 베풀어서 세 가지만 전해오니
사람을 죽인 자는 목숨으로 대신하고
도적(盜賊)질을 행한 자는 곡식으로 배상(賠償)56 하고
부녀자(婦女子)를 음간(淫姦)57하면 신역(身役)58으로 벌(罰) 주었네
기씨 조선 창국(創國) 후로 사십대(四十代)를 내려가서
기부왕(箕否王)이 등극(登極)하여 십일년간(十一年間) 재위(在位)하다가
아들에게 전위(傳位)59하니 그 아들이 준왕(準王)이라
재위(在位) 이십팔(二十八)년만에 위만(衛滿)60에게 쫓겨나가
기씨조선 창업(創業) 후로 구백이십구(九百二十九)년만에
기씨조선 망했구나 위만(衛滿)이란 누구든고
연(燕)나라61 사람으로 천(千)여 명을 거느리고
조선에 망명(亡命)커늘 기준왕(箕準王)이 사랑하여
박사관(博士官)을 제수(除授)하고 백리(百里)명을 나누어서
수어신(守禦臣)을 삼었드니 일조(一朝)에 모반(謀叛)62하여
왕검성(王儉城)63을 쳐들어와 기준왕을 쫓아내고
자칭(自稱) 임금 되온 후에 그의 손자(孫子) 우거왕(右渠王)64 때
한(漢)나라의 섭하사신(涉河使臣) 위만사신 비왕장을
국경(國境)까지 유인(誘引)하여 암살(暗殺)을 하오므로
우거왕(右渠王)이 분(忿)을 내어 사신(使臣)을 또 보낸후
무도(無道)한 한나라의 섭하(涉河)사신 버혔드니
한(漢)나라 또 분개(憤慨)65하여 몽손수를 대장(大將) 삼아
五만 병력(兵力) 거느리고 위만(衛滿)을 치려오니
우거왕(右渠王)의 친솔(親率)66 사병(使兵) 한(漢)나라와 상승(相承)67 상부(相負)

이년(二年)이나 싸우더니 위만(衛滿) 부하(部下) 니계(尼溪) 상삼(相參)
한나라에 항복(降服)한 후 우거왕을 죽이거늘
충신(忠臣) 성기(城己) 혼자 싸워 한나라에 대항(對抗)터니
승세(勝勢)를 당치못해 성기마자 죽어지니
삼대(三代) 팔십(八十)여년만에 위만조선 망한 뒤에
한무제(漢武帝)의 소위보소 위만땅을 분할(分割)여
낙랑(樂浪)68 임둔(臨屯)69 진번(眞番)70 현도(玄菟)71 사군(四郡)을 설치(設置)하니
낙랑(樂浪)은 어데든고 황해(黃海) 평안(平安) 지방(地方)이오
임둔(臨屯)은 어데든고 경기(京畿) 강원(江原) 양도(兩道)이며
현도(玄菟)는 어데든고 간도(間島)72 함경(咸鏡) 등지(等地)이며
진번(眞番)은 또 어데든고 요동(遼東)73 지방(地方) 이 아닌가
한사군(漢四郡)74을 설치한후 한나라의 관리들이
임의(任意)로 짓밟고서 권리(權利) 행사(行使) 난폭(亂暴)키에
국민(國民)들이 불복(不服)하고 반항(反抗)운동(運動) 일으키니
한소제(漢昭帝)75 때 내려와선 임둔(臨屯)을 파(罷)하여서
낙랑(樂浪)에 병합(倂合)하고 진번(眞番)을 파하여서
현도(玄菟)에 병합한 후 평주(平州)동부(東部) 도독부(都督府)의
이부(二府)로 고쳤으니 그후에 우리 민족(民族)
더욱 굳게 단결(團結)하여 삼군(三郡)을 탈환(奪還)하고
낙랑(樂浪)만이 남었드니 고구려(高句麗) 미천왕(美川王) 때
낙랑(樂浪)마저 쫓겨나서 뿌리빠져 떠난지가
사백이십일(四百二十一)년이라 위만(衛滿)에게 쫓겨나간
기준왕(箕準王)76은 어이 됐나 수천명(數千名)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기씨(箕氏) 마한(馬韓)77 세운 후에
진한(辰韓)78 변한(卞韓)79 지배(支配)하며 오십사(五十四) 후(侯) 거느리고
수천리(數千里) 지방(地方)으로 민호(民戶)가 십만(十萬)여로
물산(物産)이 풍부(豊富)하다 진한(辰韓)은 어데던고
경상북도(慶尙北道) 지방으로 경주(慶州)에 도읍하여
십이(十二) 후(侯)로 다스리니 민지(民志)가 발달(發達)하고
통상(通商)이 성행(盛行)하다 변한(弁韓)은 또 어대든고
경상남도(慶尙南道) 등지(等地)로써 김해(金海)에 도읍하야
십이(十二)후로 나누고 민심(民心)이 순박(淳朴)하며
예절(禮節)을 숭상(崇尙)하나 국력(國力)이 부족해서
마한(馬韓)의 지배(支配)받네 옥저(沃沮)국은 어이됐나
동북으로 분열(分列)하야 숙신(肅愼)의 침약(侵略)으로
위만에게 귀부(歸附)80되고 예맥(濊貊)81 또한 미약(微弱) 하야
한무제(漢武帝)82에 항복(降服)하고 삼한(三韓)이 또 어지러워
천하(天下)가 혼란(混亂)하니 북방의 부여(夫餘)국은

고구려 건국(建國)까지 삼십(三十)여년 어지럽고
중부지방(中部地方) 마한(馬韓)에는 위만조선(衛滿朝鮮)83 멸망(滅亡) 후로
백제(百濟)84 건국(建國) 될때까지 구십년간(九十年間) 분주하고
남부지방 진한(辰韓)에는 신라(新羅) 건국(建國) 그시까지
이십(二十)여년 어지럽고 경남(慶南)지방(地方) 변한(弁韓)국은
가락(駕洛)85국이 설 때까지 백년(百年)동안 난세(亂世)로다
천하(天下)가 분주하니 백성은 도탄(塗炭)86이라
창천(蒼天)이 냉휼(冷恤)하사 사대(四大) 성인(聖人) 낳으시니
화란(禍亂)을 삭평(削平)87하고 천하를 구제(救濟)하네
신라(新羅)국을 창건(創建)하신 박혁거세(朴赫居世)88 으뜸이오
고구려(高句麗)를 창업하신 동명성왕(東明聖王)89 제일이오
백제(百濟)국을 창립(創立)하신 온조왕(溫祚王)90도 장(壯)할시고
가락(駕洛)국을 세우셨던 수로왕(首露王)91도 놀랍도다
신라(新羅) 백제(百濟) 가락(駕洛) 두고 고구려사(高句麗史) 들어보소
놀납도다 동명성왕(東明聖王) 고구려(高句麗)의 창업주(創業主)로
성(姓)은 고(高)요 휘(諱)는 주몽(朱蒙) 북부여(北夫餘)의 임금이신
해모수(解慕漱)92의 아들로써 동부여(東夫餘) 금와왕(金蛙王)93의
의자(誼子)가 되었드라 기골(氣骨)이 장대(壯大)하고
칠세(七歲)에 성인(成人)되다 동부여의 신하들이
시기(猜忌)하여 해(害)치거늘 고주몽(高朱蒙)94의 거동보소
심복(心腹)부하(部下) 거느리고 남쪽으로 망명(亡命)갈제
엄호수를 얼는건너 모둔곡에 도착하여
재사(再思)와 무골(武骨)같은 어진 신하 얻은 후에
단기二二 九七년에 임금 위(位)에 나아가서
국호(國號)는 고구려(高句麗)로 졸본성(卒本城)에 도읍하니
그때 춘추 이십이(二十二)라 재위(在位)한지 십팔년(十八年)에
치정(治政)도 장할시고 사방(四方)에서 문풍(問風)하고
내부(來附)한자 기만(幾萬)95이라 동명왕(東明王)이 빈천(賓天)하고
그의 아들 유리왕이 뒤를 이어 즉위한후
졸본성(卒本城)에 있든 서울 국내성(國內城)에 옮긴 이후
삼십육년(三十六年) 재위중에 나라를 선치(善治)하니
대강국(大强國)이 되었더라 삼대(三代) 임금 대무신왕(大武神王)96
재위 이십육년(二十六年)이오 사대(四代) 임금 민중왕(閔中王)97은
재위불과 사년(四年)이오 오대(五代) 임금 모본왕(慕本王)98은
재위함이 오년(五年)이오 육대(六代) 임금 태조왕(太祖王)99은
모본왕의 종숙(從叔)으로 재위 구십삼(九十三)년간에
영걸주(英傑主)로 이름났네 부불로와 을지두며
달가(達賈)100 같은 현신(賢臣) 만나 정사(政事)를 밝힌 후에

무력(武力)이 떨쳤으며 부여(夫餘)를 정복(征服)하고
옥저(沃沮)를 병합(倂合)한 후 예맥(濊貊)도 병탐(倂貪)하야
국토(國土)를 넓혔으니 흑룡강(黑龍江)이 국경(國境)됨이
이때의 일이로다
칠대(七代) 임금 차대왕(次大王)101은 태조왕(太祖王)의 아우로써
재위한지 십구년간(十九年間) 천성(天性)이 잔악(殘惡)하여
어진 신하 고복장(高福章)102을 역율(逆律)로 치죄(治罪)하고
소인(小人)에게 정권(政權) 맡겨 국정(國政)이 혼란(混亂)트니
대혁명(大革命)이 이러나서 차대왕(次大王)을 물리치고
신대왕(新大王)103을 영립(迎立)하니 착하기로 요순(堯舜) 같다
죄인(罪人)을 크게 놓고 어진 신하 가려써서
국정(國政)을 회복(恢復)하니 한(漢)나라가 침로해도
이것을 막었구나 신대왕의 뒤를 이어
고국천왕(故國川王)104 즉위하니 희세(希世)의 현군(賢君)으로
문치(文治)에 뜻을 두어 좌가려(左可慮)를 벤[誅] 뒤에
난신(亂臣)을 징계(懲戒)하며 압록강변(鴨綠江辺) 좌물촌(左勿村)에
숨어서 밭을가는 을파소(乙巴素)105를 불으시와
국상(國相)을 삼은 뒤에 진대법(賑貸法)106을 반포하고
백성을 구휼(救恤)하며 재위한지 十八년간
고구려 역사상에 최성기(最盛期)를 이루었네
고국천왕(故國川王) 빈천(賓天)한 후 셋째 아우 산상왕(山上王)이
뒤를 이어 즉위하니 위인이 불칙(不則) 하여
형수(兄嫂) 우씨(于氏) 잠동타가 형의 발기(發岐) 대노하여
분란을 일으키다 발기(發岐)도로 태망하나
산상왕(山上王)107이 무사함은 을파소(乙巴素)의 덕이로다
산상왕이 빈천 후에 동천왕(東川王)108이 즉위하니
한(漢)나라가 망한 뒤에 삼국(三國)이 이러나다
위(魏)나라가 강성하야 고구려에 침로하네
동천왕(東川王)이 분로하야 군사를 이르키여
서안평(西安平)을 쳐부시고 패하(浿河)를 점영(占領)하니
위(魏)나라도 분을 내여 모구검(毋丘儉)을 대장삼아
十만대병 거느리고 국경에 침로함에
왕이 직접 출전하여 양백곡서 대첩(大捷)하나
적(敵)을 너무 경시(輕視)하여 압록강서 도로 패해
그 당시 서울이든 환도성(丸都城)109이 함락(陷落)됨에
국민이 당황(唐慌)터니 밀우(密友)110의 결사대(決死隊)와
육유의 책략(策略)으로 적장(敵將)을 잡은 후에
적군을 대하하니 이로부터 두나라가

대대(代代)원수(怨讐) 지었도다 동천왕이 빈천하니
중천왕(中川王)111이 뒤를 이어 즉위(卽位)하든 그해 원년(元年)
평양(平壤)으로 도읍(都邑) 옮겨 위나라와 또 싸워서
위나라의 병졸들을 팔천(八千)여명 잡았구나
봉상왕(烽上王)112이 즉위(卽位)하여 재위(在位)한지 십사(十四)년에
진(晋)나라와 싸우다가 대승(大勝)하여 돌아오나
위인이 무도하야 어진 달가(達賈) 죽인 후에
왕제졸고(王第咄固) 또 죽이고 간악함이 그지 없다
궁실(宮室)을 증축(增築)타가 국고(國庫)가 탕갈(蕩竭)113됨에
정승(政丞)되는 창조리(倉助利)114가 간(諫)하여도 않들으니
제신(諸臣)들의 의론 끝에 봉상왕을 내친 후에
졸고(咄固) 아들 을불(乙佛)이를 임금으로 내세우니
이가 곧 어진 임금 미천왕(美川王)115이 이 아닌가
미천왕이 즉위한후 정사(政事)를 개혁(改革)하고
낙랑(樂浪)을 수복(收復)한 후 진(晋)나라와 싸울 때에
그의 장수 장통으로 영지에서 쫓아내고
반(叛)거하고 지나(支那) 세력 근본적 모라내서
미천왕이 빈천하니 고국원왕(故國原王) 즉위(卽位)하여
싸움만은 좋아하나 자로태해 원통하다
요동(遼東) 지방(地方) 부근에는 연(燕)나라가 새로 생겨
사만명(四萬名)의 대군(大軍)으로 우리 나라 침로하니
싸우다가 도로 패해 환도성(丸都城)이 함락되여
이만(二萬)여 호(戶) 타버리고 인물(人物) 재화(財貨) 뺐어가니
그 아니 원통(寃痛)하랴 그 뒤에 백제(百濟)와도
싸움타가 패했으니 재위(在位)한지 사십년간(四十年間)
숱한 싸움 하였으나 이겨본 일 한 번 없고
백전백패(百戰百敗) 절통(切痛)하다 십칠대(十七代)의 소수림왕(小獸林王)116
뒤를 이어 즉위하니 어질기도 유명했네
학문(學問)을 장려하고 법율(法律)을 제정하며
즉위 원년 六월에는 지나땅 부진에서
불교(佛敎)를 전해와서 사찰(寺刹)을 처음 짓고
부도(浮屠) 순도(順道) 맞어들어 교리(敎理)를 선전햐니
이때가 단기로선 이천칠백오(二千七百五)년이라
소수림왕 죽은뒤에 그의 아우 고국양왕(故國壤王)117
팔년(八年)만에 빈천하고 그의 아들 광개토왕(廣開土王)118
십팔세(十八歲)에 즉위하니 연광(年光)은 어리오나
희세(希世)의 명군(明君)이라 즉위한지 이년(二年)만에
수륙군(水陸軍)을 동원하여 백제를 공벌(攻罰)하여

오십팔(五十八)성 았었으니 백제임금 아신왕(阿莘王)119이
또 처들어 올가 겁을 먹고 인질(人質)로 왕자(王子) 보내
조공(朝貢)을 바쳤으며 신라(新羅)도 위축되여
후원(後援)있기 애원하고 일본병(日本兵)도 무찌르고
거란(契丹)도 정벌(征伐)하고 연(燕)나라 평주(平州)정벌
위풍(威風)120이 대진했네 그의 아들 장수왕(長壽王)도121
부왕(父王)122의 위풍(威風)받아 국경(國境)을 개척(開拓)하고
위송(魏宋)과는 강화(講和) 맺고 백제를 공벌하여
개로왕(蓋鹵王)123을 죽인 뒤에 신라 땅도 있었구나
대대(大代)를 지내와서 영양왕이 즉위하니
지략(智略)도 놀랍시고 중흥(中興)에 명군(明君)일세
이때 마침 수양제(隋煬帝)124가 대지나(大支那)를 통일한 후
반도(半島) 흡수(吸收) 뜻을 품고 이십이년(二十二年) 정월달에
우문술(宇文述)125
125로 대장삼아 삼십만병(三十萬兵)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로커늘 을지문덕(乙支文德)126 인솔(引率) 병력(兵力)
평양성(平壤城)에 적(敵)을 몰아 살수(薩水)127에서 대전(對戰)하여
적군(敵軍)을 무찌르니 살아서 돌아간자
겨우 이천칠백(二千七百)이라 이것이 이름 놓은
살수대첩(薩水大捷)128 이 아닌가 그 뒤에도 수양제(隋煬帝)는
분통(憤痛)함을 못이겨서 해마다 침로하되
올 때마다 패주(敗走)했네 영양왕이 빈천한후
영류왕(榮留王)129이 즉위(卽位)하니 수(隋)나라가 망한뒤에
당(唐)나라가 일어나다 영류왕(榮留王)의 수단으로
당(唐)나라와 화친(和親)맺고 장성(長城)을 축조(築造)하고
불교(佛敎)를 흥왕(興旺)130시켜 문화(文化)를 숭상(崇尙)하고
일대 영웅 연개소문(淵蓋蘇文)131 진취주의(眞趣主義) 주창함을
영류왕(榮留王)이 만류(挽留)하니 연개소문(淵蓋蘇文) 거동보소
영류왕(榮留王)을 죽인 이후 반대파(反對派)를 전멸하고
보장왕(寶藏王)132을 세워두고 병권(兵權)을 잡은 후에
당나라를 정벌코자 만반 계획 갖춘 중에
마침 이때 당나라의 사신(使臣)이 들어와서
임금에게 불경(不敬)함을 연개소문(淵蓋蘇文) 분을 내어
그 사신을 베였드니 당태종(唐太宗)이 대노(大怒)하여
보장(寶藏) 삼년(三年) 사월(四月)달에 사십만명(四十萬名) 거느리고
친히 쳐서 들어오니 연개소문(淵蓋蘇文) 솔병하여
요동(遼東) 반도(半島) 들어가서 육개월간(六個月間) 대혈전(大血戰)에
막승막부(莫勝莫負) 불분(不分)터니 안시성(安市城)133에 이르러서

육탄(肉彈) 혈우(血雨) 두 달동안 장기전(長期戰)을 계속 하더니
용맹있는 양만춘(楊萬春)134이 적군(敵軍)을 대파(大破)하고
당태종(唐太宗)의 눈을 쏘아 부상(負傷)을 입혔으니
이것이 이름높은 안시성(安市城) 대첩일세
보장왕(寶藏王) 십육년(十六年)에 당나라가 분개(憤慨)해서
고구려(高句麗)에 침로하나 또한 패해 돌아가고
이듬해 동짓달에 당나라 또 일어나서
석성적리(石城積利) 침로하매 우리 장수 마주 싸워
대승(大勝)하여 돌아오니 그 후에 당나라는
신라군(新羅軍)과 연합(聯合)하여 고구려(高句麗)에 침로하나
백전노장(百戰老將) 소문군(蘇文軍)에 대패(大敗)하고 돌아갔네
그럼에도 고구려는 국운(國運)의 불행(不幸)인가
일대 명장(名將) 연개소문(淵蓋蘇文) 병들어 죽은 이후
그의 아들 남생(男生)135 남건(男建) 형제 서로 다투드니
남생(男生)은 남소성(南蘇城)136서 당나라에 귀부(歸附)하고
소문 아우 연정토(淵淨土)137는 십이성(十二城)을 이끌고서
신라에 자복(自服)하니 나당(羅唐)의 연합군은
몇 번 패한 원한(怨恨)으로 천재일우(千載一遇)138 복수(復讎)하고자
고구려(高句麗)를 쳐들온다 신라 명장 김인문(金仁問)139라
당나라 이세륵(李世勒)의 연합군의 들어와서
평양성(平壤城)이 함락(陷落)됨에 고구려(高句麗)가 대패(大敗)하야
원통(寃痛)하게 망했으니 이십팔대(二十八代) 칠백오년(七白五年)
一조에 허사로다 용감한 유민(流民)들은
망국한(亡國恨)을 속에 품고 보장왕(寶藏王)의 외손(外孫)되는
안승(安勝)140을 추대(推戴)해서 임금으로 세운 뒤에
고국회복(故國恢復) 노력하나 그것마저 내란(內亂)으로
뜻과 같이 못되었네 고구려가 멸망(滅亡)한 뒤
당나라의 설인귀(薛仁貴)141가 이만병력(二萬兵力) 거느리고
평양(平壤)에 유진(留陣)142하니 四군이 떠난 뒤에
다시 외권(外權) 침노한다 그후에 대조영(大祚榮)143이
고구려(高句麗)의 유장(遺將)으로 고국(故國)을 회복(恢復)하고자
당나라와 싸울때에 천문령(天文岺)서 대승(大勝)하고
만주(滿洲) 일대(一帶) 점령한후 동모산(東牟山)144에 정도(定都)하고
나라를 세웠으니 국호(國號)는 대진(大震)이오
五千리 지방(地方)으로 편호(編戶)十여승(餘勝)이로다
병력(兵力)이 수만(數萬)으로 위세(威勢)있는 대국(大國)이라
이때가 어느 때이뇨 단기 삼천삼십이년(三千三十二年)
고구려(高句麗)가 망한 이후 삼십이년(三十二年) 봄이로다

대조영(大祚榮)의 거동보소 태조(太祖)라 자칭(自稱)하고
십오(十五)년엔 국호(國號) 또한 발해(渤海)라 고친 이후
육년(六年)가서 병사(病死)하니 그의 아들 무왕(武王) 또한
희세(希世)의 명군(明君)으로 사이(四夷)145가 굴복(屈服)터니
무왕(武王)이 죽은 뒤에 문왕(文王)이 세습(世襲)하여
상경(上京) 동경(東京) 두 번이나 도읍지(都邑地)를 옮겨가며
영토(領土)를 확장(擴張)하여 최성기(最盛期)를 이루니라
문왕이 죽은 뒤에 아우[제(弟)] 원의(元義) 즉위(卽位)하여
국인(國人)에게 피시(被弑)146되고 그다음에 여러 임금
성왕(成王)147 강왕(康王)148 정왕(定王)149 희왕(僖王)150 간왕(簡王)151이 즉위(卽位)하여
무사(無事) 태평(泰平) 지내든 중 선왕(宣王)152 인수(仁秀) 즉위(卽位)하여
북방(北方)으로 출병(出兵)하여 경우(境宇)를 대개(大開)하고
관제(官制) 정비(整備) 병제(兵制) 개혁(改革) 문물(文物) 제도(制度) 갖춘 후에
오경(五京)과 십오부(十五府)와 육십이주(六十二州) 제정(制定)하니
해동(海東) 성국(盛國)153 엄연(儼然)하다 재위(在位) 불과 십여년(十餘年)에
대중흥(大中興)을 이루었네 선왕(宣王)은 누구든고
야발(野渤)의 현손(玄孫)154이라 야발(野渤)은 누구든고
대조영(大祚榮)의 아우로다 그 후에 건황왕(虔晃王) 때
국제(國制)가 쇠약하더니 십삼(十三)대의 경왕(景王)155 때와
위개왕(瑋瑎王)의 치세(治世) 거쳐 십오(十五)대의 애왕(哀王)156 시대(時代)
몽고(蒙古) 야율(耶律) 아보기(阿保機)157가 발해(渤海)국에 침입하여
국로 상경(上京) 함락(陷落)한 즉 발해 애왕(哀王) 출항(出降)하니
태조(太祖) 이래(以來) 십오(十五)대에 이백이십육(二百二十六)년으로
발해(渤海)국이 멸망(滅亡)했네 발해(渤海)의 유민(流民)들은
고국(古國) 회복(恢復) 운동으로 시시(時時) 처처(處處) 봉기(蜂起)하나
천운(天運)이라 할 수 없네 노서아(露西亞)158의 연해주(沿海州)와
남북(南北) 만주(滿洲) 넓은 벌판 우리나라 고토(故土)159이거늘
이로부터 다른 민족(民族) 반거지(攀居地)가 되어 있어
지금까지 퇴숙(堆宿)하니 원통(寃痛)하기 한(恨)이 없네
발해(渤海) 사기(史記) 그만두고 백제(百濟) 역사(歷史) 들어보소
흥망성쇠(興亡盛衰) 비슷하다 백제(百濟) 시조(始祖) 온조왕(溫祚王)160은
고구려(高句麗)의 시조(始祖)되는 동명왕(東明王)의 아들로써
이모(異母) 적형(適兄) 우리 태자 마음 서로 맞지 않아
동복형(同腹兄)인 비류(沸流)161 함께 그의 모친(母親) 뫼시고서
심복(心腹) 신하(臣下) 거느리고 남순(南巡)하여 내려올제
북악산(北岳山)에 이르러서 각거지(各據地)를 망점(望点)트니
비류(沸流)는 인천(仁川)으로 미추홀국(彌鄒忽國)162 세워있고
온조(溫祚)는 혼자 남아 위례성(慰礼城)에 들어와서

국가(國家)를 창건(創建)하니 천험(天險)지리(地利) 구비(具備)하다
처음 국호(國號) 십제(十濟)러니 백제(百濟)로 고친 이후
단기 이삼일육(二三一六)년에 백제(百濟) 시조(始祖) 온조왕(溫祚王)이
이때 처음 창국(創國)했네 재위 사십사(四十四)년 동안
이덕(以德)치민(治民) 하오므로 마한(馬韓)이 복종(服從)하여
백리(百里) 땅을 할양(割讓)하고 형님되는 비류왕(沸流王)이
마침 또한 병몰(病沒)함에 그 나라 백성들이
백제(百濟)때 귀순(歸順)하고 낙랑(樂浪)을 물리친 후
말갈(靺鞨)을 멸합(滅合)하고 남한산(南漢山)에 도읍(都邑)하니
남방(南方)에 대국(大國)일세 온조왕(溫祚王)이 병몰(病沒)하니
다루왕(多婁王)163이 즉위(卽位)하다 신라국(新羅國)과 인접(隣接)하리
신라(新羅) 백제(百濟) 싸움 잦어 다루왕(多婁王) 십오년(十五年)엔
청주(淸州)를 점령(占領)하고 신라국(新羅國) 탈해왕(脫解王)164이라
회맹(會盟)165을 청했드니 신라왕(新羅王)이 불청함에
이로부터 틈이 생겨 치열한 큰 싸움이
사십년간(四十年間) 계속되다 다루왕(多婁王)의 뒤를 이어
기루왕(己婁王)166이 즉위(卽位)하니 어질고도 착하여서
신라(新羅)와 강화(講和)하고 재위(在位) 오십이(五十二)년간(年間)에
국경(國境) 지대(地帶) 태평(泰平)했네 사(四)대의 개루왕(蓋婁王)167도
정사(政事)를 밝힌 이후 재위(在位)한지 오년(五年) 되어
북한산성(北漢山城) 처음 쌓어 외적(外敵)을 방비(防備)하고
태평(泰平)을 구가(謳歌)했네 개루왕(蓋婁王) 삼십칠년(三十七年)
신라(新羅) 반적(叛賊) 길선(吉宣)이가 망명차(亡命次)로
반적길 선 잡어달라 신라(新羅) 청원(請願) 불응(不應) 하니
신라(新羅)의 아달라왕(阿達羅王)168 대군(大軍)을 거느리고
변성(邊城)을 쳐들오다 군량(軍糧)이 부족(不足)하여
백제(百濟)와 대전(對戰)타가 퇴군(退軍)하여 돌아가니
나제(羅濟)의 백년전쟁(百年戰爭) 이로부터 시작(始作)되네
하고 만날 싸움으로 두 나라가 무익(無益)하고
피폐(疲廢)해질 뿐이로다 개루왕(蓋婁王)의 죽은 뒤에
초고왕(肖古王)169이 뒤를 이어 사십팔년(四十八年) 병몰(病沒)하고
구수왕(仇首王)170이 즉위(卽位)하여 이십일년(二十一年) 재위(在位)하고
사반왕(沙伴王)171이 즉위(卽位)하자 일년(一年)에 폐립(廢立)되고
고이왕(古爾王)이172 즉위(卽位)한후 공복제를 제정(制定)하여
민심(民心)을 선도(先導)하고 왕인(王仁)을 비롯하여
여러 학자(學者) 뽑아내여 일본(日本)으로 파견(派遣)해서
문학(文學)을 전해주니 일본(日本) 임금 누구든고
오신댄노 그 시대라 구대(九代)의 책계왕(責稽王)과

십대(十代)의 분서왕(汾西王)173과 십일대(十一代)의 비류왕(比流王)과
십이대(十二代)의 계왕(契王)174 등이 모다현히 내려와서
근초고왕(近肖古王)175 즉위(卽位)하니 천질(天質)176이 명군(明君)으로
국세(國勢)가 중흥(中興)되고 그의 아들 근구수왕(近仇首王)177
구년(九年)만에 돌아가고 침류왕(枕流王)178이 뒤를 이어
지나(支那)땅 동진(東晋)에서 불교(佛敎)를 전해와서
한산사(寒山寺)179를 창립(創立)하여 불교(佛敎)를 전파했네
침류왕(枕流王)의 뒤를 이어 진사왕(辰斯王)180이 즉위(卽位)하여
십오(十五)세 이상자로 국방군(國防軍)을 창설(創設)하고
그의 아들 아신왕(阿莘王)181은 일본과 화친(和親) 맺고
고구려(高句麗)와 싸우다가 몇 번이고 패했으며
십팔대(十八代) 전지왕(腆支王)182과 십구대(十九代) 구이신왕(久爾辛王)
양대를 지내와서 비유왕(毘有王)183이 즉위(卽位)하여
송(宋)나라와 교빙(交聘)하고 신라(新羅)와 화평(和平)터니
이십구년(二十九年) 왕이 죽고 개로왕(蓋鹵王)184이 즉위(卽位)하여
북위(北魏)에 치서(致書)하되 고구려(高句麗)왕(王) 연(連)이
죄영적악(罪盈積惡)하여 민서(民庶)가 붕리(崩離)라
마족지사(馮族之士) 마(馬)는 유조축지(有鳥畜之) 연(戀)하고
낙랑지제군(樂浪之諸郡)은 회수구지심(懷首邱之心)하니
청벌(請伐) 고구려(高句麗)라함에 위주(魏主)가 부종(不從)하니
부도승(浮屠僧) 도림(道琳)이가 고구려(高句麗)의 밀지(密旨)받고
백제(百濟)에 들어와서 거짓으로 항복(降服)하고
개로왕(蓋鹵王)을 꾀이어서 화려한 설비(設備)로써
궁실(宮室)을 증축(增築)하고 성(城)을 다시 쌓게하되
옹기(甕器)로써 하게 하니 국가(國家) 재정(財政) 탕진(蕩盡)됨에
국세(國勢)가 위급함을 도림(道琳)이가 도로가서
고구려(高句麗)에 고(告)했드니 고구려(高句麗)의 장수왕(長壽王)185은
한성(漢城)을 포위(包圍)하고 왕을 묶어 죽인 후에
남북성(南北城)을 공취(攻取)하니 문주왕(文周王)186이 즉위(卽位)하여
웅진(熊津)187으로 천도(遷都)하다 탐라국(耽羅國)이 내공(來貢)188터니
좌평(佐平)189 해구(解仇) 왕을 죽여 삼근왕(三斤王)190을 영립(迎立)한 후
목두성(木豆城)서 반귀커늘 해구를 죽인 이후
재위(在位) 불과 이년(二年)만에 삼근왕(三斤王)이 빈천(貧賤)하니
동성왕(東城王)191이 즉위(卽位)하여 삼년(三年)에 말갈군(靺鞨軍)이
한산성(漢山城)을 습파(襲破)하고 신라병(新羅兵)과 합세(合勢)하여
고구려(高句麗)의 침노함을 모산성(母山城)서 격파(擊破)하고
십육년(十六年)에 고구려(高句麗)가 치양성(雉壤城)192을 포위(包圍)함에
신라군(新羅軍)과 연합으로 적군(敵軍)을 대파(大破)했네

무령왕(武寧王)193 때 내려와서 오경박사(五經博士)194 단양이(段楊爾)195를
일본(日本)에 파견(派遣)하야 유학(留學)을 전파(傳播)하고
이십육대(二十六代) 성왕(聖王) 임금 무령왕(武寧王)의 아들로써
재위(在位) 삼십일년(三十一年) 동안 일본(日本)과 인연(因緣) 깊어
오고가고 남긴 사적(事蹟) 지금까지 소연하다
사자로 천도(遷都)하고 남부여(南夫餘)라 국호(國號) 고쳐
모시(毛詩)196를 전래(傳來)하고 이웃 나라 일본(日本)으로
불교(佛敎)를 전해주고 일본병(日本兵)을 청원(請願)하여
신라국(新羅國)을 침노타가 신라(新羅) 명장(名將) 김무력(金武力)에
붙들리어 죽은 이후 그의 아들 위덕왕(威德王)197은
사십사년(四十四年) 재위(在位)하고 혜왕(惠王)198 법왕(法王)199 뒤를 이어
모두 재위 일년(一年)이요 살생(殺生)을 엄금(嚴禁)하고
수렵(狩獵) 기구(機具) 불살으다 삼십삼대(三十三代) 무왕(武王) 임금
사십일년(四十一年) 재위(在位)간에 천문(天文) 역학(易學) 연구한 후
일본(日本)으로 전해주고 왕자(王子)를 당(唐)에 보내
국학(國學)을 연구(硏究)하고 무왕(武王)이 죽은 뒤에
의자왕(義慈王)200이 즉위(卽位)하여 고구려(高句麗)와 합세(合勢)하여
신라(新羅) 땅에 침입(侵入)하야 사오십성(四五十城) 공취(攻取)하니
신라(新羅) 태종(太宗) 무열왕(武烈王)은 내정(內政)을 정돈(整頓)한 후
당(唐)나라의 후원(後園)으로 백제(百濟)를 치려오네
당(唐)나라 소정방(蘇定方)201은 십삼만(十三萬)의 대군(大軍)으로
백제국(百濟國)의 인후(咽喉)되는 덕물도에 상륙(上陸)하고
신라(新羅) 명장(名將) 김유신(金庾信)은 오만(五萬) 병력(兵力) 거느리고
탄현(炭峴)을 얼른 넘어 사자성에 육박(肉迫)하니
호탕(豪蕩)한 의자왕(義慈王)은 국정(國政)은 불고(不顧)하고
주색(酒色)에만 음란(淫亂)하며 간신(奸臣)들에 매혹(魅惑)되여
충신(忠臣) 열사(烈士) 다 죽이니 종묘사직(宗廟社稷)202 위태롭다
좌평(佐平) 성충(成忠)203 간(諫)하기를 나당군(羅唐軍)은 강적(强敵)이라
경시(輕視)함이 불가(不可)하니 용사(勇士)를 뽑으시와
요로(要路)에 지키옵고 당(唐)나라의 병정(兵丁)으로
지벌포를 못넘도록 신라(新羅)의 병졸(兵卒)로써
탄현(炭峴)을 못 넘도록 일부(一夫)가 창을 들면
만명을 대적(大敵)하리 이렇듯이 충간(忠諫)해도
듣지않고 가뒀으니 애닯도다 의자왕아
국운(國運)이 한(恨)이로다 충용(忠勇) 장군(將軍) 계백(階伯)이는
오천(五千)명의 결사대(決死隊)로 십구년(十九年) 칠월(七月) 구일(九日)
황산(黃山) 벌판 넓은들에 나당대군(羅唐大軍) 막어내니
충의(忠義) 강개(慷慨)204 계백(階伯)205 장군(將軍) 천만고에 명장이라

황산(黃山) 결전(決戰) 출병(出兵)할때 처자 목을 손수 베여
칠백년(七百年)의 종묘사직(宗廟社稷) 함께 죽자 맹서(盟誓)하고
혈전(血戰)한지 십여일(十餘日)에 연합군(聯合軍)을 대살(代殺)터니
중과부적(衆寡不敵)206 어이 하리 장군(將軍)마저 전사(戰死)하고
웅진성(熊津城)이 함락(陷落)됨에 백제(百濟)가 망했구나
의자왕(義慈王)과 왕자(王子)들이 나당군(羅唐軍)에 항복(降服)하니
슬프다 의자왕(義慈王)아 온조왕(溫祚王)의 이룬 터전
삼십(三十)대로 내려와서 육백칠십팔(六百七十八)년만에
의자왕(義慈王)때 망했구나 이때 기원 언제련고
이천구백구십삼년(二千九百九十三年) 의자왕(義慈王)과 왕자 넷은
김인문(金仁問)207에 생포(生捕)되여 당(唐)나라로 잡혀가고
삼천(三千) 궁녀(宮女) 나인(內人)들은 망국한(亡國恨)을 슬퍼하여
백마강(白馬江) 절벽(絶壁)에서 낙화(洛花) 펄펄 떨어지니
천년(千年) 지낸 오늘까지 낙화암(洛花巖)208이 이름났네
당(唐)나라의 군사(軍士)들은 사자성에 유진(留進)하여
삼십칠군(三十七軍) 나누어서 오도독부(五都督府)209 설치(設置)하매
백제(百濟) 유신 분개(憤慨)하여 일년(一年) 지낸 정월(正月)달에
왕자풍(王子豊)을 추대(推戴)하여 독립군(獨立軍)을 일으켜서
삼년(三年)이나 싸우면서 이백(二百) 여성(餘城) 수복(收復)트니
내홍(內訌)210으로 패망(敗亡)하니 백제(百濟) 사기(史記) 그만이라
신라(新羅) 사기(史記) 자세보소 신라(新羅) 시조(始祖) 혁거세왕(赫居世王)
이상하게 탄생(誕生)하다 임자(壬子) 삼월(三月) 초 일일(一日)에
경주(慶州) 나정(蘿井)211 우물가에 서기(瑞氣)가 영롱(玲瓏)하며
백마(白馬)가 소리치고 조수(潮水)가 춤을 추니
천지(天地)가 진동(震動)하고 일월(日月)이 광명(光明)커늘
고허(高墟)212 촌장(村長) 소벌공(蘇伐公)이 그곳까지 다다르니
한 개의 알[卵]속에서 옥동자(玉童子)가 탄생(誕生)하매
소벌공이 수양(收養)터니 차차 장성(長成) 하여가매
성덕(聖德)이 구비커늘 이때 마침 육부(六部) 촌(村)에
군장(君長)이 없음으로 갑자(甲子) 사월(四月) 십오일(十五日)에
임금으로 추대(推戴)하니 이때 겨우 십삼세(十三歲)라
서라벌(西羅伐)이 국호(國號)되고 금성(金城)이 왕도(王都)되며
거서간(居西干)213이 왕호(王號)로다 그의 왕후(王后) 알영씨(閼英氏)214도
덕망(德望)이 겸비(兼備)함에 이성(二聖)이라 존경(尊敬)하다
농잠(農蠶)을 장려(奬勵)하고 교육(敎育)에 힘을 쓰니
천하(天下)가 화평(和平)하고 문화(文化)가 발달(發達) 되여
열국(列國)이 추앙(推仰)하고 외적(外敵) 침노 별로 없어
태평성대(太平聖代) 이때로다 육십(六十)년간(年間) 재위(在位) 중에

치적(治積)도 놀랍시고 창업(創業)하신 육십일년(六十一年)
삼월(三月)에 승하(昇遐)하니 사릉(蛇陵)215에 장사(葬事)하고
왕후(王后)능도 한능이라 이대(二代)의 남해왕(南解王)216도
재위(在位)하여 이십년간(二十年間) 부왕(父王)의 뜻을 이어
선정(善政)으로 다스리되 십년(十年)되는 갑술(甲戌) 해에
연해변경(沿海邊境)217 침노하는 왜적(倭敵)을 막었다네
이십일년(二十一年) 승하(昇遐)하고 삼대(三代) 임금 유리왕(儒理王)218은
삼십사년(三十四年) 승하(昇遐)하니 석탈해왕(昔脫解王) 즉위(卽位)하다
왕의 탄생(誕生) 이상하구나 다파나국(多婆那國) 왕자(王子)로써
난중(卵中)에 태어나매 바다에 띄웠드니
동해빈(東海濱)에 착륙하매 표모(漂母)219가 수양(收養)해서
남해왕(南解王)의 사위되서 유리왕(儒理王)의 뒤를 이어
왕위(王位)에 올라가니 이로부터 왕위(王位) 문제
박석(朴昔) 양성(兩姓) 상전(相傳)220 되다 사대(四代) 임금 내려오며
어진 성군(聖君) 계승(繼承) 하고 표공(飄公) 명선(明宣) 윤량(允良)221이며
길원(吉元)222 같은 현신(賢臣) 만나 국정(國政)을 보좌(補佐)하니
국력(國力)이 증강(增强)하고 인문(人文)이 발달(發達)되네
왕의 구년(九年) 추팔월(秋八月)에 김씨(金氏) 시조(始祖) 김알지(金閼智)223가
경주(慶州) 시림(始林)224 수풀 속에 금궤(金櫃) 중에 강생(降生)하고
탈해왕(脫解王)의 뒤를 이어 파사(婆娑) 지마(祗摩) 일성(逸聖) 같은
어진 임금 이어나고 명신(名臣)들이 집정(執政)하여
죄수(罪囚)를 대사(大赦)하고 창생(蒼生)을 구제(救濟)하여
인재(人材)를 들어쓴다 아달라왕(阿達羅王) 즉위(卽位)하니
일성왕(逸聖王)225의 아들로써 재위(在位)하여 삼십년(三十年)에
백제(百濟)와 싸우다가 패전(敗戰)하여 돌아왔고
벌휴왕(伐休王)226을 지내와서 내해왕(奈解王)227 때 이르러선
백제(百濟)와 또 싸웠구나 조비왕(助費王)이 즉위(卽位)하여
왜적(倭敵) 침노 물리치고 점해왕을 지내와서
미추왕(味鄒王)228이 즉위하니 김씨로선 첫 왕이라
나라를 선치(善治)하고 이로부터 박석금(朴昔金)의
삼성(三姓)이 상전(相傳)되다 이십삼년(二十三年) 재위(在位) 후에
석(昔) 유례왕(儒禮王)229 즉위(卽位)하고 십오대(十五代) 기림왕(基臨王)230도
석씨(昔氏)로써 십이년간(十二年間) 십육대(十六代) 흘해왕(訖解王)231도
석씨(昔氏)로써 사십육년(四十六年) 십칠대(十七代) 내물왕(奈勿王)232은
미추왕(味鄒王)의 아우로써 사십육년(四十六年) 재위(在位)하고
십팔대(十八代) 실성왕(實聖王)233도 김씨(金氏)로써 십오년간(十五年間)
십구대(十九代) 눌지왕(訥祗王)도 김씨(金氏)로써 사십일년(四十一年)
박제상(朴堤上)234을 명(命)하여서 일본(日本)으로 인질(人質)되간

왕제(王弟) 이인(二人) 데려오기 일본(日本)임금 꾀이여서
왕제(王弟) 둘은 나왔으나 박제상(朴堤上)은 일본(日本)에서
임금 속인 죄(罪)로하여 엄형(嚴刑) 국살(鞠殺) 당했구나
이십칠년(二十七年) 일본군(日本君)이 독산(獨山)에 내침(來侵)타가
불리(不利)하여 물러가고 이십대(二十代) 자비왕(慈悲王)235도
김씨(金氏)로써 즉위(卽位)하야 두 번이나 침로하는
일본(日本) 군사 물리치고 이십일대(二十一代) 초지왕도
김씨(金氏)로써 즉위(卽位)하야 네 번이나 침로하는
고구려(高句麗)를 격파(擊破)하고 구년(九年) 오월(五月) 십오일(十五日)에
천천사(天泉寺)에 행행(幸行)할세 가마귀가 내려와서
편지(便紙) 한 장 전(傳)하거늘 그 글에 하였으되
개견(開見)이면 이인사(二人死)오 불개견(不開見) 일인사(一人死)라236
이와 같이 적혔으매 내전(內殿)에 분수승(焚修僧)237이
왕후(王后)와 잠통(潛通)238하매 둘을 함께 죽인 이후
해마다 이날이면 신통한 가마귀의
찰밥으로 제사(祭祀)하여 지금(只今)까지 내려오다
이십이대(二十二代) 지증왕(智證王)239은 소지왕(炤智王)240의 재종제(再從弟)241라
우경(牛耕)242을 시작(始作)하고 한자(漢字)로 나라 이름
덕업(德業)일신(日新) 망라(網羅)사방(四方)243 뜻을 좇아 고치되
신라(新羅)라 이름 짓고 역대(歷代) 임금 추대(推戴)하여
왕자(王子)로 높이고 왕의 시호(諡號) 처음이라
주즙(舟楫)244을 제작(製作)하고 관제(官制)를 제정(制定)하다
상복법(喪服法)을 제정(制定)하고 십이성(十二城)을 구축(構築)하여
외적(外敵)을 방비(防備)하니 시조(始祖)이래 명군(明君)이라
십사년(十四年)에 승하(昇遐)하고 법흥왕(法興王)245이 즉위(卽位)하여
병부령(兵部令)을 처음 두고 율령(律令)을 반포하고
공복(公服)을 시제(始制)하고 이차돈(異次頓)246의 순교(殉敎)로써
불법(佛法)이 공인(共認)되며 가락국(駕洛國)의 구형왕(仇衡王)247이
십팔년(十八年)에 내항(來降)하다 진흥왕(眞興王)248이 즉위(卽位)하여
거칠부(居柒夫)249를 명령(命令)하여 국사(國史)를 편찬(編纂)하고
십사년(十四年) 이월(二月)에는 황룡사(黃龍寺)250를 구축(構築)하며
삼십칠년(三十七年) 이르러서 화랑(花郞) 제도(制度) 창시하여
오계(五戒)를 마련하니 이효사친(以孝事親) 이충보군(以忠報君)
이신교우(以信交友) 임전무퇴(臨戰無退) 살생유택(殺生有擇) 이것일세
이십오대(二十五代) 진지왕(眞智王)251은 삼년(三年)에 승하(昇遐)하고
이십육대(二十六代) 진평왕(眞平王)252은 오십삼년(五十三年) 재위(在位) 중에
일본(日本)과 수(隋)나라와 당(唐)나라와 교빙(交聘)하고
백제(百濟)와 두 번 싸워 대파(大破)시켜 물리치고

당(唐)나라 궁실(宮室)에서 모란화(牧丹花)가 처음오다
진평왕(眞平王)이 아들 없어 여걸(女傑) 선덕(善德) 즉위(卽位)하여
분황사(芬皇寺)253를 이룩하고 구국조공(九國朝貢) 의미하여
구층탑(九層塔)을 만드시고 첨성대(瞻星臺)를 건축(建築)하니
그 범위가 웅대(雄大)하여 동양(東洋) 최고(最高) 천문대(天文臺)라
태평송(太平頌) 이십구(二十句)를 비단으로 친히 짜서
당(唐)나라에 보냈으니 신라(新羅)의 가요시(歌謠詩)가
이때가 처음이라 재위(在位)불과 십오년(十五年)에
치정(治定)도 장할시고 진덕여왕(眞德女王)254 즉위(卽位)하여
김춘추(金春秋)가 입당(入唐)하여 당(唐)나라와 화친(和親) 맺고
백제군(百濟軍)의 야습(夜襲)으로 제양산(齊楊山)을 함몰(陷沒)함에
시인(時人)이 비상(悲傷)하야 양산가(陽山歌)를 지으니라
진덕여왕(眞德女王) 뒤를 이어 김춘추(金春秋)가 선위(禪位) 받어
삼국(三國) 통일(統一) 대공(大功) 이룬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255이로다
육년(六年)되는 하육월(夏六月)에 태자(太子) 법민(法敏) 김유신(金庾信) 등(等)
당(唐)나라 소정방(蘇定方)과 백제(百濟)도성(都城) 쳐들어가
황산원(黃山原)에 대승(大勝)하고 사자성을 공파(攻破)한 후
백제(百濟) 임금 의자왕(義慈王)과 왕자(王子) 효태(孝泰) 항복(降服)받다
칠년(七年)에 승하(昇遐)하고 문무왕(文武王)256이 즉위(卽位)하여
팔년(八年)되는 그해 봄에 통일명장(統一名將) 김유신(金庾信)과
당(唐)나라 소정방(蘇定方)과 연합군(聯合軍)을 일으켜서
고구려(高句麗)를 멸합(滅合)하여 삼국(三國)을 통일(統一)하니
반도(半島) 강산(江山) 신라(新羅)차지 동방(東方)에 대국(大國)이라
문무왕(文武王) 십사년(十四年)에 역법(曆法)257을 시행(施行)하고
신문왕(神文王)이 즉위(卽位)하니 화백(和伯)제도(制度)258 없앤 후에
세습(世襲)사위(嗣位) 법을 제정 무열왕(武烈王) 자손들만
임금되기 마련됐네 십일년간(十一年間) 재위(在位) 중에
국학(國學)을 장려(奬勵)해서 설총(薛聰)을 불러들어
문학(文學)을 연구하니 설총(薛聰)259은 누구든고
불교(佛敎)에 도통(道通)하온 원효대사(元曉大師) 아들이라
신문왕(神文王)260의 뒤를 이어 효소왕(孝昭王)261이 즉위(卽位)하여
자월(子月)로 세수(歲首)하니 양력(陽曆) 과세(過歲) 비슷하다
성덕왕(聖德王)262이 즉위(卽位)하여 장성(長城)을 축조(築造)하고
효소왕(孝昭王) 오년(五年)에는 인력을 부용(復用)하다
효성왕(孝成王)263 이년(二年)에는 왕가(王家)장사(葬事) 시작되고
경덕왕(景德王)264 십년(十年)에는 김대성(金大城)265을 명(命)하여서
불국사(佛國寺)를 건립(建立)하고 혜공왕(惠恭王)266이 즉위(卽位)하사
십오년(十五年)에 피시(被弑)되고 김양상(金良相)이 자립(自立)하니

선덕왕(宣德王)267이 이 아닌가 이로 부터 왕권(王權)쟁탈(爭奪)
유혈극(流血劇)이 이러나서 신라(新羅) 사적(事蹟) 더럽힌다
원성(元聖) 소성(昭聖) 지내와서 애장왕(哀莊王)268이 즉위(卽位)하니
왕위(王位) 분쟁(紛爭) 일어나서 숙부(叔父)에게 피시(被弑)되고
애장(哀莊) 삼년(三年) 팔월(八月)에는 해인사(海印寺)를 창건(創建)하고
숙부(叔父) 언승(彦昇) 자립(自立)하여 헌덕왕(憲德王)269이 되었구나
웅주(熊州) 도독(都督) 김헌창(金憲昌)270이 문란한 틈을 타서
반란(反亂)을 일으키어 오주(五州)를 점령(占領)하고
장안(長安)이라 국호(國號)하고 경운(慶雲)이라 연호(年號)터니
관군(官軍)에 사로잡혀 능지처참(陵遲處斬) 되였구나
헌덕왕(憲德王)의 아우 수종(秀宗) 형의 위를 앉은 후에
흥덕왕(興德王)271이 되였구나 이손제융(伊飡悌隆) 소행(所行) 보소
님금 자리 탐을 내여 숙부(叔父) 균정(均貞) 살해(殺害)하고
흥덕왕(興德王)을 쫓아낸 뒤 자립(自立) 희강(僖康) 왕이 되여
재위(在位) 불과(不過) 이년(二年) 되여 권신(權臣)의 김명(金明)이가
희강왕(僖康王)272을 죽인 뒤에 민애왕(閔哀王)이 되였으니
균정(均貞) 아들 우징(佑徵)이는 장보고(張保皐)273의 힘을 빌려
찬탈(簒奪)함을 허물 삼아 민애왕(閔哀王)274을 죽인 뒤에
자립(自立)하여 임금되니 신무왕(神武王)275이 이 아닌가
왕족(王族) 간에 골육상쟁(骨肉相爭) 이와 같이 빈발(頻發)하니
국위(國威)가 부진(不振)하고 민심(民心)이 흉흉하다
문성헌안(文聖憲安) 경문헌강(景文憲康) 정강왕(定康王)이 계속하고
진성여왕(眞聖女王)276 즉위(卽位)하여 천성(天性)이 음탕(淫蕩)하매
폐신(嬖臣) 위홍(魏弘)277 사랑해서 임금은 시둥이라
충의직간(忠義直諫) 역모(逆謀) 몰고 만조정(滿朝廷)엔 간신(奸臣)이라
민정(民情)은 도탄(塗炭)이오 왕명(王命)은 부진(不振)하니
군웅(群雄)이 봉기(蜂起)한다 진성여왕(眞聖女王) 오년(五年)에는
견훤(甄萱)278이가 일어나서 무진주(武珍州)에 근거(根據)하여
승시로 난을 지어 호남(湖南) 영남(嶺南) 석권(席捲)하고
헌안왕(憲安王)279의 서자(庶子)되는 궁예(弓裔)가 또 일어나서
영변(寧辺)에서 기병(起兵)하여 북원(北原)에서 봉기(蜂起)하온
양길(梁吉)280과 야합(野合)하여 한강(漢江) 이북(以北) 점거(占據)하고
원종(元宗)과 애노(哀奴)등은 사벌주(沙伐州)서 반란(反亂)하니
원천하가 난리판에 민심(民心)은 실신이라
진성여왕(眞聖女王) 선위(禪位) 받아 헌강왕(憲康王)의 서자(庶子)되는
효공왕(孝恭王)281이 즉위(卽位)하여 십오년간(十五年間) 재위(在位)한 중
천첩(賤妾)을 사랑하고 정사(政事)를 불휼(不恤)하며
왕이 또한 무사(無嗣)하야 국인(國人)들이 받들어서

혁거세왕(赫居世王) 후손(後孫)되는 신덕왕(神德王)282을 영립(迎立)하니
즉위(卽位) 오년(五年) 승하(昇遐)하고 경명왕(景明王)283이 즉위(卽位)하여
칠년(七年)에 승하(昇遐)하고 경애왕(景哀王)284이 대립(代立)하여
호방(豪放)하기 한(恨)이 없어 포석정(砲石亭)에 출유(出遊)할세
왕의 삼년(三年) 견훤(甄萱)이가 후백제(後百濟)285라 일컫고
전주(全州)에 근거하고 경주(慶州)도성(都城) 쳐들어와
경애왕(景哀王)286을 죽인 후(後)에 비빈(妃嬪)287 종척(宗戚)288 음란(淫亂)하고
왕제(王弟) 효염(孝廉) 재신(宰臣)289 영경(英景) 포로(捕虜)로 하여갔네
궁예(弓裔)290는 어이됐나 양길(梁吉)291을 잡은 이후
철원(鉄原)에 정도(定都)292하고 마진(痲震)293이라 국호(國號)하고
무태(武泰)294라 연호(年号)295터니 태봉(泰封)296이라 다시 고쳐
기병(起兵)한지 이십팔(二十八)년 왕건(王建)에게 쫓겨나가
마복(摩服)으로 망명타가 평강(平康) 민(民)에 피살(被殺)되다
경애왕(景哀王)이 피살(被殺)된후 경순왕(敬順王)297이 즉위(卽位)하니
김문(金文) 성왕(聖王) 후손(後孫)으로 신라(新羅) 국(國)의 말왕(末王)298일세
견훤(甄萱)299에 침노(侵擄)300받고 왕건(王建)에 겁을 내어
영토(領土)는 다 뺐기고 득인(得人)301도 못한 고로
피 흘려 쓸데 없다 제신(諸臣)302들과 의논(議論) 끝에
수년(數年)이나 지낸 사직(社稷)303 고려(高麗) 국(國)에 넘겨주니
충신(忠臣) 의사(義士) 없었든가 경순왕(敬順王)이 한심(寒心)하다
고구려(高句麗)가 망(亡)할 때엔 소문(蘇文)304같은 영웅(英雄)나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그 나라에 순절(殉節)305하고
백제(百濟) 국(國)을 두고 봐도 계백(階伯)306같은 충신(忠信)있어
결사대(決死隊)를 조직(組織)하야 황산(黃山)들에 싸우다가
나라 위해 순절(殉節)커늘 어찌하야 신라(新羅) 국(國)은
싸움한번 못해 보고 천(千)년 사직(社稷) 그 나라를
일조일석(一朝一夕)307 넘겨주니 문화(文化) 예술(藝術) 쓸 곳 없고
화랑(花郎) 적신 어디갔나 애닯도다 경순왕(敬順王)아
신라(新羅) 시조(始祖) 혁거세(赫居世)308 왕(王) 성덕(聖德)으로 나라 얻고
중흥(中興)309 시조(始祖) 무열왕(武烈王)이 무력(武力)으로 통일(統一)한 것
진성여왕(眞聖女王)310 음탕(淫蕩)하야 위홍(魏弘)311에게 정권(政權)맡겨
충의(忠義) 지사(志士)312 다 죽이고 경애왕(景哀王)이 호방(豪放)하야
전세(前世) 업적(業績) 더럽히고 제 죽는 줄 몰랐구나
충간(忠諫)313하던 마의태자(麻衣太子)314 왕(王)의 무능(無能) 한탄(恨歎)하야
삼베옷을 갈아입고 금강산(金剛山)에 깊이 숨어
초근(草根)315 목피(木皮)316 연명(延命)하여 한 평생(平生)을 맞았다네
아마도 조야(朝野)317 간(間)에 마의태자(麻衣太子) 뿐이로다
신라(新羅) 역년(歷年)318 세어보면 박(朴) 씨(氏)는 십(十) 왕(王)으로

이백십삼(二百十三) 여년(餘年)이오 석(昔) 씨(氏)는 팔(八) 왕(王)으로
일백팔십(一百八十) 유년이오 김(金) 씨(氏)는 삼십팔(三十八) 왕(王)
오백구십구(五百九十九)년(年)이라 모두 합해 오십육(五十六) 왕(王)
역년(歷年)을 도합(都合)하니 구백팔십이(九百八十二) 년(年)이라
신라(新羅) 사기(史記) 마쳤으니 가락(駕洛)319 국(國)은 어떠한고
삼국(三國)사이 끼어 있어 제일(第一) 약(弱)한 나라로써
변한(弁韓)320이 쇠약(衰弱)하야 금관국(金冠國)321이 되었다가
일대(一代) 위인(偉人) 수로왕(首露王)322이 구간(九干)323 부락(部落)324 통일(統一)하고
경상남도(慶尙南道) 김해군(金海郡)에 가락국(駕洛國)을 세웠으니
전국(全國)을 나누어서 오(五) 가야(伽倻)로 구분(區分)하니
대가야(大伽倻)325는 고령(高灵)이오 소가야(小伽倻)326는 고성(固城)이오
아라가야(阿羅伽倻)327 함안(咸安)이오 고령가야(古寧伽倻)328 함창(咸昌)이오
벽진가야(壁珍伽倻)329 성주(星州)에서 각각(各各)으로 도읍(都邑)했네
수로왕(首露王)이 거룩하사 백오십(百五十) 년(年) 재위(在位) 중(中)에
국력(國力)이 발전(發展)하더니 수로왕(首露王)이 죽은 뒤에
거등왕(居登王)330이 즉위(卽位)하야 오십사(五十四)년 재위(在位)하고
삼대(三代)의 마품왕(麻品王)331은 재위(在位) 삼십팔(三十八)년(年)이오
사대(四代)의 거질미왕(居叱彌王)332 오십오(五十五)년(年) 재위(在位)하고
오대(五代)의 이품왕(伊品王)은 육십일(六十一)년 재위(在位)하고
육대(六代)의 좌지왕(坐知王)333과 칠대(七代)의 취희왕(吹希王)과
팔대(八代)의 질지왕(銍知王)과 구대(九代)의 겸지왕(鉗知王)334이
사대(四代) 일백이십사(一百二十四)년(年) 망망(亡亡) 보존(保存) 유전(遺傳)타가
십대(十代)에 구형왕(仇衡王)335은 재위(在位)한지 십이(十二) 년(年)에
세궁역진(勢窮力盡)336 할 수 없어 신라국(新羅國)에 항복(降伏)하니
십대(十代)로 내려와서 역년(歷年) 사백구십(四百九十)이라
탐라국(耽羅國)337은 어디던고 지금의 제주도(濟州道)라
한라산(漢拏山) 삼성혈(三姓穴)338에 삼신인(三神人)이 출현(出現)하니
고을나(高乙那)339 부을나(夫乙那)340와 양을나(梁乙那)341가 있었으되
때마침 바다 위에 옥함(玉函)이 떠내려와
삼신인(三神人)이 건져본즉 삼여인(三女人)이 들어있고
구독(拘犢)과 오곡(五穀) 종자(種子) 또한 옆에 가졌기로
삼신인(三神人)이 물어본 즉 벽랑국(碧浪國)의 여자(女子)로서
이 곳까지 왔다함에 삼신인(三神人)이 분취(分聚)하여
고을나(高乙那)는 임금되서 제주(濟州)에 거주(居住)하고
양을나(梁乙那)는 내려가서 대정(大靜)에 거주(居住)하고
부을나(夫乙那)는 멀지 않은 정의(旌義)에 거주(居住)하여
모라(牟羅)라 국호(國號)짓고 자자손손(子子孫孫) 내려가며
세수(歲數)342 번창(繁昌) 하였더니 탐라(耽羅)라고 국호(國號)고쳐

고을나(高乙那) 십오(十五) 세(歲)에 고후(高厚) 고청(高淸)343 두 사람이
신라(新羅) 법흥왕(法興王)344 때 와서 그 길로 항복(降伏)하고
문무왕(文武王)345때 항복(降伏)한 후 신라(新羅)가 망(亡)하게 됨에
여(麗) 태조(太祖)께 내줬더니 고려(高麗) 숙종(肅宗)때에 와서
군(郡)으로 고쳤으니 공민왕(恭愍王)346때 반(反)하거늘
최영(崔瑩)347 장군(將軍) 토벌(討伐)하고 이조(李朝)의 태종(太宗) 때에
정의(旌義) 대정(大靜) 이현(二縣) 두어 제주목(濟州牧)에 관할(管轄)하다
삼국(三國) 시절(時節) 찬란(燦爛)하던 문화사(文化史)를 들어 보소
군주(君主) 세습(世襲) 귀족(貴族) 제도(制度) 관제(官制)를 들고 보면
고구려(高句麗)는 국상(國相)348이오 백제(百濟)는 좌평(佐平)349이오
신라(新羅)는 품수(品數)있어 내부(內部) 병부(兵部) 이부(二部)이며
조부(調府)350 이방 사헌부(司憲府)351의 육부(六部)로 정해있고
종교(宗敎)를 이를진댄 불교(佛敎)가 으뜸되며
유학(儒學)으로 이를진댄 신라(新羅)의 최치원(崔致遠)352과
김인문(金仁問)353과 설총(薛聰)354이라 고운선생(孤雲先生)355 두고 보면
십이(十二)세(歲)에 입당(入唐)356하여 황소(黃巢) 격문(檄文)357 지어 바쳐
중원(中原)358 천지(天地) 넓은 땅에 문장(文章) 명필(名筆) 이름 높고
예술(藝術)로 이를진데 유리왕(瑠璃王)359의 황조가(黃鳥歌)360와
진평왕(眞平王)의 북순비(北巡碑)와 선덕여왕(善德女王) 태평송(太平頌)361이
대표적(代表的) 명작(名作)이오 백제(百濟)나라 고흥(高興)362이는
백제사(百濟史)363로 유명(有名)하고 신라(新羅)의 거칠부(居柒夫)364는
신라사(新羅史)365로 이름 있고 수학(數學)으로 이를진댄
대도(大道)가 제일(第一)이오 명화(名畵)로 이를진댄
황룡사(黃龍寺)366에 벽화(壁畵)그린 신라(新羅) 솔거(率去)367 제일(第一)이오
명필가(名筆家)로 이를지댄 김생(金生)368이 으뜸이오
명곡(名曲)을 말씀하면 고구려(高句麗)의 우수곡(憂愁曲)과
백제(百濟)의 산유화곡(山有花曲) 신라(新羅)의 회소곡(會蘇曲)369과
백결선생(百結先生)370 방아타령 양산도(楊山道)와 수심가(愁心歌)며
그 모두가 명작(名作)이오 우륵(于勒)371의 가야금(伽倻琴)과
왕산악(王山岳)372의 현학금(玄鶴琴)373과 진평왕(眞平王)의 옥대(玉帶) 옥저(玉箸)
이것 또한 이름나다 왕건(王建) 태조(太祖) 창업(創業)하신
고려(高麗) 사기(沙器) 들어보소 태조(太祖) 대왕(大王) 처음에는
궁예(弓裔)에게 벼슬타가 궁예(弓裔)가 무도(無道)함에
제신(諸臣)들이 물리치고 왕건(王建) 태조(太祖) 권진(勸進)하야
임금 위에 추대(推戴)374하다 홍유(洪儒)375와 김훤술(金萱述)376은
태조(太祖)에게 권(權)하기를 삼한(三韓)이 분열(分列)되고
군도(群盜)377가 일어나니 원(願)하건대 왕건(王建) 태조(太祖)
창생(蒼生)378을 생각하사 폐혼(廢昏) 입명(立命)379 하옵시와

은주지사(殷周之事) 행(行)하오서 배현경(裵玄慶)380도 왕(王)을 도와
전공(战功)381으로 제일(第一)이오 신숭겸(申崇謙)382도 유명(有名)하다
태조(太祖)와 견훤(甄萱)이가 공산(公山) 동수(桐藪) 싸울 적에
견훤(甄萱)이 강성(强性)하야 왕건(王建) 태조(太祖) 포위(包圍)하고
사세 심히 위급(危急)한대 신숭겸(申崇謙)은 대장(大將)으로
태조(太祖) 모양(模樣) 흡사(恰似)함에 태조(太祖)처럼 잡혀가서
견훤(甄萱)에게 죽었으니 고려(高麗) 태조(太祖) 모피(謀避)383하야
그 후(後)에 임금되어 동수(桐藪) 싸움 위급(危急)할 때
신숭겸(申崇謙)을 비롯하여 팔(八) 장군(將軍) 아니드면
임금 지위(地位) 어디있나 이 때에 김락(金樂)384장군
김훤술(金萱述)과 전유(全侑) 등의 여덟 장수 싸우다가
한 시(時)에 순절(殉節)하니 왕건(王建) 태조(太祖) 창업(創業)하자
팔(八) 장군(將軍)을 생각(生角)하여 금은(金銀)으로 시체(屍体)지어
후이 장사(葬事) 지낸 후(後)에 자손(子孫) 찾아 벼슬주고
신숭겸(申崇謙)엔 장절공(蔣節公)과 김락(金樂)에겐 충절공(忠節公)에
김훤술(金萱述)엔 장열공(壯熱公)에 전유(全侑)는 충의공(忠毅公)에
각각(各各) 시호(諡號) 내리셨네 복지겸(卜智謙)385과 유금필(庾黔弼)386과
최응(崔凝)387등 백여인이 왕건(王建) 태조(太祖) 모셔다가
왕위(王位)에 앉혔으니 고려(高麗) 태조(太祖) 엄연(奄然)하다
개성(開成)388에 정도(定都)389하고 천수(天授)390라 연호(年號)했네
이때 기원 언제련고 삼천이백오십(三千二百五十二)년(年)
신라(新羅) 경명(景明) 삼년(三年)이라 창업(創業)하여 첫 사업(事業)이
민심(民心)을 수습(收拾)하고 인재(人才)를 등용(登用)하며
규모(規模)를 정한 후(後)에 공신(功臣)을 책봉(冊封)한다
재위(在位)한지 이십육(二十六)년(年) 속국(屬國)391을 병합(倂合)하고
북방(北方)을 개척(開拓)하야 삼한(三韓) 대업(大業) 완수(完遂)하다
혜종(惠宗)392 정종(定宗)393 치세(治世)394거쳐 광종(光宗)395이 즉위(卽位)하야
재위(在位) 이십육(二十六) 년(年) 동안 선왕(先王)의 뜻을 받아
박주(薄州) 영변(寧辺) 웅주(熊州)이며 삭주(朔州) 태천(泰川) 가산(嘉山) 등의
육진(六鎭)396을 설치하여 국경(國境)을 다스리니
원근이 복종(僕從)터라 주송(周宋)과 친선(親善)하여
중국(中國) 문물(文物) 수입(收入)하며 공복제(公服制)397를 제정(制定)하고
노비(奴婢)의 안험법(按驗法)398과 과거법(科擧法)을 창설(創設)하야
인재(人才)를 등용(登用)하며 탐관(貪官)을 숙청(肅淸)399하고
사찰(寺刹)을 대창(大創)하야 불교(佛敎)를 숭상(崇尙)하다
광종(光宗)이 빈천(貧賤)하고 경종(景宗)400이 즉위(卽位)하야
백관(百官)의 봉급제(俸給制)401인 전시료(田柴料)402를 제정(制定)하고
육년(六年)에 승하(昇遐)403하니 성종(成宗)404이 즉위(卽位)하여

성종(成宗) 또한 현군(賢君)405으로 송(宋)나라를 모방(模倣)하야
삼성육부(三省六部)406 칠사(七寺)등의 관제(官制)를 제정(制定)하고
종묘(宗廟)를 창립(創立)하고 오복(五復)을 제정(制定)하여
예의(禮意)를 밝힌 후(後)에 궁민(窮民)407을 구제(救濟)하고
농업(農業)을 장려(奬勵)하며 십이목(十二牧)408을 설치하고
이학(理學)409 경학(經學)410 박사(博士)두어 청년(靑年) 자질(資質) 교육(敎育)하며
효자(孝子) 절부(節婦)411 표창(表彰)하야 오륜(五倫)을 밝힌 후(後)에
추밀원(樞密院)412을 설치하여 군국대사(軍國大事)413 고문(顧問)414하니
즉위(卽位)한지 육(六) 년(年)만에 고려(高麗) 사상(史上) 처음 보는
최성기(最盛期)를 이루었네 이 때 마침 거란(契丹)415이가
완악(惋愕)416하고 무도(無道)하여 고려(高麗) 태조(太祖) 당시(當時)부터
국교(國交) 내왕 거절하더니 십이년(十二年)에 출병(出兵)하되
소손녕(蕭遜寧)417을 대장삼아 팔십만(八十萬) 병(兵) 내침(來侵)하니
고려(高麗)에선 서희(徐熙)418 장군(將軍) 적을 맞아 싸우다가
소손녕(蕭遜寧)과 화의(和議)하고 거란병(契丹兵)을 안무(按撫)419하니
외교술(外交術)에 능란(能爛)하온 서희(徐熙) 장군(將軍) 공(功)이로다
서희(徐熙) 장군(將軍) 그 이듬해 조약(條約)을 실행(實行)코자
여진(女眞)420을 몰아내고 팔성(八成)을 귀화(歸化)시켜
압록강(鴨綠江) 동북(東北) 지대 고려(高麗)의 판도(版圖)되니
지방(地方)이 넓어지메 구역(區域)을 변경(邊境)한다
관내도(關內道)421와 중원도(中原道)422며 하남도(河南道)423와 영남도(嶺南道)424며
영동(嶺東)425 산남(山南)426 강남(江南)427이며 해남(海南)428 삭방(朔方)429 패서(浿西)430 등의
십개(十個) 도(道)로 구분(區分)하고 절도사(節度師)431를 둔 연후(然後)에
사(四) 목사(牧使)432와 십오부(十五府)와 사도호(四都護)433와 오십육군(五十六郡)
이십팔진(二十八鎭) 이십현(二十縣) 때 일국(一國)을 행정(行政)하다
그 뒤에 또 변경(邊境)하야 양광 교주(交州) 경상도(慶尙) 전라(全羅)
서해도(西海道)로 줄인 연후(然後) 병마사(兵馬使)434를 설치(設置)하다
십육년(十六年)에 승하(昇遐)하니 목종(穆宗)435이 즉위(卽位)하여
십이년(十二年)간 재위(在位)러니 김치양(金致陽)436의 소행(素行)437보소
헌애왕후(獻哀王后)438 사통(私通)439하야 소생(所生)한 제 아들을
왕위(王位)에 올리려다가 강조(康兆)440가 다른 뜻 있어
치양(致陽) 부자(父子) 죽인 이후 목종(穆宗)을 또 죽이고
현종(顯宗)441을 옹립(擁立)442하니 거란(契丹)의 소행(素行)보소
성공(成功) 못 한 원한(怨恨)품고 재침(再侵)함을 결정(決定)하되
적신(賊臣) 강조(康兆) 친다 하고 현종(顯宗) 원년(元年) 십일월(十一月)에
2
사십만(四十萬) 병(兵) 거느리고 경도(京都) 열읍(列邑)443 짓 밟는다
현종(顯宗)은 위급(危急)하야 나주(羅州) 전주(全州) 피난(避難)가고

거란병(契丹兵)은 원로(遠路)에서 피곤(疲困)하여 쉬일 적에
귀주(龜州) 별장(別將) 김숙흥(金淑興)444과 순검사(巡檢使) 양규(楊規)445 등이
적군(敵軍)을 습격(襲擊)하여 이십여만(二十餘萬) 무찌르니
거란병(契丹兵)의 소행(素行)보소 제 잘못을 모르고서
패(敗)해 간 것 분히 여겨 현종(顯宗) 임금 칠년(七年) 동안
일곱 번을 침노해도 올 때마다 패(敗)해 갔네
원한(怨恨)이 철천(徹天)446터니 현종(顯宗) 구년(九年) 구월(九月)달에
거란(契丹) 장수(將帥) 소손녕(蕭遜寧)이 이십만(二十萬)의 대군(大軍)으로
다시 쳐서 들어오니 상원수(上元帥)447에 강감찬(姜邯贊)448과
부원수(副元帥)449에 강민첨(姜民瞻)450이 거란병(契丹兵)을 대적(對敵)하야
오개월(五個月)간 싸우더니 귀주(龜州)에서 대전(大戰)할제
강감찬(姜邯贊)의 복병술(伏兵術)451과 강민첨(姜民瞻)의 습격(襲擊)으로
거란병(契丹兵)을 전멸(全滅)하니 살아서 돌아간 자
불과(不過) 수천(數千) 뿐이로다 이것이 역사(歷史) 상(上)에
이름 있는 귀주대첩(龜州大捷)452 이로부터 고려국(高麗國)은
국위(國威)453가 대진(大振)하야 불래(弗奈)454 흑수(黑水)455 여진국(女眞國)과
탐라국(耽羅國)과 대식국(大食國)456이 차례로 조공(租貢)하다
이십이(二十二) 년(年) 승하(昇遐)하니 덕종(德宗)457 또한 현군(賢君)으로
거란병(契丹兵)이 건설(建設)했던 압록강교(鴨綠江橋) 회철(回撤)하고
장성(長城)458을 쌓은 후에 변방(邊方)을 굳게 하다
재위(在位) 삼년(三年) 승하(昇遐)하니 정종(定宗)459 또한 뜻을 이어
장성(長城)을 증축(增築)하고 거란(契丹)과 수호(修好)하야
여진(女眞)을 안무(按撫)하니 국경(國境)이 무사(無事)함에
국가(國家)가 태평(太平)이라 정종(定宗)이 빈천(賓天)460하고
문종(文宗) 또한 명군(名君)으로 재위(在位) 삼십칠(三十七)년(年) 동안
문치(文治)461에 힘을 쓰되 최충(崔沖)462을 명령(命令)하여
법률(法律)을 제정(制定)하고 태사(太史)463를 명령(命令)하여
천문학(天文學)을 연구(硏究)하고 삼인(三人) 이상(以上) 합의부(合議部)의
재판제(裁判制)를 만드시고 서책(書冊)을 간행(刊行)하여
학문(學文)을 숭상(崇尙)하니 문장(文章)이 배출(輩出)하여
사린(四隣)464에서 송덕(頌德)함에 송(宋)나라의 신종(神宗)465 황제(皇帝)
문종(文宗) 현덕(賢德) 흠모(欽慕)하야 한번 보기 원(願)했다네
문종(文宗)아들 대각국사(大覺國師)466 대장경(大藏經)을 각판(刻板)하야
해인사(海印寺)467에 장치(藏置)하고 불경(佛經)의 표본(標本)되는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468이로다 문종(文宗)이 빈천(賓天)하고
순종(順宗)469이 즉위(卽位)하여 재위(在位) 불과(不過) 사월(四月)이오
선종(宣宗)470이 즉위(卽位)하여 십일년(十一年)간 재위(在位)하고
헌종(獻宗)471이 즉위(卽位)하여 일년(一年)에 폐립(廢立)472되고

숙종(肅宗)473이 즉위(卽位)하야 제위(帝位)한지 십년(十年)되어
여진(女眞)의 오아속(烏雅束)이 국경(國境)에서 작란(作亂)함에
윤관(尹瓘)474을 보내시어 몇 번이나 정벌트니
별반(別般) 대공(大功) 못 이룬채 회맹(會盟)하고 돌아왔네
숙종(肅宗) 또한 결심(決心)하고 천지신명(天地神明) 기도한 후
군비(軍備)를 갖추더니 숙종(肅宗)의 빈천(賓天)으로
중도지패(中道之敗) 되었더니 예종(睿宗)475이 즉위(卽位)하여
부왕(父王)의 뜻을 이어 즉위(卽位)하여 이년(二年)만에
여진(女眞)을 치러간다 도원수(都元帥)에 윤관(尹瓘)이오
부원수(副元帥)에 오연총(吳延寵)476이 십칠만(十七萬)의 대병(大兵)으로
만주(滿洲) 땅을 건너서서 적군(敵軍)을 대파(大破)하고
함흥(咸興) 이북(以北) 수천리(數千里)에 구성(九城)477을 축조(築造)하고
남민(南民) 육만팔천(六萬八千) 인(人)을 구성(九城)으로 이민(移民)하다
그 후(後)에 여진(女眞)에선 애원(哀願)하야 조공(租貢)터니
세력(勢力)이 또 강해저서 아골타(阿骨打)478가 임금되여
대금(大金)이라 국호(國號)하고 황제(皇帝)라 존호(尊號)479하여
회령(會寧)480 땅에 정도(定都)하니 예종(睿宗)임금 구년(九年)때라
예종(睿宗)이 승하(昇遐)한 후(後) 인종(仁宗)481이 암약(闇弱)482하야
자겸난(資謙亂)483이 이러나다 이자겸(李資謙)484은 누구든고
인종(仁宗)의 외조(外祖)로세 국정(國定)에 간섭하여
충신(忠臣) 의사(義士) 다 죽이고 딸 둘을 강진하여
왕후(王后)로 삼은 후(後)에 찬역(簒逆)485을 꾀함으로
인종(仁宗)이 그 뜻 알고 척준경(拓俊京)486을 보내어서
이자겸(李資謙)을 잡았으나 그 뒤에 척준경(拓俊京)도
공훈(功勳)을 우세함에 절도(絶島)487로 귀양가니
인종(仁宗) 사년(四年) 평정(平正)되나 인종(仁宗)이 또 무능(無能)하여
간승(奸僧)에게 또 빠지니 그 중놈이 묘청(妙淸)488이라
묘청(妙淸) 놈의 흉계(凶計)보소 인종(仁宗)께 아뢰기를
서경(西京)으로 천도(遷都)하면 삼십육(三十六) 국(國) 조공(租貢)받네
횡설수설(橫說竪說) 꾸며내여 미혹(迷惑)하게 만든 후(後)에
한당유인(漢唐有人) 정지상(鄭知常)489과 백수한(白壽翰)490 등 밀모(密謀)하여
인종(仁宗) 대왕(大王) 십사년(十四年)에 서경(西京)491에서 난(亂)을지어
대위(大爲)492라 국호(國號)하고 천개(天開)493라 연호(年號)하여
변방(邊方) 열읍(列邑) 쳐들어 오니 그 세력(勢力)이 당당하다
평장사(平章事)494 김부식(金富軾)495이 관군(官軍)을 이끌고
두달 동안 혈전(血戰) 끝에 묘청(妙淸) 중을 잡았구나
김부식(金富軾)은 명장(名將)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496 저술(著述)하니
문무겸전(文武兼全)497 하오니라 인종(仁宗)이 승하(昇遐)하고

의종(毅宗)498이 즉위(卽位)하여 이십사년(二十四年) 팔월(八月)달에
문무(文武) 알력(軋轢) 생겼구나 문신(文臣)이 권리(權利)잡고
호화(豪華)를 일삼으며 무신(武臣)을 천대(賤待)커늘
정중부(鄭仲夫)499 등 작당(作黨)하여 문신(文臣)을 멸살(滅殺)한 후(後)
의종(毅宗)을 폐시(廢弑)하고 명종(明宗)500을 옹립(擁立)함에
문신(文臣)의 이보당(李甫當)이 병마사(兵馬使)501로 있을때라
의병(義兵)을 일으키어 무신(武臣)과 싸우더니
문신(文臣)들이 도로 패(敗)해 이보당(李甫當)만 죽었구나
명종(明宗) 사년(四年) 구월(九月)에는 서경(西京) 유수(留守)502 조위총(趙位寵)503이
문란(紊亂)한 틈을 타서 반란(反亂)을 일으키여
사십(四十)여(餘) 성(城) 았아오니 조정(朝廷)에선 대진하야
윤영첨(尹鈖瞻)을 보내어서 삼년(三年)이나 싸움 끝에
겨우 평정(平定) 하였으나 적신(敵臣)이 사기 띠고
난세(亂世)는 계속되어 인심(人心)은 불안(不安)하고
사직(社稷)504이 위태(危殆)한 중(中) 무신(武臣)들은 발효(發效)하야
서로 뜯고 다툴 때에 이의방(李義方)505은 이고(李高) 죽여
정중부(鄭仲夫)는 의방(義方)죽여 정중부(鄭仲夫) 혼자 들어
권리(權利)를 독점(獨占)터니 명종(明宗) 구년(九年) 구월(九月)에는
충의장군(忠義將軍) 경대승(慶大升)506이 용사(勇士)를 대동(大同)하고
중부(仲夫) 집을 야습(夜襲)507하여 정중부(鄭仲夫)를 박살(搏殺)하니
십년(十年)동안 권리(權利)다툼 이에서 평정(平定)되나
그 뒤 얼마 아니 가서 경대승(慶大升)이 죽은 뒤에
이의문(李義旼)508이 일어나고 명종(明宗) 이십육(二十六) 년(年)에는
최충헌(崔忠獻)509의 형제들이 이의민(李義旼)을 또 죽이니
현인(賢人)은 간 곳 없고 난신(亂臣)510만 이어나서
죽이고서 일어나고 일어난 놈 또 죽이니
불안(不安)한 인심(人心)이오 무서운 세태(世態)로다
최충헌(崔忠獻) 또 무도(無道)하야 제신(諸臣)들을 대살(代殺)하고
형제(兄弟) 서로 다투어서 아우 충수(忠粹)511 죽인 후(後)에
명종(明宗)을 쫓아내고 신종(神宗)512을 내세우니
조정(朝廷)의 모든 권리(權利) 최충헌(崔忠獻)에 돌아갔네
때마침 고려(高麗) 사회(社會) 노예제도(奴隸制度) 폐풍(弊風)513되여
최씨(崔氏) 정권(政權) 틈을 타서 신종(神宗) 원년(元年) 사월(四月)달에
노예해방(奴隸解放) 운동(運動)으로 노예(奴隸) 총각 만적514이가
난을 꾸며 일어나다 북산(北山)에 모여앉아
공사(公私) 음모(陰謀) 수천명(數千名)의 위세(威勢)가 당당하다
무기(武器) 군량(軍糧) 하나 없이 관군(官軍)에 잡였으나
파문(波紋)만은 대단했네 신종(神宗)이 전위(傳位)하니

희종(熙宗)515이 즉위(卽位)하야 최충헌(崔忠獻)을 미워해서
죽이기로 꾀하다가 도로 패(敗)해 죽은 뒤에
강종(康宗)516이 즉위(卽位)하여 최(崔)를 또한 싫어하니
강종(康宗) 또한 쫓겨나고 고종(高宗)517이 즉위(卽位)하니
최충헌(崔忠獻)의 세도(勢道)518함이 전보다 갑절 더해
거처(居處)와 행차(行次)함이 임금과 같이하고
반대자(反對者)가 있게 되면 불문곡직(不問曲直)519 목을 베고
가병(家兵)520을 양성(養成)하야 자호(自護)521를 엄히 하고
제가 한 일 짐작하야 말썽날 것 두려워 해서
심복(心腹) 명사(名士) 들어쓰다 고종(高宗) 재위(在位) 육년(六年)되어
최충헌(崔忠獻)이 병사(病死)하니 그의 아들 최우(崔瑀)522 또한
아비 권리(權利) 계승(繼承)했네 이때 마침 거란(契丹)에서
두 왕자(王子)가 모반(謀叛)타가 우리나라 쫓겨 오니
거란병(契丹兵)이 빙자(憑藉)523삼어 그를 쫓아 입국(入國)함에
인축(人畜)524을 살해(殺害)하여 무도(無道)함이 한이 없어
조정(朝廷)에선 분계(分界)하여 조충(趙沖)525과 김취려(金就礪)526의
두 장수(將帥)를 출전(出戰)시켜 거란병(契丹兵)을 몰아내고
오만(五萬)여명(餘名) 생검(生檢)하다 그 후(後) 십년(十年) 지낸 뒤에
몽고(蒙古) 임금 태종(太宗)이가 세력(勢力)을 뻗히고자
남방(南方)으로 내려온다 대군(大軍)을 거느리고
귀주(龜州)에 침입(侵入)함을 김경손(金慶孫)527과 박서(朴犀)528 장군(將軍)
적군(敵軍)을 대파(大破)한즉 적군(敵軍)은 몰려들어
송경(松京)529에 육박(肉薄)하니 부득이라 고종(高宗) 임금
민의(民意)를 보내여서 화평(和平) 조약(條約) 맺은 후(後)에
몽고병(蒙古兵)이 철퇴(撤退)하다 그 후(後)에 몽고(蒙古) 관리(官吏)
칠십이(七十二) 명(名) 입국(入國)하야 고려(高麗) 정치(政治) 감독(監督)하니
고종(高宗) 왕(王)이 분노(忿怒)하야 제신(諸臣)들과 수의(數議)530 끝에
몽고(蒙古) 관리(官吏) 다 죽이고 강화도(江華島)로 천도(遷都)531하여
적의 재침(再侵) 예상터니 몽고(蒙古)의 철례탑(撤禮塔)532이
저의 관리(官吏) 죽였다고 과연 대군(大軍) 거느리고
고려(高麗) 땅에 재침(再侵)한다 고려(高麗) 승장(僧將)533 김윤후(金允侯)534가
처인성(處仁城)535서 접전 끝에 철예탑(撤禮塔)을 쏴죽이고
적군(敵軍)을 대파(大破)한 후(後) 승전(勝戰)하고 돌아오니
참패(慘敗)한 몽고병(蒙古兵)은 원한(怨恨)을 품은 체로
해마다 침략(侵掠)하니 조정(朝廷)이 불안(不安)하고
백성(百姓)은 도탄(塗炭)536이라 종실(宗室)537인 영녕공(永寧公)을
몽고(蒙古)로 보내여서 강화조약(江華條約) 맺은 뒤로
몽고(蒙古) 침략(侵掠) 그쳤으나 해마다 전쟁(戰爭)으로

토적(土賊)538은 일어나고 시절(時節)은 흉년(凶年)인대
최우(崔瑀)만이 독권(獨權)으로 사병(私兵)을 길러내고
저의 집 사랑(舍廊)에다 정방(政房)539을 꾸며놓고
국정(國定)을 좌우(左右)하니 임금은 시둥이라
공수(拱手)540 유유(幽幽)541 할 뿐이오 고종(高宗) 왕(王) 삼십육(三十六)년(年)
최우(崔瑀) 또한 병사(病死)함에 그의 아들 최항(崔沆)542이가
아비 뒤를 또 이어서 국정(國定)을 좌우(左右)하고
서모(庶母)543를 음란(淫亂)하고 계모(繼母)를 학살(虐殺)한 후(後)
충의직신(忠義直臣) 다 죽이니 천벌(天罰) 어찌 없을 손가
최항(崔沆)이 직사(直死)한 후(後) 그의 아들 최의(崔竩)544있어
저들 잘못 깨닫고서 민심(民心)을 수습코자
빈민(貧民)을 구제(救濟)하고 탐관오리(貪官汚吏) 없애가며
국정(國定)을 살피더니 위인(偉人)이 무능(無能)하고
득인심(得人心)545도 못한 고로 김인준(金仁俊)546과 임연(林衍)547등의
간신배에 피살(被殺)되니 사세(四歲) 육십팔(六十八)년(年)만에
최씨(崔氏) 세도(勢道) 끝났도다 이 때가 어느때뇨
고종(高宗) 사십오(四十五)년(年)이라 고종(高宗)의 승하(昇遐)한 후(後)
원종(元宗)548이 즉위(卽位)하야 강화도(江華島)에 있든 서울
송경(松京)으로 다시 옮겨 몽고(蒙古) 또한 침략(侵掠)하되
강화도(江華島)에 유진(留陣)549하고 내외성(內外城)을 부신 이후
자비령(慈悲嶺)을 았는구나 그 후(後)에 또 몽고병(蒙古兵)은
돈녕부(敦寧府)550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간섭하네
김인준(金仁俊)은 대신(大臣)으로 최씨(崔氏) 죽은 뒤를 이어
국정(國定)을 좌우(左右)터니 김인준(金仁俊)도 무도(無道)하여
임연(林衍)에 패망(敗亡)되다 임연(林衍)이 또 거만(倨慢)하여
원종(元宗) 임금 폐위(廢位)타가 몽고인(蒙古人)의 간섭(干涉)으로
제 뜻대로 되지 않아 그의 아들 임유무(林惟武)551와
왕(王)을 항상 경멸(輕蔑)하고 국가(國家) 정치(政治) 임의하니
홍규(洪奎)552와 이송예가 임연(林衍) 부자(父子) 주살(誅殺)하고
대정(大定)을 봉환(奉還)하니 인종(仁宗) 이후 팔세(八歲) 걸쳐
일백사십팔(一百四十八)년(年) 간에 권간(權干) 습단(襲斷) 하던 정권(政權)
이로부터 복구되다 원종(元宗)이 또 혼미(昏迷)하야
삼별초난(三別抄亂)553 일어난다 고종(高宗) 때에 세도(勢道)하던
최우(崔瑀)의 일문(一門)들이 도적(盜賊) 방비(防備) 빙자(憑藉)하고
창설(創設)한 경비대(警備隊)로 역대(歷代)의 권신(權臣)▨이
이 군대(軍隊)를 이용하야 권신(權臣)들은 아성(兒聲)되고
국가(國家)엔 화(禍)가 되었네 원종(元宗)이 그 것 알고
삼별초군(三別抄軍) 해산(解散)터니 수뢰(首賂)되는 배중손(裵仲孫)554이

진도(珍島)에서 반란(反亂)하여 전주(全州)로 쳐들 올 제
고려(高麗) 명장(名將) 김방경(金方慶)555이 몽고병(蒙古兵)과 합세(合勢)하여
탐라(耽羅)까지 추격(追擊)하니 칠십(七十) 여명(餘名) 자살(自殺)하고
삼별초군(三別抄軍) 전멸(全滅)되다 이 때에 몽고(蒙古)나라
만주(滿洲)를 통일(統一)하고 천하(天下)를 호령(號令)한다
원종(元宗)이 승하(昇遐)한 후(後) 충렬왕(忠烈王)556이 즉위(卽位)하여
관제(官制)를 개혁(改革)하되 시중(侍中)557을 찬성사(贊成事)558로
추밀사(樞密使)559를 밀직사(密直使)560로 그 외(外)에 모든 관제(官制)
원(元)나라의 본(本)을 받아 모두다 개혁(改革)하되
초대(初代)의 밀직사(密直司)로 김훤술(金萱述)의 원손(遠孫)561되는
김균(金均)562을 들어 쓰니 최충헌(崔忠獻)의 사대(四代) 집권(執權)
공신(功臣) 자손(子孫) 멸시(蔑視)받다 이제야 들어 썼네
충렬왕(忠烈王) 십구년(十九年)엔 찬성사(贊成事) 안유(安裕)563시켜
국학(國學)564을 즙치(葺治)하고 이산(李淦) 이진(李塡), 이성(李晟), 추적(秋適)
최원충(崔元冲)등 교수(敎授)삼어 국학(國學)을 대성(大成)했네
원(元)나라의 강제(强制) 요청(要請) 약소국가(弱小國家) 할 수 없다
원(元) 공주로 왕비 삼고 국제(國際) 혼인(婚姻) 시작되네
원(元)나라의 일본(日本) 정벌 고려(高麗)가 도와주고
원(元)나라 임금에게 충성(忠誠)을 의미(意味)하야
충렬(忠烈)이니 충선(忠宣)이니 충(忠) 자(字)를 붙였으니
그 아니 절통(切痛)하랴 충렬왕(忠烈王) 이십사(二十四)년(年)
충선왕(忠宣王)565께 전위(傳位)하고 상왕(上王) 위에 있었드니
그 이듬해 복위(復位)하니 임금 지위 좋지만은
십년(十年)동안 부자불복(父子不睦) 웃음거리 자아내고
충선왕(忠宣王) 또 음탕(淫蕩)하야 정사(政事)에는 뜻이 없고
원(元)나라에 머물다가 번양왕(潘陽王)을 자칭(自稱)하고
충숙왕(忠肅王)566께 전위(傳位)하니 전위(傳位)받은 충숙왕(忠肅王)도
무능(無能) 무책(無策) 이십육(二十六)년(年) 허위(虛位)만 보전(保全)할 뿐
충혜왕(忠惠王)567께 전위(傳位)하니 음탕(淫蕩)하고 무도(無道)하여
원인(元人)에게 잡혀가서 관동(關東)으로 귀양가다
악양(岳陽)에서 병사(病死)하고 그의 아들 충목왕(忠穆王)568과
서자(庶子)되는 충정왕(忠定王)569도 유충(幼沖)570한 탓으로써
간신(奸臣)들이 일어난다 원(元)나라의 간섭으로
즉위(卽位)하여 삼년(三年)만에 공민왕(恭愍王)571께 전위(傳位)하니
충혜왕(忠惠王)의 아우 로써 천자(天子)는 유약(幼弱)하나
나라 일을 생각(生角)하며 원(元)의 탄압(彈壓) 막으려고
백방(百方)으로 연구(硏究)할 제 이색(李穡)572과 이제현(李齊賢)573과
유탁(柳濯)574과 최영(崔瑩) 장군 문무(文武) 제신(諸臣) 들어쓰고

조일신(趙日新)575과 정천기 등 난신(亂臣)을 주살(誅殺)하고
원(元)의 설치 생각(生角)더니 이때 마침 원(元)나라는
대란(大亂)이 일어나서 주원장(朱元璋)576께 망(亡)할 때라
이 때라 짐작하고 왕(王)의 오년(五年) 오월(五月) 말에
정원군(征元軍)을 대발하니 인당을 대장(大將)삼아
최영(崔瑩)과 강준경은 서북면(西北面)을 쳐서가고
유인우(柳仁雨)577와 황천보는 동북면(東北面)을 쳐서간다
쌍성(雙城) 육주(六州) 천여리(千餘里)와 요동(遼東) 평야(平野) 점령(占領)하니
원(元)나라의 거동(擧動)보소 사신(使臣)을 밀송(密送)하야
공민왕(恭愍王)께 위협(威脅)하니 유약(幼弱)하다 공민왕(恭愍王)은
원(元)나라에 공축되어 정원군을 소환(召喚)하고
인당을 죄살(罪殺)하니 정원 계획(計劃) 허사(虛事)로다
원(元)나라가 쇠(衰)해지매 중원(中原) 천지(天地) 혼란(混亂)하야
대적(大賊)의 홍두적(紅頭賊)578이 북지(北地)에서 노략타가
공민왕(恭愍王) 팔년(八年)되어 사만(四萬)여명(餘名) 거느리고
우리나라 노략커늘 상장군(上將軍)에 김용선(金用宣)과
정세운(鄭世雲)579은 서경(西京)에서 안우(安祐)는 함종(咸從)에서
이방실(李芳實)580은 풍천(豊川)에서 홍두적(紅頭賊)을 대파(大破)하고
이만(二萬)여명(餘名) 잡았더니 홍두적(紅頭賊)이 도망가다
그 후 일년(一年) 지내 와서 이십만명(二十萬名) 또 이끌고
경도(京都)에 침략(侵掠)하니 공민왕(恭愍王)은 난(亂)을 피해
복주(福州)581로 피난(避難)가고 총병관(總兵官)에 정세운(鄭世雲)이
공민왕(恭愍王)의 분부(分付) 받고 안우(安祐)와 이방실(李芳實)과
김득배(金得培)582등 삼원수(三元帥)583며 개성(開城) 부윤(府尹)584 김수(金銖) 선생(先生)
송악(松岳)585에서 유진(留陣)586하여 육탄(肉彈)587 혈우(血雨)588 수개월에
송경(松京)을 회복(回復)하고 십여만(十餘萬)을 참살(慘殺)하니
남은 도적(盜賊) 도망(逃亡)가다 최영(崔瑩)과 최린(崔麟)장군
홍두적(紅頭賊)을 추격(追擊)하여 만주(滿洲)까지 따라가며
모두 섬멸(殲滅) 주창(主唱)터니 정세운(鄭世雲)의 만류로써
중도지패(中道之敗) 되었구나 간신(奸臣)의 김용(金鏞)이가
중간 이간 붙여 놓고 공민왕(恭愍王)께 무고(誣告589)하니
그 말을 옳게 여겨 홍두적(紅頭賊)에 유공(有功)하든
정세운(鄭世雲) 김득배(金得培)와 이방실(李芳實) 안우(安祐) 등의
사원수(四怨讐)를 다 죽이니 원통(寃痛)하기 한(限)이 없어
포은(圃隱)590 선생(先生) 제문(祭文)하되 오호라 황천(皇天)591이여
아죄(我罪)가 이하(伊何)이며 오호라 황천(皇天)이여
차하인제(此何忍哉) 리요 복선화음(福善禍淫)592 하는 자는
천(天)이라 들어왔고 상선벌악(賞善罰惡)593 하는 자는

인(人)이라 들었노라 천(天)과 인(人)이 상이(相異)하나
그 이치(理致)는 일여(一如)594하다 고인(故人)들의 말씀에도
창천(蒼天)이 승인(勝人)하고 인중(人衆)595이면 우(又) 승천(勝天)을
과연 이른 이치(理致)로다 왕자(往者)596에 홍두적(紅頭賊)이
조국(祖國)에 침노할제 여가(輿駕)597를 옮기시고
도성(都城)이 함락(陷落)됨에 국가(國家)의 운(運)과 명(命)이
풍전(風前)에 등화(燈火)598러니 오즉이 사원수(四怨讐)는
대의(大義)를 주창(主唱)하고 원근(遠近)이 향응(嚮應)599하다
사경(死境)600에 나아가서 삼한지업(三韓之業) 완수(完遂)하니
무릇 이제 사람들이 침식(寢息)601을 편케함은
이 누구의 공(功)이런고 비록 죄(罪)가 있더라도
공(功)으로써 덮어주고 죄(罪)가 공(功)에 더하거든
그 죄상(罪狀)이 명단(明斷)되여 귀추(歸趨)602됨을 본연 후(後)에
주살(誅殺)603함이 가(可)하거늘 오호라 천명(天命)이여
한마(汗馬)604가 미간(未乾)하고 계가(凱歌)가 미파(未罷)한대
봉인지혼(鋒刃之魂)605 되게 하고 나 이제 슬피 울어
천(天)에게 물어 본다 나는 그대 충혼장백(忠魂壯魄)606
알고도 남음 있다 천추만대(千秋萬代)607 내려가도
구천지하(九天地下)608 울 것이니 슬프다 차인사(此人事)여
이 같이 지였더라 그 뒤에 김용(金鏞)이는
국정(國定)에 간여하여 충신(忠臣)을 죽인 뒤에
내궁(內宮)609을 야습(夜襲)타가 최영(崔瑩)과 김수(金銖)에게
붙잡혀 타살(他殺)되다 공민왕(恭愍王) 십일년(十一年)에
탁도경(卓都卿)610과 조소생(趙小生)611이 원(元)의 반적(反賊) 유인(誘引)하야
홍원에서 작관거늘 북병사(北兵使) 이성계(李成桂)612가
함창에서 구축(驅逐)613하고 십삼년(十三年) 정월(正月)에는
반적신(反賊臣) 최유614 등이 원(元)나라의 후원(後援)으로
국경(國境)에 침노함을 최영(崔瑩)과 이성계(李成桂)가
정주(汀洲)에서 잡은 후(後)에 여진(女眞) 추장(酋長)615 삼선, 삼계
이성계(李成桂)의 내종제(內從弟)로 함화 이북(以北) 침입(侵入)함을
이성계(李成桂) 또 막았구나 한심하다 공민왕(恭愍王)이
김용(金鏞) 난(亂)이 평정되니 요승(妖僧)에게 또 빠지네
그 중 놈은 신돈(辛旽)616이라 삼중대광(三重大匡)617 높이앉아
최영(崔瑩)과 이인복(李仁復)618등 충신(忠臣)들을 물리치고
금란(金蘭)과 이춘부(李春夫)619등 사당(私党)을 등용(登用)함에
정추(郑樞)와 이존오(李存吾)620는 그의 죄상(罪狀) 말하다가
천리(千里) 원정(遠征) 귀양(歸養)갔네 신돈(辛旽)이가 흉물(凶物)이 되
칠년(七年)이나 음모(陰謀)하야 거사(擧事)한번 못 해 본체

신돈(辛旽)이만 잡혔구나 우매(愚昧)한 공민왕(恭愍王)은
광망(狂妄)621함이 더욱 심해 홍륜(洪倫) 한안(韓安) 권진(勸瑨) 등의
미소년(美少年)을 사랑 타가 즉위(卽位)하여 이십사(二十四) 년(年)
그 놈들에 피시(被弑)되니 왕(王)의 말로 한심(寒心)하다
경복흥(慶復興)622과 이인님이 놈들을 잡은 후(後)에
새로 임금 뫼셨으니 이가 곧 우왕(禑王)623일세
우왕(禑王) 이년(二年) 칠월(七月) 달에 일본병(日本兵)이 침노함에
최영(崔瑩)장군 홍산에서 이성계(李成桂)는 지리산(智異山)서
왜적(倭敵)을 무찌르고 정포은(鄭圃隱)624 일본(日本)가서
일(日) 정부(政府)와 단판(單板)하다 병사(兵士)가 최무선(崔茂宣)625의
화약(火藥)을 발병(發病)함도 이 때의 일이로다
전후(戰後) 십년(十年) 동안이나 일본(日本) 놈이 침노하니
이성계(李成桂)는 인월역(引月驛)서 정지는 남해(南海)에서
왜적(倭敵) 십만(十萬) 무찌르니 그 뒤부터 종용했네
인당이 죽은 뒤에 북벌(北伐)계획(計劃) 막연트니
명(明)나라 주원장(朱元璋)626이 대 지나를 통일(統一)하고
고려국(高麗國)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강(江)에다가
철령위(鐵嶺衛)627를 설치하니 군신(君臣)이 분개(憤慨)하여
철령위(鐵嶺衛)를 깨트리고 명(明)나라를 치러간다
십사년(十四年) 사월(四月)에는 평양(平壤)에 진주(進駐)628하여
대본영(大本營)을 설치하고 사만(四萬) 명(名)을 동원(動員)하야
도총사(都總使)629에 최영(崔瑩) 장군(將軍) 좌군(左軍) 도통(都統) 조민수(曺敏修)630요
우군(右軍) 도통(道統) 이성계(李成桂)라 선봉장(先鋒壯)에 홍인계는
압록강(鴨綠江)을 먼저 건너 명(明)나라 군(軍) 대적(大敵)하고
위화도(威化島)631에 유진(留陣)터니 이때 마침 장림(長霖)632으로
군심(軍心)이 염퇴(廉退)하니 이성계(李成桂)의 날랜 수단
혁명(革命)의 뜻을 품고 조민수(曺敏修)를 유인(誘引)하여
위화도(威化島)를 회군(回軍)하자 압록강(鴨綠江)의 물이 불어
위화도(威化島)를 뒤덮거늘 조그만 터 있었드면
전군(全軍)이 몰살(沒殺)할 것 이성계(李成桂)의 영단(英斷)633으로
사졸(士卒)들이 살아남에 사졸(士卒)들이 단결(團結)하야
이성계(李成桂)를 위하여서 죽기로써 맹서(盟誓)하니
이성계(李成桂)의 날랜 눈치 그 사졸(士卒)을 거느리고
최영(崔瑩) 장군(將軍) 토벌(討伐)코자 다시 한번 일어나다
우왕(禑王)과 최영(崔瑩) 장군(將軍) 송경(松京)으로 돌아와서
이성계(李成桂)를 방위(防衛)하나 승세(乘勢)를 당치 못해
최영(崔瑩) 장군(將軍) 원사(寃死)634하고 우왕(禑王)도 쫓겨나서
창왕(昌王)635이 즉위(卽位)하다 최영(崔瑩) 장군(將軍) 충장(忠將)으로

안마간(鞍馬間)636에 있어서도 왕왕(往往)637이 시를 읊되
하루는 경복흥(慶復興)638이 천시고인인불고(天是古人人不古)라하니
최영(崔瑩) 장군(將軍) 화답(和答)하되 월위명월(月爲明月) 상무명(相無明)고
창왕(昌王)이 즉위(卽位) 후(後)로 북정(北征)639 계획(計劃) 그만두고
이성계(李成桂)의 하는 대로 일년(一年)이 지낸 뒤에
왕씨(王氏) 자손(子孫) 아니라고 신우(神禑) 신창(神昌) 말성(末性)되여
부자(父子) 함께 쫓겨날 제 슬픈 글을 지었으니
오왕부자(吾王父子) 각분리(各分離)에 만리동서(萬里東西) 천일애(天一涯)라
가사일신(可使一身) 위서우(爲戚友)나 촌심천고(寸心千古) 미천이(未遷移)라
또 한 구(句)가 전해오니 일국(一國) 기능(豈能) 유(有) 경조(慶早)냐
구원난가(九原難可) 설유원(說留寃)을 그 뒤 얼마 아니되어
부자(父子) 함께 주살(誅殺)되다 찬란한 고려(高麗) 문화(文化)
말하거든 들어 보소 행정제도(行政制度) 먼저 들면
문하성(門下省)640이 제일(第一)이여 그 다음엔 상서성(尙書省)641이
이병(二兵) 호(戶)와 형례(刑例)642 공(工)의 육부상서(六部尙書) 나눠 있고
삼사성(三司省)643을 둔 연후(然後)에 재정(財政)을 맡아보고
밀직원(密直院)과 어사대(御史臺)644는 모든 행정(行政) 감독하고
양광도(楊廣道)645와 경상도(慶尙道)와 전라도(全羅道)와 교주도(交州道)646와
서해도(西海道)등 오도(五道)두어 도호사(都護使)를 둔 연후(然後)에
이병(二兵) 마사(馬使) 삼경(三京) 유수(留守) 팔목(八牧)647과 십오부(十五部)
일백(一百) 이십오(二十九) 군(軍)이오 삼백(三百) 십삼오(十三五) 현(縣)이며
이십구진(二十九陳) 둔 연후에 일국(一國)을 행정(行政)하고
종교(宗敎)로 이를진댄 불교(佛敎)가 으뜸으로
보조(普照)648 대각(大覺)649 태점(太点)이며 나옹(懶翁)650같은 명승(名僧)나고
유교(儒敎)로 이를진댄 최충(崔沖)과 안문성(安文成) 공(公)
이색(李穡)과 이제현(李齊賢)과 정몽주(鄭夢周) 이숭인(李崇仁)651과
길재(吉再)652가 제일(第一)이오 김부식(金富軾) 정지상(鄭知常)등
문장가(文章家)도 나섰으며 김수(金銖)의 명리학(明理學)과
김천택(金天澤)의 천문학(天文學)과 일연(一然)653의 삼국유사(三國遺事)654
이제현(李齊賢)의 금경록과 우탁(禹倬)655의 역학(易學)이며
이령(李寧)의 그림이며 유공권(柳公權)656의 글씨이며
대장경(大藏經)의 각판(刻板)이며 도자기의 기술이며
백락보의 수차(水車)발명 농업(農業)에 유편(有便)했고
문익점(文益漸)657의 목화(木花) 종자(種子) 중국(中國)으로 사신(使臣)가서
교지(交趾) 땅에 명씨 얻어 장인(丈人)되는 정천익(鄭天益)658에
삼년(三年) 동안 재배(栽培)하야 일국(一國)으로 퍼졌으니
이율곡(李栗谷)659이 찬사(讚辭)하되 신농(神農)660은 교민경(敎民耕)661하고
후직(后稷)662은 교민가(敎民稼)663라 충선(忠宣)은 교민의(敎民衣)하니

풍공(豊功)664이 배전석(倍前昔)이라 고려(高麗) 조정(朝廷) 실정(失政)하야
창왕(昌王)665을 패(敗)한 후(後)에 공양왕(恭讓王)666을 뫼셔 오니
이 때 부터 이성계(李成桂)는 대지(大地)를 품에 품고
명산대찰(名山大刹)667 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람도 얻었구나 백두산(白頭山)에 올라가서
웅도(雄圖)668를 그려내니 반갈인등상벽봉(攀葛引藤上碧峯669)하니
소암기재백운중(小庵奇在白雲中)670이라 약장안계위오토(若將眼界爲吾土)671면
초월강남기불용(楚越江南豈不容)672가 조준(趙浚)673을 비롯하여
여러 제신(諸臣) 모사(謀士)들과 표리상응(表裏相應) 밀모(密謀)하야
조민수(曺敏修)와 이목은(李牧隱)674은 원지(遠地)로 귀양가고
우왕(禑王)을 모복(謀復)하든 김저(金佇)675와 정득후도
변안렬(邊安烈)676과 한 가지로 변지에서 주살(誅殺)하고
명(明)나라에 호소하든 윤이(尹伊)와 이초(李初)이며
정지677와 우현보(禹玄寶)678와 이숭인(李崇仁)과 이종학은
모두 이때 정배(定配)679가고 김종연(金宗衍)680과 조유 등은
이성계(李成桂)를 제외(制外)타가 도로 잡혀 해(害)를 보고
문하시중(門下侍中)681 정몽주(鄭夢周)는 고려(高麗) 사직(司直) 근심하야
이성계(李成桂)를 논척(論斥)하더니 아들 되는 이방원(李芳遠)682이
선죽교(善竹橋)683 다리 위에 포은(圃隱) 선생(先生) 불러내여
들으면 벼슬주고 안 들으면 죽이기로
글 한 구(句)를 읊으면서 백방(百方)으로 달랬으나
일월(日月)같이 빛난 충성(忠誠) 태산(泰山)같이 굳게 앉아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一百番_ 고쳐죽어
백골(白骨)이 진토(塵土)되여 넋이 라도 있고 없고
님 향(向)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조영규(趙英珪)684의 철퇴(鐵槌)맞아 포은(圃隱) 선생(先生) 운명(殞命)하니
선죽교(善竹橋) 다리 위에 피 흔적이 남아있어
풍마우세(風磨雨洗)685 육백년(六百年)에 지금까지 완연(完然)하다
아마도 선생(先生) 충절(忠節) 일월(日月)로 쟁광(爭光)686했네
그 뒤 누가 만사(輓詞)지어 선생(先生) 충혼(忠魂) 위로하니
선죽교(善竹橋) 변(邊) 혈(血)은 인비아불비(人悲我不悲)687라
고신망국(孤臣亡國)688 후(後)에 불사갱하위(不死更何爲)689오
숙종대왕(肅宗大王) 지은 글도 일신(一身)은 경사우(輕似羽)요
대절(大節)은 중여산(重如山)이라 영조대왕(英祖大王) 지은 글도
도덕정충(道德貞忠) 긍만고(亘萬古)690는 태산고절(泰山高節)691 포은공(圃隱公)을
고종황제(高宗皇帝) 지은 글도 위충대절(危忠大節)이 광우주(廣宇宙)하니
오도동방(吾道東方)에 뢰유공(賴有公)을 이렇듯이 찬사(讚辭)했네
포은(圃隱) 선생(先生) 죽은 소문 이성계(李成桂)가 들은 후(後)에

아들 방원(芳遠) 대질(對質)하되 너희들이 임의대로
대신(大臣)을 천살(賤殺)하니 오가(吾家)692 대대(代代) 충효(忠孝)로써
너희들이 더럽힌다 부득이라 이성계(李成桂)는
황희석(黃希碩)을 명송(命送)하야 후이 장사(葬事) 하였구나
이성계(李成桂) 당(党) 불충(不忠)함을 김진양(金震陽)693이 논척(論斥)하되
정도전(鄭道傳)694을 두고 보면 천지(天地)에서 기신(起身)하여
벼슬이 일품(一品)이되 천(賤)한 뿌리 감춰가며
본 임금을 제거하고 처비지죄(妻斐之罪) 자아내고
조준(趙浚)을 이를진대 변란(變亂)695을 상선(相煽)696하야
매롱(賣弄)697 권세(權勢) 하여있고 남언(南閒) 남재(南在)698 두고 보면
좌우(左右) 나래 된 연후(然後)에 정도전(鄭道傳)과 동심(同心)이오
윤소종(尹紹宗)699과 조박(趙璞)700 등은 조언(造言) 창화(唱和) 하여가며
죄망(罪網)을 광장(廣張)하여 되고 말고 처형(處刑)하매
백성(百姓)들은 유혹(誘惑)하야 원성(怨聲)이 포만(飽滿)하니
원컨대 살피시와 엄형(嚴刑) 처벌(處罰) 하옵소서
이와 같이 직간(直諫)타가 김진양(金震陽)은 태일백(笞一百)701에
천리(千里) 원정(遠程) 귀양갔네 만조(滿朝)702의 제신(諸臣)들이
이성계(李成桂) 당 뿐으로써 공양왕(恭讓王) 삼년(三年)되는
임신(壬申) 칠월(七月) 십이일(十二日)에 공양왕(恭讓王)을 폐(廢)하여서
원주(原州)로 방축(放逐)703하고 십육일(十六日)에 등극(登極)하니
고려(高麗) 사백(四百) 칠십오년(七十五年) 이날로써 망(亡)했구나
이때 기원 언제런고 삼천이백(三千二百) 칠십오년(七十五年)
칠십이현(七十二賢)704 충신(忠臣)들은 두문동(杜門洞)705에 들어가고
천도(天道)를 어찌하리 이씨(李氏) 조선(朝鮮) 되었도다
구홍(具鴻)706의 거동(擧動)보소 좌의정(左議政)707 제수(除授)708터니
표풍(飄風)이 일어나서 세 번이나 꺾어지여
고려(高麗) 시중(侍中) 고쳐 쓰니 명정(銘旌)709이 안여했네
밀양인(密陽人)의 박강생(朴剛生)은 호조전서(戶曹典書)710 내리어도
받지 않고 죽었으며 형조판서(刑曹判書)711 김자수(金自粹)712도
나라위해 순절(殉節)713하고 사신(使臣)갔던 김수(金漱) 선생(先生)
압록강(鴨綠江)에 도착하자 혁신(革新) 소문(所聞) 얼핏듣고
명(明)나라로 다시 가서 예부(禮部)714상서(尙書) 주었으되
받지 않고 죽었으며 이소양(李昭陽)715은 어떠하든고
태종(太宗)716이 찾아가서 추우반청인반취(秋雨半晴人半醉)717라하니
이소양(李昭陽)이 화답(和答)하되 모운초권월초생(暮雲初捲月初生)718이라
이렇듯이 지은 뒤에 은거(隱居)하야 불출(不出)하고
최양(崔瀁)도 전주(全州)에서 태조대왕(太祖大王) 만나보고
석일(昔日) 친구 그양대로 불칭신(不秤臣) 하였으며

태조(太祖) 서형(庶兄)719 이원계(李元桂)720는 태조(太祖) 창업(創業) 불쾌하여
음약(飮藥) 자살(自殺) 하였으며 길야은(吉冶隱)721은 어디갔나
금오(金烏)산성(山城) 깊이 숨어 수절(守節)하여 돌아가니
이보흠(李甫欽)722의 제문(祭文)723에도 주무왕(周武王)724 의거(義擧)함에
이재채마(夷齋採麻) 수양(首陽)하고 한광무제(漢光武帝)725 중흥(中興)할 제
자릉수조(子陵垂釣) 부춘(富春)이라 태조(太祖) 친구 원천석(元天錫)726도
고금(古今) 요우(僚友)727 신시변(身是変)하니 천지강산(天地江山) 시고인(是故人)이라
글 한 구(句)를 지은 뒤에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고
조견(趙狷)728도 청계산(淸溪山)서 태조대왕(太祖大王) 벼슬주어
개국공신(開國功臣)729 평성군(平城君)에 평간공(平簡公)을 제수(除授)하나
받지 않고 수절(守節)하고 사후(死後)에 이조(李朝) 벼슬
비표(碑表)에 그냥 쓰니 그날 밤 뇌격(雷擊)으로
그 비석(碑石)을 깨트리고 고려(高麗) 유신(儒臣) 넉자(字)만이
또렷하게 남았으니 놀라운 그 충절(忠節)을
하늘도 유심(有心)하다 도응(都膺)730도 찬성(贊成)으로
오징불기(五徵不起)731 하온 고로 태조(太祖)대왕(大王) 찬양(讚揚)하야
청송당(靑松堂)을 사액(賜額)732하고 글 지어 붙였으되
애간청송절(愛看靑松節)하니 탁간수이마(卓幹手以摩)라
한간천인상(寒岡千仞上)에 상설부증마(霜雪不曾磨)라
이렇듯이 찬사(讚辭)하고 그 외에도 많은 충신(忠臣)
천(千)도 되고 만(萬)도 되니 다 어이 기록(記錄)하리
권근(權近)733은 어찌하야 절개(節槪)를 굶인 후(後)에
태종(太宗)과 사돈지내 계룡산송(鷄龍山頌) 지어 바쳐
대제학(大提學)734이 되었더라 이태조(李太祖)는 창업(創業) 후(後)로
충신(忠臣) 열사(烈士) 애기면서 만단으로 달래봐서
안 들으면 그만이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아
이 것 두고 볼작시면 이태조(李太祖)가 영걸(英傑)735이라
을해(乙亥) 시월(十月) 십일일(十一日)에 영흥군(永興郡)736에 탄생(誕生)하사
구습(舊習)737을 일소(一掃)738하고 혁신(革新)을 주창(主唱)하여
무관(武官)을 억제하고 문관(文官)을 들여쓴다
불교(佛敎)를 배척(排斥)하고 유교(儒敎)를 숭상(崇尙)하다
창업(創業)한지 이년(二年)되어 조선(朝鮮)이라 국호(國號)고쳐
정도전(鄭道傳)과 하륜(河崙)739이와 무학대사(無學大師)740 분부하사
한양(漢陽)으로 왕도(王都)741정해 도성(都城)을 쌓은 후(後)에
동서남북(東西南北) 사대문(四大門)을 인의예지(仁義禮智) 네 글자로
문(門) 이름을 지으니라 중국(中國) 궁궐(宮闕) 모양(模樣)떠서
경복궁(景福宮)742을 지었으니 십삼여만(十三餘萬) 건평(建坪)743에다
주위 일천팔백(一千八百)보(步)라 광화문(光化門)744이 남문(南門)이오

건춘문(建春文)745이 동문(東門)이오 영추문(迎秋門)746이 서문(西門)이오
신무문(神武門)747이 북문(北門)이라 오십여(五十餘)의 누각(樓閣) 건물(建物)
그 옆에 지었으니 근정전(勤政殿)748은 어떠한고
경복궁(景福宮)의 정전(政殿)749으로 백관(百官)이 나열(羅列)하여
조하(朝賀)받는 곳이로다 사정전(思政殿)750은 어떠한고
군왕(群王)의 편전(便殿)751으로 정치(政治) 사무(事務) 보는데요
천추전(千秋殿)과 만추전(萬秋殿)은 군신상하(君臣上下) 모여앉아
문학(文學) 강론(講論) 하는데라 세종대왕(世宗大王) 이 궁전(宮殿)서
훈민정음(訓民正音)752 반포하다 수정전(水晶殿)은 무엇했나
왕가(王家) 도서(圖書) 감춘데요 경회루(慶會樓)753는 멀 한 데냐
외국(外國) 사신(使臣) 접대소(接待所)라 경회루(慶會樓)의 설계(設計)보면
우주(宇宙) 형용(形容) 그렸으니 연지(蓮池)754의 둥근 것은
천원(天円)을 의미(意味)하고 누대(樓臺)의 모진 것은
지방(地方)을 표현하고 지중(池中)의 두 개 섬은
태극(太極)을 상징(象徵)하고 삼십육(三十六)의 그 간(間)수는
삼십육궁(三十六弓)755 해당된다 창덕궁(昌德宮)756은 동궐(東闕)이오
영칙궁(令勅宮) 만수궁(萬壽宮)은 치려(侈麗)757하고 웅장(雄壯)하다
덕수궁(德壽宮)758 새 대궐(大闕)로 황홀(恍惚)하고 쟁쇄하다
흥인각(興仁閣) 청련각(靑蓮閣)은 능란(能爛)하고 명랑하다
춘당대(春塘臺)759 경무대(景武臺)는 과거보는 곳이로다
선정전(宣政殿)760도 유명(有名)하다 공신(功臣)들의 사연처(私宴處)며
수강궁(壽康宮)761은 어디있나 창경원(昌慶苑)762이 여기로다
이렇듯이 많은 건물(建物) 태조(太祖)대왕(大王) 거처(居處)하고
태조(太祖) 삼년(三年) 십일월(十一月)에 종묘(宗廟)를 지은 뒤에
성균관(成均館)763도 건립(建立)하여 청년(靑年) 재자(才子)764 공부하며
승무(昇廡) 유현(儒賢) 모신 데라 과거법을 시행하여
문무(文武) 인재(人才) 뽑아내고 배극렴(裵克廉)765등 삼십구(三十九)인(人)
개국공신(開國功臣) 정록(定錄)하고 김사형(金士衡)766을 명(命)하여서
대마도(對馬島)를 정복하고 통두란(佟豆蘭)을 보내어서
동여진(東女眞)을 구축(驅逐)하고 후환(後患)을 두려워하여
왕씨(王氏) 일족(一族) 전멸(全滅)하니 이것이 사실인가
정도전(鄭道傳)을 시키어서 국가(國家) 제도(制度) 만드시니
동서양반(東西兩班) 만들어서 동반(東班)767은 문반(文班)이오
서반(西班)은 무반(武班)이라 문반(文班)으로 최고에는
의정부(議政府)768가 있었으니 영의정(領議政)769이 으뜸되며
좌우의정(左右議政)770 둔 연후(然後)에 이조(吏曹)771 호조(戶曹)772 예조(禮曹)773 병조(兵曹)774
형조(刑曹)775 공조(工曹)776 육조(六曹)두어 각조(各曹)마다 판서(判書)두고
종친부(宗親府)777와 충훈부(忠勳府)778와 의빈부(儀賓府)779를 둔 연후(然後)에

돈녕부(敦寧府)와 의금부(義禁府)780에 영사(領事) 판사(判事) 각각(各各)두고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781과 입법(立法)행정(行政) 하였으며
충익부(忠翊府)782에 도사(都事)두고 장예원(掌隷院)의 판결사(判決事)며
왕명(王命)을 중계(中繼)하는 승정원(承政院)783도 있었으며
홍문관(弘文館)784 예문관(藝文館)785엔 대제학(大提學)을 각기두어
문교(文敎) 사업(事業) 도와주며 경연원(經筵院)786에 영사(領事)두고
춘추관(春秋館)787에 영사(領事) 감사(監事) 수찬(修撰)788 편수관(編修官)을두어
역사(歷史) 편찬(編纂) 하였으며 세자(世子) 시강(侍講)789 원을두어
사부(師傅) 빈객(賓客) 보덕(報德)으로 세자(世子) 교육(敎育) 힘을 쓰고
문관(文官) 외직(外職) 이를테면 각도(各道)에 관찰사(觀察使)요
광주(光州) 경주(慶州) 전주(全州) 평양(平壤) 의주(義州) 등 오부(五府)에다
부윤(府尹)790 각기두고 십이목(十二牧)에 목사(牧使)두고
도호부(都護府)에 부사(府使)두고 군수(郡守) 현령(縣令) 현감(縣監)두고
개성(開城) 강화(江華) 수원(水原)에는 유수(留守)를 둔 연후(然後)에
지방행정(地方行政) 하였으며 팔도(八道)에다 도사(都事)두어
향시(鄕試)791 과거(科擧) 관장(管掌)하고 무반(武班)의 최고에는
중추부(中樞府)792가 있었으되 영사(領事) 판사(判事) 지사(知事)두고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793가 있어 도총관(都摠管)을 둔 연후(然後)에
의흥(義興) 용양(龍驤) 호비위(虎賁衛)와 충좌(忠佐) 충무(忠武) 오위(五衛)794에다
각위(各衛)에 장(將)을 두고 상호군(上護軍)795 대호군(大護軍)796과
부호군(副護軍)797을 각각(各各)두고 그 외에도 내금위(內禁衛)798와
세자(世子) 익위(翊衛)799 사(司)가있고 훈련원(訓練院)을 설치(設置)하여
병사(兵士) 훈련(訓練) 주관하고 무반(武班)외직(外職) 이를테면
병영(兵營)800과 수영(水營)801두어 사병(私兵)을 임면(任免)802하여
국군(國軍)을 통솔(統率)하고 각도(各道)에 통솔자(統率者)로
병마(兵馬)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803와 절제사(節制使)804를 둔 연후(然後)에
연해(沿海)805의 요새지(要塞地)엔 첨사(僉使)806와 우후(虞侯)807이며
수군(水軍) 만호(萬戶) 각각(各各) 두어 일국(一國)을 방위(方位)하다
태조(太祖)대왕(大王) 칠년(七年)에는 끝에 아들 강씨(姜氏) 소생(所生)
방석(芳碩)808을 총애(寵愛)하매 남은(南誾)809과 정도전(鄭道傳)은
방석(芳碩)을 도와가며 왕위(王位) 계승(繼承) 수작하니
건국(建國) 원훈(元勳)810 태종(太宗) 대왕(大王) 크게 불평 품으시고
하륜(河崙)들과 단합(團合)하여 궐문(闕門)밖에 난(亂)을 지어
방석(芳碩) 방번(芳蕃)811 죽인 후(後)에 정도전(鄭道傳)을 주살(誅殺)하고
그의 당을 전멸(全滅)하니 왕자(王子) 둘을 죽인 것과
개국(開國) 원훈(元勳) 죽인 것을 태조(太祖) 대왕(大王) 분(忿)을 내어
함흥(咸興)으로 내려가서 한양(漢陽)소식 전패하니
태종(太宗) 대왕(大王) 걱정하사 아버지를 뫼셔오기

사신(使臣)을 보냈으되 태조(太祖) 대왕(大王) 분(忿)풀이로
오는 대로 목을 베어 박사암도 죽었으며
이원태도 죽였구나 원통(寃痛)하다 박사암은
함흥(咸興)가서 돌아올 제 제신(諸臣)들이 태조(太祖)에게
죽이기로 간청(懇請)함에 이태조(李太祖)의 내념(內念)812으로
강(江)은 이미 건넜으리 강 건너면 그만두고
대동강(大同江) 이쪽이면 죽이기로 허락(許諾)하니
박사암은 소관(小官)으로 중로(中路)에서 머물다가
대동강(大同江)의 배를 타자 선전관(宣傳官)813이 도착한다
지체하지 않았던들 목숨이나 살아났지
반재강산반재선(半在江山半在船)은 이때의 글이로다
그 뒤에 태조(太祖) 대왕(大王) 놀라시고 아까워서
사암공의 화상(畵像)그려 두고 두고 생각(生角)하네
그 뒤에 성석인(成石因)814이 자원(自願)하고 일어서며
함흥(咸興)으로 신(臣)이가서 태조(太祖) 대왕(大王) 뫼시리다
태종(太宗) 대왕(大王) 허지(許志)하야 사신(使臣)으로 명송(命送)할제
좋은 말 다 버리고 새끼따른 피마(馬)815 한 필
안장(鞍裝)지어 타고 가니 행재소(行在所)816가 여기로다
성석인(成石因)의 거동(擧動)보소 과객(過客)처럼 지나가니
태조(太祖) 대왕(大王) 망견(望見)하고 손을 잡고 영접(迎接)한다
부자불목(父子不睦)817 나를 찾아 천리(千里) 원정 어이 왔소
성석인(成石因)은 종용(慫慂)하게 창업(創業)부터 의논(議論)하되
군신지의(君臣之義)818 그 교분(交分)과 인륜지도(人倫之道)819 개진하니
태조(太祖)대왕(大王) 들으시고 너의 임금 완협이라
나의 마음 돌림이지 크게 분(忿)을 내실 적에
성석인(成石因) 위급(危急)하야 신(臣)이 과연 그럴진댄
맏 자식(子息)은 봉사820되고 다음 자식 무자(無子)821하리
여차(如此) 등절 말할 때에 문 밖에 매인 말이
슬프게도 우는구나 태조(太祖)대왕(大王) 물으시되
말이 어찌 저리울가 성석인(成石因) 대답(對答)하되
함흥(咸興)으로 내려올 때 새끼 떼고 왔나이다
말은 비록 미물(微物)이되 그 새끼를 생각하여
저렇듯이 우나이다 다시 한 번 통곡(痛哭)하고
대왕(大王)님의 하신 일이 그 모두가 장하거늘
삼년(三年)동안 부자불목(父子不睦) 그 한 가지 원통(寃痛)하오
부자불목(父子不睦) 고사하고 팔도(八道) 창생(蒼生) 불쌍치않소
태종왕(太宗王)은 한양(漢陽)있고 대왕(大王)님은 여기계셔
옥새(玉璽)822없이 등극(登極)하니 그 무슨 재미있소

옛날에 요(堯)임금823은 순(舜)임금824께 전위(傳位)하고
순(舜)님금도 착하시와 우(禹)님금825께 전위(傳位)커든
하물며 대왕(大王)님은 아들에게 전(傳)하시고
창업(創業) 원훈(元勳) 몰라보고 이다지도 노(怒)하시오
피마(馬)는 미물(微物)이되 정분(情分)으로 저리우니
부자유친(父子有親)826 중(重)한 인륜(人倫) 다시 한 번 돌아보소
태조(太祖)대왕(大王) 거동(擧動)보소 이윽고 앉았더니
성석인(成石因)을 돌아보며 감오회천(感悟回天) 하는구나
한양(漢陽) 가는 길 차리니 일국(一國) 내(內)의 경사(慶事)로다
태종(太宗)이하 문무(文武) 제신(諸臣) 무학관(舞鶴館)에 차일(遮日)827치고
백관(百官)828으로 영접(迎接)할제 부자지의(父子之義) 새롭도다
그 뒤에 성석인(成石因)은 태조(太祖)대왕(大王) 속인 죄로
맏 아들은 봉사되고 둘째 아들 무자(無子)했네
무자(戊子) 오월(五月) 이십사일(二十四日) 태조(太祖)대왕(大王) 승하(昇遐)하니
춘추(春秋)가 칠십사(七十四)요 건원릉(健元陵)829에 장사(葬事)하니
태조(太祖)왕후(王后) 뉘시든고 안변(安邊) 한씨(韓氏) 부인(婦人)이오
둘째 왕후(王后) 곡산(谷山) 강씨(剛氏) 아들이 여덟이오
공주(公主)가 다섯이라 정종(定宗)830대왕(大王) 즉위(卽位)하니
그 왕후(王后)는 경주(慶州)김씨(金氏) 정종(定宗)은 순서있게
임금 위에 올랐으나 태종(太宗)의 불평(不評)으로
골육상쟁(骨肉相爭)831 염려되여 태종(太宗)에게 전위(傳位)하니
태종(太宗)대왕(大王) 형님되는 방간(芳幹)832이가 불평하여
태종(太宗) 이년(二年) 정월(正月)달에 박포(朴苞)833와 난(亂)을 지어
태종(太宗)을 제거코자 궐문(闕門) 밖에 싸우더니
박포(朴苞)를 주살(誅殺)하고 방간(芳幹)을 정배(定配)834하니
왕자난(王子亂)835이 평정(平定)되다 정종(定宗)은 상왕위(上王位)에
십구년(十九年) 간(間) 계시다가 육십삼(六十三)에 승하(昇遐)하니
후릉(後陵)에 장사(葬事)하다 아들이 십오(十五) 형제(兄弟)
공주(公主)가 여덟이라 태종(太宗)이 선위(禪位)836받어
천자(天子)가 영매하고 문치(文治)를 주창(主唱)하며
금주령(禁酒令)을 내리여서 탐관오리(貪官汚吏) 숙청(肅淸)하고
신문고(申聞鼓)837를 설치하여 민성(民聲)을 듣게 하고
지화(紙貨)를 발행(發行)하여 부첨(符籤)을 엄금(嚴禁)하며
사학(四學)838을 설치하여 유학(儒學)을 숭상(崇尙)하며
활자(活字)를 주조(鑄造)하여 서적(書籍)을 간행(刊行)하며
여복(女服)을 개량(改良)839하여 지금 같이 만드시니
태종(太宗)대왕(大王) 선치(善治)로써 모든 업적(業績) 남기고서
십팔년(十八年) 간(間) 재위(在位)타가 세종(世宗)에게 전위(傳位)하고

오십육(五十六)에 승하(昇遐)하니 광주(光州)의 헌릉(獻陵)840이오
그 왕후(王后)는 여주민씨(驪州閔氏) 헌릉(獻陵)과 한릉(韓陵)이라
세종대왕(世宗大王) 영걸(英傑)하사 천품(天品)이 인자하고
덕망(德望)이 높으시사 학문(學文)을 장려(奬勵)하니
치화(治化)841가 대진(大振)842하다 황희(黃喜)843같은 어진 정승(政丞)
대정(大政)을 보필(輔弼)하고 박팽년(朴彭年)844 성삼문(成三問)845과
변계량(卞季良)846 같은 문사(文士) 문학(文學)을 연구(硏究)하고
황희(黃喜) 정승(政丞) 어떠한고 시시비비(是是非非) 가리지 않고
원만하기 유명하고 맹사성(孟思誠)847도 현상(賢相)848으로
청백(淸白)하기 유명하다 태평(太平) 성군(聖君) 어진 신하(臣下)
스스로가 선치(善治)되다 세종대왕(世宗大王) 삼년(三年)에는
세종대왕(世宗大王) 삼년(三年)에는 집현전(集賢殿)849을 설치하여
학문(學文)을 강론(講論)하며 오례의(五禮儀)850를 휘찬하고
효행록(孝行錄)851을 개찬(改撰)하며 정초(鄭招)852의 농사집설(農事集設)853
정인지(鄭麟趾)854의 치평요람(治平要覽)855 고려사(高麗史)856가 유명하고
세종(世宗) 이십오년(二十五年)에는 언문국(諺文局)을 설치하여
정인지(鄭麟趾) 신숙주(申叔舟)857며 성삼문(成三問) 최항(崔恒)858등과
사개년(四個年)간(間) 고심(苦心) 끝에 훈민정음(訓民正音) 반포하니
억천(億千) 만세(萬歲) 공업(功業)일세 권제(權制)859의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860
고금(古今) 충효(忠孝) 열을 뽑아 삼강행실(三綱行實)861 집성(集成)되고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등도 이때에 간행(刊行)하고
동정운(東正韻)의 서적(書籍)등도 이때에 만들었네
박연(朴堧)862의 음율(音律)이며 장영실(蔣英實)863의 천문학(天文學)과
측우기(測雨器)864도 주조하니 서양(西洋)에 비교(比較)하야
이백년(二百年)을 앞섯도다 세종대왕(世宗大王) 빛난 업적(業績)
문치(文治)에만 있으리오 문무겸전(文武兼全) 성군(聖君)이라
무공(武功)에도 놀랍도다 세종(世宗) 원년(元年) 기해(己亥) 세에
왜적(倭敵)이 침노함에 이종무(李從茂)865를 대장삼아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하고 십오년(十五年) 사월(四月)에는
최윤덕(崔潤德)866의 체찰사(體察使)867로 야인(野人)을 정벌하고
김종서(金宗瑞)868를 명령(命令)하사 육진(六鎭)을 개척하다
복력(福力)869 좋은 세종대왕(世宗大王) 다들이 십팔(十八) 형제(兄弟)
공주(公主)가 넷이로다 무술년(戊戌年)에 즉위(卽位)하사
경오년(庚午年)에 승하(昇遐)하니 춘추(春秋)가 오십사(五十四)라
여주(驪州)땅 백팔십(百八十) 리(里) 영릉(英陵)870이 그 릉(陵)이라
세종(世宗) 왕후(王后) 청송심씨(靑松沈氏) 영릉(英陵)과 동원이라
문종(文宗)871대왕(大王) 즉위(卽位)하니 세종대왕(世宗大王) 맏자제(子弟)로
천품(天品)이 인자하사 문무(文武)를 숭상(崇尙)하고

문장(文章) 서학(書學) 각(各) 방면(方面)에 친히 연구(硏究) 하셨으나
환후(患候)872가 자로 계서 상수(上壽)873 못할 짐작하고
하루는 침전(寢殿)에서 어린 동궁(東宮)874 앞에 두고
문무(文武) 제신(諸臣) 부른 뒤에 고명(顧命)875이 내리신다
영의정(領議政) 황보인(皇甫仁)876과 좌의정(左議政) 김종서(金宗瑞)며
우의정(右議政) 정분(鄭苯)877이와 병조판서(兵曹判書) 민신(閔伸)878이며
이조판서(吏曹判書) 조극관(趙克寬)879과 집현전(集賢殿) 학사(學士) 중(中)에
박팽년(朴彭年) 성삼문(成三問)과 신숙주(申叔舟)와 하위지(河緯地)880며
이개(李塏)881와 유성원(柳誠源)882과 김시습(金時習)883 허후(許詡) 등과
절제사(節制使) 유응부(兪應孚)884께 문종(文宗)대왕(大王) 하신말씀
내가 죽은 이 뒤라도 어린 동궁(東宮) 위태(危殆)하니
범과 같은 숙부(叔父)들이 주공(周公)885같이 하겠는가
아마도 나 죽은 후(後) 경(卿)들에게 부탁하오
옥침(玉枕)에서 뜻는 눈물 방울 방울 피가 되니
제신(諸臣)들의 거동(擧動)보소 일제히 일어서서
어린 단종(端宗)886 위하여서 몸과 목숨 바치기로
어전(御前)에서 맹서(盟誓)하고 어사주(御賜酒)887를 내리시와
동궁(東宮)으로 붓게하며 군신지의(君臣之義) 맹서(盟誓)한다
임신년(壬申年) 오월(五月)달에 문종(文宗)대왕(大王) 승하(昇遐)하니
팔도(八道)의 창생(蒼生)들은 여상고비(如喪考妃)888 애통(哀痛)하고
재위(在位) 불과(不過) 이년(二年)이오 춘추(春秋) 겨우 삼십구(三十九)라
양주(楊州)땅 삼십리(三十里)에 헌릉(獻陵)이 그 능(陵)이오
왕후(王后)는 안동권씨(安東權氏) 형릉(陵)과 한릉(陵)이라
단종(端宗)대왕(大王) 즉위(卽位)하니 십이세(十二歲)의 어린 임금
부왕(父王)을 생각(生角)하야 옥루(玉淚)가 마르지않아
고명(顧命)받은 제신(諸臣)들은 혈심(血心)으로 임금 섬겨
삼년(三年)을 지내오니 춘추(春秋)가 십오세(十五歲)라
총명(聰明)하고 어질어서 백가시서(百家詩書) 육경(六經)889글을
무불통지 읽으시다 일국(一國)의 군왕(郡王)이되
형(兄)도 없고 아우 없고 현덕왕후(顯德王后)890 그 모친(母親)도
단종(端宗)을 낳으신지 이틀만에 돌아가고
경혜(敬惠)공주(公主) 있으나마 궐내(闕內)출입(出入) 엄금(嚴禁)되니
혈혈단신(孑孑單身)891 단종(端宗)대왕(大王) 누구를 믿을건가
열일곱의 숙부(叔父)믿되 그 중(中)에도 안평대군(安平大君)892
임영대군(臨瀛大君)893 금성대군(錦城大君)894 그 형님을 생각(生角)하고
어린 조카 보좌(補佐)하나 수양대군(首陽大君)895 어찌하야
숙부(叔父) 중(中)에 맏이로서 마음 항상 불칙(不則)하야
문종(文宗)대왕(大王) 승하(昇遐)한 후(後) 조카 자리 탐을 내여

한명회(韓明澮)896 권남(權擥)897이며 정인지(鄭麟趾) 한확(韓確)898등과
밤낮으로 밀모(密謀)하야 생살부(生殺簿)899를 만들어서
선대왕(先代王)의 고명(高名)제신(諸臣) 진살(盡殺)900키로 계획한다
단종(端宗) 이년(二年) 계유(癸酉) 시월(十月) 수양대군(首陽大君) 소행보소
한명회(韓明澮)의 계교(計巧)로써 양정(楊汀)901 유수(柳洙) 역사(力士)902들과
김종서(金宗瑞) 집 찾아가서 철여의(鐵如意)로 타살(打殺)하고
맏아들인 김승규(金承珪)는 평안(平安) 감사(監司) 내려가니
며칠 후(後)에 다 죽이고 영의정(領議政)의 황보인(皇甫仁)도
역률(逆律)903로 덮어씌워 그의 아들 황보석과
원통(寃痛)하게 죽였으며 우의정(右議政)의 정분(鄭苯)이는
낙안(落雁)으로 귀양가서 사약(死藥)으로 죽였으니
백홍(白虹)904이 관일(貫日)905하고 광풍(狂風)이 이러나다
교리(校理)의 이현로(李賢老)도 중로(中路)에서 피살(被殺)되고
단종(端宗) 내구(內舅)906 권자신(權自愼)도 처자동순(妻子同殉)907 하였으며
단종(端宗) 외구(外舅)908 송현수(宋玹壽)며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909이며
민신(閔伸)910과 조극관(趙克寬)911과 김문기(金文起)912 봉석주(奉石柱)913와
이양(李穰)914과 이증옥(李登玉)도 험악한 세조(世祖) 손에
무참(無慘)하게 원사(寃死)했고 기외(其外)에 죽은 인사(人士)
천(千)도 되고 만(萬)도 되니 다 어이 기록(記錄)하리
수양대군(首陽大君) 야심(野心)보소 단종(端宗)께 아뢰기를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가 동지(同志)를 규합(糾合)915하야
역모(逆謀)916를 하옵기로 미처 장계(狀啓)917 못 하옵고
정난(靖難)918하고 왔나이다 단종(端宗)대왕(大王) 놀라시고
역모(逆謀)를 하였다니 삼상(三相)과 육조(六曹)들이
역모(逆謀)에 들단말가 모역(謀逆)했단 신하(臣下)보면
고명신(顧命臣)이 태반(太半)인대 단종(端宗)대왕(大王) 분개(憤慨)하나
구중궁궐(九重宮闕) 같인 몸이 마음 속엔 의심되나
세조(世祖)에 억눌리어 할 수 없이 윤허(允許)919했네
수양(首陽)은 득세(得勢)하며 반대당(反對黨)을 다 죽인 후(後)
군국대권(軍國大權)920 손에 쥐고 일국(一國)을 호령하니
어느 누가 반대(反對)하리 외로워라 단종(端宗)대왕(大王)
정인지(鄭麟趾)의 흉물(凶物)보소 단종(端宗)대왕(大王) 어전(御前)에서
양위(讓位)하라 강권(强勸)하니 임금 밑에 신하(臣下)되고
이른 법(法)이 어디있나 단종(端宗)대왕(大王) 분(忿)하시와
땅을 치며 통곡(慟哭)하나 수양대군(首陽大君) 옆에 있어
강약(强弱)이 부동(不同)이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양위(讓位)함을 강권(强勸)함에 할 수 없는 사정으로
재위(在位)한지 삼년(三年)되어 윤 유월(六月) 십일(十一)일(日)에

눈물짓고 허락(許諾)하야 수양(首陽)에게 전위(傳位)하고
수강궁(壽康宮)에 나와 앉아 문종(文宗)대왕(大王) 사모(思慕)한다
양위(讓位)받은 세조(世祖)대왕(大王) 삼상육조(三相六曹) 개편하니
영의정(領議政)엔 정인지(鄭麟趾)요 좌의정(左議政)엔 한확(韓確)이오
우의정(右議政)엔 이(李)사철이 한명회(韓明澮)는 이조판서(吏曹判書)
신숙주(申叔舟)는 대제학(大提學)에 자당(自黨)의 내각(內閣)으로
국민(國民)은 불평(不評)이오 충신(忠臣) 열사(烈士) 분개(分慨)하니
만 조정(朝廷)엔 간신(奸臣)이라 억울하다 단종(端宗)대왕(大王)
간신(奸臣)들의 요청으로 영월(寧越) 땅에 손위(遜位)921하니
청령포(淸泠浦)922 절벽(絶壁)에다 위리안치(圍籬安置)923 시켰구나
단종(端宗)대왕(大王) 지은 글에 영수(泠水)는 참천노(參天怒)한데
계류(溪流)는 득석흰(得石咽)이라 산심(山深) 다호표(多虎豹)하니
불석(不夕) 엄시관(掩柴關)이라 이와 같이 지었으니
첩첩산중(疊疊山中) 분명(分明)하다 대왕(大王) 이름 간 곳 없고
노산군(魯山君)924을 강봉(降封)하니 태종(太宗) 장남 양녕대군(讓寧大君)925
양광(佯狂)926으로 자처(自處)하야 팔도강산(八道江山) 방황(彷徨)터니
단종(端宗) 소문 분(忿)히 듣고 백관(百官) 종친(宗親) 거느리고
상소(上疏)하야 이르기를 간흉지변(奸凶之変)927 일어나서
노산(魯山)이 예언(預言)이라 단이대의(斷以大義) 베푸시와
명정전형(明正典刑) 하옵소서 이와 같이 하였으며
허후(許詡)도 직신(直臣)928으로 정인지(鄭麟趾)를 논척(論斥)929하되
간신(奸臣)의 정인지(鄭麟趾)는 시세(時勢)에 아부(阿附)하야
삼재상(三宰相)을 모살(謀殺)하니 기죄(其罪)930를 가살(可殺)이오
종친(宗親)을 모함(謀陷)하야 무죄(無罪)한 대군(大君)들을
모역(謀逆)으로 죄(罪) 만드니 기죄(其罪)또한 가살(可殺)이오
단종(端宗)의 어전(御前)에서 한확(韓確)이와 이어가며
양위(讓位)를 강권(强勸)하니 기죄(其罪) 또한 가살(可殺)이라
영의정(領議政)의 정인지(鄭麟趾)를 삭탈관직(削奪官職)931 하온 후(後)에
금부(禁府)932에다 가두어서 만인간(滿人間)에 징계(懲戒)하소
이와 같이 상소(上疏)타가 귀양가서 사사(賜死)했네
죽고 남은 고명(高名) 제신(諸臣) 팔송정(八松亭)에 모여 앉아
단종(端宗) 복위(復位) 꾀할 적에 명(明) 사신(使臣)을 접대(接待)하는
운검회(雲釰會)를 이용하여 성승(成勝)933과 유응부(兪應孚)가
세조(世祖)를 버힌 후(後)에 간신(奸臣)들을 진살(盡殺)코자
여차 여차 계획터니 간사(奸邪)한 김질(金礩)934이가
한 가지로 꾀하더니 세조(世祖)에게 밀고(密告)하야
사실이 탄로되여 험악(險惡)한 세조(世祖)앞에
육신(六臣)들이 잡혀가서 엄형(嚴刑) 득벌(得罰) 당하는 구나

박팽년(朴彭年)의 거동(擧動)보소 맨처 음에 잡혀갈제
단종(端宗)대왕(大王) 선위(禪位)935시에 경회루(慶會樓) 연못가에
수사(水死)936코자 도모함을 무익(無益)한 죽음이라
성삼문(成三問)의 만류(挽留)로써 지금까지 살았는대
죽기로써 겁을 내리 세조(世祖)대왕(大王) 하는 말이
선비를 아끼면서 그대 재주 아까워라
부디 한번 항복(降伏)하면 좋은 벼슬 줄 것이니
부모님도 생각(生角)하고 처자(妻子)도 돌봐야지
박팽년(朴彭年) 하는 말이 수양대군(首陽大君) 하는 일은
매사(每事)가 불충(不忠)하오 더러운 나으리엔
칭신(稱臣)937함이 부당(不當)하며 우리 임금 내치시니
우리 임금 쫓아가서 지하(地下)에서 섬기리다
세조(世祖)대왕(大王) 분(忿)을 내여 소부쇠 불에 달궈
전신(全身)을 담금938하니 박팽년(朴彭年)의 하는 말이
오히려 이 쇠 차니 다시 달궈 가져오라
세조(世祖)대왕(大王) 하는 말이 종묘(宗廟) 제사(祭祀) 그 날 밤에
너 독한 줄 내알았다 박팽년(朴彭年) 하는 말이
향로(香爐) 쇠 달군 것이 너 짓인 줄 내알았다
손톱 밑에 기름냄음 너 보라고 그리했다
박팽년(朴彭年) 가족(家族) 잡아 일시(一時)에 다 죽이니
육부자(六父子) 손자(孫子) 셋이 여덟 사람 죽었구나
박팽년(朴彭年) 둘째 자부(子婦)939 대구(大邱) 관비(官婢) 내려갈제
임신 중(中)에 있었으니 아들만 낳게 되면
죽이기로 명령(命令)더니 종의 어미 얼른 듣고
제 자식(子息)을 대신(代身)하여 상전(上典) 뒤를 이어내니
장할시고 이런 종은 만고(萬古) 충비(忠婢)940 이 아닌가
성삼문(成三問) 잡아들어 화형(火刑)941으로 다스릴제
성삼문(成三問) 대노(大怒)하야 세조(世祖)에게 항언(抗言)942하되
무도(無道)하다 수양대군(首陽大君) 너 욕심만 생각(生角)하고
우리 임금 쫓아내고 형(兄)의 뒤를 어이 끊노
후복(後福)이 장원(長遠)하랴 신숙주(申叔舟)를 돌아보며
네 이놈 신숙주(申叔舟)야 너와 나와 집현전(集賢殿)의
학사(學士)로 있을 때에 영릉(英陵)943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라 하시었지 원손(原孫)을 안으시고
이 아이 수호(守護)함은 경(卿) 등(等)에게 부탁하오
이런 말씀 계신 일이 아직 귀에 들리는 듯
너 혼자만 잊었구나 너는 성주(聖主) 보좌(補佐)하야
태평성대(太平聖代) 잘 살어라 나는 지하(地下) 돌아가서

선대왕(先代王)을 뫼시리라 세조(世祖)를 또 돌아보며
더러운 너의 녹(錄)을 먹지 않고 두었으니
다시 도로 가져가서 신숙주(申叔舟)를 많이 주라
세조(世祖)대왕(大王) 분(忿)을 내어 형관(刑官)을 재촉하야
화저(火箸)944로써 배꼽 찔러 찔은 구멍에 피가 나니
유혈(流血)이 낭자(狼藉)하다 성삼문(成三問) 태연하게
절명시(絶命詩)945를 지어내니 격고최인명(擊鼓催人命)946하니
서풍(西風)에 일욕사(日欲斜)947라 황혼(黃昏)에 무객점(無客店)948하니
금야(今夜)에 숙수가(宿誰家)949오 이렇듯이 지은 후(後)에
참혹(慘酷)하게 죽었구나 그의 부친(父親) 성승(成勝)이와
아우 셋 아들 일곱 성삼문(成三問) 한 집안에
열 두 사람 죽였구나 하위지(河緯地) 잡아들어
말밤쇠를 깔아두고 버선 벗고 들어오라
하위지(河緯地) 거동(擧動)보소 두 버선을 활활 벗고
발을 번쩍 높이 들어 모래같이 밟아오니
말밤쇠에 발이 찔려 발등을 뚫고 올라
찔린 구멍에 피가 흘러 자욱 자욱 뜯는구나
하위지(河緯地) 들어서며 형장(刑場)에 피를 보고
앙천통곡(仰天痛哭)950 탄식(歎息)하되 충신(忠臣)들의 피로구나
세조(世祖)대왕(大王) 거동(擧動)보소 지성(至誠)951으로 달래보나
앙천대소(仰天大笑)952 하는 말이 충신(忠臣)을 욕보임도
그 죄(罪)가 안 적으니 듣기도 나는 싫고
보기도 나는 싫다 사속(斯速)953히 죽여다오
세조(世祖)대왕(大王) 분(忿)을 내여 아우 셋과 아들 둘을
세조(世祖) 앞에 박살(搏殺)하다 이개(李塏)를 불러들어
나는 너의 고인(故人)이라 지난 일을 생각(生角)하야
부디 나를 섬겨다오 이개(李塏)의 거동(擧動)보소
대답(對答) 한 번 아니하고 우정중시생역대(禹鼎重時生亦大)954오
홍모경처사유경(鴻毛輕處死猶輕)955이란 시(詩) 한 수(首)를 지은 후(後)에
종제(從弟)956되는 이유기(李楡基)와 종용하게 죽었으며
이자일손(二子一孫) 따라 죽다 유성원(柳誠源)도 장할시고
충신(忠臣) 죽은 소문듯고 가묘(家廟)에 들어가서
인도(引刀)하야 자살(自殺)하니 아들 둘이 잡혀가서
세조(世祖) 앞에 죽었구나 유응부(兪應孚)는 무인(武人)으로
운검(雲劒)을 패할 적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세조(世祖)를 박살코자 결심(決心)하는 장사(壯士)로다
세조(世祖) 앞에 잡혀가서 성삼문(成三問)을 돌아보며
서생(書生)957은 불가여모(不可與謀) 분(賁)하기가 그지없다

세조(世祖)의 독한 솜씨 가죽을 벗기도다
유응부(兪應孚) 꼿꼿하게 한 자리에 서 있으며
상(象) 한 번 찡그리지 않고 태연하게 죽었으니
천추(千秋)에 빛난 충혼(忠魂) 숙종(肅宗)958때 내려와서
노량진(鷺梁津)959에 거동(擧動)타가 육신(六臣)들의 무덤보고
황량(荒凉)함을 금치 못해 충신(忠臣)무덤 일크르고
신원(伸寃)960을 시킨 후(後)에 사론(史論)에 하였으되
숙불위사(孰不爲死)리오만은 대재(大哉)라 육신지위사(六臣之爲死)여
숙불위신(孰不爲臣)이리오만은 대재(大哉)라 육신지위신(六臣之爲臣)이여
생이애군(生而愛君)하야 진어신자도(盡於臣之道)하야
사이충군(死而忠君)하야 입어신지절(立於臣之節)하니
충분(忠憤)은 관호일월(貫乎日月)하고 의기(義氣)는 백호추상(百乎秋霜)이라
사백세(使百世) 인민자(人民者)로 일심사군지의(一心思君之意)하노니
천금일모(千金一毛)이며 성인취의(成仁取義)961니라
이렇듯시 하여있어 사육신(死六臣)962의 충혼(忠魂) 장백(壯魄)963
천추(千秋) 만대(萬代) 빛나도다 죽은 충신(忠臣) 여섯이오
산 신하(臣下) 여섯이라 생육신(生六臣)964 사육신(死六臣)은
이때에 나섰도다 생육신(生六臣)은 누구든고
조여(趙旅)965와 김시습(金時習)과 남효온(南孝溫)966과 이맹전(李孟專)967과
성담수(成聃壽)968와 원호(元昊)969로다 김시습(金時習)은 중이 되어
무량사(無量寺)에 거처(居處)하여 속세(俗世)와 영격(永隔)하고
조여(趙旅)970는 어디갔나 정암(昇岩) 강상(江上) 숨어있어
채기미의 본(本)을 받어 절개를 남겨있고
남효온(南孝溫)은 어이됐나 단종(端宗) 복위(復位) 상소(上疏)한 후(後)
연산주(燕山主)971때 이르러서 화급천양(禍及天壤)972 하여있고
이맹전(李孟專)은 선산(先山)에서 두문불출(杜門不出) 삼십년(三十年)에
구십(九十)에 작고(作故)973하고 성담수(成聃壽)는 어이됐나
전주(全州)에서 은거(隱居)하여 불러도 피해가고
원호(元昊)는 영월(寧越)가서 단종(端宗)대왕(大王) 승하(昇遐)한 후(後)
복상(服喪)974 삼년(三年) 하였다네 영조(英祖)때 내려와서
육신(六臣) 사기(史記) 보시다가 칭찬하여 하는 말이
이런 충신(忠臣) 신원(伸寃)하라 그 뒤에 자손(子孫)찾아
후이 벼슬 제수(除授)하고 시호(諡號)975를 내리시며
이조판서(吏曹判書) 증직(贈職)976했네 단종(端宗)위해 죽은 신하(臣下)
사육신(死六臣)뿐 이련가 권절(權節)같은 절기남아(節氣男兒)
세조(世祖)가 부름으로 귀머거리 양농(佯聾)977으로
불문부답(不問不答) 태연했고 기건(奇虔)은 눈을 뜨고
당달 봉사 양맹(佯盲)978으로 세조(世祖)를 속였더니

세조(世祖)가 시험(試驗)하되 송침(松針)으로 찔렀으나
한번 깜짝 않았다네 숙주(叔舟) 아우 신말주(申末舟)979는
신숙주(申叔舟)와 마음 달라 자기 형(兄)을 비방(誹謗)하고
순창(淳昌)으로 퇴거(退去)하고 부제학(副提學)의 조상치(曺尙治)980는
벼슬을 그만두고 영천(永川)으로 내려갈 제
단종(端宗)대왕(大王) 친히 지은 자규시(子規詩)를 화답(和答)하니
단종(端宗) 지은 자규시(子規詩)는 월백야촉혼추(月白夜蜀魂啾)981라
함수정의루두(含愁情依樓頭)982라 이재비(爾啼悲)오 아문고(我聞苦)983라
이무성(爾無聲) 무아수(無我愁)984라 기어세상고로인(寄語世上苦勞人)985하노라
신막등춘삼월(愼莫登春三月) 자규재명월루(子規啼明月樓)986하라
조상치(曺尙治) 화답(和答)하되 자규제자규제(子規啼子規啼)987하니
야월공산하소소(夜月空山何所訴)988오 불여귀불여귀(不如歸不如歸)989하니
망제파잠비욕도(望裏巴岑飛欲度)990라 간타중조총안소(看他衆鳥摠眼巢)991한대
독향화지혈만토(獨向花枝血忼吐)992라 형단영고모초취(形單影孤貌憔悴)993에
불초숭수이고(不肖崇誰爾顧)994리오 오호(嗚呼)라 인간(人間) 원한(怨恨)은
이독이(爾獨爾)라 열사충신격불평(烈士忠臣激不平)에
굴자난진수(屈咨難盡數)로다 화답(和答)을 마친 후(後)에
북향사배(北向四拜)995 하여가며 일장 통곡(痛哭) 하였다네
단종(端宗) 삼촌 금성대군(錦城大君)996 순흥부사(順興府使) 이보흠(李甫欽)과
단종(端宗) 복위(復位) 도모타가 사전(事前) 발각(發覺) 원통(寃痛)할사
옥중(獄中)에서 죽었다네 단종(端宗) 삼촌 안평대군(安平大君)
문장(文章) 명필(名筆) 겸전(兼全)하야 무이구곡(武夷九曲)997 본(本)을 받아
담담정을 지어 놓고 천하(天下) 명사(名士) 모아 두고
문의강론(文義講論) 일삼음에 세조(世祖) 항상 미워하야
문학(文學)으론 당치 못해 썩은 선비 비방하니
안평대군(安平大君) 응수(應酬)하야 형님 무엇 안다고서
활이나 메고 다녀 사냥이나 할 것이지
형제(兄弟) 심지 불합(不合)하여 단종(端宗) 손위(遜位) 하온 후(後)에
안평대군(安平大君) 내년(來年)에도 화당할 것 예측터니
그의 아들 우직(友直)이와 강화도(江華島)로 귀양가서
인심(人心)이 집중(集中)되매 사약해서 죽였으며
그의 동생 한남군(漢南君)과 영풍군(永豊君) 화의군(和義君)도
모두 잡아 죽였으며 단종(端宗) 매부(妹夫) 정종(鄭悰)이도
광주(光州)에서 피주(被誅)되고 이와 같은 충신(忠臣)열사(烈士)
낱낱이 다 죽인 후(後) 단종(端宗)마자 없애고자
간신(奸臣)들의 상소(上疏)로써 무도(無道)하다 세조(世祖) 솜씨
약기사신(藥器使臣) 보냈구나 약기사신(藥器使臣) 왕방연(王邦衍)998이
약기(藥器)들고 영월(寧越)갈 제 내가 죽어 없을 진정

단종(端宗)대왕(大王) 어전(御前)에다 이 약기(藥器)를 어이 바쳐
강(江)에 던져 자살(自殺)하다 약기사신(藥器使臣) 죽은 소문
세조(世祖)대왕(大王) 앉아 듣고 약기사신(藥器使臣) 또 보내니
보낸 대로 다 죽는다 단종(端宗)대왕(大王) 어진 마음
박복(薄福)한 나로하여 무죄(無罪)한 사신(使臣)들만
오는 대로 자살(自殺)하니 아서라 내가 죽어
지하(地下)에 돌아가서 선대왕(先代王)을 뵈오리라
장탄식(長歎息)999에 굳은 결심 정축(丁丑) 시월(十月) 이십사(二十四)일(日)
수건(手巾)으로 목을 홀겨 참혹(慘酷)하게 자진(自盡)1000하니
십이(十二)세(歲)에 즉위(卽位)하야 재위(在位) 불과(不過) 삼년(三年)으로
춘추(春秋) 겨우 십칠(十七)세(歲)라 가련(可憐)할사 궁녀(宮女)들은
마주 앉아 슬피 울다 단종(端宗) 대왕(大王) 뒤따라서
청령포(淸泠浦) 절벽(絶壁)에서 낙화(洛花)처럼 자살(自殺)하니
세조(世祖)대왕(大王) 인정(人情)보소 영월관(寧越官)에 명령(命令)하야
단종(端宗) 시체(屍體) 거둔 자는 멸삼족(滅三族)1001의 엄명(嚴命)듣고
어느 누가 장사(葬事)하리 돌아가신 단종(端宗) 시체(屍體)
청령포(淸泠浦) 삼간(三間) 집에 몇날 몇 달 그냥 있네
영월(寧越) 호장(戶長)1002 엄흥도(嚴興道)1003는 삼족(三族)형벌(刑罰) 겁 안내고
단종(端宗) 장사(葬事) 치르러 간다 청령포(淸泠浦) 올라가서
염습(殮襲)1004하며 통곡(痛哭)하되 문종(文宗)대왕(大王) 계실 때에
천하(天下) 없던 귀한 아들 이 모양이 되실 줄을
문종(文宗)대왕(大王) 몰랐던가 흉악(凶惡)하다 세조(世祖)송씨
이 조카를 이리하고 후복(後福)이 길 것인가
우리야 아전(衙前)1005이되 죽질인정(竹佚人情) 이럴찮소
구중궁궐(九重宮闕) 높은 집에 평안(平安)히 계시다가
한 평생(平生)을 산다 해도 돌아갈 땐 서럽거든
하물며 대왕(大王)님은 높 은자리 빼았기고
이 곳까지 쫓겨나와 찾아올 이 하나 없이
참혹(慘酷)해서 못 보겠네 눈물섞여 염습(殮襲)한 후(後)
첩첩산중(疊疊山中) 백설(白雪) 속에 근근히 뫼셨으니
자욱 자욱 충성(忠誠)이오 흙 한 줌도 충성(忠誠)이라
숙종(肅宗) 때 내려와서 장릉(莊陵)1006으로 추존(推尊)1007하고
엄호장(嚴戶長)의 자손(子孫)찾아 장릉(莊陵) 참봉(參奉) 제수(除授)하고
영월읍(寧越邑) 어귀에다 충절비(忠節碑)를 세우면서
사제문(私祭文)에 하였으되 이일호장(以一戶長)으로
능수대절(能樹大節) 하니 유전백세(流傳百世)에
가위의열(可謂義烈) 이라 단종(端宗) 사기(史記) 다 하려니
눈물 흘려 못 하겠네 단종(端宗)왕후(王后) 정순송씨(定順宋氏)

팔십(八十) 향수(享壽)1008 하였으니 단종(端宗)대왕(大王) 자결(自決)한후
궁녀(宮女)들도 자결(自決)커늘 지절(志節)1009하다 송(宋)왕후(王后)는
무슨 세월(歲月) 보려하고 팔십(八十)이나 살았든가
부녀자(婦女子)의 가진 절개 궁녀(宮女)만도 못 하도다
찬탈(簒奪)한 세조(世祖)대왕(大王) 골육상쟁(骨肉相爭)1010 비난(非難)하나
정치(政治)에는 수완(手腕)있어 심복(心腹)한 모사(謀士)들이
혈심(血心)1011으로 보좌(補佐)하니 국력(國力)이 대진(大振)하다
재위(在位)한지 오년(五年)에는 신숙주(申叔舟)를 보내여서
야인(野人)을 정복(征服)했네 신숙주(申叔舟)는 문장(文章)으로
한명회(韓明澮)와 둘이 함께 김종서(金宗瑞)등 죽일 때도
일등공신(一等功臣) 되어있고 사육신(死六臣) 죽일 때도
남이(南怡) 장군(將軍) 죽일 때도 구성군(龜城君)을 죽일 때도
일등공신(一等功臣) 봉(封)해 있네 아마도 신숙주(申叔舟)는
충신(忠臣)을 죽이는데 공(功)으로선 제일(第一)이라
십이년(十二年) 오월(五月)에는 길주(吉州)사람 이시애(李施愛)1012가
자치안(自治案)을 내걸고서 반란(反亂)을 일으킴에
도총사(都摠使)에 구성군(龜城君)과 부총사(副摠使)에 조석문(曺錫文)1013과
어유소(漁有沼)와 남이(南怡) 장군(將軍) 이시애(李施愛)를 잡았구나
문치(文治)에도 유공(有功)하다 학문(學文)을 장려(壯麗)하고
경국대전(經國大典)1014 속간(續刊)하야 사무규범(事務規範) 제정(制定)하고
국조보감(國朝寶鑑)1015 동국통감(東國通鑑)1016 병서(兵書) 등을 간행(刊行)하고
불교(佛敎)도 장려(壯麗)하야 치정(治定)은 선정(善政)이라
무자년(戊子年)에 승하(昇遐)하니 춘추(春秋)는 오십이(五十二)요
재위(在位) 불과(不過) 십삼년(十三年)에 광릉(光陵)1017에 장사(葬事)하다
조카 죽여 뺏은 임금 한 오백년(五百年) 못해보고
형의 뒤만 망쳐놓고 지하(地下)에 돌아간들
문종(文宗)대왕(大王) 어이뵈리 불칙(不則)한 짓을 하니
왕비(王妃) 역시 어질지 않고 그의 아들 덕종(德宗)1018임금
이십세(二十歲)의 동궁(東宮)으로 죽은 뒤에 추존(推尊)하고
둘째 아들 예종(睿宗)1019임금 재위(在位) 일년(一年) 못 되어서
이십세(二十歲)에 요수(夭壽)1020하고 덕종(德宗)왕비(王妃) 청주(淸州韓氏)
예종(睿宗) 비(妃)도 청주한씨(淸州韓氏) 정희왕후(貞熹王后)1021 특명(特命)으로
성종대왕(成宗大王)1022 즉위(卽位)하니 그 왕후(王后)도 청주한씨(淸州韓氏)
부원군(府院君)1023 한명회(韓明澮)는 딸 둘을 길러내어
맏 딸님은 예종(睿宗)왕비(王妃) 둘째 딸은 성종(成宗)왕비(王妃)
친정(親庭)으론 형제(兄弟)되고 시가(媤家)로는 숙질(叔姪)되네
성종대왕(成宗大王) 착하시와 세종대왕(世宗大王) 다음 가네
천성(天性)이 인자하며 학문(學文)에 정통(正統)하다

집현전(集賢殿)을 중수(重修)하여 홍문관(弘文館)을 지으시고
호당(湖堂)1024을 설치하여 사가독서(賜暇讀書)1025 일삼으며
존경각(尊經閣)1026을 창설(創設)하여 서적(書籍)을 비치하다
요순(堯舜) 이하(以下) 역대(歷代) 성군(聖君) 병풍(屛風)에다 모화하여
덕정(德政)을 여행하며 치화(治化)가 대행(大行)터라
삼국사(三國史)의 절요(節要)1027이며 여지승람(與地勝覽)1028 제왕명감(帝王名鑑)
경국대전(經國大典) 완성(完成)하고 즉위(卽位)한지 십년(十年)되어
윤필상(尹弼商)1029을 보내시와 명(明)나라와 협력(協力)하여
건주(建州)를 정토(征討)1030하고 삼십삼년(三十三年) 허종(許琮)보내
야인(野人)을 정복(征服)하다 만조(滿朝)의 명재상(名宰相)이
성종대왕(成宗大王) 보필(輔弼)하니 태평연(太平宴)1031을 구가하고
시화연풍(時和年豐)1032 이 때로다 이십오년(二十五年) 승하(昇遐)하니
춘추(春秋)가 삼십팔(三十八)에 선릉(宣陵)1033에 장사(葬事)하고
아들이 십오(十五) 형제(兄弟) 공주(公主)가 열둘이라
슬프다 우리나라 장사(壯士) 괄시 너무하네
이준(李浚)을 두고 보면 임영대군(臨瀛大君) 아들로써
세종대왕(世宗大王) 손자(孫子)된다 무략(武略)이 뛰어나서
이시애(李施愛)가 모반(謀反)할 제 도총사(都摠使)로 평정(平正)하고
일등공신(一等功臣) 되어있고 이십팔세(二十八歲) 영의정(領議政)에
지모(智謀)1034 장력(壯力)1035 겁을 내어 영해(寧海)에다 안치타가
신숙주(申叔舟)의 개청으로 사사(賜死)하야 죽였으며
원통(寃痛)하다 남이(南怡)장군(將軍) 십칠세(十七歲)에 무과(武科)하야
세조(世祖) 총애(寵愛) 깊었더니 이시애(李施愛) 건주 위에
선등(先等)으로 유공(有功)하고 이십육세(二十六歲) 겨우 되어
병조판서(兵曹判書) 지냈더니 남아(男兒) 이십(二十) 미평국(未平國)이면
후세(後世) 수칭(誰稱) 대장부(大丈夫)1036를 남아(男兒) 이십(二十) 미득국(未得國)이라
평할 평(平)자 글 한 자(字)를 얻을 득(得)자 고쳐놓고
역모(逆謀)로 죄 만드니 남이(南怡)장군(將軍) 치죄(治罪)하네
국문(鞫問)1037에 나갈 때에 영의정(領議政) 강순(康純)1038이
공모(共謀)했다 자백(自白)하니 강순(康純)이 잡혀가서
연소자(年少者)를 친했더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남이(南怡)에게 반문(反問)하니 남이(南怡)장군(將軍) 태연하게
죄(罪) 없이 억울키는 너나 나나 일반(一半)이지
일국(一國)의 재상(宰相)으로 나 하나를 못 구해서
원통(寃痛)하게 죽게 되니 재상(宰相)하여 무엇하며
나와 함께 죽자구나 부득(不得)이 강순(康純)이와
둘이 함께 원사(寃死)하니 강순(康純)은 칠십세(七十歲)요
남이(南怡)는 이십팔(二十八)이라 성종대왕(成宗大王) 승하(昇遐)하고

연산주(燕山主)가 즉위(卽位)하니 부왕(父王)은 인자하나
어이 그리 포악(暴惡)하며 어이 그리 무도(無道)한고
사람됨이 음란(淫亂)하야 역대(歷代) 왕(王) 중(中) 폭군(暴君)이라
채청사(採靑使)1039 채홍사(採紅使)1040를 각도(各道) 열읍(列邑) 파견(派遣)하야
민간(民間) 부녀(婦女) 민간(民間) 처녀(處女) 강제(强制)로 끌어오고
채은사(採恩使)를 파견(派遣)하야 민간(民間) 재물(才物) 양마(良馬)1041들을
강제(强制)로 뺏어오고 민간(民間) 건물(建物) 헐어제쳐
수렵장(狩獵場)1042을 만든 후(後)에 갖은 행패 다 부린다
살인(殺人)하기 예사(例事)1043이며 음란(淫亂)하기 일과(日課)이라
월산대군(月山大君)1044 박씨부인(朴氏婦人) 연산주(燕山主)의 백모(伯母)1045로되
그 백모(伯母)를 강간(强姦)1046함에 박씨부인(朴氏婦人) 자결(自決)하고
성균관(成均館) 홍문관(弘文館)을 연락소(連絡所)로 만든 후(後)에
문장(文章) 재사(才士) 다 죽이고 미인(美人) 가희(佳姬)1047 가득 찼네
재위(在位)한지 사년(四年)되어 이극돈(李克墩)1048과 유자광(柳子光)1049이
둘이 모두 간신(奸臣)으로 연산주(燕山主)에 아부(阿附)하야
김종직(金宗直)의 조의제문(弔意祭文)1050 김일손(金馹孫)1051 수사록(修史錄)에
세조(世祖) 행장(行狀)1052 비방했다 김종직(金宗直)의 무덤 파서
부관참시(剖棺斬屍)1053 하온 후(後)에 일대(一代) 명현(名賢) 수백인(數百人)을
모조리 참살(慘殺)하되 김일손(金馹孫) 권오복(權五福)1054과
김굉필(金宏弼)1055 정여창(鄭汝昌)1056등 참살(慘殺)하고 귀양가고
김종직(金宗直)의 문인(門人)이오 사돈되는 김맹성(金孟誠)은
사후(死後) 이미 십이년(十二年)에 직접 화(禍)는 면했으나
그의 아들 김자강(金自强)이 아비 대신 연좌(緣坐)1057되어
변관개명(變貫改名)한 연후(然後)에 유리팔방(流離八方) 모피하야
생명(生命)만은 보존(保存)했네 김자강(金自强)도 유명(有名)하다
삼강행실록(三綱行實錄)에 우리나라 사효자(四孝子)는
고려(高麗) 조에 최루백(崔婁伯)은 아비 먹은 범을 잡고
이조(李朝) 때에 김자강(金自强)은 복총(伏塚) 삼일(三日) 불기(不起)하여
조정(朝廷)에서 정표(旌表)1058하니 정표문(旌表文)에 하였으되
소년(髫年)망부(亡父) 봉자위(奉慈闈)에 순색(純色) 승안(承顔)1059 망혹위(罔或違)라
상진예의(喪盡禮儀) 잉합장(仍合葬)하야 수분삼재(守墳三載) 누혼의(淚渾衣)라
종상부위(綜喪復爲) 부거려(父居廬)하니 고피인친(顧被因親) 강인거(强引裾)라
고시연광(顧視煙光) 호벽지(呼癖地)하니 지성능감(至誠能感) 득여초(得如初)라
이렇듯이 정문(旌門)1060하고 조정(朝廷)에서 부르시와
집현전적(集賢典籍) 내리셨네 유석진(兪石珍)은 단지(斷指)1061하야
아비 병(病)을 낫게 하고 윤은보(尹殷保)는 여막(廬幕)1062에서
바람에 잃은 향합(香盒)1063 까마귀가 물고 오니
아마도 이런 효자(孝子) 고금(古今)에 드물세라

무오사화(戊午士禍)1064 일어난 후(後) 육년(六年)이 지나가서
연산주(燕山主)의 외가(外家)에서 피 묻은 비단(緋緞) 적삼
연산주(燕山主)께 바치면서 모친(母親)되는 윤씨부인(尹氏婦人)
성종(成宗)의 계비(繼妃)1065되어 연산주(燕山主)를 낳은 후(後)에
상감(上監)1066께 불순(不順)키로 성종(成宗)이 노(怒)하시와
제신(諸臣)들과 의논(議論) 끝에 폐비(廢妃)1067를 하였으니
원통(寃痛)하게 쫓겨나가 눈물이 피가 되어
금삼(錦衫)1068을 적신 사연 원정(怨情)을 올리거늘
포학(暴虐)1069한 연산주(燕山主)가 모친(母親) 원수(怨讐) 갚기 위해
선왕구신(先王舊臣)1070 참론(參論) 죄(罪)로 갑자사화(甲子士禍)1071 일으키어
모조리 대살(代殺)했네 그 때에 죽은 신하(臣下)
모두 합쳐 삼십육인(三十六人) 그래도 한(恨)이 남아
병인년(丙寅年)에 이르러서 무오(戊午)갑자(甲子) 빠진 신하(臣下)
병인(丙寅) 삼화(三禍) 일으키어 닥친대로 다 죽인다
그 모친(母親)을 생각(生角)하야 모친(母親) 원수(怨讐) 갚는 일은
인자되고 당연하나 사류(士類)를 진살(盡殺)하니
그 어찌 장구하랴 환관(宦官)1072인 김서선이
직간(直諫)1073하다 하는말이 노로사조 섬겨오되
고금(古今)을 두고봐도 주같은 소위자는
아마도 처음보오 연산주(燕山主)1074가 성을 내서
처선(處善)1075의 팔을치니 처선이 하는 말이
죽기로니 헛말이오 다만 한(恨)이 되는 것은
연산주(燕山主)가 장구찬소 연사주 또 크게 노하여
또한 다리마저 치니 처선은 꼼짝않고
유혈(流血)1076만 낭자(狼藉)1077터라 일어서라 재촉하니
처선이 쳐다보며 여무각이 행호아
연산주가 김처선(金處善)의 혀를 빼고 치죄(治罪)1078하여
원통(寃痛)1079하게 죽었구나 이와 같이 연산주(燕山主)는
정사(政事)는 고사하고 음탕(淫蕩)1080하고 살인(殺人)을 하여
사직(社稷)1081이 위대함에 병인(丙寅)년 추(秋) 구월에
성희안(成希顔)1082 유순정(柳順汀)1083과 박원종(朴元宗)1084 세사람이
혁명(革命)1085을 밀모(密謀)1086하여 일조(一朝)1087에 반정(反正)1088한 후
연산주(燕山主)를 폐(廢)하여서 교동으로 내친 다음
성종(成宗)1089의 둘째아들 중종(中宗)1090을 영립(迎立)1091하여
임사홍(任士洪)1092 등 간신(奸臣)1093무리 모조리 처치(處置)1094한 후
유자광(柳子光)1095은 정배(定配)1096 가고 무오(戊午)갑자(甲子)병인(丙寅)년에
사화(士禍)1097 당한 명사(名士)1098 들의 관직(官職)을 복귀하고
원통(寃痛)하게 죽은 인사(人士) 일일이 신원(伸寃)1099한 후

자손 찾아 벼슬 주고 중종(中宗)이 즉위(卽位)1100하니
그 왕비(王妃)는 거창 신씨 둘째 왕비 파평 윤씨
중종은 즉위 후로 실정(失政)1101을 회복(回復) 하려고
악정(惡政)1102을 개혁하고 홍문관(弘文館)1103을 다시 설치하고
사간원(司諫院)1104도 복구하여 어진 신하 들어 쓰니
국정(國政)은 좋아지나 중종(中宗) 또한 유약(柔弱)1105하여
왕후 신씨 폐출(廢黜)1106하고 간신무리 말만 듣고
무고(無故)1107한 신하들을 모역(謀逆)1108이라 주살(誅殺)1109하고
중종(中宗) 오년 사월 달에 삼포왜란(三浦倭亂)1110 일어나매
황형(黃衡)1111과 유담년(柳聃年)1112이 혈전(血戰)1113 끝에 막았으며
십삼년 십일월에 기묘사화(己卯士禍)1114 일어나니
남곤(南袞)1115과 심정(沈貞)1116이가 천만고의 간신으로
권리(權利)를 독점(獨占)코자 명사(名士)를 제거한다
조광조(趙光祖)1117를 모함할 때 나뭇잎에 꿀을 발라
주초위왕(走肖爲王) 글을 쓰니 벌레가 꿀을 따라
글자를 갉아 먹어 주초위왕(走肖爲王) 새겨지니
남곤(南袞)과 심정(沈貞)이 무고(誣告)1118하되 주초(走肖)는 조(趙)씨이니
조광조(趙光祖)를 제거하고 중종(中宗)이 옳게 여겨
일대(一代)명유(名儒)1119 조광조를 역모(逆謀)1120로 몰아다가
수백여명 명사(名士)들을 모조리 다 죽였네
조정암1121 죽일 때에 절명(絶命)시가 전해오니
애군을 여애부하고 우국을 여우가라
천일이 조단충하니 조조 임하토라
그 후에 남곤(南袞)과 심정(沈貞)이 자당(自黨)1122을 규합(糾合)1123하여
충직(忠直)한 명인들은 거의 다 없앴으나
남은 명사(名士) 또 미워서 신사사화(辛巳士禍)1124 또 일으켜
다 잡아 없앤 연후에 남곤과 심정이 제멋대로
조정(朝廷)을 전횡(專橫)1125하니 만조(滿朝)1126가 소인배(小人輩)1127라
소인집권 육년동안 기강(紀綱)1128은 문란(紊亂)1129하고
인심(人心)은 이완(弛緩)되어 사직(社稷)이 위태하더니
남곤(南袞)이 병사(病死)한 후 남은 소인 숙청(肅淸)1130되나
대윤(大尹)1131 소윤(小尹)1132 일어나다 윤임(尹任)1133은 누구인고
인종(仁宗)1134 모후 친형(親兄)인 대윤임은 인종으로
윤원형(尹元衡)1135은 명종(明宗)1136으로 임금을 세우고자
둘이 서로 다투더니 중종(中宗)이 무능(無能)하여
조정이 혼란(混亂)하고 성희안(成希顔)1137과 박원종(朴元宗)1138 등
삼훈에 시달리고 삼훈이 죽은 뒤에
남곤(南袞)과 심정(沈貞) 같은 간신(奸臣)에게 욕을 보고

간신이 또 물러간 후 김안로(金安老) 1139 당류(黨類)들의
삼간에게 화를 당하고 윤임(尹任)과 윤원형(尹元衡)의
윤당에게 난을 겪어 재위(在位) 삼십 팔년동안
영일 없이 지내다가 갑진(甲辰)년에 승하(昇遐)1140하니
춘추가 오십칠에 정릉에 장사(葬事)하다
아들이 칠형제요 공주가 열둘이라
윤임의 주창(主唱)1141대로 인종이 즉위(卽位)하니
그 왕후는 나주 박씨 인종은 인후(仁厚)1142하나
재위 일년 못 되어서 삼십일에 승하(昇遐)하니
효릉(孝陵)1143에 장사(葬事)하고 왕후릉도 동원이라
자녀가 하나 없어 명종(明宗)이 즉위(卽位)하니
인종의 아우로서 십이세의 어린 임금
문정왕후 윤씨 부인 수렴청정(垂簾聽政)1144 하는구나
영중추(領中樞)1145 홍언필(洪彦弼)1146과 삼상(三相)1147과 육조(六曹)1148들이
유명(遺命)1149을 받들어서 어린 명몽 보좌하나
왕후되는 청송 심씨 천성(天性)이 한독(悍毒)1150하고
윤원형(尹元衡)도 흉측(凶測)하여 정순붕(鄭順朋)1151 이기(李芑)1152들의
오간(五姦)1153이 전횡(專橫)하여 국정(國政)을 쥐고 흔드매
명사(名士)들이 반대하여 오간(五姦)을 진압(鎭壓)함에
五간신의 소행보소 문정왕후(文定王后)1154 모셔놓고
충순당(忠順堂)1155 뜰 앞에서 사류(士類)1156를 진살(盡殺)1157코자
형벌(刑罰)을 행할 때에 좌의정(左議政)1158 유관(柳灌)1159이와
이조판서 유인숙(柳仁淑)1160과 종실(宗室)되는 계림군(桂林君)1161과
명종 서형(庶兄)1162 봉성군(鳳城君)1163을 역모(逆謀)로 죄 만들어
머리를 벤 연후 중종(中宗)의 왕비(王妃) 동생되는
찬성(贊成)1164의 윤임(尹任)이를 그의 아들 삼형제와
한 수레에 다 육살(戮殺)1165하고 대사간(大司諫)1166 곽순(郭珣)1167이를
장하지혼(杖下之魂)1168 되게하고 이황(李滉)1169과 노수신(盧守愼)1170과
신거관(愼居寬)1171은 삭관(削官)되고 이언적(李彦迪)1172의 거동보소
백인걸(白仁傑)1173과 노수신(盧守愼)과 권발(權撥)1174을 구하려다
강계로 귀향(歸鄕)1175가서 적소에서 돌아가고
그외에 수백 명사(名士) 죽이고 귀향(歸鄕) 가고
삭관(削官) 당해 피화(被禍)1176하니 이것이 이름있는
명종 을사사화(乙巳士禍)1177로 다 명인들을 다 죽인후
오간(五姦)이 득세(得勢)하여 국정(國政)에 참가하고
정미년 구월에는 문정왕후(文定王后)1178 비방(誹謗)1179하는
편지 한 장 발견하고 을사여당 소위(所爲)1180라고
송인수(宋麟壽)1181를 비롯하여 수백인을 또 죽이니

정미사화(丁未士禍)1182 이것일세 오간(五姦)의 수족(手足)되는
진부창의 흉계(凶計)로써 안명세(安名世)1183 등 수백 인물
무신년에 피살되고 기유년에 이르러선
이홍남(李洪男)1184의 소위보소 그의 아우 이홍윤(李洪胤)1185이를
모역자로 몰아다가 원통(寃痛)하게 죽인 후에
그와 연류(連類)1186된 수백인을 죄 없이 또 죽이니
기유사화 이것이라 세종대왕(世宗大王)1187 기른 선비
세조(世祖)1188 손에 다 죽이고 성종대왕(成宗大王)1189 기른 선비
연산군(燕山君)이 다 죽이고 암약한 중종왕과
유충한 명종으로 간신들이 득세하여
남은 명사 다 죽이니 조야인심 위태(危殆)하고
국가원이 떨어지다 명종 십년 갑인년에
일본병이 침입하여 전라도에 상륙해서
담양을 점령함에 전라병사 원적(元績)1190이와
장흥부사 한온(韓蘊)1191이는 대전(對戰)하다가 전망(戰亡)1192하고
일본병이 득세하여 장흥부 등 여러 곳을
연달아 석권(席卷)함에 명종대왕 염려(念慮)하고
도순찰사(都巡察使)1193 이준경(李浚慶)1194과 좌방어사 김경(金景)이며
우방어사 남치근(南致勤)1195에 관군(官軍)을 동원(動員)하여
일본병을 무찌르니 난리(亂離)는 평정되다
해서(海西)1196 강도(强盜) 임꺽정은 양주 백성 천한 몸이
도적놈의 괴수(魁首)1197 되어 해서(海西) 지방 노략(擄掠)1198 하다가
그 기세(氣勢)가 강성(强盛)하여 관군에 대항하거늘
조정에서는 대로하여 남치근(南致勤)을 보내여서
임꺽정을 잡은 후에 도적난이 평정되다
명종대왕 장성(長成)함에 문정후와 윤원형의
세력을 제거하고자 이준경(李浚慶) 박순(朴淳)1199이와
기자헌(奇自獻)1200과 윤두수(尹斗壽)1201며 심의겸(沈義謙)1202을 등용(登用)한 후
윤원형(尹元衡)을 쫓아내고 이기(李沂)와 정순붕(鄭順朋)1203등
두 간신이 사망(死亡)함에 남은 당을 다 죽이니
문정왕후(文定王后) 작고(作故)1204하고 명종(明宗)의 국구(國舅)1205되는
이양(李樑)1206이도 몰아낸 후 육십년간 권간(權奸)1207 세도(勢道)1208
이에서 끝맺으니 성자(聖者) 현손(玄孫) 다시 나서
광명(光明)일월(日月) 돌아오네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1209이
유유수간 부자묘(夫子廟)에 만정추초 적무인의
안문성공 글을 보고 안문성공 구기에다
백운서원 건립(建立)하여 삼백여근 동철 얻어
그 비용에 충당하고 소수서원(紹修書院)1210 사액(賜額)1211 받다

우리나라 서원(書院)짓기 이것이 시초(始初)1212로다
김인후(金麟厚)1213도 명현(名賢)으로 인종대왕 빈천(賓天)1214할 때
칠월 일일 기신마다 입산중 통곡(痛哭)하며
연년(年年)1215 추칠월에 통곡만산 중이란
글까지 유전(流轉)하다 공당문답 맹사성(孟思誠)1216은
효우(孝友)1217가 출천(出天)1218했고 이언적의 선견지명(先見之明)1219
안로용사 짐작했고 일각재상 상진(尙震)1220이는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전부(田夫)1221에게 훈계(訓戒) 받아
명재상이 되었으며 점 잘치는 홍계관(洪啓寬)은
이때의 인물이며 십천구장 남사고(南師古)1222도
풍수설(風水說)1223에 으뜸이오 토정비결(土亭秘訣)1224 이지함(李之菡)1225은
역학(易學)1226으로 손꼽으며 재주있는 정북창(鄭北窓)1227은
사이어에 능통했네 이십이년 승하(昇遐)하니
강릉(江陵)에 장사(葬事)하다 명종대왕 무자(無子)1228하여
조카님을 모셔오니 선조(宣祖)1229대왕이 아닌가
그 왕후는 나주 박씨 둘째 왕후 연안 김씨
천자가 총명(聰明)하고 동고(東皐)1230 같은 현신(賢臣)1231 만나
기묘년과 을사년에 죽은 신하 낱낱이 신설(伸雪)1232하고
남곤(南袞)과 심정(沈貞)이와 김안로(金安老)와 윤원형(尹元衡) 등
간신배도 추죄(追罪)하고 이퇴계(李退溪)와 이율곡(李栗谷)과
류서애(柳西崖)1233와 노소재(盧蘇齋)1234등 명인들을 등용(登用)하여
실정(失政)을 회복(回復)한 뒤 만기(慢機)를 쇄신(刷新)하고
예의(禮義)를 숭상(崇尙)하며 청렴(淸廉)을 격려(激勵)하여
대중흥을 이루었네 퇴계(退溪)선생 어떠한고
천자(天資)1235가 심고(審考)1236하며 도덕(道德)이 순비하여
동방부자 이름나다 삼백여명 문도(門徒)1237에게
도학(道學)1238을 전교(典敎)1239하고 도덕가사 지어낼 때
향약(鄕約)1240을 만들어서 자치제도 창시(創始)1241하니
도덕문장 각방면에 의적도 장할시고
이율곡(李栗谷)은 어떠한고 강릉(江陵) 땅 태생(胎生)으로
총명(聰明)이 남과 달라 오세에 능시하여
이학지 종손을 꼽고 오리대감 이원익(李元翼)1242은
사십년간 입조(入朝)하여 위인(偉人)으로 손꼽으며
오성대감 이항복(李恒福)1243과 한음대감 이덕형(李德馨)1244은
선조대왕 도와가며 중흥(中興)시킨 명상(名相)1245이며
격암(格庵)1246선생 이인(異人)으로 임진왜란(壬辰倭亂)1247 미리 알고
서애(西厓)1248대감 도와 있고 정철(鄭澈)1249의 시조이며
이순신(李舜臣)1250과 권율(權慄)1251이며 곽재우(郭再祐)1252와 김덕령(金德齡)1253의

명장수도 배출(輩出)되고 서산대사(西山大師)1254 사명당(四溟堂)1255의
기의승장 이름나고 사계선생 신독재(愼獨齋)1256의
부자예학 놀랍고 이십팔왕 제왕(諸王) 중에
선조 때가 제일이다 목릉승대 이아닌가
선조대왕 팔년되어 사색(四色)당파(黨派) 일어나니
심의겸(沈義謙)1257과 김효원(金孝元)1258의 사사(私事)로운 다툼 기인(起因) 되어
동인(東人)1259과 서인(西人)1260 갈라지고 남북(南北)으로 또 갈리어
김효원(金孝元)은 동인되고 심의겸(沈義謙)은 서인이라
동인이 또 갈리어 남북으로 편을 갈라
우성전(禹性傳)1261은 남인(南人)1262되고 이발(李潑)1263은 북인(北人)1264이라
북인이 또 갈리어 이산해(李山海)1265는 대북(大北)1266이오
남이공(南以恭)1267은 소북(小北)1268이라 대북(大北)이 또 갈라져
골북(骨北)1269, 육북(肉北)1270, 중북(中北)1271 있고 소북(小北)이 또 갈라져
유당과 남당(南唐) 있고 서인이 또 갈라져
인조 때 내려와서 노서(老西)1272에 김류(金瑬)1273이며
소서(少西)1274에 김상헌(金尙憲)1275이 신서(申西)1276에 신흠(申欽)1277이오
윤서(尹西)1278에 윤방(尹昉)1279이라 숙종(肅宗) 때 내려와서
남인(南人)이 또 갈라져 청남(淸南)1280에는 허목(許穆)1281이오
탁남(濁南)1282에 허적(許積)1283이라 서인(西人)이 또 갈라져
노론(老論)1284에 송시열(宋時烈)1285이 소론(少論)1286에 윤증(尹拯)1287이라
만조(滿朝)가 부화(附和)1288하여 논쟁배척 일삼으며
모략중상(謀略中傷)1289 심하구나 율곡선생 혼자 남아
당파(黨派) 싸움 조절하다가 동인(東人)에게 논척(論斥)1290 받아
갑신년에 퇴출(退出)하니 효과는 하나 없고
당쟁(黨爭)1291만 격심(隔心)1292터라 선조대왕 이십삼년
일국 사정 탐지(探知)1293하고자 통신사(通信使)1294의 명목(名目)1295으로
일본(日本)으로 파견(派遣)하니 정사(正使)1296에 황윤길(黃允吉)1297이
부사(副使)1298에 김성일(金誠一)1229이 일년만에 돌아와서
선조(宣祖) 앞에 복명(復命)1300하되 황윤길(黃允吉)의 하는 말은
일본사정 살펴보니 풍신수길(豐臣秀吉)1301 괴걸(怪傑)1302로써
나라를 평란(平亂)1303하여 막부(幕府)1304장군 되온 후에
대륙을 침략코자 인광을 살펴보니
섬광(閃光)이 비상(非常)한즉 필유병화(必有兵禍)1305 할 것이니
무비(武備)1306함을 주창(主唱)1307하고 김성일(金誠一)의 하는 말은
일본은 소국(小國)이라 풍신수길(豐臣秀吉) 섬광(閃光)이나
서목이 완연하니 두려울 것 하나없다
이같은 승평(承平)1308세에 군비(軍備)를 하게 되면
백성에게 의혹(疑惑)받네 황윤길(黃允吉)과 김성일(金誠一)은

말마다 상이(相異) 되며 유성룡(柳成龍)과 이산해(李山海)는
그 당시 재상(宰相)이나 모두가 동인(東人)으로
김성일(金誠一)을 옳게 여겨 무비(無備)를 파했더니
선조대왕 이십오년 임진월 십사일에
일본병이 대침(大侵)하니 황윤길(黃允吉) 말 들었으면
군량(軍糧) 군기(軍器)1309 준비했지 일본놈의 소행보소
풍신수길 지휘 아래 가등청정(加藤淸正)1310 소서행장(小西行長)1311
이십오만 거느리고 부산진에 도착하되
구천척의 배를 모아 남해에서 쳐서오니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1312과 부산 첨사(僉使)1313 정발(鄭撥)1314이와
성을 지켜 싸우다가 역진(力盡)1315하여 전사(戰死)하니
임진월 보름이라 일본군은 상륙(上陸)하여
북을 향해 쳐들어올 때 삼로로 나누어서
양산과 울산, 언양이며 경주와 밀양, 김해 열읍(列邑)1316
일본군에 점령(占領)되니 만조백관(滿朝百官) 당황하다
일국군을 동원하여 북상(北上)하는 일본병을
삼로로 막을때에 이 일 이외의 모든 장수(將帥)
연달아 패배(敗北)하고 이십팔일 탄금대(彈琴臺)1317서
도순변사(都巡邊使)1318 신립(申砬)1319장군 팔천여명 거느리고
일본군과 혈전(血戰)하다가 패망(敗亡)하여 전사하니
일본병이 득세하여 조수(潮水)처럼 밀려온다
서울을 향해오니 사세(事勢)1320가 위급(危急)하매
선조대왕 파천(播遷)1321갈 때 임진 사월 삼십일에
서울을 발정(發程)1322하여 동년(同年) 오월 초일에
개성에 주가하자 오월 삼일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하매 개성에서 선조대왕
평양으로 또 옮기고 도원수(都元帥)1323 김명원(金命元)1324이
일만이천 정병(精兵)1325으로 임진강을 막어내다
오월 십칠일 밤 되어 김명원(金命元)이 해몰하니
오월 이십칠일 되어 승승장구(乘勝長驅)1326 일본병이
개성을 또 점령하고 선조대왕 위급하여
동년(同年) 유월 십일일에 의주로 또 옮기시어
탄시 한 수 읊었으니 통곡관산월(痛哭關山月)1327이오
상심압수풍(傷心鴨水風)1328이라 조신금일후(朝臣今日後)1329에
영부경동서(寧復更東西)1330라 동년 유월 십오일에
평양마저 함락(陷落)하니 일본놈의 소행보소
전후(前後) 오십여일간에 힘 안 들이고 전진(前進)하여
팔도에 가득찼네 창생(蒼生)1331은 갈바를 몰라

시달리고 굶주린다 육군은 대패(大敗)하나
해군만은 강성(强盛)하여 경상도(慶尙道) 좌수영과
다대포가 함락하매 경상수사 원균(元均)1332이는
전라수사 이순신(李舜臣)에 원병(援兵)1333을 청하거늘
우수사 이억기(李億祺)1334와 이순신과 둘이 들어
거북선을 운행하여 일해군 찾아간다
오월 사일 출발하여 오월 칠일 옥포에서
일본해군 처음 만나 삼십척을 격침(擊沈)하고
오월 팔일 진해에서 십삼척을 격침하고
잠시 환진하였다가 오월 십구일에는
사천안에 십삼척을 유월 이일 망항포서
삼십이척 또 부수고 유월 칠일 영등포서
칠척을 또 부수고 임진년 칠월 팔일
일본해군 소행보소 수백척의 배를 잃고
연달아 패한 분을 원거를 회복코자
한산도 밝은 달 밤 우리 해군 마주싸워
대격전이 벌어지니 이순신(李舜臣)의 용맹(勇猛)보소
거북선을 몰아다가 일본해군 충돌하다
칠십삼척 배 부수고 일본군이 도망치고
이충무공(李忠武公) 대승하니 이것이 역사상에
이름 높은 한산대첩(閑山大捷)1335 칠월 십일 적을 좇아
안골포에 이르러서 구십이척 격침하고
십삼일에 환군하여 이십여일 쉰 뒤에
백여척을 부순 다음 구월 이일 환군하니
일본군함 격침함이 사백여척 넘었구나
일본해군 위축되어 이순신을 피해가니
우리해군 사기가 올라가고 해군은 대승하나
육군은 필패(必敗)하여 국운이 위태함에
선조대왕 거동보소 팔도 열읍(列邑) 인민에게
애통조를 내리시고 근왕병(勤王兵)1336을 모집한다
전라와 충청 양도(兩都)에서 십삼만병 모아다가
용인에서 참패하고 동복현감 황진(黃進)1337이는
용인에서 패한 후에 근왕병을 다시 모아
진도에서 대전하여 일본병을 무찌르고
진주성에 근거하여 혈전한지 십여일에
원통하게 전사하니 진주성이 함락되매
육만 병력 전사하니 원통하기 짝이 없다
초토사(招討使)1338 이정암(李廷諴)은 연안에서 대승하고

고경명(高敬命)1339과 고종후(高從厚)1340와 김천일(金千鎰)1341과 최경회(崔慶會)1342는
호남에서 기병(起兵)하여 임진 유월초 십일에
진주에서 전사하고 영규(靈圭)1343와 조중봉(趙重峯)1344은
호서에서 기병하여 칠백의사 거느리고
금산에서 결사했네 득승함도 있었으나
패몰함이 적지않아 선조대왕 염려하사
이덕형(李德馨)을 보내여서 중국 요동 순무사(巡撫使)1345에
원조를 간청했고 명나라에 다시 보내
청병(請兵)1346을 의논하여 정곤수(鄭崑壽)1347를 보냈더니
명국장수 조승훈(祖承訓)1348이 오천 병력 거느리고
평양에서 싸우다가 패하여 돌아가니
사세 더욱 위급하매 명나라 심유경(沈惟敬)1349과
일본장수 소서비(小西飛)1350와 조약을 체결하고
오십일간 휴전(休戰) 하더니 임진년 구월 되어
이덕형(李德馨)과 정곤수가 다시 청병 들어갈 제
이덕형의 하는 말이 이 번거로운 청병 가서
만일 군사 못 얻으면 노옹(老翁)의 뼈를 묻고
외국 고혼(孤魂)1351 될지라도 압록강을 안 건너리니
눈물로 맹서(盟誓)하고 연경에 다다르니
황극전(皇极殿)1352이 여기로다 이덕형의 거동보소
명(明)나라 천자(天子) 앞에서 고두(叩頭)1353하여 육차 상소 읍소(泣訴)하니
의거남아 홍순언(洪純彦)1354이 병부상 서석성에게
구원병을 간청하니 조선충신 감복(感服)하고
쾌히 허락하온 후에 신용명장 육십명과
정병 오만 주는구나 동원제독 누구든고
대도독(大都督)1355에 이여송(李如松)1356이 경략장군 송응창(宋應昌)1357과
유격장군 심유경(沈惟敬)과 중협장에 양원이며
독향에 예유신과 찬화주사 원황이며
수군도독 진린이오 향도에 천만리라
늠름(凜凜)한 위풍(威風)으로 압록강을 건너서서
선조대왕 뵈온 후에 그제서야 대장기를
높이 달고 내려올 때 이 때가 어느 때뇨
임진 구월 십이일에 기성에서 일본병과
한번 싸움 실험하고 곽산에서 대전한 후
동래에서 삼진할 때 패하는 것은 왜장이오
죽는 놈은 왜졸이라 이여송의 지용(智勇)1358으로
연전연승 거듭되니 우리 군사 힘을 내어
사기가 왕성하다 우리 장수 김응서(金應瑞)는

평양기생 계월향(桂月香)1359과 연광정서 밀모(密謀)하여
범같은 왜놈장수 둘 힘으로 잡았으며
진주기생 논개(論介)1360 보소 일본장수 얼싸안고
진주남강 떨어져서 섬섬(纖纖)연약 여자몸이
왜장을 잡았으니 천추(千秋)1361에 빛난 이름
지금까지 전해오니 의기(義妓) 암시 상전되다
독초기암(獨峭其岩)은 특립기녀(特立其女)라
여비사암(女非斯岩)이면 언득사소(焉得死所)리오
암비사녀(岩非斯女)이면 오득의성(烏得義聲)고
일강고암(一江高岩)이 만고방심(萬古芳心)이라
이와같이 찬양하오 진주목사 김시민(金時敏)1362은
조정(朝廷)과 김면(金沔)1363 등의 의용군(義勇軍)1364과 합세하여
사천과 창원이며 고성과 금산땅을
차례 차례 수복(收復)1365하고 부산에서 포위하는
일본병을 대파하여 둔병을 풀어 주고
왜장 삼백 무찌르고 왜졸 삼만 진살했네
곽재우(郭再祐)1366와 정인홍(鄭仁弘)1367과 권응수(權應銖)1368도 의장으로
민병을 일으켜서 영남에서 기병하여
우도 열읍 수복하고 이원익(李元翼)1369도 용맹 있어
전사 수백 거느리고 도강 작전 우세하여
전마 팔십 탈취했네 함경도는 어이 됐나
가등청정(加藤淸正)1370 주둔터니 회령도적 국경인(鞠景仁)1371이
청정에게 내응하여 모병차로 내려갔던
임해(臨海)1372와 순화(順和)1373 두 왕자와 김귀영(金貴榮)1374과 황정욱(黃廷彧)1375을
청정에게 잡아 주어 인심이 분개하게 하더니
북병사 정문부(鄭文孚)1376와 이붕수(李鵬壽)1377 등 오장사가
회령에서 기병하여 국경인(鞠景仁)1378을 잡아 죽여
길주와 성전을 탈환(奪還)하고 계사년 정월에는
청정군과 마주 싸워 일본 병사 대파(大破)하고
함경도를 수복(收復)하다 지용(智勇) 겸비(兼備) 권율(權慄)장군
계사(癸巳) 이월 십이일에 이천 병마(兵馬) 거느리고
행주산성 진을 칠 때 왜졸의 수만명이
접전(接戰)하여 나오거늘 권율(權慄)장군 도량(度量)으로
사졸을 격려하여 왜군졸을 전멸(全滅)하니
역사상 이름 높은 행주대첩(幸州大捷)1379 이아닌가
부녀자도 출전하여 앞치마에 돌을 싸서
석전(石箭)으로 도왔으니 앞에 입은 치마 이름
행주치마 되었도다 익호장군 김덕령(金德齡)1380은

의병을 일으키어 팔년 풍진(風塵)1381 긴긴 세월
처처(處處)에서 싸움하여 왜장졸을 무찔러서
유공(有功)1382함이 많았으나 팔년 풍진(風塵) 수습한 후
이몽학(李夢鶴)1383의 무고(誣告)로써 조정에선 옳게 여겨
김덕령(金德齡)을 잡아다가 엄형(嚴刑)으로 중벌(重罰) 하올 때에
두개골(頭蓋骨)이 파괴되니 김덕령의 하는 말이
효자충신 김덕령이 무슨 죄로 죽습니까
이 같은 말을 하고 원통하게 국살(鞫殺)1384됨에
죽은 뒤에 액기 밑에 철퇴(鐵槌) 두 개 들었으니
사용 한 번 못 해 보고 억울하게 죽었구나
당시에 왜장 청정 김덕령(金德齡)의 화상(畵像) 보고
만고명장 탄복하다 우리나라 고금(古今)으로
혼자 권리 독점(獨占)코자 승기자(勝己者)를 염지(厭之)1385하여
장사 나면 다 죽이고 이인(異人) 나면 다 잡으니
인재는 많이 나도 적재적소(適材適所)1386 못 써 보고
원통하게 다 죽이니 그 누구의 잘못인가
이몽학(李夢鶴)은 어떤 자냐 홍산땅 서인으로
홍산에서 반란(反亂)하여 홍산과 임천 습격(襲擊)하고
청양과 정산 등의 열읍(列邑)을 전함하고
홍주를 진공(進攻)1387하니 그 위세가 당당(堂堂)하매
홍주목사 홍가신(洪可臣)1388과 박명현(朴名賢)1389과 최호(崔湖)1390 등이
홍주성을 토평(討平)1391하니 이몽학(李夢鶴)은 위급(危急)하여
덕산으로 달아나니 이몽학(李夢鶴)의 부하들이
석성에서 이몽학(李夢鶴)을 도로 잡아 바치거늘
이몽학의 하는 말이 김덕령(金德齡)과 공모(共謀)1392했다
거짓말로 아뢰기에 이 말을 옳게 여겨
김덕령(金德齡)을 격소(檄召)1393하여 역모(逆謀)로 국살(鞫殺)하다
일본병의 소행보소 못 당할 것 짐작(斟酌)하고
이여송(李如松)1394과 일본 사이 화의(和議)1395가 성립(成立)되어
왜군은 건너 가고 이여송 혼자 남아
명산대천(名山大川)1396 찾아다녀 신혈맥을 찌른 뒤에
요동으로 돌아가니 조선 인재 배출될가
심술(心術) 궂은 짓이로다 풍신수길 거동보소
임진년에 많은 군사 조선 와서 다 죽으나
분한 생각 참지 못 해 정유년 정월달에
다시 침로 하는구나 명나라 선재원차로
양호로 경리 삼고 형계로 총독(總督) 삼고
다귀로 도독 삼아 일만이천 거느리고

우리나라 또 도우니 소사평야 벌판에서
우리군사 대승하나 통재사 원균(元均)이며
이억기(李億祺)1397와 최호 등이 모두 함께 전사(戰死)하고
안음과 황석산성 일병이 함락하매
안음현감 곽준이와 그의 아들 이상과 이후
삼부자가 순절(殉節)하고 유문호는 초로되매
그의 부인 자결하니 조종도(趙宗道)1398가 시를 짓되
공동산외 생유희오 순원선중 사역영이라(空峒山外 生猶喜 巡遠城中 死亦榮)
일본장수 행장과 의지 남원성을 포위하니
명장수와 우리장수 십여인이 전몰(戰歿)하매
무술년 춘이월에 명나라 훈일원(薰一元)과
유정 등 장수들이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오고 진린은 절강수군
오백여수 영도하여 당진에 내박(來泊)1399하여
전라도로 내려가서 우리군과 합세(合勢)하여
처처(處處)에서 승전(勝戰)하니 명나라의 원병(援兵)의 은덕(恩德)
천추(千秋)에 잊지 못해 해군(海軍)의 이순신(李舜臣)은
한산대첩(閑山大捷) 하온 후에 명군과 합세하여
진도에서 또 이기고 애석(哀惜)할사 이충무공(李忠武公)
무술(戊戌) 십일월 십구일 남해계 노량진에서
적탄(敵彈)에 중환(中丸)1400하여 진중(陣中)에서 전사(戰死)하니
원통(寃痛)할사 이순신(李舜臣)은 동서고금(東西古今) 통해 봐도
이런 명장(名將) 처음이라 서해어룡동(誓海漁龍動)1401하고
맹산초목지(盟山草木知)1402라는 절명시가 전하도다
아산의 충렬사(忠烈祠)는 이장군을 뫼신 곳요
한산섬 부두에는 장군 동상 세운 후에
충무공의 임란 공훈 천추만대 찬양하다
그 뒤에 왜졸들이 처처(處處)에서 싸우다가
풍신수길 병사(病死)함에 수길의 유명(遺命)으로
왜병이 철퇴하니 기해년 구월 되어
팔년 풍진(風塵) 끝이나다 유해(有害)무익(無益) 전쟁으로
인명 재산 피해 크고 몇천년 오랜 사적(史蹟)1403
일조(一朝)1404에 회신(灰燼)1405되고 국용(國用)1406이 탕갈(蕩竭)1407되고
국토(國土)는 초토(焦土)1408되어 민생(民生)은 도탄(塗炭)1409이라
우연하게 침로하여 패해서 돌아가니
일본놈도 결단나다 임진왜란 팔년동안
누구 누구 공신(功臣)인고 문신(文臣)으로 이를진댄
이항복(李恒福)과 정곤수(鄭崑壽)요 무관(武官)으로 이를진댄

권율(權慄)과 이순신(李舜臣)과 원균(元均)이가 일등이라
일본병은 패하고 임진년에 패한 여분(餘憤)1410
제 잘못은 몰라 보고 풀지 않고 설치고자
아차하면 또 나올가 조야간에 근심터니
이때 마침 사명당(四溟堂)은 왜적을 예방코자
자칭하고 일어선다 사명당은 누구든고
서산대사 제자로써 속성(俗姓)1411은 임씨인데
예안의 출신으로 가화(家禍)1412로 집을 떠나
삭박위승 중이 되어 불서(佛書)에 도통(道通)1413하여
생불(生佛)1414이라 이름났네 임진왜란(壬辰倭亂) 일어날 때
승병(僧兵) 수천 거느리고 이여송(李如松)을 도와 가며
원종훈을 세우니라 행장을 수습하여
일본으로 건너가니 선조 삼십칠년이라
덕천가강(德川家康)1415 회견하고 임진란의 시시비비(是是非非)1416
낱낱이 설파한 후 사명당의 재주 보여
일본놈이 항복했네 사명당을 두려워하여
연년(年年)이 조공(朝貢)하되 해마다 삼백장의
인피 벗겨 바치기로 약조하고 왔다하네
그 사실은 모호하나 좌우간 삼백여년
침로 없이 지냈음은 사명당의 외교(外交)로다
선조 재위(在位) 사십일년 난리도 잦을시고
기축년엔 정여립(鄭汝立)1417이 모반(謀反)하여 일어서니
제령군수 박충간(朴忠侃)1418이 변란(變亂)을 고(告)한 후에
한응인(韓應寅)1419 등 삼장수가 이 난리를 평란하고
사십일년 무진 이월 선조대왕 승하(昇遐)하니
춘추가 오십칠에 목릉(穆陵)1420에 장사하다
아들이 열넷이오 공주가 열이로다
선조대왕 둘째아들 광해주가 즉위하니
천성(天性)이 난폭(亂暴)하여 선조대왕 계실 때에
동궁(東宮)1421을 바꾸려고 군신(君臣)이 논의하더니
뜻대로 못한 채로 졸연이 승하(昇遐)하니
광해 그만 즉위하여 광폭(狂暴)을 자아낸다
이이첨(李爾瞻)1422과 정인홍(鄭仁弘)1423 등 간신배가 만조(滿朝)하여
그 임금 그 신하에 변란(變亂) 어찌 없을소냐
학정(虐政)1424이 시작된다 충신은 죽이는 판
영의정(領議政) 유영경(柳永慶)1425을 역률(逆律)1426로 주살(誅殺)1427하고
형님 되는 임해군(臨海君)1428과 적제(嫡弟)1429되는 영창대군(永昌大君)1430
역모(逆謀)로 죽인 후에 종친(宗親)과 명사(名士)들을

수백인을 참살(慘殺)1431하고 이항복(李恒福)을 위사하여
수백여명 귀양가고 만조가 간신으로
이이첨과 정인홍의 두당류 뿐이로다
선조(宣祖) 국구(國舅)1432 김제남(金悌男)1433도 역률(逆律)로 치죄(治罪)1434하고
원통하다 영창대군(永昌大君) 팔세의 어린 나이
무슨 역모하였다고 방 가운데 가둬 두고
불을 때어 죽일 때에 손발톱이 다 타도록
방중에 헤매다가 원통하게 죽었구나
영창대군 죽인 후에 적모(嫡母)1435되는 인목대비(仁穆大妃)1436
폐출(廢黜)1437코자 의혼하네 허균(許筠)1438과 한찬남(韓纘男)1439과
한효순(韓孝純)1440과 정조(鄭造)1441 등의 폐모(廢母)론을 발게하고
몇 해 두고 벼르더니 반대하던 이항복(李恒福)은
북청으로 귀양가니 남은 간신 몇 사람이
패모론을 옳게 여겨 인목대비(仁穆大妃) 폐출(廢黜)하여
서궁에 안치(安置)1442하니 조야(朝野)가 황망(慌忙)1443하고
국민이 분개(憤慨)1444한다 권필(權韠)1445은 시인으로
시정을 풍론하되 궁류청청앵란비(宮柳靑靑鶯亂飛)1446하니
만성도리미춘휘(滿城桃李媚春暉)1447라 조가공하승평락(朝家共賀昇平樂)1448하니
수견위언출포의(誰遣危言出布衣)1449오 이와같이 발방트니
북방에 찬사하다 무오년 사월에는
심하역이 일어나니 만주태조 누르하치1450
여진족(女眞族)의 추장으로 흥경에 도읍하여
기세를 얻은 후에 명나라를 공벌(攻伐)1451코자
무순과 청하 위시하여 만주 일대 점령하니
명나라선 황급(遑急)하여 명사 신양호로써
우리나라 파견하여 구원병을 청하거늘
임진년의 제조은덕 명나라 괄시못해
도원수(都元帥)에 강홍립(姜弘立)1452과 부원수에 김응서로
이만여명 거느리고 원조하러 들어간다
기미년 삼월사일 명병과 연합하여
만주병과 싸우더니 강력한 만주병에
명군이 참패하매 광해주의 밀지(密旨)로써
강홍립은 투항(投降)하고 김응하(金應河)1453는 전사하고
김응서는 적군에게 거짓으로 항복하여
적장을 모살(謀殺)1454타가 도로 패해 죽은 이후
기미년 오월되어 화평조약 맺었구나
이와같이 변방에선 국사가 위급해도
광해주의 그 광망(狂妄)1455과 이첨과 인홍 그 간계(奸計)1456는

나날이 더욱 심해 사직(社稷)1457이 어지럽다
이이첨에게 불평하던 이는 이귀(李貴)1458와 김류(金瑬)1459이며
최명길(崔鳴吉)1460과 원두표(元斗杓)1461 등 수 십 인사 밀모(密謀)하여
계해 삼월 십삼일에 홍제원에서 모여 앉아
반정(反正)을 밀획하고 그 날 밤 새벽되어
김류를 대장 삼고 원두표를 선봉하여
수백명을 거느리고 돈의문(敦義門)1462을 쳐들어갈 때
훈련대장 이홍립이 반정군에 내응(內應)1463하여
돈의문을 열어주니 반정군이 쳐들어가
광해주를 내치어서 강화도로 안치(安置)하고
인목대비(仁穆大妃) 환궁하사 인조대왕 영립(迎立)하니
원종대왕 아들이오 광해주의 조카로다
첫째 왕후 청주한씨 둘째왕후 양주조씨
인조대왕 중흥하사 난신(亂臣)1464 수괴(首魁) 이이첨과
정인홍 등 팔십여명 모조리 다 죽이고
방동양 등 삼백여명 원지(遠地)로 정배(定配)1465가고
박흥규 등 백여명은 관직(官職)을 삭탈(削奪)하고
박승종 과 박자흥은 부자 함께 자살하고
억울하게 죽은 인사 관작(官爵)을 추복(追復)1466하고
귀양(歸養)간 명사(名士)들은 낱낱이 소환(召還)하고
인재를 선용할 때 영의정(領議政)에 이원익(李元翼)1467과
신흠(申欽)은 이조판서 이정구(李廷龜)1468는 예조판서
서성(徐渻)1469은 형조판서 대사헌(大司憲)에 오윤겸(吳允謙)1470과
부제학엔 정경세(鄭經世)1471요 김장생(金長生)1472은 장령(掌令)1473이오
장유(張維)1474와 이식(李植)1475 은 이조좌랑 정온(鄭蘊)1476은 헌납이오
김덕성(金德成)1477은 사간(司諫)1478이오 대사성(大司成)엔 정홍익에
천하의 정영기가 조정에 진취(進取)1479하다
팔도의 도원수에 장으로 삼은 후에
관서에 출진하고 반정공신 책봉할 때
이괄(李适)1480이 도원훈으로 김류와의 번복되어
이등훈에 내려가서 북병사로 좌천(左遷)1481되니
이괄(李适)이 불평으로 갑자년 정월달에
역모를 계획하고 일만이천 정병(精兵)으로
서울을 쳐 들어오매 인조대왕 황망하여
공주로 파천(播遷)1482하니 이괄의 거동보소
서울을 점거한 후 흥안군(興安君)1483을옹립하고
가정부(假政府)1484를 설치커늘 조정에선 분개하여
도원수에 장만(張晩)1485이오 부원수에 아수일과

정충신(鄭忠信)1486과 남이흥(南以興)1487 등 군졸을 거느리고
삼일간을 혈전하더니 동년 이월 십일일에
이괄군을 대파하고 서울을 수복하니
이괄은 도망가다가 부하되는 기익헌에
붙잡혀 피살되고 가짜 임금 흥안군도
광주에서 생포되어 이괄란이 평정됨에
서울로 환궁하다 때를 엿보던 이인거(李仁居)1488가
정묘년 구월되어 황성에서 반하거늘
관군을 동원하여 이인거를 잡은 후에
즉시 평란 되었더니 그 이듬해 정월에는
유효립(柳孝立)1489과 정심(鄭沁)1490 등이 또한 난을 일으켜서
서울로 향해온다 허적(許積)1491을 대장 삼아
관군을 동원하여 두 난적(亂賊)을 잡았구나
갑신년 삼월에는 원님 대신 심기원(沈器遠)1492과
광주부윤 권억(權澺)이가 모역하여 범궐(犯闕)1493하니
훈련대장 구인후(具仁垕)1494가 적당(賊黨)을 잡았더니
병술년 삼월되어 또 변란이 일어난다
유탁(柳濯)과 권대용(權大用)이 호서에서 반란하여
그 기세가 당당함에 이산하리 이석룡(李碩龍)이
변란을 고했더니 관군을 일으켜서
반적을 전멸하다 이괄의 모반시에
한명련(韓明璉)1495도 주살됨에 그의 아들 한윤이가
만주로 망명하여 강홍립과 합세하여
만주 임금 유인한 후 인조 오년 정묘세에
조선을 치러온다 삼만 대병 거느리고
국경을 넘어와서 의주를 점령하고
평양땅을 유린(蹂躪)1496한다 의주부윤 이완(李莞)1497이와
안주병사 남이흥과 황해감사 정호서(丁好恕)1498와
평안감사 윤선(尹銑)1499이는 싸우다가 패망(敗亡)하고
그 기세가 대단함에 조정에선 대경(大驚)1500하여
강화도로 파천(播遷)가고 강홍립(姜弘立)의 숙부되는
강인이가 일어나서 강홍립(姜弘立)을 달래가며
만주병을 안무하고 만주 사신(使臣)1501 유해와
두 차례 회담한 후 정묘년 삼월 되어
화평조약 체결한 후 개전한지 석달만에
만주병이 철퇴했네 인조대왕 기사년에
명장수 모문룡(毛文龍)1502이 만주에 내응함에
명나라 조정에선 진계성(陳繼盛)을 보내여서

모문룡을 모살(謀殺)하니 지의부하 유흥치(劉興治)가
만주군에 내응하여 진계성을 또 죽이니
조선명장 정충신(鄭忠信)과 이서(李曙)1503등 두 장수는
명나라를 도와가며 유흥치를 잡은 후에
변란을 제거하나 만주국의 소행보소
명나라의 편든다고 충동을 일으킨다
만주임금 황태극(皇太極)1504이 대청(大靑)이라 국호(國號)1505하여
황제라고 칭(稱)하고 용골대(龍骨大)1506와 마부대(馬夫大)1507의
두 사신을 보내와서 국서(國書)1508를 전달하되
그 태도가 거만함에 인조대왕 대노하여
두 사신을 쫓았더니 청태종이 분을 내어
병자 납월초 구일에 십이만명 거느리고
우리나라 치러온다 함평양성 석권(席捲)1509하고
서울로 육박(肉薄)1510함에 조정에선 황망하여
십이월 십삼일에 왕자(王子)와 빈궁(嬪宮)1511 그리고 종묘(宗廟)1512와 사직(社稷)
강화도로 옮긴 뒤에 김경징(金慶徵)1513을 보내여서
책임 지위 지켜있고 십사일은 인조께서
남한산성 파천(播遷)하자 적군은 서울안에
물밀 듯이 들어와서 삼군을 나누어서
강화도로 내려갈 때 천험(天險)1514 지리 강화도는
김경징(金慶徵)이 지키더니 육정 육갑 심장부를
재주만 믿고 놀다 호병(胡兵)의 거동보소
물밀 듯이 내려와서 강화도로 모여든다
김경징이 위급하여 신장을 불렀더니
아모리 외워봐도 신장은 오지 않고
늦게와서 절름발이 등대하여 하는 말이
대국의 호천자가 신장을 몰아가고
하나도 앞에 없거늘 자꾸만 왜 부르오
김경징이 실수하여 호병이 상륙커늘
이듬해 정월이라 강도가 함락됨에
왕자와 비반 종척(宗戚)들은 모조리 포로되고
그 외 수백 남녀노소(男女老少) 순절하여 죽느니라
인조대왕 파천나간 남한산성 어이됐나
수성한지 사십오일 호병에 포위되어
군량미가 끊어지고 일편고난 되었구나
싸움하는 장수들은 하나 없이 패망하고
외원(外援)1515도 하나 없이 모책(謀策)이 전무하다
남한산성 피난 대신 화척 양론(兩論) 일어나서

주화파(主和派)에 최명길(崔鳴吉)과 홍서봉(洪瑞鳳)1516과 김신국(金藎國)1517이
척화파(斥和派)엔 김상헌(金尙憲)1518과 정온(鄭蘊)1519과 오달제(吳達濟)1520며
홍익한(洪翼漢)1521과 윤집(尹集)1522이라 강도함락 비보(悲報) 듣고
군신상하 통곡하다 사직을 안보하고
백성을 안무(按撫)1523코자 치욕(恥辱)됨을 무릎쓰고
인조대왕 할 수 없이 화의(和議)코자 결론지어
세자를 보내시어 청태종과 회맹(會盟)하고
강화조약 맺은 후에 호병이 철퇴하니
정축 이월이일이라 청태종 들어갈 때
인조대왕 글 지으니 서교세우군신루(西郊細雨君臣淚)1524요
북궐의운부자정(北闕凝雲父子情)1525을 왕자와 신하 납치(拉致)하니
소현세자(昭顯世子)1526, 봉림대군(鳳林大君)1527 양 왕자와 삼학사(三學士)1528를 앞세우고
팔장사를 배종하여 심양으로 건너갈 때
삼학사는 누구든고 홍익한(洪翼漢)과 오달제(吳達濟)와
윤집(尹集)의 셋으로써 삼학사 죽일 때에
굴치 않고 항언하되 개와 같은 호천자야
네가 이 놈 무엇이냐 누르하치의 자손으로
대명을 소멸(消滅)하고 요순우탕문무주공
사천년 예악문물 일조에 다 없애고
살부대립 네 풍속을 삼천리 금수강산 네 속국을 만들려고 금수(禽獸)같은 네 무리를
몇천 몇만 거느리고 강포로 행악하여
무죄한 조선인물 저다지도 욕을 뵈니
천지도 무심하다 망으래기 덮어 쓰고
옥새(玉璽)1529를 전수하기 부끄럽지도 아니하냐
이와같이 꾸짖으니 호천자가 대노하여
셋을 함께 처형하니 장하도다 삼학사여
천추에 빛난 이름 지금까지 소연하다
소현과 봉림 돌아오고 호병이 돌아갈 때
가도에 주둔하던 조선에 징병커늘
명나라군 치기위해 부득이라 인조대왕
유림(柳琳)1530과 임경업(林慶業)1531 등 두 장수를 보내여서
군사 오천 거느리고 호병을 돕게하니
우리나라 임란도탄 명나라의 은혜 입어
바라보고 있었더니 입경업은 임오년에
해로로 귀규하여 명장수와 합류해서
청국 원수 갚자더니 인조대왕 갑신년에
명나라가 망했으매 뜻대로 못 되었네
슬프다 인조대왕 난리도 잦았으며

피난도 잦을시고 갖은 고생하시다가
이십칠년 오십오에 승하(昇遐)하니
오월달에 장릉(長陵)1532에 왕후릉도 한릉이라
장사하고 아들이 여섯이오 공주가 하나니라
효종대왕 즉위하니 그 왕후는 덕수장씨
벽자년의 성하지욕 목도하여 겪으시고
분심(忿心)1533이 탱천(撐天)1534하여 문신의 송시열(宋時烈)1535과
무신의 이완(李浣)1536대장 골육지은(骨肉之恩) 맺어 두고
군신이 모여앉아 북벌(北伐)1537계획 의논한다
적신의 김자점을 역률(逆律)로 주살하고
천문서와 자명종(自鳴鐘) 등 서양문물 전해오고
기계를 수입하여 공업을 이르키고
수차제(水車制)를 반포(頒布)1538하여 농업을 장려하며
대동법(大同法)1539을 시행하여 세제(稅制)1540를 정리하고
청전(淸錢)을 수입하여 엽전(葉錢)을 주조(鑄造)1541하고
군비(軍備)1542를 확창하여 각 지방 요세지에
산성을 쌓게 하고 의복을 개량(改良)1543하여
전시(戰時)에 편하게 하며 군대를 증모(增募)1544하여
복수심을 선전(宣傳)1545하며 민심이 통일되어
준비가 진섭(震懾)1546터니 춘추 불과 사십일에
효종대왕 승하하니 십년 두고 북벌 계획
일조(一朝)에 와해(瓦解)1547로다 효종대왕 즉위 후로
치국(治國) 치민(治民) 뜻은 없고 북벌계획 위주(爲主)1548하고
복수시를 지었으니 아원장구십만병(我願長驅十萬兵)하여
추풍웅진구련성(秋風雄據九連城)이라 지휘축답평교자(指揮蹙踏平轎子)하여
가무귀래향옥경성(歌舞歸來玉京城)이라1549 자자귀귀 포한(抱恨)1550이나
실상으로는 망발(妄發)1551이라 분하심을 생각하면
당당히 그렇게 하였겠으나 강약(强弱)으로 비교하면
그것이 될 말인가 천하를 호령(號令)1552하는
청나라를 대항하면 나라꼴이 어이될가
영릉(寧陵)1553에 장사하니 왕후릉도 한 릉이라
현종대왕 즉위하니 그 왕후는 청풍김씨
유약한 현종대왕 북벌계획 간데없고
환후(患候)1554로 계시다가 삼십사에 승하하니
숭릉(崇陵)1555에 장사하다 왕후능도 한 능이라
숙종대왕 즉위하니 그 왕후는 광주김씨
둘째 왕후 여흥민씨 셋째 왕후 경주김씨
숙종대왕 성군(聖君)1556으로 정사(政事)를 밝히시고

팔도를 미행(微行)1557하여 민정을 탐지하고
오리(汚吏)1558를 근절(根絶)하며 인재를 등용한다
국태민안(國泰民安)1559 좋을씨고 시화연풍 이때로다
한편으론 당파싸움 치열하게 일어나서
선조조를 지내와서 광해주를 십사년간
동인(東人)의 대북(大北)당이 권리를 독점하더니
광해주를 쫓아내고 인조반정(仁祖反正)1560 이룬 것은
서인(西人)들의 힘으로써 인조(仁祖), 효종(孝宗), 현종(顯宗)까지
삼대(三代) 오십여년이나 서인(西人)들의 천하(天下)러니
숙종 때 이르러서 남인 중 허목(許穆)이와
서인 영수(領袖)1561 송시열(宋時烈)과 서로 불평 일으키어
송시열을 모함하여 제주도로 정배(定配)하고
남인의 허적(許積)이의 서자(庶子)되는 허견(許堅)1562이가
모역하다 발각됨에 허적(許積) 등이 패망(敗亡)하니
서인이 또 득세(得勢)하여 서인 중에 노론(老論)과 소론(少論)
저희끼리 다투더니 남인(南人)의 허목(許穆)이가
정권을 잡은 후에 남인이 또 일어서네
남인의 용계로써 숙종대왕(肅宗大王) 후궁(後宮)으로
장희빈(張禧嬪)1563을 선출(選出)1564하니 글 잘 짓고 인물 있어
숙종대왕 성군(聖君)이 되어 장희빈(張禧嬪)에 혹(惑)하여서
장희빈을 승존하고 민비(閔妃)를 폐출(廢黜)함에
박태보(朴泰輔)1565, 오두인(吳斗寅)1566과 이세화(李世華)1567 등 세 사람이
불가(不可)함을 간(諫)하다가 전신(全身)을 불로 지져
참혹하게 죽였으며 송시열(宋時烈)도 사사(賜死)1568하고
김수항(金壽恒)을 비롯하여 숱한 사람 다 죽이고
귀양 가고 관직 뺏어 계집 하나 까닭으로
이래서 될 말인가 성균 생원(生員) 김석겸은
당대의 명유로써 당파싸움 더럽다고
벼슬 줘도 받지 않고 글만 읽고 들어앉아
여생(餘生)을 마쳤다네 목창명(睦昌明)1569의 장계(狀啓)1570로써
숙종 때 이름있는 기사사화(己巳士禍)1571 이것이라
서인(西人)의 김춘택(金春澤)1572이 중규 갔다 오는 길에
폐비 소문 전해 듣고 숙종대왕(肅宗大王) 회심(回心)1573코자
책 한권을 지었으니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1574로다
숙종이 보신 후에 마음 자연회심되어
내 마음을 유혹함은 네놈들의 소위(所爲)로다
나 이제 결심하고 단정(斷定)1575을 내리어서
후일을 증습하리 장희빈을 사사하고

장희재(張希載)1576 등 남인(南人)들을 모두 함께 주살하고
서인(西人)이 또 득세(得勢)한다 숙종대왕(肅宗大王) 착하시나
당파싸움 사십여년 업적(業績)이란 무엇있나
박권(朴權)1577을 명령하여 백두산상정계비(白頭山上定界碑)1578와
안용복(安龍福)1579의 노력으로 울릉도를 추환한 것
이 두 가지 뿐이로다 경자 유월 승하하니
춘추가 육십이오 재위 사십육년이라
명릉(明陵)1580에 장사하고 경종(景宗)1581이 즉위하니
궁중요화 이름났던 장옥란의 아들이라
첫째 왕비 청송심씨 둘째왕비 함종어씨
경종 재위 사년동안 고질(痼疾)1582로써 신음되어
정신이 혼미(昏迷)1583하여 정사를 듣지 못해
임금이란 시동이라 경종(景宗) 원년(元年) 팔월에는
노론(老論)의 사대신인 김창집(金昌集)1584, 이이명(李頤命)1585과
이건명(李健命)1586, 조태채(趙泰采)1587가 세제를 책봉(冊封)하고
영조(英祖)1588를 내세우니 소론파에서는 반대하여
금상춘추 정성하고 병세가 위급하지 않사오니
대리함이 불가라고 사화(士禍)를 일으킨다
경종(景宗) 원년(元年) 십이월에 노론(老論)들은 쫓겨나고
삼상 육조 훈장까지 소론당이 독점하여
노론당 수백여명 모함하여 참살하니
신임사화(辛壬士禍)1589 이것이로다 경종대왕 승하하고
영조대왕 즉위하니 첫째 왕후 달성서씨
둘째 왕후 경주김씨 영조대왕 동궁시에
소론들의 야심으로 영조를 모해(謀害)하니
요행(僥倖)1590으로 탈면하여 왕위에 오른 이후
인자하고 총명하여 내심에는 수원되나
뿌리 박힌 소론당을 급작스럽게 제거하면
후환을 두려하여 서서히 처리하되
소론중에 급진파인 김일경(金一鏡)1591 목호룡(睦虎龍)1592과
박필몽(朴弼夢)1593 등 세사람을 맨 먼저 처벌 한 후에
그 이듬해 을사년에 소론파인 이광좌(李光佐)1594와
유봉휘(劉鳳輝)와 조태억(趙泰億)1595을 원지(遠地)로 유찬(流竄)1596하고
노론의 내각조직 을사환국(己巳換局) 이 아닌가
노론정치 삼년만에 그 중에도 과격파는
소론전멸 주창함에 영조대왕 우려하여
과격파를 물리치고 완화파를 또 부르니
정미환국(丁未換局)1597 이것일세 영조 사년 무신세에

쫓겨나간 급진파와 실세(失勢)한 남인당의
십인이 결탁하여 밀풍군(密豐君)1598을 추대한 후
반란을 일으키다 청주, 태인 점령하고
영남 열읍 짓밟으니 조정에선 분노하여
도순무사 오명항(吳命恒)1599과 순무중군 박찬신(朴纘新)이
십적을 물리치고 무신란이 평정되니
소론들의 공이로다 그 후 소론 기세하니
영조대왕 미워하자 당파를 우려하고
소론의 조문명(趙文命)1600과 노론의 김재로(金在魯)1601를
궐내에 불러들여 탕평책(蕩平策)1602을 분부하니
소론의 소위보소 영조를 비방하고
삼십일년 을해 봄에 소론파가 밀모하여
반역을 도모타가 사전에 발각되어
영조대왕 진노(震怒)1603하사 소론을 대살하고
노론을 들어쓰니 만조소론 겁을 내어
전라를 회오(悔悟)1604하고 노론에게 굴신(屈身)1605하여
생명지위 보존할 뿐 다시 거두(巨頭)1606 못하였네
선조 팔년 을해부터 동서인의 분쟁(分爭)으로
난세에도 당파싸움 평사에도 당파싸움
시시비비(是是非非) 논쟁 끝에 목을 치고 귀양 가고
못 이르게 엎지르면 엎어진 놈 일어나서
치던 놈을 도로 치니 이래서야 나라 일을
바로 볼 수 있겠는가 광해주 십사년간
대북(大北)의 천하였고 인조 이후 오십여년
서인의 천하였고 숙종 재위 사십여년
전반의 이십년은 서남인의 투쟁(鬪爭)이오
후반의 이십년은 노소론이 쟁탈(爭奪)하다가
경종(景宗), 영조(英祖) 이십년은 그 싸움이 참혹(慘酷)하여
노론이 대승하고 당파싸움 중지되나
삼백년간 당쟁(黨爭)으로 국가대계 고사하고
사리사욕(私利私慾)1607 급급함에 국운(國運)이 쇠퇴(衰退)하다
영조(英祖)는 영걸(英傑)이라 재위(在位) 오십이년간에
당쟁을 진압(鎭壓)하고 문치(文治)1608에 전력할 때
주뢰(周牢)1609와 난장(亂杖)1610같은 못된 형벌 삭제하고
신문고(申聞鼓)1611를 설치하여 민성(民聲)을 듣게 하고
대전통편(大典通編)1612 만들어서 형법을 정리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사치를 엄금하며
금주령을 내려서 균세법을 시행하고

빈민을 구휼(救恤)1613하며 학문을 장려하여
인재를 배양(培養)하며 서적을 편찬하니
인문이 대진하다 사도세자(思悼世子)1614 죽인 것은
천추에 잘못이네 사도세자 누구든고
영조대왕 아들로써 동궁(東宮)으로 있을 때에
영특(英特)하고 총명(聰明)하여 십세에 지은 글이
조일청명 가독서오 천금불귀 독서귀라
영조대왕 이상하다 간신들의 말만 듣고
뒤주 안에 가두어서 참혹하게 죽였으니
홍봉한(洪鳳漢)1615이 고약하다 사도세자 장인으로
당파싸움 기인되어 그 사위를 없애려고
영조에게 규언하니 그 말을 옳게여겨
참혹하게 죽였으니 춘추가 십팔이라
그 뒤에 추존(追尊)되어 장조라 일컬으다
병신년 삼월달에 영조대왕 승하하니
춘추가 팔십삼에 이십팔왕 제왕 중에
장수하기 제일이오 재위가 오십이년
보위연수 제일이라 원릉(元陵)1616에 장사하고
그의 아들 진종대왕(眞宗大王)1617 경의군을 봉한 후에
영특하고 비범하더니 십세에 요사(夭死)1618하니
추존으로 들어오고 정조(正祖)1619대왕 즉위하니
영조의 손자되며 사도세자 아들이라
그 왕비는 청풍김씨 정조대왕 즉위 후로
아버지를 생각하여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비 원수 갚으려다 영조의 유명(遺命)1620으로
뜻대로 못 되어서 여기서 가만 있게 되면
아버지의 능에 가서 통곡하고 돌아오니
그 효성도 대단하다 정조대왕 어리실 때
세손(世孫)으로 책봉하니 일후(日後)에 즉위하면
아비 원수 갚을가봐 홍인한(洪麟漢)1621과 정후겸(鄭厚謙)1622이
백방(百方)으로 모해함에 홍국영(洪國榮)1623이 앞장 서서
진충보호 하였음에 모해망을 벗어나와
왕위에 오른 이후 홍국영을 특제하와
금위대장(禁衛大將)1624 시킨 이후 홍인한, 정후겸과
문소의는 사사하고 윤양후(尹養厚)1625는 경폐(徑斃)1626하고
이상로와 심상운은 목을 쳐서 처형하고
남은 당을 쫓아내니 노론들이 모여 앉아
왕손 찬을 추대하고 역모를 도모함에

홍술해(洪述海)1627의 아내 정씨 그의 아들 홍상범 등
역당(逆黨)을 처형하고 채제공(蔡濟恭)1628과 정종겸 등
명재상이 보필하여 치정을 개혁하고
학문에 정통하여 문학이 대진(大振)하니
이조의 문왕이라 재위한지 이왕 십비 사능년
사십구에 승하하니 건릉(健陵)1629에 장사하고
왕비능도 한 능이라 아들이 두 분이오
공주도 두 분이라 순조(純祖)1630대왕 즉위하니
십일세의 어린 임금 국구(國舅)인 김조순(金祖淳)1631이
정사를 보좌할 때 그 당시 폐풍(弊風)1632으로
문약이 신중하여 허식(虛飾)1633이 왕성하고
권리에 부복되며 유생들은 거만하여
향교 서원 소굴 삼아 반상(班常)1634 구별 대단하고
잔민(殘民)1635을 토색(討索)하고 문벌로 사람 쓰고
서북인을 배척하고 무사를 천대(賤待)1636하며
중들을 쫓아내어 국정이 부패한 중에
임금 역시 유약(幼弱)하여 김조순의 정권으로
김씨 세도(勢道)1637 시작한다 규법이 문란하여
난리가 일어나다 순조대왕 십일년에
홍경래난(洪景來亂)1638 일어나니 홍경래(洪景來)1639는 누구든고
서북인의 출신으로 계급구별 불평하여
난리를 일으켜서 우군칙(禹君則)1640과 밀모하여
가산을 빼앗은 후에 정기를 죽인
박천과 안주를 함락한 후 다음 임신년 정월에는
정주를 근거 삼아 인근 열읍 침략하니
북병사 이해우(李海愚)1641가 통우후 이해승(李海昇)과
함종부사 윤유열과 순천군수 오치수와
곽산군수 이호식을 영군하여 진격하니
전군(全軍)이 대파(大破)함에 윤유열, 이호식은
곽산과 선천을 수복하고 의주부윤 조흥진은
김견신과 허항으로 용천과 철산 수복하나
정주성은 수복 못해 선천부사 김익순과
이장겸, 정경행과 정성한은 종반하니
도순찰사 이요헌과 순무중군 박기풍이
패하여 돌아오매 유효원을 체대하여
혈전한지 두달만에 정주성을 탈환하고
홍경래를 잡은 후에 난리는 평정되나
수많은 장졸들의 살육이 과다함에

환군한 유효원의 관직을 혁탈하다
갑오년 十一월에 순조대왕 승하하니
춘추가 사십오며 재위 삼십사년이라
인릉(仁陵)1642에 장사하고 아들 되는 익종(翼宗)1643대왕
이십이에 작고하니 추존으로 문조되고
헌종(憲宗)1644이 즉위하니 춘추 겨우 팔세로다
그 왕비는 안동김씨 둘째 왕비 남양홍씨
헌종이 유충함에 순원(純元)1645, 신정(神貞)1646 양대비가
수렴청정(垂簾聽政)1647 하올 때에 순원 외척(外戚) 김문근(金汶根)1648과
신정 최척 조인영(趙寅永)1649은 둘이 서로 쟁권(爭權)1650하고
국구(國舅)되는 조만영(趙萬永)1651과 외척되는 김좌근(金左根)1652과
정원용(鄭元容)1653, 권돈인(權敦仁)1654이 반대파를 물리치고
국정을 좌우하니 문란한 세태(世態)로다
재위한지 십오년에 이십삼세 승하하니
경릉(景陵)1655에 장사하고 두 왕비도 한 능이라
헌종이 아들 없어 영조대왕 증손되고
전계대원 아들 되는 강화도령 모셔 와서
임금에 추대하니 철종(哲宗)1656대왕이아닌가
철종 또한 유충(幼沖)1657하여 국구(國舅)되는 김문근(金汶根)이
대정을 협찬하니 김좌근(金左根)은 좌상(左相)1658이오
김병국(金炳國)1659은 훈련대장 김병학(金炳學)1660은 대제학(大提學)에
김병기(金炳冀)1661는 찬성이라 김흥근(金興根)1662은 판중추요
김응근은 판서(判書)이오 김병덕(金炳德)1663도 판서이라
한나라의 모든 권리 김씨문에 포만하니
안동김씨 세도로다 모든 사기 잠간 두고
오백년래 이조문화 다시 한 번 살펴보세
종교로 이를진댄 유교(儒敎)가 대성하여
세종(世宗), 성종(成宗) 두 임금은 이것을 숭상(崇尙)하여
김종직(金宗直), 김굉필(金宏弼)과 정여창(丁汝昌), 조광조(趙光祖)며
이언적(李彦迪), 김인후(金麟厚)와 이황(李滉)과 성혼(成渾)이며
김장생(金長生), 김집(金集)이며 이이(李珥)와 조헌(趙憲)이며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과 박세채(朴世采) 등 대유현이
연달아 일어나고 변계량(卞季良)1664 박팽년(朴彭年)1665과
성삼문(成三問)1666, 신숙주(申叔舟)1667등 대시인도 배출되고
불교는 쇠진(衰盡)1668해서 산간으로 숨어들어
근근히 전해오나 영광, 서산, 사명당 등
고승(高僧)1669이 있었으되 독선기신(獨善其身)1670 할 뿐이오
야소(耶蘇)1671교는 선조 때에 허준이가 중국가서

처음으로 전해온 후 압박을 받았더니
정조 때에 재기하여 전국에 퍼졌드니
정약종(丁若鍾)1672을 비롯하여 수백인의 신도들이
모두 함께 주살되어 그 후에 또 불란서(佛蘭西)1673에서
입국선전 하였으나 흐지부지 하여 있고
선교는 단학이라 남사고(南師古) 등 몇몇 사람
주창하여 나오더니 그도 그만 미성(未成)하고
동학(東學)1674의 천도교(天道敎)1675는 최제우(崔濟愚)1676가 창립하여
신도가 많았으며 철학의 서경덕(徐敬德)과
사학엔 서거정(徐居正)과 정인지(鄭麟趾)가 제일이오
천문학엔 김석문(金錫文)1677과 정두원(鄭斗源)1678, 안태중과
경학(經學)1679으로는 이언적과 이황(李滉)이 으뜸이오
법학(法學)으로는 최치운(崔致雲)1680과 정약종(丁若鍾)도 있었구나
의학으로 이를진대 허준(許浚)1681의 동의보감(東醫寶鑑)1682
강명길(康命吉)1683의 제중신편(濟衆新編)1684 그모두가이름나고
다산(茶山)선생 정약용(丁若鏞)1685은 천문, 지리, 의학이며
복서(卜筮)1686, 상문(傷門)1687 백 가지에 어이 그리 능통한고
공예로 말할진댄 세종조의 천문음악
이순신(李舜臣)의 거북선과 정운상의 비학선은
세계적 이름 높고 한석봉(韓石峯)1688, 김정희(金正喜)1689 등
명필가도 있었으며 박연(朴堧)1690의 음률이며
홍대용(洪大容)1691의 양금(洋琴) 등의 예술도 대단하다
반만년래 긴긴 문화 이조(李朝)때에 성숙하게 피어
극단으로 발달하나 고루독단 불교사상
사람마다 물드리여라 여제삼국같은
그런 예술 보지못해 개척력이 결핍했네
철종(哲宗) 말기 들어서서 국운이 쇠퇴하여
사회제도 피폐(疲弊)1692함에 곳곳마다 일어나는
민란(民亂)어이 막아내리 십삼년 이월에는
이명윤(李命允)1693의 주창(主唱)하는 진주민란1694 일어나고
동년 사월 개령 땅에 김규진(金奎鎭)1695의주창하는
민패교구 통문내고 인민을 충동함에
이를 잡아 가뒀더니 수천명의 촌민들이
벌떼 같이 몰려들어 옥문(獄門)을 파괴한 후
김규진을 석방하고 경상감사 이돈영(李敦榮)과
개령 현감 김후근(金厚根)1696을 즉석에서 파출(罷黜)1697하고
이방, 수교, 하리 등을 관문에서 박살한 후
후임자 보내기를 조정에 간청하고

함평에도 정한순(鄭翰淳)1698이 도당을 모은 후에
기치(旗幟)1699와 죽창(竹槍)1700들고 관아(官衙)에 난입(亂入)1701하여
함평현감 권첨규를 파직토록 하였으며
이밖에도 각처에서 민란이 일어나니
익산, 회덕, 공주, 은진의 피폐한 국민들은
탐관오리(貪官汚吏) 시정코자 연달아 봉기(蜂起)하나
탐관부덕 더욱 심해 양반계급 몰락코자
최제우(崔濟愚)가 창도하는 동학(東學)이 일어나서
평민횡침 못하도록 각별통찰 해가면서
종교활동 하였든바 사회모순 시정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1702도라하여 최제우를 비롯하여
그의 무리 이십여명 경상감영 사복당해
철종 말년 이르러서 사형당하고 말았더니
그의 교도 전봉준(全琫準)1703이 고종황제 갑오년에
동학란을 일으켰네 재위 불과 십사년에
철종대왕 승하하니 후사(後嗣)1704가 없으므로
영조대왕 후손되는 흥선군(興宣君)1705의 둘째아들
고종황제 입승했네 흥선군을 추대하여
대원군(大院君)을 갱봉하고 그 왕후는 명성민씨
민치록(閔致祿)1706의 따님이라 십삼세 어린임금
대원군이 섭정한후 六十년간 외척세도
모두 다 배척한 후 자당 내각 조직하니
군국의 대궐 리가 대원군에 돌아가다
국정을 개혁코자 제도를 고친 후에
사색당파 제거하고 남북사람 털어놓고
인재따라 등용한 후 서원을 회철하고
전국에 엄명하여 토색을 엄금하며
한사람도 독권으로 전횡함을 방지하고
병역제를 균등하며 탐관오리 엄벌하고
사치를 금지하니 오백년 때 처음 보는
대영단을 내리시다 즉위한지 이년되어
임진란때 타버렸던 경복궁(景福宮)을 중건(重建)할 때
전국에 명령하여 역부를 소집한다
국고금이 부족하여 결두세를 징수하고
원납, 금을 강징하여 삼년만에 낙성하다
광무(光武) 삼년 정월에는 노국군함 원산와서
통상을 청하거늘 대원군의 고집보소
이것을 배척하고 전수의 계책으로

군비를 대수할 때 소총과 군도 등은
일본에서 구입하고 서양에서 만든 대포
청국에서 사드리고 강화와 인천 두 곳에다
포매를 축조하며 도성을 수축하여
국방에 힘을쓰다 이 때 마침 천주교가
본국에 들어와서 교도인 남종삼(南鍾三)1707 등
불란서를 배경 삼아 전국에 선교함에
대원군의 거동보소 쇄국주의(鎖國主義)1708 정책으로
천주교의 탄압령을 전국에 선포하여
남종삼, 정의배(丁義培)1709와 김장운, 최형 등의
수백 신도 학살하고 고종 삼년 정월부터
이월까지 두달동안 불란서 선교사를
아홉사람 또 죽이니 불란서에서 보도 듣고
광무 삼년 구월 되어 포함척 거느리고
양화진에 투묘(投錨)1710하고 칠척은 물치도에
각각 투묘하온 후에 갑천진에 상륙한 후
고지를 점령하고 군기와 서책 약탈함에
순무사에 이경하(李景夏)1711와 어영중군 이용희로
이천병세 거느리고 불함매를 대파하다
대원군은 두 차례나 양선을 격퇴하고
일본군함 운양호도 강화에서 쫓아내고
척화론을 주창하여 쇄국주의 실현하다
대원군이 과감하여 실정 개혁 좋것만은
권리남용 너무 심하고 쇄국정책 큰 혐(嫌)이라
민파일달 소청(疏請)1712으로 대원군은 퇴거하니
섭정한지 십년만에 고종황제 친정(親政)1713함에
민비친가 일당들이 안동김씨 모양으로
국정간섭 대단하니 대원군이 퇴거하여
분한생각 날로 심해 민씨파와 원수되어
시기 질투 심하구나 병자년 이월에는
일본과 수호할 때 통상조약(通商條約)1714 체결하고
인천, 부산, 원산 등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공사 화방이질 서울에 내주(來住)하다
십팔년 사월에는 조준영 등 십일청년
일본으로 파견하여 문물제도 시찰하고
팔월달엔 안기영이 고종황제 서형되는
이제선을 추모하다가 이풍래의 고변으로
안기영, 권정호와 이철구, 채동술 등

사인 함께 복주(伏誅)되고 김옥균(金玉均)1715을 보내여서
서양문물 견습했네 민씨파의 개화주의
더욱 더욱 심해져서 십구년 임오세에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1716 라무위, 장어 이영 두어
이경하(李景夏), 신정희(申正熙)1717로 대장을 삼은 후에
일본인 굴본예조 서울로 초빙하여
병제훈련 실시하여 별기군이라 이름하다
진신자제 백여인을 기예를 교습하니
사관생도 이것이라 임오년 육월에는
훈국군졸 대기하여 배고프다 소리치며
모래 섞인 군량미는 못 먹겠다 외치고서
권위제가 경산사를 파리하고 불찌르고
선혜당상 민겸호(閔謙鎬)1718와 경기감사 김보현(金輔鉉)과
일본인 굴본예조 붙잡아서 죽인 후에
궐내에 난입하여 민비를 잡으려다
홍제희의 구조로써 민비는 도망해서
장호원에 숨어 있고 반란군은 다시 이어
공사관을 포위하니 일본공사 화방이질
제물포로 도망하여 영국배를 잡아타고
일본으로 달아나다 대원군이 입성하여
반란군을 진압한 후 정권을 다시 잡고
군국기무 정리하니 민비가 난군중에
피살된 줄 짐작하고 국휼(國恤)1719을 발표한 후
민당을 몰아내고 자당을 소집하여
조정에 포열하니 팔월에 민황후가
충주에서 돌아와서 고종황제 움직이어
대원군을 쫓아내니 임오군란(壬午軍亂)1720 이것이라
임오군란 소식통(消息通)이 청국에 전해가니
원세개(袁世凱)와 오장경(吳長慶)1721이 수천병력 이끌고서
서울에 내착하고 일본서도 화방이질
죽첨이가 내주하니 서울과 인천 사이
살기가 충천(衝天)하다 일본인의 소행보소
임오군란 그 당시에 공사관을 습격하고
일본공사 추방함에 한국정부 상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하니 고종황제 할 수 없이
김홍집(金弘集)1722을 명송하여 일본공사 화방이와
수호조약 체결하고 친일을 꾀하더라
수신사에 박영효(朴泳孝)1723와 개화당에 김옥균(金玉均)1724과

홍영식(洪英植)1725과 서광범(徐光範)1726등 네 사람을 보내여서
일본규정 시찰하고 중국의 원세개가
이홍장(李鴻章)을 시키여서 민당을 이용하여
내정(內政)을 간섭함에 독립을 주창하든
김옥균과 박영효가 청국을 배척하고
유신정치(維新政治) 하려다가 만조정의 완고파가
일제히 반대함에 김옥균, 박영효와
홍영식, 서광범과 서재필(徐載弼)1727 등 다섯사람
갑신월 십칠일 밤 우정국 낙성연에
화재를 일으키고 정변을 조작하여
사관생도 일으켜서 이조연, 윤태준과
한규직, 민영목과 민태호, 조영하와
유재현을 병살(竝殺)한 후 고종황제 모셔다가
창덕궁에 이어하고 일본병을 모아다가
궐문내에 돌입하여 변란을 일으키고
개화당의 인물들이 정권을 잡게 되니
완고파가 청국으로 변란을 급고(急告)하니
원세개의 거동보소 청국병정 거느리고
궐문을 쳐들오니 일본군은 패주(敗走)1728하고
홍영식, 박영효와 생도 칠인 피살되고
김옥균 등 남은 사람 일본으로 도망가니
갑신정변(甲申政變)1729 이것이라 그 뒤 우리나라에서
일본, 청국 두 나라가 서로 다퉈 쟁권(爭權)함에
우리대표 김홍집과 청국대표 이홍장과
일본공사 이등박문(伊藤博文)1730 천진조약(天津條約)1731 맺은 후에
조선간섭 안 하기로 두 나라가 철퇴(撤退)1732했네
일본청국 통상 맺고 구미(歐美) 각국 통상한 후
우리나라 사신들도 동서각국 파견하다
조정을 살펴보니 정권의 쟁탈로써
동서열국 등을 대고 일본파니 청국파니
노국파니 하는 판에 국정은 부패되고
백성은 도탄(塗炭)이라 관리들의 전횡(專橫)으로
매관매직(賣官賣職)1733 일삼으며 탐관오리(貪官汚吏) 절로난다
갑오년 사월에는 동학교주 최제우가
철종말에 순교하매 그 문인의 최시형(崔時亨)1734이
전봉준(全琫準)1735을 대장 삼아 삼남열읍 동학신도
수십만을 영솔(領率)하여 대란을 일으키니
이 때의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1736의 실정(失政)함을

이것을 기회 삼아 군수를 죽인 후에
고부군을 점령하고 양반을 도륙(屠戮)1737한 후
전주를 함락하니 관군의 홍계훈(洪啓薰)1738은
전라도서 전패하니 충청도를 석권하여
서울로 올라온다 조정에선 대경(大驚)하여
청국으로 청병(請兵)하고 이두항, 성하영과
이규태의 관군들은 일본병을 연락하여
공주에서 마주 싸워 십여일을 연전하더니
동학군이 대패하여 전봉준은 포주되고
전주읍을 수복하여 김개남(金開男)1739을 또 잡으니
동학민은 평정되나 청국, 일본 두나라가
천진조약 위반으로 동학난에 출병하니
청국의 엽지초는 팔백명을 이끌고서
아산에 상륙하고 일본의 대도소장
일여단을 거느리고 인천에 상륙하여
두나라가 충돌하매 갑오 팔월초 일일에
청일전쟁 일어나서 청국이 패망(敗亡)하고
일본이 대승하여 하관(下官)1740조약 맺은 후에
청국병은 철퇴하나 일본인의 소행보소
군국권리 독점하여 김홍집을 수반으로
친일내각 조직한 후 관제를 개혁하여
반상구별 전폐(全廢)하고 인신매매(人身賣買) 금지하여
조혼(早婚)1741을 방지하고 과부 개가 허락하며
개국기원 사용하여 사대사상(事大思想)1742 근절하고
세법을 개정하며 도량형법 발포하고
우편을 게시하며 음력을 폐지하고
양력을 시행하며 종두법(種痘法)1743을 실시하고
단발령(斷髮令)1744을 내린 이후 재판제도 만든 후에
층량법을 시행하고 구습(舊習)을 타파하여
남녀평등 권리주다 갑오경장(甲午更張)1745 잘했으나
일본인의 간섭으로 시행이 부진하다
그 뒤에 또 아라사가 통상조약 맺은 후로
청국을 대신하여 우리나라 들어오니
이완용(李完用)1746등 친아파가 친일파(親日派)1747와 대립하여
세력 다툼 심하구나 친일파의 소행보소
민씨일파 제거하고 반대세력 대원군을
앞장세워 작란하니 우범선과 이두항이
내전에 침입하여 명성황후(明成皇后) 시살(弑殺)1748하고

홍계훈, 이경식 등 모두 함께 살해한 후
친아파를 몰아내고 친일내각 조직하니
을미사변(乙未事變)1749 이것이라 친아파인 이범진(李範晉)1750은
아라사와 협친하여 친일파를 배척하고
친아를 주창하니 아라사는 득세하여
함경북도 경원이며 회령, 종성 광산 경영
압록연안 산림벌체 아라사서 경영하니
일본 또한 못지않게 서울과 부산사이
경부철도 부설하고 충청도 직산금광
제멋대로 체굴한즉 미국서도 욕심내어
경인철도 부설하고 운산금광 경영하며
불란서도 뒤따라서 서울, 의주 철도권을
제멋대로 장악하며 영국인은 은산광산
독일인은 금성광산 한스럽다 금수강산(錦繡江山)
열강국이 침입하여 임의대로 경영하고
권리다툼 자리되니 대원군의 쇄국정책(鎖國政策)
이것알고 한것이지 고종황제 거동보소
노국관에 머믈다가 건곤일척(乾坤一擲)1751 마음 돌려
외국세력 배척하고 사대사상 그만두고
독립국가 선언하니 대한제국 이아닌가
황제라 존호(尊號)하고 광무(光武)라 연호(年號)지어
정유년 팔월달에 즉위식을 거행하여
자주독립 선포하다 서재필(徐載弼), 이상재(李商在)1752와
윤치호(尹致昊)1753 등 세사람은 독립협회 조직하여
독립신문 발간하니 고종황제 의심하여
독립협회 미워하여 홍종우(洪鍾宇)1754에게 명령해서
황국협회(皇國協會)1755 조직하고 독립협회 대립하니
노서아(露西亞)1756의 거동보소 여순을 얻은 후에
우리나라 무시하고 용암포를 요구한즉
일본인의 반대로써 용암포를 못 얻으매
노국과 일본 원수되어 광무 사년 경자세에
일러전쟁 일어나서 일본이 대승함에
우리나라 주재하던 노국인을 몰아내니
금수강산 삼천리는 왜놈들의 독무대라
일본놈의 야심보소 한국을 보호한다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일본대사 이등이와
이완용과 두금사이 을사년 십일월에
오조약을 체결하니 일본사람 용감두고

일본사람 외교고문 한국내정 간섭하니
국민들은 분개하여 이완용, 권중현(權重顯)1757과
박제순(朴齊純)1758, 이지용(李址鎔)1759과 이근택(李根澤)1760 등 오역적의
매국소행 비난하고 시종무관 민영환(閔泳煥)1761은
통분하여 자결하되 국치민욕(國恥民辱), 내지어차(乃至於此)
도이일사(徒以一死) 앙보황은(仰報皇恩) 행아동포(幸我同胞) 천만분려(千萬奮勵)
결심육력(決心戮力) 복아독립(復我獨立)1762 충절(忠節) 유서(遺書)남기고서
세상을 떠났으니 죽은 자리 혈죽나서
충절됨을 말하도다 전주서 나인영(羅寅永)1763과
오기호(吳基鎬)1764, 김인식은 오역적을 모살하다가
불수하고 자현하며 송병선(宋秉璿)1765, 홍만식(洪萬植)1766과
조병세(趙秉世)1767, 이상철과 김봉학은 자결하니
오조약 사절신의 유서 한 장 남겼으니
강인유맹으로 적신이 매국이라
오백년 종사가위여 철소하고
이천만 생령이 행장노예로다
지사가 부혈하니 음읍지추로다
상보국가하고 하사인민하노라
이와같이 지었으니 구구절절 충의로다
이로부터 우리나라 왜놈 손에 넘어가네
조약대로 실천코자 이등박문 통감되어
한국으로 건너오고 내란을 의심하여
일지회를 조직하되 윤시병 등 친일파가
일본에 아부하여 오조약을 실현하니
전국의 방방곡곡 의병을 일으켜서
왜병과 대항하여 혹승 혹패 있었으나
군기군량 미비하여 처처에서 봉패(逢敗)1768하네
대한광무 십일년에 만국평화 회담이
해아에서 열리길래 원통한 한국사정
열국에 호소코자 이준(李儁)1769과 이상설(李相卨)1770과
이위종(李瑋鍾)1771 등 세사람을 밀사로 파견한바
일본인의 방해로써 참가못함 분격하여
회의석에 뛰어들어 배를갈라 피뿌리니
일본인은 감정내어 조약위반 하였다는
밀사사건 구실삼아 전위(傳位)1772함을 강권하니
슬프다 고종황제 재위 사십사년동안
온갖 고생하시다가 왜놈에게 쫓겨나니
원통하고 분할시고 전위받은 융희황제

무력무등 하오므로 이등박문 소행보소
칠조약을 강요하니 한국정부 모든부문
일본인을 고문삼고 일본인의 관리로써
차관에 임케하고 한국군대 해산하고
무장군비 해제한다 이등박문 흉계보소
지나대륙 뜻을 두어 북만주 시찰가는
소식들은 안중근은 하얼빈역두에서
권총으로 쏴 죽이니 때는 사이이사삼년
십월 이십육일이라 원통할사 안의사는
왜놈손에 잡여가서 여순에서 사형하니
만고의사 이아닌가 안의사 죽은 뒤에
만사지어 일렀으되 공재삼한 명만국이요
생무백세 사천추라 이등박문 죽은 뒤에
사내정이 통감되어 이 놈 또한 흉물로써
경찰권을 행사하여 매국노와 결합하여
합병안을 꾸며내니 이완용이 수긍하고
내부대신 박제순과 탁지대신 고영희(高永喜)1773와
농상대신 조중응과 융희년 팔이이에
합병안을 결정하고 민란을 두려하여
일본의 헌병순사 궁궐내외 비롯하여
경향각지 엄계하며 국내신문 정간하고
애국단체 해산하고 국내에도 성망있는
수천인사 구금한 후 매국단체 일진회가
이 뜻을 찬양하고 동년 팔월 이십구일
만고역적 이완용 등 약국조서 교조하여
왕후숙부 시종원경 윤덕영(尹德榮)1774을 시키어서
위협으로 옥쇄 찍어 합병조약 성립하니
삼한삼국 고려까지 자주자체 상전하더니
동방이 소허하여 동이국이 침로하니
말내에 한양왕기 오백년간 뿐이런가
태조대왕 건국이래 이십칠세 역대임금
역년오백 십구년에 잔악한 일본놈의
식민지로 화했으니 반만년래 단군구기
오백여년 종묘사직 일조에 흩어지고
태자은을 데려다가 이왕이라 이름짓고
사내정이 총독되어 조선임금 대신으로
경복궁에 시무하니 오천년 긴긴 사적
이날로써 마쳐있고 삼천리 금수강산

이날로써 남을 주고 이천만 창생(蒼生)들은
이날부터 고난이라 이 때 기원 언제런고
사천이백 사십삼년 고려가 망할때엔
충신이 七十二나 이조가 망할때는
역적소인 천만이라 자고급금 두고 보면
망한나라 임금마다 충신의사 배척하고
환자놈과 간신들이 국정을 좌우하니
국모욕은 왜 못하며 상감 비판 못 할건가
음탕한 민비소행 외척권신 나열시켜
국사에는 뒤로 두고 동가유서 가숙이
국모로써 할짓이냐 노국놈엔 이 말하고
일본놈엔 저 말하니 나라망한 첫째 원인
민비의 음탕(淫蕩)이라 개인이나 국가이나
탕녀 있는 그 집안이 잘 되는 법 없었도다
창덕궁에있는아들숙맥되여앉었으니
무슨 의론하여 보며 덕수궁에 쫓긴 고종
무슨 용력 있을건가 오백년 예의동방
오랑캐의 식민지로 한심하게 되었단 말인가
삼천리 좋은 강토 왜놈에게 바쳐 올려
자자손손 부귀영화 누리기로 작정하든
만고역적 무리들이 옥쇄 갖다 왜놈 주어
만년장구 바랐겠지 우리조선 이 나라에
사색당파 일어나서 서로 뜯고 모함하고
일어난 놈 또 죽이다 오백년을 지내오니
민족성이 한심하다 적서(嫡庶) 분간 시비 나서
상놈딸엔 장가가서 아들 나도 적자되고
양반과부 데려다가 아들 나도 서자되니
적자는 적자대로 서자는 서자대로
서로가려 혼인하여 양반이라 하는 사람
지체 좋은 그걸 믿고 상놈 잡아 토색할 때
죽는 것은 상놈이라 천지도 유심하고
만물도 유수이라 지금 세상 두고 보면
대패로 민 듯하니 반상(班常) 구별 어디있나
이조사기 대략하고 일본놈이 이 땅에서
짓밟은 것 얘기하자 시내정이 총독되어
무단정치(武斷政治)1775 행할적에 민란 날 것 두려워하여
전국 방방곡곡에다 헌병을 배치하고
언론을 봉쇄하고 집회결사 불허하니

놀랍도다 우국지사(憂國之士)1776 부모처자 이별하고
고국산천 회복코자 동서구미 망명하여
풍손노숙 해가면서 광복운동 전개하니
그 고생이 오죽할가 이 때 마침 세계대전
독일에서 종막지어 민족의 자결주의
윌슨이 부르짖어 약소민족 여러나라
독립을 후원한다 합방한지 십년되는
기미년 삼월일일 천도교인 손병희(孫秉熙)1777등
삼십삼인 서명하여 대한독립 선언하고
삼천리 방방곡곡 독립만세 절규(絶叫)하니
민족의 역사상에 이름 높은 운동이라
병인월 초십일에 육십만세 일어나고
우국지사 안창호(安昌浩)1778며 이승만(李承晩)1779, 서재필은
미국으로 건너가고 김구(金九)1780와 신익희(申翼熙)1781는
상해로 건너가서 임시정부 조직하여
독립운동 전개하며 애국단원 이봉창(李奉昌)1782은
일본궁성 이중교에 폭탄을 던졌으며
윤봉길(尹奉吉)1783은 상해에서 천장절에 모인 왜졸
백천대왕 폭살하고 강우규(姜宇奎)1784도 의사로서
제등총독 잡으려다 대사를 놓치고서
육십오에 사형 받고 나석주(羅錫疇)1785도 폭탄 던져
동척은행 깨트리고 이범석(李範奭)1786과 김좌진(金佐鎭)1787은
청산리작전1788에서 일본군을 전멸하고
백정기(白貞基)1789도 상해에서 배일(排日)1790하다가 피살(被殺)되고
김상옥(金尙沃)1791도 폭탄으로 서울 종로 경찰서에
폭탄으로 왜졸 잡고 편강렬(片康烈)1792, 오동진(吳東振)1793은
독립운동 추진하다가 만주에서 체포되어
옥중에서 죽었으며 구연영도 이천에서
운동하다가 죽었으며 김준열도 용사로써
왜적과 싸우다가 적탄에 쓰러지고
신규식, 노백인도 일본병을 무찌르다
만주에서 피살되고 김지섭(金祉燮)1794도 동경(東京) 가서
궁성을 야습(夜襲)하고 장진홍도 의거(義擧)1795하다가
일본 헌병에 사형당하고 열일곱의 유관순(柳寬順)1796도
처녀로써 순절하고 남자현(南慈賢)1797은 여사로써
애국지사 도우다가 만주에서 순국(殉國)하고
신채호(申采浩)1798도 잡여가서 여순에서 피살되고
이밖에도 많은지사 광복위해 싸우다가

객지고혼 되온 분이 몇몇이나 되였으며
순국충혼 되온 분이 그 얼마나 되였든고
삼십육년 긴긴 세월 학살하다가 투옥하다가
고문하다가 감금하다가 그 얼마나 유린했나
정축 칠월 칠일에는 북지사변 일어나서
만주있는 일본세력 중국까지 뻗치고자
놈들의 침략성은 두고 봐도 유명하다
북지사변 확대되어 중일전쟁 되고 보니
장개석(蔣介石)1799이 영웅이 되어 중경으로 천도(遷都)1800하고
중국땅 넓은 천지 중요지대 점령하니
그 중간에 우리나라 병참기지(兵站基地) 정해 두고
전시(戰時) 체제 운운하며 우리민족 물심양면(物心兩面)1801
모조리 짓밟는다 물품통제 운위하고
장사하나 자유 없고 국방헌납 명목으로
강제수금 억울하고 백철, 황철, 유기, 등속
낱낱이 다 뺏기고 부녀자의 비녀, 반지
있는대로 거둬가고 사기그릇, 목조접시
조반석죽 걱정이라 노약만 남겨두고
청년자제 몰아다가 징용(徵用)이니 보국대에
강제노동 이뿐이랴 일호령만 거역해도
짐승같이 취급하며 입 있어도 말 못하고
손 있어도 형용못해 생활이 참혹하니
생지옥이 이것이라 징병령을 내리여서
젊은사람 뺏어가서 미국과 싸우라고
앞제비로 내세우고 의용대를 조직하여
면면촌촌(面面村村)1802 편성하여 오합지중(烏合之衆) 모아다가
앞서 죽일 작정이지 식량공출, 대마공출
솔가지도 공출하고 산포도도 공출하고
목재도 공출하니 공출명목 하도많다
창씨개명(創氏改名)1803 령을내려 성명마저 뺏어가고
내선일체(內鮮一體)1804 말만하고 구별은 독히하며
그 중에도 조선사람 처우개선 한다하고
이왕은의 계급 높여 육군중장 올린 후에
박중양 등 친일분자 일곱사람 골라내어
귀족의원 임명하니 조선사람 생각하는듯
우리한글 전폐(全廢)1805하고 일본말을 전용(全用)하며
황국신민 서사외워 아침마다 궁성요배
묵도역시 가소롭다 이 지경 당한 동포

살아난들 무슨 영광 일월도 무광하고
산천도 처량하다 삼천만의 원한바는
천지순환 그 이치로 해외지사 힘을 빌려
조국광복 빌었더니 하늘인들 무심하랴
사천이백칠십사년 십이월 팔일 되어
일본놈의 발악보소 미국과 영국의 양국 선전포고(宣戰布告)
물자재도 부족한데 당해낼 줄 알았든가
일본땅 큰도시는 폭탄으로 세례 받아
황량한 벌판이오 곳곳이 모여 앉아
몰살한 것 왜놈이라 우리나라 두고 보면
폭탄하나 안 던지고 고적현물 보존함이
해외지사 은덕이라 이차대전 일어나자
일본, 독일, 이태리 삼국동맹 세계에 자랑하더니
이태리가 망해지자 독일 또한 항복하니
고립무원(孤立無援)1806 왜놈 신세 망할 날도 멀지 않아
사이칠팔 팔월 구일 소련 또한 일본대핵
선전을 포고한 후 관동군을 무찌르고
청진에 상륙하여 북한을 석권하니
왜놈 신세 가련하다 '사무라이' 정신 잃고
'가미가재' 어디갔나 미국의 공군들은
원자폭탄 실고 와서 '히로시마', '나가사끼'
불과 두 개 던진 것이 수만명이 몰살하니
일본놈이 강족이지만 겁 안 내고 어이하리
일본천왕 유인이는 사천이백칠십팔년
팔월이라 십오일에 무조건 항복하니
포츠담의 회담이며 카이로의 선언으로
우리나라 독립되니 천일이 부명하고
신명이 재고로다 삼십육년 질곡(桎梏)속에
신음하던 우리동포 기반을 벗어나니
우리나라 짓밟으며 횡행천지 난폭하던
왜놈 서늘 다 닳았네 항복하던 그날부터
남부여대 봇짐싸서 부산항에 몰려들어
연락선배 타려고 줄지어 섰는 모양
고등관도 한가지요 칙임관도 한때니라
'각가' 소리 간 곳 없고
'도노' 소리 어디 갔나
광복되는 그날부터 금옥같은 청년자질
사지에서 돌아오고 세종대왕 지은 글로

우리역사 닦게되네 동년 구월 이일에는
미군이 진주하여 맥아더의 지휘 아래
군정을 실시하고 소련군은 그날부터
북한에 진주하여 삼팔선을 나눈 후에
이나라가 양단되니 원수 아닌 적이 되고
국경 아닌 국경되네 돌아오네 돌아오네
해외지사 돌아오네 태극기 손에 들고
애국가를 합창하며 청춘시절 다 보내고
백발노옹 돌아오네 삼사십년 긴긴 세월
광복운동 장할시고 풍손노숙 갖은 고생
눈물없이 들을손가 을유 시월 십육일에
이승만 돌아와서 귀국하여 제일성이
일민주의 주창하여 뭉치면 살 수 있고
해치면 죽는다는 단결함을 역설했네
십이월 이십이일 상해임시 정부요인
김포공항 도착하여 김구선생 앞에 서고
김규식, 신익희며 유동열, 이시영과
엄항섭, 김상덕과 이외에도 많은 지사
차례차례 환국(還國)하니 삼천만이 영접(迎接)한다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을 조국 삼고
공산독재 내세우고 괴뢰국을 만든 후에
침략을 일삼는다 남한의 인민들은
군정(軍政) 이년 지낸 뒤에 김규식을 의장으로
입법의회 창설하고 과도정부(過渡政府) 수립하니
안재홍(安在鴻)1807은 민정장관, 의정관엔 서재필과
사법부장 김병로(金炳魯)1808등 십삼부장 임명하고
팔십일년 오월 십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 선출하고 동년 칠월 십칠일에
유진오(兪鎭午)1809의 기초로서 헌법을 제정하고
동년월 십오일엔 대한민국(大韓民國) 수립하니
초대의 대통령에 리승만 박사 되고
이범석은 국무총리 국방장관 겸해 있고
내무장관 윤치영이 장택상(張澤相)1810은 외무장관
김도연(金度演)1811은 재무장관 안호상은 문교장관
조봉암(曺奉巖)1812은 농림장관 임영신(任永信)1813은 상공장관
전진한(錢鎭漢)1814은 사회장관 민희식은 교통장관
윤석귀는 채신장관 국회의장 신익희요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라 유엔(UN) 정치위원회서

정부수립 축하하고 미국을 위시하여
세계열국 승인하니 억만세의 대한민국
세계만방 빛나도다 삼천만 우리동포
자주독립 좋건만은 수많은 당파지어
투쟁하기 일삼는다 사천이백 칠십팔년
한민당의 영도자인 송진우(宋鎭禹)1815가 암살되고
사천이백 팔십년에 근민당의 당수되는
여운형(呂運亨)1816이 암살되고 같은 해 십이월에
장덕수(張德秀)1817도 암살되고 사천이백 팔십이년
남북의 협상파인 김구선생 또 죽이니
동족간에 할짓인가 이런 인재 모셔다가
보국제민 하게한들 오늘날 이 시까지
난민지세 안될 것을 인심은 불안하고
세태는 분운하다 동년 십월 십구일에
여순반란 사건나니 사십여명 장교들이
부하졸병 선동하여 좌익과 합류해서
우익진영 요인들을 천여명 학살하고
여수, 마산, 순천사이 이백여호 불지르고
약탈하고 납치하고 파리하는 그 행동이
참혹하기 한량없다 군경이 출전하여
반란사건 진압하나 수백명의 반군들이
지리산에 도입하여 공비(共匪)1818와 합류해서
유격대를 조직하여 태백산, 운문산과
팔공산, 일월산에 근거지를 정해두고
승시로 출몰하여 양민을 납치하고
재물을 탈취하니 무죄한 백성들이
곳곳에서 학살되어 공포와 위축으로
겁계로 지내다가 팔십삼년 육이오에
북한괴뢰 김일성의 이십만의 인민군의
불법남침 하는구나 삼팔선을 후딱 넘어
서울을 빼앗은 뒤에 파죽세로 남하하니
우리정부 할 수 없이 부산으로 옮긴 뒤에
국군, 경찰 동원되고 자유우방 원조로써
공방전을 실시하여 육탄혈우 삼개월에
수많은 인민군을 총 쏘아 다 죽이고
손드는 인민군을 이만여명 생포한 후
동년월 이십팔일 서울을 탈환하고
북진행차 용감하다 맥아더의 작전계획

북진, 북진 또 북진에 연전연승(連戰連勝) 하였든바
미국의 소환으로 '맥아더'의 부진계획
수포로 돌아가고 삼팔선만 고수하더니
같은해 십이월에 팽덕회를 앞장세워
중공군 백여만이 김일성을 도와가며
대거재침 하는구나 이듬해 일월 사일
우리정부 할 수 없이 부산으로 다시 옮겨
연합군의 동원으로 북한으로 몰아낸 후
삼년이나 싸우다가 휴전회담 성사되나
수많은 젊은 목숨 그 얼마나 뺏었으며
절비하든 그 건물은 잿더미로 화해지고
찬란한 문화시설 파괴되어 간 곳 없네
삼천만의 원한이오 역사의 오점이라
슬프다 남북대한 이로부터 원수되네
동족상잔(同族相殘)1819 절통하다 휴전회담 성립 후에
남한과 북한사이 포로를 교환할때
이박사의 영단(英斷)으로 국제승인 말도 없이
반공포로 이만여명 일시에 석방하니
세계열방 파문컸네 사이팔칠 팔월에는
한국과 미국사이 방위협정 조인하고
두나라의 대통령이 오고 가고 정을 두어
빈한한 우리나라 원조도 많았더 라
사이팔오 팔월 오일 리승만 재선될때
부통령에 입후보로 함태영(咸台永)1820을 내세워서
부통령에 입후보한 철기장군 이범석과
국무총리 장택상과 사사(私事) 감정 풀기 위해
장택상의 불호령에 경찰권을 동원하여
이범석을 몰도하고 함태영을 당선시켜
이것이 선거사상 바람불기 처음이니
장택상이 시조로다 병신년 오월달에
해공선생 죽은 뒤에 이박사 삼선(三選)되어
정당정치 구현코자 장관은 물론이오
중요직책 모든부문 자유당원 차지되고
혼미한 이기붕(李起鵬)1821을 국회의장 시킨 뒤에
맏아들인 강석군을 이박사의 양자 삼고
이박사의 거동보소 밑에 사람 말만 듣고
사선을 도모하고 대통령에 출마하여
조병옥(趙炳玉)1822죽은 뒤에 국회의장 이기붕을

부통령에 지명하고 심복인 최인규를
내무장관 시킨 후에 전국의 경찰로써
부정선거 감행하되 삼인조 구인조의
공개투표 행한 일과 유령이 유권자로
무더기표 투입하여 대통령에 이박사요
부통령에 이기붕이 압도적 당선되니
이박사 일평생에 우국애족 하온 일과
내치외교 천만가지 부족한 점 하나 없이
세계영웅 이름나나 밑에 사람 잘못 만나
선거의 부정으로 역사상 오점이라
자신도 망쳤으니 전공이 가석하다
국민들의 울분함이 절정에 도달하여
대구, 마산 위시해서 서울의 학생들이
몇 만명이 동원되어 데모를 행할 때에
민간인도 부화하여 시가지로 행진하며
의사당에서 농성하고 서울신문 파괴한 후
경무대로 행진하며 학생에 자유주라
부정선거 적발하라 자유당 물러가라
이박사 하야(下野)1823하라 구호를 외치면서
경무대 앞 연좌하고 한편은 담을 넘어
경무대에서 농성하니 내무장관 홍진기가
발포를 명령하여 꽃송이 젊은 학생
백여명이 쓰러지고 파문이 넓고 커져
전국에 퍼져가니 국무위원 총퇴하고
국회는 해산되고 이기붕 일가족은
사일 한날 자살하고 이승만은 이십육일
하야를 성명한 후 하와이로 망명(亡命)하고
이외에도 조야간에 부정선거 관련자는
경중따라 처단되니 이것이 이르는바 사일구혁명(四一九革命)1824이라 과도정부 대통령에
허정(許政)1825이가 임명되어 총선거를 실시한다
사이구삼 七월 이십구일에 민참의원 선거하니
민주당의 소행보소 청장년을 동원하여
위협으로 운동하고 학생의 흘린 피를
민주당의 혁명처럼 역으로 선전하고
개표장에 난입하여 민주당표 적게되면
개표도중 함을 뺏어 파괴하고 방화하니
영양을 위시하여 전국의 여러곳에
난동사건 일어나니 부정선거 없애고자

일어난 혁명인데 또 이래서 될말인가
전국에 민주당원 압도적 당선되어
민주당의 세력다툼 신파이냐 구파이냐
나날이 격심하여 두 갈래로 갈라지네
구파는 신민당에 신파는 민주당에
내각책임제로하는 헌법을 다시 고쳐
구파영수 윤보선(尹潽善)1826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신파영수 장면(張勉)1827이는 국무총리 피선되어
내각에서 지방관의 세력안배 하온 후에
민주당원 일색이라 무능한 장정권은
집권한지 구개월에 아무 치적 하나 없이
데모만 일어나니 어지러운 세태로서
용공친일 정책으로 국가장래 한심함에
사천이백구십사년 오월 십육일의 미명(未明)기해
부패무능 유신하고자 군사혁명 일어나다(끝)

[각주]

1) 대한(大韓) : 현재의 우리나라 또는 과거의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지칭함.

2) 가사(歌史) : 가사(歌辭)의 잘못된 표기로 보이나, '역사를 노래한다'라고 볼 수도 있음.

3) 사적(事蹟) : 사업의 남은 정취, 사건의 자취.

4) 흥망성쇠(興亡盛衰) :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함.

5) 허다(許多) : 매우 많음.

6) 의열(義烈) : 의를 지킴이 강함. 정의의 마음이 열렬함.

7) 소연(昭然) : 일이나 이치에 밝음.

8) 단목(檀木) : 박달나무. 자작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

9) 강생(降生) : 신이 인간으로 태어남. 어진 사람이 나심.

10) 단군(檀君) : 한국의 국조(國祖)로 받드는 태초의 임금. 환웅의 아들. 일종의 개국신(開國神)으로, 기원전 24세기 경 아사달에 도읍하여 단군(檀君) 조선(朝鮮)을 건국하였다 함

11) 당요(唐堯) : 중국(中國)의 요가 도당씨(陶唐氏)이기 때문에 이르는 말.

12) 개천절(開天節) :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

13) 천제(天帝) : 하느님.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한다고 믿어지는 초자연적(超自然的)인 절대자.

14) 환인(桓因) : 천상을 지배하는 하늘의 임금.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인물. 아들 환웅이 세상에 내려가고 싶어 하자 태백산에 내려보내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고 함.

15) 환웅(桓雄) :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인물. 천제(天帝)인 환인의 아들로, 천부인 3개와 무리 3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려와 신시를 베풀고,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맡아서 세상을 다스렸으며,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고 함.

16) 천부인(天符印) : 천자(天子)의 위(位), 곧 제위의 표지로서 하느님이 내려 전한 세 개의 보인(寶印).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 신화에 나옴.

17) 묘향산(妙香山) : 평안북도 영변군 신현면과 백령면의 경계에 있는 산. 묘향산맥의 주봉으로서, 단군이 내려왔다는 전설로 유명함.

18) 신단수(神檀樹) :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처음 하늘에서 그 밑으로 내려왔다는 신성한 나무.

19) 풍백(風伯) : 바람 신.

20) 우사(雨師) : 비를 맡은 신.

21) 신시(神市) :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 밑에 세웠다는 도시.

22) 정령(政令) : 정치상의 법도와 규칙, 정치상의 명령.

23) 삼랑성(三浪城)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의 정족산(鼎足山)에 있는 고성(古城). 단군이 세 아들에게 명하여 쌓았다는 전설이 전한다. 성안에 전등사, 정족산 사고(史庫)의 유지(遺址), 양헌수 승전비 따위가 남아 있다. 사적 제130호.

24) 마니산(摩尼山)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도에 있는 산. 해마다 전국 체육 대회의 성화를 점화하는 곳.

25) 제천식(祭天式) :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

26) 국상(國相) : 고구려 때에, 군국(軍國)의 사무를 맡아보던 으뜸 벼슬아치. 신대왕 2년(166)에 두었고, 여기서는 나라의 재상의 의미로 쓰임.

27) 도산(塗山) : 중국 상고 시대 하(夏)나라 우왕(禹王)의 아내인 도산씨(塗山氏)를 이르는 말.

28) 하우씨(夏禹氏) : 중국 하나라의 우임금을 이르는 말.
29) 방적(紡績) : 동식물의 섬유나 화학 섬유를 가공하여 실을 뽑는 일.
30) 열국(列國) : 여러 나라.
31) 만주(滿洲) : 오늘날 중국의 동북(東北)지방, 즉 요령성(遼寧省)·길림성(吉林省)·흑룡강성(黑龍江省) 및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의 동부지역을 포괄해서 가리키는 말.
32) 숙신(肅愼) : 고조선 때에, 지금의 만주와 연해주 지방에 살던 퉁구스 족. 고구려 서천왕 때에 일부가 복속되었고 광개토 대왕 8년(398)에 완전 병합됨.
33) 지대물박(地大物薄) : 풀이 땅이 넓고 산물이 많음
34) 순후(淳厚) : 온순하고 인정이 두텁다. 날씨가 적당하게 따뜻하고 좋다.
35) 부여국(夫餘國) : 고조선(古朝鮮) 시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지금의 북만주 일대에 웅거한 부족 국가.
36) 개원(開原) :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티에링[鐵嶺]에 있는 시.
37) 흑룡강(黑龍江) :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 부근을 흐르는 강. 몽골 북부의 오논 강에서 나와 동쪽으로 흘러 타타르 해협으로 들어감.
38) 평활(平闊) : 펀펀하고 넓음.
39) 천도(遷都) : 도읍을 옮김.
40) 해모수(解慕漱) : 북부여의 시조(始祖). 전설상의 인물로, 흘승골성에 도읍하고 나라를 세워 국호를 북부여라 칭하였다. 천제(天帝)의 아들로 하백(河伯)의 딸 유화와 사통하여 고구려의 시조 주몽을 낳았다고 함.
41) 북부여(北夫餘) : 동부여에 대하여 원래의 부여를 이르는 말.
42) 졸본부여(卒本夫餘) : '고구려'를 달리 이르는 말. 부여의 일족이 졸본에 도읍하여 세운 나라라는 뜻.
43) 판도(版圖) : 한 나라의 영토. 어떤 세력이 미치는 영역 또는 범위.
44) 부진(不振) :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기세나 힘 따위가 활발하지 아니함.
45) 옥저(沃沮) :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 가운데 함경도의 함흥 일대에 있던 나라. 후에 고구려에 복속됨.
46) 예맥(濊貊) : 한족(韓族)을 형성한 예족과 맥족을 통틀어 이르는 말. 고조선의 관할 경계 내에 있던 나라. 또는 그 민족. 만주에서 한반도 동북부를 근거지로 하여 수렵과 목축을 주로 하고 농경도 행하였는데, 그로부터 부여와 고구려가 갈려 나옴.
47) 승시(乘時) : 때를 탐. 기회를 얻음. 적당한 때를 탐.
48) 봉기(蜂起) : 벌 떼처럼 떼 지어 세차게 일어남.
49) 삼한(三韓) : 삼국 시대 이전에, 우리나라 중남부에 있었던 세 나라. 마한, 진한, 변한을 이름.
50) 기씨조선(箕氏朝鮮) : 기자조선 (箕子朝鮮). 은나라가 망한 후 기자(箕子)가 고조선에 망명하여 세웠다고 하는 나라. 현재 학계에서는 그 실재를 부정되고 있음.
51) 혼란(混亂) :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음.
52) 도읍(都邑) : 서울. 한 나라의 수도를 정함.
53) 은(殷) : 기원전 1046년까지 중국 황허(黃河) 강 중류 지역을 지배한 고대 왕조.
54) 무도(無道) : 말이나 행동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서 막됨.

55) 팔조교(八條敎) : 고조선 때에 시행한 여덟 가지의 금법(禁法)
56) 배상(賠償) :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57) 음간(淫姦) :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음.
58) 신역(身役) :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이 치르던 구실. 나라에서 성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군역과 부역.
59) 전위(傳位) : 임금 자리를 후계자에게 전하여 줌.
60) 위만(衛滿) : 위만 조선의 창시자. 중국 연나라의 관리로서 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망명하여 준왕(準王)으로부터 변경 수비의 임무를 맡음. 유랑민을 기반으로 힘이 커지자 준왕을 축출하고 위만 조선을 세움.
61) 연(燕)나라 : 중국 전국 시대에, 주나라 무왕(武王)의 동생 소공석이 세운 나라.
62) 모반(謀叛) :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남의 나라를 좇기를 꾀함.
63) 왕검성(王儉城) : 고조선의 도읍지.
64) 우거왕(右渠王) : 고조선의 마지막 왕.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국과 한나라의 중계무역을 독점함. 이에 위협을 느낀 한 무제가 수륙군을 이끌고 침입하자 싸움을 벌였으나 삼(參)이 보낸 자객에게 살해됨.
65) 분개(憤慨) : 몹시 분하게 여김.
66) 친솔(親率) : 한집 안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식구.
67) 상승(相承) : 서로 이어 감.
68) 낙랑(樂浪) : 낙랑군. 한사군(漢四郡) 가운데 청천강 이남 황해도 자비령 이북 일대에 있던 행정 구역.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랴오허 주위의 땅에 있었지만 유물의 발견을 들어 평양 근처에 있었다고도 함. 313년 고구려에 병합되었음.
69) 임둔(臨屯) : 임둔군. 중국 한(漢)나라가 위만 조선을 정벌하고 설치한 한사군의 하나. 기원전 108년에 지금의 함경남도 남쪽 끝에 두었다가 기원전 82년에 폐지하고 현도군에 합했음.
70) 진번(眞番) : 진번군. 한사군(漢四郡) 가운데 지금 황해도 서흥군의 자비령(慈悲嶺) 이남 한강 이북의 땅.
71) 현도(玄菟) : 기원전 108년에 전한(前漢)의 무제가 세운 한사군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던 군. 그 위치에 관하여는 정설이 없으며, 광개토 대왕 14년(404) 이전에 요동군과 함께 고구려에 병합됨.
72) 간도(間島) : 백두산 북쪽의 만주 지역 일대로, 서간도(압록강,송화강의 상류지방인 백두산 일대)와 동간도(북간도-훈춘, 왕청, 연길, 활룡현 등 포함 지역)로 구분됨. 주로 간도라 하면 흔히 '연변'이라고 부르는 중국 길림성 동쪽의 연변조선족자치주에 해당하는 지역인 북간도(동간도)를 가리킴.
73) 요동(遼東) : 중국 요하(遼河)의 동쪽 지방. 지금의 요녕성(遼寧省) 동남부 일대를 일컬음.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특히 중국으로 가는 중요한 육상 통로이기 때문에 각종 외교 사절과 상인들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했음. 그 중요성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 곳의 영유권을 놓고 우리 나라와 중국, 그리고 북방 민족간의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했음.
74) 한사군(漢四郡) : 기원전 108년에 중국 전한(前漢)의 무제가 위만 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설치한 네 개의 행정 구역. 낙랑군, 임둔군, 현도군, 진번군을 이르는데, 뒤에 고구려에 병합됨.
75) 한소제(漢昭帝) : 중국 전한(前漢)의 제8대 황제(B.C.94~B.C.74). 본명은 유불릉(劉弗陵). 곽광(霍光), 김일제(金日磾) 등의 보좌를 얻어 국력 회복에 힘썼다. 재위 기간은 기원전 87~기원전 74년이다.

76) 기준왕(箕準王) : 고조선의 마지막 왕. 연나라에서 망명하여 온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가서 마한(馬韓)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77) 마한(馬韓) : 고대 삼한(三韓) 가운데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방에 걸쳐 있던 나라. 54개의 부족국가로 이루어졌는데 뒤에 백제에 병합되었다.
78) 진한(辰韓) : 삼한 가운데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부 지역에 있던 12국. 일본에 진출하여 그곳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4세기 중엽에 진한 12국 가운데 하나인 사로(斯盧)에게 망하여 신라에 병합되었다.
79) 변한(卞韓) : 삼한의 하나. 경상도의 서남 지방에 십여 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졌으며, 후에 가야로 발전하였는데, 농업과 양잠을 주로 하고 철과 직포(織布)의 산출로 유명하였다.
80) 귀부(歸附) : 스스로 와서 복종함.
81) 예맥(濊貊) : 한족(韓族)을 형성한 예족과 맥족을 통틀어 이르는 말. 고조선의 관할 경계 내에 있던 나라. 또는 그 민족. 만주에서 한반도 동북부를 근거지로 하여 수렵과 목축을 주로 하고 농경도 행하였는데, 그로부터 부여와 고구려가 갈려 나왔다고 함.
82) 한무제(漢武帝) : 중국 전한(前漢) 제7대 황제(B.C.156~B.C.87). 성은 유(劉). 이름은 철(徹). 묘호는 세종(世宗).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흉노를 외몽골로 내쫓는 등 여러 지역을 정벌하였으며, 중앙아시아를 통하여 동서 교류를 왕성하게 하였다.
83) 위만조선(衛滿朝鮮) : 위만(衛滿)이 집권한 이후 멸망할 때까지의 고조선(古朝鮮).
84) 백제(百濟) : 기원 전후한 시기에 마한의 소국으로 출발하여 한반도 중부와 남서부를 차지하고 고구려, 신라와 삼국을 이루었다. 일본 등과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일본의 문화에 영향을 끼쳤고, 660년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다.
85) 가락(駕洛) : 가야(伽倻). 기원 전후부터 562년까지 낙동강 하류지역에 있던 여러 국가들의 연맹왕국 또는 그 지역에 위치한 각 국가들의 명칭.
86) 도탄(塗炭) : 진구렁에 빠지고 숯불에 탄다는 뜻으로, 몹시 곤궁하여 고통스러운 지경을 이르는 말.
87) 삭평(削平) : 반란이나 소요를 누르고 평온하게 진정함.
88) 박혁거세(朴赫居世) : 신라의 시조(B.C.69~A.D.4). 왕호는 거서간(居西干). 13세에 왕위에 올라 재위 17년에 전국을 순시하여 농사와 양잠을 장려하였으며, 21년에는 수도를 금성(金城)이라고 하고 성을 쌓아 나라의 기틀을 닦았다.
89) 동명성왕(東明聖王) : 고구려의 시조(B.C.58~B.C.19). 성은 고(高). 이름은 주몽 또는 추모(鄒牟). 해모수의 아들. 동부여의 금와왕의 아들 대소(帶素)의 모해(謀害)를 피하여 졸본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고구려라 하였다.
90) 온조왕(溫祚王) : 백제의 시조(?~28).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다. 기원전 11년에 말갈(靺鞨)의 침입을 받았으며, 기원전 5년에 서울을 남한산으로 옮기고, 9년에는 마한을 병합하여 국토를 확장하였다.
91) 수로왕(首露王) : 가야의 시조(始祖)(?~199). 일명 수릉(首陵). 하늘로부터 김해의 구지봉에 내려와 육 가야를 세웠다는 여섯 형제의 맏이로, 김해 김씨의 시조이다.
92) 해모수(解慕漱) : 북부여의 시조(始祖). 전설상의 인물로, 흘승골성에 도읍하고 나라를 세워 국호를 북부여라 칭하였다. 천제(天帝)의 아들로 하백(河伯)의 딸 유화와 사통하여 고구려의 시조 주몽을 낳았다고 한다.

93) 금와왕(金蛙王) : 고구려 동명성왕 설화에 등장하는 동부여의 왕. 늙도록 자식이 없어 산천에 기도하며 정성을 들이던 부여왕 해부루가 어느날 곤연 못가의 큰 돌 밑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개구리 모양의 아이를 발견하여 이렇게 이름지었다. 자라서 태자가 되고, 해부루를 이어 부여의 왕이 되었다.
94) 고주몽(高朱蒙) : 동명성왕의 본명.
95) 기만(幾萬) : 만의 몇 배가 되는 수. 또는 그런 수의.
96) 대무신왕(大武神王) : 고구려의 제3대 왕(4~44). 이름은 무휼(無恤). 동부여(東夫餘)·개마국(蓋馬國)을 쳐서 병합하고 낙랑군을 정벌하여, 국토를 살수(薩水) 이북까지 확대하였다.
97) 민중왕(閔中王) : 고구려의 제4대 왕(?~48). 이름은 해색주(解色朱). 제3대 대무신왕의 아우로, 대무신왕이 죽은 후 나이 어린 태자를 대신하여 즉위하였다.
98) 모본왕(慕本王) : 고구려 제5대 왕(?~53). 이름은 해우(解憂)·해애루(解愛婁)·막래(莫來). 대무신왕의 아들로, 49년에 중국 한나라를 공격하였다가 화친을 맺었다. 성품이 사납고 정사를 잘 돌보지 않아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있던 가운데 신하 두노(杜魯)에게 피살되었다.
99) 태조왕(太祖王) : 고구려의 제6대 왕(47~165). 이름은 궁(宮). 영토를 확장하고 정치 체제를 확립하는 데 힘써서, 고구려가 실질적인 중앙 집권적 국가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100) 달가(達賈) : 고구려 제13대 서천왕(西川王)의 동생. 고구려에 침범한 숙신(肅愼
101) 차대왕(次大王) : 고구려 제7대 왕(71~165). 이름은 수성(遂成). 자신의 왕위 계승을 반대하던 우보(右輔) 고복장과 태조왕의 아들 막근(莫勤)을 살해하여 왕권을 굳히었으나, 횡포와 학정을 일삼다가 명림답부에게 살해되었다.
102) 고복장(高福章) : 고구려시대의 대신. 123년(태조왕 71) 우보(右輔)가 되어 태조왕을 보좌하였다. 142년 흉한 꿈을 꾸고 불안해하는 왕을 안심시키는가 하면, 146년 왕의 동생 수성(遂成)이 왕위찬탈을 노리고 있으므로 제거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 등, 태조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다.그러나 태조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수성, 즉 차대왕에 의하여 147년 죽음을 당하였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석해 하였다고 한다
103) 신대왕(新大王) : 고구려 제8대 왕(?~179). 이름은 백고(伯固)·백구(伯句). 좌·우보(左右輔)의 직제를 국상(國相)으로 바꾸고, 172년 중국 한(漢)나라 군대의 침입을 물리쳤다.
104) 고국천왕(故國川王) : 고구려 제9대 왕(?~197). 이름은 남무(男武). 을파소를 재상으로 등용하여 선정을 베풀었으며 빈민 구제책으로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105) 을파소(乙巴素) : 고구려의 재상(?~203). 고국천왕 13년 국상(國相)으로 추대되어, 농민 구제책인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106) 진대법(賑貸法) :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을파소 등을 기용하여 왕 16년(194)에 실시한 일종의 빈민구제법으로, 춘궁기에 가난한 백성에게 관곡을 빌려주었다가 추수기인 10월에 관(官)에 환납케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귀족의 고리대금업으로 인한 폐단을 막고, 양민들의 노비화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실시한 제도였다.
107) 산상왕(山上王) : 고구려 제10대 왕(?~227). 이름은 연우(延優)·이이모(伊夷模). 13년(209)에 도읍을 환도성으로 옮겼다.
108) 동천왕(東川王) : 고구려의 제11대 왕(209~248). 이름은 우위거(憂位居)·위궁(位宮). 동황성(東黃城)으로 천도하고 신라와 화친하였다.
109) 환도성(丸都城) :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기 전의 도성. 산상왕 13년(209)부터 장수왕 15년

(427)까지 압록강 중류의 서안에 존속하였다.

110) 밀우(密友) : 고구려 동천왕 때의 무장(武將)(?~?). 중국 위나라 장수 관구검(毌丘儉)이 침입하였을 때에, 죽령(竹嶺)에서 결사대를 조직하여 남옥저(南沃沮)로 피신하는 임금을 도와 후에 일등 공신이 되었다.

111) 중천왕(中川王) : 고구려 제12대 왕(224~270). 이름은 연불(然弗). 259년에 위나라의 장수 위지해(尉遲楷)가 쳐들어왔을 때 양맥(梁貊)의 계곡에서 크게 무찔렀다.

112) 봉상왕(烽上王) : 고구려 제14대 왕(?~300). 이름은 상부(相夫)·삽시루(歃矢婁). 일명은 치갈왕(雉葛王). 창조리를 국상(國相)에 등용하여 2년(293)과 5년(296)에 중국 연나라 모용외의 침입을 격퇴하였으나, 사치와 방탕에 빠져 폐위되었다.

113) 탕갈(蕩竭) : 재물이 남김없이 다 없어짐. 또는 재물을 다 없앰.

114) 창조리(倉助利) : 고구려 봉상왕 때의 재상(?~?). 대주부를 지냈으며, 296년 흉년에도 왕이 사치와 유흥에 빠지자, 은퇴하여 조불(祖弗)·소우(蕭友) 등과 모의하여 미천왕을 왕으로 세웠다.

115) 미천왕(美川王) : 고구려 제15대 왕(?~331). 이름은 우불(憂弗)·을불(乙弗)·을불리(乙弗利). 현도군(玄菟郡)을 공격하고 낙랑군을 점령하는 등 고구려의 영토 확장에 큰 공을 세웠다.

116) 소수림왕(小獸林王) : 고구려의 제17대 왕(?~384). 이름은 구부(丘夫). 해미유왕(解味留王)이라고도 한다. 동왕 2년(372)에 중국 전진에서 순도가 불상과 경문(經文)을 가져오자 이를 받아들여 최초로 불교를 수입하였다.

117) 고국양왕(故國壤王) : 고구려 제18대 왕(?~391). 이름은 이련(伊連)·이속(伊速)·어지지(於只支). 국양왕이라고도 한다. 요동(遼東)과 백제를 정벌하여 국토를 넓혔다.

118) 광개토왕(廣開土王) : 고구려 제19대 왕(374~412). 이름은 담덕(談德). 고국양왕의 태자로 18세에 왕위에 올랐다. 불교를 신봉하였고, 남북으로 영토를 크게 넓혀 만주와 한강 이북을 차지하는 등 고구려의 전성시대를 이룩하였다.

119) 아신왕(阿莘王) : 백제의 제17대 왕(?~405).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대항하여 예성강 등 국경 지대에서 싸웠으나 모두 패하였다. 397년에 태자 전지(腆支)를 일본에 보내어 화친을 맺은 후, 이듬해 쌍현성을 쌓았다. 아방왕(阿芳王)·아화왕(阿花王)이라고도 한다.

120) 위풍(威風) : 위세가 있고 엄숙하여 쉽게 범하기 힘든 풍채나 기세.

121) 장수왕(長壽王) : 고구려 제20대 왕(394~491). 이름은 거련(巨連)·연(璉). 광개토 대왕의 맏아들로, 427년에 도읍을 국내성(國內城)에서 평양으로 옮기고 남하 정책을 펼쳐, 고구려의 판도를 넓혔다. 부족 제도를 고치고 5부(部)를 개설하는 따위의 개혁을 이룩하여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122) 부왕(父王) : 왕자나 공주가 자기의 아버지인 임금을 이르던 말. 또는 다른 사람이 왕자나 공주의 처지에서 아버지인 임금을 이르던 말.

123) 개로왕(蓋鹵王) : 백제 제21대 왕(?~475). 이름은 경사(慶司). 중국 위(魏)나라에 고구려를 토벌하기 위한 원군(援軍)을 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고구려의 첩자인 승려 도림(道琳)의 계책에 말려들어 토목 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하고,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 살해되었다.

124) 수양제(隋煬帝) : 중국 수(隋)나라의 제2대 황제(재위 604~618). 만리장성을 수축하고 대운하를 완성하였다. 3차례 고구려를 침입하였으나 대패하였고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나 수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하였다.

125) 우문술(宇文述) : 중국 수나라의 장군. 자는 백통(伯通). 진(陳)나라를 평정한 공으로 안주 총관(總管)이 되었으며, 고구려 영양왕 때 부여도군장(扶餘道軍將)으로 우중문과 함께 고구려를 침입하였으나, 살수에서 크게 패하였다.
126) 을지문덕(乙支文德) : 고구려 영양왕 때의 장군. 영양왕 23년(612)에 중국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에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이를 살수에서 물리쳤다. 지략과 무용에 뛰어났으며 시문에도 능하였다. 살수 대첩에서 적장 우중문에게 전한 전략적인 오언 절구의 시 <유우중문시(遺于仲文詩)>가 전한다.
127) 살수(薩水) : 청천강의 옛 이름.
128) 살수대첩(薩水大捷) : 고구려 영양왕 23년(612)에 고구려와 중국 수나라가 살수에서 벌인 큰 싸움. 수나라의 양제가 고구려를 정복하려고 200만의 대군을 인솔하고 쳐들어왔으나, 을지문덕 장군이 지휘한 고구려 군사가 살수를 건너온 수나라의 별동대 30만 5000여 명을 몰살하였다.
129) 영류왕(榮留王) : 고구려 제27대 왕(?~642). 이름은 건무(建武)·성(成). 중국 당나라와 평화적인 관계를 맺어 수나라의 고구려 원정 때 잡혀간 포로를 찾아왔으며, 도교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130) 흥왕(興旺) : 번창하고 세력이 매우 왕성하다.
131) 연개소문(淵蓋蘇文) : 고구려의 정치가·장군(?~665). 대대로(大對盧)가 된 후 영류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추대하고 스스로 대막리지(大莫離支)가 되어 정권을 장악하였다. 보장왕 3년(644)에 당 태종의 17만 대군을 안시성에서 격파하였다.
132) 보장왕(寶藏王) : 고구려의 제28대 마지막 왕(?~682). 이름은 장(藏) 또는 보장(寶藏). 연개소문에 의하여 왕위에 올랐으며, 재위 27년(668) 나당(羅唐) 연합군의 침공으로 고구려는 망하고 왕은 중국 당나라로 압송되었다.
133) 안시성(安市城) : 삼국 시대에, 고구려가 랴오허(遼下) 강 유역에 설치한 성. 고구려와 당나라의 싸움(645)에서 당군의 침략을 저지한 곳으로 유명하다.
134) 양만춘(楊萬春) : 고구려의 명장. 보장왕 4년(645) 안시성에서 중국 당 태종의 30만 대군을 맞아 격전 끝에 이를 물리쳤다.
135) 남생(男生) : 고구려의 재상(?~679). 연개소문의 맏아들로 아버지를 이어 대막리지(大莫離支)가 되었으나 아우 남건, 남산에게 쫓겨났다.
136) 남소성(南蘇城) : 고구려 때에, 만주의 남산성자(南山城子)에 있던 옛 성.
137) 연정토(淵淨土) : 고구려 말기의 대신. 연개소문의 아우로, 형이 죽고 내외 정세가 고구려에 불리하게 되자 12성(城)을 가지고 신라에 항복하였다.
138) 천재일우(千載一遇) : 천 년 동안 단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이르는 말.
139) 김인문(金仁問) : 신라의 장군·외교관(629~694). 자는 인수(仁壽).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로 당나라에 파견되어 나당 연합군을 조직하는 데 성공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효소왕으로부터 태대각간에 추증(追贈)되었다.
140) 안승(安勝) : 고구려 부흥 운동 때 추대된 왕. 고구려 보장왕의 서자로, 검모잠에 의하여 왕으로 추대되어 고구려 재건을 꾀하다가 신라에 귀순하여 보덕왕에 봉해지고, 뒤에 소판(蘇判)의 벼슬과 김씨(金氏) 성을 받았다.
141) 설인귀(薛仁貴) : 중국 당나라의 장군(613~682). 고구려가 망한 뒤 당나라가 평양에 설치한 안동도호부의 도호로 부임하였으나, 신라군의 반격으로 세력이 위축되자 신라 문무왕 17년(677)에 도호부

를 신성으로 옮겼다.

142) 유진(留陣) : 군사들이 머물러 있음. 또는 군사들을 머물러 있게 함.

143) 대조영(大祚榮) : 발해의 시조(?~719). 고구려의 유민으로, 698년에 진(震)을 세워 왕이 되고, 713년에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여 국호를 발해로 고쳤다. 재위 기간은 698~719년이다.

144) 동모산(東牟山) : 발해의 시조 대조영이 건국의 근거지로 삼은 곳. 지금의 지린성(吉林省) 둔화시(敦化市) 부근이다.

145) 사이(四夷) : 예전에, 중국의 사방에 있던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을 통틀어 이르던 말.

146) 피시(被弑) : 임금이 신하에게 죽임을 당함.

147) 성왕(成王) : 발해(渤海)의 제5대 왕(?~794). 성은 대(大). 이름은 화여(華與). 연호를 중흥(中興)으로 고치고 수도를 상경(上京)으로 옮겼다.

148) 강왕(康王) : 발해 제6대 왕(?~809). 성은 대(大). 이름은 숭린(崇璘). 연호를 정력(正曆)이라고 하였으며, 당나라와 일본에 사신을 보내 문물 교환을 활발히 하였다.

149) 정왕(定王) : 발해의 제7대 왕(?~812). 이름은 대원유(大元瑜). 강왕의 아들로, 영덕(永德)이라는 연호를 썼다.

150) 희왕(僖王) : 발해의 제8대 왕(?~817). 성은 대(大). 이름은 언의(言義). 연호를 주작(朱雀)이라 고치고, 중국 당나라와 교류하여 그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였다.

151) 간왕(簡王) : 발해의 제9대 왕(?~818). 성은 대(大). 이름은 명충(明忠). 연호를 태시(太始)라고 하였다.

152) 선왕(宣王) : 발해의 제10대 왕(?~830). 성은 대(大). 이름은 인수(仁秀). 고구려 옛 땅의 대부분을 회복하고 중국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행정 구역을 개편하여 발해의 전성기를 이룩하였다.

153) 해동(海東) 성국(盛國) : 번영기 때의 발해를 중국에서 이르던 말.

154) 현손(玄孫) : 증손자의 아들. 또는 손자의 손자.

155) 경왕(景王) : 발해의 제13대 왕(?~?893). 성은 대(大). 이름은 현석(玄錫). 중국 당나라 및 일본과 교역을 활발히 하였다.

156) 애왕(哀王) : 발해의 마지막 왕. 성은 대(大). 이름은 인선(諲譔). 926년에 거란 태종에게 부여성에서 포위되어 항복했다.

157) 야율(耶律) 아보기(阿保機) : 중국 요나라의 제1대 황제(872~926). 묘호는 태조(太祖). 당나라 말기에 거란족의 칸(Khan)이 되어 916년에 황제라 칭하였으며, 발해를 멸망시키고 만주・몽골 고원을 지배하였다.

158) 노서아(露西亞) : 러시아의 음역.

159) 고토(故土) : 고향 땅.

160) 온조왕(溫祚王) : 백제의 시조(?~28).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다. 기원전 11년에 말갈(靺鞨)의 침입을 받았으며, 기원전 5년에 서울을 남한산으로 옮기고, 9년에는 마한을 병합하여 국토를 확장하였다.

161) 비류(沸流) : 고구려 동명 성왕의 서자(庶子). 이복동생 유리가 북부여에서 와 태자가 되고 후에 왕이 되자, 아우 온조와 함께 고구려를 떠나 미추홀에 도읍을 정하였으나 땅이 습하고 살 곳이 못 되어 백성이 흩어지니, 온조에게 부끄럽게 생각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2) 미추홀(彌鄒忽) : 인천광역시 일대의 고구려 때 이름.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이 유리(琉璃)를 태자

로 삼자, 온조의 이복형 비류가 차지한 백제 초기의 도읍지이다.

163) 다루왕(多婁王) : 백제의 제2대 왕(?~77). 온조왕의 아들로, 북방의 말갈족을 격퇴하였고 농사를 장려하였다.

164) 탈해왕(脫解王) : 신라의 제4대 왕(?~80). 성(姓)은 석(昔). 토해(吐解)라고도 한다. 국호를 계림(鷄林)이라 하였으며, 일본과 화친(和親)하면서 백제·가야와 자주 싸움을 벌였다.

165) 회맹(會盟) : 공훈(功勳)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책에 써 올릴 때에 임금과 신하가 모여서 서로 맹세하던 일.

166) 기루왕(己婁王) : 백제의 제3대 왕(?~128). 85년에 신라의 변방을 공략하고, 105년에 신라에 화친(和親)을 청하였다.

167) 개루왕(蓋婁王) : 백제 제4대 왕(?~166). 165년에 신라를 모반한 아찬 길선(吉宣)의 망명을 받아들인 뒤로 신라와 사이가 나빠졌다.

168) 아달라왕(阿達羅王) : 신라의 제8대 왕(?~184). 성은 박(朴). 현(縣)의 설치, 도로의 개통 따위의 내치(內治)에 힘썼다.

169) 초고왕(肖古王) : 백제의 제5대 왕(?~214). 신라의 서쪽을 침범하여 관산성과 모산성을 함락하고, 원산향과 요차성을 공격하였다. 적현성과 사도성을 쌓고 동부의 민호(民戶)를 이주시켰다.

170) 구수왕(仇首王) : 백제 제6대 왕(?~234).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여 제방을 쌓아 농사를 장려하고, 신라 우두진(牛頭鎭)을 공격하였다.

171) 사반왕(沙伴王) : 백제의 제7대 왕. 234년에 왕위에 올랐으나, 어리고 무능하여 몇 개월 만에 고이왕에게 왕위를 빼앗겼다.

172) 고이왕(古爾王) : 백제 제8대 왕(?~286). 율령을 확립하고 관제를 제정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신라의 변방을 침범하여 영토를 넓혔으며, 국가의 기초를 세웠다.

173) 분서왕(汾西王) : 백제의 제10대 왕(?~304). 낙랑군의 서현(西縣)을 점령하여 영토를 확장하였으나 낙랑의 자객에게 살해되었다.

174) 계왕(契王) : 백제 제12대 왕(?~346). 성품이 강직하고 말타기와 활쏘기에 뛰어났다.

175) 근초고왕(近肖古王) : 백제 제13대 왕(?~375). 369년에 마한과 대방을 병합하였고, 371년에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점령하여 고국원왕을 전사하게 하였다. 이를 통하여 백제는 강력한 고대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직기(阿直岐)와 왕인(王仁)을 일본에 파견하였으며, 박사 고흥(高興)에게 서기(書記) 를 편찬하게 하였다.

176) 천질(天質) : 타고난 성질.

177) 근구수왕(近仇首王) : 백제 제14대 왕(?~384). 일본, 중국과 국교를 열어 문물을 보급하는 데에 공이 컸다.

178) 침류왕(枕流王) : 백제 제15대 왕(?~385). 재위 원년(384)에 인도의 중 마라난타가 중국 동진(東晉)에서 불상을 가지고 들어와 불교를 전하였으며, 이듬해 한산(漢山)에 처음으로 절을 지었다.

179) 한산사(寒山寺) : 중국 장쑤 성(江蘇省) 쑤저우 시(蘇州市) 교외의 펑챠오(楓橋鎭)에 있는 절. 당나라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의 시로 유명하다.

180) 진사왕(辰斯王) : 백제 제16대 왕(?~392). 여러 차례 고구려와 싸웠으며 광개토왕에게 한강 이북을 빼앗기자 이를 되찾기 위하여 구원(狗原)에 출전하였다가 병으로 죽었다.

181) 아신왕(阿莘王) : 백제의 제17대 왕(?~405).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대항하여 예성강 등 국경 지

대에서 싸웠으나 모두 패하였다. 397년에 태자 전지(腆支)를 일본에 보내어 화친을 맺은 후, 이듬해 쌍현성을 쌓았다. 아방왕(阿芳王)·아화왕(阿花王)이라고도 한다.

182) 전지왕(腆支王) : 백제 제18대 왕(?~420). 이름은 여영(餘映)·영(映). 상좌평(上佐平)의 직제를 처음으로 마련하였고, 동진(東晉)과 국교를 강화하고 일본에 사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183) 비유왕(毘有王) : 백제 제20대 왕(?~455). 중국 남조(南朝) 송나라와 왕래하였으며, 동왕 7년(433)에는 신라와 화친하는 등 국제 외교를 통한 친선에 힘썼다.

184) 개로왕(蓋鹵王) : 백제 제21대 왕(?~475). 이름은 경사(慶司). 중국 위(魏)나라에 고구려를 토벌하기 위한 원군(援軍)을 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고구려의 첩자인 승려 도림(道琳)의 계책에 말려들어 토목 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하고,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 살해되었다.

185) 장수왕(長壽王) : 고구려 제20대 왕(394~491). 이름은 거련(巨連)·연(璉). 광개토 대왕의 맏아들로, 427년에 도읍을 국내성(國內城)에서 평양으로 옮기고 남하 정책을 펼쳐, 고구려의 판도를 넓혔다. 부족 제도를 고치고 5부(部)를 개설하는 따위의 개혁을 이룩하여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186) 문주왕(文周王) : 백제 제22대 왕(?~477). 부왕(父王)인 개로왕이 고구려군에게 전사하자, 곧 즉위하여 서울을 웅진으로 옮기고 국방에 힘썼으나 국력을 떨치지는 못하였다. 그 후 병관좌평 해구(解仇)에게 실권을 빼앗기고 시해당하였다.

187) 웅진(熊津) : '공주'의 옛 이름.

188) 내공(來貢) : 외국 또는 속국의 사신이 찾아와서 공물을 바침.

189) 좌평(佐平) : 백제 때에 둔 전체 십육 관등 가운데 첫째 등급. 고이왕 27년(260)에 둔 것으로, 내신좌평·내두좌평·내법좌평·위사좌평·조정좌평·병관좌평의 여섯 좌평이 있었다.

190) 삼근왕(三斤王) : 백제의 제23대 왕(?~479). 478년에 해구가 반란을 일으키자 진로(眞老)로 하여금 평정하게 하였다.

191) 동성왕(東城王) : 백제의 제24대 왕(?~501). 이름은 모대(牟大), 여대(餘大), 마제(麻帝). 고구려의 남하(南下)에 대비하여 신라·중국 남제(南齊) 등과 화친을 맺고, 493년 신라와 혼인 동맹을 맺었으며 498년에는 탐라국을 복속시켰다.

192) 치양성(雉壤城) : 치악산성.

193) 무령왕(武寧王) : 백제 제25대 왕(462~523). 이름은 사마(斯摩/斯麻)·융(隆). 24대 동성왕의 둘째 아들로, 양나라와 친교를 맺으며 국내 안정에 힘쓰는 한편, 쌍현성(雙峴城)을 쌓아 외침에 대비하였다.

194) 오경박사(五經博士) : 백제 때에, 오경(五經)에 능통한 학자에게 주던 칭호. 이 칭호를 받은 학자들이 일본에 건너가 고대 일본 문명의 개화에 공을 세웠다.

195) 단양이(段楊爾) : 백제의 학자. 무령왕 13년(513)에 일본의 초청을 받고 도일(渡日)하여, 유학을 가르치고 돌아왔다.

196) 모시(毛詩) : 시경2(詩經) 을 달리 이르는 말. 중국 한나라 때의 모형이 전하였다고 하여 이렇게 이름.

197) 위덕왕(威德王) : 백제 제27대 왕(525~598). 이름은 창(昌). 고구려의 침공을 막아 내고, 중국 각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한편, 신라를 자주 침공하였다.

198) 혜왕(惠王) : 백제의 제28대 왕(?~599). 이름은 계(季). 헌왕(獻王)이라고도 한다. 위덕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으나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이듬해 죽었다.
199) 법왕(法王) : 백제의 제29대 왕(?~600). 이름은 선(宣)・효순(孝順). 불교를 장려하여 살생을 금하고, 왕흥사의 창건에 착수하는 등 불교 융성을 위하여 힘썼다.
200) 의자왕(義慈王) : 백제의 제31대 마지막 왕(?~?). 642년에 신라를 공격하여 미후성(獼猴城) 등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고구려와 화친하는 등 기울어져 가는 국위의 선양에 힘썼다. 만년에 사치와 방탕에 흘러, 660년에 나당 연합군에 항복하여 당에 압송되었다가 병사하였다.
201) 소정방(蘇定方) : 중국 당나라의 장군(595~667). 이름은 열(烈). 정방은 자(字). 현경(顯慶) 5년(660)에 나당(羅唐) 연합군의 대총관으로서 13만의 당군을 거느리고 백제의 사비성을 함락하고, 의자왕과 태자 융(隆)을 사로잡았다. 661년에는 평양성을 포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202) 종묘사직(宗廟社稷) : 왕실과 나라를 통틀어 이르는 말.
203) 성충(成忠) : 백제 의자왕 때의 충신(?~656). 좌평(佐平)으로 있으면서 왕의 방탕을 여러 번 간하다가 투옥되자, 옥에서 외적의 침입을 예언하면서 육로는 탄현(炭峴)에서, 수로는 기벌포(伎伐浦)에서 적을 막으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
204) 강개(慷慨) :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의기가 북받쳐 원통하고 슬픔.
205) 계백(階伯) : 백제 말기의 장군(?~660). 의자왕 20년(660)에 나당(羅唐) 연합군이 백제로 쳐들어오자, 결사대 오천을 이끌고 황산벌에서 신라 장수 김유신과 네 차례 싸운 끝에 전사하였다.
206) 중과부적(衆寡不敵) : 적은 수효로 많은 수효를 대적하지 못함.
207) 김인문(金仁問) : 신라의 장군・외교관(629~694). 자는 인수(仁壽).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로 당나라에 파견되어 나당 연합군을 조직하는 데 성공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효소왕으로부터 태대각간에 추증(追贈)되었다.
208) 낙화암(洛花巖)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산에 있는 큰 바위. 백제가 망할 때 삼천 궁녀가 이 바위에서 백마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전설이 있다.
209) 오도독부(五都督府) : 중국의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뒤에 백제 땅에 두었던 다섯 도독부. 웅진 도독부, 마한 도독부, 동명 도독부, 금련 도독부, 덕안 도독부를 이른다.
210) 내홍(內訌) : 집단이나 조직의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일으킨 분쟁.
211) 나정(蘿井) : 신라의 시조(始祖) 박혁거세가 나온 알이 그 곁에 있었다고 하는 전설상의 우물. 경주 양산에 있었다고 한다.
212) 고허(高墟) : 옛날의 성터나 집터. 고향 땅의 옛터.
213) 거서간(居西干) :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왕호.
214) 알영씨(閼英) :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왕비(B.C.69?~?). 현숙함과 덕망으로 왕을 내조하였으며, 육부(六部)를 순행하고 농상(農桑)을 권장하였다.
215) 사릉(蛇陵) : 경주 오릉(慶州 五陵). 신라 초기의 왕릉으로 시조(始祖) 박혁거세(朴赫居世)와 알영부인(閼英夫人), 제2대 남해왕(南解王), 제3대 유리왕(儒理王), 제5대 파사왕(婆娑王) 등 5명의 분묘라 전해짐.
216) 남해왕(南解王) : 신라의 제2대 왕(?~24). 박혁거세의 맏아들로, 시조의 능을 짓고 석탈해를 사위로 맞아 대보(大輔)로 삼고 정사를 맡겼다.
217) 연해변경(沿海邊境) :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
218) 유리왕(儒理王) : 신라 제3대 왕(?~57). 성은 박(朴). 노례 이사금(弩禮尼師今)이라고도 한다. 육

부의 이름을 고치고 성(姓)을 내렸으며 17등 관계(官階)를 제정하였다.
219) 표모(漂母) : 빨래하는 나이 든 여자.
220) 상전(相傳) : 대대로 이어져 전함. 또는 서로 전함.
221) 윤량(允良) : 생몰년 미상. 신라 상대의 관리. 84년(파사이사금 5) 2월에 파진찬(波珍飡)에 임명되었고, 93년 정월에는 이찬(伊飡)에 임명되어 국정을 다스렸다.
222) 길원(吉元) : 생몰년 미상. 신라 상대의 관리로, 아찬(阿飡)의 관등을 지냈다. 94년(파사이사금 15) 2월에 가야가 마두성(馬頭城)에 쳐들어와 포위를 당했을 때, 군사 1,000인을 거느리고 나가 적을 퇴주시켰다.
223) 김알지(金閼智) : 신라 때 경주 김씨의 시조(65~?). 금궤에서 나왔다고 하여 성을 김이라고 했다. 그의 7대손인 미추(味鄒)가 12대 첨해왕의 뒤를 이어 등극함으로써 신라 왕족에 김씨가 등장하게 되었다
224) 시림(始林) : 신라 초기 경주 지방의 지명. 탈해왕 9년(65) 3월에 계림(鷄林)으로 고침.
225) 일성왕(逸聖王) : 신라 제7대 왕(?~154). 성은 박(朴). 말갈의 침입을 자주 받았으나, 농본국의 정책을 펼쳐 제방을 고쳐 쌓고 농지를 개간하는 한편 백성들의 사치를 금하고 검소한 생활을 장려하였다.
226) 벌휴왕(伐休王) : 신라 제9대 왕(?~196). 성은 석(昔). 탈해왕의 손자로 처음으로 좌군주(左軍主), 우군주(右軍主)의 군직을 만들어 소문국(召文國)을 정벌하였다.
227) 내해왕(奈解王) : 신라의 제10대 왕(?~230). 209년 포상 팔국(浦上 八國)의 침입을 받은 가락국의 요청으로 구원병을 파견하여 이를 물리쳤다. 재위 기간에 여러 차례 백제의 침입을 받았으나, 이를 격퇴하였다.
228) 미추왕(味鄒王) : 신라의 제13대 왕(?~284). 김씨 왕가의 시조로, 농사를 장려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백제의 침입을 물리쳤다.
229) 유례왕(儒禮王) : 신라의 제14대 왕(?~298). 286년에 백제와 수교하였고, 297년에는 삼한 소국의 하나인 이서국(伊西國)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230) 기림왕(基臨王) : 신라의 제15대 왕(?~310). 조분왕의 손자이며 이찬(伊飡) 걸숙(乞淑)의 아들로, 즉위 3년(300)에 왜국과 사신을 교환하였고 빈민을 구제하는 따위의 선정을 폈다.
231) 흘해왕(訖解王) : 신라의 제16대 왕(?~356). 기림왕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죽자 대신들의 추대로 즉위하였다.
232) 내물왕(奈勿王) : 신라 제17대 왕(?~402).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추고 왕권을 강화했으며, 이 시기에 한자가 처음 사용된 듯하다.
233) 실성왕(實聖王) : 신라 제18대 왕(?~417). 성은 김(金). 내물왕이 죽자 즉위하였으며, 고구려・일본과 수호를 맺었다.
234) 박제상(朴堤上) : 신라 눌지왕 때의 충신(?~?). 고구려에 볼모로 가 있던 왕제(王弟) 복호(卜好)를 데려왔으며, 왜(倭)에 볼모로 간 왕제 미사흔(未斯欣)을 돌려보내고 자신은 체포되었는데, 왜의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충절을 지키다가 피살되었다. 부인은 그를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235) 자비왕(慈悲王) : 신라 제20대 왕(?~479). 459년 월성(月城)에 침입한 왜인(倭人)을 격퇴하였고, 474년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였을 때 백제와 나제 동맹을 맺었다.
236) 개견(開見)이면 이인사(二人死)오 불개견(不開見) 일인사(一人死)라 : “열어 보면 두 명이 죽을 것

이요 열어 보지 않으면 한 명이 죽을 것이다"라는 뜻.

237) 분수승(焚修僧) : 부처 앞에 향불을 피우고 불도를 닦는 중을 말함.

238) 잠통(潛通) : 몰래 내통함. 또는 몰래 간통함.

239) 지증왕(智證王) : 신라 제22대 왕(437~?). 성은 김(金). 이름은 지대로(智大路)·지도로(智度路)·지철로(智哲老).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순장법(殉葬法)을 금하고 농사를 장려하여 우경법(牛耕法)을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며, 울릉도를 점령하여 국토를 개척하고, 중국식을 따라 왕에게 시법(諡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40) 소지왕(炤智王) : 신라의 제21대 왕(?~500). 각 지방에 우역(郵驛)을 두었고, 경주에 시장을 설치하였다. 백제와는 혼인 동맹을 맺고, 고구려와는 여러 번 싸웠다.

241) 재종제(再從弟) : 육촌 아우.

242) 우경(牛耕) : 소로 밭을 갊.

243) 덕업일신 망라사방(德業日新網羅四方) : 덕업이 날로 새로워져 사방을 망라한다. '신라'의 국호를 뜻하는 글로, '신(新)'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德業日新)는 의미며, '라(羅)'는 사방을 모두 휘몰아 들인다는 뜻(網羅四方)이다.

244) 주즙(舟楫) : 배와 삿대라는 뜻으로, 배 전체를 이르는 말.

245) 법흥왕(法興王) : 신라 제23대 왕(?~540). 성은 김(金). 이름은 원종(原宗). 이 무렵 불교가 들어왔고, '건원'(建元)이라는 연호를 썼다. 처음으로 율령을 반포하여 백관(百官)의 공복(公服)을 정하는 등 국가 체제의 확립에 힘을 기울였다.

246) 이차돈(異次頓) : 신라 법흥왕 때의 승려(506~527). 성은 박(朴). 일명 거차돈(居次頓). 자는 염촉(厭觸). 신라 십성의 한 사람으로, 불교의 공인을 위해 순교를 자청하였는데, 그가 처형되자 피가 하얀 젖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 불교가 공인되었다고 한다

247) 구형왕(仇衡王) : 금관가야의 제10대 왕(?~?). 구충왕(仇衝王)이라고도 한다. 532년 신라 법흥왕이 쳐들어올 때 항복하였다.

248) 진흥왕(眞興王) : 신라 제24대 왕(534~576). 성은 김(金). 이름은 삼맥종(三麥宗)·심맥부(深麥夫).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아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변경에 순수비를 세웠다. 팔관회를 처음 열었으며, 황룡사를 지어 불교 진흥에 힘썼다. 또 화랑 제도를 창시하고 국사(國史) 를 편찬케 하였으며, 가야금을 제작·연주하게 하는 따위의 문화 창달에도 이바지하였다.

249) 거칠부(居柒夫) : 신라의 장군·상대등(502~ 579). '황종1(荒宗)' 또는 '거칠부지(居七夫智)'·'거칠부지(居柒夫智)'라고도 한다. 진흥왕 6년(545)에 국사(國史) 를 편찬하였고, 진흥왕 12년(551)에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 영토 10군을 점령하였다.

250) 황룡사(黃龍寺) : 경상북도 경주에 있던 절. 신라 진흥왕 때에 착공하여 선덕 여왕 14년(645)에 완성한 것으로, 신라 호국 신앙의 중심지였다. 고려 고종 때에 몽골군의 침입으로 소실되어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251) 진지왕(眞智王) : 신라 제25대 왕(?~579). 성은 김(金), 이름은 사륜(舍輪)·금륜(金輪). 내리서성(內利西城)을 쌓아 백제의 잦은 침공을 방비하였다. 중국의 진(陳)나라와 수교하여 화친을 도모하였다.

252) 진평왕(眞平王) : 신라 제26대 왕(?~632). 성은 김(金). 이름은 백정(白淨). 중국 수나라와 친교를 맺고 불교의 진흥을 꾀하였다. 609년에 수나라의 도움을 받아 고구려를 원정하였고, 당나라가 선 뒤에

도 계속 친교를 맺어 고구려를 견제하였다.
253) 분황사(芬皇寺)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절. 신라 선덕 여왕 3년(634)에 창건되어 원효(元曉)가 불도(佛道)를 닦으면서 화엄경소(華嚴經疏) 를 쓴 명찰(名刹)로, 국보로 지정된 분황사 석탑이 있다.
254) 진덕여왕(眞德女王) : 신라 제28대 왕(?~654). 성은 김(金). 이름은 승만(勝曼). 연호를 태화(太和)로 정하고, 648년 김춘추를 당나라에 보내 군사 원조를 받았으며 김유신을 기용하여 국력을 키워 삼국 통일의 기초를 닦았다.
255)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 신라의 제29대 왕(602~661). 성은 김(金). 이름은 춘추(春秋). 묘호는 태종(太宗). 율령을 정비하고,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닦았다.
256) 문무왕(文武王) : 신라 제30대 왕(?~681). 성은 김(金). 이름은 법민(法敏). 태종 무열왕의 맏아들로 김유신과 함께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중국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어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 당악(唐樂), 신력(新曆) 따위의 당나라 문화를 수입하는 데에 노력하였고, 죽은 후 유언에 따라 동해의 대왕암에 수장되었다.
257) 역법(曆法) : 천체의 주기적 현상을 기준으로 하여 세시(歲時)를 정하는 방법.
258) 화백(和伯)제도(制度) : 진골(眞骨) 귀족 출신의 대등(大等)으로 구성된 신라의 합의체 회의기구. 국가의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고 귀족세력과 왕권 사이에서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졌다.
259) 설총(薛聰) : 신라 경덕왕 때의 학자(655~?). 자는 총지(聰智). 시호는 홍유(弘儒). 국학(國學)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유학의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이두(吏讀)를 정리하고 집대성하였다.
260) 신문왕(神文王) : 신라 제31대 왕(?~692). 성은 김(金). 이름은 정명(政明)·명지(明之). 자는 일초(日炤). 국학을 세워 학문을 장려하고, 관제를 다시 정비하여 신라의 황금시대를 이룩하였다.
261) 효소왕(孝昭王) : 신라의 제32대 왕(?~702). 성은 김(金), 이름은 이홍(理洪)·이공(理恭). 관제(官制)를 정비하고 당나라 및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었으며, 처음으로 의학 박사를 두었다. 또 이찬(伊湌) 경영(慶永)의 모반을 평정하였다.
262) 성덕왕(聖德王) : 신라 제33대 왕(?~737). 성은 김(金). 이름은 흥광(興光). 본명은 융기(隆起).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힘썼다.
263) 효성왕(孝成王) : 신라의 제34대 왕(?~742). 성은 김(金), 이름은 승경(承慶). 성덕왕의 둘째 아들로, 740년에 파진찬 영종(永宗)의 모반을 평정하고, 당나라와 교섭하여 원만한 관계를 이루었다.
264) 경덕왕(景德王) : 신라 제35대 왕(?~765). 성은 김(金). 이름은 헌영(憲英).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 제도와 관직을 당나라식으로 고치고 국내 지명도 한자식으로 고쳤다. 국학 진흥과 불교 중흥에 힘써, 통일 신라 문화의 황금시대를 이루었다.
265) 김대성(金大城) : 통일 신라 경덕왕 때의 재상(700~774). 경덕왕 10년(751)에 경주 불국사와 석불사(石佛寺)의 건립을 발원(發願)하고 설계, 건축, 조각 따위의 전반에 걸쳐 관여하였다. 그러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어 뒤에 조정에서 완성하였다.
266) 혜공왕(惠恭王) : 신라의 제36대 왕(758~780). 성은 김(金). 이름은 건운(乾運). 재위 중 천재지변이 자주 일어나 민심이 흉흉하였으나 사치와 방탕을 일삼고 국사를 돌보지 않다가, 780년에 김지정의 난으로 살해되었다.
267) 선덕왕(宣德王) : 신라 제37대 왕(?~785). 성은 김(金). 이름은 양상(良相). 이찬(伊湌) 김지정의 반란을 진압하고, 혜공왕이 죽자 왕이 되었다.

268) 애장왕(哀莊王) : 신라 제40대 왕(788~809). 성은 김(金). 이름은 중희(重熙).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의 묘당을 세우고 해인사를 창건하였다. 섭정을 하던 숙부 김언승(金彦昇)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시해되었다.

269) 헌덕왕(憲德王) : 신라의 제41대 왕(?~826). 이름은 언승(彦昇). 조카인 애장왕을 죽이고 즉위하여 친당 정책을 폈다. 김헌창과 그 아들 범문(梵文)의 반란을 평정하고, 백영(白永)에게 명하여 패수에 300리나 되는 장성을 쌓게 하였다.

270) 김헌창(金憲昌) : 신라 헌덕왕 때의 반신(叛臣)(?~822). 청주 도독, 웅천주 도독을 지냈다. 선덕왕이 죽은 뒤, 아버지 주원(周元)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자 반란을 일으켰다가 관군에게 몰려 자살하였다.

271) 흥덕왕(興德王) : 신라의 제42대 왕(?~836). 성은 김(金). 이름은 수종(秀宗)·경휘(景暉)·수승(秀升). 청해진을 만들고 장보고를 그 대사로 삼아 해적의 침입을 막게 하였으며, 복색 제도를 개정하고 백성의 사치를 금하였다.

272) 희강왕(僖康王) : 신라의 제43대 왕(?~838). 성은 김(金). 이름은 제륭(悌隆). 흥덕왕이 후사(後嗣)가 없이 죽자 삼촌인 균정과 왕위 다툼 끝에 균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올랐으나, 뒤에 그를 도왔던 김명 등이 난을 일으키자 목매어 자살하였다.

273) 장보고(張保皐) : 통일 신라 시대의 장군(?~846). 본명은 궁복(弓福)·궁파(弓巴). 중국 당나라에 건너가 무령군(武寧軍) 소장(小將)이 되어 활약하였으며, 귀국 후 청해진 대사(大使)로 임명되어 황해와 남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당나라와 일본으로 왕래하며 동방 국제 무역의 패권을 잡았다.

274) 민애왕(閔哀王) : 신라 제44대 왕(817~839). 성은 김(金). 이름은 명(明). 시중(侍中)으로 있을 때 흥덕왕이 승하하자, 김제륭(金悌隆)을 희강왕으로 내세우고 스스로 상대등(上大等)이 되어 정권을 잡았으며, 3년 후 왕을 시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으나, 이듬해 신무왕에게 살해되었다.

275) 신무왕(神武王) : 신라 제45대 왕(?~839). 성은 김(金). 이름은 우징(祐徵). 장보고, 김양(金陽) 등의 도움으로 839년에 민애왕을 시해하고 왕이 되었으나, 수개월 뒤에 병사하였다

276) 진성여왕(眞聖女王) : 신라의 제51대 왕(?~897). 성은 김(金). 이름은 만(曼). 재위 기간 중에 나라가 혼란에 빠졌으며 후삼국으로 다시 나누어지게 되었다. 888년 각간 위홍과 대구 화상에게 향가집 삼대목 을 편찬하게 하였다.

277) 위홍(魏弘) : 신라 진성 여왕 때의 총신(寵臣)(?~888). 여왕의 총애로 각간이 되어 권력을 휘둘렀으며, 왕명으로 대구 화상과 함께 삼대목 이라는 향가집을 엮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278) 견훤(甄萱) : 후백제의 시조(867~935). 본성은 이(李). 신라의 비장(裨將)으로 있다가 효공왕 4년(900)에 완산에 도읍하고 후백제를 세웠다. 929년 고창(古昌)에서 왕건의 군사에게 크게 패한 뒤 차츰 형세가 기울자 936년에 고려에 항복하였다.

279) 헌안왕(憲安王) : 신라의 제47대 왕(?~861). 이름은 의정(誼靖)·우정(祐靖). 제방을 쌓아 농사를 장려하였으며, 후사가 없어 왕족 응렴(膺廉)을 사위로 삼고 왕위를 물려주었다.

280) 양길(梁吉) : 통일 신라 말기의 반란자. 북원(北原)에서 반란을 일으켜 궁예와 함께 그 판도를 넓혔으나 궁예의 세력이 커지자 그를 없애려다 도리어 역습을 당하였다.

281) 효공왕(孝恭王) : 신라의 제52대 왕(?~912). 성은 김(金). 이름은 요(嶢). 진성 여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으나, 궁예와 견훤에게 많은 영토를 빼앗기고도 정사(政事)를 돌보지 않아 후삼국이 정립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282) 신덕왕(神德王) : 신라 제53대 왕(?~917). 성은 박(朴). 이름은 경휘(景暉). 본명은 수종(秀宗). 효공왕이 후사 없이 죽자 귀족들의 추대를 받아 즉위하였다. 견훤과 궁예의 침입을 받았다.
283) 경명왕(景明王) : 신라 제54대 왕(?~924). 성은 박(朴). 이름은 승영(昇英). 후삼국(後三國)이 정립(鼎立)하여 패권을 다투던 때 왕위에 올라 기울어 가는 국운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
284) 경애왕(景哀王) : 신라 제55대 왕(?~927). 성은 박(朴). 이름은 위응(魏膺). 신라의 국세가 쇠퇴할 때 즉위하여 왕건과 견훤의 압박을 받았으며, 즉위 4년(927) 포석정(鮑石亭)에서 연회를 하다 견훤의 습격을 받자 자살하였다.
285) 후백제(後百濟) : 892년에 견훤이 완산주에 도읍하여 세운 나라. 후삼국의 하나로서 한때 세력을 떨쳤으나 견훤 부자(父子)의 불화로 936년에 고려에 망하였다.
286) 경애왕(景哀王) : 경애왕(? ~ 927, 재위: 924년 ~ 927년)은 신라의 제55대 왕으로 성은 박(朴)씨이며 이름은 위응(魏膺)이다. 신라 쇠퇴기의 왕으로 견훤(甄萱)의 습격을 받아 자살했다.
287) 비빈(妃嬪) : 비(妃)와 빈(嬪)을 아울러 이르는 말.
288) 종척(宗戚) : 왕의 종친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던 말.
289) 재신(宰臣) : 재상(宰相).
290) 궁예(弓裔) : 후고구려의 건국자이자 왕(?~918)으로 송도에 도읍을 정하고, 901년에 스스로 왕이 되어 국호를 후고구려라고 하였다. 뒤에 왕건에게 폐위되었다. 재위 기간은 901~918년이다.
291) 양길(梁吉) : 통일 신라 말기의 반란자(?~?). 북원(北原)에서 반란을 일으켜 궁예와 함께 그 판도를 넓혔으나 궁예의 세력이 커지자 그를 없애려다 도리어 역습을 당하였다.
292) 정도(定都) : 도읍을 정함.
293) 마진(摩震) : 궁예가 세운 나라 이름. 911년에 태봉(泰封)으로 고쳤다.
294) 무태(武泰) : 통일 신라 말기에, 고구려의 부흥을 표방하며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가 송악으로 천도한 뒤 국호를 마진(摩震)으로 바꾸면서 사용한 연호(904~905)이다.
295) 연호(年号) : 해의 차례를 나타내기 위하여 붙이는 이름을 이른다.
296) 태봉(泰封) : 901년에 궁예가 송악에 도읍하여 세운 나라로 건국 당시 국호를 후고구려라 하였다가 905년에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태봉, 연호를 수덕만세(水德萬歲)라고 하였다.
297) 경순왕(敬順王) : 신라 제56대 마지막 왕(?~978)으로 성은 김(金). 이름은 부(傅)이다. 경애왕이 죽은 뒤 견훤에 의해 왕위에 올랐으나, 935년 고려 왕건에게 항복하였다. 재위 기간은 927~935년이다.
298) 말왕(末王) : 마지막 왕.
299) 견훤(甄萱) : 후백제의 시조(?~936)로 본성은 이(李)이다. 신라의 비장(裨將)으로 있다가 효공왕 4년(900)에 완산에 도읍하고 후백제를 세웠다. 929년 고창(古昌)에서 왕건의 군사에게 크게 패한 뒤 차츰 형세가 기울자 936년에 고려에 항복하였다.
300) 침노(侵擄) :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쳐들어가거나 쳐들어옴.
301) 득인(得人) : 쓸만한 사람을 얻음.
302) 제신(諸臣) : 여러 신하.
303) 사직(社稷) : 나라 또는 조정을 이르는 말.
304) 소문(蘇文) : 연개소문.

305) 순절(殉節) : 충절(忠節)이나 정절(貞節)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
306) 계백(階伯) : 백제 말기의 장군(?~660)으로 의자왕 20년(660)에 나당 연합군이 백제로 쳐들어오자, 결사대 오천을 이끌고 황산벌에서 신라 장수 김유신과 네 차례 싸운 끝에 전사하였다.
307) 일조일석(一朝一夕) : 하루아침, 하루 밤.
308) 혁거세(赫居世) : 박혁거세, 신라의 시조(?B.C.69~?A.D.4)로 왕호는 거서간(居西干)이다. 13세에 왕위에 올라 재위 17년에 전국을 순시하여 농사와 양잠을 장려하였으며, 21년에는 수도를 금성(金城)이라고 하고 성을 쌓아 나라의 기틀을 닦았다. 재위 기간은 기원전 57년~기원후 3년이다.
309) 중흥(中興) : 쇠퇴하던 것이 중간에 다시 일어남. 또는 다시 일어나게 함.
310) 진성여왕(眞聖女王) : 신라의 제51대 왕(?~897)으로 성은 김(金), 이름은 만(曼)이다. 재위 기간 중에 나라가 혼란에 빠졌으며 후삼국으로 다시 나누어지게 되었다. 888년 각간 위홍과 대구 화상에게 향가집 삼대목 을 편찬하게 하였다. 재위 기간은 887~897년이다.
311) 위홍(魏弘) : 신라 진성 여왕 때의 총신(寵臣)(?~888)으로 여왕의 총애로 각간이 되어 권력을 휘둘렀으며, 왕명으로 대구 화상과 함께 삼대목 이라는 향가집을 엮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312) 지사(志士) :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
313) 충간(忠諫) :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윗사람의 잘못을 간함.
314) 마의태자(麻衣太子) : 신라 경순왕의 태자(?~?)로 경순왕 9년(935)에 신라가 고려에 항복하자 이에 반대하여 금강산으로 들어가 마의(麻衣)를 입고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먹으면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315) 초근(草根) : 풀 뿌리.
316) 목피(木皮) : 나무의 껍질.
317) 조야(朝野) : 조정과 민간을 아울러 이르는 말.
318) 역년(歷年) : 한 왕조가 왕업을 누린 햇수.
319) 가락(駕洛) : 가야(伽倻)를 이르는 말.
320) 변한(弁韓) : 삼한의 하나로 경상도의 서남 지방에 십여 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졌으며, 후에 가야로 발전하였는데, 농업과 양잠을 주로 하고 철과 직포(織布)의 산출로 유명하였다.
321) 금관국(金冠國) : 금관가야를 이르는 말.
322) 수로왕(首露王) : 가야의 시조(始祖)(?~199)로 일명 수릉(首陵)이라고 한다. 하늘로부터 김해의 구지봉에 내려와 육 가야를 세웠다는 여섯 형제의 맏이로, 김해 김씨의 시조이다. 재위 기간은 42~199년이다.
323) 구간(九干) : 가야국 초기의 아홉 추장을 이르는 말로 아도간(我刀干), 여도간(汝刀干), 피도간(彼刀干), 오도간(五刀干), 유수간(留 水干), 유천간(留天干), 신천간(神天干), 오천간(五天干), 신귀간(神鬼干)을 이른다.
324) 부락(部落) : 시골에서 여러 민가(民家)가 모여 이룬 마을. 또는 그 마을을 이룬 곳을 이른다.
325) 대가야(大伽倻) : 육가야(六伽倻) 가운데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 지방에 있던 부족 국가(42~562). 한때 육 가야의 맹주(盟主)였으나 신라에 멸망하였다.
326) 소가야(小伽倻) : 육가야(六伽倻) 가운데 신라 유리왕 19년(42)에 경상남도 고성군 부근에 세워진 나라.
327) 아라가야(阿羅伽倻) : 육가야(六伽倻) 가운데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 지역에 있었던 나라.

328) 고령가야(古寧伽倻) : 육가야(六伽倻) 가운데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시에 있었던 나라.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329) 벽진가야(壁珍伽倻) : 성산가야를 이르는 것으로 육가야(六伽倻) 가운데 지금의 경상북도 성주(星州) 부근에 있던 부족 국가. 신라 법흥왕 19년(532)에 신라에 병합되었다.
330) 거등왕(居登王) : 가야의 제2대 왕(?~253)으로 재위 기간은 199~253년이다.
331) 마품왕(麻品王) : 가락국의 제3대 왕(?~291)으로 성은 김(金)이다.
332) 거질미왕(居叱彌王) : 가야의 제4대 왕(?~346)으로 금물(今物)이라고도 한다. 재위기간은 291~346년이다.
333) 좌지왕(坐知王) : 금관가야의 제6대 왕(? ~421)으로 재위 기간은 407~421년이다.
334) 겸지왕(鉗知王) : 가야의 제9대 왕(? ~ 521)으로 질지왕(銍知王)의 아들로서, 재위기간은 492~521년이다.
335) 구형왕(仇衡王) : 금관가야의 제10대 왕(?~?)으로 구충왕(仇衝王)이라고도 한다. 532년 신라 법흥왕이 쳐들어올 때 항복하였다. 재위 기간은 521~532년이다.
336) 세궁역진(勢窮力盡) : 기세가 꺾이고 힘이 다 빠져 꼼짝할 수 없게 됨을 이른다.
337) 탐라국(耽羅國) : 삼국 시대에 제주도에 있던 나라로 백제, 신라, 고려의 각 조(朝)에 속했다가 고려 숙종 10년(1105)에 고려의 한 군현이 되었다.
338) 삼성혈(三姓穴) : 제주도 동문 밖의 땅에 난 세 개의 큰 구멍으로 탐라의 개조(開祖)인 고(高), 부(夫), 양(良) 삼신(三神)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다.
339) 고을나(高乙那) : 탐라국을 세운 세 신인(神人) 가운데 하나로 제주 고씨의 시조(始祖)로, 제이도(第二都)에 머물면서 농사와 목축을 하였다고 한다.
340) 부을나(夫乙那) : 탐라국을 세운 세 신인(神人) 가운데 하나. 제주 부씨(夫氏)의 시조이다.
341) 양을나(梁乙那) : 탐라를 개척하였다는 세 신인(神人) 가운데 하나이다.
342) 세수(歲數) : 조상으로부터 자손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대(代)의 수.
343) 고후(高厚), 고청(高淸) : 탐라국의 시조인 고을나(高乙那)의 15대손.
344) 법흥왕(法興王) : 신라 제23대 왕(?~540)으로 성은 김(金), 이름은 원종(原宗)이다. 이 무렵 불교가 들어왔고, '건원(建元)'이라는 연호를 썼다. 처음으로 율령을 반포하여 백관(百官)의 공복(公服)을 정하는 등 국가 체제의 확립에 힘을 기울였다. 재위 기간은 514~540년이다.
345) 문무왕(文武王) : 신라 제30대 왕(?~681)으로 성은 김(金), 이름은 법민(法敏)이다. 태종 무열왕의 맏아들로 김유신과 함께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중국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어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 당악(唐樂), 신력(新曆) 따위의 당나라 문화를 수입하는 데에 노력하였고, 죽은 후 유언에 따라 동해의 대왕암에 수장되었다. 재위 기간은 661~681년이다.
346) 공민왕(恭愍王) : 고려 제31대 왕(1330~ 1374)으로 이름은 전(顓), 호는 이재(怡齋)·익당(益當)이다. 왕위에 오른 뒤 중국 원나라를 배척하고 친원파(親元派)인 기씨(奇氏) 일족을 제거하였다. 쌍성총관부를 폐지하였으며,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여 국위를 떨쳤으나 나중에는 정치를 그르치고 마침내 최만생(崔萬生)과 홍윤(洪倫)에게 살해되었다. 재위 기간은 1351~1374년이다.
347) 최영(崔瑩) : 고려 말기의 명장·재상(1316~1388)이다. 친원파(親元派)로서 1388년에 팔도(八道) 도통사가 되어 명나라를 치러 출정하였으나 이성계의 회군(回軍)으로 실패하고 후에 그에게 피살되었다.

348) 국상(國相) : 고구려에서, 군국(軍國)의 사무를 맡아보던 으뜸 벼슬아치로 신대왕 2년(166)에 두었다.

349) 좌평(佐平) : 백제 때에 둔 전체 십육 관등 가운데 첫째 등급을 이르는 말로 고이왕 27년(260)에 둔 것으로, 내신(內臣)·내두(內頭)·내법(內法)·위사(衛士)·조정(朝廷)·병관(兵官)의 여섯 좌평이 있었다.

350) 조부(調府) : 신라 때에, 공부(貢賦)를 맡은 관아. 진평왕 6년(584)에 설치하여 경덕왕 때 대부(大府)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이것으로 고쳤다.

351) 사헌부(司憲府) : 고려, 조선 시대에, 정사(政事)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사헌대를 고친 것으로, 충렬왕 24년(1298)과 공민왕 18년(1369)에 이 이름이 다시 사용되었다.

352) 최치원(崔致遠) : 통일 신라 말기의 학자·문장가(857~?)로 자는 고운(孤雲)·해운(海雲)이다. 12세에 중국 당나라에 유학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격문(檄文)을 써서 이름을 높였다. 저서에 계원필경 , 사륙집(四六集) 등이 있다.

353) 김인문(金仁問) : 신라의 장군·외교관(629~694)으로 자는 인수(仁壽)이다.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로 당나라에 파견되어 나당 연합군을 조직하는 데 성공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효소왕으로부터 태대각간에 추증(追贈)되었다.

354) 설총(薛聰) : 신라 경덕왕 때의 학자(?~?)로 자는 총지(聰智), 시호는 홍유후(弘儒侯)이다. 국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유학의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이두(吏讀)를 정리하고 집대성하였다.

355) 고운선생(孤雲先生) : 최치원을 이르는 것.

356) 입당(入唐) : 당나라에 들어가다.

357) 황소(黃巢) 격문(檄文) :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최치원이 지은 격문을 일컫는다.

358) 중원(中原) : 경쟁하는 곳. 또는 정권을 다투는 무대.

359) 유리왕(瑠璃王) : 고구려 제2대 왕(?~A.D.18)으로 이름은 유리(類利)·유류(儒留)·누리(累利)이다. 왕 11년(B.C.9)에 선비(鮮卑)를 쳐서 항복을 받았으며, 왕 22년(3)에 도읍을 국내성으로 옮기고, 왕 33년(14)에 양맥(梁貊)을 쳐서 멸망시키고 한나라의 고구려현을 빼앗았다. 작품으로 <황조가>가 전한다. 재위 기간은 기원전 19~기원후 18년이다.

360) 황조가(黃鳥歌) : 고구려 유리왕 3년(B.C.17)에 왕이 직접 지었다는 노래이다. 유리왕의 두 후실인 화희(禾姬)와 치희(稚姬)의 다툼으로 치희가 중국으로 달아나 버리자 왕이 치희를 찾으러 다녔으나 찾지 못하던 중에, 꾀꼬리 한 쌍이 정답게 노니는 모습을 보고 지었다고 한다. 현재 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서정시로 평가받는 작품으로, 한역시가 삼국사기 에 전한다.

361) 태평송(太平頌) : 신라, 진덕여왕이 당나라 고종에게 보낸 송시(頌詩)이다. 당나라의 홍업(鴻業)을 크게 칭송·찬양한 것으로, 신라가 고구려·백제 두 나라를 공격하려고 당나라의 힘을 얻기 위하여 보낸 것이다.

362) 고흥(高興) : 백제의 학자(?~?)로 백제에서 처음으로 박사 벼슬에 올라 근초고왕 30년(375)에 서기 를 편찬하였다.

363) 백제사(百濟史) : 백제의 서기 를 이르는 것.

364) 거칠부(居柒夫) : 신라의 장군이자 상대등(?~ 579)으로 성은 김(金)이다. 진흥왕 6년(545)에 국사(國史) 를 편찬하였고, 진흥왕 12년(551)에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 영토 10군을 점령하였다.

365) 신라사(新羅史) : 신라의 국사 를 이르는 것.

366) 황룡사(黃龍寺) : 경상북도 경주에 있던 절로 신라 진흥왕 때에 착공하여 선덕 여왕 14년(645)에 완성한 것으로, 신라 호국 신앙의 중심지였다. 고려 고종 때에 몽골군의 침입으로 소실되어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367) 솔거(率去) : 신라 진흥왕 때의 화가(?~?)로 황룡사의 벽화와 분황사의, 진주 단속사의 따위를 그렸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368) 김생(金生) : 신라 때의 명필(711~?)로 자는 지서(知瑞)이다. 예서, 행서, 초서에 능하여 해동(海東)의 서성(書聖)이라고 불렸다.

369) 회소곡(會蘇曲) : 신라 유리왕 때에, 팔월 보름의 가배 때 진편의 여자가 일어나 춤추며 탄식하는 조로 불렀다고 하는 노래로 가사는 전하지 않고, 그 유래만 삼국사기 에 수록되어 있다.

370) 백결선생(百結先生) : 신라 자비왕 때의 거문고의 명인(?~?)으로 평생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예술에 전념하였으며, 빈처(貧妻)를 위하여 <대악(碓樂)>이라는 곡조를 남겼다.

371) 우륵(于勒) : 신라의 가야금 명인(?~?)으로 대가야 가실왕 때 쟁(箏)을 본떠 가야금을 만들고, 와등 12곡을 지었다. 본디 가야 사람이나 551년 신라에 귀화하였다.

372) 왕산악(王山岳) : 고구려의 국상(國相)이자 음악가(?~?)로 중국의 진(晉)나라에서 도입한 칠현금을 개조하여 1백여 악곡을 지었으며 지금의 거문고인 현금(玄琴)을 만들었다.

373) 현학금(玄鶴琴) : 거문고를 뜻한다.

374) 추대(推戴) : 윗사람으로 떠받듦.

375) 홍유(洪儒) : 고려시대의 무신(武臣)이자 고려 개국공신중의 한명이다. 회인 홍씨의 시조이며, 태조의 제26비 의성부원부인 홍씨의 아버지이다. 무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언변과 논리가 매우 뛰어났으며, 폭군 궁예를 몰아내기위한 거사를 일으킬 당시 태조를 설득하여 혁명을 완수하고 그를 임금으로 옹립한 장본인이다.

376) 김훤술(金萱述) : 고려 태조 때의 개국공신의 한명으로 시중이 되었으며, 해평군에 봉해졌다.

377) 군도(群盜) : 떼도둑.

378) 창생(蒼生) : 세상의 모든 사람.

379) 입명(立命) : 천명(天命)을 좇아 마음의 안정을 얻음.

380) 배현경(裵玄慶) : 고려의 개국 공신(?~936)으로 태봉의 기병장으로 궁예 밑에 있었으나, 궁예의 횡포가 심해지자 왕건을 추대하여 고려를 세우는 데 공헌하였다.

381) 전공(战功) : 전투에서 세운 공로.

382) 신숭겸(申崇謙) : 고려 시대의 개국 공신(?~927)으로 초명은 능산(能山)이다. 평산(平山) 신씨의 시조로, 왕건을 추대하여 왕으로 세우고 태조 10년, 견훤의 군사와 싸우다 전사하였다.

383) 모피(謀避) : 피하려고 꾀를 냄, 또는 그렇게 하여 피함.

384) 김락(金樂) : 김낙(金樂, ? ~ 927년)은 고려의 개국공신이다. 927년에 후백제의 견훤과 공산(지금의 대구)에서 싸우다가 포위된 왕건이 위급해지자 신숭겸과 함께 왕건을 구하고 전사하였다. 고려가 개국되자 2등 공신이 되었고, 태조는 지묘사를 세워 그의 명복을 빌었다. 예종은 그와 신숭겸을 추도하는 향가 <도이장가>를 지었다.

385) 복지겸(卜智謙) : 고려의 개국 공신(?~?)으로 초명은 사괴(沙瑰)·사귀(沙貴)이다. 궁예가 민심을 잃자 배현경, 신숭겸 등과 함께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추대하여 고려를 세우게 하였다

386) 유금필(庾黔弼) : 고려 태조 때의 무장(?~941)으로 923년 마군 장군이 되어 침입한 북번 들을 물

리치고, 백제군을 여러 번 패퇴시켰으며, 936년에는 태조를 도와 후백제를 멸망시켰다.
387) 최응(崔凝) : 고려시대의 문신으로 본관 황주(黃州). 시호 희개(熙愷)이다. 오경(五經)에 밝고 문장이 뛰어나 궁예(弓裔) 밑에서 한림랑(翰林郎)으로 있으면서 신임을 얻었다. 915년(신덕왕 4) 궁예가 왕건(王建)에게 모반의 누명을 씌울 때 왕건이 변명하자, 장주(掌奏)로 그 자리에 있던 최응이 붓을 일부러 뜰에 떨어뜨리고 주우러 내려가, “굽히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왕건에게 귀띔, 굴하게 함으로써 화를 면하게 하였다. 그 후 왕건이 즉위하자 지원봉성사(知元鳳省事)
388) 개성(開成) : 경기도 북서부에 있는 시로 인삼의 명산지이며, 예로부터 보부상이 유명한 곳이다.
389) 정도(定都) : 도읍을 정함.
390) 천수(天授) : 고려 태조 때의 연호(918~933).
391) 속국(屬國) :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실제로는 정치나 경제·군사 면에서 다른 나라에 지배되고 있는 나라.
392) 혜종(惠宗) : 고려의 제2대 왕(914~945)으로 이름은 무(武), 자는 승건(承乾)이다. 태조의 맏아들로, 후백제를 쳐서 공을 세웠으나, 후사 문제로 외척인 왕규의 음모와 책동을 받다가 병으로 죽었다. 재위 기간은 943~945년이다.
393) 정종(定宗) : 고려 제3대 왕(923~949)으로 이름은 요(堯), 자는 의천(義天)이다. 왕규(王規)의 난을 평정하고 불교를 숭상하였으며, 도참설을 좇아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재위 기간은 946~949년이다.
394) 치세(治世) : 잘 다스려져 화평한 세상.
395) 광종(光宗) : 고려 제4대 왕(925~975)으로 이름은 소(昭), 자는 일화(日華)이다. 태조의 셋째 아들로 노비안검법을 제정하고, 958년에 후주(後周)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에 따라 과거 제도를 실시하였다. 재위 기간은 949~975년이다.
396) 육진(六鎭) : 조선시대에, 지금의 함경북도 북변(北邊)을 개척하여 설치한 여섯 진(鎭)이다. 세종 때 둔 것으로, 경원·경흥·부령·온성·종성·회령의 진을 이른다.
397) 공복제(公服制) : 신분에 따라 옷의 색깔을 달리해 입는 제도.
398) 안험법(按驗法) : 노비의 신분을 조사하여, 본래 양인이었던 자를 해방시켜 환량하는 제도.
399) 숙청(肅淸) :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음.
400) 경종(景宗) : 고려 제5대 왕(955~ 981)으로 이름은 주(伷), 자는 장민(長民)이다. 즉위 초에 전시과(田柴科)를 제정하는 등 의욕적인 정책을 펼쳤으나, 뒤에 정사를 돌보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재위 기간은 976~981년이다.
401) 봉급제(俸給制) : 봉급제도.
402) 전시료(田柴料) : 전시과(田柴科), 고려시대에, 벼슬아치나 공신(功臣) 또는 각 관아에 토지 및 땔나무를 댈 임야를 나누어 주던 제도로 경종 1년(976)에 처음 제정하여 문종 30년(1076)에 완비하였다.
403) 승하(昇遐) : 임금이나 존귀한 사람이 세상을 떠남을 높여 이르던 말.
404) 성종(成宗) : 고려의 제6대 왕(960~997)으로 이름은 치(治), 자는 온고(溫古)이다. 고려 초기의 제반 문물 제도를 정비하고, 유교를 국가의 지도 원리로 삼아 중앙 집권적인 봉건 제도를 확립하였다. 재위 기간은 982~997년이다.
405) 현군(賢君) : 어질고 현명한 임금.
406) 삼성육부(三省六部) : 고려 시대의 관제로 내사(內史)·문하(門下)·상서(尙書)의 삼성(三省)과 이

(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육부(六部)를 통틀어 이르던 말이다.

407) 궁민(窮民) : 생활이 어렵고 궁한 백성.

408) 십이목(十二牧) : 고려 성종 2년(983)에 둔 열두 지방관으로 황주, 해주, 양주(楊州), 광주(廣州), 충주, 청주, 공주, 전주, 나주, 승주(昇州), 진주, 상주에 두었다.

409) 이학(理學) : 물리학, 화학, 천문학, 생물학, 지질학 따위의 자연과학을 통틀어 이르는 말.

410) 경학(經學) :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연구하는 학문.

411) 절부(節婦) : 절개를 지키는 부인.

412) 추밀원(樞密院) : 고려 시대에, 왕명의 출납과 숙위(宿衛), 군기(軍機)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이다. 헌종 1년(1095)에 중추원을 고친 것으로 충렬왕 1년(1275)에 밀직사로 고쳤다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같은 이름으로 바꾸었으며 공민왕 11년(1362)에 다시 밀직사로 고쳤다.

413) 군국대사(軍國大事) : 군사상의 기밀과 국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일.

414) 고문(顧問) : 의견을 물음.

415) 거란(契丹) : 5세기 중엽부터 내몽골의 시라무렌 강(Siramuren江) 유역에 나타나 살던 유목 민족. 몽골계와 퉁구스계의 혼혈종으로, 10세기 초 야율아보기가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 요나라를 건국한 후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려에도 세 차례나 쳐들어왔으나, 12세기 초 금나라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세력이 약화되어 다시 부족 상태로 분열하였다.

416) 완악(惋愕) : 깜짝 놀람.

417) 소손녕(蕭遜寧) : 거란의 장군(?~?)으로 고려 성종 12년(993)에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에 침입하였으나, 서희와의 담판에서 굴복하여 강동 육주를 고려에 넘겨주고 물러났다.

418) 서희(徐熙) : 고려 전기의 외교가(942~998)로 자는 염윤(廉允)이다. 성종 12년(993) 거란이 침입하였을 때에, 적장 소손녕과 담판하고 유리한 강화를 맺었으며, 이듬해에는 여진을 몰아내었다.

419) 안무(按撫) : 백성의 사정을 살펴서 어루만져 위로함.

420) 여진(女眞) : 10세기 이후 만주 동북쪽에 살던 퉁구스계의 민족으로 수렵과 목축을 주로 하였는데, 한(漢)나라 때에는 읍루, 후위(後魏) 때에는 물길, 수나라와 당나라 때에는 말갈이라 하였다. 발해가 망한 후에 거란족의 요나라에 속하였다가 아골타(阿骨打)가 1115년에 금나라를 세웠으며, 17세기에 누루하치가 후금을 세웠는데, 뒤에 청나라로 발전하여 중국을 통일하였다.

421) 관내도(關內道) : 고려 시대에 둔, 십도(十道)의 하나. 양주(楊州)·광주(廣州)·황주(黃州)·해주(海州) 등의 29주(州) 82현(縣)을 관찰하였다.

422) 중원도(中原道) : 고려 시대에 둔, 십도(十道)의 하나. 지금의 충청도 지방인 충주·청주 등의 13주(州) 42 현(縣)을 관할하였다.

423) 하남도(河南道) : 고려 시대에 둔 십도(十道)의 하나. 공주(公州)·운주(運州) 등의 11주(州) 34현(縣)을 관할하였다.

424) 영남도(嶺南道) : 고려 시대에 둔 십도(十道)의 하나. 상주(尙州) 등의 12주(州)·48현(縣)을 관할하였다.

425) 영동(嶺東) : 영동도, 고려 시대에 둔 십도(十道)의 하나. 경주(慶州)·김주(金州) 등의 9주(州) 35현(縣)을 관할하였다.

426) 산남(山南) : 산남도, 고려 시대에 둔 십도(十道)의 하나. 지금의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경상남도의 일부 지역 10주(州) 37현(縣)을 관할하였다.

427) 강남(江南) : 강남도, 고려 시대에 둔 십도(十道)의 하나. 전주(全州)·영주(瀛州)·순주(淳州)·마주(馬州) 등의 9주(州) 43현(縣)을 관할하였으며, 현종 때에 해양도(海陽道)와 합하여 전라도가 되었다.
428) 해남(海南) : 하남도, 고려 시대에 둔 십도(十道)의 하나. 공주(公州)·운주(運州) 등의 11주(州) 34현(縣)을 관할하였다.
429) 삭방(朔方) : 삭방도, 고려 시대에 둔 십도(十道)의 하나. 지금의 강원도 북부 지방 7주(州) 62현(縣)을 관할하였다.
430) 패서(浿西) : 패서도, 고려 시대에 둔 십도(十道)의 하나. 서경을 중심으로 14주(州) 4현(縣)을 관할하였다.
431) 절도사(節度師) : 고려 시대에 둔 지방 장관으로 성종 14년(995)에 두었다가 현종 때에 없애고 대신 안무사를 두었다.
432) 목사(牧使) : 고려 시대에, 지방 행정 단위의 하나인 목에 파견되던 지방관.
433) 사도호(四都護) : 도호란 변경의 여러 번족(蕃族)을 다스리거나 정벌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을 이른다.
434) 병마사(兵馬使) : 고려 시대에 둔 정삼품 무관 벼슬로 성종 8년(989)에 처음으로 북방(北方)의 동계(東界)와 서계(西界)에 두어 그 지방의 군권(軍權)을 전담하게 하였다.
435) 목종(穆宗) : 고려 제7대 왕(980~1009)으로 이름은 송(誦), 자는 효신(孝伸)이다. 경종의 맏아들로 전시과를 개정하고 학문을 장려하는 따위의 치적(治績)이 많았으나, 후계자 문제로 강조(康兆)에게 피살되었다. 재위 기간은 998~1009년이다.
436) 김치양(金致陽) : 고려 시대의 권신(權臣)(?~1009)으로 목종 때에 천추 태후의 총애를 얻어, 우복야 겸 삼사사를 지내면서 전횡을 일삼았다. 목종을 살해하려다가, 1009년에 강조(康兆)의 정변(政變)으로 현종이 즉위하자 처형되었다.
437) 소행(素行) : 평소의 행실.
438) 헌애왕후(獻哀王后) : 고려 경종의 비(妃)(964~1029)이다. 목종의 생모로 목종이 즉위하자 섭정하면서 김치양과 통정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후에 이 아들 때문에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 섬으로 유배되었다.
439) 사통(私通) : 부부가 아닌 남녀가 몰래 서로 정을 통함.
440) 강조(康兆) : 고려 시대의 무신(?~1010)으로 목종 12년(1009)에 김치양이 난을 일으키자, 정변(政變)을 일으켜서 목종과 김치양 부자를 살해하고 현종을 임금으로 세워 세력을 떨쳤다. 그 뒤 요나라의 성종이 목종 살해 사건을 구실로 쳐들어오자 이에 맞서 싸우다가 동주(東州)에서 잡혀 살해되었다.
441) 현종(顯宗) : 고려 제8대 왕(992~1031)으로 이름은 순(詢), 자는 안세(安世)이다. 거듭된 거란의 침입으로 혼란을 겪었으나 1022년 강화(講和)하여 국내가 안정되었으며, 제도를 정비하고 대장경의 조판과 실록의 찬수 등으로 문화를 발전시켰다. 재위 기간은 1010~1031년이다.
442) 옹립(擁立) : 임금으로 받들어 모심.
443) 열읍(列邑) : 여러 고을.
444) 김숙흥(金淑興) : 1010년(현종 1) 거란의 성종(聖宗)이 침입했다가 이듬해 군사를 거두고 돌아갈 때, 구주별장(龜州別將)으로 거란의 퇴로를 막고 중랑장(中郎將) 보량(保良)과 함께 적을 쳐 무찔렀다. 1019년(현종10) 양규와 함께 공신의 녹권을 받고 뒤에 또 삼한후벽상공신(三韓後壁上功臣)의 호를 받았다. 장군(將軍)에 추증(追贈)되었다

445) 양규(楊規) : 고려 전기의 무신(?~ 1011, 현종 2)으로 목종 때부터 벼슬길에 올라 여러 관직을 거쳐 형부낭중(刑部郎中)이 되었다. 1010년 거란의 성종(聖宗)이 강조(康兆)를 토벌한다는 구실로 고려에 침입하여 흥화진(興化鎭)을 포위했을 때 도순검사(都巡檢使)로 있었는데, 진사호부낭중(鎭使戶部郎中) 정성(鄭成), 부사(副使) 이수화(李守和), 판관(判官) 장호(張顥) 등과 함께 방비를 갖추고 저항했다. 거란에게 여러 번 항복을 권유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446) 철천(徹天) : 하늘에 사무친다는 뜻으로, 두고두고 잊을 수 없도록 뼈에 사무침을 이르는 말이다.

447) 상원수(上元帥) : 고려 시대에, 출정하는 군대를 통솔하던 대장.

448) 강감찬(姜邯贊) : 고려 초의 명장(948~ 1031)으로 현종 9년(1018)에 거란의 장수 소배압(蕭排押)이 쳐들어왔을 때에, 서북면 행영 도통사로서 상원수가 되어 흥화진에서 적군을 대파하였다. 또한 이듬해에는 회군하는 적을 귀주에서 크게 격파하여 추충협모안국공신의 호를 받았다.

449) 부원수(副元帥) : 전시(戰時)에 임명하던 임시 벼슬로 도원수나 상원수 또는 원수에 다음가는 군의 통솔자이다.

450) 강민첨(姜民瞻) : 고려 현종 때의 장군(?~1021)으로 현종 때에 동여진(東女眞)을 물리쳤으며, 강감찬의 부장(副將)으로서 흥화진(興化鎭)과 자산(慈山)에서 거란군을 대파하였다.

451) 복병술(伏兵術) : 적을 기습하기 위하여 적이 지날 만한 길목에 군사를 숨기는 것, 또는 그 군사.

452) 귀주대첩(龜州大捷) : 고려 현종 9년(1018)에 침입한 거란군을 이듬해 2월에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귀주에서 크게 무찌른 싸움.

453) 국위(國威) : 나라의 권위나 위력.

454) 불래(弗奈) : 신강성의 월지국 및 트루판 지역을 이른다.

455) 흑수(黑水) : 감숙성 주천지역을 이른다.

456) 대식국(大食國) : 타직키스탄, 소그디아 지역을 이른다.

457) 덕종(德宗) : 고려 제9대 왕(1016~1034)으로 이름은 흠(欽), 자는 원량(元良)이다. 재위 2년(1033)에 고장성을 쌓았으며, 국사 편찬 사업도 완성하였다. 재위 기간은 1031~1034년이다.

458) 장성(長城) : 천리장성, 고려장성을 이르는 것으로 고려 덕종 2년(1033)에 평장사 유소가 여진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쌓은 성이다. 압록강 어귀에서 영원(寧遠) 등 열네 고을을 거쳐 함흥의 도련포에 이른다.

459) 정종(定宗) : 고려 제3대 왕(923~949)으로 이름은 요(堯), 자는 의천(義天)이다. 왕규(王規)의 난을 평정하고 불교를 숭상하였으며, 도참설을 좇아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재위 기간은 946~949년이다.

460) 빈천(賓天) : 천자(天子)가 세상을 떠남을 이르던 말.

461) 문치(文治) : 학문과 법령으로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정치.

462) 최충(崔沖) : 고려 전기의 학자이자 문신(984~1068)으로 자는 호연(浩然), 호는 성재(惺齋)·월포(月圃)·방회재(放晦齋)이다. 글씨와 문장에 뛰어났으며 해동공자로 추앙되었다. 문집으로 최문헌공유고(崔文憲公遺稿) 가 전한다.

463) 태사(太史) : 기록을 맡아 보던 벼슬아치.

464) 사린(四隣) : 사방의 이웃, 사방에 이웃하여 있는 나라들.

465) 신종(神宗) : 중국 북송의 제6대 황제(1048~1085)로 성은 조(趙). 이름은 욱(頊)이다. 왕안석의 신법을 채용하고, 제도·교육·과학 따위의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내정 파탄과 외정의 실패, 구법당(舊法

黨)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재위 기간은 1067~1085년이다.

466) 대각국사(大覺國師) : 고려 시대의 중(1055~1101)으로 이름은 후(煦), 자는 의천(義天)이다. 중국 송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천태종을 열었으며,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세우고 속장경 4,000여 권을 간행하였다.

467) 해인사(海印寺) : 화엄 십찰의 하나로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가야산에 있다. 신라 애장왕 3년(802)에 순응, 이정 두 대사가 세운 절로, 선교 양종의 본산이며, 수다라전(修多羅殿), 법보전(法寶殿)에 8만 1258매의 대장경 경판을 소장하고 있다. 지금의 건물은 조선 후기에 중건한 것이다.

468)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 고려 고종 23년(1236)부터 38년(1251)에 걸쳐 완성한 대장경.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만들었는데, 경판(經板)의 수가 8만 1258판에 이르며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하고 있다.

469) 순종(順宗) : 고려의 제12대 왕(1046~1083)으로 이름은 훈(勳), 초명은 휴(烋), 자는 의공(義恭)이다. 1083년에 즉위하였으나, 그해에 죽었다.

470) 선종(宣宗) : 고려의 제13대 왕(1049~1094)으로 이름은 운(運)이다. 승과(僧科)를 설치하고,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도서를 출판하는 따위의 불교 발전에 힘썼다. 재위 기간은 1083~1094년이다.

471) 헌종(獻宗) : 고려의 제14대 왕(1084~1097)으로 이름은 욱(昱)이다. 즉위한 후 이자의(李資義)의 난을 평정하고 다음 해 신병으로 왕위를 숙부 희(熙)에게 물려주었다. 재위 기간은 1094~1095년이다.

472) 폐립(廢立) : 임금을 폐하고 새로 다른 임금을 맞아 세움.

473) 숙종(肅宗) : 고려 제15대 왕(1054~1105)으로 이름은 옹(顒), 초명은 희(熙)이다. 자는 천상(天常). 해동통보를 주조하여 화폐 제도를 시작하였다. 재위 기간은 1095~1105년이다.

474) 윤관(尹瓘) : 고려 예종 때의 학자이자 장군(?~1111)으로 자는 동현(同玄),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어사대부·한림학사·이부상서 등을 지내고 예종 2년(1107)에 여진 정벌을 하고 구성(九城)을 쌓았다.

475) 예종(睿宗) : 고려의 제16대 왕(1079~1122)으로 이름은 우(俣), 자는 세민(世民)이다. 윤관에게 여진을 치게 하여 9성을 쌓았으며 학교를 세우고 국학(國學)에 양현고를 설치하는 등 학문을 진흥시켰다. 재위 기간은 1105~1122년이다.

476) 오연총(吳延寵) : 고려 예종 때의 문신(1055~1116)으로 중국 송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태평어람 을 가지고 왔으며, 수차례에 걸친 여진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477) 구성(九城) : 동북 9성을 이르는 것. 동북 9성(東北九城)은 강동 6주와 함께 고려의 북진 정책 및 영토 확장을 상징하는 지역이다. 윤관이 별무반을 거느리고 천리장성 너머 동북 지역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9성을 쌓았는데, 이 9성을 일러 동북 9성이라 불렀다.

478) 아골타(阿骨打) : 중국 금나라의 제1대 황제(1068~1123)로 묘호(廟號)는 태조이다. 1115년에 만주 지역의 여러 여진 부족을 통합하여 금나라를 건국하였으며, 요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요동(遼東)에 진출하였다. 재위 기간은 1115~1123년이다.

479) 존호(尊號) : 왕이나 왕비의 덕을 기리기 위하여 올리던 칭호.

480) 회령(會寧) : 함경북도 회령군에 있는 읍으로 만주와의 교통 요충지이며, 석탄·목재·곡물 따위의 집산지이다.

481) 인종(仁宗) : 고려의 제17대 왕(1109~1146)으로 이름은 해(楷), 자는 인표(仁表)이다. 태자로 책봉된 후 선왕이 죽자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 선정을 베풀었다. 음률과 서화에 능하였으며, 김부식에

게 삼국사기 를 편찬하게 하였다. 재위 기간은 1122~1146년이다.

482) 암약(闇弱) : 어리석고 겁이 많으며 줏대가 없다.

483) 자겸난(資謙亂) : 이자겸의 난을 일컫는다.

484) 이자겸(李資謙) : 고려 시대의 척신(戚臣)(?~1126)으로 둘째 딸이 예종의 비가 된 후 익성 공신(翼聖功臣)이 되고 인종이 즉위하자 셋째와 넷째 딸을 비로 삼게 하여 외척으로 권세와 부귀를 누리며 전횡을 일삼다가 척준경에게 쫓겨나 귀양 가서 죽었다.

485) 찬역(簒逆) : 임금의 자리를 빼앗으려 반역함.

486) 척준경(拓俊京) : 고려 시대의 무신(?~1144)으로 여진을 정벌하는 데 공을 세웠고, 이자겸과 함께 난을 일으켰으나 후에 왕의 설득으로 이자겸을 제거하였다. 문하시중에까지 올라 권세를 부리다가 정지상 등에게 축출되었다.

487) 절도(絶島) : 절해고도(絶海孤島),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섬.

488) 묘청(妙淸) : 고려 인종 때의 중(?~1135). 도참설로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서경 천도 따위의 개혁 정치와 금국정벌론을 주장하다가 반대에 부딪치자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489) 정지상(鄭知常) : 고려 인종 때의 문신이자 시인(?~1135)으로 초명은 지원(之元), 호는 남호(南湖)이다. 묘청의 난에 연루되어 김부식에게 피살되었다. 시에 뛰어난 고려 12시인 중의 한 사람으로 꼽혔으며, 역학과 노장 철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저서에 정사간집(鄭司諫集) 이 있다.

490) 백수한(白壽翰) : 고려 인종 때의 추길관(?~1135)으로 묘청과 결탁하여 풍수지리설을 들어 서울을 평양으로 옮기자고 주장하다가 묘청의 난이 일어나자 김부식에게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491) 서경(西京) : 고려시대 4경의 하나로 지금의 평양특별시.

492) 대위(大爲) : 고려시대 1135년(인종 13) 묘청 등이 난을 일으키고 서경을 도읍으로 하여 세운 나라.

493) 천개(天開) : 고려시대 묘청(妙淸)이 썼던 연호로 이 연호는 고려 초기 태조 때 사용하던 천수(天授) 이후 그때까지 썼던 중국연호에서 탈피한 독자적인 것이었다.

494) 평장사(平章事) : 고려시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속한 정2품의 관직.

495) 김부식(金富軾) : 고려 시대의 학자이자 정치가(1075~1151)로 자는 입지(立之), 호는 뇌천(雷川)이다. 묘청의 난을 평정하여 수충정난정국공신(輸忠定難靖國功臣)의 호를 받았으며 인종 23년(1145)에 삼국사기 를 편찬하였다

496) 삼국사기(三國史記) : 고려 인종 23년(1145)에 김부식이 왕명에 따라 펴낸 역사 책으로 신라, 고구려, 백제 세 나라의 역사를 기전체로 적었다. 본기(本紀)·연표(年表)·지류(志類) 및 열전(列傳)으로 되어 있으며, 삼국유사 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다. 50권 10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497) 문무겸전(文武兼全) : 문식(文識)과 무략(武略)을 다 갖추고 있음.

498) 의종(毅宗) : 고려의 제18대 왕(1127~1173)으로 이름은 현(晛), 자는 일승(日升)이다. 인종의 맏아들로, 문학을 좋아하여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을 천대하다 24년(1170)에 정중부의 난이 일어나 폐위되고 명종 3년(1173)에 경주에서 살해되었다. 재위 기간은 1146~1170년이다.

499) 정중부(鄭仲夫) : 고려 시대의 무신(1106~1179)으로 무신을 학대하는 데에 불만을 품고 정변을 일으켜, 임금을 폐하고 정권을 잡은 후 무단 정치를 행하다가 경대승에게 피살되었다.

500) 명종(明宗) : 고려 제19대 왕(1131~1202)으로 이름은 호(皓), 초명은 흔(昕)이다. 자는 지단(之

旦). 1170년 의종을 몰아낸 정중부 등의 추대로 즉위하였으며, 재위 기간 중 무신들을 제거하려 노력하였으나 실패하고, 1197년 최충헌에 의하여 폐위되었다. 재위 기간은 1170~1197년이다.

501) 병마사(兵馬使) : 고려 시대에 둔 정삼품 무관 벼슬로 성종 8년(989)에 처음으로 북방(北方)의 동계(東界)와 서계(西界)에 두어 그 지방의 군권(軍權)을 전담하게 하였다.

502) 유수(留守) : 유수관, 고려 시대에, 동경(東京)·서경(西京)·남경(南京)에 두어 그곳을 다스리게 하던 외관(外官) 벼슬이다.

503) 조위총(趙位寵) : 고려 중기의 문신(?~1176)으로 의종 24년(1170)에 정중부, 이의방 등이 정변을 일으켜 의종을 폐하고 명종을 옹위한 후 전횡을 일삼자 절령 이북의 40여 개 성과 합세하여 군대를 일으켰으나 패하여 참형을 당했다.

504) 사직(社稷) : 나라 또는 조정을 이르는 말.

505) 이의방(李義方) : 고려 시대의 무신(?~1174)으로 1170년 정중부, 이고(李高) 등과 함께 보현원(普賢院)에서 문신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다. 1171년 명종을 즉위시키고 딸이 태자빈이 되어 세력을 떨치다가, 정균(鄭筠)이 보낸 자객에게 암살당하였다.

506) 경대승(慶大升) : 고려 명종 때의 장군(1154~1183)으로 무신(武臣)의 횡포에 분개하여 금군(禁軍)을 이끌고 정중부, 송유인 등을 살해하였다. 그 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방(都房)을 두었다.

507) 야습(夜襲) : 밤에 습격하다.

508) 이의문(李義旼) : 이의민, 고려 명종 때의 무신(?~1196)이다. 천민 출신으로 1170년 정중부의 난에 가담하여 공을 세웠으며, 경대승이 죽은 후, 권력을 잡아 13년 동안 독재하다 최충헌에게 살해되었다.

509) 최충헌(崔忠獻) : 고려 시대 무신 정권기의 집권자(1149~1219)로 초명은 난(鸞), 시호는 경성(景成)이다. 1196년에 동생 최충수와 함께 권신 이의민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폐정 개혁(弊政改革)을 위한 봉사십조(封事十條)를 왕에게 올렸다. 이듬해 왕의 측근을 몰아낸 후 최씨 무단 정권을 확립하였다.

510) 난신(亂臣) :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

511) 충수(忠粹) : 최충수(崔忠粹)를 이른다. 고려 명종 때의 무신(?~1197)이다. 최충헌의 아우로 1196년에 형과 함께 권신 이의민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듬해 왕제(王弟) 민(旼)을 왕위에 올린 후 자기 딸을 태자비로 세우려다가 형 최충헌과 충돌하여 패하여 죽었다.

512) 신종(神宗) : 고려 제20대 왕(1144~1204)으로 이름은 탁(晫), 초명은 민(旼)이다. 자는 지화(至華). 최충헌이 옹립하였던 왕이다. 재위 기간은 1197~1204년이다.

513) 폐풍(弊風) : 폐해가 많은 풍습.

514) 만적 : 만적의 난을 일으킨 이. 만적의 난이란 고려 신종 원년(1198)에 만적이 중심이 되어 계획했던 노비 해방 운동으로 만적이 공사의 노비를 모아 노비 문서를 불사르고 난을 일으키려다가 밀고로 거사 전에 발각되어 많은 노비들과 함께 붙잡혀 죽었다.

515) 희종(熙宗) : 고려의 제21대 왕(1181~1237)으로 이름은 영(韺), 초명은 덕(悳)이다. 자는 불피(不陂). 최충헌을 제거하고자 하였다가 실패하고 도리어 폐위당하였다. 재위 기간은 1204~1211년이다.

516) 강종(康宗) : 고려 제22대 왕(1152~1213)으로 이름은 숙(璹)·정(貞)·오, 자는 대화(大華)이다. 명종의 맏아들로 명종 27년(1197)에 최충헌에게 쫓기어 부왕과 함께 강화도로 갔다가 희종을 폐한 최충헌에 의하여 왕위에 올랐다. 재위 기간은 1212~1213년이다.

517) 고종(高宗) : 고려의 제23대 왕(1192~ 1259)으로 몽고의 침입을 받아 강화로 천도한 뒤 28년 동안 항쟁하였으나, 결국 굴복하고 환도하였다. 몽고의 침입을 불력(佛力)으로 물리치기 위하여 팔만대장경을 조판하고 유학을 장려하여 문화적인 업적을 남겼다. 재위 기간은 1213~ 1259년이다.
518) 세도(勢道) : 정치상의 권세. 또는 그 권세를 마구 휘두르는 일을 이른다.
519) 불문곡직(不問曲直) :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
520) 가병(家兵) : 사병(私兵).
521) 자호(自護) : 스스로 보호하다.
522) 최우(崔瑀) : 고려 시대 무신 정권기의 집권자(?~1249)로 시호는 광렬(匡烈)이다. 최충헌의 아들로 전대(前代)의 부패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름난 유학자를 등용하는 한편, 몽고의 침입에 대비하여 강화로 천도(遷都)하고 대장경판(大藏經板) 재조(再雕)를 완성하였다.
523) 빙자(憑藉) : 남의 힘을 빌려서 의지함.
524) 인축(人畜) : 사람과 가축을 통틀어 이르는 말, 또는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525) 조충(趙沖) : 고려 중기의 무장(武將)이자 문신(1171~1220)으로 자는 담약(湛若), 국자감 대사성, 한림학사를 거쳐 문관으로서 상장군이 되었다. 고종 7년(1220)에 몽고·동진(東眞)의 연합군과 함께 거란병을 물리쳤다.
526) 김취려(金就礪) : 고려 고종 때의 장군(?~1234)으로 조상의 공덕으로 벼슬자리에 올라 정위(正慰)에 임명된 뒤 동궁위(東宮衛)를 거쳐 대장군이 되었다. 고종 3년(1216)과 고종 5년(1218) 두 차례에 걸쳐 쳐들어온 거란병을 크게 무찌르고, 한순(韓恂)·다지(多知) 등의 반란을 평정하는 등 공로가 많아 판병부사에 이르렀다. 성미가 곧고 청백하며, 싸움에서는 기발한 계교를 많이 꾸몄다고 한다.
527) 김경손(金慶孫) : 고려 고종 때의 장군(?~1251)으로 정주(靜州)와 귀주(龜州) 등지에서 몽고군의 침입을 격퇴하였고, 이연년 일당을 소탕하였다. 뒤에 최항의 시기로 백령도에 유배되어, 바다에 던져져서 죽었다.
528) 박서(朴犀) : 고려 고종 때의 무신(?~?)으로 호는 죽산(竹山)이다. 고종 18년(1231) 서북 면 병마사로 있을 때, 귀주(龜州)로 쳐들어온 살리타의 몽고군을 격퇴하였다.
529) 송경(松京) : 조선 시대 이후,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이르던 말로 송악산 아래에 있는 서울이라는 뜻이다.
530) 수의(數議) : 수 차례 의논하다.
531) 천도(遷都) : 도읍을 옮김.
532) 철례탑(撤禮塔) : 살리타, 몽골 제국의 장수(?~1232)로 고려 고종 18년(1231)에 고려에 칩입하여 강화를 맺고 다루가치를 두었으나, 처인성에서 중 김윤후에게 피살되었다.
533) 승장(僧將) : 승군(僧軍)의 장수.
534) 김윤후(金允侯) : 고려 고종 때의 승장(僧將)(?~?)으로 백현원(白峴院)에서 수도하다가, 고종 19년(1232) 몽고가 침입했을 때에 몽고 제국의 장군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535) 처인성(處仁城) : 고려 때 처인부곡으로 불렸던 곳으로, 고려 고종 19년(1232) 몽고의 침입 때 고려의 승장 김윤후 장군이 살리타이 장군을 사살한 격전지이기도 하다.
536) 도탄(塗炭) : 진구렁에 빠지고 숯불에 탄다는 뜻으로, 몹시 곤궁하여 고통스러운 지경을 이르는 말이다.
537) 종실(宗室) : 종친.

538) 토적(土賊) : 토구(土寇), 지방에서 일어나는 도둑 떼.
539) 정방(政房) : 고려 시대에, 최우가 자기 집에 설치하였던 사설 정치 기관으로 관리의 인사 행정을 다루었는데, 점차 국가 기관으로 되어 창왕 때 상서사로 고쳤다.
540) 공수(拱手) :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고 두 손을 마주 잡아 공경의 뜻을 나타냄. 또는 그런 예, 또는 팔짱을 끼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음을 이르는 말.
541) 유유(幽幽) : 깊고 그윽하다.
542) 최항(崔沆) : 고려 시대 무신 정권기의 집권자(?~1257)로 초명은 만전(萬全)이다. 최우의 아들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집권한 후, 무고(誣告)를 믿어 계모 대씨(大氏)를 독살하고 많은 중신을 죽였으며, 몽고에 대하여는 강경 정책을 썼다.
543) 서모(庶母) : 아버지의 첩.
544) 최의(崔竩) : 고려 무인정권기의 집권자로 본관은 우봉(牛峯), 아버지는 항(沆)이다. 어머니가 노비였으나 항의 본처에게 소생이 없었으므로 대를 잇게 되었다.1255년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가 되었으며, 1257년 아버지가 죽자 최영(崔瑛)·채정(蔡貞)·유능(柳能) 등의 옹위로 차장군(借將軍)·교정별감(敎定別監)이 되어 최고집정자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천계 소생으로 조정대신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집권 초기의 선정도 오래가지 못했다.
545) 득인심(得人心) : 인심을 얻다.
546) 김인준(金仁俊) : 김준(金俊), 고려 시대의 무신(?~1268)으로 초명은 인준(仁俊)이다. 고종 45년(1258)에 최의(崔竩)를 살해함으로써 최씨의 무단 정치를 타도하고 왕권을 회복하였다.
547) 임연(林衍) : 고려 원종 때의 신하(?~1270)로 몽고군을 물리치고 김준(金俊)과 함께 최의(崔竩)를 죽인 후, 왕권을 회복하여 정권을 잡았다.
548) 원종(元宗) : 고려 제24대 왕(1219~1274)으로 이름은 식(植), 초명은 전(倎)이다. 고종 46년(1259)에 왕의 대리로 몽고에 입조(入朝)하여 굴욕을 당한 뒤 즉위하였다. 재위 기간 중 임연(林衍)의 난, 삼별초(三別抄)의 난 따위로 화평한 날이 없었다. 재위 기간은 1259~1274년이다.
549) 유진(留陣) : 군사들이 머물러 있음. 또는 군사들을 머물러 있게 함.
550) 돈녕부(敦寧府) : 고려 원종 11년(1270)에 중국 원나라가 평안도 지방에 설치한 통치 기관이다. 원종 10년(1269)에 최탄 등이 난을 일으켜 북계(北界)의 54성(城)과 자비령(慈悲嶺) 이북 서해도의 6성(城)을 들어 원에 항복하자, 원이 자비령 이북의 영토를 병합하고 이를 다스리기 위하여 서경(西京)을 중심으로 설치하였는데, 충렬왕 원년(1275)에 동녕로총관부로 승격시켰다가 충렬왕 16년(1290)에 폐하고 이 지역을 고려에 반환하였다.
551) 임유무(林惟武) : 고려의 무신이며 무신정권의 최후 지도자. 그가 죽음으로써 무신정권은 몰락하나, 이후 고려는 몽골의 식민지가 된다. 몽골에 대한 항전을 결행함으로서 영웅으로 죽었으나, 조선 건국 후 고려사를 편찬할 때 반역자로 격하되었다.
552) 홍규(洪奎) : 본관은 남양(南陽). 초명은 문계(文系). 아버지는 동지추밀원사 진(縉)이다. 원종 때 어사중승이 되었으며, 당시 무인집정자 임유무(林惟茂)의 매부로서 함께 국사에 관해 의논했다. 그러나 1270년(원종 11) 왕이 원나라로부터 돌아와 몽골과 강화를 맺으려고 할 때 임유무가 이를 반대하자, 이분성(李汾成)·송송례(宋松禮)와 함께 삼별초를 동원하여 임유무를 죽였다.
553) 삼별초난(三別抄亂) : 고려 시대에, 고려가 몽고에 항복하고 삼별초의 해산을 명령하자, 이에 반대하여 삼별초가 일으킨 반란. 배중손의 지휘 아래 승화후(承化侯) 온(溫)을 임금으로 추대하고 반원

(反元) 정권을 수립하여 싸우다가 진도와 탐라로 본거지를 옮겨 산발적인 항쟁을 벌였으나 원종 14년(1273)에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군에 의하여 완전히 진압되었다.

554) 배중손(裵仲孫) : 고려 원종 때의 무장(?~1271)이다. 삼별초의 수령으로, 원종이 개성으로 환도한 후에 강화에 있던 야별초를 이끌고 몽고에 저항하여 왕온(王溫)을 임금으로 추대하였다. 후에 제주도로 들어가 싸우다가 여몽 연합군에 패하여 죽었다.

555) 김방경(金方慶) : 고려 시대의 명장(1212~1300)으로 자는 본연(本然)이다. 삼별초의 난을 평정하였고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할 때 고려군 도원수로서 종군하였다.

556) 충렬왕(忠烈王) : 고려 제25대 왕(1236~1308)으로 이름은 거(昛), 초명은 심(諶)·춘(賰)이다. 원나라에 굴복하여 세조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며, 그 풍습과 문물 제도를 받아들이고 원나라의 간섭을 심하게 받았다. 재위 기간은 1274~1308년이다.

557) 시중(侍中) : 고려 초기에, 서경에 설치한 낭관(郎官)의 으뜸 벼슬을 이른다.

558) 찬성사(贊成事) : 고려 시대, 문하부·첨의부·도첨의사사·도첨의부에 둔 정이품 벼슬로 시중(侍中) 또는 정승의 다음 서열이다. 충렬왕 1년(1275)에 첨의부를 두면서 평장사를 고친 것으로, 24년(1298)에 없앴다가 곧 회복하여 34년(1308)에 중호(中護)로 고쳤다.

559) 추밀사(樞密使) : 나라의 기밀과 군사 문제를 다루던 벼슬.

560) 밀직사(密直使) : 고려 시대, 왕명의 출납(出納)과 궁궐의 경호 및 군사 기밀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충렬왕 1년(1275)에 추밀원을 고친 것으로, 공민왕 5년(1356)에는 다시 추밀원으로 바꾸었다가 뒤에 또 이 이름으로 고쳤다.

561) 원손(遠孫) : 먼 후세의 자손.

562) 김균(金均) :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군호는 계림군(鷄林君),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1360년 성균시에 합격하여 과거를 준비하다가 조준(趙浚)을 알게 되었는데, 이 덕분에 조준이 국정을 맡을 때 여러 번 천거되었고, 전법판서(典法判書)까지 지냈다. 1392년 조준의 설득으로 7월 17일 조선 개국에 참여하여 개국 3등 공신에 책록되고,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에 가자되었다.

563) 안유(安裕) : 고려 충렬왕 때의 문신이자 학자(1243~1306)로 자는 사온(士蘊), 호는 회헌(晦軒)이다. 미신 타파에 힘썼고, 섬학전(贍學錢)이라는 육영 재단을 설치하고, 국학 대성전(國學大成殿)을 낙성(落成)하여 유학의 진흥에 힘썼으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자학을 연구하였다.

564) 국학(國學) : 고려 시대에 둔 중앙의 교육 기관. 성종 2년(992)에 국자감으로 고쳤다가 충렬왕 원년(1275)에 다시 이 이름으로 고쳤다.

565) 충선왕(忠宣王) : 고려 제26대 왕(1275~1325)으로 이름은 장(璋), 초명은 원(謜), 자는 중앙(仲昂)이다. 즉위 직후 교서를 발표하여 권세가의 탈세와 양민의 노비화를 금지하는 따위의 혁신 정치를 실시하였고 원나라 수도인 대도(大都)에 거주하면서 만권당을 세우고 고려와 원나라의 학자들을 모아 학문 교류에 크게 힘썼다. 재위 기간은 1298, 1308~1313년이다.

566) 충숙왕(忠肅王) : 고려 제27대 왕(1294~1339)으로 이름은 만(卍), 초명은 도(燾), 자는 의효(宜孝)이다. 원나라의 무리한 세공(歲貢)을 삭감하게 하고 공녀와 내시의 선발을 중지하도록 하였으나 심양왕의 무고로 차츰 정사에 염증을 느껴 아들 충혜왕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었다가, 2년 만에 복위하였다. 재위 기간은 1313~1330, 1332~1339년이다.

567) 충혜왕(忠惠王) : 고려 제28대 왕(1315~1344)으로 이름은 정(禎)이다. 원나라에서 귀국하여 왕위에 올랐으나 폐위되었다가 부왕의 죽음으로 복위하였다. 황음(荒淫)이 심하고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원나라로 귀양 가다가 병으로 죽었다. 재위 기간은 1330~1332, 1339~1344년이다.

568) 충목왕(忠穆王) : 고려 제29대 왕(1337~1348)으로 이름은 흔(昕), 시호는 현효(顯孝)이다. 충혜왕의 맏아들로, 원나라에 볼모로 가 있다가 8세 때에 즉위하였으며, 나이가 어려 어머니가 대신 나라를 다스렸다. 재위 기간은 1344~1348년이다.

569) 충정왕(忠定王) : 고려 제30대 왕(1337~1352)이다. 충혜왕의 서자(庶子)로 12세에 즉위하였으나, 외척의 전횡과 왜구의 침입으로 3년 만에 폐위되었다. 재위 기간은1348~1351년이다.

570) 유충(幼沖) : 나이가 어리다.

571) 공민왕(恭愍王) : 고려 제31대 왕(1330~ 1374)으로 이름은 전(顓), 호는 이재(怡齋)·익당(益當)이다. 왕위에 오른 뒤 중국 원나라를 배척하고 친원파인 기씨 일족을 제거하였다. 쌍성총관부를 폐지하였으며,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여 국위를 떨쳤으나 나중에는 정치를 그르치고 마침내 최만생(崔萬生)과 홍윤(洪倫)에게 살해되었다. 재위 기간은 1351~1374년이다.

572) 이색(李穡) : 고려 말기의 문신이자 학자(1328~1396)로 자는 영숙(穎叔), 호는 목은(牧隱)이다. 중국 원나라에 가서 과거에 급제하고, 귀국하여 우대언(右代言)과 대사성 따위를 지냈다. 삼은(三隱)의 한 사람으로, 문하에 권근과 변계량 등을 배출하여 학문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조선 개국 후 태조가 여러 번 불렀으나 절개를 지키고 나가지 않았다. 저서에 목은시고(牧隱詩藁) , 목은문고(牧隱文藁) 등이 있다.

573) 이제현(李齊賢) : 고려 말기의 문신이자 학자(1287~1367)로 초명은 지공(之公), 자는 중사(仲思), 호는 역옹(櫟翁)·익재(益齋)이다. 문하시중에 이르렀으며 당대의 명문장가로 정주학의 기초를 닦았다. 왕명으로 실록을 편찬하였고 원나라 조맹부의 서체를 고려에 도입하여 유행시켰으며 고려의 민간 가요 17수를 한시로 번역하였다. 저서에 익재집 , 역옹패설 , 익재난고 가 있다

574) 유탁(柳濯) : 고려 말기의 대신(1311~1371)으로 자는 춘경(春卿)이다. 공민왕 초에 전라도 만호로서 해적의 출몰을 막는 한편 〈장생포(長生浦)〉를 지어 악부에 올리기도 하였다. 또 홍건적의 침입을 잘 막아 일등 공신이 되었으나 1371년에 신돈이 죽자 그의 일당으로 몰려 처형되었다.

575) 조일신(趙日新) : 고려 말기의 역신(逆臣)(?~1352)으로 초명은 흥문(興門)이다. 공민왕이 세자였을 때 원나라에 시종했던 일을 내세워 왕을 위협하여 전횡을 일삼다가, 뒤에 왕의 밀령을 받은 이인복(李仁復) 등에게 살해되었다.

576) 주원장(朱元璋) : 중국 명나라의 제1대 황제(1328~1398)로 자는 국서(國瑞), 묘호(廟號)는 태조(太祖)이다. 창장강 일대를 평정하고 국호를 명(明), 연호를 홍무(洪武)라 하였다. 중국을 통일하였으며, 과거 제도의 정비, 대명률의 제정, 전국의 토지·호구 조사와 같은 많은 업적을 남겼다.

577) 유인우(柳仁雨) : 고려 공민왕 때의 무신(?~1364)으로 공민왕 5년(1356)에 동북면 병마사로 쌍성총관부를 수복하고 옛 땅을 되찾았다.

578) 홍두적(紅頭賊) : 홍건적을 이르는 말.

579) 정세운(鄭世雲) : 고려 공민왕 때의 무신(?~1362)으로 홍건적의 난 때 왕을 모시고 피난하였으며, 또 총병관(摠兵官)으로서 압록강 변에서 홍건적을 물리쳐 공을 세웠으나, 이를 시기하던 안우(安祐)에게 살해되었다.

580) 이방실(李芳實) : 고려 말기의 무신(?~1362)이다. 함안 이씨의 시조로 충목왕이 원나라에 내왕할 때 호종한 공으로 중랑장(中郎將), 호군(護軍)에 올랐다. 여러 차례 홍건적의 침입을 막아 내어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다가 이를 시기한 간신 김용(金鏞)의 모략으로 피살되었다.

581) 복주(福州) : 중국 푸저우.
582) 김득배(金得培) : 고려 말기의 문신(1312~1363)으로 호는 난계(蘭溪)이다. 1357년과 1359년 홍건적 침입 때 서북면 도순문사가 되어 방어에 힘썼으나, 1363년에 처형되었다.
583) 삼원수(三元帥) : 세명의 원수(元帥), 원수란 고려 시대에, 전시의 군사를 통솔하는 일을 맡아보던 장수, 또는 한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던 으뜸 장수를 이른다.
584) 부윤(府尹) : 지방 관아인 부(府)의 우두머리.
585) 송악(松岳) : 개성의 옛 이름.
586) 유진(留陣) : 군사들이 머물러 있음, 또는 군사들을 머물러 있게 함.
587) 육탄(肉彈) : 몸을 탄알 삼아 적진을 공격하는 일. 또는 그 몸.
588) 혈우(血雨) : 살상으로 인해 심하게 나오는 피.
589) 무고(誣告) :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590) 포은(圃隱) : 정몽주의 호, 고려 말기의 충신이자 유학자(1337~1392)로 초명은 몽란(夢蘭),몽룡(夢龍),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이다. 오부 학당과 향교를 세워 후진을 가르치고, 유학을 진흥하여 성리학의 기초를 닦았다. 명나라를 배척하고 원나라와 가깝게 지내자는 정책에 반대하고, 끝까지 고려를 받들었다. 문집에 포은집 이 있다.
591) 황천(皇天) : 넓고 큰 하늘, 하느님, 천자(天子)를 이른다.
592) 복선화음(福善禍淫) :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줌.
593) 상선벌악(賞善罰惡) :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일.
594) 일여(一如) : 진여(眞如)의 이치가 평등하고 차별이 없어 둘이 아니고 하나임이다.
595) 인중(人衆) : 사람이 많음.
596) 왕자(往者) : 지난번.
597) 여가(輿駕) : 임금이 타는 가마나 수레.
598) 풍전(風前)에 등화(燈火) : 풍전등화(風前燈火),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99) 향응(嚮應) : 남의 주창에 따라 그와 같은 행동을 마주 취함.
600) 사경(死境) : 죽을 지경.
601) 침식(寢息) : 잠자는 일과 먹는 일.
602) 귀추(歸趨) : 일이 되어가는 형편.
603) 주살(誅殺) : 죄를 물어 죽임.
604) 한마(汗馬) : 줄곧 달려 등에 땀이 밴 말을 이르는 것으로 전투장에서 말을 타고 힘겹게 왔다 갔다 함을 뜻한다.
605) 봉인지혼(鋒刃之魂) : 창, 칼 따위의 날의 혼.
606) 충혼장백(忠魂壯魄) : 충성스럽고 의로운 넋이라는 뜻으로, 충의의 정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607) 천추만대(千秋萬代) : 긴 세월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라는 뜻으로, 후손 만대에 이르기까지의 긴 시간을 이르는 말.
608) 구천지하(九天地下) : 땅속 깊은 밑바닥이란 뜻으로, 죽은 뒤에 넋이 돌아가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609) 내궁(內宮) : 황후(皇后)나 왕후(王后)가 거처하던 궁전.
610) 탁도경(卓都卿) : 미상~1362년(공민왕 11). 고려 공민왕 때의 반적이다. 1356년에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 유인우(柳仁雨)가 쌍성을 함락시키자, 쌍성천호로서 쌍성의 총관 조소생(趙小生)과 함께 도주하여 고려조정을 괴롭혔다. 358년에 조소생과 함께 해양으로 도망하여 웅거하니 해양인(海陽人) 완자불화(完者不花)가 병졸 1,800명을 거느리고 내투하였다. 1362년에 나하추(納合出)가 병사 수만명을 거느리고 조소생 등과 함께 홍원(洪原)의 달단동(韃靼洞)에 주둔하
611) 조소생(趙小生) : 미상~1362년(공민왕 11). 고려의 부원(附元) 반역자. 본관은 한양(漢陽)으로 용진현(龍津縣)에 살았다. 항몽전쟁 말기 부원반역자로 쌍성총관(雙城摠管)이 되었던 휘(暉)의 증손이다. 휘의 투몽(投蒙)이후 쌍성총관부가 존속된 1세기 동안 휘와 그 자손이 총관직을 세습하였던 바, 1356년(공민왕 5) 왕이 원나라의 쇠미를 틈타 쌍성의 수복을 꾀할 당시 쌍성총관으로 있었다. 1362년 원나라의 반적(叛賊) 나하추(納哈出)를 끌어들여 고려의 동북변지역을
612) 이성계(李成桂) : 조선 제 1대 왕인 태조의 본명.
613) 구축(驅逐) : 어떤 세력 따위를 몰아서 쫓아냄.
614) 최유 : 본관은 해주(海州), 몽골 이름은 티무르부카(帖木兒不花)로 용주(龍州) 출신이다. 아버지는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안도(安道)로 입원숙위(入元宿衛)하여 원(元)나라에서 태부태감(太府太監)을 지낸 친원분자(親元分子)였다. 충혜왕 때 여러 관직을 거쳐 군부판서(軍簿判書)가 되었다. 1342년(충혜왕 복위 3) 앞서 조적(曺頔)의 난 때 왕을 시종한 공으로 1등공신이 되었으며 원나라에서 벼슬하여 어사(御史)가 되었다. 이때 권세를 믿고 유부녀를 강간하는
615) 추장(酋長) : 대표, 우두머리.
616) 신돈(辛旽) : 고려 말기의 중(?~1371)으로 자는 요공(耀空), 호는 청한거사(淸閑居士)이다. 공민왕에게 등용되어 국정을 장악하고, 전제개혁(田制改革), 노비 해방 따위의 개혁 정책을 폈으나, 상층 계급의 반발로 실패하였으며, 후에 왕의 시해를 음모하다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617) 삼중대광(三重大匡) : 고려 시대에 둔 정일품의 문관 품계이다. 충렬왕 34년(1308)에 정일품으로 정하고, 공민왕 5년(1356)에 없앴다가 다시 11년(1362)에 정일품 하(下)로 고치고, 18년(1369)에 종일품 상(上)으로 고쳤다.
618) 이인복(李仁復) : 고려말의 문신(1308~ 1374)으로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극례(克禮), 호는 초은(樵隱)이다. 백이정(白頤正)에게 성리학을 배워 1326년(충숙왕 13) 문과에 급제하여 복주사록(福州司錄)이 된 후 춘추공봉(春秋供奉)에 발탁되었다. 평생 성리학을 존숭하여 불교를 멀리했고, 성품이 강직하여 옳지 못한 일을 보면 노기가 얼굴에 나타났으나 함부로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문장을 짓는 데 말이 엄하고 뜻이 깊어 기롱하고 풍자하는 것이 많았다고 한다.
619) 이춘부(李春夫) : 고려말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양성(陽城), 아버지는 첨의평리 나해(那海)이다. 원나라에서 영종의 총애를 받아 직성사인을 지냈으며, 고려에서는 삼사좌윤·밀직대언을 역임했다.홍건적의 침입 때 병력편성을 잘했다고 하여 1363년 1등 공신에 등록되었는데, 그 후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박탈당했다. 그뒤 당시 세력가인 신돈(辛旽)을 따르며 공민왕의 개혁정책에 힘써 찬성사를 거쳐 시중에 이르렀고, 충근절의동덕찬화(忠勤節義同德贊化) 공신호를 받았다. 그런데 개혁사업을
620) 이존오(李存吾) : 고려 공민왕 때의 충신(1341~1371)으로 자는 순경(順慶), 호는 석탄(石灘), 고산(孤山)이다. 1366년에 우정언이 되었는데, 신돈이 집권하자 그 횡포를 탄핵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샀으나 극형은 겨우 면하고 장사감무(長沙監務)로 좌천되었다. 후에 지금의 공주인 석탄에서 은둔 생활

을 하다가 병으로 죽었다. 시조 3수가 전한다.

621) 광망(狂妄) : 미친 사람처럼 아주 망령되다.

622) 경복흥(慶復興) : 고려 공민왕 때의 재상(?~1380)으로 반신(叛臣) 기철을 죽인 공로로 일등 공신이 되었다.

623) 우왕(禑王) : 고려 제32대 왕(1365~1389). 공민왕의 아들로, 10세에 왕위에 올랐으나 이성계에 의하여 폐위되었다. 재위 기간은 1375~1388년이다.

624) 정포은(鄭圃隱) : 정몽주를 이른다.

625) 최무선(崔茂宣) : 고려 말기에서 조선 전기의 무기 발명가이자 장군(?~1395)으로 중국 원나라 사람에게서 화약 제조법을 배워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화약과 화통·화포·화전 따위를 만들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진포(鎭浦)에 침입한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

626) 주원장(朱元璋) : 중국 명나라의 제1대 황제(1328~1398)로 자는 국서(國瑞), 묘호(廟號)는 태조(太祖)이다. 창장강 일대를 평정하고 국호를 명(明), 연호를 홍무(洪武)라 하였다. 중국을 통일하였으며, 과거 제도의 정비, 대명률의 제정, 전국의 토지·호구 조사와 같은 많은 업적을 남겼다.

627) 철령위(鐵嶺衛) : 고려시대에, 중국 명나라가 설치하려던 70개소의 병참 군영. 우왕 14년(1388)에 함경도 철령에서 중국 라오양(遼陽)에 이르는 곳에 설치하려고 하였다.

628) 진주(進駐) : 군대가 쳐들어가거나, 파견되어 가서 주둔함.

629) 도총사(都總使) : 고려 말기에, 각 도의 군대를 통솔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

630) 조민수(曺敏修) : 고려 말기의 무신(?~1390)으로 우왕 14년(1388)에 랴오둥 정벌군의 좌군도통사(左軍都統使)로 출정하였다가,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 뒤에 이성계 일파의 전제 개혁을 반대하다가 유배당하였다.

631) 위화도(威化島) : 평안북도 의주군 위화면에 속하는 섬으로 압록강 하류에 있으며, 이성계가 명나라를 치러 가던 군대를 돌린 곳으로 유명하다.

632) 장림(長霖) : 오래 계속되는 장마.

633) 영단(英斷) :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

634) 원사(寃死) : 원통한 죽음.

635) 창왕(昌王) : 고려의 제33대 왕(1380~1389)으로 이름은 창(昌)이다. 우왕의 아들로, 1388년에 이성계 일파가 우왕을 내쫓은 후 왕위에 올랐으나, 다시 이성계에 의하여 강화로 쫓겨난 뒤 살해되었다. 재위 기간은 1388~1389년이다.

636) 안마(鞍馬) : 안구마, 즉 안장을 얹은 말.

637) 왕왕(往往) : 시간을 두고 이따금.

638) 경복흥(慶復興) : 고려 공민왕 때의 재상(?~1380). 반신(叛臣) 기철을 죽인 공로로 일등 공신이 되었다.

639) 북정(北征) : 북벌.

640) 문하성(門下省) : 고려시대에, 중앙 의정 기관의 하나인 내사문하성을 이르던 말로 왕명의 출납과 중신(重臣)의 탄핵을 맡아보았으며 으뜸 벼슬은 시중이었다.

641) 상서성(尙書省) : 고려시대에, 백관을 총령하던 관아이다. 공민왕 때에 첨의부를 고친 것으로 뒤에 삼사(三司)로 바꾸었다.

642) 형례(刑例) : 형벌에 대한 규정.

643) 삼사성(三司省) : 고려시대에, 전곡(錢穀)의 출납과 회계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현종 5년(1014)에 도정사로 고쳤다가 14년(1023)에 환원하였으며, 공민왕 5년(1356)에 상서성으로 다시 고쳤다가 11년(1362)에 또 환원하였다.

644) 어사대(御史臺) : 고려시대에, 정사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백관을 감찰·탄핵하던 관아. 성종 14년(995)에 사헌대를 고친 것으로, 현종 5년(1014)에 금오대로 바꾸었다가 충렬왕 원년(1275)에 감찰사로 고쳤다.

645) 양광도(楊廣道) : 고려시대에, 지금의 충청도 지역에 둔 행정구역. 충숙왕 원년(1314)에 제정하였다가 공민왕 5년(1356)에 충청도로 고쳤다.

646) 교주도(交州道) : 강원도의 옛 이름.

647) 팔목(八牧) : 고려시대에, 목사가 다스리던 여덟 곳의 지방 행정 구역이다. 현종 9년(1018)에 둔 것으로, 광주·충주·청주·진주·상주·전주·나주·황주를 이른다.

648) 보조(普照) : 고려 신종 때의 중(1158~1210)으로 속성은 정(鄭), 이름은 지눌(知訥), 호는 목우자(牧牛子), 시호는 불일보조(佛日普照)이다. 선·교 양종(兩宗)의 합일을 주장하여, 그 전의 구산선문을 조계종으로 통합하였다. 저서에 진심직설(眞心直說) , 수심결(修心訣) 등이 있다.

649) 대각(大覺) : 고려시대의 중(1055~1101)으로 이름은 후(煦), 자는 의천(義天)이다. 중국 송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천태종을 열었으며,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세우고 속장경 4,000여 권을 간행하였다.

650) 나옹(懶翁) : 고려말기의 중(1320~1376)으로 속성은 아(牙), 속명은 원혜(元惠), 호는 나옹(懶翁)·강월헌(江月軒)이다. 중국 원나라에서 인도의 중 지공(指空)에게 배운 뒤에 귀국하여 왕사가 되었다. 보우(普愚)와 더불어 고려 말 선종의 대가로서 이후의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651) 이숭인(李崇仁) : 고려말기의 학자(1349~1392)로 자는 자안(子安), 호는 도은(陶隱)이다. 삼은(三隱)의 한 사람으로 공민왕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제학을 거쳐 동지춘추관사를 지냈으나 만년에는 친원파와 친명파의 모함을 받아 여러 차례 옥사(獄事)를 겪었다. 정몽주와 함께 고려실록(高麗實錄) 을 편찬하였다. 저서에 도은집 이 있다.

652) 길재(吉再) : 고려 말기에서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1353~1419)로 자는 재부(再夫), 호는 야은(冶隱)·금오산인(金 鰲山人)이다. 고려 삼은(三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색·정몽주 등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히고 성균관 박사가 되어 유생들을 가르쳤다. 저서에 야은집 , 야은언행습유(冶隱言行拾遺) 등이 있다.

653) 일연(一然) : 고려 시대의 중(1206~1289)으로 성은 김, 호는 목암(睦菴)·무극(無極)이다. 고종 때 대선사에 이르고, 충렬왕 때 국존이 되었다. 저서에 삼국유사 , 어록(語錄) , 계승잡저 따위가 있다.

654) 삼국유사(三國遺事) : 고려 충렬왕 11년(1285)에 중 일연이 쓴 역사책이다. 단군·기자·대방·부여의 사적(史跡)과 신라·고구려·백제의 역사를 기록하고, 불교에 관한 기사·신화·전설·시가 따위를 풍부하게 수록하였다. 삼국사기 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나, 오늘날 원판(原版)은 전하지 않고 조선 중종 7년(1512)에 재간된 것만 전한다. 5권 3책.

655) 우탁(禹倬) : 고려 충선왕 때의 학자(1263~1343)로 자는 천장(天章), 호는 역동(易東)이다. 성균관 좨주(祭酒)를 지내고, 경사와 역학에 통달하였으며, 정주학을 처음으로 연구하고 해득하여 후진을 가르쳤다.

656) 유공권(柳公權) : 고려 명종 때의 문신(1132~1196)으로 자는 정평(正平)이다. 초서·예서에 능했으며,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우부승지에 이르렀다.
657) 문익점(文益漸) : 고려 말기의 문신(1329~1398)으로 초명은 익첨(益瞻), 자는 일신(日新), 호는 삼우당(三憂堂)이다. 사신으로 중국 원나라에 들어가 덕흥군(德興君)을 왕으로 내세우는 일에 가담하였으나 실패하고, 돌아올 때 목화씨를 붓자루 속에 넣어 가지고 와서 심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목화를 번식시켰다.
658) 정천익(鄭天益) : 고려 공민왕 때의 농부(?~?)이다. 문익점의 장인으로, 문익점이 중국 원나라에서 가져온 목화씨를 심어 목화를 퍼뜨리고, 씨아와 물레를 만들어 사용하게 하였다.
659) 이율곡(李栗谷) : 이이의 성과 호를 함께 아울러 이르는 말.
660) 신농(神農) : 신농씨, 중국의 옛 전설 속의 제왕으로 삼황(三皇)의 한 사람. 농업·의료·악사(樂師)의 신, 주조(鑄造)와 양조(釀造)의 신이며, 또 역(易)의 신, 상업의 신이라고도 한다.
661) 교민경(敎民耕) : 백성에게 밭을 가는 것을 가르치다.
662) 후직(后稷) : 중국 주나라의 시조로 성은 희(姬), 이름은 기(棄)이다. 어머니가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 잉태하여 낳아서 불길하다 하여 세 차례나 버려졌으므로 기(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순임금을 섬겨 사람들에게 농사를 가르쳐 그 공으로 후직(后稷)이라는 벼슬에 올랐다.
663) 교민가(敎民稼) : 백성에게 농사하는 것을 가르치다.
664) 풍공(豊功) : 매우 큰 공훈.
665) 창왕(昌王) : 고려의 제33대 왕(1380~1389)으로 이름은 창(昌)이다. 우왕의 아들로, 1388년에 이성계 일파가 우왕을 내쫓은 후 왕위에 올랐으나, 다시 이성계에 의하여 강화로 쫓겨난 뒤 살해되었다. 재위 기간은 1388~1389년이다.
666) 공양왕(恭讓王) : 고려 제34대 마지막 왕(1345~1394)으로 이름은 요(瑤)이다. 이성계 일파에 의하여 왕위에 올랐으나 실권을 빼앗겼고, 정몽주가 살해된 뒤에 폐위당하고 살해되었다. 재위 기간은 1389~1392년이다.
667) 명산대찰(名山大刹) : 이름난 산과 큰 절.
668) 웅도(雄圖) : 웅대한 계획.
669) 반갈인등상벽봉(攀葛引藤上碧峯) : 칡덩굴 움켜잡고 푸른 봉우리에 오르니,
670) 소암기재백운중(小庵奇在白雲中) : 조그만 암자 하나 백운 중에 주웠구나.
671) 약장안계위오토(若將眼界爲吾土) : 만약 눈앞에 보이는 땅이 장차 나의 땅이 된다면.
672) 초월강남기불용(楚越江南豈不容) : 초월 강남인들 어찌 용납하지 못하랴
673) 조준(趙浚) : 고려 말기·조선 전기의 문신(1346~1405)으로 자는 명중(明仲), 호는 우재(吁齋)·송당(松堂)이다. 이성계를 추대한 공으로 부원군에 봉하여졌다. 과전법을 실시하여 토지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하륜 등과 함께 경제육전 을 편찬하였다. 저서에 송당집(松堂集) 이 있다.
674) 이목은(李牧隱) : 이색의 성과 호를 아울러 이르는 말.
675) 김저(金佇) : 고려 말기의 무장(?~1389)이다. 최영의 생질로 이성계를 죽이려고 모의하다가 발각되어 옥사하였다.
676) 변안렬(邊安烈) : 호는 대은(大隱). 원래 원나라 선양(瀋陽) 출신이나, 원나라 말년의 병란 때 공민왕을 따라 고려로 왔다. 1361년(공민왕 10) 안우(安祐)를 따라 홍건적을 격퇴해 2등 공신으로 판소부감사(判小府監事)가 되었다.1389년(공양왕 1) 최영의 생질이며 대호군(大護軍)인 김저(金佇)가 우왕의

부탁을 받고 이성계를 죽이려다 발각되어 옥에 갇혔는데, 변안렬은 영삼사사로서 이에 연루되어 관직을 삭탈당하고 한양으로 귀양갔다가 1390년 유배지에서 사형을 당했다

677) 정지 : 나주 고려 후기 왜구 퇴치에 공을 세운 무신이다. 1374년(공민왕 23) 유원정의 추천으로 중낭장으로 전라도안무사로 발탁되어 왜인추포만호를 겸하면서 왜구 퇴치책을 건의하고 백성들의 부담 완화와 전략의 효율화에 노력하였다.

678) 우현보(禹玄寶) : 공민왕(恭愍王) 때 과거에 급제하였다. 상황에 따라 변통을 중시하였으며, 고지식하게 원칙을 고집하지는 않았던 사람이다. 국방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공민왕(恭愍王)에게 왜구를 막는 방법과 군비 준비에 관하여 상소문을 올리기도 하였다. 우왕(禑王)대에 이르러 승진하여 재상이 되었다.

679) 정배(定配) : 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형벌.

680) 김종연(金宗衍) : 고려 후기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고 제1차 쓰시마정벌을 단행한 무신으로 아버지가 신돈(辛旽)을 죽이려고 모의하다 발각되어 살해당하자, 피신하였다가 신돈이 죽은 뒤 나와서 원수가 되어 왜구와의 싸움에 참가하였다. 이후 이방춘(李芳春) 등과 이성계(李成桂)를 죽일 모의를 꾀하였으나, 공모자인 윤구택(尹龜澤)의 밀고로 모의가 사전에 발각되자, 붙잡혀 심문을 받다가 죽었다.

681) 문하시중(門下侍中) : 고려시대에, 중서문하성의 종일품 으뜸 벼슬. 성종 1년(982)에 처음으로 두고 문종 때 정원 및 품계를 정하였으며, 충렬왕 1년(1275)에 첨의중찬으로 고쳤다.

682) 이방원(李芳遠) : 조선 제3대 왕인 '태종(太宗)'의 본명.

683) 선죽교(善竹橋) : 개성에 있는 돌다리. 고려 말기의 충신 정몽주가 이방원이 보낸 조영규 등에게 철퇴를 맞고 죽은 곳으로 유명하다.

684) 조영규(趙英珪) : 고려 말기에서 조선 전기까지의 무신(?~1395)으로 초명은 평(評)이다. 예조 전서(禮曹典書)를 지냈다. 1392년 이방원과 모의하여 정몽주를 선죽교에서 죽였으며 조선 왕조를 세우는 데 공을 세웠다.

685) 풍마우세(風磨雨洗) : 바람에 갈리고, 비에 씻김.

686) 쟁광(爭光) : 서로 영광을 다툼.

687) 인비아불비(人悲我不悲) :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688) 고신망국(孤臣亡國) : 나라가 망함에 외로운 신하.

689) 불사갱하위(不死更何爲) : 죽지 않고 할 일이 무엇인가.

690) 긍만고(亘萬古) : 만고를 통하여 뻗침, 아주 옛날까지 뻗침.

691) 태산고절(泰山高節) : 태산처럼 높은 절개.

692) 오가(吾家) : 우리 집안.

693) 김진양(金震陽) : 고려 말기의 문신으로 정몽주(鄭夢周)·우현보(禹玄寶)·이색(李穡)·이확(李擴) 등과 더불어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남은(南誾) 등 새로운 왕조를 수립하려는 이성계 세력과 대립했다. 본관은 경주. 자는 자정(子靜), 호는 초려(草廬)이다.

694) 정도전(鄭道傳) : 고려말기에서 조선전기의 문인이자 학자(1342~1398)로 자는 종지(宗之), 호는 삼봉(三峯)이다. 이색의 문인으로, 조선 개국 일등 공신이 되었으며 성리학을 지도 이념으로 내세워 불교를 배척하였다. 전략, 외교, 법제, 행정에 밝았으며 시와 문장에 뛰어나 고려사 37권을 개수하고, 〈납씨가〉, 〈신도가〉 등의 악장을 지었다. 저서에 조선경국전 , 경제육전 과 문집 삼봉

집　등이 있다.

695) 변란(變亂) : 사변이 일어나 세상이 어지러움, 또는 그런 소란.

696) 상선(相煽) : 서로 부채질하다.

697) 매롱(賣弄) : 뇌물을 받고 권리를 파는 등 농간을 부림.

698) 남재(南在) : 조선의 개국 공신(1351~ 1419)으로 자는 경지(敬之), 호는 귀정(龜亭)이다. 태조 5년(1396)에 도병마사로 대마도를 정벌하였으며 우의정, 영의정을 지냈다. 이색의 문인으로 문장에 뛰어나고 경제에 밝았으며, 산수(算數)에도 능하였다. 저서에　귀정유고(龜亭遺稿)　가 있다.

699) 윤소종(尹紹宗) :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으로 1365년(공민왕 14) 이인복(李仁復)과 이색(李穡)이 지공거(知貢擧)인 과거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 사관(史官)·정언을 거쳤다. 우왕 초기에 전교시승으로 임명되었고, 성균사예·예문응교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조선왕조가 개창되면서 병조전서가 되고,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었다.

700) 조박(趙璞) :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문신(1356~1408)으로 자는 안석(安石), 호는 우정(雨亭)이다. 조선의 개국 공신이 되어 예조 전서에 이르렀고 평원군(平原君)에 봉하여졌다.

701) 태일백(笞一百) : 일백번의 볼기를 치다.

702) 만조(滿朝) : 온 조정.

703) 방축(放逐) : 자리에서 쫓아냄.

704) 칠십이현(七十二賢) : 조선 전기에 새 왕조를 섬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어 경기도 개풍군 광덕산 두문동에 들어가 절의를 지켰던 고려의 충신 72인으로 조선 정조 때 왕명으로 표절사(表節祠)를 세워 배향(配享)하였다.

705) 두문동(杜門洞) :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것에 반대한 고려 유신이 모여 살던 곳.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 서쪽 기슭에 있다.

706) 구홍(具鴻) : 두문동 72현 중 한명으로 고려에 대한 절개를 지킨 충신으로 유명하다. 호는 송은(松隱)이었다. 1379년 밀직부사가 되었고, 1388년 창왕의 제위기에 우정승(右政丞)에 이르렀으나,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절의를 지켰다. 1403년(태종 3년) 사후 좌정승(左政丞)에 추증되었다.

707) 좌의정(左議政) : 조선 시대에, 의정부에 속하여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일반 정치 및 외교의 일을 맡아 하던 정일품 벼슬. 우의정의 위, 영의정의 아래이다.

708) 제수(除授) : 천거에 의하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 일, 또는 옛 관직을 없애고 새 관직을 내리던 일을 이른다.

709) 명정(銘旌) :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기. 일정한 크기의 긴 천에 보통 다홍 바탕에 흰 글씨로 쓰며, 장사 지낼 때 상여 앞에서 들고 간 뒤에 널 위에 펴 묻는다.

710) 호조전서(戶曹典書) : 호조(戶曹)란 조선 시대에, 육조 가운데 호구, 공부, 전량(田糧), 식화(食貨)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로 고종 31년에 탁지아문으로 고쳤다. 전서(典書)란 조선 전기에, 육조에 둔 으뜸 벼슬을 이른다. 정삼품 벼슬로, 태종 5년(1405)에 판서(判書)로 고쳤다.

711) 형조판서(刑曹判書) : 조선 시대에 둔, 형조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이품이다.

712) 김자수(金自粹) : 고려 말기의 문신으로 자는 순중(純中), 호는 상촌(桑村)이다. 대사성·좌상시·형조 판서를 지냈으며, 고려가 망하자 안동에 은거하다가 자결하였다.

713) 순절(殉節) : 충절(忠節)이나 정절(貞節)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

714) 예부(禮部) : 육부 가운데 의례·제향·교빙·학교·과거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로 몽고 간섭기인 충렬왕 원년(1275)에 이부(吏部)와 합쳐져 전리사가 되었다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본래의 이름으로 돌아갔으며, 다시 예의사로 되었다가 공양왕 원년(1389)에 예조(禮曹)로 개편하였다.
715) 이소양(李昭陽) : 이양소를 이르는 것. 이양소는 고려말의 충신으로 자는 여건(汝健), 호는 금은(琴隱), 정몽주의 문인이다. 문과에 급제한 뒤 사예를 거쳐 군수를 지냈다. 고려말 이방원과 함께 곡산(谷山) 청룡사(靑龍寺)에서 공부하고, 성균관에도 같이 있었다. 1392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여러 차례 벼슬을 주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716) 태종(太宗) : 조선의 제3대 왕(1367~1422)으로 성은 이(李), 이름은 방원(芳遠), 자는 유덕(遺德)이다. 조선을 건국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많은 치적을 거두어 왕조의 기틀을 세웠다. 재위 기간은 1400~1418년이다.
717) 추우반청인반취(秋雨半晴人半醉) : 가을비가 반만 개임에 사람이 반만 취함이라.
718) 모운초권월초생(暮雲初捲月初生) : 저문 구름이 처음 걷으매 달이 처음 나옴이라.
719) 서형(庶兄) : 정실에게서 난 아들이 첩에게서 태어난 형을 이르는 말.
720) 이원계(李元桂) : 완풍대군(完豊大君, 1330년 ~ ?) 또는 완산군(完山君)은 고려시대 후기의 무신·군인이며 환조 이자춘의 아들이자 조선 태조 이성계의 형으로 이름은 이원계(李元桂)이다. 홍건적의 난 이후 두 차례의 홍건적의 침략을 격퇴했고, 원수로서 이성계, 변안렬 등과 함께 왜구의 침공을 물리쳤다. 고려의 충신이던 그는 이복 동생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에 반대했으며,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려는 뜻을 알고 절명시를 남긴 뒤 음독자결하였다.
721) 길야은(吉冶隱) : 길재의 성과 호를 함께 이르는 말. 길재는 고려말기에서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1353~1419)로 자는 재부(再夫), 호는 야은(冶隱)·금오산인(金鰲山人)이다. 고려 삼은(三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색·정몽주 등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히고 성균관 박사가 되어 유생들을 가르쳤다. 저서에 야은집 , 야은언행습유(冶隱言行拾遺) 등이 있다.
722) 이보흠(李甫欽) : 조선전기의 문신(?~1457)으로 자는 경부(敬夫), 호는 대전(大田)이다. 1429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이듬해 훈도관으로서 공법(貢法)의 논의에 참여하여 전제(田制)와 세법을 상론하였다. 1443년 사은사(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723) 제문(祭文) : 죽은 사람에 대하여 애도의 뜻을 나타낸 글. 흔히 제물을 올리고 축문처럼 읽는다.
724) 주무왕(周武王) : 주나라의 무왕(武王)을 이르는 말. 무왕은 중국 주나라의 제1대 왕(?~?)으로 성은 희(姬), 이름은 발(發)이다. 은 왕조를 무너뜨리고 주 왕조를 창건하여, 호경(鎬京)에 도읍하고 중국 봉건 제도를 창설하였다. 후대에 현군(賢君)으로 평가받았다.
725) 한광무제(漢光武帝) : 한의 광무제를 이르는 것. 중국 후한(後漢)의 제1대 황제(?B.C.6~A.D.57). 본명은 유수(劉秀), 자는 문숙(文叔)이다. 왕망의 군대를 무찔러 한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낙양에 도읍하였다. 재위 기간은 25~57년이다.
726) 원천석(元天錫) :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은사(隱士)(1330~?)로 자는 자정(子正), 호는 운곡(耘谷)이다. 세상의 어지러움을 보고, 치악산에 은거하면서 당시 사적을 바로 적은 야사(野史) 6권을 저술하였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727) 요우(僚友) : 같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같은 계급의 벗.
728) 조견(趙狷) :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으로 초명은 윤(胤), 자는 거경(巨卿)·종견(從犬), 호는 송산(松山)이다. 어려서 중이 되어 여러 절의 주지를 지내다가, 30세가 넘어 환속했다. 문과에 급제하여, 고

려말에 지신안렴사(知申按廉使)에 이르렀다. 형 준과 함께 이성계(李成桂) 추대에 가담하여, 1392년 조선이 개국되자 상장군으로서 개국공신 2등에 평양군(平壤君)으로 봉해졌다.

729) 개국공신(開國功臣) : 조선시대에, 태조 이성계를 도와 개국에 공로가 큰 사람들에게 내린 칭호로써 정도전, 배극렴, 조준 등에게 내렸다.

730) 도응(都膺) :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예(子藝), 호는 청송당(靑松堂)이다. 고려 말 찬성사(贊成事)를 지내다가, 조선 건국 후 태조가 죽마지우인 그를 상장군에 봉하였으나 거절하고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개를 지켰다.

731) 오징불기(五徵不起) : 다섯 번을 불러도 한번을 나서지 않음을 이른다.

732) 사액(賜額) : 임금이 사당(祠堂), 서원(書院), 누문(樓門) 따위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편액을 내리던 일을 이른다.

733) 권근(權近) :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문신이자 학자(1352~1409)로 초명은 진(晉), 자는 가원(可遠)·사숙(思叔), 호는 양촌(陽村)이다. 성리학자이면서 문장에도 뛰어났으며, 왕명으로 하륜 등과 함께 동국사략 을 편찬하였다. 저서에 양촌집 , 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 등이 있다.

734) 대제학(大提學) : 조선 시대에 둔, 홍문관과 예문관의 으뜸 벼슬. 정이품으로, 태종 1년(1401)에 대학사를 고친 것이다.

735) 영걸(英傑) : 영웅호걸.

736) 영흥군(永興郡) : 함경남도 남부에 있는 군으로 함경선 철도가 남북으로 통하며 교통이 편리하다. 농업, 축산업, 광업 따위를 주로 하며, 명승지로 선원전(璿源殿), 화주 영허(和州營墟), 안불사(安佛寺) 등이 있다.

737) 구습(舊習) : 옛날부터 내려오는 낡은 풍습.

738) 일소(一掃) : 모조리 쓸어버림.

739) 하륜(河崙) : 고려 말기, 조선 초기의 문신(1347~1416)으로 자는 대림(大臨), 호는 호정(浩亭)이다. 제일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 공을 세우고 정당문학에 올랐으며, 동국사략 을 편수하고 태조실록 편찬을 지휘하였다. 저서에 호정집 이 있다.

740) 무학대사(無學大師) :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의 중(1327~1405)으로 속성은 박(朴), 이름은 자초(自超)이다. 이성계의 스승으로, 법천사·영암사에 수년 간 머물다가 양주(楊州) 회암사(檜巖寺)에서 계속 지냈다. 새 수도의 지상(地相)을 보러 계룡산, 한양 등지를 돌아다녔다. 저서에 인공음(印空吟) 이 있다.

741) 왕도(王都) : 왕궁이 있는 도시.

742) 경복궁(景福宮)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조선 시대의 궁전으로 조선 태조 4년(1395)에 건립되어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나 고종 4년(1867)에 흥선 대원군이 재건하였다.

743) 건평(建坪) : 건물이 차지한 밑바닥의 평수.

744) 광화문(光化門) : 경복궁의 정문. 조선 태조 4년(1395)에 건립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고종 2년(1865)에 대원군이 재건하였다. 지금의 것은 1968년에 복원된 것이다.

745) 건춘문(建春文) : 경복궁의 동쪽 문으로 문 안쪽에 세자가 기거하던 춘궁(春宮)이 있었으며, 임금의 친족이나 상궁들만이 드나들 수 있었다

746) 영추문(迎秋門) : 경복궁의 서문(西門)으로 일반 관원들이 출입하였다.

747) 신무문(神武門) : 서울 경복궁의 북문으로 임금이 경무대에서 거행되는 과거장에 행차할 때에만

이 문을 열었다.
748) 근정전(勤政殿) : 경복궁 안에 있는 정전(正殿)이다. 조선 시대에 임금의 즉위식이나 대례 따위를 거행하던 곳으로, 지금의 건물은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고종 4년(1867)에 대원군이 다시 지은 것이다.
749) 정전(政殿) : 왕이 나와서 조회(朝會)를 하던 궁전.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이 있다.
750) 사정전(思政殿) : 경복궁 안에 있는 곳으로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는 궁전이다.
751) 편전(便殿) :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는 궁전.
752) 훈민정음(訓民正音) :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를 이르는 말이다.
753) 경회루(慶會樓) : 경복궁 서쪽 연못 안에 있는 누각이다 임금과 신하가 모여 잔치하던 곳으로, 조선 태종 12년(1412)에 건립되어 임진왜란 때에 불타 버렸으나 조선 고종 4년(1867)에 재건하였다.
754) 연지(蓮池) : 연못.
755) 삼십육궁(三十六弓) : 중국 전한(前漢) 때에 궁정에 있었다고 하는 서른여섯 개의 궁전. 제왕의 궁전이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756) 창덕궁(昌德宮)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궁궐. 조선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역대 왕이 정치를 하고 상주하던 곳이며, 보물 383호인 돈화문 따위가 있다. 1996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757) 치려(侈麗) : 크고 아름답다.
758) 덕수궁(德壽宮)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에 있는 조선 시대의 궁궐이다. 본래는 행궁(行宮)이었으나 선조 26년(1593)에 의주에서 환도한 후 보수하여 궁궐로 삼았다. 지금 남아 있는 건물은 중화전, 함녕전, 석조전 등이며 정문으로 대한문이 있다.
759) 춘당대(春塘臺) : 서울 창경궁 안에 있는 대(臺)로 옛날에 과거를 실시하던 곳이다.
760) 선정전(宣政殿) : 창덕궁 안에 있는 편전(便殿)으로 보물 제814호이다.
761) 수강궁(壽康宮) : 조선 세종 1년(1419)에 태종을 위해 창덕궁 동쪽에 지은 궁전으로, 성종 14년(1483)에 중건하고 이름을 창경궁으로 고쳤다.
762) 창경원(昌慶苑) : 창경궁(昌慶宮)의 전 이름.
763) 성균관(成均館) : 조선 시대에, 유학의 교육을 맡아보던 관아. 공자를 제사하는 문묘와 유학을 강론하는 명륜당 등으로 이루어지며, 태조 7년(1398)에 설치하여 융희 4년(1910)에 없앴다.
764) 재자(才子) : 재주가 뛰어난 젊은 남자.
765) 배극렴(裵克廉) : 조선 초기의 무신(1325~1392)으로 자는 양가(量可), 호는 주금당(晝錦堂)이다. 고려 말에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 왕조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워 성산백(星山伯)의 작위를 받았다.
766) 김사형(金士衡) : 고려 말기에서 조선 전기의 문신(1333~1407)으로 자는 평보(平甫), 호는 낙포(洛圃)이다. 고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고, 밀직사(密直司)로 대사헌을 겸하다가, 이성계를 받들어 조선개국에 크게 공을 세워 일등 공신이 되었으며, 쓰시마 섬 원정에도 참가하였다.
767) 동반(東班) : 양반 가운데 '문반(文班)'을 달리 이르던 말. 궁중의 조회 때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벌여 선 데서 나온 말이다.
768) 의정부(議政府) : 조선 시대에 둔, 행정부의 최고 기관이다. 정종 2년(1400)에 둔 것으로,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이 있어 이들의 합의에 따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였으며, 아래에 육조(六曹)를 두어 국가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명종 때에 비변사가 설치되면서 그 권한을 빼앗겨 유명무실하여졌으나 대

원군 때에 비변사를 없애면서 권한을 되찾았다.
769) 영의정(領議政) : 조선 시대 의정부의 으뜸 벼슬으로 정일품의 품계로 서정(庶政)을 총괄하는 최고의 지위이다.
770) 좌우의정(左右議政) : 좌의정과 우의정을 아울러 이르는 말.
771) 이조(吏曹) : 조선 시대에, 육조 가운데 문관의 선임과 훈봉, 관원의 성적 고사(考査), 포폄(褒貶)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772) 호조(戶曹) : 조선 시대에, 육조 가운데 호구, 공부, 전량(田糧), 식화(食貨)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31년에 탁지아문으로 고쳤다.
773) 예조(禮曹) : 조선 시대에, 육조 가운데 예악, 제사, 연향, 조빙, 학교, 과거 따위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태조 원년(1392)에 두었고 고종 31년(1894)에 폐하였다.
774) 병조(兵曹) : 조선 시대에, 육조(六曹) 가운데 군사와 우역(郵驛)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775) 형조(刑曹) : 조선 시대에, 육조(六曹) 가운데 법률·소송·형옥(刑獄)·노예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31년에 법무아문으로 고쳤다.
776) 공조(工曹) : 조선 시대에, 육조(六曹) 가운데 산택·공장·영선(營繕)·도야(陶冶)를 맡아보던 정이품 아문. 태조 1년(1392)에 설치하여 고종 31년(1894)에 공무아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777) 종친부(宗親府) : 조선 시대에, 역대 왕의 계보와 초상화를 보관하고, 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며 종반(宗班)을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세종 15년(1433)에 제군부(諸君府)를 고친 것으로, 고종 1년(1864)에 종부시를 합하여 그 사무를 아울러 맡았으며, 고종 31년(1894)에 종정부로 고쳤다.
778) 충훈부(忠勳府) : 조선 시대에, 공신(功臣)의 훈공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 하던 관아. 처음에는 공신도감, 충훈사로 부르던 것을 세조 때에 이 이름으로 고쳤다.
779) 의빈부(儀賓府) : 조선 시대에, 부마(駙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세조 12년(1466)에 부마부를 고친 것이다.
780) 의금부(義禁府) : 조선 시대에,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중죄인을 신문하는 일을 맡아 하던 관아. 태종 14년(1414)에 의용순금사를 고친 것으로 왕족의 범죄, 반역죄·모역죄 따위의 대죄(大罪), 부조(父祖)에 대한 죄, 강상죄(綱常罪), 사헌부가 논핵한 사건, 이(理)·원리(原理)의 조관(朝官)의 죄 따위를 다루었는데, 고종 31년(1894)에 의금사로 고쳤다.
781) 사간원(司諫院) : 조선 시대에, 삼사 가운데 임금에게 간(諫)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태종 원년(1401)에 설치하여 연산군 때 없앴다가 중종 때 다시 설치하였다.
782) 충익부(忠翊府) : 조선 시대에, 원종 공신을 위하여 둔 관아. 충익사를 세조 때에 고친 것인데, 뒤에 충훈부와 합치거나 병조에 속하기도 하였다.
783) 승정원(承政院) : 조선 시대에,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 정종 2년(1400)에 중추원을 고쳐 도승지 이하의 벼슬을 두었는데, 고종 31년(1894)에 승선원(承宣院)으로 고쳤다.
784) 홍문관(弘文館) : 조선 시대에, 삼사(三司) 가운데 궁중의 경서, 문서 따위를 관리하고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785) 예문관(藝文館) : 조선 시대에, 사명을 짓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태조 원년(1392)에 둔 예문춘추관을 태종 원년(1401)에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하였는데 고종 31년에 경연청에 합하였다.
786) 경연원(經筵院) : 대한 제국 때에,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의 보관 및 시강(侍講)과 대찬(代撰)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고종 32년(1895)에 이전의 경연청을 없애고 둔 것인데, 건양(建陽) 원년

(1896)에 홍문관으로 고쳤다.
787) 춘추관(春秋館) : 조선 시대에 둔, 시정의 기록을 맡아보던 관아. 태조 때에 예문춘추관을 두었다가 태종 때에 예문, 춘추의 두 관으로 독립하였는데, 고종 때 없앴다.
788) 수찬(修撰) : 홍문관에 둔 정육품 벼슬.
789) 시강(侍講) : 조선 시대에, 경연원(經筵院)에 속하여 임금에게 경전을 강의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광무 원년(1897)에 두었다.
790) 부윤(府尹) : 조선 시대의 지방 관아인 부(府)의 우두머리로 종이품 문관의 외관직으로 영흥부와 평양부, 의주부, 전주부, 경주부의 다섯 곳에 두었다.
791) 향시(鄕試) : 조선 시대에, 지방에서 실시하던 과거의 초시(初試)로 여기에 합격하여야 서울에서 복시(覆試)를 치를 수 있었다.
792) 중추부(中樞府) : 조선 시대에, 현직(現職)이 없는 당상관들을 속하게 하여 대우하던 관아이다. 세조 12년(1466)에 중추원을 고친 것으로, 일정한 사무나 실권이 없었다.
793)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 조선 시대에, 오위(五衛)의 군무를 맡아보던 관아이다. 중앙의 최고 군사 기관으로, 세조 3년(1457)에 둔 오위진무소를 세조 12년(1466)에 고친 이름이다.
794) 오위(五衛) : 조선 세조 3년에 개편을 시작하여 문종 때에 완성한 중앙 군사 조직으로 다섯 위(衛)로 개편하였는데, 중위(中衛)로 의흥(義興), 좌위(左衛)로 용양(龍驤), 우위(右衛)로 호분(虎賁), 전위(前衛)로 충좌(忠佐), 후위(後衛)로 충무(忠武)를 두고, 한 위를 다섯 부(部), 한 부를 네 통(統)으로 나누어, 전국의 군사를 모두 여기에 속하게 하였다.
795) 상호군(上護軍) : 조선 시대에, 오위(五衛)에 속한 정삼품 벼슬. 보직이 없는 문관과 무관, 음관(蔭官)으로 채웠다.
796) 대호군(大護軍) : 조선 시대에, 오위(五衛)에 속한 종삼품의 무관 벼슬.
797) 부호군(副護軍) : 조선 시대에, 오위도총부에 속한 종사품의 벼슬로 보직(補職)을 맡지 않은 문관과 무관, 음관(蔭官)으로 임명하였다.
798) 내금위(內禁衛) : 조선 시대에, 임금을 호위하던 군대. 궁궐을 지키는 금군(禁軍)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태종 7년(1407)에 설치하였다. 조선 후기에 겸사복(兼司僕), 우림위(羽林衛)를 합쳐 금군청(禁軍廳)이 되었다.
799) 익위(翊衛) : 조선 시대에 둔, 세자익위사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오품으로 좌우 1명씩 두었다.
800) 병영(兵營) : 병마절도사가 있던 영문.
801) 수영(水營) : 수군절도사가 있던 군영.
802) 임면(任免) : 임명과 해임을 통틀어 이르는 말.
803)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 조선 시대에, 각 도의 수군을 통솔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삼품 외직 무관(外職武官)의 벼슬. 세조 12년(1466)에 수군도안무처치사를 고친 것으로, 모두 당상관이었다.
804) 절제사(節制使) : 조선 시대에, 절도사가 관할하던 거진(巨鎭)에 둔 정삼품 벼슬. 정식 이름은 병마절제사 또는 수군절제사로, 부윤(府尹)이 겸하였다.
805) 연해(沿海) : 육지에 가까이 있는 바다. 즉 대륙붕을 덮고 있는 바다를 이른다.
806) 첨사(僉使) : 도첨절제사.
807) 우후(虞侯) : 조선 시대에, 각 도에 둔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보좌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로 병마우후가 종삼품, 수군우후가 정사품이었다.

808) 방석(芳碩) : 이방석(李芳碩), 조선 태조의 제8왕자(1382~ 1398)로 조선왕조가 개창되고 세자책봉 문제가 제기되면서 배극렴(裵克廉) 등은 왕비 한씨의 소생인 방원의 책봉을 주장했으나 태조는 계비 강씨의 의견을 좇아 제7왕자인 방번(芳蕃)을 세우고자 했다. 그러나 배극렴·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 등은 굳이 강씨의 소생을 세우려 한다면 성격이 괴팍하고 경솔한 방번보다는 방석으로 정할 것을 청했다. 그리하여 1392년(태조 1) 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는 정도전·

809) 남은(南誾) :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의 문신(1354~1398)으로 위화도 회군 때 이성계에 동조하고 정도전 등과 함께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의 개국에 협력하였으나,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게 살해되었다.

810) 원훈(元勳) : 나라를 위한 가장 으뜸이 되는 공, 또는 나라를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하여 임금이 아끼고 믿어 가까이하는 늙은 신하.

811) 방번(芳蕃) : 이방번(李芳蕃)을 이르는 말, 조선태조의 일곱째 아들(1381~1398)로 1392년(태조 1) 8월 무안군에 책봉되었다. 태조의 사랑을 받아 세자로 내정되었으나,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배극렴(裵克廉) 등 대신들의 반대로 세자위가 동모제(同母弟)인 방석(芳碩)에게 돌아갔다. 그뒤 1398년 8월 정안군 방원이 방석의 세자책봉과 정도전 일파의 병권장악에 반대해 일으킨 제1차 왕자의 난 때 방석과 함께 살해되었다.

812) 내념(內念) : 마음 속의 생각.

813) 선전관(宣傳官) : 조선 시대에, 선전관청에 속한 무관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를 이르는 것으로 품계는 정삼품부터 종구품까지 있었다.

814) 성석인(成石因) :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1414), 초명은 석연이었으나 국왕의 휘(諱)를 피하여 석인(石因)으로 개명하였다. 자는 자유(自由), 호(號)는 상곡(桑谷)이다. 1377년(우왕 3) 문과에 급제하여 고려에서 지평(持平)·경연강독관(經筵講讀官)을 역임하였다. 다시 조선왕조에서 강원도도관찰사·충청도도관찰사를 거쳐 경연관·사헌부대사헌·예문관대제학과 형조·호조·예조 등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예조판서로서 조정의 일을 의논 중에 졸도하여 순직하였다. 시호는 정평(

815) 피마(馬) : 다 자란 암말.

816) 행재소(行在所) : 임금이 궁을 떠나 멀리 나들이할 때 머물던 곳.

817) 부자불목(父子不睦) : 아버지와 아들이 화목하지 않다.

818) 군신지의(君臣之義) : 임금과 신하의 의.

819) 인륜지도(人倫之道) : 인륜의 도. 인륜이란 군신·부자·형제·부부 따위 상하 존비의 인간관계나 질서를 이른다.

820) 봉사 : 맹인을 이르는 말.

821) 무자(無子) :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음.

822) 옥새(玉璽) : 옥으로 만든 국새.

823) 요(堯)임금 : 중국 태고의 천자 '요'를 이르는 말로 중국 고대 전설상의 임금(?~?)이다. 성덕을 갖춘 이상적인 군주로 꼽히며, 역법을 정하고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던 순(舜)을 등용하였다.

824) 순(瞬)임금 : 중국 태고(太古)의 천자 '순(舜)'을 이르는 말로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이다. 성은 우(虞)·유우(有虞), 이름은 중화(重華)로 요의 뒤를 이어 천하를 잘 다스려 태평 시대를 이루었다.

825) 우(禹)님금 : 중국 하나라의 시조 우를 이르는 말로 중국 고대 전설상의 임금이다. 곤(鯀)의 아들로서 치수에 공적이 있어서 순(舜)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하(夏)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826) 부자유친(父子有親) : 오륜의 하나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리는 친애에 있음을 이른다.
827) 차일(遮日) :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치는 포장.
828) 백관(百官) : 모든 벼슬아치.
829) 건원릉(健元陵) : 조선 태조의 무덤으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으며, 동구릉의 하나이다.
830) 정종(定宗) : 조선 제2대 왕(1357~1419)으로 초명은 방과(芳果), 이름은 경(曔), 자는 광원(光遠)이다. 정종은 묘호이다. 관제의 일부를 개혁하고, 사병(私兵)을 삼군부(三軍府)에 편입하였으며, 저폐(楮幣)를 발행하여 경제 유통의 진흥을 꾀하였다. 재위 기간은 1398~1400년이다.
831) 골육상쟁(骨肉相爭) : 가까운 혈족끼리 서로 싸움.
832) 방간(芳幹) : 이방간, 즉 회안대군의 본명. 그는 조선 태조의 넷째 아들(?~1421)로 왕위 계승의 야심을 품고 동생 방원(芳遠)을 질시하던 중에, 박포의 거짓 밀고를 믿고 군사를 일으켜 방원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여 유배되었다.
833) 박포(朴苞) : 조선 전기의 무신(?~1400). 무인정사 때에 이방원을 도와 공을 세웠으나 공적에 대한 대가가 박하자 불만을 품어 불평하다가 유배되었다. 그 후 이방원에게 원한을 품고 이방간을 충동질하여 군사를 일으켰다가 그 죄로 처형되었다.
834) 정배(定配) : 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형벌.
835) 왕자난(王子亂) : 조선 초기에, 태조의 왕자들 사이에서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두 차례의 난. 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과 세자 방석(芳碩)과 방번(芳蕃)이 죽었고, 2차 왕자의 난으로 방간(芳幹)과 박포(朴苞)가 죽음을 당하였다.
836) 선위(禪位) : 양위(讓位), 임금의 자리를 물려줌.
837) 신문고(申聞鼓) : 조선시대에, 백성이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때 치게 하던 북으로 태종 때에 대궐의 문루(門樓)에 달았다.
838) 사학(四學) :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서울의 네 곳에 세운 교육 기관으로 위치에 따라 중학(中學)·동학(東學)·남학(南學)·서학(西學)이 있었는데, 태종 11년(1411)에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고종 31년(1894)에 폐하였다.
839) 개량(改良) : 나쁜 점을 보완하여 더 좋게 고침.
840) 헌릉(獻陵) : 조선 태종과 비 원경 왕후의 능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 있다.
841) 치화(治化) : 어진 정치로 백성을 다스려 인도함.
842) 대진(大振) : 크게 떨침.
843) 황희(黃喜) : 조선 시대의 명신(名臣)(1363~1452)으로 초명은 수로(壽老), 자는 구부(懼夫), 호는 방촌(厖村)이다. 세종 때에 18년간 영의정을 지내면서 농사법을 개량하고 예법(禮法)을 개정하는 등 문물제도의 정비에 힘썼으며, 어질고 깨끗한 관리의 표본이 되었다. 저서에 방촌집 이 있다.
844) 박팽년(朴彭年) : 조선 세종 때의 집현전 학자(1417~1456)로 자는 인수(仁叟), 호는 취금헌(醉琴軒)이다.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세조가 단종을 내쫓고 왕위를 빼앗자 상왕(上王)의 복위를 꾀하다 처형되었다.
845) 성삼문(成三問) : 조선 세종 때의 문신(1418~1456)으로 자는 근보(謹甫), 호는 매죽헌(梅竹軒)이다. 사육신(死六臣)의 한 사람으로, 세조 원년에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실패하여 처형되었다. 저서에 성근보집(成謹甫集) 이 있다.

846) 변계량(卞季良) : 고려 말기, 조선 전기의 학자(1369~1430)로 자는 거경(巨卿), 호는 춘정(春亭)이다. 고려 말 이색의 제자로서 전교, 주부(注簿) 등의 벼슬을 지냈고, 조선 시대에 들어와 권근의 뒤를 이어 20여 년간 대제학을 맡으면서 조선 전기 관인 문학의 규범을 마련하였다. 저서에 문집 춘정집(春亭集) 이 있다.

847) 맹사성(孟思誠) : 조선 전기의 재상(1360~1438)으로 자는 자명(自明), 호는 고불(古佛)·동포(東浦)이다. 세종 때에 우의정·좌의정을 지냈으며, 황희와 함께 조선 전기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였고, 성품이 청백·검소하기로 이름이 났다. 태종실록 을 편찬하였다.

848) 현상(賢相) : 현재상, 어진 재상.

849) 집현전(集賢殿) : 조선 전기에 둔, 경적(經籍)·전고(典故)·진강(進講)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이다.

850) 오례의(五禮儀) : 국제오례의, 조선시대에 세종의 명으로 허주(許稠) 등이 편찬에 착수하고, 세조 때 강희맹 등을 거쳐 신숙주, 정척 등이 완성한 예서.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흉례(凶禮)의 오례 가운데 실행하여야 할 것을 뽑아 도식(圖式)으로 엮었다. 성종 5년(1474)에 간행되었다. 8권 8책.

851) 효행록(孝行錄) : 고려 시대에 권부와 권준이 효자 62명에 대한 전기를 모아 엮은 책이다. 후에 권근이 주해와 발문을 달았으며, 조선 세종 10년(1428)에 설순 등이 개정하여 중간(重刊)하였다.

852) 정초(鄭招) : 조선 세종 때의 문신(?~1434)으로 자는 열지(悅之), 벼슬은 대제학에 이르렀다. 왕명으로 정인지 등과 함께 간의대를 만들었으며, 농사직설 , 회례문무악장 , 삼강행실도 의 편찬을 주재하였고 역법(曆法)을 개정하였다.

853) 농사집설(農事集設) : 농사직설(農事直說)을 이르는 것, 조선 세종 11년(1429)에 정초 등이 지은 농서이다. 각 도(道)의 관찰사가 경험 많은 농부들에게서 들은 농사에 관한 지식을 모아 엮었다. 오늘날 전하는 가장 오래된 농서이며, 우리말로 된 곡식 이름을 향찰과 이두로 적었다. 1책.

854) 정인지(鄭麟趾) :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학자(1396~1478)로 자는 백저(伯雎), 호는 학역재(學易齋),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대제학, 영의정을 지냈다. 대통력(大統曆)과 역법(曆法)을 개정하였으며 많은 책을 편찬하고, 고려사 를 찬수하였다. 훈민정음 창제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안지, 최항(崔恒) 등과 를 지었다. 저서에 자치통감훈의 , 치평요람 따위가 있다.

855) 치평요람(治平要覽) : 조선 세종 27년(1445)에 왕명에 따라 집현전 학사들이 만든 책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 가운데 정치인의 거울이 될 만한 사실을 뽑아 엮은 것이다. 150권 150책의 활자본.

856) 고려사(高麗史) : 조선 시대에, 세종의 명으로 정인지, 김종서 등이 편찬한, 고려조에 관한 기전체 역사책. 문종 원년(1451)에 완성되었다. 139권.

857) 신숙주(申叔舟) : 조선 세조 때의 문신(1417~1475)으로 자는 범옹(泛翁), 호는 보한재(保閑齋)·희현당(希賢堂)이다. 훈민정음 창제에 공을 세웠으며, 세조실록 의 편찬에 참여하고 동국통감 · 오례의 를 편찬하였다.

858) 최항(崔恒) : 조선 전기의 문신·학자(1409~1474)로 자는 정부(貞父), 호는 동량·태허정(太虛亭)이다. 영의정을 지냈다. 훈민정음 창제에 공을 세웠으며 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경국대전 , 동국통감 을 찬정(撰定)하였다. 저서에 태허정집(太虛亭集) , 관음현상기(觀音現相記) 따위가 있다.

859) 권제(權制) : 조선 태종·세종 때의 학자(1387~1445)로 초명은 도(蹈), 자는 중의(仲義)·중안(仲安), 호는 지재(止齋)이다. 대사헌·이조 판서·우찬성을 지내면서 동국연대(東國年代) , 고려사 의 수찬에 참여하였다. 정인지, 안지 등과 <용비어천가>를 지었으며, 저서에 지재집 , 역대세년

가(歷代世年歌) , 영가연괴집(永嘉連 魁集) 따위가 있다.

860)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조선 세종 29년(1447)에 정인지, 안지, 권제 등이 지은 악장의 하나이다.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으로, 조선을 세우기까지 목조·익조·도조·환조·태조·태종의 사적(事跡)을 중국 고사(古事)에 비유하여 그 공덕을 기리어 지은 노래이다. 각 사적의 기술에 앞서 우리말 노래를 먼저 싣고 그에 대한 한역시를 뒤에 붙였다. 125장. 10권 5책.

861) 삼강행실(三綱行實) :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조선시대에 설순 등이 왕명에 따라 펴낸 책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 부자(父子), 부부간에 모범이 될 충신, 효자, 열녀들을 각각 35명씩 뽑아 그 행적을 그림과 글로 칭송하였다. 세종 14년(1432)에 간행되었으며, 성종 12년(1481)에는 한글로 풀이한 언해본이 간행되었다. 3권 1책.

862) 박연(朴堧) : 조선 세종 때의 음악가(1378~1458)로 자는 탄부(坦夫). 호는 난계(蘭溪)이다. 우리나라 3대 악성(樂聖) 가운데 한 사람으로, 벼슬은 이조 판서, 대제학에 이르렀다. 악기를 개량하고 음계를 조정하였으며 향악을 버리고 아악을 사용하게 하는 등, 궁중 음악을 정비하여 우리나라 고유 음악의 토대를 튼튼히 하였다.

863) 장영실(蔣英實) : 조선 세종 때의 과학자(?~?)로 동래현(東萊縣)의 관노였으나 과학적 재능이 뛰어나 발탁되었다. 간의·혼천의 따위의 천체 관측기와, 앙부일영·흠경각의 옥루(玉漏)와 같은 시계 및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측우기와 수표(水標)를 만들어 과학 발전에 공헌하였다.

864) 측우기(測雨器) : 조선 세종 23년(1441)에 만든 세계 최초의 우량계로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도 설치하여 강수량을 측정하였다.

865) 이종무(李從茂) :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무신(1360~1425)이다. 1381년 강원도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고, 1397년 옹진 만호(萬戶)로 있을 때 왜구의 침입을 물리쳤으며, 1419년 전함 227척을 거느리고 쓰시마 섬(對馬島)을 정벌하였다.

866) 최윤덕(崔潤德) : 조선 초기의 무신(1376~1445)으로 자는 백수(伯脩)·여화(汝和), 호는 임곡(霖谷)이다. 병조 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지냈다. 세종 때 쓰시마(對馬) 섬을 정벌하고 여진족을 토벌하는 등 여러 싸움에서 공을 세웠다.

867) 체찰사(體察使) : 조선 시대에, 지방에 군란(軍亂)이 있을 때 임금을 대신하여 그곳에 가서 일반 군무를 맡아보던 임시 벼슬. 보통 재상이 겸임하였다.

868) 김종서(金宗瑞) : 조선 전기의 충신(1390~1453)으로 자는 국경(國卿), 호는 절재(節齋)이다. 태종 5년(1405)에 문과에 급제하고, 함길도 절제사를 거쳐 우의정을 지냈다. 육진(六鎭)을 개척하여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을 확정하였다. 고려사 의 개찬(改撰), 고려사절요 의 편찬을 총관하였다. 수양대군에 의하여 두 아들과 함께 격살(擊殺)되었다.

869) 복력(福力) : 복을 누리는 힘.

870) 영릉(英陵)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에 있는, 조선 세종과 그 비 소헌왕후의 능이다. 원래 경기도 광주에 있던 것을 예종 1년(1469)에 이곳으로 옮겼다.

871) 문종(文宗) : 조선 제5대 왕(1414~1452)으로 이름은 향(珦), 자는 휘지(輝之)이다. 세종의 아들로 20년간 세종을 도와 일하였으며 민의를 잘 파악하고 인재를 잘 등용하였으나 몸이 약해서 적극적으로 정치를 하지 못하였다. 재위 기간은 1450~1452년이다.

872) 환후(患候) : 웃어른의 병을 높여 이르는 말.

873) 상수(上壽) : 백 살이 넘는 나이. 또는 그런 노인.

874) 동궁(東宮) : '황태자'나 '왕세자'를 달리 이르던 말.
875) 고명(顧命) : 임금이 유언으로 세자나 종친, 신하 등에게 나라의 뒷일을 부탁함. 또는 그런 부탁.
876) 황보인(皇甫仁) : 조선 세종 때의 문신(?~1453)으로 자는 사겸(四兼)·춘경(春卿), 호는 지봉(芝蜂)이다. 1436년에 김종서와 함께 육진(六鎭)을 개척하였으며, 단종 1년(1453) 계유정난 때에 수양 대군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877) 정분(鄭苯) : 조선 세종·문종 때의 문신(?~1454)으로 자는 자외, 호는 애일당(愛日堂)이다. 문종의 고명대신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의정을 지냈으며, 계유정난으로 낙안(樂安)에 안치되었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878) 민신(閔伸) : 조선 초기의 문신(?~1453)으로 호는 둔암(遯菴)이다. 문종 때 이조 판서로 있다가, 단종 1년(1453) 계유정난 때 김종서의 일파라 하여 수양 대군에게 피살되었다.
879) 조극관(趙克寬) : 조선 전기의 문신(?~1453)으로 세종 31년(1449)에 함길도 관찰사로 야인(野人)의 침입을 막아 전공을 세웠으며,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재직할 때 함경도 일대의 성곽을 보수·신축하고 군사 훈련 제도의 강화를 건의하였다. 1453년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 일파에게 살해되었다.
880) 하위지(河緯地) : 조선 전기의 문신·학자(1412~1456), 자는 천장(天章)·중장(仲章), 호는 단계(丹溪)·연풍(延風)이다. 벼슬은 부제학·예조 판서에 이르렀다.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세조 2년(1456)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실패하여 처형당하였다. 역대병요 를 편찬하였으며, 화원악보 에 시조 2수가 전한다.
881) 이개(李塏) : 조선 전기의 문신(1417~1456)으로 자는 청보(淸甫)·백고(伯高), 호는 백옥헌(白玉軒)이다. 직제학을 지냈으며, 시문이 청절(淸節)하고 글씨를 잘 썼다.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세조 2년(1456)에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882) 유성원(柳誠源) : 조선 전기의 문장가(?~1456)로 자는 태초(太初), 호는 낭간(琅玕)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집현전 학자로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1456년 성삼문 등과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탄로가 나자 자살하였다. 시조 한 수가 가곡원류 에 전한다.
883) 김시습(金時習) : 조선 전기의 학자(1435~1493)로 자는 열경(悅卿), 호는 매월당(梅月堂)·동봉(東峯)이다.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승려가 되어 방랑생활을 하며 절개를 지켰다. 유·불(儒佛) 정신을 아울러 포섭한 사상과 탁월한 문장으로 일세를 풍미하였다.
884) 유응부(兪應孚) : 조선 초기의 장군(?~1456)으로 자는 신지(信之)·선장(善長), 호는 벽량(碧梁)이다.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유학(儒學)에 조예가 깊었으며, 숙종 때 병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시조 3수가 전한다.
885) 주공(周公) : 중국 주나라의 정치가(?~?)로 문왕의 아들로 성은 희(姬), 이름은 단(旦)이다. 형인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하였고, 주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 예악제도(禮樂制度)를 정비하였으며, 주례(周禮) 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886) 단종(端宗) : 조선 제6대 왕(1441~1457)으로 12세에 왕위에 올랐으나, 숙부인 수양 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겨 강원도 영월에 유배되었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죽은 지 241년 뒤인 숙종 24년(1698)에 왕위를 추복(追復)하여 묘호를 단종이라고 하였다. 재위 기간은 1452~1455년이다.
887) 어사주(御賜酒) : 임금이 아랫사람에게 내린 술.
888) 여상고비(如喪考妃) : 부모를 잃은 것같다.

889) 육경(六經) : 중국 춘추 시대의 여섯 가지 경서(經書). 역경 , 서경 , 시경 , 춘추 , 예기 , 악기 를 이르는데 악기 대신 주례 를 넣기도 한다.

890) 현덕왕후(顯德王后) : 조선 단종의 어머니(1418~1441)로 성은 권(權)이다. 세종 13년(1431)에 세자궁에 궁녀로 들어가 승휘(承徽)에 봉하여졌으며, 세종 19년(1437)에 세자빈에 책봉되었으나 가례(嘉禮)를 행하지 못하고 죽었다.

891) 혈혈단신(孑孑單身) :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홀몸.

892) 안평대군(安平大君) : 조선 세종의 셋째 아들(1418~1453)로 이름은 용(瑢), 자는 청지(淸之), 호는 비해당(匪懈堂)·매죽헌(梅竹軒)이다. 수양 대군의 세력과 맞서다가 계유정난 때 사사(賜死)되었다. 시문과 글씨에 뛰어났다

893) 임영대군(臨瀛大君) : 조선시대 초기의 왕족, 정치인으로, 조선의 제4대 왕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넷째 아들이다. 이름은 구(璆)이며 자는 헌지(獻之)이다. 둘째 형인 수양대군처럼 무술에 능하였으나 궁녀와 대궐의 하녀들과의 성추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계유정난 이후 둘째 형인 수양대군을 지지하여 그를 도왔다.

894) 금성대군(錦城大君) : 조선 세종의 여섯째 아들(1426~1457)로 이름은 유(瑜)이다.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되어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어 사사(賜死)되었다.

895) 수양대군(首陽大君) : 조선 세조의 즉위하기 전의 군호이다. 세조는 조선 제7대 왕(1417~1468)으로 휘는 유, 자는 수지(粹之), 군호는 수양 대군이다. 국방, 외교, 토지 제도 및 관제의 개혁과 개편 따위에 업적을 남겼으며 국조보감 , 경국대전》 등의 서적을 편찬하였다. 저서에 석보상절 이 있다. 재위 기간은 1455~1468년이다.

896) 한명회(韓明澮) : 조선 세조 때의 문신(1415~1487)으로 자는 자준(子濬), 호는 압구정(狎鷗亭)·사우당(四友堂)이다. 수양대군을 도와 김종서를 비롯한 여러 대신을 차례로 죽이고 단종을 몰아내는 데 공을 세워 좌익 공신 1등이 되었으며, 뒤에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을 좌절시키고 그들을 주살하도록 하였다.

897) 권남(權擥) : 조선 세조 때의 공신(1416~1465)으로 자는 정경(正卿), 호는 소한당(所閑堂)이다. 이조 참판, 우의정 등을 지냈다. 수양 대군의 참모가 되어 김종서 등을 제거하는 데 공을 세웠다. 저서에 소한당집 이 있다.

898) 한확(韓確) : 조선 전기의 문신(1403~1456)으로 자는 자유(子柔), 호는 간이재(簡易齋)이다. 누이가 명나라 성조(成祖)의 비로 뽑혀 명나라로부터 광록시 소경(少卿)의 벼슬을 받았으며, 계유정난 때 수양 대군을 도와 정난공신이 되었다.

899) 생살부(生殺簿) : 살리고 죽일 사람의 이름을 적어둔 명부.

900) 진살(盡殺) : 모두 다 죽임.

901) 양정(楊汀) : 조선 세조 때의 무신(?~1466)으로 한명회의 추천으로 수양대군 휘하에 들어가 김종서, 황보인 등의 제거에 가담하였다. 공조 판서, 평안도 도절제사 등을 지내고, 뒤에 세조의 선위를 건의하다 처형되었다.

902) 역사(力士) : 뛰어나게 힘이 센 사람.

903) 역률(逆律) : 역적을 처벌하는 법률.

904) 백홍(白虹) : 빛깔이 흰 무지개.

905) 관일(貫日) : 해를 뚫고 지나간다. 백홍관일(白虹貫日)이란 흰 무지개가 태양을 뚫고 지나간다는

뜻으로, 임금의 신상에 해로움이 가하여짐을 이르는 말이다.
906) 내구(內舅) : 외숙을 이르는 말.
907) 처자동순(妻子同殉) : 부인과 자식도 함께 따라 죽다.
908) 외구(外舅) : 장인을 이르는 말.
909) 정종(鄭悰) : 조선 전기의 문신(?~1461)으로 문종의 딸 경혜(敬惠) 공주와 결혼하여 영양위(寧陽尉)가 되었으나, 중 성탄(性坦) 등과 모반을 꾀하였다고 하여 능지처참을 당하였다.
910) 민신(閔伸) : 조선 초기의 문신(?~1453)으로 호는 둔암(遯菴)이다. 문종 때 이조 판서로 있다가, 단종 1년(1453) 계유정난 때 김종서의 일파라 하여 수양대군에게 피살되었다.
911) 조극관(趙克寬) : 조선 전기의 문신(?~1453)으로 세종 31년(1449)에 함길도 관찰사로 야인(野人)의 침입을 막아 전공을 세웠으며,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재직할 때 함경도 일대의 성곽을 보수·신축하고 군사 훈련 제도의 강화를 건의하였다. 1453년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 일파에게 살해되었다.
912) 김문기(金文起) : 조선 전기의 문신(1399~1456)으로 자는 여공(汝恭), 호는 백촌(白村)이다. 함길도 관찰사, 공조 판서를 지냈다. 세조 2년(1456)에 단종 복위 모의에 가담하였다가 사육신과 함께 살해되었다.
913) 봉석주(奉石柱) : 조선전기의 무신이자 군인, 정치인(? - 1465)이며 계유정난과 세조 찬위에 공을 세운 공신이었다. 사육신 중 한사람인 박팽년의 형수 해평 윤씨를 노비로 삼았다가 곧 첩으로 삼았다.
914) 이양(李穰) : 조선 세종 때의 문신(?~1453)이다. 왕척(王戚)으로 공조 참판, 판중추원사, 우찬성을 지냈으며, 계유정난 때에 피살되었다.
915)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916) 역모(逆謀) : 반역을 꾀함.
917) 장계(狀啓) :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 또는 그런 문서.
918) 정난(靖難) : 나라가 처한 병란이나 위태로운 재난을 평정함.
919) 윤허(允許) : 임금이 신하의 청을 허락함.
920) 군국대권(軍國大權) : 군과 나라의 큰 권한.
921) 손위(遜位) : 임금의 자리를 내어 놓음.
922) 청령포(淸泠浦) : 강원도 영월의 단종의 유배지로 서쪽은 육육봉의 험준한 암벽이 솟아 있고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섬과 같이 형성된 곳으로 한양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겼다고 전하는 노산대, 망향탑 돌무더기 등 슬픈 역사가 남아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천연기념물인 '관음송'을 비롯하여 단종의 어가 주변에 조성된 크고 오래된 소나무림이 서강과 어우러져 자연 경관이 뛰어난 명승지이다.
923) 위리안치(圍籬安置) : 죄인이 귀양지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어 두던 일.
924) 노산군(魯山君) : 조선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격하되었을 때에 붙여진 칭호.
925) 양녕대군(讓寧大君) : 조선 태종의 장남(1394~1462)으로 이름은 제(禔), 자는 후백(厚伯)이다. 세종의 맏형으로 태종 18년(1418)에 세자로서의 실덕(失德)이 많아 궁중에서 쫓겨나 전국을 유랑하며 풍류로 일생을 마쳤다.

926) 양광(佯狂) : 거짓으로 미친체 함, 또는 그런 행동.
927) 간흉지변(奸凶之変) : 간사하고 흉악한 변.
928) 직신(直臣) : 육정신의 하나. 강직한 신하를 이른다.
929) 논척(論斥) : 옳고 그름을 따져 물리침.
930) 기죄(其罪) : 그 죄.
931) 삭탈관직(削奪官職) : 죄를 지은 자의 벼슬과 품계를 빼앗고 벼슬아치의 명부에서 그 이름을 지우던 일.
932) 금부(禁府) : 의금부.
933) 성승(成勝) : 조선 단종 때의 무신(?~1456)으로 호는 적곡(赤谷)이다. 도총관(都摠管)을 지냈으며,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934) 김질(金礩) : 조선 전기의 문신(1422~1478)으로 자는 가안(可安), 호는 쌍곡(雙谷)이다. 성삼문 등과 단종의 복위를 꾀하였으나, 동지를 배반하고 그 사실을 임금께 고함으로써 사육신 사건을 일으켰다. 그 뒤 우의정, 좌의정을 지냈다.
935) 선위(禪位) : 양위.
936) 수사(水死) : 물에 빠져 죽음.
937) 칭신(稱臣) : 신하라 칭하다.
938) 담금 : 담금질. 고온으로 열처리한 금속 재료를 물이나 기름 속에 담가 식히는 일을 말한다.
939) 자부(子婦) : 며느리.
940) 충비(忠婢) : 충실히 주인을 섬기는 계집종.
941) 화형(火刑) : 사람을 불살라 죽이는 형벌.
942) 항언(抗言) : 맞서 말함.
943) 영릉(英陵) : 세종대왕을 이르는 말.
944) 화저(火箸) : 부젓가락, 화로에 꽂아 두고 불덩이를 집거나 불을 헤치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젓가락을 이른다.
945) 절명시(絶命詩) : 목숨이 끊어질 때에 지은 시.
946) 격고최인명(擊鼓催人命) : 처형장의 북소리는 사람의 생명을 재촉하고,
947) 서풍일욕사(西風日欲斜) : 서풍이 부니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948) 황혼무객점(黃昏無客店) : 황천으로 가는 길에 주막조차 없다는데,
949) 금야숙수가(今夜宿誰家) : 오늘 밤엔 누구의 집에서 자고 갈가나.
950) 앙천통곡(仰天痛哭) : 하늘을 쳐다보며 몹시 울.
951) 지성(至誠) : 지극한 정성.
952) 앙천대소(仰天大笑) :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거나 어이가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웃음.
953) 사속(斯速) : 아주 빠르다.
954) 우정중시생역대(禹鼎重時生亦大) : 태평성대야 삶 그것이 귀중하다.
955) 홍모경처사유경(鴻毛輕處死猶輕) : 어지러운 세상에야 죽음 또한 영광일세.
956) 종제(從弟) : 사촌 아우.
957) 서생(書生) :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

958) 숙종(肅宗) : 조선 제19대 왕(1661~ 1720)으로 이름은 순(焞), 자는 명보(明普)이다.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고,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워 국경을 확대하였다. 재위 기간은 1674~1720년이다.
959) 노량진(鷺梁津) : 서울의 한강 이남에 있는 상업 지역이다. 예전에는 교통의 요지로, 배를 두어 행인을 오고 가게 하였다. 현재는 동작구에 속한다. 사육신묘와 사충(四忠) 서원 등의 명승지가 있다.
960) 신원(伸寃) :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림.
961) 성인취의(成仁取義) : 인을 이루고, 의를 취하다.
962) 사육신(死六臣) : 조선 세조 2년(1456)에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된 여섯 명의 충신. 이개, 하위지, 유성원, 성삼문, 유응부, 박팽년(朴彭年)을 이른다.
963) 장백(壯魄) : 장한 혼백.
964) 생육신(生六臣) : 조선 시대에,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자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여섯 신하, 이맹전, 조여, 원호, 김시습, 성담수, 남효온 또는 권절을 이른다.
965) 조여(趙旅) : 조선 단종 때 생육신의 한 사람(1420~1489)으로 자는 주옹(主翁), 호는 어계은자(漁溪隱者)이다. 1453년에 진사가 되었으나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벼슬을 버리고 낚시와 독서로 여생을 보냈다.
966) 남효온(南孝溫) : 조선시대의 생육신(1454~1492)으로 자는 백공(伯恭), 호는 최락당(最樂堂)·추강(秋江)이다. 김종직의 문인으로, 세조에 의하여 물가에 이장된 단종의 생모 현덕 왕후의 소릉(昭陵)의 복위를 상소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실의에 빠져 각지를 유랑하다 병사하였다. 저서에 추강냉화(秋江冷話) , 사우록(師友錄) 따위가 있다
967) 이맹전(李孟專) : 조선 세조 때 생육신의 한 사람(1392~1480)으로 자는 백순(伯純), 호는 경은(耕隱)이다. 거창 현감 시절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으며, 세조가 즉위하자 눈멀고 귀먹었다는 핑계를 대고 고향인 선산에서 두문불출하였다.
968) 성담수(成聃壽) : 조선 세조 때 생육신의 한 사람(?~1456)으로 자는 미수(眉叟), 호는 인재(仁齋)이다. 단종 복위 사건에 연루되어 김해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났으나, 그 뒤에 벼슬을 단념하고 고향에 은거하였다.
969) 원호(元昊) : 조선 초기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으로 자는 자허(子虛), 호는 관란(觀瀾)이다. 단종 즉위 후, 수양 대군의 세력이 강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은거했다.
970) 조여(趙旅) : 조선 단종 때 생육신의 한 사람(1420~1489)으로 자는 주옹(主翁), 호는 어계은자(漁溪隱者)이다. 1453년에 진사가 되었으나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벼슬을 버리고 낚시와 독서로 여생을 보냈다.
971) 연산주(燕山主) : 연산군을 이르는 말.
972) 화급천양(禍及天壤) : 화가 저승에 미침.
973) 작고(作故) : 고인이 되었다는 뜻으로, 사람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974) 복상(服喪) : 상중에 상복을 입음.
975) 시호(諡號) : 제왕이나 재상, 유현(儒賢) 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붙인 이름.
976) 증직(贈職) : 죽은 뒤에 품계와 벼슬을 추증하던 일을 이른다. 종이품 벼슬아치의 부친, 조부, 증조부나 충신, 효자 및 학행(學行)이 높은 사람에게 내려 주었다.
977) 양농(佯聾) : 거짓으로 귀머거리인체하다.
978) 양맹(佯盲) : 거짓으로 맹인인체하다.

979) 신말주(申末舟) : 조선전기의 문신(1439~?)으로 1451년(문종 1) 생원에 올라 이어 1454년(단종 2) 16세 때 문과에 급제하였다. 내외 관직을 역임하고 사간원대사간에 이르렀으나, 세조에 의해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나자 관직을 버리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980) 조상치(曺尙治) :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경(子景), 호는 단고(丹皐)·정재(靜齋)이다. 세종·문종·단종의 세 임금을 섬겼으며, 집현전 부제학을 지냈다. 세조 즉위 후 사퇴하고 은거하였으며, 자신의 묘비를 미리 써서 세조의 신하가 아님을 밝히고 죽었다.
981) 월백야촉혼추(月白夜蜀魂啾) : 달 밝은 밤에 두견새 울면,
982) 함수정의루두(含愁情依樓頭) : 시름 못 잊어 누 머리에 기대어라.
983) 이제비아문고(爾啼悲我聞苦) : 네 울음 슬프니 내 듣기 괴롭구나.
984) 이무성무아수(爾無聲無我愁) : 네 소리 없었던들 내 시름없을 것을,
985) 기어세상고로인(寄語世上苦勞人) : 세상에 근심 많은 이들에게 일으노니,
986) 신막등춘삼월(愼莫登春三月), 자규재명월루(子規啼明月樓) : 춘삼월 두견새 울 때 명월루에 오르지 말라.
987) 자규제자규제(子規啼子規啼) : 밤 새워 우는 두견 무엇이 서러울까
988) 야월공산하소소(夜月空山何所訴) : 바라보며 갈 수 없는 너의 맘을 하소연하는 구나
989) 불여귀불여귀(不如歸不如歸) : 돌아가지 못하네, 돌아가지 못하네
990) 망제파잠비욕도(望裏巴岑飛欲度) : 다른 새는 둥지 있어 돌아가거늘
991) 간타중조총안소(看他衆鳥摠眼巢) : 너는 어찌 홀로 남아 피를 뿌리나
992) 독향화지혈만토(獨向花枝血忼吐) : 짝 잃은 너의 모습 처량하지만
993) 형단영고모초취(形單影孤貌憔悴) : 누구라서 외론 신세 생각해주리
994) 불초숭수이고(不肖崇誰爾顧) : 세상에 슬픈 원한 너 뿐이겠니
995) 북향사배(北向四拜) : 북쪽을 향해 네 번 절하다.
996) 금성대군(錦城大君) : 조선 세종의 여섯째 아들(1426~1457)로 이름은 유(瑜)이다.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되어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어 사사(賜死)되었다.
997) 무이구곡(武夷九曲) : 주자가 지금의 중국 복건성 무이산 계곡의 아홉 구비를 노래한 작품.
998) 왕방연(王邦衍) : 조선 전기의 문신·시인(?~?)으로 단종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될 때에 호송하였는데 그때의 심정을 읊은 시조 한 수가 전한다.
999) 장탄식(長歎息) : 긴 한숨을 지으며 깊이 탄식하는 일.
1000) 자진(自盡) : 자살.
1001) 멸삼족(滅三族) : 삼대(三代)를 멸하게 하다.
1002) 호장(戶長) : 고을 구실아치의 우두머리.
1003) 엄흥도(嚴興道) : 조선 전기의 지사(?~?).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러 주었다.
1004) 염습(殮襲) :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긴 뒤에 옷을 입히고 염포로 묶는 일.
1005) 아전(衙前) : 조선 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 속한 구실아치로 중앙 관서의 아전을 경아전(京衙前), 지방 관서의 아전을 외아전(外衙前)이라고 하였다.
1006) 장릉(莊陵)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조선 단종의 능. 사적 제196호이다.
1007) 추존(推尊) : 높이 받들어 존경함.
1008) 향수(享壽) : 오래사는 복을 누림.

1009) 지절(志節) : 지조와 절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
1010) 골육상쟁(骨肉相爭) : 가까운 혈족끼리 서로 싸움.
1011) 혈심(血心) :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1012) 이시애(李施愛) : 조선 세조 때의 무신(?~1467)으로 회령 부사(會寧府使)를 지냈으며 세조 13년(1467)에 북방민의 등용을 억제하고 지방관을 중앙에서 파견하자 이에 불만을 품어 함흥을 점거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1013) 조석문(曺錫文) : 조선 전기의 문신(1413~1477)으로 자는 순보(順甫)이다.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우고 1467년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였다.
1014)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 시대에, 통치의 기준이 된 최고의 법전으로 고려 말부터 조선 성종 초년까지 100년간에 반포된 법령, 교지(敎旨), 조례(條例) 및 관례 등을 망라한 것이다. 세조 때 최항(崔恒), 노사신(盧思愼), 강희맹(姜希孟) 등이 집필을 시작하여 성종 7년(1476)에 완성하고, 16년(1485)에 간행하였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보완되었으나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 왕조 말기까지 계속 적용되었다. 6권 3책의 활자본(活字本).
1015) 국조보감(國朝寶鑑) : 조선 역대 임금의 치적(治績)에서 모범이 될 만한 일을 실록에 의하여 엮은 편년체의 역사책으로 세조 3년(1457)에 수찬청(修撰廳)을 설치하여 이듬해에 신숙주·권남 등이 태조·태종·세종·문종 4대의 보감(寶鑑)을 완성하였고, 편찬을 계속하여 고종 때에 완성하였다. 90권 26책.
1016) 동국통감(東國通鑑) : 조선 성종 15년(1484)에 왕명에 따라 서거정, 정효항(鄭孝恒) 등이 편찬한 역사책이다. 중국 사마광의 자치통감 을 참고하였으며, 신라 시조 박혁거세로부터 고구려, 백제를 거쳐 고려 공양왕에 이르기까지 1,400년 동안의 사실을 기록하였다. 단군·기자·위만의 고삼선(古三鮮) 및 한사군·이부(二府)·삼한(三韓) 등에 대한 내용을 외기(外記)로 하여 책머리에 수록하였다. 56권 28책.
1017) 광릉(光陵)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 있는 조선 세조와 정희 왕후의 능. 부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크낙새가 살고 있다. 사적 제197호.
1018) 덕종(德宗) : 조선 세조의 세자(1438~1457)로 이름은 장(暲), 자는 원명(原明)이다. 세자로 책봉되었으나 즉위 전 20세에 죽었다.
1019) 예종(睿宗) : 조선의 제8대 왕(1450~1469)으로 휘는 황(晄), 자는 명조(明照)이다. 직전 수조법(職田收租法)을 제정하여 둔전의 민경(民耕)을 허락하였고 경국대전 의 편찬을 완성하였다. 재위 기간은 1468~1469년이다.
1020) 요수(夭壽) : 요절(夭折).
1021) 정희왕후(貞熹王后) : 조선 세조의 비(妃)(1418~1483)로 성은 윤(尹)이다. 예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수렴청정을 하였으며, 성종이 즉위한 후에도 7년간이나 섭정하였다.
1022) 성종대왕(成宗大王) : 조선의 제9대 왕(1457~1494)으로 이름은 혈(娎)이다.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을 추진하고 사림파를 등용하였다. 조선 전기의 문물 제도를 거의 완성하였으며, 경국대전 을 반포하였다. 재위 기간은 1469~1494년이다.
1023) 부원군(府院君) : 조선시대에 왕비의 친아버지나 정일품 공신에게 주던 작호.
1024) 호당(湖堂) : 독서당. 독서당은 조선시대에, 젊은 문관 가운데 뛰어난 사람을 뽑아 휴가를 주어 오로지 학업만을 닦게 하던 서재를 이른다. 국가의 중요한 인재를 길러 내기 위하여 성종 22년(1491)

에 시행하였다가 정조 때 없앴다.
1025) 사가독서(賜暇讀書) : 조선 시대에, 유능한 젊은 문신들을 뽑아 휴가를 주어 독서당에서 공부하게 하던 일로 세종 8년(1426)에 시작하여 세조 때 없앴다가 성종 24년(1493)에 다시 실시하였다.
1026) 존경각(尊經閣) : 조선 시대에 둔, 도서를 보관하던 전각(殿閣)이다. 성종 6년(1475)에 성균관 안에 지었는데, 중종 9년(1514)에 불에 타 인조 4년(1626)에 다시 지었다.
1027) 삼국사(三國史)의 절요(節要) :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 조선 세조 때에 착수하여 성종 7년(1476)에 노사신, 서거정, 이파 등이 완성한 삼국의 역사책으로 (立國)한 순서에 따라 기원전 57년에서 신라 경순왕 9년(935)까지 신라, 고구려, 백제의 사적(史跡)을 편년체로 적었다. 14권 7책.
1028) 여지승람(與地勝覽)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조선 성종의 명(命)에 따라 노사신 등이 편찬한 우리나라의 지리서로 대명일통지 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각 도의 지리·풍속과 그 밖의 사항을 기록하였다. 특히 누정(樓亭), 불우(佛宇), 고적(古跡), 제영(題詠) 따위의 조(條)에는 역대 명가(名家)의 시와 기문도 풍부하게 실려 있다. 55권 25책의 활자본.
1029) 윤필상(尹弼商) : 조선 중기의 문신(1427~1504)으로 자는 양좌(陽佐)이다. 이시애의 난이 평정되자 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중국 명나라 건주위 야인(野人)들의 정세를 탐지·보고하여 성종 10년(1479) 우의정으로서 이를 토벌하였다. 뒤에 영의정에 올랐고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갑자사화 때 연산군 생모의 폐위를 막지 못하였다 하여 진도에 유배되어 사약을 받았다
1030) 정토(征討) : 정벌.
1031) 태평연(太平宴) : 전쟁에서 이긴 뒤에 베푸는 잔치.
1032) 시화연풍(時和年豐) : 나라가 태평하고 풍년이 듦.
1033) 선릉(宣陵) : 조선 성종과 계비 정현(貞顯) 왕후의 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다.
1034) 지모(智謀) : 슬기로운 꾀.
1035) 장력(壯力) : 씩씩하고 굳센 힘.
1036) 남아이십미평국(男兒二十未平國), 후세수칭대장부(後世誰稱大丈夫) : 남자 나이 이십에 나라를 평정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하랴, 남이장군의 북정가(北征歌)의 일부이다.
1037) 국문(鞫問) : 국청(鞫廳)에서 형장(刑杖)을 가하여 중죄인(重罪人)을 신문하던 일로 임금의 명령이 필요하였다.
1038) 강순(康純) : 조선 시대의 무신(?~1468)으로 자는 태초(太初)이다. 음보(蔭補)로 무관에 등용되어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고 영의정에 올랐으나, 유자광의 모함으로 처형되었다.
1039) 채청사(採靑使) : 조선 연산군 때에,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려고 전국에 보낸 벼슬아치.
1040) 채홍사(採紅使) : 조선 연산군 때에, 창기 중에서 고운 계집을 뽑으려고 전국에 보내던 벼슬아치.
1041) 양마(良馬) : 좋은 말.
1042) 수렵장(狩獵場) : 사냥터.
1043) 예사(例事) : 보통 있는 일.
1044) 월산대군(月山大君) : 조선 성종의 형(1454~1488)으로 휘는 정(婷), 자는 자미(子美), 호는 풍월정(風月亭)이다. 문장이 뛰어나 그의 시작(詩作)이 중국에까지 애송되었다. 작품집에 풍월정집 따위가 있다.
1045) 백모(伯母) : 큰 어머니.

1046) 강간(强姦) :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녀자를 간음함.
1047) 가희(佳姬) : 젊고 아리따운 여자.
1048) 이극돈(李克墩) : 조선 전기의 문신(1435~1503)으로 자는 사고(士高)이다. 성종 2년(1471) 좌리공신(佐理功臣)으로 광원군(廣原君)에 봉해졌고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다. 연산군 때 유자광을 시켜 김일손 등을 탄핵하여 무오사화를 일으켰다.
1049) 유자광(柳子光) : 조선 연산군 때의 간신(?~1512)으로 자는 우복(于復)이다. 서자 출신으로, 옥사를 일으켜 익대 공신 1등 무령군(武靈君)에 봉해졌으며, 김종직·김일손 등을 모함하여 무오사화를 일으켰다.
1050) 조의제문(弔意祭文) : 조선 성종 때 김종직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빗대어 지은 글로 항우가 초나라 회왕인 의제를 죽인 고사를 비유한 것인데, 무오사화의 빌미가 되었다.
1051) 김일손(金馹孫) : 조선 전기의 학자이자 문인(1464~1498)으로 자는 계운(季雲), 호는 탁영(濯纓)·소미산인(少微山人)이다. 성종 17년(1486)에 문과에 급제하고, 이조 정랑을 지냈다. 춘추관 사관(史官)으로 있으면서 성종실록 을 편찬할 때에, 이극돈의 비행(非行)을 그대로 쓰고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었다고 하여 무오사화 때에 처형되었다.
1052) 행장(行狀) : 죽은 사람이 평생 살아온 일을 적은 글.
1053) 부관참시(剖棺斬屍) : 죽은 뒤에 큰 죄가 드러난 사람을 극형에 처하던 일로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었다.
1054) 권오복(權五福) : 조선 성종 때의 학자(1467~1498)로 자는 향지(嚮之), 호는 수헌(睡軒)이다. 문장과 필법이 뛰어났다. 무오사화 때 김종직의 문인(門人)이라 하여 처형되었다. 저서에 수헌집 이 있다.
1055) 김굉필(金宏弼) :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1454~1504)로 자는 대유(大猷), 호는 한훤당(寒暄堂)·사옹(蓑翁)이다. 김종직의 문인으로, 형조(刑曹) 좌랑(佐郞)을 지냈고 무오사화 때 유배되었다가 갑자사화 때 사사(賜死)되었다. 저서에 한훤당집 , 경현록(景賢錄) 등이 있다.
1056) 정여창(鄭汝昌) : 조선 성종 때의 문신·학자(1450~1504)로 자는 백욱(伯勗), 호는 일두(一蠹),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성리학의 대가로 경사(經史)에 통달하였다. 무오사화에 관계되어 귀양 가서 죽었다. 정구(鄭逑)의 문헌공실기(文獻公實記) 에 그 유집(遺集)이 전한다.
1057) 연좌(緣坐) : 부자(父子), 형제(兄弟), 숙질(叔姪)의 죄로 무고하게 처벌을 당하는 일.
1058) 정표(旌表) :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어 널리 알림.
1059) 승안(承顔) : 웃어른을 만나 뵘, 또는 돌아가신 집안 어른의 생시 얼굴을 뵈었던 일.
1060) 정문(旌門) : 충신, 효자, 열녀 들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1061) 단지(斷指) : 손가락을 자르다.
1062) 여막(廬幕) : 궤연(几筵) 옆이나 무덤 가까이에 지어 놓고 상제가 거처하는 초막.
1063) 향합(香盒) : 제사 때 피우는 향을 담는 합으로 사기, 놋쇠, 나무 따위로 동글납작하게 만드는데 위아래 짝으로 되어 있다.
1064) 무오사화(戊午士禍) : 조선 연산군 4년(1498)에 유자광 중심의 훈구파가 김종직 중심의 사림파에 대해서 일으킨 사화이다. 4대 사화 가운데 첫 번째 사화로, 성종실록 에 실린 사초 <조의제문>을 트집 잡아 이미 죽은 김종직의 관을 파헤쳐 그 목을 베고, 김일손을 비롯한 많은 선비들을 죽이고 귀양 보냈다.

1065) 계비(繼妃) : 임금이 다시 장가를 가서 맞은 아내.
1066) 상감(上監) : 임금의 높임말.
1067) 폐비(廢妃) :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 또는 그렇게 된 왕비.
1068) 금삼(錦衫) : 비단으로 만든 적삼.
1069) 포학(暴虐) : 몹시 잔인하고 난폭함.
1070) 선왕구신(先王舊臣) : 선대 왕과 옛 신하.
1071) 갑자사화(甲子士禍) : 조선 연산군 10년(1504)에 폐비 윤씨와 관련하여 많은 선비들이 죽음을 당한 사건을 이른다. 연산군의 생모 윤 씨가 폐위되어 사약을 받고 죽은 일에 관계한 신하들과 윤 씨의 복위를 반대한 사람들이 임금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화를 입었다.
1072) 환관(宦官) : 내시.
1073) 직간(直諫) : 곧 바른 말로 간함. 맞대하여 간함. 직대하여 잘못을 간함.
1074) 연산주(燕山主) : 조선(朝鮮) 열째 임금. 이름은 융(隆). 성종(成宗)의 맏아들. 많은 신진 사류를 죽이는 무오사화를 일으키고 생모 윤씨의 폐비에 찬성했던 윤필상 등 수십명을 살해하였다. 또한 경연을 없애고 사간원을 폐지하는 등 비정(秕政)이 극에 달하여 결국 중종반정에 의해 폐왕이 되었다.
1075) 김처선(金處善) : 본관은 전의(全義). 세종부터 연산군에 이르기까지 일곱 임금을 시종하였다. 문종 때 영해로 유배되었다가 단종 때 귀양이 풀리고 직첩이 되돌려졌으나, 1455년(단종 3) 정변에 관련되어 삭탈관직당하고 유배되어 본향의 관노가 되었다. 세조 때 다시 복직되어 1460년(세조 6) 원종공신(原從功臣) 3등에 추록되었으나, 다시 세조로부터 시종이 근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 자주 장형(杖刑)을 당하였다. 성종으로부터는 전어(傳語
1076) 유혈(流血) : 다쳐서 흘리는 피.
1077) 낭자(狼藉) :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러움.
1078) 치죄(治罪) : 허물을 다스려 벌(罰)을 줌.
1079) 원통(寃痛) : ①분하고 억울(抑鬱)함 ②몹시 원망(怨望)스러움 ③애석(哀惜)하고 아까움.
1080) 음탕(淫蕩) : 행동(行動)이 음란(淫亂)하고 방탕(放蕩)함.
1081) 사직(社稷) : 토지신(土地神)과 곡식신(穀食神)이라는 뜻으로서, 옛날에 임금이 국가(國家)의 무사 안녕(安寧)을 기원(祈願)하기 위(爲)하여 사직단(社稷壇)에서 토지(土地)의 신과 곡식(穀食)의 신에게 제사(祭祀)를 지냈으므로 ' 사직(社稷) ' 은 ' 국가(國家)의 기반(基盤) ' , 또는 ' 국가(國家) ' 라는 뜻으로 변(變)했음.
1082) 성희안(成希顔) : 조선(朝鮮) 시대(時代) 11대 중종(中宗) 때의 공신(功臣). 자는 우옹(愚翁), 호는 인재(仁齋). 본은 창녕(昌寧). 연산주(燕山主) 10(1504)년에 이조참판(吏曹參判)이 되었으나, 시를 지어 임금의 횡포(橫暴)를 풍간(諷諫)하다가 좌천, 뒤에 박 원종(朴元宗)·유 순정(柳順汀) 등(等)과 함께 연산주(燕山主)를 폐(廢)하고 중종(中宗)을 임금으로 추대(推戴), 그 공으로 창산 부원군(昌山府院君)에 봉함을 받고 영의정(領議政)이 됨. 시호(諡號
1083) 유순정(柳順汀) : 조선 전기의 문신. 1506년(중종 1) 중종반정에 공을 세우고 정국공신 1등에, 이과의 옥사를 다스려 정난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1509년 좌의정에 오르고 삼포왜란이 일어나자 직접 경상도도원수로 출정하여 난을 평정했다.
1084) 박원종(朴元宗) : 조선 전기의 무신. 선전내승(宣傳內乘), 동부승지, 중추부지사(中樞府知事) 등을 지냈다. 중종 옹립의 반정(反正)의 주도적 역할을 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1085) 혁명(革命) : 천명(天命)이 바뀌다라는 뜻으로, ①기존 헌법(憲法)의 범위(範圍)를 벗어나서 국가(國家)의 기초(基礎), 사회(社會)의 제도(制度), 경제(經濟)의 조직(組織) 등을 급격(急激)하게 근본적(根本的)으로 고치는 일 ②어떤 사회적(社會的) 분야(分野)에서, 기존의 관습(慣習)·양식(樣式)·이념(理念) 따위를 근본적(根本的)으로 바꾸는 일 ③예전의 왕통을 뒤집고 다른 왕통이 통치자(統治者)가 되는 일 ④피지배(被支配) 계급(階級)이 지배(支配) 계급(階級)

1086) 밀모(密謀) : 몰래 의논(議論)하여 일을 꾀함.

1087) 일조(一朝) : ①일조 일석(一夕) ②만일의 경우(境遇) ③하루 아침 ④어느 날 아침.

1088) 반정(反正) : ①본디의 바른 상태(狀態)로 돌아가게 함 ②나쁜 임금을 폐(廢)하고 새 임금을 대신(代身) 세우는 일.

1089) 성종(成宗) : 조선 제9대 왕(재위 1469~1494). 세종·세조의 치적을 기반으로 문화정책을 폈다. 숭유억불 정책을 철저히 시행했고 《경국대전》과 이를 보충한 《대전속록》을 간행했다. 조선 전기의 문물제도는 성종 때 거의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090) 중종(中宗) : 조선 제11대 왕(재위 1506~1544). 연산군 시대의 폐정을 개혁하였으며, 조광조 등의 신진 사류(士類)를 중용, 왕도정치를 시도하였으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개혁방법이 훈구파의 반발을 초래,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일으켜 신진사류를 숙청하였다. 이후 신사무옥(辛巳誣獄), 삼포왜란 등으로 정국은 혼미를 거듭하였다.

1091) 영립(迎立) : 임금으로 모심.

1092) 임사홍(任士洪) : 조선시대 전기의 문신이자 외척이다. 본관은 풍천, 초명은 사의(士毅), 자는 이의(而毅)이다. 신수근 등과 함께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을 조선 연산군 에게 알려 갑자사화의 빌미를 제공한다. 1465년(세조 11년)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은 정헌대부 이조판서(正憲大夫 吏曺判書)에 이르렀다. 조선 왕실의 인척이자 겹사돈으로 효령대군의 손녀이며 보성군의 딸인 전주 이씨와 결혼하여 왕실의 인척이 되었으며, 그 아들 임광재는 예종의 딸 현숙공주(顯肅公主)와 혼인

1093) 간신(奸臣) : 간사(奸邪)한 신하(臣下). 육사(六邪)의 하나임.

1094) 처치(處置) : ①일을 감당(堪當)하여 치러 감 ②물건(物件)을 다루어서 치움 ③처리(處理)하여 없애 버림 ④죽여 버림.

1095) 유자광(柳子光) : 조선 연산군 때의 간신(?~1512). 자는 우복(于復). 서자 출신으로, 옥사를 일으켜 익대 공신 1등 무령군(武靈君)에 봉해졌으며, 김종직·김일손 등을 모함하여 무오사화를 일으켰다.

1096) 정배(定配) : 배소(配所)를 정(定)하여 죄인(罪人)을 유배(流配)시킴.

1097) 사화(士禍) : 조선(朝鮮) 때 정치적(政治的) 반대파(反對派)에게 몰리어 정계의 선비들이 당(當)한 참혹(慘酷)한 화난(禍難).

1098) 명사(名士) : 이름난 선비.

1099) 신원(伸寃) : 원통(寃痛)한 일을 풀어 버림.

1100) 즉위(卽位) :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일.

1101) 실정(失政) : 정치(政治)의 방법(方法)을 그르침. 또는, 잘못된 정치(政治).

1102) 악정(惡政) : 백성(百姓)을 괴롭히는 나쁜 정치(政治).

1103) 홍문관(弘文館) : 고려(高麗) 때, 임금의 자문(諮問) 기관(機關)의 하나. 성종(成宗) 14(995)년에 숭문관(崇文館)을 고친 이름으로, 학사(學士)를 두어 임금을 시종케 했음. 조선(朝鮮) 때, 삼사의 하나.

궁중(宮中)의 경서(經書), 사적, 문서(文書) 따위를 관리(管理)하고 임금의 자문(諮問)에 응(應)했음.
1104) 사간원(司諫院) :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 삼사(三司)의 하나. 임금에게 간(諫)하는 일을 맡아 보았음. 3대 태종(太宗) 1(1401)년에 설치(設置)하고 10대 연산군(燕山君) 때에 폐(廢)하였다가, 11대 중종(中宗) 때에 이르러 다시 베풀어 26대 고종(高宗) 31(1894)년까지 있었음.
1105) 유약(柔弱) : 몸이나 마음이 약(弱)함.
1106) 폐출(廢黜) : 벼슬을 없애고 내어 보냄.
1107) 무고(無故) : 아무런 까닭이 없음.
1108) 모역(謀逆) : 역적질을 꾀함. 종묘(宗廟), 산릉, 궁전(宮殿) 등(等)을 파괴(破壞)하기를 꾀한 죄(罪).
1109) 주살(誅殺) : 죄에 해당(該當)시키어 죽임.
1110) 삼포왜란(三浦倭亂) : 1510년(중종 5) 부산포(釜山浦) · 내이포(乃而浦) · 염포(鹽浦) 등 삼포(三浦)에서 거주하고 있던 왜인들이 대마도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난.
1111) 황형(黃衡) : 조선 전기의 무신. 삼포왜란 때 전라좌도 방어사로 제포에서 전공을 세우고 경상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다. 그 후 도총관·훈련원지사를 거쳐 함경도 변경에서 야인이 반란하자 이를 진압했다.
1112) 유담년(柳聃年) : 조선 중기의 문신. 경상도 우방어사로서 삼포왜란을 평정하여 경상우도관찰사 겸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그 뒤, 병조판서, 공조판서, 함경도관찰사, 좌참찬, 평안도관찰사 등을 거쳐 한성부판윤이 되었다.
1113) 혈전(血戰) : 죽음을 무릅쓰고 맹렬(猛烈)히 하는 전투(戰鬪).
1114) 기묘사화(己卯士禍) : 중종(中宗) 14년 (1519)에 남곤 일파(一派)가 성리(性理) 학자(學者) 조광조 등(等)을 쫓아내어 죽인 사건(事件).
1115) 남곤(南袞) : 조선 전기의 문신. 호조 ·병조 ·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주청사(奏請使)로 중국 명(明)나라에 다녀왔다. 기묘사화를 꾸며 신진사류(新進士類)를 숙청하였다.
1116) 심정(沈貞) : 조선(朝鮮) 시대(時代) 11대 중종(中宗) 때의 문신(文臣). 자는 정지(貞之) 호는 소요정(逍遙亭). 본은 풍산(豊山). 10대 연산주(燕山主) 8(1502)년 문과(文科)에 급제(及第), 수찬(修撰)·판서(判書)를 거쳐 우의정(右議政)·좌의정(左議政)을 지냄. 중종 반정(中宗反正)에 참여(參與)하여 공을 세웠고 남 곤(南袞)·홍 경주(洪景舟) 등(等)과 함께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일으켰음. 시호(諡號)는 문정(文靖).
1117) 조광조(趙光祖) : 조선(朝鮮) 시대(時代) 11대 중종(中宗) 때의 성리학자(性理學者)·정치가(政治家).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靜庵) 본은 한양(漢陽) 도학파(道學派)의 우두머리 벼슬은 부제학·대사헌(大司憲)에 이름 도덕적(道德的) 이상(理想) 정치(政治)를 꾀하다가 원로들과 충돌(衝突)되어 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로 능주(綾州)로 귀양갔다가 38세 때에 남곤(南袞)일화에게 몰리어 처형(處刑)됨. 시호(諡號)는 문정(文正) 문집(文集) 『정암집(靜庵集)』.
1118) 무고(誣告) : 없는 사실(事實)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告訴)하거나 고발(告發)하는 것.
1119) 명유(名儒) : 이름난 선비.
1120) 역모(逆謀) : ①반역(叛逆)을 꾀함 ②또는, 그 꾀.
1121) 조정암 : 조광조.
1122) 자당(自黨) : 자기(自己)가 속(屬)해 있는 당(黨).

1123)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勢力)이나 사람 등(等)을 한데 끌어 모음.
1124) 신사사화(辛巳士禍) : 1521년(중종 16년)에 안처겸(安處謙) 일파들이 심정, 남곤 등에 의하여 화를 입은 사건이다. 기묘사화로 인하여 세력을 잃은 안당(安塘)의 아들 안처겸은 남곤, 심정이 사림(士林)을 해치고 왕의 총명을 흐리게 한다하여 이들을 제거 할것을 모의 하였다. 때마침 안처견이 모친상을 당했는데 남곤의 부하 송사련(宋祀蓮)은 여기에 방문하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이들이 대신을 해치려 한다고 무고하여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는 큰 옥사(獄死)가 일어났다.
1125) 전횡(專橫) : 권세(權勢)를 오로지 하여 제 마음대로 함.
1126) 만조(滿朝) : 온 조정(朝廷).
1127) 소인배(小人輩) : 간사(奸邪)하고 도량(度量)이 좁은 사람이나 그 무리.
1128) 기강(紀綱) : 규율(規律)과 질서(秩序). 기율과 법강(法綱).
1129) 문란(紊亂) : 도덕(道德)이나 질서(秩序), 규칙(規則) 등(等)이 어지러움.
1130) 숙청(肅淸) : 잘못이나 악인(惡人)을 없애어 맑게 함.
1131) 대윤(大尹) : 조선(朝鮮) 시대(時代) 12대 인종(仁宗)의 외척 윤 임(尹任)을 중심(中心)으로 한 그 일파. 소윤(小尹) 윤 원형 일파에 의(依)해 을사사화(乙巳士禍) 때 화를 당(當)함.
1132) 소윤(小尹) : 조선(朝鮮) 시대(時代) 13대 명종(明宗)의 외숙인 윤 원로(尹元老)·윤 원형(尹元衡)을 중심(中心)한 그 일파.
1133) 윤임(尹任) : > 조선 중기의 문신(1487~1545). 자는 임지(任之). 장경 왕후의 오빠로, 대윤(大尹)의 거두였다. 무과에 급제하여 경주부윤에 올랐으며, 문정 왕후가 수렴청정할 때, 윤원형과 세력 다툼을 벌이다가 소윤(小尹) 윤원형 형제가 일으킨 을사사화로 아들 삼 형제와 함께 처형되었다. 선조 때 누명이 벗겨졌다.
1134) 인종(仁宗) : 조선의 제12대 왕(1515~1545). 이름은 호(峿). 자는 천윤(天胤). 기묘사화로 없어진 현량과를 부활시켰다. 재위 기간은 1544~1545년이다.
1135) 윤원형(尹元衡) : > 조선 중기의 문신(?~1565). 자는 언평(彦平). 문정 왕후의 동생. 명종 원년(1546)에 문정 왕후가 수렴청정할 때,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 등을 죽이고 많은 인사를 몰아냈다. 뒤에 문정 왕후가 죽자 실각하여 관직을 빼앗기고 귀양 가서 죽었다.
1136) 명종(明宗) : 조선 제13대 왕(1534~1567). 이름은 환(峘). 자는 대양(對陽). 중종의 둘째 아들로 12세에 즉위하여 재위 중 을사사화, 을묘왜변 따위를 겪었다. 재위 기간은 1545~1567년이다.
1137) 성희안(成希顔) : 조선 중종 때의 문신(1461~1513). 자는 우옹(愚翁). 호는 인재(仁齋). 연산군 때에 이조 참판으로 왕의 횡포를 풍자하는 시를 지어 좌천되었으나, 중종반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으로 창산군(昌山君)에 봉하여지고, 후에 영의정이 되었다.
1138) 박원종(朴元宗) : 조선 중종 때의 문신(1467~1510). 자는 백윤(伯胤). 연산군의 폭정에 유순정(柳順汀), 성희안(成希顔) 등의 훈구 세력과 함께 임금을 몰아내고 중종을 추대하였다.
1139) 김안로(金安老) : 조선 전기의 문신(1481~1537). 자는 이숙(頤叔). 호는 희락당(希樂堂)·퇴재(退齋)·용천(龍泉). 기묘사화 때 조광조와 함께 유배되기도 하였으며, 그 후 우의정·좌의정 등을 지냈다. 공포 정치를 단행하였으며, 문정 왕후의 폐위를 도모하다가 사사(賜死)되었다. 저서에 ≪용천담적기(龍泉淡寂記)≫가 있다.
1140) 승하(昇遐) : 임금이 세상(世上)을 떠남.
1141) 주창(主唱) : 주의(主義)나 주장(主張)을 앞장 서서 부르짖음.

1142) 인후(仁厚) : 어질고 후덕함.
1143) 효릉(孝陵) : 서삼릉(西三陵)의 하나. 경기도(京畿道) 고양군 원당면 원당리에 있는 인종(仁宗)과 그의 비 인성왕후(王后)의 능.
1144) 수렴청정(垂簾聽政) : 발을 내리고 정사(政事)를 듣는다는 뜻으로, 나이 어린 임금이 등극(登極)했을 때 왕대비(王大妃)나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왕을 도와서 정사(政事)를 돌봄을 이르는 말.
1145) 영중추(領中樞) : 조선 시대에 둔 중추부의 으뜸 벼슬. 정일품의 무관 벼슬이다.
1146) 홍언필(洪彦弼) : 조선 중기의 문신(1476~1549). 자는 자미(子美). 호는 묵재(默齋). 갑자사화 때에 유배당하였다가 중종반정으로 풀려났으며, 기묘사화 때에 다시 투옥되었으나 조광필(趙光弼)의 변호로 풀려나 여러 벼슬을 지냈다.
1147) 삼상(三相) : 삼정승(三政丞)과 같은 말로 의정부에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맡아보던 세 벼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이른다.
1148) 육조(六曹) : 고려・조선 시대에, 국가의 정무(政務)를 나누어 맡아보던 여섯 관부(官府).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를 이른다.
1149) 유명(遺命) : 임금이나 부모가 죽을 때에 남긴 명령.
1150) 한독(悍毒) : 성질이 사납고 독살스러움.
1151) 정순붕(鄭順朋) : 조선 중기의 문신(1484~1548). 자는 이령(耳齡). 호는 성재(省齋). 소윤(小尹)으로서 윤원형 등과 함께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을 비롯한 대윤(大尹)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다. 임백령, 정언각과 함께 을사삼간(乙巳三奸)이라 부른다.
1152) 이기(李芑) : 조선 명종 때의 문신(1476~1552). 자는 문중(文仲). 호는 경재(敬齋). 명종 즉위년(1545)에 우의정에 올라 윤원형 등 소윤 일파와 손을 잡고 을사사화를 일으켰다. 후에 영의정에 이르렀으나, 선조 초에 훈작(勳爵)이 추삭되고 묘비도 제거되었다.
1153) 오간(五姦) : 조선 시대에, 을사사화를 일으킨 다섯 사람. 이이의 ≪동호문답(東湖問答)≫에 나오는 말로, 정순붕・윤원형・이기・임백령・허자를 이른다.
1154) 문정왕후(文定王后) : 조선 중종의 계비(繼妃)(1501~1565). 성은 윤(尹). 중종 12년(1517)에 왕비에 책봉되었으며, 아들 명종이 12세 때 왕위에 오르자 대신 정치를 맡아 권력을 잡았으며 동생 윤원형과 함께 을사사화를 일으켰다. 승려 보우를 가까이하여 불교의 부흥을 꾀하였다.
1155) 충순당(忠順堂) : 조선 시대 경복궁(景福宮) 후원(後苑)에 있던 전각의 하나.
1156) 사류(士類) : 학문(學問)을 연구(研究)하고 덕을 닦는 선비의 무리.
1157) 진살(盡殺) : 모두 다 죽임.
1158) 좌의정(左議政) : 조선(朝鮮) 시대(時代) 의정부(議政府)의 정1품(正一品)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는 사람. 우의정(右議政)의 위, 영의정(領議政)의 아래에 있어 백관(百官)을 통솔(統率)하고 일반(一般) 정사(政事)와 외교(外交) 등(等)을 처리(處理) 운영(運營)했음.
1159) 유관(柳灌) : 조선 전기의 문신(1484~1545). 자는 관지(灌之). 호는 송암(松庵).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숭록대부에 이르렀으나, 을사사화를 일으킨 것이 화근이 되어 귀양 가는 도중 대역죄의 누명을 쓰고 처형되었다.
1160) 유인숙(柳仁淑) : 조선 중종 때의 정치가(1485~1545). 자는 원명(原明). 호는 정수(靜叟). 진사・생원시에 합격한 후, 중종 5년(1510) 식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검열・이조 좌랑・직제학 등을 지냈다. 을사사화 때에 모함을 받아 사사되었다.

1161) 계림군(桂林君) : 조선시대의 왕족. 성종의 셋째 아들 계성군 순(恂)의 양자. 명종 즉위 후 문정대비가 수렴청정하자, 소윤일파는 대윤 일파를 제거한 을사사화 때 "윤임이 인종 사망 당시, 계림군을 추대하려 했다"고 모함했다. 계림군은 압송, 참수되었다.
1162) 서형(庶兄) : 정실에게서 난 아들이 첩에게서 태어난 형을 이르는 말.
1163) 봉성군(鳳城君) : 조선 중기의 왕족. 김명윤의 무고로 계림군 유와 함께 반역을 꾀한 죄목으로 강원도 평창(平昌)으로 유배되어 사사(賜死)되었다.
1164) 찬성(贊成) : 조선시대 의정부에 속해 있던 종1품 벼슬.
1165) 육살(戮殺) : 사람을 마구 죽임.
1166) 대사간(大司諫) :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 사간원의 으뜸 벼슬. 정3품(正三品)으로 정원(定員)은 1명인데, 임금에게 정사(政事)의 잘못을 간(諫)하는 일을 맡았음.
1167) 곽순(郭珣) : 조선 중기 중종, 인종 때의 문신. 인종 즉위 후 소윤과 대윤 간의 세력 투쟁이 첨예화되어 시국이 어지러워지자 벼슬을 버렸다. 명종 때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장살되었다. 선조 때 복관되었다.
1168) 장하지혼(杖下之魂) : 장형을 당(當)하고 그 자리에서 죽은 혼.
1169) 이황(李滉) : 조선 시대의 유학자(1501~1570).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퇴도(退陶)·도수(陶叟). 벼슬은 예조 판서, 양관 대제학 따위를 지냈다. 정주(程朱)의 성리학 체계를 집대성하여 이기 이원론(理氣二元論), 사칠론(四七論)을 주장하였다. 작품에 시조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저서에 ≪퇴계전서(退溪全書)≫ 등이 있다.
1170) 노수신(盧守愼) : 조선 시대의 문신·학자(1515~1590). 자는 과회(寡悔). 호는 소재(蘇齋)·여봉노인(茹峯老人)·암실(暗室)·이재(伊齋). 을사사화로 유배되었다가 복귀하여 영의정에 올랐으나 기축옥사로 파직되었다. 저서에 ≪소재집≫이 있다.
1171) 신거관(愼居寬) : 조선 명종 때의 문신(1498~1564). 자는 율이(栗耳). 호는 독재(獨齋). 호조 판서, 지중추부사 따위를 역임하였다.
1172) 이언적(李彦迪) : 조선 중종 때의 성리학자(1491~1553). 자는 복고(復古). 호는 회재(晦齋)·자계옹(紫溪翁). 김안로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쫓겨나 경주 자옥산(紫玉山)에 들어가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후에 다시 등용되어 좌찬성 겸 원상(院相)까지 지냈으나 윤원형 일당의 모함으로 강계(江界)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저서에 ≪회재집≫이 있다.
1173) 백인걸(白仁傑) : 조선 선조 때의 유학자(1497~1579). 자는 사위(士偉). 호는 휴암(休菴). 벼슬이 대사간·참찬에 이르렀으며, 동서 당쟁의 폐단을 지적하고 군비 강화를 강조하였다.
1174) 권발(權撥) : 1478년(성종 9)~1548년(명종 3).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로 안동 출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중허(仲虛), 호는 충재(冲齋)·훤정(萱亭)·송정(松亭). 할아버지는 부호조(副護早)곤(琨)이고, 아버지는 성균생원 증영의정사빈(士彬)이며, 어머니는 주부(主簿)윤당(尹塘)의 딸이다.
1175) 귀향(歸鄕) : 죄를 지어 관직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을 귀향하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처음에는 방축향리(放逐鄕里)의 뜻으로 쓰다가 후기에 와서는 도배(徒配)·유배(流配)·찬배(竄配)·정배(定配) 등의 뜻으로 쓰였다.
1176) 피화(被禍) : 화를 당(當)함. 화를 입음.
1177) 을사사화(乙巳士禍) : 조선 명종 즉위년(1545) 왕실의 외척인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의 반목을 계기로 일어난 사림(士林)의 화옥(禍獄). 중종의 제 1계비 장경왕후의 소생인 세자 호(岵

1178) 문정왕후(文定王后) : 조선 중종의 계비(繼妃)(1501~1565). 성은 윤(尹). 중종 12년(1517)에 왕비에 책봉되었으며, 아들 명종이 12세 때 왕위에 오르자 대신 정치를 맡아 권력을 잡았으며 동생 윤원형과 함께 을사사화를 일으켰다. 승려 보우를 가까이하여 불교의 부흥을 꾀하였다.
1179) 비방(誹謗) : 남을 헐뜯어 말함.
1180) 소위(所爲) : ①하는 일, 또는 한 일 ②소행(所行).
1181) 송인수(宋麟壽) : 조선 중기 문신. 형조참판 때 동지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대사성이 되어 유생들에게 성리학을 강론했다. 성리학의 대가로 선비들로부터 추앙받았다. 청주 신항서원 등에 배향되었다. 문집에《규암집》이 있다.
1182) 정미사화(丁未士禍) : 조선(朝鮮) 시대(時代) 십이(十二) 사화(士禍)의 하나. 명종(明宗) 2년(1547)에 정언각(鄭彦慤)·정순붕(鄭順朋) 등(等)이 문정(文定) 왕후(王后)에게 무고(誣告)하여 송인수(宋麟壽)·이약수(李若水)·봉성군(鳳成君) 항·임형수(林亨秀) 등(等)이 사사(賜死)됨.
1183) 안명세(安名世) : 조선 중기의 문신(1518~1548). 자는 경응(景應). 명종 3년(1548)에 사관(史官)으로서 을사사화의 정상을 빠짐없이 ≪시정기(時政記)≫에 적어 넣은 것이 누설되어 처형되었다.
1184) 이홍남(李洪男) : 조선 중기의 문신. 중종 때 공조좌랑을 지내고 사가독서한 후, 명종 때 병과로 급제했다. 양재역 벽서사건의 아버지에 연좌, 유배되었다. 동생 홍윤이 조정을 비난하는 말을 하자 모반을 꾀한다고 무고, 동생을 처형당하게 했다.
1185) 이홍윤(李洪胤) : 조선 중기의 학자. 이홍윤 옥사사건 때 소윤파에 의해 모반을 꾀한다는 무고를 당해 처형되었다.
1186) 연류(連類) : 하나의 무리를 이룬 동아리.
1187) 세종대왕(世宗大王) : 조선(朝鮮) 제4대 왕(재위(在位) 1418~1450). 휘(諱) 도(祹). 자 원정(元正). 시호(諡號) 장헌(莊憲). 태종(太宗)의 셋째 아들로 원경(元敬) 왕후(王后) 민씨(閔氏) 소생. 비(妃)는 청천(靑川) 부원군(府院君) 심온(沈溫)의 딸 소헌(昭憲) 왕후(王后).
1188) 세조(世祖) : 조선 제7대 왕(1417~1468). 휘는 유(瑈). 자는 수지(粹之). 군호는 수양 대군. 국방, 외교, 토지 제도 및 관제의 개혁과 개편 따위에 업적을 남겼으며 ≪국조보감≫, ≪경국대전≫ 따위의 서적을 편찬하였다. 저서에 ≪석보상절≫이 있다. 재위 기간은 1455~1468년이다.
1189) 성종대왕(成宗大王) : 조선의 제9대 왕(1457~1494). 이름은 혈(娎).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을 추진하고 사림파를 등용하였다. 조선 전기의 문물제도를 거의 완성하였으며,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재위 기간은 1469~1494년이다.
1190) 원적(元績) : 조선 전기의 무신이다. 을묘왜란 때 전라도병마절도사로서 달량포에 침입한 왜적과 싸우다가 양식이 떨어진 끝에 성이 함락되어 전사하였다.
1191) 한온(韓蘊) : 조선 전기의 무신이다. 1555년 장흥부사로 있을 때 을묘왜변이 일어나자, 전라도병마절도사 원적 등과 함께 달량포에서 왜적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1192) 전망(戰亡) :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죽음.
1193) 도순찰사(都巡察使) : 조선 시대에, 지방에 변란이 일어났을 때 임시로 파견하던 군관직 벼슬. 대개는 지방 관찰사가 겸임하여 순찰사라 하나, 중앙에서 정이품의 재상이 나가게 되면 이렇게 불렀다.
1194) 이준경(李浚慶) : 조선 명종 때의 명신(1499~1572). 자는 원길(原吉). 호는 동고(東皐)·남당(南堂)·홍련거사(紅蓮居士)·연방노인(蓮坊老人). 벼슬은 영의정 및 영중추부사에 이르렀다. 1555년 도순찰사로 호남 지방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쳤으며, 신진 사류와 기성 사림 간의 알력을 조정하기에 힘

썼다. 죽을 때 붕당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다. 저서에 ≪동고유고≫, ≪조선풍속≫ 등이 있다.
1195) 남치근(南致勤) : 조선 시대의 무신(?~1570). 자는 근지(勤之). 제주, 남평 등지에서 왜구를 무찔렀으며, 황해도에서 세력을 떨치던 임꺽정을 잡아 죽였다.
1196) 해서(海西) : 황해도.
1197) 괴수(魁首) :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
1198) 노략(擄掠) : 떼를 지어 돌아다니며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음.
1199) 박순(朴淳) : 조선 선조 때의 문신(1523~1589). 자는 화숙(和叔). 호는 사암(思庵). 서경덕의 제자로, 명종 8년(1553)에 문과에 장원, 벼슬이 우의정, 영의정에 이르렀다. 율곡과 퇴계를 변론하여 서인으로 지목받고 탄핵당하여 영평(永平) 백운산에 은거하였다. 한당체(漢唐體)의 시를 잘 지었으며, 저서에 ≪사암집≫이 있다.
1200) 기자헌(奇自獻) : 조선 시대의 문신(1567~1624). 자는 사정(士靖). 호는 만전(晩全). 부제학·대사헌·영의정을 지냈고, 광해군을 즉위시키는 데 공헌하였으나, 영창 대군의 살해를 반대하다가 제주로 귀양을 갔다. 이괄(李适)의 난 때 무고한 혐의를 받아 사사(賜死)되었다.
1201) 윤두수(尹斗壽) : 조선 선조 때의 문신(1533~1601). 자는 자앙(子仰). 호는 오음(梧陰). 문장이 뛰어났고, 글씨에도 문징명체(文徵明體)를 본떠 일가를 이루었다. 저서에 ≪연안지(延安志)≫, ≪평양지(平壤志)≫, ≪기자지(箕子志)≫ 따위가 있다.
1202) 심의겸(沈義謙) : 조선 선조 때의 문신(1535~1587). 자는 방숙(方叔). 호는 손암(巽菴)·간암(艮菴)·황재(黃齋). 이황의 문인으로 대사헌을 지냈으며,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신진 세력과 대립하여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진 것이 당쟁의 시초가 되었다.
1203) 정순붕(鄭順朋) : 조선 중기의 문신(1484~1548). 자는 이령(耳齡). 호는 성재(省齋). 소윤(小尹)으로서 윤원형 등과 함께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을 비롯한 대윤(大尹)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다. 임백령, 정언각과 함께 을사삼간(乙巳三奸)이라 부른다.
1204) 작고(作故) : 고인이 되었다는 뜻으로, 사람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
1205) 국구(國舅) : 임금의 장인.
1206) 이양(李樑) : 조선 명종 때의 권신(權臣)(1519~1563). 자는 공거(公擧). 인순 왕후의 외삼촌으로, 윤원형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왕의 뜻으로 승진을 거듭하여 예조·이조 판서를 지냈으나 왕의 총애를 믿고 전횡을 일삼다가 유배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1207) 권간(權奸) : 권력(權力)과 세력(勢力)을 가진 간신(奸臣).
1208) 세도(勢道) : ①정치(政治) 상(上)의 권세(權勢) ②세력(勢力)을 행사(行使)할 수 있는 사회적(社會的) 지위(地位)나 권세(權勢), 또는 그 지위(地位)나 권세(權勢)의 힘을 빌어 옳지 못하게 세력(勢力)을 휘두르는 일.
1209) 주세붕(周世鵬) : 조선(朝鮮) 시대(時代) 11대 중종(中宗) 때의 성리학자(性理學者). 자는 경유(景游), 호는 신재(愼齋) 본은 상주(尙州). 중종(中宗) 38(1543)년 풍기 군수(豊基郡守)로 있으면서 우리나라 최초(最初)의 서원(書院)인 백운동(白雲洞) 서원(書院)을 세웠으며, 그 뒤 황해(黃海) 감사(監司)로 해주에 수양(首陽) 서원(書院)을 창설(創設)했음. 그의 장가(長歌)와 단가(短歌)가 전(傳)함. 대표작(代表作)은 경기체가 『도동곡(道東曲)』 『엄연곡
1210) 소수서원(紹修書院) : 태백산(太白山) 백운동(白雲洞)에 있던 서원. 조선왕조 중종(中宗) 38년(1543)에 풍기(豐基) 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명종(明宗) 5년(1550)에 소수

(紹修)라 사액(賜額)한 것인데, 고려조 안유(安裕)를 배향(配享)하였음. 고종(高宗)초에 폐함.
1211) 사액(賜額) : 임금이 사당(祠堂), 서원(書院), 누문(樓門) 등(等)에 이름을 지어줌.
1212) 시초(始初) : ①시작(始作)한 처음 무렵 ②처음 ③애초.
1213) 김인후(金麟厚) : 조선 중기의 문신・유학자(1510~1560). 자는 후지(厚之). 호는 하서(河西)・담재(湛齋). 중종 35년(1540)에 문과에 급제하고, 설서・부수찬을 거쳐 옥과 현령을 지냈으나,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낙향하여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저서에 ≪하서집≫,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 등이 있다.
1214) 빈천(賓天) : 천자(天子)가 세상을 떠남을 이르던 말.
1215) 연년(年年) : 해마다.
1216) 맹사성(孟思誠) : 조선 전기의 재상(1360~1438). 자는 자명(自明). 호는 고불(古佛). 세종 때에 우의정・좌의정을 지냈으며, 황희와 함께 조선 전기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였고, 성품이 청백・검소하기로 이름이 났다. ≪태종실록≫을 편찬하였으며, 작품에 <강호사시가>가 있다.
1217) 효우(孝友) :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를 통틀어 이르는 말.
1218) 출천(出天) : 하늘이 냄.
1219) 선견지명(先見之明) :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
1220) 상진(尙震) : 조선 중기의 문신. 사관, 예조좌랑, 대사간, 동부승지, 한성부판윤, 병조판서, 우찬성, 돈령부지사, 중추부지사, 삼정승 등을 지내고 《중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1221) 전부(田夫) : 농부(農夫).
1222) 남사고(南師古) : 조선 중기의 예언가(1509~1571). 자는 경초(景初). 호는 격암(格菴). 역학・풍수・천문・복서(卜筮)・관상 따위의 비결에 도통하였으며, 예언이 적중하였다고 한다.
1223) 풍수설(風水說) : ①풍수(風水)에 관(關)한 학설(學說) ②풍수(風水) 지리설(地理說).
1224) 토정비결(土亭秘訣) : 정초에 『토정비결(土亭秘訣)』이라는 책을 통해 한 해의 운수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점복풍속. 『토정비결』은 조선 중기의 학자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이 지은 도참서(圖讖書)로 개인의 사주(四柱) 중 태어난 연·월·일 세 가지로 육십갑자(六十甲子)를 이용하여 일년 동안의 신수를 열두 달별로 알아보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1225) 이지함(李之菡) : 조선 선조 때의 학자(1517~1578). 자는 형중(馨仲)・형백(馨佰). 호는 토정(土亭)・수산(水山). 벼슬은 포천(抱川), 아산(牙山)의 현감을 지냈다. 서경덕의 문인으로, 의약・복서(卜筮)・천문・지리・음양에 능통하였다. 저서에 ≪토정비결≫ 등이 있다.
1226) 역학(易學) : 주역의 괘(卦)를 해석하여 음양 변화의 원리와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
1227) 정북창(鄭北窓) : 정렴(鄭磏). 조선 전기의 학자이다. 유불선에 능통했고 천문·지리·의학·복서뿐 아니라 어학·그림·음악 등 모든 방면에 두루 뛰어났다. 매월당 김시습, 토정 이지함과 더불어 조선의 3대 기인으로 꼽힌다.
1228) 무자(無子) :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음.
1229) 선조(宣祖) : 조선의 제14대 왕(1552~1608). 이름은 연(昖). 초명(初名)은 균(鈞). 이이・이황 등의 인재를 등용하고 유학을 장려하는 따위의 선정(善政)에 힘썼으나, 당쟁으로 인한 국력의 약화로 두 번의 왜란을 겪었다. 재위 기간은 1567~1608년이다.
1230) 동고(東皐) : 이준경(李浚慶). 조선 중기 중종, 명종, 선조 때의 문신. 우·좌·영의정 등을 지냈다. 선조 즉위 후 원상(院相)을 지냈다. 사화로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서용 또는 신원하였다. 죽을

때 붕당이 있을 것을 예언한 내용의 유소를 올려 규탄 받았으나, 뒤에 동서분당이 실제 일어나 예언이 적중했다. 저서는《동고유고》,《조선풍속》 등이다.

1231) 현신(賢臣) : 어진 신하.

1232) 신설(伸雪) : 신원설치(伸冤雪恥)의 준말.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리고 창피스러운 일을 씻어 버림.

1233) 류서애(柳西崖) : 조선왕조 선조(宣祖) 때의 명상(名相)인 유성룡(柳成龍, 1542~1607). 서애는 그의 호. 이황(李滉)의 문인(門人). 임진왜란 때에 도체찰사(都體察使)·영의정으로서 중국 명(明)나라 장군들과 같이 국난을 처리하였음. 전란 후 북인(北人)의 탄핵을 받고 조용히 벼슬에서 물러났으며, 도학(道學)·문장(文章)·덕행(德行)·글씨로 이름을 떨쳤음. 저서에 『징비록(懲毖錄)』·『문집(文集)』·신종록(愼終錄)』 등이 있음. 시호는 문충(文忠).

1234) 노소재(盧蘇齋) : 노수신(盧守愼). 조선 시대의 문신・학자(1515~1590). 자는 과회(寡悔). 호는 소재(蘇齋)・여봉노인(茹峯老人)・암실(暗室)・이재(伊齋). 을사사화로 유배되었다가 복귀하여 영의정에 올랐으나 기축옥사로 파직되었다. 저서에 ≪소재집≫이 있다.

1235) 천자(天資) : 천품(天稟).

1236) 심고(審考) : 자세(仔細)하게 조사(調査)하여 결정(決定)함.

1237) 문도(門徒) : 제자.

1238) 도학(道學) : 도덕(道德)에 관(關)한 학문(學問). 유학(儒學), 특(特)히 송대(宋代)의 정주(程朱) 학파(學派)의 학(學). 곧, 심성(心性)・이기(理氣)의 학. 송학(宋學). 심학(心學)의 별칭(別稱).

1239) 전교(典敎) : 늘 지켜야 할 가르침.

1240) 향약(鄕約) : 조선(朝鮮) 때, 착한 것은 서로 권(勸)하고, 악(惡)한 것은 징계(懲戒)하며, 예의(禮儀)로 서로 사귀고, 서로 도우며 산다는 뜻으로 마련한 시골 동네의 자치(自治) 규약(規約).

1241) 창시(創始) : 새로 창설(創設)하여 시작(始作)함, 創開(창개).

1242) 이원익(李元翼) : 조선 중기의 명신(1547~1634).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 1569년 문과에 급제하여 우의정, 영의정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 대동강 서쪽을 잘 방어하여 호성공신(扈聖功臣)이 되었으며 대동법을 시행하여 공부(貢賦)를 단일화하였다. 저서에 ≪오리집≫, ≪오리일기≫가 있다.

1243) 이항복(李恒福) : 조선 선조 때의 문신(1556~1618). 자는 자상(子常). 호는 백사(白沙)・필운(弼雲). 임진왜란 때 병조 판서로 활약했으며, 뒤에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광해군 때에 인목 대비 폐모론에 반대하다 북청(北靑)으로 유배되어 죽었다. 저서에 ≪백사집(白沙集)≫, ≪북천일기(北遷日記)≫, ≪사례훈몽(四禮訓蒙)≫ 등이 있다.

1244) 이덕형(李德馨) : 조선 중기의 문신(1561~1613). 자는 명보(明甫). 호는 한음(漢陰)・쌍송(雙松). 선조 25년(1592)에 예조 참판에 올라 대제학을 겸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지중추부사로서 일본 사신 겐소(玄蘇)와 화의를 교섭하였으나 실패했다. 그 후 왕을 정주까지 호종하였고, 청원사(請援使)로 명나라에 파견되어, 원병을 요청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광해군 즉위 후에 영의정에 올랐다. 저서에 ≪한음문고(漢陰文稿)≫가 있다.

1245) 명상(名相) : 명재상의 준말.

1246) 격암(格庵) : 남사고(南師古). 조선 중기의 학자. 효행과 청렴으로 이름났으며, 평생 《소학(小學)》을 즐겨 읽었다. 역학(易學)·풍수(風水)·천문(天文)·복서(卜筮)·관상(觀相)의 비결에 도통하여 예

언이 꼭 들어맞았다고 한다. 풍수학(風水學)에 조예가 깊어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많은 일화를 남겼다.

1247) 임진왜란(壬辰倭亂) : 조선 선조 25년(1592)부터 31년(1598)까지 2차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침입한 일본과의 싸움. 해상에서의 이순신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육상에서 이일, 신입 등이 계속 패배함으로써 선조는 의주로 파천하였으며, 뒤에 명나라의 원병과 권율 등의 반격으로 일단 화의가 되었으나 일군(日軍)은 선조 30년(1597)에 재침략하여 31년에 물러갔다.

1248) 서애(西厓) : 유성룡(柳成龍). 조선 선조 때의 재상(1542~1607). 자는 이견(而見). 호는 서애(西厓). 이황의 문인으로, 대사헌・경상도 관찰사 등을 거쳐 영의정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과 권율 같은 명장을 천거하였으며, 도학・문장・덕행・서예로 이름을 떨쳤다. 저서에 ≪서애집≫, ≪징비록≫, ≪신종록(愼終錄)≫ 등이 있다.

1249) 정철(鄭澈) : 조선 명종・선조 때의 문신・시인(1536~1593). 자는 계함(季涵). 호는 송강(松江). 가사 문학의 대가로 국문학사상 중요한 <관동별곡>, <사미인곡> 등의 가사 작품과 시조 작품을 남겼다. 저서에 ≪송강집≫과 ≪송강가사≫가 있다.

1250) 이순신(李舜臣) : 조선 선조 때의 무신(1545~1598). 자는 여해(汝諧). 시호는 충무(忠武). 32세에 무과에 급제한 후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되어 거북선을 제작하는 등 군비 확충에 힘썼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한산도에서 적선 70여 척을 무찌르는 등 공을 세워 삼도 수군통제사가 되었다. 노량 해전에서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저서에 ≪난중일기≫가 있다.

1251) 권율(權慄) : 조선 선조 때의 명장(1537~1599). 자는 언신(彦愼). 호는 만취당(晩翠堂)・모악(暮嶽).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군대를 총지휘하였으며 행주 대첩 등에서 크게 이겼다. 정유재란 때 병사하였다.

1252) 곽재우(郭再祐) : 조선 중기의 의병장(1552~1617). 자는 계수(季綏). 호는 망우당(忘憂堂). 임진왜란 때 의령(宜寧)에서 의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웠고, 정유재란 때 다시 의병장으로 출전하였다. 그 뒤 진주 목사, 함경도 관찰사 따위를 지냈다.

1253) 김덕령(金德齡) : 조선 중기의 의병장(1567~1596). 자는 경수(景樹).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왜병을 크게 무찔러 호익장군(虎翼將軍)의 호를 받았고, 이듬해 의병장 곽재우와 함께 여러 차례 왜병을 격파하였다. 선조 29년(1596)에 무고로 고문을 받고 옥사하였다.

1254) 서산대사(西山大師) : 휴정대사(休靜大師)의 다른 이름. 조선 선조 때의 승려(1520~1604). 속성(俗姓)은 최(崔). 자는 현응(玄應). 법호는 청허(淸虛)・서산(西山). 임진왜란 때 승병(僧兵)의 총수가 되어 서울을 수복하는 데 공을 세웠으며, 유(儒)・불(佛)・도(道) 3교 통합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교종(敎宗)을 선종(禪宗)에 포섭하였다. 저서에 ≪청허당집≫, ≪선가귀감≫ 따위가 있다.

1255) 사명당(四溟堂) : 유정(惟政)의 호. 조선 중기의 승려(1544~1610). 속명은 임응규(任應奎). 자는 이환(離幻). 호는 사명당(四溟堂)・송운(松雲)・종봉(鍾峯). 유정은 법명(法名)이다. 승과에 급제하였으며, 임진왜란 때는 승병을 이끌고 왜군과 싸워 공을 세우고, 1604년에 사신으로 일본에 건너가 전란 때 잡혀간 3,000여 명의 포로를 구해서 돌아왔다.

1256) 신독재(愼獨齋) : 김집(金集)의 호.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1574~1656). 자는 사강(士剛). 호는 신독재(愼獨齋). 김장생의 아들이며 지평・집의를 거쳐, 효종 때에 이조 판서가 되어 북벌을 계획하였으나, 김자점이 이 사실을 청나라에 밀고하자 관직을 사임하고 예학(禮學)을 연구하였다. 저서에 ≪신독재집≫이 있다.

1257) 심의겸(沈義謙) : 조선 선조 때의 문신(1535~1587). 자는 방숙(方叔). 호는 손암(巽菴)・간암(艮菴)・황재(黃齋). 이황의 문인으로 대사헌을 지냈으며,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신진 세력과 대립하여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진 것이 당쟁의 시초가 되었다.

1258) 김효원(金孝元) : 조선 선조 때의 문신(1532~1590). 자는 인백(仁伯). 호는 성암(省庵). 명종 20년(1565)에 문과에 장원하고 정언, 지평을 거쳐 이조 참의에 이르렀다. 신진 사림파인 동인(東人)의 중심인물로, 기성 사림파인 서인(西人) 심의겸과 대립해 당쟁의 근원이 되었다. 저서에 ≪성암집≫이 있다.

1259) 동인(東人) : 조선 시대에, 붕당 가운데 김효원과 유성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서인과 대립한 당파. 또는 그 당파에 속한 사람. 주로 영남 사림파가 주류를 이루었고, 선조 24년(1591)에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다.

1260) 서인(西人) : 조선 선조 때에, 심의겸을 중심으로 하여 동인(東人)과 대립한 당파. 또는 그에 속한 사람. 뒤에 청서・훈서, 소서・노서, 노론・소론, 시파・벽파 따위로 시기에 따라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

1261) 우성전(禹性傳) :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의병장(1542~1593). 자는 경선(景善). 호는 추연(秋淵)・연암(淵庵). 이황의 문인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천일과 함께 강화에서 왜적과 싸우다 병사하였다. 저서로 ≪계갑일록(癸甲日錄)≫이 있다.

1262) 남인(南人) : 조선 시대에, 사색당파의 하나. 선조 때에 동인에서 갈라진 당파로, 이산해를 중심으로 한 북인(北人)에 대하여 유성룡, 우성전을 중심으로 한 파를 이른다. 경종 이후 정계에서 멀어져 고향에서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였다.

1263) 이발(李潑) : 조선 선조 때의 문신(1544~1589). 자는 경함(景涵). 호는 동암(東菴)・북산(北山). 1573년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선조 16년 부제학을 역임하고, 이듬해 대사간에 이르렀다. 북인(北人)의 수령이 되어 왕도 정치를 제창하였으나, 정여립의 모반 사건에 연좌되어 장살(杖殺)되었다.

1264) 북인(北人) : 조선 시대에, 사색당파의 하나. 이발(李潑), 이산해를 중심으로 한 당파이다. 우성전, 유성룡 등을 중심으로 한 남인(南人)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1265) 이산해(李山海) : 조선 선조 때의 문신(1539~1609). 자는 여수(汝受). 호는 아계(鵝溪)・종남수옹(終南睡翁). 1561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영의정에 올랐으며, 문장과 서화에 능했는데, 특히 대자(大字)와 산수화에 뛰어났다. 문집에 ≪아계집≫이 있다.

1266) 대북(大北) : 조선 시대에, 북인(北人) 가운데 홍여순, 이산해 등을 중심으로 한 분파. 선조 32년(1599)에 홍여순이 대사헌이 되려 하는 것을 남이공이 반대하면서 북인에서 갈려 나왔다.

1267) 남이공(南以恭) : 조선 중기의 문신(1565~1640). 자는 자안(子安). 호는 설사(雪簑). 소북(小北)의 영수로 이조 판서, 공조 판서 등을 지냈다. 중국 청나라에 볼모로 보내게 된 왕제(王弟)와 대신들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보낸 사건으로 파면당하였다. 저서에 ≪설사집(雪簑集)≫이 있다.

1268) 소북(小北) : 조선 시대에, 북인(北人) 가운데 유영경(柳永慶), 남이공(南以恭), 김신국(金藎國) 등을 중심으로 한 분파. 선조 때 북인인 홍여순(洪如淳)이 대사헌이 되려고 할 때 같은 북인인 남이공이 반대하면서 홍여순 파와 갈라졌다.

1269) 골북(骨北) : 조선 중기에, 대북(大北)에서 갈리어 나온 홍여순 일파. 광해군 때 정권을 한때 잡았으나 서인(西人)의 인조반정 때 몰락하였다.

1270) 육북(肉北) : 조선 선조 말에서 광해군 초에 걸쳐 이산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북(大北)의 일파.

인조반정으로 세력이 꺾여 그 뒤 없어졌다.
1271) 중북(中北) : 조선 선조 말엽의 북인(北人) 가운데 정온, 유몽인 등을 중심으로 한 파. 인조반정으로 세력이 꺾였다.
1272) 노서(老西) : 조선 시대에,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공서파 가운데 김유를 중심으로 한 노장파. 김유가 북인 남이공을 대사헌으로 삼으려 할 때, 이에 반대하는 소장파와 대립이 생겨 갈렸다.
1273) 김유((金瑬) : 조선 인조 때의 문신(1571~1648). 자는 관옥(冠玉). 호는 북저(北渚). 인조반정 때에 공을 세워, 정사공신이 되었다. 병자호란 때에는 영의정으로서 최명길 등과 더불어 화의를 주장하여 왕이 항복하게 하였다. 시문에 뛰어났다.
1274) 소서(少西) : 조선 시대에 있었던, 서인 가운데 이귀, 장유 등의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분파. 인조 때 공서(功西)의 수령인 김유에 반발하고 갈려 나왔다.
1275) 김상헌(金尙憲) : 조선 중기의 문신(1570~1652). 자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淸陰)·석실산인(石室山人)·서간노인(西磵老人). 대제학, 이조 판서, 예조 판서, 공조 판서, 병조 판서를 지냈다. 저서에 ≪야인담록(野人談錄)≫·≪풍악문답(豊岳問答)≫ 따위가 있고, ≪청구영언≫ 따위의 가곡집에 시조 4수가 전한다.
1276) 신서(申西) : 조선 시대에, 서인 가운데 신흠을 중심으로 조직한 분파.
1277) 신흠(申欽) : 조선 인조 때의 학자·문신(1566~1628). 자는 경숙(敬叔). 호는 상촌(象村)·현옹(玄翁)·현헌(玄軒)·방옹(放翁). 선조의 유교 칠신의 한 사람이며 정주학자로 유명하다. 저서에 ≪상촌집≫이 있다.
1278) 윤서(尹西) : 조선 선조 말기에서 광해군 초기에, 잠시 득세하였던 서인(西人)의 일파. 윤방(尹昉) 일당으로, 신흠(申欽)의 일당인 신서(申西)와 대립하였다.
1279) 윤방(尹昉) : 조선 시대의 문신. 1618년(광해군 10) 인목대비를 폐위하자는 정청에 불참, 사직했다가 인조반정으로 예조판서에 등용되었다.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왕을 강화에 호종했으며, 병자호란 때는 묘사제조로서 신주를 모셨다.
1280) 청남(淸南) : 조선 시대에, 남인(南人) 가운데 허목(許穆)을 영수로 한 분파. 숙종 때 복제(服制) 문제로 세력을 잡은 뒤 서인의 죄를 엄하게 다루자고 주장하였다.
1281) 허목(許穆) : 조선 숙종 때의 문신·학자(1595~1682). 자는 문보(文甫)·화보(和甫). 호는 미수(眉叟). 제자백가와 경서 연구에 전념하였으며 특히 예학(禮學)에 밝았다. 저서에 ≪경설(經說)≫, ≪동사(東事)≫ 따위가 있다.
1282) 탁남(濁南) : 조선 시대에, 남인(南人) 가운데 허적을 중심으로 한 분파. 숙종 때 남인이 정권을 잡은 뒤 서인의 우두머리인 송시열의 죄를 논할 때에 온건한 입장에 서 있었다.
1283) 허적(許積) : 조선 숙종 때의 문신(1610~1680). 자는 여차(汝車). 호는 묵재(默齋)·휴옹(休翁). 남인(南人)의 우두머리로 권력을 잡았으며, 1678년에 상평통보를 만들어 사용하게 하였다. 뒤에 서자(庶子) 견(堅)의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살해되었다.
1284) 노론(老論) : 조선 시대에, 사색당파의 하나. 남인(南人)에 대한 처벌 문제로 서인(西人)에서 갈려 나온 당파이다. 숙종 9년(1683)에 송시열, 김익훈 등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285) 송시열(宋時烈) : 조선 숙종 때의 문신·학자(1607~1689). 아명은 성뢰(聖賚).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尤庵)·우재(尤齋). 효종의 장례 때 대왕대비의 복상(服喪) 문제로 남인과 대립하고, 후에는 노론의 영수(領袖)로서 숙종 15년(1689)에 왕세자의 책봉에 반대하다가 사사(賜死)되었다. 저서

에 ≪우암집≫, ≪송자대전(宋子大全)≫ 따위가 있다.

1286) 소론(少論) : 조선 시대에, 사색당파의 하나. 서인(西人) 가운데 소장파인 한태동, 윤증 등을 중심으로 한 당파이다. 숙종 때에 경신출척 이후 남인(南人)의 숙청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장파와 갈라졌다.

1287) 윤증(尹拯) : 조선 숙종 때의 학자(1629~1714). 자는 자인(子仁). 호는 명재(明齋)·유봉(酉峯). 예론(禮論)에 정통한 학자로 이름이 높았으며, 수차 벼슬이 내려졌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남인에 대한 입장이 달라 서인이 둘로 나뉜 후 소론의 영수로 추대되었다. 저서로 ≪명재유고(明齋遺稿)≫ 따위가 있다.

1288) 부화(附和) : 주견이 없이 경솔하게 남의 의견에 따름.

1289) 모략중상(謀略中傷) : 남을 모략하여 명예를 손상시킴. 또는 그런 일.

1290) 논척(論斥) : 옳고 그름을 따져 물리침.

1291) 당쟁(黨爭) : 당파를 이루어 서로 싸우던 일.

1292) 격심(隔心) : 격의(隔意). 서로 터놓지 않는 속마음.

1293) 탐지(探知) :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나 물건 따위를 더듬어 찾아 알아냄.

1294) 통신사(通信使) : 조선 시대에, 일본으로 보내던 사신. 고종 13년(1876)에 수신사(修信使)로 고쳤다.

1295) 명목(名目) :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

1296) 정사(正使) : 사신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또는 그런 지위.

1297) 황윤길(黃允吉) : 조선 선조 때의 문관(1536~?). 자는 길재(吉哉). 호는 우송당(友松堂). 임진왜란 직전인 1590년에 통신 정사(通信正使)로 일본에 다녀와 장차 일본의 침략이 있을 것을 보고하였으나 조정에 채택되지 않았다.

1298) 부사(副使) : 정사(正使)를 돕던 버금 사신.

1299) 김성일(金誠一) :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1538~1593). 자는 사순(士純). 호는 학봉(鶴峯). 선조 1년(1568)에 증광 문과에 급제하고, 1590년에 통신 부사로서 일본에 가서 실정을 살핀 후, 침략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우도 관찰사로 임명되어 의병 규합, 군량미 확보 등에 힘썼다. 저서에 ≪학봉집≫, ≪상례고증(喪禮考證)≫ 따위가 있다.

1300) 복명(復命) : 명령을 받고 일을 처리한 사람이 그 결과를 보고함.

1301) 풍신수길(豊臣秀吉) :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의 무장·정치가(1536~1598). 일본을 통일하고 중국 대륙 침략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공격하여, 임진왜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1302) 괴걸(怪傑) : 괴상할 정도로 재주나 힘이 뛰어남. 또는 그런 사람.

1303) 평란(平亂) : 난리를 평정함.

1304) 막부(幕府) : 1192년에서 1868년까지 일본을 통치한 쇼군의 정부.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쇼군이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졌다. 1192년에 미나모토 요리토모(源賴朝)가 가마쿠라(鎌倉)에 최초의 막부를 설치하였다.

1305) 필유병화(必有兵禍) : 반드시 병화(兵禍)가 있음.

1306) 무비(無備) : 군사에 관련된 장비. 또는 그 장비를 준비하는 일.

1307) 주창(主唱) : 주의나 사상을 앞장서서 주장함.

1308) 승평(承平) : 태평한 세상.

1309) 군기(軍器) : 전쟁에 쓰는 도구나 기구.
1310) 가등청정(加藤淸正) : 가토 기요마사. 일본의 무장(1562~1611).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선봉으로 종군하였다.
1311) 소서행장(小西行長) : 고니시 유키나가. 일본의 무장(?~1600). 임진왜란 때에 선봉장으로 조선에 출병하여 평양까지 침공하였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죽은 뒤에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와 싸우다 패하여 살해되었다.
1312) 송상현(宋象賢) : 조선(朝鮮) 시대(時代) 14대 선조(宣祖) 때의 지사(志士) 자는 덕구(德求), 호는 천곡(泉谷) 본은 여산(礪山) 선조(宣祖)9(1576)년 문과(文科)에 급제(及第), 24(1591)년 동래부사로 내려가, 그 이듬해 임진년 4월 15일 남문(南門)에 올라가 독전하다가 순절했음. 19대 숙종(肅宗) 35(1760)년에 민 정중이 송 상현의 충절에 감복,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동래의 격전장 모습을 그린 동래부 순절도가 1972년에 송 장군(將軍) 후
1313) 첨사(僉使) : 첨절제사(僉節制使)의 준말로 조선조(朝鮮朝) 때 각 진영(鎭營)에 딸린 종3품(從三品) 무관(武官) 벼슬. 절도사(節度使)의 아래로, 병영(兵營)에 병마 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 수영(水營)에 수군 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가 있음. 다만 목(牧)·부(府)의 소재지(所在地)에는 목사나 부사가 이를 겸임하며, 각 진영(鎭營) 안의 전임일 경우(境遇)에는 약하여 첨사(僉使)라고만 일컬음.
1314) 정발(鄭撥) :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의 무장(武將). 자는 자고(子固), 호는 백운(白雲), 본은 경주(慶州). 14대 선조(宣祖) 때 무과(武科)에 급제(及第), 선전관(宣傳官)이 됐음.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부산진 첨절제사로, 부산(釜山)에 침입(侵入)한 왜적과 싸우다가 병력(兵力)이 모자라 성이 함락(陷落)될 때 전사(戰死). 좌찬성에 추증. 동래 충렬사에 제향(祭享).
1315) 역진(力盡) : 힘이 다 지침.
1316) 열읍(列邑) : 여러 고을.
1317) 탄금대(彈琴臺) : 충북(忠北) 충주시 북서쪽(北西-) 4km지점(地點)에 있는 명승지(名勝地). 우륵(于勒)이 즐겨 가야금을 타던 곳이라고 전(傳)하여짐.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신립 장군(將軍)이 왜장 코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싸워 전사(戰死)한 전쟁터(戰爭-)임. 부근(附近)에 개원사(開元寺)가 있음.
1318) 도순변사(都巡邊使) :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 군무(軍務)를 총괄(總括)하던 임금의 특사(特使).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신립(申砬)이 도순변사가 되었음.
1319) 신립(申砬) : 조선 선조 때의 무장(1546~1592). 자는 입지(立之). 한성부 판윤을 지냈으며, 임진왜란 때 왜군을 막다가 전사하였다.
1320) 사세(事勢) : 일이 되어 가는 형세(形勢).
1321) 파천(播遷) : 임금이 도성(都城)을 떠나 딴 곳으로 피란함.
1322) 발정(發程) : 길을 떠남.
1323) 도원수(都元帥) : 고려(高麗) 때부터 전쟁(戰爭)이 있을 적에 군무(軍務)를 통괄하던 장수(將帥). 임시(臨時) 무관직(武官職)으로, 대개 문관(文官)의 최고관(最高官)을 임명(任命)했음. 또는, 한 지방(地方)의 병권(兵權)을 도맡은 장수(將帥).
1324) 김명원(金命元) : 조선 중기의 문신(1534~1602). 자는 응순(應順). 호는 주은(酒隱). 이황의 문인(門人)으로서, 임진왜란 때 팔도 도원수로 참여하고 좌의정에 이르렀다.
1325) 정병(精兵) : 우수하고 강한 군사.

1326) 승승장구(乘勝長驅) : 싸움에서 이긴 기세(氣勢)를 타고 계속(繼續) 적을 몰아침.
1327) 통곡관산월(痛哭關山月) : 변방의 산에 뜬 달 보고, 통곡을 함.
1328) 상심압수풍(傷心鴨水風) : 압록강에 부는 바람에 마음 상하네.
1329) 조신금일후(朝臣今日後) : 조정 대신들 오늘 이후로는.
1330) 영부경동서(寧復更東西) : 어찌 다시 동서분당 싸움질 고쳐하겠소.
1331) 창생(蒼生) : 백성.
1332) 원균(元均) : 조선 선조 때의 무신(1540~1597). 자는 평중(平仲). 임진왜란 때 경상 우수사로, 왜군이 침입했을 때에 이순신의 도움으로 승리하였으나 이순신이 삼도 수군통제사가 된 것에 불복하여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좌천되었다. 정유재란 때 적의 유인 전술에 말려들어 칠천도(漆川島)에서 부대가 전멸되고 자신도 전사하였다.
1333) 원병(援兵) : 구원(救援)하는 병정(兵丁). 도와주는 군사(軍士).
1334) 이억기(李億祺) : 조선 선조 때의 무신(1561~1597). 자는 경수(景受). 임진왜란 때에 전라우도 수사로 이순신을 도와 옥포(玉浦), 당포(唐浦) 등의 해전(海戰)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정유재란 때에 한산도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1335) 한산대첩(閑山大捷) : 조선 선조 25년(1592)에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워 크게 이긴 일. 임란 삼대첩의 하나로, 일본의 함선 47척을 격침하고 12척을 나포하였다.
1336) 근왕병(勤王兵) : 임금에게 충성(忠誠)을 다하는 군사(軍士).
1337) 황진(黃進) : 조선 선조 때의 무신(1550~1593). 자는 명보(明甫). 호는 아술당(蛾述堂). 통신사 황윤길을 따라 일본에 다녀온 후 일본의 내침에 대비, 스스로 병법을 연마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충청 병마절도사로 왜군을 무찌르고 진주성을 사수하다가 전사하였다.
1338) 초토사(招討使) : 조선 시대에, 변란을 평정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임시로 보내던 벼슬아치.
1339) 고경명(高敬命) : 조선 시대의 문인・의병장(1533~1592). 자는 이순(而順). 호는 제봉(霽峯)・태헌(苔軒). 1558년 문과에 급제한 뒤 교리(校理), 동래 부사(東萊府使) 따위를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이끌고 금산(錦山)에서 왜군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저서에 ≪제봉집≫, ≪서석록(瑞石錄)≫ 따위가 있다.
1340) 고종후(高從厚) : 조선 시대의 의병장(1554~1593). 자는 도충(道冲). 호는 준봉(隼峯). 임진왜란 때 아버지 경명(敬命)을 따라 의병을 일으켰으며, 진주성이 왜병에게 함락되었을 때 남강에서 자결하였다.
1341) 김천일(金千鎰) : 조선 선조 때의 의병장(1537~1593). 자는 사중(士重). 호는 건재(健齋). 임진왜란 때에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경기・경상・전라・충청 4도에서 활약하였으며, 진주성이 함락되자 자결하였다. 저서에 ≪건재집≫이 있다.
1342) 최경회(崔慶會) : 조선 중기의 문신. 1567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영해군수가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이 되어 금산, 무주 등지에서 왜병과 싸워 크게 이겼다. 이듬해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 승진했으나 6월 제2차 진주성 싸움에서 9주야를 싸우다가 전사했다.
1343) 영규(靈圭) : 조선 선조 때의 승병장(?~1592). 속성은 박(朴). 호는 기허(騎虛).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을 모아 청주를 수복하고, 금산에서 왜군과 격전 끝에 전사하였다.
1344) 조중봉(趙重峯) : 조헌(趙憲).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의병장・학자(1544~1592).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峯)・도원(陶原)・후율(後栗). 이이의 문인으로 기발이승 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지지하여 스승의 학문을 계승・발전시켰다. 임진왜란 때 옥천, 홍성 등지에서 의병을 일으켜 활약하였으나 금산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하였다. 저서에 ≪중봉집≫이 있으며, ≪청구영언≫에 시조 세 수가 전한다.

1345) 순무사(巡撫使) : ①조선(朝鮮) 시대(時代) 때의 임시(臨時) 벼슬. 지방(地方)에서 일어난 반란(叛亂)과 전시(戰時)의 군무를 맡아보았음 ②고려(高麗) 때의 벼슬. 25대 충렬왕(忠烈王) 2(1276)년에 안무사(安撫使)를 개칭(改稱)한 것으로, 백성(百姓)들의 질병(疾病)과 지방관(地方官)들의 잘잘못을 살폈음. 순무 대장(巡撫大將).

1346) 청병(請兵) : 출병(出兵)하기를 요청(要請)함. 원병(援兵)을 청(請)함.

1347) 정곤수(鄭崑壽) : 조선 중기 문신. 황해도 관찰사로 나가 기근을 잘 극복하여 서천군에 봉해졌고 이어 병조・이조의 참판, 대사간을 거쳐 임진왜란 때 우승지로서 선조의 서행에 호종하였다. 호종의 원훈으로 책록되었으며 서역에 뛰어나고 전고에도 밝았다.

1348) 조승훈(祖承訓) : 명나라 말기의 요동 부총병이다. 임진왜란 당시 명 우군 부총병으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차 원병 사령관으로 참전했다. 그러나 제2차 평양 전투에서 일본군의 매복술에 크게 패했고 이후 겨우 수십 기의 병사만 데리고 요동으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제4차 평양 전투에서 부총병으로 참전하여 승리했다.

1349) 심유경(沈惟敬) : 중국 명나라의 사신(?~1597). 임진왜란 때 조선에 와 일본과의 화의를 위하여 여러 차례 일본을 왕래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런 사실을 숨기고 화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고하였다가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처형되었다.

1350) 소서비(小西飛) : 나이토 조안(일본어

1351) 고혼(孤魂) : 의지(依支)할 곳 없이 외롭게 떠다니는 몫,

1352) 황극전(皇极殿) : 1689년에 축조되었고, 최초 명칭은 닝서우궁[宁寿宫]이었다. 1772년에서 1776년에 걸쳐 닝서우궁 지역을 개축하면서 명칭을 황지뎬으로 변경하였다.

1353) 고두(叩頭) : 경의(敬意)를 나타내려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

1354) 홍순언(洪純彦) : 1530년(중종 25)~1598년(선조 31). 본관은 남양(南陽). 조선 선조 때의 한어 역관으로 아버지는 증 가선대부 홍겸이다.

1355) 대도독(大都督) : ①전군(全軍)의 통솔자(統率者) ②중국(中國)의 관명. 도독의 하나로서 중임을 맡았음. 육조(六朝) 위(魏)나라에서 시작(始作)됨.

1356) 이여송(李如松) : 중국 명나라의 무장(武將)(?~1598). 자는 자무(子茂). 호는 앙성(仰城). 임진왜란 때에 병사 4만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도우러 와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군을 무찔렀으나, 벽제관(碧蹄館) 싸움에서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에게 크게 패하였다.

1357) 송응창(宋應昌) : 송응창(宋應昌, 1536년~1606년)은 명나라의 장수로 자는 사문(思文)이며 인화(仁和-지금의 항저우)사람이다. 가정(嘉靖)44년(1565년)에 진사에 뽑혔고 역관강주지부(歷官絳州知府), 부도어사(副都御史), 산동순무(山東巡撫), 주건영위순사(籌建營衛巡司)를 거치면서 정치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1592년 12월 명군의 지휘부, 경략군문 병부시랑을 직으로 이여송(李如松)과 함께 4만 3000명의 명나라 2차 원군의 총사령관으로

1358) 지용(智勇) : 지혜와 용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

1359) 계월향(桂月香) : 조선 시대의 기생(?~1592). 임진왜란 때 적장(敵將)을 유인하여 김응서(金應瑞)로 하여금 목을 베게 한 후 자결하였다.

1360) 논개(論介) : 조선 선조 때의 의기(義妓)(?~1593). 진주의 관기(官妓)로, 임진왜란 때에 진주성이 함락되자 촉석루의 술자리에서 당시 왜장(倭將)이었던 게야무라 후미스케(毛谷村文助)를 껴안고 남강에 떨어져 죽었다.

1361) 천추(千秋) : 오래고 긴 세월. 또는 먼 미래.

1362) 김시민(金時敏) : 조선 전기의 무신(1554~1592). 자는 면오(勉吾). 임진왜란 때 왜적을 격파하여 영남우도 병마절도사로 특진하고, 진주성에서 분전하다가 전사하였다.

1363) 김면(金沔) : 조선 중기 학자 겸 의병장. 이황 문하에서 성리학을 연마하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 임진왜란 때 조종도 ·곽준 ·문위 등과 거창 ·고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저서에《송암실기》가 있다.

1364) 의용군(義勇軍) : 전쟁(戰爭), 사변(事變) 등(等) 국가(國家)의 위급(危急)을 구(救)하기 위(爲)하여 민간(民間)에서 일어나 조직(組織)된 군대(軍隊). 의용군(義勇軍)

1365) 수복(收復) : 잃었던 땅을 다시 차지함.

1366) 곽재우(郭再祐) : 조선 중기의 의병장(1552~1617). 자는 계수(季綏). 호는 망우당(忘憂堂). 임진왜란 때 의령(宜寧)에서 의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웠고, 정유재란 때 다시 의병장으로 출전하였다. 그 뒤 진주 목사, 함경도 관찰사 따위를 지냈다.

1367) 정인홍(鄭仁弘) : 조선 중기의 문신 · 학자(1535~1623). 자는 덕원(德遠). 호는 내암(萊庵). 임진왜란 때에 합천에서 의병을 모아 활약하여 영남 의병장의 호를 받았다. 대북(大北)의 영수(領袖)로 광해군 즉위 후에 영의정에 올랐다. 저서에 문집 ≪내암집≫이 있다.

1368) 권응수(權應銖) : 조선 선조 때의 의병장(1546~1608). 자는 중평(仲平). 호는 백운재(白雲齋).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워 화산군(花山君)에 봉해졌다.

1369) 이원익(李元翼) : 조선 중기의 명신(1547~1634).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 1569년 문과에 급제하여 우의정, 영의정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 대동강 서쪽을 잘 방어하여 호성공신(扈聖功臣)이 되었으며 대동법을 시행하여 공부(貢賦)를 단일화하였다. 저서에 ≪오리집≫, ≪오리일기≫가 있다.

1370) 가등청정(加藤淸正) : 가토 기요마사. 일본의 무장(1562~1611).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선봉으로 종군하였다.

1371) 국경인(鞠景仁) : 조선 선조 때의 반란자(?~1592).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무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키고, 회령에 피란 와 있던 두 왕자 임해군, 순화군(順和君)을 왜군에 넘겨준 뒤 유생들에게 살해되었다.

1372) 임해(臨海) : 조선 선조의 맏아들(1574~1609). 이름은 진(珒). 초명은 진국(鎭國). 임진왜란 때 왜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석방되었다. 광해군 즉위 후 유배되었다가 죽었다.

1373) 순화(順和) : 조선 선조 6번째 왕자. 성질이 포악하여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양사의 탄핵을 받았으며, 순화군의 군호까지 박탈당하였으나 사후에 복구되었다.

1374) 김귀영(金貴榮) : 조선 중기의 문신(1520~1593). 자는 현경(顯卿). 호는 동원(東園). 부제학, 대제학 등을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임진왜란 때 적과 내통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희천으로 유배되어 죽었다. 숙종 때 신원(伸冤)되었다.

1375) 황정욱(黃廷彧) : 조선 선조 때의 문신(1532~1607). 자는 경문(景文). 호는 지천(芝川). 임진왜란 때, 왕자 순화군(順和君)을 수행하여 강원도와 함경도 지방에서 의병을 모집하다가 왜장에게 붙잡

힌 일이 있는데, 후에 이 일 때문에 탄핵을 받고 유배되었다.
1376) 정문부(鄭文孚) :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의병장(1565~1624). 자는 자허(子虛). 호는 농포(農圃). 시호는 충의(忠毅).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국경인(鞠景仁) 등의 반란을 평정하였다. 저서에 ≪농포집≫이 있다
1377) 이붕수(李鵬壽) : 1592년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의병(義兵)을 일으켜 길주, 서천 등지의 싸움에서 공을 세우고 옥탑평(玉搭坪) 싸움에서 전사했다. 전공으로 지평(持平)에 추증되고 뒤에 다시 감찰(監察)에 가증(加贈)되었다.
1378) 국경인(鞠景仁) : 조선 선조 때의 반란자(?~1592).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무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키고, 회령에 피란 와 있던 두 왕자 임해군, 순화군(順和君)을 왜군에 넘겨준 뒤 유생들에게 살해되었다.
1379) 행주대첩(幸州大捷) : 조선 선조 26년(1593)에 전라도 순찰사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왜적을 크게 물리친 싸움. 임란 삼대첩의 하나이다.
1380) 김덕령(金德齡) : 조선 중기의 의병장(1567~1596). 자는 경수(景樹).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왜병을 크게 무찔러 호익장군(虎翼將軍)의 호를 받았고, 이듬해 의병장 곽재우와 함께 여러 차례 왜병을 격파하였다. 선조 29년(1596)에 무고로 고문을 받고 옥사하였다.
1381) 풍진(風塵) : ①바람과 티끌 ②세상(世上)에 일어나는 어지러운 일.
1382) 유공(有功) : 공로(功勞)가 있음.
1383) 이몽학(李夢鶴) : 조선 선조 때의 반란자(?~1596). 임진왜란 후 기근으로 굶주린 농민을 선동하여 홍산과 청양 등지를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하다가 배신한 부하의 손에 죽었다.
1384) 국살(鞫殺) : 국청(鞫廳)에서 중죄인을 신문하여 죽임.
1385) 승기자(勝己者)를 염지(厭之) : 재주가 자기(自己)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함.
1386) 적재적소(適材適所) : 어떤 일에 적당(適當)한 재능(才能)을 가진 자에게 적합(適合)한 지위(地位)나 임무(任務)를 맡김.
1387) 진공(進攻) : 진격(進擊).
1388) 홍가신(洪可臣) : 조선 선조 때의 문신(1541~1615). 자는 흥도(興道). 호는 만전당(晩全堂). 1589년 정여립의 모반 사건 후 파직되었다가 1594년 홍주 목사(洪州牧使)로 부임하여 이몽학의 난을 평정하고 청난공신이 되었다.
1389) 박명현(朴名賢) : 조선 중기의 무신. 이몽학(李夢鶴)의 난 때 홍주성(洪州城)을 사수하였다. 정유재란 때는 전라도병마절도사를 지냈다. 청난공신(淸難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1390) 최호(崔湖) : 조선 중기의 무신이다. 임진왜란 때 이몽학의 난 진압에 공을 세웠고, 칠전해전에서 원균 등과 함께 전사하였다.
1391) 토평(討平) : 무력으로 쳐서 평정(平定)함.
1392) 공모(共謀) : 둘 이상(以上)이 같이 일을 꾀함.
1393) 격소(檄召) : 격문(檄文)을 돌려 동지를 불러 모음.
1394) 이여송(李如松) : 중국 명나라의 무장(武將)(?~1598). 자는 자무(子茂). 호는 앙성(仰城). 임진왜란 때에 병사 4만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도우러 와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군을 무찔렀으나, 벽제관(碧蹄館) 싸움에서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에게 크게 패하였다.
1395) 화의(和議) : 화해(和解)하는 의논(議論).

1396) 명산대천(名山大川) : 이름난 큰 산과 큰 내, 경개 좋고 이름난 산천(山川).
1397) 이억기(李億祺) : 조선 선조 때의 무신(1561~1597). 자는 경수(景受). 임진왜란 때에 전라우도 수사로 이순신을 도와 옥포(玉浦), 당포(唐浦) 등의 해전(海戰)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정유재란 때에 한산도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1398) 조종도(趙宗道) : 조선 시대의 문신(1537~1597). 자는 백유(伯由). 호는 대소헌(大笑軒). 조식(曺植)의 문인으로, 선정(善政)을 베풀었고 정유재란 때에 의병을 규합하여 왜군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1399) 내박(來泊) : (배가)어떤 곳에 와서 정박(碇泊・淳泊)함.
1400) 중환(中丸) : 총탄에 맞음.
1401) 서해어룡동(誓海漁龍動) : 바다를 두고 맹세하면 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1402) 맹산초목지(盟山草木知) : 산을 향해 맹세할 때 풀과 나무도 알 것이다.
1403) 사적(史蹟) : 역사(歷史) 상(上)으로 남아 있는 중대(重大)한 사건(事件)이나 여러 가지 사실(事實)의 자취.
1404) 일조(一朝) : 하루 아침.
1405) 회신(灰燼) : ①재와 불탄 끄트러기 ②흔적(痕跡・痕迹) 없이 아주 타 없어짐.
1406) 국용(國用) : 나라의 소용(所用).
1407) 탕갈(蕩竭) : 재물(財物)을 남김 없이 다 써 버림.
1408) 초토(焦土) : ①불에 타고 그슬린 땅 ②불타서 없어진 자리, 또는 그 남은 재.
1409) 도탄(塗炭) : 진흙탕에 빠지고 숯불에 탄다는 뜻으로, 생활(生活)이 몹시 곤궁(困窮)하고 고통(苦痛)스러운 지경(地境)을 이르는 말.
1410) 여분(餘憤) : 분한 일을 겪은 뒤 아직 가라앉지 않는 분기(憤氣).
1411) 속성(俗姓) : 승려가 되기 전의 성.
1412) 가화(家禍) : 집안에 일어난 재앙.
1413) 도통(道通) : 사물(事物)의 오묘(奧妙)한 이치(理致)를 깨달아서 통(通)함.
1414) 생불(生佛) : ' 살아 있는 부처 ' 라는 뜻으로, 부처나 다름없이 아주 덕행(德行)이 높은 중.
1415) 덕천가강(德川家康) :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의 에도 막부의 초대 쇼군(1543~1616). 처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밑에 있었으나 그가 죽은 뒤 도요토미 일족을 멸하고 전국(戰國)을 제패하여 에도 막부를 세웠다.
1416) 시시비비(是是非非) :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한다는 뜻으로, 사리(事理)를 공정(公正)하게 판단(判斷)함을 이르는 말.
1417) 정여립(鄭汝立) : 조선 중기의 역신(逆臣)(1546~1589). 자는 인백(仁伯). 수찬(修撰)을 지냈다. 정권을 잡으려는 야심으로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하고 참위설을 퍼뜨려 모반을 꾀하려다 탄로 나자 도주하여 자살하였다.
1418) 박충간(朴忠侃) : 조선 중기의 문신. 정여립의 모반을 고변한 공을 세웠고 임진왜란 때 순검사로 성의 수축을 맡고 영 ·호남지방에 파견되어 군량미를 조달했으며 백성의 구호에 힘썼다.
1419) 한응인(韓應寅) : 조선 중기의 문신(1554~1614). 자는 춘경(春卿). 호는 백졸재(百拙齋)・유촌(柳村). 임진왜란 때 팔도 순찰사가 되어 공을 세워 호조 판서로 임명되었다. 뒤에 선조가 위독할 때 유교칠신의 한 사람으로 영창 대군의 보호를 부탁받았다가 광해군 때 계축옥사에 연루되어 관직을 삭탈당하였다.

1420) 목릉(穆陵) :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조선 선조와 비(妃) 의인 왕후 및 계비(繼妃) 인목 대비의 능. 동구릉의 하나이다.
1421) 동궁(東宮) : 황태자(皇太子), 왕세자(王世子)
1422) 이이첨(李爾瞻) : 조선 광해군 때의 문신(1560~1623). 자는 득여(得輿). 호는 관송(觀松)・쌍리(雙里). 선조의 후사(後嗣) 문제로 대북(大北)과 소북(小北)이 대립하자 대북의 영수로서 광해군의 옹립을 주장하다가 유배되었으나, 광해군이 즉위하자 예조 판서에 올랐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실각되었다.
1423) 정인홍(鄭仁弘) :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1535~1623). 자는 덕원(德遠). 호는 내암(萊庵). 임진왜란 때에 합천에서 의병을 모아 활약하여 영남 의병장의 호를 받았다. 대북(大北)의 영수(領袖)로 광해군 즉위 후에 영의정에 올랐다. 저서에 문집 ≪내암집≫이 있다.
1424) 학정(虐政) : 포학한 정치.
1425) 유영경(柳永慶) : 조선 선조 때의 문신(1550~1608). 자는 선여(善餘). 호는 춘호(春湖).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냈고, 북인이 대・소로 분당될 때 소북의 영수가 되었으며, 선조 말 광해군 대신 영창 대군을 옹립하려다가 대북 일파의 탄핵으로 사약을 받았다.
1426) 역률(逆律) : 역적을 처벌하는 법률.
1427) 주살(誅殺) : 죄를 물어 죽임.
1428) 임해군(臨海君) : 조선 선조의 맏아들(1574~1609). 이름은 진(珒). 초명은 진국(鎭國). 임진왜란 때 왜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석방되었다. 광해군 즉위 후 유배되었다가 죽었다.
1429) 적제(嫡弟) : 서자(庶子)가 자기(自己) 아버지의 정실에서 난 아우를 이르는 말.
1430) 영창대군(永昌大君) : 조선 선조의 아들(1606~1614). 이름은 의(瑢). 정비(正妃) 인목 왕후(仁穆王后)의 소생이었으나 이이첨 등의 무고로 강화에 유배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1431) 참살(慘殺) : 참혹하게 죽임.
1432) 국구(國舅) : 왕비의 아버지.
1433) 김제남(金悌男) : 조선 중기의 문신(1562~1613). 자는 공언(恭彦). 선조의 장인으로 돈령부 영사를 제수받고 연흥 부원군으로 봉해졌다. 광해군 때에 영창 대군을 추대한다는 무고를 받고 사사(賜死)되었다.
1434) 치죄(治罪) : 허물을 가려내어 벌을 줌.
1435) 적모(嫡母) : 서자가 아버지의 정실을 일컫는 말. 큰어머니.
1436) 인목대비(仁穆大妃) : 조선 선조의 계비(繼妃)(1584~1632). 성은 김(金). 선조 35년(1602) 왕비에 책봉되었으나 광해군이 즉위하자 대북(大北)의 모략으로 서궁(西宮)에 유폐되었다가 인조반정으로 풀려났다.
1437) 폐출(廢黜) : 작위나 관직을 떼고 내침.
1438) 허균(許筠) : 조선 시대의 문신・소설가(1569~1618). 자는 단보(端甫). 호는 교산(蛟山)・성소(惺所)・학산(鶴山)・백월거사(白月居士). 서자를 차별 대우 하는 사회 제도에 반대하였으며, 광해군의 폭정에 항거하기 위하여 서인을 규합하여 반란을 계획하다 발각되어 참형을 당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소설인 <홍길동전>을 지었으며, 시문집으로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등이 있다.
1439) 한찬남(韓纘男) :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1613년 부응교로 있으면서 영창대군을 처벌할 것을 주장하였고, 1616년에는 해주옥사를 일으켜 소북파 제거에 앞장섰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주살되었다.

1440) 한효순(韓孝純) : 조선 중기의 문신(1543~1621). 자는 면숙(勉叔). 호는 월탄(月灘). 임진왜란 때 왜군을 격파하고 경상좌도 관찰사에 올라 군량미를 조달하는 데 공을 세웠다. 광해군 때 인목 대비의 폐모론(廢母論)을 발의하고 이를 반대하는 무리들을 유배하였다.
1441) 정조(鄭造) : 조선 시대의 문신(1559~1623). 자는 시지(始之). 이이첨의 앞잡이가 되어 폐모론(廢母論)을 주장하였으며, 인조반정 후 사형되었다.
1442) 안치(安置) : 유배(流配) 죄인(罪人)을 가두어 둠.
1443) 황망(慌忙) : 몹시 급하고 당황하여 어리둥절함.
1444) 분개(憤慨) : 몹시 분하게 여김.
1445) 권필(權韠) : 조선 중기의 문인(1569~1612). 자는 여장(汝章). 호는 석주(石洲). 정철의 문인(門人)으로 시와 문장이 뛰어났으나 광해군 척족(戚族)들의 방종을 비방하였다가 귀양 가는 도중에 죽었다. 저서에 ≪석주집≫과 작품에 한문 소설 <주생전(周生傳)> 등이 있다.
1446) 궁류청청앵란비(宮柳靑靑鶯亂飛) : 궁중의 버들이 청청하고 꾀꼬리가 어지러이 나는데.
1447) 만성도리미춘휘(滿城桃李媚春暉) : 온 성안 오얏 꽃・복사꽃 봄볕에 아양 떠네.
1448) 조가공하승평락(朝家共賀昇平樂) : 조정에서는 모두 태평성대를 축하하건만.
1449) 수견위언출포의(誰遣危言出布衣) : 누구를 보내 위태로운 말로 포의로 내쫓는가.
1450) 누르하치 : 중국 후금(後金)의 초대 황제(1559~1626). 여진족의 추장에서 칸(khan) 자리에 올라 후금이라 칭하였다. 여진족을 통합하고 만주 문자를 제정하여 청나라 발전의 기틀을 세웠다. 재위 기간은 1616~1626년이다.
1451) 공벌(攻伐) : 공격하여 정벌함.
1452) 강홍립(姜弘立) : 조선 광해군 때의 무신(1560~1627). 자는 군신(君信). 호는 내촌(耐村). 광해군 11년(1619)에 심천(深川) 싸움에 오도 도원수(五道都元帥)로 출정하였다가 후금(後金)의 포로가 되어 9년간 그곳에 머물렀다. 그 뒤 정묘호란 때 후금의 사신으로 강화(江華)에 와서 화의를 주선한 후에 국내에 머물렀으나, 역신으로 몰려 단식하다가 죽었다.
1453) 김응하(金應河) : 조선 중기의 무신(1580~1619). 자는 경의(景義). 삼수 군수・북우후(北虞侯) 등을 지냈으며, 광해군 11년(1619)에 명나라의 원병 요청으로 만주의 건주위(建州衛)를 치러 출정하였다가 전사하였다.
1454) 모살(謀殺) : 미리 꾀하여 사람을 죽임.
1455) 광망(狂妄) : 걷잡을 수 없이 망령(妄靈)되어서 이치(理致)에 맞지 않음.
1456) 간계(奸計) : 간사한 꾀.
1457) 사직(社稷) : 나라나 조정.
1458) 이귀(李貴) : 조선 중기의 문신(1557~1633). 자는 옥여(玉汝). 호는 묵재(默齋). 김유(金瑬)와 더불어 인조반정을 성사시켜 연평 부원군에 봉하여졌으며, 벼슬은 병조 판서와 이조 판서에 이르렀다. 정묘호란 때 왕을 모시고 강화에 피란 중, 화의를 주장하다가 탄핵을 받았다. 저서에 ≪묵재일기≫가 있다.
1459) 김류(金瑬) : > 조선 인조 때의 문신(1571~1648). 자는 관옥(冠玉). 호는 북저(北渚). 인조반정 때에 공을 세워, 정사공신이 되었다. 병자호란 때에는 영의정으로서 최명길 등과 더불어 화의를 주장하여 왕이 항복하게 하였다. 시문에 뛰어났다.
1460) 최명길(崔鳴吉) : 조선 중기의 문신(1586~1647). 자는 자겸(子謙). 호는 지천(遲川)・창랑(滄

浪). 병자호란 때에 화평(和平)을 주장하고 항서(降書)를 써서 청나라에 항복하였다. 성리학과 문장에 뛰어나고 글씨에도 일가를 이루었다. 저서에 ≪지천집≫, ≪경서기의(經書記疑)≫ 등이 있다.

1461) 원두표(元斗杓) : 조선 인조 때의 무신(1593~1664). 자는 자건(子建). 호는 탄수(灘叟)·탄옹(灘翁). 인조반정 때 공을 세워 평원군(平原君)이 되었으며, 병자호란 때는 왕을 남한산성으로 호종하여 어영대장이 되었고, 서인들의 파가 갈릴 때에는 원당(原黨)을 이끌고 그 영수가 되었다.

1462) 돈의문(敦義門) : 조선 시대에 건립한 한양 도성의 서쪽 정문. 사대문의 하나로, 경희궁 앞 서쪽의 마루턱인 지금의 신문로 언덕에 있었으나 1915년에 헐었다.

1463) 내응(內應) : 내부에서 은밀히 적과 통함.

1464) 난신(亂臣) :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신하.

1465) 정배(定配) : 귀양살이 할 곳을 정하여 죄인을 유배시킴.

1466) 추복(追復) : 죽은 다음에 원래의 직위로 회복시키는 것.

1467) 이원익(李元翼) : 조선 중기의 명신(1547~1634).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 1569년 문과에 급제하여 우의정, 영의정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 대동강 서쪽을 잘 방어하여 호성공신(扈聖功臣)이 되었으며 대동법을 시행하여 공부(貢賦)를 단일화하였다. 저서에 ≪오리집≫, ≪오리일기≫가 있다.

1468) 이정구(李廷龜) : 조선 시대의 문신·한학자(1564~1635). 자는 성징(聖徵). 호는 월사(月沙)·보만당(保晩堂)·치암(癡菴)·추애(秋崖)·습정(習靜). 벼슬은 우의정, 좌의정에 이르렀다. 한문학의 대가로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조선 중기의 4대 문장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저서에 ≪월사집≫, ≪서연강의(書筵講義)≫, ≪대학강의(大學講義)≫가 있다.

1469) 서성(徐渻) : 조선 중기의 문신(1558~1631). 자는 현기(玄紀). 호는 약봉(藥峯). 형조·병서 판서 따위를 지냈다. 이인기(李麟奇) 등과 역학(易學)을 토론하였으며 서화에도 뛰어났다. 문집에 ≪약봉집≫이 있다.

1470) 오윤겸(吳允謙) : 조선 인조 때의 문신(1559~1636). 자는 여익(汝益). 호는 추탄(楸灘)·토당(土塘). 광해군 9년(1617)에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임진왜란 때 잡혀간 포로를 데리고 왔으며, 영의정을 지냈다. 저서에 ≪추탄집≫이 있다.

1471) 정경세(鄭經世) :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1563~1633). 자는 경임(景任). 호는 우복(愚伏)·일묵(一默). 유성룡의 문인으로, 성리학에 밝았으며 예론(禮論)에 뛰어나 김장생 등과 함께 예학파로 불리었다. 저서에 ≪우복집(愚伏集)≫, ≪사문록(思問錄)≫, ≪상례참고(喪禮參考)≫ 등이 있다.

1472) 김장생(金長生) : 조선 중기의 학자·문신(1548~1631). 자는 희원(希元). 호는 사계(沙溪). 이이의 제자이자 송시열의 스승으로, 조선 예학(禮學)의 태두이다. 저서에 ≪의례문해≫, ≪근사록석의≫, ≪경서변의(經書辨疑)≫ 등이 있다.

1473) 장령(掌令) : 조선시대 정4품의 벼슬.

1474) 장유(張維) : 조선 시대의 문신(1587~1638). 자는 지국(持國). 호는 계곡(谿谷)·묵소(默所). 시호는 문충(文忠). 인조반정 때 공을 세웠고 정묘호란 때 임금을 수행하여 우의정에 이르렀다. 특히 문장에 뛰어났으며, 저서에 ≪계곡집≫, ≪계곡만필≫, ≪음부경주해(陰符經註解)≫ 따위가 있다.

1475) 이식(李植) : 조선 인조 때의 명신(名臣)(1584~1647). 자는 여고(汝固). 호는 택당(澤堂)·남궁외사(南宮外史). 한학 4대가의 한 사람으로 이조 판서를 지냈다. 병자호란 때에 척화파(斥和派)로 청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왔다. ≪선조실록≫을 전담하여 수정하였으며, 저서에 문집 ≪택당집≫이 있다.

1476) 정온(鄭蘊) : 조선 중기의 문신(1569~1641). 자는 휘원(輝遠). 호는 동계(桐溪)·고고자(鼓鼓子). 부제학을 지냈다. 병자호란 때 척화(斥和)를 주장하였으며, 이듬해 화의가 성립되자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였다. 저서에 ≪덕변록(德辨錄)≫, ≪동계집≫ 등이 있다.
1477) 김덕성(金德成) : 조선 후기의 화가(1729~1797). 자는 여삼(汝三). 호는 현은(玄隱). 도화서의 화원(畵員)으로 첨절제사를 지냈고, 특히 신장(神將)을 잘 그렸다. 작품에 <뇌공도(雷公圖)>가 있다.
1478) 사간(司諫) : 조선시대 사간원의 종3품 벼슬.
1479) 진취(進取) : 적극적으로 나아가 일을 성취함.
1480) 이괄(李适) : 조선 인조 때의 무신·반란자(1587~1624). 자는 백규(白圭). 인조반정에 공을 세웠는데, 김류와 반목하여 평안 병사(兵使)로 좌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인조 2년(1624)에 서울로 쳐들어와 흥안군(興安君)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였으나, 불과 하루 만에 관군에게 패하여 도망치다가 부하에게 피살되었다.
1481) 좌천(左遷) : 낮은 관직이나 지위로 떨어짐.
1482) 파천(播遷) : 임금이 도성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란하는 일.
1483) 흥안군(興安君) : 조선 선조의 열째 서자.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이들과 내통, 역모했다는 소문이 있어 위리안치(圍籬安置)가 논의되었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고 공주로 피난갈 때 데리고 갔다. 도중에 빠져나와 이괄의 반란군이 서울에 입성하자 한때 왕으로 추대되었으나, 관군의 승전으로 패하여 살해되었다.
1484) 가정부(假政府) : 임시정부.
1485) 장만(張晩) : 조선 중기의 문신(1566~1629). 자는 호고(好古). 호는 낙서(洛西). 시호는 충정(忠定). 인조반정으로 팔도 도원수가 되고, 이괄의 난을 평정하였다.
1486) 정충신(鄭忠信) : 조선 인조 때의 무신(1576~1636). 자는 가행(可行). 호는 만운(晩雲). 이괄의 난, 정묘호란 때에 활약하였다. 천문, 지리, 복서(卜筮), 의술 따위에 정통하였으며 매우 청렴하였다. 저서에 ≪만운집≫, ≪백사북천일록(白沙北遷日錄)≫, ≪금남집(錦南集)≫이 있고, 시조 작품 3수가 전한다.
1487) 남이흥(南以興) : 조선 시대의 무신(1576~1627). 자는 사호(士豪). 호는 성은(城隱).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연안 부사(延安府使)가 되었다. 정묘호란 때 평안 병사(平安兵使)로서 안주성(安州城)을 막다가 패하자 자결하였다.
1488) 이인거(李仁居) :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를 지낸 이추(李樞)의 손자이다. 익찬(翊贊)을 지내고 강원도 횡성(橫城)에 거주하다가 1627년 정사공신(靖社功臣)들이 나라를 그르친다는 명분으로 수백의 도당을 규합하여 난을 일으켰다. 먼저 현감(縣監) 이탁남(李擢男)을 사로잡고 군기(軍器)를 빼앗아 스스로 창의중흥대장(倡義中興大將)이라 칭하고 서울로 침입하려다가 원주목사(原州牧使) 홍보(洪霦)에게 잡혀 서울에서 사형되었다.
1489) 유효립(柳孝立) : 조선 중기의 관인 ·모반자. 인조반정으로 제천으로 유배되었는데, 유배지에서 허유 등 인조반정 후 실세한 무리들과 반역을 모의하다가 거사 직전에 허적의 고발로 도성으로 잠입하던 무리들이 체포되었고, 자신도 잡혀 죽었다.
1490) 정심(鄭沁) :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1628년 유효립이 광해군을 상왕으로 삼고 인성군을 옹립하려는 반역을 꾸몄을 때 가담하였다가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1491) 허적(許積) : 조선 중기의 문신. 호조판서·병조판서를 지내고,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까

지 올랐다. 인선대비가 죽어 자의대비의 제2차 복상문제에서 기년설을 주장하여 채택되고, 송시열의 처벌문제에서 온건론을 펴 탁남(濁南)의 영수가 되어 집권자가 되었다.

1492) 심기원(沈器遠) : 조선 인조 때의 재상(?~1644). 자는 수지(遂之). 인조반정에 공을 세우고 병조참판 등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으나, 회은군(懷恩君) 덕인(德仁)을 왕에 추대하려다가 살해되었다.

1493) 범궐(犯闕) : 대궐을 침범함.

1494) 구인후(具仁垕) : 조선 중기의 무신(1578~1658). 자는 중재(仲載). 호는 유포(柳浦). 인조반정에 참여하였으며, 심기원의 난을 진압하였다. 벼슬은 병조 판서, 좌의정 등을 지냈다.

1495) 한명련(韓明璉) : 조선 중기, 후기의 문신이자 임진왜란 때의 장군이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자발적으로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 맞서 싸웠으며, 인조 반정 때 억울하게 체포되었다가 부원수 이괄의 구출을 받고 난에 가담했으나 암살당했다. 당색으로는 서인이었다.

1496) 유린(蹂躪) : 남의 권리나 인격을 짓밟음.

1497) 이완(李莞) : 조선 중기의 무신(1579~1627). 자는 열보(悅甫).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의 휘하에서 종군하였고, 이괄의 난 때에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공을 세웠으며, 정묘호란 때에 의주 부윤으로 적군을 맞아 싸웠으나 패하자 병기고(兵器庫)에 불을 지르고 분사(焚死)하였다.

1498) 정호서(丁好恕) :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압해(押海). 자는 사추(士推). 정옥형(丁玉亨)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정응두(丁應斗)이고, 생부는 정윤복(丁胤福)이며, 생모는 한경상(韓景祥)의 딸이다. 정윤지(丁胤祉)에게 입양되었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별시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선조실록》을 편찬할 때에 중훈대부(中訓大夫) 행병조좌랑지제교(行兵曹佐郎知製敎)라는 직함을 가지고 기사관(記事官)으로 활동하였다. 1609년(광해군 1)에 병조좌랑을 역임하였다. 1

1499) 윤선(尹銑) : 조선 중기의 문신. 광해군대에는 폐비론에 참여하는 등 권력을 독점한 북인의 독주에 참여하였으나, 1613년(광해군 5) 인목대비가 유폐당하자 쌀과 고기를 바쳤으며, 당시 정치를 비판하다가 위기에 빠진 조경기 ·홍무적 등을 힘써 구원하였다고 한다.

1500) 대경(大驚) : 크게 놀람.

1501) 사신(使臣) :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으로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

1502) 모문룡(毛文龍) : 중국 명나라의 장군(1576~1629). 조선 광해군 14년(1622) 철산 가도에 진을 치고 우리 조정에 후금을 치도록 강요하여, 외교상 큰 지장을 초래하던 중 원숭환(袁崇煥)에게 피살되었다.

1503) 이서(李曙) : 조선 인조 때의 공신(功臣)(1580~1637). 자는 인숙(仁叔). 호는 월봉(月峯). 인조반정 때에 공을 세워 호조 판서가 되고, 1626년에 수어사(守禦使)가 되어 남한산성을 쌓고 병자호란 때에 북문(北門)을 지키다가 죽었다. 저서에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가 있다.

1504) 황태극(皇太極) : 숭덕제(崇德帝, 1592년 11월 28일 ~ 1643년 9월 21일)는 청나라의 제2대 황제(재위 1626년 ~ 1643년)이다. 휘는 황태극(皇太極). 만주어로는 홍타이지라고 한다. 묘호는 태종(太宗)이다. 아바하이(阿巴海)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나 이는 만주식 연호인 '압카이 수러'가 서양에 잘못 알려져서 탄생한 별명이다. 부황인 천명제가 세운 후금을 이어받아 연호를 천총(天聰)이라 하다가 1636년 나라 이름을 청(淸)으로 바꾸고 연호 역시 숭덕(崇

1505) 국호(國號) : 나라의 이름.

1506) 용골대(龍骨大) : 중국 청나라의 장군(?~?). 본명은 영고이대(英固爾垈). 인조 14년(1636)에 사신으로 와서, 청나라 황제의 존호를 쓰고 군신의 의를 맺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해 12월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1507) 마부대(馬夫大) : 1636년(인조14)의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조선에 침입한 장수로서 청나라의 전신인 후금(後金) 때부터 사신으로 여러 차례 조선을 왕래했다. 1635년에는 후금의 친서(親書)를 가지고 조선에 오기도 하였다. 병자호란 때는 청태종(淸太宗)의 막료(幕僚)로서 행패가 심하였다.
1508) 국서(國書) : 한 나라의 원수(元首)가 다른 나라에 보내는 편지(便紙).
1509) 석권(席捲) : 굉장한 기세(氣勢)로 영토(領土)를 남김없이 차지하여 세력(勢力) 범위(範圍)를 넓히는 것.
1510) 육박(肉薄) : 바싹 가까이 다가감.
1511) 빈궁(嬪宮) : 왕세자의 아내.
1512) 종묘(宗廟) : 조선(朝鮮) 시대(時代)에, 역대(歷代) 임금과 왕비(王妃)의 위패(位牌)를 모시던 왕실(王室)의 사당(祠堂).
1513) 김경징(金慶徵) : 조선 중기의 문신(1589~1637). 자는 선응(善應).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고 도승지, 한성부 판윤을 지냈다. 병자호란 때 강화가 함락되자, 강도 검찰사(江都檢察使)로서 수비에 소홀했다는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아 처형되었다.
1514) 천험(天險) : 땅 모양이 천연적으로 험함.
1515) 외원(外援) : 외부로부터 받는 도움.
1516) 홍서봉(洪瑞鳳) : 조선 인조 때의 문신(1572~1645). 자는 휘세(輝世). 호는 학곡(鶴谷). 1623년에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병조 참의가 되고, 병자호란 때에 최명길과 함께 화의를 주장하였다.
1517) 김신국(金藎國) : 조선 중기의 문신(1572~1657). 자는 경진(景進). 호는 후추(後瘳).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적에게 큰 타격을 주고 참봉이 되었으며, 이후에 평안도 관찰사·우참찬·호조 판서를 지냈다. 병자호란 후 볼모로 가는 소현 세자의 이사(貳師)로서 심양까지 배종(陪從)한 뒤 귀국하여, 기로소에 들었다.
1518) 김상헌(金尙憲) : 조선 중기의 문신(1570~1652). 자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淸陰)·석실산인(石室山人)·서간노인(西磵老人). 대제학, 이조 판서, 예조 판서, 공조 판서, 병조 판서를 지냈다. 저서에 ≪야인담록(野人談錄)≫·≪풍악문답(豐岳問答)≫ 따위가 있고, ≪청구영언≫ 따위의 가곡집에 시조 4수가 전한다.
1519) 정온(鄭蘊) : 조선 중기의 문신(1569~1641). 자는 휘원(輝遠). 호는 동계(桐溪)·고고자(鼓鼓子). 부제학을 지냈다. 병자호란 때 척화(斥和)를 주장하였으며, 이듬해 화의가 성립되자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였다. 저서에 ≪덕변록(德辨錄)≫, ≪동계집≫ 등이 있다.
1520) 오달제(吳達濟) : 조선 인조 때의 문신(1609~1637). 자는 계휘(季輝). 호는 추담(秋潭). 삼학사(三學士)의 한 사람으로, 병자호란 때에 중국 청나라와의 화의(和議)를 반대하다가 윤집, 홍익한과 함께 선양(瀋陽)으로 잡혀가 죽었다.
1521) 홍익한(洪翼漢) : 조선 인조 때의 문신(1586~1637). 자는 백승(伯升). 호는 화포(花浦)·운옹(雲翁). 삼학사의 한 사람으로, 병자호란 때에 척화론을 주장하여 중국 청나라 선양(瀋陽)에 붙잡혀 갔으나 끝내 뜻을 굽히지 않고 죽었다.
1522) 윤집(尹集) : 조선 인조 때의 충신(1606~1637). 자는 성백(成伯). 호는 임계(林溪)·고산(高山). 병자호란 때의 삼학사의 한 사람으로, 벼슬은 교리(校理)에 이르렀으며, 인조 15년(1637)에 척화론자로 몰려 중국 청나라에 잡혀가 선양(瀋陽)에서 살해되었다.

1523) 안무(按撫) : 백성의 사정을 살펴 어루만져 위로함.
1524) 서교세우군신루(西郊細雨君臣淚) : 서교에 내리는 비는 군신의 눈물이요.
1525) 북궐의운부자정(北闕凝雲父子情) : 북궐에 얽힌 구름은 부자의 정이라.
1526) 소현세자(昭顯世子) : 조선 인조의 맏아들(1612~1645). 이름은 조().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서역 원정에 출전하여 서양 서적과 지구의, 천주 상(像) 따위를 가지고 돌아왔다.
1527) 봉림대군(鳳林大君) : 조선 제17대 왕 효종이 임금이 되기 전의 이름.
1528) 삼학사(三學士) :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에 청국에 항복(降伏)하는 것을 반대(反對)하고 주전론을 편 세 사람. 즉 홍익한, 윤집, 오달제로서 척화신(斥和臣)으로 청(淸)나라에 잡혀가서 끝끝내 굴하지 않고 참혹(慘酷)하게 죽임을 당(當)했음.
1529) 옥새(玉璽) : 임금의 도장.
1530) 유림(柳琳) : 조선 중기의 무신. 병자호란 때 평안도 병마사로 강원도 김화에서 청군을 격퇴했으나 왕이 남한산성에서 항복하고 화의하자 원병장으로 청나라에 갔는데 병으로 명나라와의 싸움을 피했다.
1531) 임경업(林慶業) : 조선 인조 때의 명장(1594~1646). 자는 영백(英伯). 호는 고송(孤松). 이괄의 난에 공을 세우고, 병자호란 때 중국 명나라와 합세하여 청나라를 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김자점의 모함으로 죽었다.
1532) 장릉(長陵)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있는 조선 제16대왕 인조와 그의 비(妃) 인열왕후 한씨(仁烈王后韓氏)의 능.
1533) 분심(忿心) : 분한 마음.
1534) 탱천(撐天) : 충천(衝天). 분하거나 의로운 기개, 기세 따위가 북받쳐 오름.
1535) 송시열(宋時烈) : 조선 숙종 때의 문신・학자(1607~1689). 아명은 성뢰(聖賚).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尤庵)・우재(尤齋). 효종의 장례 때 대왕대비의 복상(服喪) 문제로 남인과 대립하고, 후에는 노론의 영수(領袖)로서 숙종 15년(1689)에 왕세자의 책봉에 반대하다가 사사(賜死)되었다. 저서에 ≪우암집≫, ≪송자대전(宋子大全)≫ 등이 있다.
1536) 이완(李浣) : 조선 중기의 무장(武將)(1602~1674). 자는 징지(澄之). 호는 매죽헌(梅竹軒). 병조판서와 우의정을 지냈으며 병자호란 때에 정방산성(正方山城)의 싸움에서 공을 세웠다. 효종 4년(1653)에 북벌 임무를 맡았으나 효종의 죽음으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1537) 북벌(北伐) : 무력으로 북쪽 지방을 토벌하는 일.
1538) 반포(頒布) : 세상에 널리 펴서 퍼트림.
1539) 대동법(大同法) : 전(前)에 현물(現物)로 바치던 공물(貢物)을 미곡(米穀)으로 환산(換算)하여 거두어들이던 법. 전세(田稅)와 같이 전(田) 1결(結)에 대(對)하여 일정(一定)한 양을 거둠. 임진란(壬辰亂) 이후(以後) 민폐(民弊)를 덜고 국가(國家) 재정(財政)을 재편성(再編成)하기 위(爲)하여 선조(宣祖) 41년(1608)에 먼저 경기(京畿)에 실시(實施)하였다가 후(後)에 전도(全道)에 걸쳐 실시(實施)하였으며 고종(高宗) 31년(1894)에 폐(廢)했음.
1540) 세제(稅制) : 조세에 관한 제도.
1541) 주조(鑄造) : 쇠를 녹여서 물건(物件)을 만듦.
1542) 군비(軍備) : ①모든 군사(軍事) 시설(施設)이나 장비(裝備) ②전쟁(戰爭)의 준비(準備).
1543) 개량(改良) : 나쁜 점을 고쳐 좋게 함.

1544) 증모(增募) : 정원보다 더 늘려 모집함.
1545) 선전(宣傳) : 사상(思想), 이론(理論), 지식(知識) 또는 사실(事實) 등(等)을 대중(大衆)에게 널리 인식(認識)시키는 일.
1546) 진섭(震懾) :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떨게 함.
1547) 와해(瓦解) : 조직이나 계획 따위가 무너져 흩어짐.
1548) 위주(爲主) : 으뜸으로 삼음.
1549) 아원장구십만병(我願長驅十萬兵)하여 추풍웅진구련성(秋風雄據九連城)이라 지휘축답평교자(指揮蹙踏平交子 : 원하노니 십만대병 거느리고 구련성 가을 바람에 길을 웅거치고 가니 지휘하여 평교자를 쭈그려 밟아내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옥경성으로 돌아오리.
1550) 포한(抱恨) : 한을 품음.
1551) 망발(妄發) : ①그릇되게 하여 자신(自身)에게나 조상(祖上)에게 욕이 되는 말이나 행동(行動) ②자신(自身)에게나 조상(祖上)에게 욕이 되는 말이나 행동(行動)을 함.
1552) 호령(號令) : 지휘(指揮)하여 명령(命令)함. 큰 소리로 꾸짖음. 주(主)로 단체(團體) 행동(行動)에, 어떤 동작(動作)을 일제(一齊)히 하도록 하는 간단(簡單)하게 규정(規定)된 말.
1553) 영릉(寧陵)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에 있는, 조선 효종과 그 비 인선 왕후의 능.
1554) 환후(患候) : 웃어른의 ' 병 ' 을 높이어 일컫는 말.
1555) 숭릉(崇陵) : 조선 현종과 그의 비(妃) 명성 왕후 김씨의 능. 동구릉의 하나이다.
1556) 성군(聖君) : 덕이 아주 뛰어난 어진 임금.
1557) 미행(微行) : 미복잠행(微服潛行).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미복으로 넌지시 다님.
1558) 오리(汚吏) : 청렴하지 못한 관리.
1559) 국태민안(國泰民安) : 나라가 태평(太平)하고 백성(百姓)이 살기가 평안(平安)함.
1560) 인조반정(仁祖反正) : 광해군(光海君) 15년(1623)에 김유, 이서, 이귀, 이괄 등(等) 서인(西人) 일파(一派)가 인목(仁穆) 대비(大妃)와 통모하여 광해군(光海君) 및 집권당(執權黨)인 대북파를 몰아내고 능양군 즉, 인조(仁祖)를 즉위(卽位)시킨 일.
1561) 영수(領袖) : 여럿 중(中)의 우두머리.
1562) 허견(許堅) : 조선 숙종 때의 문신(?~1680). 남인의 우두머리로, 1680년 복창군(福昌君), 복선군(福善君), 복평군(福平君) 등과 모의하여 복선군을 내세우려다가 서인 김석주(金錫胄)의 고변(告變)으로 살해당하였다.
1563) 장희빈(張禧嬪) : 조선 숙종의 빈(?~1701). 경종의 어머니이다. 숙원(淑媛)으로 있다가 자신이 낳은 왕자가 원자(元子)로 책봉되자 희빈으로 올랐다. 기사환국이 일어나자 정비(正妃)가 되었으나, 갑술옥사 후 무고(巫蠱)의 옥(獄)에 연루되어 죽었다.
1564) 선출(選出) : 여럿 가운데서 가려냄.
1565) 박태보(朴泰輔) : 조선 숙종 때의 간관(諫官)(1654~1689). 자는 사원(士元). 호는 정재(定齋). 인현 왕후의 폐위를 반대하다가, 심한 고문을 받고 진도로 귀양 가던 도중에 죽었다. 저서에 ≪정재집≫ 등이 있다.
1566) 오두인(吳斗寅) : 조선 숙종 때의 문신(1624~1689). 자는 원징(元徵). 호는 양곡(陽谷). 공조 판서와 형조 판서를 지냈으며 인현 왕후 민씨의 폐위를 반대하여 국문을 받고 귀양 가는 도중에 죽었다. 저서에 ≪양곡집(陽谷集)≫이 있다.

1567) 이세화(李世華) : 조선 숙종 때의 문신(1630~1701). 자는 군실(君實). 호는 쌍백당(雙栢堂)·칠정(七井). 황해도·평안도·전라도 관찰사를 지냈으며 인현 왕후의 폐위를 반대하다 귀양을 갔다.
1568) 사사(賜死) : 극형(極刑)에 처할 죄인(罪人)을 대우(待遇)하는 뜻으로, 임금이 독약(毒藥)을 내려 자결(自決)하게 한 일.
1569) 목창명(睦昌明) : 조선 후기 숙종 때의 문신. 남인 계열. 경신대출척으로 사직하였다가 기사환국 때 남인으로 대사간에 복직되었다. 한성부우윤. 부제학, 형조판서, 병조판서 등을 지냈다. 갑술옥사로 유배되었다.
1570) 장계(狀啓) : 벼슬아치가 임금의 명을 받들고 지방(地方)에 나가 민정을 살핀 결과(結果)를 글로 써서 올리던 보고(報告), 계본(啓本).
1571) 기사사화(己巳士禍) : 조선 숙종 15년(1689)에 소의 장씨 소생의 아들을 원자로 정하는 문제로 정권이 서인에서 남인으로 바뀐 일.
1572) 김춘택(金春澤) : 조선 중기의 문인(1670~1717). 자는 백우(伯雨). 호는 북헌(北軒). 김만중의 종손(從孫)으로, 시와 글씨에 뛰어났으며, <구운몽>·<사씨남정기>를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저서에 ≪북헌집≫, 작품에 <별사미인곡>이 있다.
1573) 회심(回心) : 마음을 돌려 먹음.
1574)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 : 조선(朝鮮) 시대(時代) 19대 숙종(肅宗) 때 김만중(金萬重)이 지은 한글로 쓰인 소설(小說).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며 당시(當時) 숙종(肅宗)이 장희빈에게 빠져 인현(仁顯) 왕후(王后)를 폐위(廢位)한 사실(事實)을 풍자(諷刺)하여 다른 것이라 함. 1책.
1575) 단정(斷定) : 딱 잘라 판단하고 결정함.
1576) 장희재(張希載) : 조선 숙종 때의 무신(?~1701). 장 희빈의 오빠로, 총융사에 올랐다. 인현 왕후가 복위되자 갖은 음모로 해하려다가 장 희빈과 함께 처형되었다.
1577) 박권(朴權) : 조선 후기 숙종 때의 문신. 정언, 동래부사, 경상도관찰사, 평안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한성부우윤 때 청나라 사신 목극등의 접반사로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웠다. 대사헌,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1578) 백두산상정계비(白頭山上定界碑) : 조선(朝鮮) 숙종(肅宗) 38(1712)년 백두산(白頭山)에 세운, 조선(朝鮮)과 청(淸)나라 사이의 경계비(境界碑).
1579) 안용복(安龍福) : 조선 숙종 때의 어민(漁民).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를 자주 침범하자 일본에 가서 우리 영토 침범을 항의하였다.
1580) 명릉(明陵) : 서오릉의 하나. 경기도(京畿道) 고양군 신도읍에 있는, 조선(朝鮮) 숙종(肅宗)과 숙종(肅宗) 계비(繼妃) 인현(仁顯) 왕후(王后)의 능.
1581) 경종(景宗) : 조선 제20대 왕(1688~1724). 이름은 윤(昀). 자는 휘서(輝瑞). 재임 기간 동안 노론과 소론이 대립하여 신임사화가 일어나는 등 당쟁이 절정을 이루었다. 재위 기간은 1720~1724년이다.
1582) 고질(痼疾) : 오래도록 낫지 않아 고치기 어려운 병(病). 불치병(不治病), 고질병(痼疾病), 구질(久疾), 지병(持病).
1583) 혼미(昏迷) : ①정신(精神)이 흐리고 멍하게 됨 ②사리(事理)에 어두운 상태(狀態).
1584) 김창집(金昌集) : 조선 후기의 문신(1648~1722). 자는 여성(汝成). 호는 몽와(夢窩). 숙종 10년(1648)에 문과에 급제하고, 영의정을 지냈다. 숙종 38년(1712)에 사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경종의

왕세제로 영조를 책봉하게 하고, 이어 세제의 대리청정을 시행하게 하였다. 신임사화 때에 사사(賜死)되었다.

1585) 이이명(李頤命) : 조선 중기의 문신(1658~1722). 자는 양숙(養叔)·지인(智仁). 호는 소재(疏齋). 벼슬은 대사헌, 병조 판서 등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노론 4대신의 한 사람이며 당대의 석학으로 성리학에 정통하였다. 저서에 문집 ≪소재집≫이 있다.

1586) 이건명(李健命) : 조선 숙종 때의 문신(1663~1722). 자는 중강(仲剛). 호는 한포재(寒圃齋). 좌의정을 지냈으며, 경종 1년(1721)에 왕세제 책봉을 주청하여 실현하였으나, 신임사화 때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되었다.

1587) 조태채(趙泰采) : 조선 숙종 때의 문신(1660~1722). 자는 유량(幼亮). 호는 이우당(二憂堂). 노론 4 대신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영조의 세자 책봉 문제로 소론과 대립하다 역모죄로 몰려 신임사화 때 죽임을 당하였다.

1588) 영조(英祖) : 조선 제21대 왕(1694~1776). 이름은 금(昤). 자는 광숙(光叔). 호는 양성헌(養性軒). 탕평책을 써서 당쟁 제거에 힘썼고, 균역법의 시행, 신문고의 부활, ≪동국문헌비고≫ 등의 편찬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재위 기간은 1724~1776년이다.

1589) 신임사화(辛壬士禍) : 조선 경종 원년(1721)부터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 사이에 일어난 사화. 노론 사대신(四大臣)의 주장으로, 왕의 동생 연잉군(延礽君)을 세제(世弟)로 책봉하고 정무를 대신하게 하자, 소론이 불가함을 상소하고, 이들 사대신이 역모를 꾀한다고 무고하여 사대신이 극형에 처해지게 하였다.

1590) 요행(僥倖) : 뜻밖으로 운수가 좋음.

1591) 김일경(金一鏡) : 조선 중기의 문신(1662~1724). 자는 인감(人鑑). 호는 아계(丫溪). 소론(少論)의 과격파로서 노론(老論)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서 신임사화를 일으켜 노론 사대신(老論四大臣)을 극형에 처하고 이조 판서에 올랐으나, 영조가 즉위한 뒤 참형을 당하였다.

1592) 목호룡(睦虎龍) : 조선 후기 경종 때의 지관(地官). 신임사화의 빌미를 제공했다. 1722년 소론에 가담, 노론 김창집 등이 경종 시해를 역모하였다고 고변했다. 이에 4대신을 비롯한 노론이 숙청되었다.

1593) 박필몽(朴弼夢) : 조선 후기의 문신. 소론의 강경파로 부제학, 이조참판, 대사헌에 이르렀다. 경종 1년 왕세제(英祖)의 대리청정을 주장한 노론 4대신의 죄를 성토하여 신임사화를 유발했다. 이인좌의 난 때 반란군 진중으로 가던 도중 진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숨었다.

1594) 이광좌(李光佐) : 조선 후기의 대신(1674~1740). 자는 상보(尙輔). 호는 운곡(雲谷). 소론으로, 경종 3년(1723)에 우의정, 영조 원년(1725)에 영의정에 올랐다가 노론의 등장으로 파직되었다. 영조 3년 정미환국으로 다시 영의정에 올랐다. 저서에 ≪운곡실기≫가 있다.

1595) 조태억(趙泰億) : 조선 영조 때의 문신(1675~1728). 자는 대년(大年). 호는 태록당(胎祿堂)·겸재(謙齋). 소론(少論)의 중진으로 종형 태구(泰耉)와 함께 신임사화를 일으켰으며 글씨에 능하고 영모화를 잘 그렸다. 문집에 ≪겸재집≫이 있다.

1596) 유찬(流竄) : 유배(流配).

1597) 정미환국(丁未換局) : 조선 영조 3년(1727) 정미년에, 당쟁을 조정하려고 정부의 인사를 개편한 일. 노론, 소론을 막론하고 논의가 강경한 자를 제거하고 골고루 등용하였으나, 노론이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게 되어 당쟁을 조정하는 데 미흡하였다.

1598) 밀풍군(密豐君) : 조선 인조의 장자인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증손. 이름 탄(坦). 1723년(경종 3)

사은사(謝恩使), 1726년(영조 2) 사은 겸 동지사(謝恩兼冬至使)로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28년 소론의 이인좌(李麟佐)가 반란을 일으킬 때 그를 왕으로 추대하였는데, 난이 평정되자 자결하였다.

1599) 오명항(吳命恒) : 조선 후기의 문신(1673~1728). 자는 사상(士常), 호는 모암(慕庵)·영모당(永慕堂). 1728년 이인좌의 난 때 공을 세워 해은 부원군(海恩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우의정이 되었다.

1600) 조문명(趙文命) : 조선 후기 문신. 《경종실록》 편찬에 참여했으며, 도승지 · 경연동지사 · 어영대장에 이어 대사성 · 이조참판을 지냈다. 이인좌의 난을 평정해 세운 공으로 분무공신 2등에 책록되고 풍릉부원군에 책봉되었다. 문집에 《학암집》이 있고, 글씨로는 《삼충사사적비》, 《북백곽재우표》가 있다.

1601) 김재로(金在魯) : 조선 후기의 문신(1682~1759). 자는 중례(仲禮). 호는 청사(淸沙)·허주자(虛舟子). 숙종 36년(1710)에 문과에 급제하고 지평, 수찬을 거쳐 좌의정, 영의정을 지냈다. 노론(老論)의 선봉으로 활약하였으며, 청빈한 재상으로 이름이 높았다.

1602) 탕평책(蕩平策) : 조선조(朝鮮朝) 21대 영조(英祖)가 당쟁(黨爭)을 없애기 위(爲)하여 쓴 정책(政策). 당쟁(黨爭)의 해독(害毒)이 참담(慘澹)함을 깊이 느끼어 일당전단(一黨專斷)의 폐를 견제(牽制)하고 양반(兩班) 세력(勢力)의 균형(均衡)을 취함으로써 왕권(王權)의 탕탕평평(蕩蕩平平)을 꾀한 정책(政策). 정사(政事)의 시비(是非)를 논(論)하는 상소(上疏)를 금(禁)하고 노론(老論),소론(少論)을 아울러 써서 당파(黨派)의 조화(調和)에 힘썼음. 22대 정조(正

1603) 진노(震怒) : 존엄한 사람이 몹시 노함.

1604) 회오(悔悟) :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음.

1605) 굴신(屈身) : 겸손하게 처신함.

1606) 거두(巨頭) : ①유력(有力)한 우두머리 ②중요(重要) 인물(人物).

1607) 사리사욕(私利私慾) : 사사(私事)로운 이익(利益)과 욕심(慾心).

1608) 문치(文治) : 학문과 법령으로 세상을 다스림.

1609) 주뢰(周牢) : 주리의 옛말로 죄인의 두 다리를 한데 묶고 다리 사이에 두 개의 주릿대를 끼워 비트는 형벌.

1610) 난장(亂杖) :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 형벌(刑罰)의 하나. 장형(杖刑)을 할 때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치는 매. 21대 영조(英祖) 46(1770)년에 폐지(廢止)되었음.

1611) 신문고(申聞鼓) : 조선(朝鮮) 태종(太宗) 2년부터 백성(百姓)이 원통(寃痛)한 일을 호소(呼訴)할 때 치게 하여, 당부에서 이를 알도록 한 북.

1612) 대전통편(大典通編) : 『경국대전(經國大典)』·『대전속록(大典續錄)』·대전후속론(大典後續論)·수교집록(受敎敞)·『속대전(續大典)』을 한데 모아 이룬 책. 조선(朝鮮) 정조(正祖)의 명을 받아 김치인(金致仁)이 편집(編輯)했음. 6권5책.

1613) 구휼(救恤) : 빈민(貧民)이나 이재민(罹災民) 등(等)에게 금품(金品)을 주어 구조(救助)함.

1614) 사도세자(思悼世子) : 조선 영조의 둘째 아들(1735~1762). 이름은 선(愃). 자는 윤관(允寬). 호는 의재(毅齋). 영조의 노여움을 사서 뒤주 속에 갇혀 죽었다. 정조가 즉위한 다음 이렇게 올려졌으며, 광무 3년(1899)에 장조로 추존되었다.

1615) 홍봉한(洪鳳漢) : 조선 후기의 문신(1713~1778). 자는 익여(翼汝). 호는 익익재(翼翼齋). 사도세자의 장인으로, 영조를 도와 국고의 충실을 꾀하고, 환곡의 작폐를 엄금하며 은결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770년에 왕명으로 ≪동국문헌비고≫를 찬수하였다.

1616) 원릉(元陵) :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조선 영조와 계비 정순 왕후의 능. 동구릉(東九陵)의 하나이다.
1617) 진종대왕(眞宗大王) : 조선 후기의 추존왕. 영조의 맏아들로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나 10세에 죽어 이복동생 사도세자가 왕세자가 되었다. 사도세자마저 즉위하지 못하고 죽자,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그의 양자(養子)가 되어 즉위함에 따라 진종으로 추존되었다.
1618) 요사(夭死) : 요절(夭折).
1619) 정조(正祖) : 조선 제22대 왕(1752~1800). 이름은 산(祘). 자는 형운(亨運). 호는 홍재(弘齋). 시호는 문성무열성인장효왕(文成武烈聖仁莊孝王). 탕평책을 써서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실학을 크게 발전시켜 조선 후기 문화의 황금시대를 이룩하였다. 재위 기간은 1776~1800년이다.
1620) 유명(遺命) : 임금이나 부모가 죽을 때 남긴 명령이나 당부.
1621) 홍인한(洪麟漢) : 조선 영조 때의 문신(1722~1776). 자는 정여(定汝). 당시의 세손이었던 정조와 사이가 좋지 않아 벽파에 가담하여 세손의 즉위를 반대하다가, 정조 즉위 후 유배되어 처형되었다.
1622) 정후겸(鄭厚謙) : 조선 후기 문신. 세손이 대리청정을 하게 되자 홍인한 등과 이를 극력 반대, 유언을 퍼뜨려 세손의 비행을 조작하는 한편 심상운을 시켜 세손을 보호하는 홍국영을 배척하는 등 세손을 모해하려고 했다.
1623) 홍국영(洪國榮) : 조선 후기의 문신(1748~1781). 자는 덕로(德老). 영조 때에 세자시강원 설서가 되어 세손을 즉위시키고 정조 밑에서 도승지에 올라 세도 정치를 폈다. 뒤에 왕비를 살해하려는 음모가 발각되어 추방되었다.
1624) 금위대장(禁衛大將) : 금위영(禁衛營)의 주장(主將).
1625) 윤양후(尹養厚) : 1753년(영조 29)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764년(영조 40) 유생9일제(儒生九日製)에서 뽑혀 전시(殿試)에 직부(直赴)되게 되었다. 음보로 은율현감으로 있다가 1765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정언·부교리를 거쳐 1773년 부제학에 오르고 이어 대사성, 승지를 지냈다. 이듬해 형 상후(象厚)와 더불어 등준시(登俊試)에 병과로 급제, 비변사부제조(備邊司副提調)를 거쳐 참판이 되었다. 1775년 세손(世孫
1626) 경폐(徑斃) : 사형이 선고된 자가 집행 전에 자살하던 일.
1627) 홍술해(洪述海) : 1750년(영조 26) 사마시에 합격해 진사가 되었다. 1759년(영조 35)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상시봉원도감(上諡封園都監)의 감조관(監造官)이 된 다음 정언·지평·수찬 등을 거쳐, 1761년 사간이 되었다. 1763년 북도감진어사(北道監賑御史)로 다녀와 병사 이방좌(李邦佐)의 탐학상을 보고하고 엄벌할 것을 건의해 양양(襄陽)에 10년 간 유배를 보냈다. 이어서 부응교·응교 등을 거쳐, 1764년 교리가 되었다. 그 뒤 승지를 거쳐 장연현안핵어사가
1628) 채제공(蔡濟恭) : 조선 영조·정조 때의 문신(1720~1799). 자는 백규(伯規). 호는 번암(樊巖)·번옹(樊翁). 영의정을 지냈다. 1781년 서명응(徐命膺)과 함께 ≪국조보감≫을 편찬하였으며, 가톨릭교에 대하여 온건 정책을 폈다. 저서에 ≪번암집≫ 59권이 있다.
1629) 건릉(健陵) : 조선 정조와 그의 비 효의 왕후 김씨의 무덤.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령동에 있다. 사적 제206호.
1630) 순조(純祖) : 조선의 제23대 왕(1790~1834). 이름은 공(玜). 자는 공보(公寶). 호는 순재(純齋). 가톨릭교를 탄압하였다. 재위 기간은 1800~1834년이다.
1631) 김조순(金祖淳) : 조선 후기의 문신(1765~1832). 초명은 낙순(洛淳). 자는 사원(士源). 호는 풍

고(楓皐). 순조의 장인으로서, 대제학을 지냈으며,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장에 능하고 죽화(竹畫)를 잘 그렸다. 저서에 ≪풍고집≫이 있다.

1632) 폐풍(弊風) : 폐해가 되는 풍습.

1633) 허식(虛飾) : 실속 없이 겉만 꾸밈.

1634) 반상(班常) : 양반과 상사람.

1635) 잔민(殘民) : 가난에 지친 힘 없는 백성.

1636) 천대(賤待) : 업신여겨 푸대접함.

1637) 세도(勢道) : 정치상의 권세를 마구 휘두르는 일.

1638) 홍경래난(洪景來亂) : 조선 순조 11년(1811)에 평안북도 가산군에서 홍경래가 지방 차별과 조정의 부패에 항거하여 일으킨 농민 항쟁. 이듬해 관군에게 진압되었다.

1639) 홍경래(洪景來) : 조선 순조 때의 혁명가(1771~1812). 1798년에 평양의 향시에 합격하고 소과(小科)에 응하였으나 지방을 차별하는 폐습 때문에 낙방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1811년에 평안북도 가산에서 군사를 일으켜 혁명을 꾀하다가 이듬해 정주에서 패하여 죽었다.

1640) 우군칙(禹君則) : 조선 후기 홍경래의 난 때 반군의 모사로 활약한 인물이다. 홍경래와 함께 현실에 불만을 품은 양반·상인·노동자 세력을 모아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로 돌아가 처형되었다.

1641) 이해우(李海愚) : 조선 후기의 무신. 황해도 수군절도사, 우포도대장, 금위대장, 어영대장, 형조판서 등을 지냈다. 1811년 홍경래가 난을 일으켜 평안도 가산, 박천, 태천 등지를 점령하자 평안도 병마절도사로서 각 군(郡)에 토벌군을 출동케 하여 반란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연이어 패배하여 해임당하고 전라도 순창에 유배되었다.

1642) 인릉(仁陵)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조선 순조와 비 순원 왕후의 능.

1643) 익종(翼宗) : 조선 순조의 세자(1809~1830). 자는 덕인(德寅). 호는 경헌(敬軒). 시호는 효명(孝明). 순조 12년(1812)에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27년(1827)에 대리청정하여,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고 선정을 베풀었으나 4년 만에 죽었다.

1644) 헌종(憲宗) : 조선의 제24대 왕(1827~1849). 이름은 환(奐). 자는 문응(文應). 호는 원헌(元軒). 8세에 즉위하여 순조비인 순원 왕후가 수렴청정하였으며, 1841년에 비로소 친정하게 되었으나 삼정의 문란과 정치의 혼란으로 민생고는 가중되었다. 재위 기간은 1834~1849년이다.

1645) 순원(純元) : 조선 순조의 비(1789~1857). 김조순의 딸로, 헌종에서 철종 때까지 대왕대비로서 수렴청정을 하여 안동 김씨의 세도를 절정에 이르게 하였다.

1646) 신정(神貞) : 조선 순조의 세자인 익종의 비(妃)(1808~1890). 순조 19년(1819)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1834년에 왕대비가 되었고 광무 3년(1899)에 익왕후(翼王后)로 추존되었다.

1647) 수렴청정(垂簾聽政) : 발을 내리고 정사(政事)를 듣는다는 뜻으로, 나이 어린 임금이 등극(登極)했을 때 왕대비(王大妃)나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왕을 도와서 정사(政事)를 돌봄을 이르는 말.

1648) 김문근(金汶根) : 조선 후기의 문신(1801~1863). 자는 노부(魯夫). 철종 2년(1851)에 딸이 왕비로 책봉되자 영은 부원군(永恩府院君)이 되었고, 금위대장, 영돈령부사 따위를 지냈다. 안동 김씨 세도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1649) 조인영(趙寅永) : 조선 헌종 때의 문신(1782~1850). 자는 희경(羲卿). 호는 운석(雲石). 헌종 1년(1835)에 순원 왕후를 배경으로 한 안동 김씨 일파의 세도 정치에 대항하였고, 헌종 5년에 기해박해를 일으켜 천주교를 탄압하였다. 그 후 네 차례나 영의정을 지냈다. 문집에 ≪운석유고≫가 있다.

1650) 쟁권(爭權) : 권리나 권세를 다툼.
1651) 조만영(趙萬永) : 조선 후기의 문신(1776~1846). 자는 윤경(胤卿). 호는 석애(石厓). 순조 19년(1819)에 딸이 세자빈이 되자 풍은 부원군(豐恩府院君)으로 봉해졌으며, 이후 풍양 조씨의 중심인물로서 안동 김씨와 권력 투쟁을 벌였다. 저서에 ≪동원인물고(東援人物考)≫가 있다.
1652) 김좌근(金左根) : 조선 후기의 문신(1797~1869). 자는 경은(景隱). 호는 하옥(荷屋). 헌종 4년(1838)에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김조순의 아들로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중심인물이었으나 대원군의 집정으로 실각하였다.
1653) 정원용(鄭元容) : 조선 후기의 문신(1783~1873). 자는 선지(善之). 호는 경산(經山). 헌종이 죽자 영의정으로서 원범(元範)의 영립(迎立)을 주장하여 철종으로 즉위하게 하였다. 암행어사 제도의 부활을 건의하여 삼정(三政)의 문란을 다스리고자 노력하였다.
1654) 권돈인(權敦仁) : 조선 후기의 문신(1783~1859). 자는 경희(景羲). 호는 이재(彝齋)・우랑(又閬)・우염(又髯)・번상촌장(樊上村庄)・과지초당노인(瓜地草堂老人). 경상도 관찰사・이조 판서・영의정을 지냈으며, 서화에 뛰어났다.
1655) 경릉(景陵) :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동구릉의 하나. 조선 헌종과 비(妃) 효현 왕후 및 계비(繼妃) 효정 왕후의 능이다.
1656) 철종(哲宗) : 조선 제25대 왕(1831~1863). 이름은 변(昇). 초명은 원범(元範). 자는 도승(道升). 호는 대용재(大勇齋).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순원 왕후의 명으로 궁중에 들어가 즉위하였다. 재위 기간 동안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로 삼정(三政)의 문란이 더욱 심해져 삼남 지방에 민란이 빈발하는 등 백성의 생활이 도탄에 빠졌다. 재위 기간은 1849~1863년이다.
1657) 유충(幼沖) : 나이가 어림.
1658) 좌상(左相) : 좌의정(左議政)의 딴이름.
1659) 김병국(金炳國) : 조선 후기의 대신(1825~1905). 자는 경용(景用). 호는 영어(穎漁). 철종 1년(1850)에 문과에 급제하여, 육조의 판서와 영의정을 지냈다. 안동 김씨 세도의 권세가로, 흥선 대원군의 통상・수교의 거부에 동조하였다.
1660) 김병학(金炳學) : 조선 후기의 문신(1821~1879). 자는 경교(景敎). 호는 영초(穎樵). 철종 4년(1853)에 정시 문과에 급제하고, 장령(掌令)과 사간(司諫)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보수파의 척화론자로서 가톨릭교 탄압을 주장하였다. ≪철종실록≫과 ≪대전회통≫의 편찬에 관여하였다.
1661) 김병기(金炳冀) : 조선 후기의 권신(權臣) (1818~1875). 자는 성존(聖存). 호는 사영(思穎). 훈련대장과 육조의 판서를 두루 지내고, 대원군 집정으로 한때 한직에 머물다가 다시 좌찬성에 올랐다. 저서에 ≪사영집≫이 있다.
1662) 김흥근(金興根) : 조선 후기의 문신(1796~1870). 자는 기경(起卿). 호는 유관(游觀). 지실록사(知實錄事)로 ≪철종실록≫을 편찬하였다. 안동 김씨 세도를 등에 업고 방자한 행동을 많이 하여 광양(光陽)으로 유배되었으나, 뒤에 영의정이 되었다.
1663) 김병덕(金炳德) : 조선 후기의 문신(1825~1892). 자는 성일(聖一). 호는 약산(約山). 이조 판서, 수원부 유수, 우의정, 좌의정 등을 지냈으며, 저서에 ≪속간록(續諫錄)≫이 있다.
1664) 변계량(卞季良) : 고려 말기・조선 전기의 학자(1369~1430). 자는 거경(巨卿). 호는 춘정(春亭). 고려 말 이색의 제자로서 전교, 주부(注簿) 등의 벼슬을 지냈고, 조선 시대에 들어와 권근의 뒤를 이어 20여 년간 대제학을 맡으면서 조선 전기 관인 문학의 규범을 마련하였다. 저서에 문집 ≪춘정집

(春亭集)≫이 있다.
1665) 박팽년(朴彭年) : 조선 세종 때의 집현전 학자(1417~1456). 자는 인수(仁叟). 호는 취금헌(醉琴軒).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세조가 단종을 내쫓고 왕위를 빼앗자 상왕(上王)의 복위를 꾀하다 처형되었다.
1666) 성삼문(成三問) : 조선 세종 때의 문신(1418~1456). 자는 근보(謹甫). 호는 매죽헌(梅竹軒). 집현전 학사로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사육신(死六臣)의 한 사람으로, 세조 원년에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실패하여 처형되었다. 저서에 ≪성근보집(成謹甫集)≫이 있다.
1667) 신숙주(申叔舟) : 조선 초기의 문신(1417~1475). 자는 범옹(泛翁). 호는 보한재(保閑齋)·희현당(希賢堂). 훈민정음 창제에 공을 세웠으며, ≪세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고 ≪동국통감≫·≪오례의≫를 편찬하였다.
1668) 쇠진(衰盡) : 점차 쇠하여 기력이나 세력이 다함.
1669) 고승(高僧) : 학덕이 높은 승려.
1670) 독선기신(獨善其身) : 자기(自己) 한 몸의 선(善)만을 꾀하는 일.
1671) 야소(耶蘇) : 예수.
1672) 정약종(丁若鍾) : 조선 후기의 학자·천주교인(1760~1801). 약용(若鏞)의 셋째 형이다. 이승훈과 함께 청나라의 신부 주문모를 맞아들이고, 천주교회장이 되어 전교(傳敎)에 힘쓰다가 체포되어 처형당하였다.
1673) 불란서(佛蘭西) : 프랑스.
1674) 동학(東學) : ①서울 사학(四學)의 하나. 동부(東部)에 있었음 ②서학(西學)인 천주교(天主敎)에 반대(反對)하여, 최제우(崔濟愚)가 창도한 종교(宗敎). 제3대 교주 손병희 때 천교도(天敎道)로 이름을 바꿈. 인간(人間)이 한울님의 복체(複體)라는 인내천(人乃天)의 진리(眞理)를 전개(展開),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원리(原理)를 내걸고, 유교(儒敎)·불교(佛敎)·도교(道敎)를 절충(折衷)한 것을 종지(宗旨)로 삼았음.
1675) 천도교(天道敎) : 수운(水雲) 崔濟愚(최제우)를 교조로 하는 종교(宗敎). 人乃天(인내천) 곧 天人合一(천인합일)의 지경(地境)에 이름을 그 종지로 함.
1676) 최제우(崔濟愚) : 동학의 창시자(1824~1864). 초명은 복술(福述)·제선(齊宣). 자는 성묵(性默). 호는 수운(水雲)·수운재(水雲齋). 37세 때 동학을 창도하였으며, 후에 사도 난정(邪道亂正)의 죄목으로 체포되어 참형되었다. 저서에 ≪동경대전≫, ≪용담유사≫ 따위가 있다.
1677) 김석문(金錫文) : 조선 시대의 학자(1658~1735). 자는 병여(炳如). 호는 대곡(大谷). 역학에 조예가 깊어 ≪역학도해(易學圖解)≫를 저술하였으며, 숙종 때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통천(通川) 군수를 지냈다.
1678) 정두원(鄭斗源) : 조선 인조 때의 문신(1581~?). 자는 정숙(丁叔). 호는 호정(壺亭). 중국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홍이포(紅夷砲), 천리경, 자명종 따위의 기기와 마테오 리치의 ≪천문서≫, ≪직방외기≫ 따위의 서적과 화약의 제조법을 들여왔다.
1679) 경학(經學) : 경서(經書)를 연구(硏究)하는 학문(學問).
1680) 최치운(崔致雲) : 조선 전기의 문신. 1433년 평안도 절제사 최윤덕의 종사관으로 야인 정벌에 공을 세웠다. 1439년 공조참판 때 계품사로 명나라에 가 야인 회유에 관해 논의하는 등 수차례 사신으로 명나라에 왕래했다.《무원록(無寃錄)》을 주석하고, 율문(律文)을 강해하는 등 형옥(刑獄)에 대한 왕의

자문에 응했다.

1681) 허준(許浚) : 조선 선조 때의 명의(名醫)(1539~1615). 자는 청원(淸源). 호는 구암(龜巖). 어의(御醫)로 있으면서 선조의 명으로 의서 편찬에 착수하여 1610년에 ≪동의보감≫ 25권을 완성하였으며, 각종 의서를 국역하였다.

1682) 동의보감(東醫寶鑑) : 조선 시대에, 의관(醫官)인 허준이 선조의 명에 따라 편찬한 의서(醫書). 선조 29년(1596)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모아 엮어 광해군 2년(1610)에 완성한 것으로, 임상 의학적 방법에 따라 내·외과 따위의 전문과별로 나누어 각 병마다 진단과 처방을 내렸다. 동양에서 가장 우수한 의학서의 하나로 평가되며, 탕약편(湯藥篇)에는 수백 종의 향약명(鄕藥名)이 한글로 적혀 있다. 광해군 5년(1613)에 간행하였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

1683) 강명길(康命吉) : 조선 정조 때의 전의(典醫)(1737~1801). 자는 군석(君錫). 양주 목사(楊州牧使)를 지냈고 정조 때 전의가 되었다. 저서에 ≪제중신편≫이 있다.

1684) 제중신편(濟衆新編) : 조선 정조 때에 강명길이 지은 의서(醫書). ≪동의보감≫을 비롯한 고금의 의서를 참고로 하여 지었으며 제1권에서 제7권까지에는 신체 각 부의 질병에 대한 증상과 약방문을 적고, 제8권에는 중요한 약물의 효능을 4언 4구의 약성가로 짓고 구절마다 약명을 한글로 표기하였다. 8권 5책의 목판본.

1685) 정약용(丁若鏞) : 조선 후기의 학자(1762~1836). 자는 미용(美鏞). 호는 다산(茶山)·사암(俟菴)·자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인(鐵馬山人)·탁옹(籜翁)·태수(苔叟). 문장과 경학(經學)에 뛰어난 학자로, 유형원과 이익 등의 실학을 계승하고 집대성하였다. 신유사옥 때 전라남도 강진으로 귀양 갔다가 19년 만에 풀려났다. 저서에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유표≫ 따위가 있다.

1686) 복서(卜筮) : ①길흉(吉凶)을 알기 위(爲)하여 점(占)을 침 ②또는 그 점(占).

1687) 상문(傷門) : 술가(術家)가 점치는 ' 팔문 ' 가운데의 하나. 구궁(九宮)의 삼벽(三碧)이 본 자리가 되는 흉한 문 임.

1688) 한석봉(韓石峯) : 조선 선조 때의 명필가(1543~1605). 자는 경홍(景洪). 호는 석봉(石峯)·청사(淸沙). 왕희지와 안진경의 필법을 익혀 해서, 행서, 초서 따위의 각 체에 뛰어났다. 추사 김정희와 함께 조선 서예계의 쌍벽을 이루며, <석봉천자문(石峯千字文)>, <석봉서법(石峯書法)> 따위가 전한다.

1689) 김정희(金正喜) : 조선 후기의 문신·서화가(1786~1856). 자는 원춘(元春). 호는 완당(阮堂)·추사(秋史)·시암(詩庵)·예당(禮堂)·노과(老果)·농장인(農丈人)·천축고선생(天竺古先生). 순조 19년(1819)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 참판에 이르렀다. 학문 연구에 대해서는 실사구시를 주장하였고, 서예에서는 추사체를 완성하였다. 고증학, 금석학에도 밝아 북한산에 있던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하였다. 작품에 <묵죽도(墨竹圖)>, <묵란도(墨蘭圖)>, <세한도(歲寒

1690) 박연(朴堧) : 조선 세종 때의 음악가(1378~1458). 자는 탄부(坦夫). 호는 난계(蘭溪). 우리나라 3대 악성(樂聖) 가운데 한 사람으로, 벼슬은 이조 판서, 대제학에 이르렀다. 악기를 개량하고 음계를 조정하였으며 향악을 버리고 아악을 사용하게 하는 등, 궁중 음악을 정비하여 우리나라 고유 음악의 토대를 튼튼히 하였다.

1691) 홍대용(洪大容) : 조선 영조 때의 실학자(1731~1783). 자는 덕보(德保). 호는 담헌(湛軒)·홍지(洪之). 북학파의 대표적 인물로, 천문과 율력에 뛰어나 혼천의를 만들고 지구의 자전설을 제창하였다. 저서에 ≪담헌집≫, ≪주해수용(籌解需用)≫ 따위가 있다.

1692) 피폐(疲弊) : 지치고 쇠약해짐.

1693) 이명윤(李命允) : 조선 후기의 문신. 사헌부 감찰, 정언을 지냈다. 도결(都結)과 통환(統還)의 부당한 부세에 대해 불만을 느껴 관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가 주동자로 몰려 유배되기도 했다.
1694) 진주민란 : 임술민란(壬戌民亂)으로 조선 철종 13년(1862)에 진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한 민란. 삼정(三政)의 문란 등 국내 정치의 혼란과 병마절도사 백낙신의 가혹한 탄압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일으켰다.
1695) 김규진(金奎鎭) : 조선 후기 농민봉기 주도자이다. 1862년 4월 관기(官紀) 문란에 항거, 민폐를 없애라는 '읍폐교구(邑弊矯捄)''의 통문을 돌려 읍민을 선동하다가, 현감 김후근(金厚根)에게 체포되었다.
1696) 김후근(金厚根) :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개령현감으로 있을 때 그의 탐욕과 폭정에 대항하여 일으난 민란을 진압하였으나 문책을 당하고 유배되었다.
1697) 파출(罷黜) : 파면(罷免)의 별칭.
1698) 정한순(鄭翰淳) : 조선 철종 때 일어난 함평민란의 주동자이다. 현감이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조세를 부당하게 징수하자, 이에 항의하여 폭동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1699) 기치(旗幟) : 군대에서 쓰던 깃발.
1700) 죽창(竹槍) : 대로 만든 창.
1701) 난입(亂入) : 어지럽게 함부로 들어감.
1702) 혹세무민(惑世誣民) : 세상(世上)을 어지럽히고 백성(百姓)을 속이는 것.
1703) 전봉준(全琫準) : 조선 후기 동학 농민 운동의 지도자(1855~1895). 초명・자는 명숙(明叔). 호는 해몽(海夢). 고부 군수 조병갑의 수탈에 항거하여 동학 농민 운동을 일으켜 맹위를 떨쳤으나,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하여 이듬해에 처형되었다.
1704) 후사(後嗣) : 대를 잇는 자식.
1705) 흥선군(興宣君) : 조선 후기의 왕족·정치가. 고종의 즉위로 대원군에 봉해지고 섭정이 되었다. 당파를 초월한 인재등용, 서원철폐, 법률제도 확립으로 중앙집권적 정치기강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경복궁 중건으로 백성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쇄국정치를 고집함으로써 국제관계가 악화되고 외래문명의 흡수가 늦어지게 되었다. 임오군란(壬午軍亂), 갑오개혁 등으로 은퇴와 재집권을 반복하였다.
1706) 민치록(閔致祿) : 명성황후의 아버지로 조선 제26대 고종의 장인이다. 본관은 여흥(驪興), 시호는 효정(孝貞)이다. 첨정(僉正)을 지냈다. 죽은 후 1866년(고종 3) 딸이 왕후로 책봉됨으로써 영의정・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에 추증되었다.
1707) 남종삼(南鍾三) : 조선 시대의 천주교인(1817~1866). 자는 증오(曾五). 호는 연파(煙波)・중재(重齋). 세례명은 요한. 천주교를 공인받으려 하다가 이선이(李先伊)의 고발로 프랑스 선교사 아홉 명과 함께 피살되었는데, 이것이 병인양요의 계기가 되었다.
1708) 쇄국주의(鎖國主義) : 다른 나라와의 통상과 교역에 반대하는 사상.
1709) 정의배 : 조선 시대의 가톨릭교 순교자(1794~1866). 세례명은 마르코. 기해박해 때에 순교자들의 태도에 감동하여 46세로 입교한 후에 가톨릭교 전교(傳敎)에 힘쓰다가 병인박해 때에 순교하였다.
1710) 투묘(投錨) :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 닻을 내림.
1711) 이경하(李景夏) : 조선 고종 때의 무신(1811~1891). 자는 여회(汝會). 금위대장과 형조 판서 등 무관의 주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대원군의 신임을 받아 포도대장으로 있을 때 많은 가톨릭교도를 학살하였다.

1712) 소청(疏請) : 임금에게 상소하여 청함.
1713) 친정(親政) : 임금이 몸소 정사를 돌봄.
1714) 통상조약(通商條約) : 두 나라 사이에 통상(通商). 항해(航海)에 관(關)한 동일(同一)한 권리(權利). 의무(義務) 등(等)의 사항(事項) 및 이에 부수(附隨)되는 당사국(當事國) 국민(國民)의 입국(入國). 거주(居住) 및 영사교환(領事交換) 등(等)에 관(關)한 사항(事項)을 협의(協議) 규정(規定)한 조약(條約). 상품(商品)의 생산(生産) 교환(交換) 및 판로(坂路)의 개척(開拓) 등(等)의 관계(關係)에 있어서 서로의 이해(利害)를 조정(調整)하는 목적(目的) 아
1715) 김옥균(金玉均) : 조선 고종 때의 정치가(1851~1894). 자는 백온(伯溫). 호는 고균(古筠)·고우(古愚). 근대 부르주아 혁명을 지향했던 급진 개화파의 지도자로 갑신정변을 주도하였으며, 우리나라 개화사상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종 31년(1894)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자객 홍종우(洪鍾宇)에게 살해되었다. 저서에 ≪기화근사(箕和近事)≫, ≪치도약론(治道略論)≫, ≪갑신일록(甲申日錄)≫ 따위가 있다.
1716)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 구한말에, 정치·군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여 맡아보던 관아. 고종 17년(1880)에 설치하였는데, 19년(1882)에 통리내무아문과 통리아문으로 나누었다.
1717) 신정희(申正熙) : 조선 고종 때의 장군(1833~1895). 자는 중원(中元). 호는 향농(香農). 어영대장, 독판내무부사를 거쳐 통위사를 지냈다. 편서(編書)에 ≪훈련도감중기(訓練都監重記)≫가 있다.
1718) 민겸호(閔謙鎬) : 조선 고종 때의 문신(1838~1882). 자는 윤익(允益). 민승호의 아우로,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선혜청 당상(堂上)에 올랐으나 임오군란 때 피살되었다.
1719) 국휼(國恤) : 국상(國喪).
1720) 임오군란(壬午軍亂) : 조선 고종 19년(1882)인 임오년에 구식 군대의 군인들이 신식 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와 밀린 급료에 불만을 품고 군제 개혁에 반대하며 일으킨 난리. 이를 계기로 다시 정권을 잡은 대원군은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는 등, 사태 수습에 노력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여 청나라에 압송되었으며, 조정은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맺게 되었다.
1721) 오장경(吳長慶) : 중국 청나라의 장군(1833~1884). 임오군란 때 민씨(閔氏) 일파의 요청으로 병력을 이끌고 서울에 진주하여 대원군을 청나라로 압송하였으며, 민씨 정권의 배후를 뒷받침하여 주다가 이듬해 철수하였다.
1722) 김홍집(金弘集) : 구한말의 정치가(1842~1896). 초명은 굉집(宏集). 자는 경능(敬能). 호는 도원(道園)·이정학재(以政學齋). 임오군란 뒤에 한국 전권 부관(全權副官)으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였다. 내각 총리대신이 되어 <홍범 14조>를 발표하였으며 갑오개혁을 단행하였다. 과격한 개혁과 아관파천으로 친러파 내각에 밀려나게 되었고 광화문에서 폭도들에게 피살되었다. 저서에 ≪이정학재일록(以政學齋日錄)≫이 있다.
1723) 박영효(朴泳孝) : 구한말의 친일 정치가(1861~1939). 자는 자순(子純). 호는 춘고(春皐)·현현거사(玄玄居士). 정치적 혁신을 부르짖어 김옥균 등과 개화당을 조직하여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사대당(事大黨)에 패하여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귀국하여 김홍집 내각의 내무 대신, 이완용 내각의 궁내부 대신을 지냈다. 국권 강탈 후 일본으로부터 후작(侯爵)을 받고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
1724) 김옥균(金玉均) : 조선 고종 때의 정치가(1851~1894). 자는 백온(伯溫). 호는 고균(古筠)·고우(古愚). 근대 부르주아 혁명을 지향했던 급진 개화파의 지도자로 갑신정변을 주도하였으며, 우리나라 개화사상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종 31년(1894)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자객 홍종우(洪鍾宇)

에게 살해되었다. 저서에 ≪기화근사(箕和近事)≫, ≪치도약론(治道略論)≫, ≪갑신일록(甲申日錄)≫ 따위가 있다.

1725) 홍영식(洪英植) : 구한말의 문신(1855~1884). 자는 중육(仲育). 호는 금석(琴石). 박영효, 김옥균 등과 독립당을 조직하고, 이듬해 우정국의 낙성식을 계기로 갑신정변을 일으켜 혁신 내각의 우의정이 되었으나, 삼일천하로 끝나고 대역 죄인으로 몰려 처형되었다.

1726) 서광범(徐光範) : 구한말의 정치가(1859~?1897). 자는 서구(敍九). 호는 위산(緯山).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자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갑오개혁 후에 법무 대신을 거쳐 주미 공사(駐美公使)로 부임하였다.

1727) 서재필(徐載弼) : 독립운동가・정치가(1864~1951). 호는 송재(松齋). 김옥균 등과 일으킨 갑신정변의 실패로 일본과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였다. 후에 귀국하여 독립 협회를 조직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하였다.

1728) 패주(敗走) : 전쟁에 져 달아남.

1729) 갑신정변(甲申政變) : 조선 고종 21년(1884)에 김옥균, 박영효 등의 개화당이 민씨 일파를 몰아내고 혁신적인 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일으킨 정변. 거사 이틀 후에 민씨 등의 수구당과 청나라 군사의 반격을 받아 실패로 돌아갔다.

1730) 이등박문(伊藤博文) : 이토 히로부미. 일본의 정치가(1841~1909). 막부 정권 타도에 앞장섰으며, 총리대신과 추밀원 의장을 지냈다. 주한 특파 대사로서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으며, 1905년에 초대 조선 통감으로서 우리나라 국권 강탈을 준비하던 중, 1909년에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피살되었다.

1731) 천진조약(天津條約) : 톈진조약. 1885년에 중국의 톈진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조약.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이홍장이 조선에 있는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를 철수할 것과 군대를 조선에 다시 파견할 때는 서로에게 미리 알릴 것을 합의하였다.

1732) 철퇴(撤退) : 거두어 가지고 물너남.

1733) 매관매직(賣官賣職) :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킴.

1734) 최시형(崔時亨) : 동학의 제2대 교주(1827~1898). 초명은 경상(慶翔). 자는 경오(敬悟). 호는 해월(海月). 경전(經典)을 간행하여 교리를 확립하고 교단의 조직을 강화하였다. 고종 29년(1892)에 동학 탄압에 분개하여 교조(敎祖)의 신원(伸寃)을 상소하였고, 1897년 손병희에게 도통을 전수하였다. 1898년 3월 원주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6월 2일 교수형을 당하였다.

1735) 전봉준(全琫準) : 조선 후기 동학 농민 운동의 지도자(1855~1895). 초명・자는 명숙(明叔). 호는 해몽(海夢). 고부 군수 조병갑의 수탈에 항거하여 동학 농민 운동을 일으켜 맹위를 떨쳤으나,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하여 이듬해에 처형되었다.

1736) 조병갑(趙秉甲) : 조선 고종 때의 탐관. 고종 29년(1892) 고부 군수로 부임하여 만석보(萬石洑)를 증축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부친의 비각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강제로 징수하는 따위의 온갖 폭정을 자행하였다. 그의 폭정은 동학 농민 운동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1737) 도륙(屠戮) : 사람이나 동물을 무참하게 죽임.

1738) 홍계훈(洪啓薰) : <인명> 조선 고종 때의 무신(?~1895). 자는 성남(聖南). 호는 규산(圭珊). 동학 농민 운동 때에 양호 초토사(兩湖招討使)가 되어 관군 8백 명을 이끌고 전주성을 수복하였으며 이후 을미사변 때에 훈련대장으로 광화문을 지키다가 순직하였다.

1739) 김개남(金開男) : 구한말의 동학 접주(1853~1895). 자는 기선(箕先)・기범(箕範). 전봉준 다음가는 남접(南接)의 지도자로, 한때 남원을 점거하여 동학 군정(軍政)을 실시하였다. 일본군과 합세한 관군에게 잡혀 처형되었다.
1740) 하관(下官) : 아래 직위에 있는 벼슬아치가 상관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1741) 조혼(早婚) :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함.
1742) 사대사상(事大思想) : 세력이 강한 나라나 사람을 좇아 의지하려는 사상.
1743) 종두법(種痘法) :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하여 백신을 인체의 피부에 접종하는 방법.
1744) 단발령(斷髮令) : 조선 고종 32년(1895) 11월에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상투 풍속을 없애고 머리를 짧게 깎도록 한 명령. 이를 계기로 의병 활동이 확산되었다.
1745) 갑오경장(甲午更張) : 갑오개혁의 전 이름.
1746) 이완용(李完用) : 조선 고종 때의 친일파(1858~1926). 자는 경덕(敬德). 호는 일당(一堂). 1910년에 총리대신으로 정부의 전권 위원이 되어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는 등 민족을 반역하였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백작(伯爵)을 받고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냈다.
1747) 친일파(親日派) : 일제 강점기에, 일제와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약탈 정책을 지지・옹호하여 추종한 무리.
1748) 시살(弑殺) : 부모나 임금을 죽임.
1749) 을미사변(乙未事變) : 조선 고종 32년(1895)에 일본의 자객들이 경복궁을 습격하여 명성 황후를 죽인 사건.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등이 친러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파천하였다.
1750) 이범진(李範晉) : <인명> 구한말의 문신(1852~1910). 호는 성삼(聖三). 고종 16년(1879)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협판내무부사 따위를 지냈다. 을미사변으로 친일파가 정권을 잡자 러시아에 망명, 이듬해 귀국하여 러시아 공사 베베르, 이완용 등과 아관 파천을 단행하여 친러파 내각의 법부대신이 되었다.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 친일파가 득세하자 다시 러시아로 망명하였다가 1910년 자결하였다.
1751) 건곤일척(乾坤一擲) : 주사위를 던져 승패를 건다는 뜻으로, 운명을 걸고 단판걸이로 승부를 겨룸을 이르는 말.
1752) 이상재(李商在) : 정치가・종교가(1850~1927). 자는 계호(季皓). 호는 월남(月南). 1888년에 주미 공사 서기로 부임하였으며 귀국 후에 의정부 참찬을 지냈고, 서재필과 독립 협회를 조직하여 민중 계몽에 힘썼다. 3・1 운동 후 조선일보 사장을 거쳐 1906년에 기독교 청년회장이 되었다. 1927년에 신간회 초대 회장에 추대되었다.
1753) 윤치호(尹致昊) : <인명> 구한말의 정치가(1865~1945). 호는 좌옹(佐翁). 윤웅렬의 아들. 신사 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와서 개화 사상에 눈을 뜬 후 미국에 유학하였다. 서재필 등과 독립 협회를 조직하였으며, 국권 강탈 후 총독 암살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6년형을 받았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 귀족원 의원을 지냈으며 광복 후 일본에 협력한 것을 자탄하다가 자결하였다.
1754) 홍종우(洪鍾宇) : 구한말 수구파의 정객(政客)(1854~?). 김옥균을 중국 상하이(上海)로 유인하여 암살하고, 황국 협회를 조직하고 보부상을 동원하여 독립 협회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1755) 황국협회(皇國協會) : 독립협회에 대항하려고 정부가 조직한 단체.
1756) 노서아(露西亞) : 러시아.

1757) 권중현(權重顯) : 구한말의 대신(1854~1934). 초명은 재형(在衡). 호는 경농(經農). 법부대신・군부대신을 지냈으며, 1905년에 을사조약 체결에 찬성하여 을사오적의 한 사람으로 규탄받았다.
1758) 박제순(朴齊純) : 조선 고종 때의 문신(1858~1916). 호는 평재(平齋). 이완용 내각의 내무대신을 지내면서 을사조약에 서명하여 을사오적(乙巳五賊)의 한 사람으로 불린다. 1910년에는 한일 합병 조약에 서명하였다.
1759) 이지용(李址鎔) : 조선 시대의 대신(1870~?). 초명은 은용(垠鎔). 자는 경천(景天). 호는 향운(嚮雲). 을사오적의 한 사람으로, 1904년 외무대신 서리로서 한일 의정서에 찬성 조인하였으며, 이듬해 내무대신으로 을사조약에 조인하였다.
1760) 이근택(李根澤) : 대한 제국 때의 대신・친일파(1865~1919). 광무 1년(1897)에 친위 연대 제3대대장으로 장윤선(張允善) 등과 정부 전복을 모의하다 발각되어 제주도에 귀양 갔다. 이듬해 풀려나서 한성부 판윤 등 요직을 거쳐 광무 9년(1905)에 군부 대신으로 있으면서 을사조약의 체결에 찬성하여 오적신(五賊臣)의 하나로 지탄을 받았다.
1761) 민영환(閔泳煥) : <조선 고종 때의 문신(1861~1905). 자는 문약(文若). 호는 계정(桂庭). 특명전권 공사로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에 특파되었고,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약의 폐기를 상소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국민과 각국 공사에게 고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1762) 국치민욕(國恥民辱), 내지어차(乃至於此) 도이일사(徒以一死) 앙보황은(仰報皇恩) 행아동포(: 嗚呼라. 國恥民辱이 乃至於此하니 我人民은 將且殄滅於生存競爭之中矣리라. 夫要生者는 必死하고 期死者는 得生이니, 諸公은 豈不諒只아. 泳煥은 徒以一死로 仰報皇恩하고 以謝我二千萬同胞兄弟하노라. 泳煥은 死而不死하고 期助諸君於九泉之下하리니, 幸我同胞兄弟는 益加奮勵하고 堅乃志氣하여 勉其學問하며, 決心毅力하여 復我自主獨立이면 則死子當喜笑於冥冥之中矣리라.(오호라, 나라의 수치와 백성의 욕됨이 바로 여기에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하는 가운데에 모두 멸망하
1763) 나인영(羅寅永) : 나철. 대종교의 창시자(1863~1916). 본명은 인영(寅永). 호는 홍암(弘巖).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나라를 판 대신들을 죽이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융희 3년(1909)에 대종교의 교리를 포교하였고, 저서에 ≪삼일신고≫ 등이 있다.
1764) 오기호(吳基鎬) : 독립운동가(1863~?). 호는 손암(巽庵). 1905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천황 및 이토 히로부미 등에게 통감 정치의 무단적(武斷的) 학정을 호소하는 서안을 보내고,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을사오적(乙巳五賊)을 처단하기 위하여 자신회(自新會)를 조직하였다.
1765) 송병선(宋秉璿) : 조선 고종 때의 문신(1836~1905). 자는 화옥(華玉). 호는 연재(淵齋). 좨주를 거쳐 대사헌을 지냈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을 경계할 것을 상소하고 고향에 가서 자살하였다.
1766) 홍만식(洪萬植) : 구한말의 문신(1842~1905). 자는 백헌(伯憲). 호는 호운(湖雲). 동생 영식(英植)이 김옥균 등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자 투옥되었으며,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격분하여 음독자살하였다.
1767) 조병세(趙秉世) : 조선 고종 때의 문신・순국열사(1827~1905). 자는 치현(穉顯). 호는 산재(山齋). 고종 26년(1889)에 우의정이 되었고, 갑오개혁 이후 은거하였다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약의 무효를 상소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결하였다.
1768) 봉패(逢敗) : 낭패를 당함.
1769) 이준(李儁) : 조선 고종 때의 대신(1859~1907). 자는 순칠(舜七). 호는 일성(一醒)・해사(海史)・청하(靑霞)・해옥(海玉). 독립 협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으며, 일본의 황무지 개척을 저지하기 위

한 대한 보안회, 공지회 등을 조직하였다. 1907년 고종의 밀사로 이상설, 이위종과 함께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참석하여 일본의 침략 행위를 세계에 호소하고자 하였으나 일본 측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순국하였다.

1770) 이상설(李相卨) : <독립운동가(1870~1917). 자는 순오(舜五). 호는 부재(溥齋). 광무 8년(1904)에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여, 의정부 참찬을 지냈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약의 폐기를 상소하였고, 1907년에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헤이그에서 열리는 평화 회의에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호소하려 하였으나 참석할 자격을 얻지 못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1771) 이위종(李瑋鍾) : 조선 고종 때의 외교관・독립운동가(1887~?). 제정 러시아 주재 공사관의 참사관을 지냈다. 1907년 이준, 이상설과 함께 제이 차 만국 평화 회의에 참석하러 헤이그에 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1772) 전위(傳位) : 왕위를 물려줌.

1773) 고영희(高永喜) : 구한말의 대신(1849~?). 신사 유람단(紳士遊覽團)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왔고 탁지대신을 지냈으며 변절하여 국권 강탈을 지지하는 등 일제의 앞잡이로 활동하였다.

1774) 윤덕영(尹德榮) : <인명> 구한말의 문신(1873~1940). 국권 강탈 때, 시종원경(侍從院卿)으로서 순종(純宗)을 강요하여 조약 문서에 옥새를 찍게 하였다.

1775) 무단정치(武斷政治) : 무단을 앞세워 행하는 강압적인 정치.

1776) 우국지사(憂國之士) :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

1777) 손병희(孫秉熙) : 항일 독립운동가(1861~1922). 자는 응구(應九)・규동(奎東). 호는 의암(義菴). 1882년 천도교에 입교하여 1887년에 제3대 대도주(大道主)가 되었다. 3・1 운동 때는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다.

1778) 안창호(安昌浩) : 독립운동가(1878~1938). 호는 도산(島山). 신민회, 청년 학우회, 흥사단을 조직하고, 평양에 대성 학교를 설립하였다. 3・1 운동 후 상하이(上海) 임시 정부의 내무 총장이 되어 독립운동을 하였다.

1779) 이승만(李承晩) : 독립운동가・정치가(1875~1965). 호는 우남(雩南). 개화 운동에 투신하여 독립 협회의 간부로 활약하다가 투옥되었다. 이후 미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상하이 임시 정부 대통령을 지냈다. 광복 후 1948년에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장기 집권을 위한 부정 선거를 자행하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실각하여 하와이로 망명한 후 병사하였다.

1780) 김구(金九) : 독립운동가・정치가(1876~1949). 자는 연상(蓮上). 호는 백범(白凡)・연하(蓮下). 본명은 창수(昌洙). 동학 농민 운동을 지휘하다가 일본군에 쫓겨 만주로 피신하여 의병단에 가입하였고, 3・1 운동 후 중국 상하이(上海)의 임시 정부 조직에 참여하였다. 1928년 이시영 등과 함께 한국 독립당을 조직하여 이봉창, 윤봉길 등의 의거를 지휘하였다. 1944년 임시 정부 주석으로 선임되었고, 8・15 광복 이후에는 신탁 통치와 남한 단독 총선을 반대하

1781) 신익희(申翼熙) : 독립운동가・정치가(1894~1956). 호는 해공(海公). 임시 정부의 외무부장, 내무부장을 지냈고, 8・15 광복 후에는 제헌 국회 의장, 제2대 국회 의장에 당선되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거 유세 중 병사하였다.

1782) 이봉창(李奉昌) : 독립운동가(1900~1932). 1932년 1월 8일 도쿄 사쿠라다몬(櫻田門)에서 관병식(觀兵式)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본 천황 히로히토(裕仁)에게 수류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검거되어 순국하였다. 1962년 건국 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1783) 윤봉길(尹奉吉) : 의사(義士)(1908~1932). 호는 매헌(梅軒). 3·1 운동이 계기가 되어 애국 운동을 벌이다가 탄압을 받게 되자 1930년 상하이로 가서 김구의 한인 애국단에 가입하였다. 1932년 4월 29일 훙커우(虹口) 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천장절(天長節) 축하식장에 폭탄을 던져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則) 대장을 죽이고 기타 요인에게 부상을 입힌 뒤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오사카에서 순국하였다.

1784) 강우규(姜宇奎) : 독립운동가(1855~1920). 자는 찬구(燦九). 호는 일우(日愚). 1911년에 만주로 건너가 지린(吉林)에 동광(東光)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였다. 1919년 9월에는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를 죽이기 위하여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1785) 나석주(羅錫疇) : 독립운동가(1892~1926). 3·1 운동 후에 중국으로 망명하여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1926년 12월 28일에 동양 척식 주식회사와 식산 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자결하였다.

1786) 이범석(李範奭) : 독립운동가·정치가(1900~1972). 호는 철기(鐵驥). 1915년 중국으로 망명, 1919년 만주 청산리 전투에 김좌진을 도와 중대장으로 참가하여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광복 후 귀국하여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 장관, 국토 통일원 고문, 자유당 부당수 따위를 역임하였다.

1787) 김좌진(金佐鎭) : 독립운동가·장군(1889~1930). 자는 명여(明汝). 호는 백야(白冶). 3·1 운동 때에 만주에 들어가 북로 군정서를 조직하고 총사령이 되어 사관 양성소를 설립하고 병력을 양성하였다. 1920년에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뒤에 공산당원에게 저격당하였다.

1788) 청산리작전 : 청산리대첩. 1920년에 김좌진을 총사령으로 한 독립군이 만주(滿洲)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쳐부순 싸움.

1789) 백정기(白貞基) : 독립운동가(1896~1934). 호는 구파(鷗波). 1933년 주중(駐中) 일본 대사를 암살하려다가 잡혀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나가사키(長崎) 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

1790) 배일(排日) : 일본사람이나 일본 문물, 사상 등을 배척함.

1791) 김상옥(金尙沃) : 독립운동가(1901~1969). 3·1 운동 후 만주 천마산(天摩山)을 근거로 독립군을 조직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주재소 등을 습격하였다. 1923년에는 주만 참의부(駐滿參議部) 중대장으로 활약하였다.

1792) 편강렬(片康烈) : 독립운동가(1892~1928). 호는 애사(愛史). 3·1 운동 때 구월산 주비대를 조직하여 일본군과 싸웠으며, 만주에서 의성단(義成團)을 조직하여 활약하였다.

1793) 오동진(吳東振) : 독립운동가(1889~?). 호는 송암(松菴). 1920년에 광복군에 총영장(總營長)이 되어 독립군을 지휘하고, 1926년에는 고려 혁명당을 조직하여 일본의 군사 시설과 경찰서를 파괴, 습격하다가 체포되어 옥사하였다.

1794) 김지섭(金祉燮) : 독립운동가(1885~1928). 호는 추강(秋岡). 3·1 운동에 참여한 뒤,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1924년에 일본 궁성(宮城)의 니주바시(二重橋)에 폭탄을 던지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복역 중 병사하였다.

1795) 의거(義擧) : 정의를 위하여 일으키는 의로운 일.

1796) 유관순(柳寬順) : 독립운동가(1902~1920). 여성으로서 18세 때 이화 학당 고등과 1년생으로 3·1 운동에 참가한 뒤, 고향인 천안에 내려가서 아우내 장날을 기하여 만세를 삼창하며 시위하다 왜경에 체포된 후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1797) 남자현(南慈賢) : 여성 독립운동가(1872~1933). 3·1 운동 때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과 여

성 계몽에 힘썼다. 1933년 일본군 장교를 살해하려다 체포되어, 옥중에서 항쟁하던 중 병보석으로 출감한 뒤 객사하였다.

1798) 신채호(申采浩) : 사학자・독립운동가・언론인(1880~1936). 호는 단재(丹齋)・단생(丹生)・일편단생(一片丹生). 성균관 박사를 거쳐,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등에 강직한 논설을 실어 독립 정신을 북돋우고, 국권 강탈 후에는 중국에 망명하여 독립운동과 국사 연구에 힘쓰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사하였다. 저서에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朝鮮史硏究草)≫ 따위가 있다.

1799) 장개석(蔣介石) : 중국의 군인・정치가・중화민국의 총통(1887~1975). 이름은 중정(中正). 쑨원(孫文)에게 배웠으며, 국민당 혁명군 총사령관이 되어 북벌(北伐)에 성공하고 난징(南京) 정부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항일전에 힘썼으며, 헌정(憲政)하의 초대 총통에 취임하였으나 중공과의 전투에 패하여 정부를 대만으로 옮겼다.

1800) 천도(遷都) : 도읍을 옮김.

1801) 물심양면(物心兩面) :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두 방면.

1802) 면면촌촌(面面村村) : 모든 동네마다.

1803) 창씨개명(創氏改名) : 일제가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한 일. 1940년에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말살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광복 후 1946년 조선 성명 복구령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

1804) 내선일체(內鮮一體) :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는 뜻으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조선인의 정신을 말살하고 조선을 착취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구호.

1805) 전폐(全廢) : 아주 없애 버림.

1806) 고립무원(孤立無援) : 고립되어 구원받을 데가 없음.

1807) 안재홍(安在鴻) : 독립운동가・정치가(1891 ~1965). 호는 민세(民世). 3・1 운동 이후 대한 청년 외교단을 조직하여 활약하고, 1923년 ≪시대일보≫를 창간하였다. 광복 후 국민당을 조직하였고, ≪한성일보≫ 사장・미 군정청 민정 장관・제2대 국회 의원 등을 지냈다.

1808) 김병로(金炳魯) : 법조인・정치가(1887~1964). 호는 가인(街人). 일본에 유학 중 ≪학지광≫의 편집장을 지냈고, 1927년에는 신간회의 중앙 집행 위원장을 지냈다. 8・15 광복 후 한민당(韓民黨) 창설에 참여하고, 대법원장 등을 지냈다.

1809) 유진오(兪鎭午) : 헌법학자・정치가・소설가(1906~1987). 호는 현민(玄民). 1927년 무렵부터 <조선지광> 등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하였다. 1948년에 새 정부 수립을 위한 헌법을 기초하였고, 법제처장・한일 회담 대표・신민당 당수 및 제7대 국회 의원・고려대 총장을 지냈다. 저서에 ≪헌법 강의≫, 작품에 소설집 ≪유진오 단편집≫・≪김 강사와 T 교수≫, 수필집 ≪젊은 날의 자화상≫ 따위가 있다.

1810) 장택상(張澤相) : 정치가(1893~1969). 호는 창랑(滄浪). 광복 후 수도 경찰청장을 지냈으며, 정부 수립 후에 초대 외무부 장관이 되었고 국무총리를 역임하였으며, 5・16 군사 정변 후에는 재야 정치인으로 활동하였다.

1811) 김도연(金度演) : 정치가(1894~1967). 호는 상산(常山). 입법 의원과 제헌 국회 의원을 거쳐 초대 재무부 장관을 지내고, 3・4・5대 민의원과 6대 국회 의원을 지냈다. 저서에 ≪나의 인생 백서≫, ≪한국 농촌 경제≫ 따위가 있다.

1812) 조봉암(曺奉巖) : 정치가(1898~1959). 호는 죽산(竹山). 1919년 3・1 운동에 참가하여 복역하

였고, 1925년 조선 공산당에 참여하였으나 광복 후 공산당을 탈당하였다. 1952년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여 낙선하였으며, 1956년 진보당을 창당하고 정치 활동을 벌이다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사형되었다.

1813) 임영신(任永信) : 교육자(1899~ 1977). 호는 승당(承堂). 3·1 운동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중앙 보육 학원을 인수하여 현재의 중앙 대학교로 키웠다. ≪상공일보≫와 ≪경제일보≫의 사장을 지내는 등 언론계에서도 활약하였다.

1814) 전진한(錢鎭漢) : 정치가(1901~1972). 호는 우촌(牛村). 대한 노동 총연맹 위원장과 초대 사회부 장관을 지냈으며, 5선 국회 의원을 지냈다.

1815) 송진우(宋鎭禹) : 정치가(1901~1972). 호는 우촌(牛村). 대한 노동 총연맹 위원장과 초대 사회부 장관을 지냈으며, 5선 국회 의원을 지냈다.

1816) 여운형(呂運亨) : 독립운동가·언론가·정치가(1886~1947). 호는 몽양(夢陽). 대한민국 임시 정부 조직에 참가하였으며, 조선중앙일보사 초대 사장을 지냈다. 광복 후에는 건국 준비 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여 좌우익의 합작을 추진하다가 1947년에 암살당하였다.

1817) 장덕수(張德秀) : 독립운동가·정치가(1895~1947). 호는 설산(雪山).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광복 후에, 송진우 등과 함께 한국 민주당을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암살되었다.

1818) 공비(共匪) : 공산당의 유격대.

1819) 동족상잔(同族相殘) : 같은 겨레끼리 싸우고 죽임.

1820) 함태영(咸台永) : 독립운동가·종교인·정치가(1873~1964). 호는 송암(松岩). 3·1 운동 때에 민족 대표 48인의 한 사람으로 투옥된 후에 출옥하여 목사가 되어 교회 사업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8·15 광복 후에 심계원장, 한국 신학 대학장을 거쳐 1952년에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1821) 이기붕(李起鵬) : 정치가(1896~1960). 호는 만송(晩松). 8·15 광복 후, 이승만의 비서로 자유당 창당에 참여하고 서울특별시장과 국방부 장관 및 민의원 의장 따위를 지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과 폭력에 의한 선거로 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4월 혁명으로 사임하고 자결하였다.

1822) 조병옥(趙炳玉) : <인명> 독립운동가·정치가(1894~1960). 호는 유석(維石). 초명은 병갑(炳甲). 광주 학생 항일 운동과 수양 동지회(修養同志會) 사건 따위로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 한국 민주당 창당에 참여하였으며, 196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천을 받았으나 신병으로 미국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사하였다.

1823) 하야(下野) : 대통령등의 권력자가 자리에서 물러남.

1824) 사일구혁명(四一九革命) : <정치> 1960년 4월에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벌인 민주 항쟁. 4월 19일에 절정에 달하였으며, 4월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제2 공화국이 탄생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1825) 허정(許政) : 정치가(1896~1988). 호는 우양(友洋). 3·1 운동에 참가한 후에 중국으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참여하였다. 광복 후에 3·15 부정 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승만 대통령을 이어 과도 내각 수반을 지냈다. 저서에 ≪내일을 위한 증언≫ 따위가 있다.

1826) 윤보선(尹潽善) : 정치가(1897~1990). 호는 해위(海葦). 1954년 3대 민의원으로 정계에 투신하여, 1960년 4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신한당 총재, 국민당 총재, 신민당 총재 등을 지냈다. 저서로 ≪구국(救國)의 가시밭길≫ 따위가 있다.

1827) 장면(張勉) : 정치가(1899~1966). 호는 운석(雲石). 1936년 동성(東星) 상업 학교 교장에 취임하였고, 1948년 제헌 국회 의원, 초대 주미 대사, 국무총리 등을 지냈다. 신익희 등과 민주당을 조직하여 1956년 부통령에 당선되었고, 4·19 혁명 후 제이 공화국의 국무총리를 지냈다.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